2017-2021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 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이응노마을 문화재생 '별의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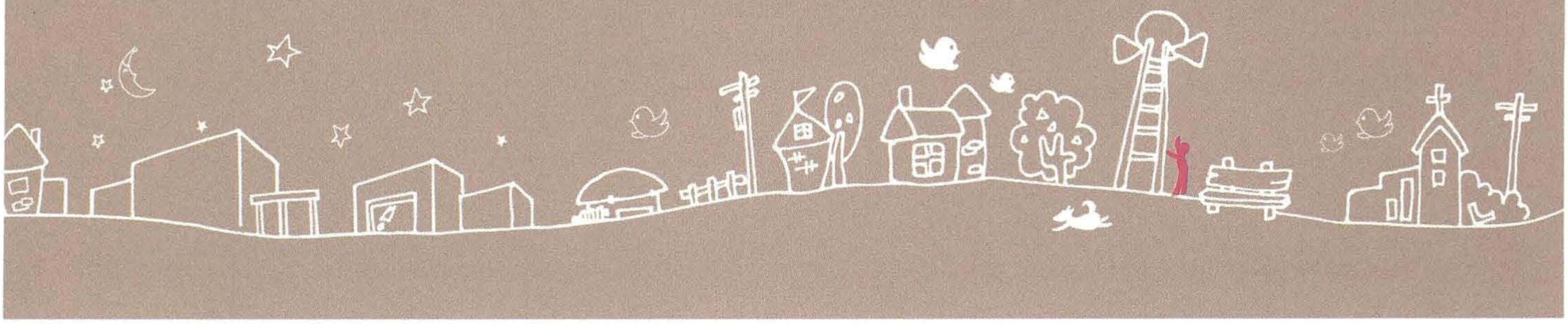


주관 :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홍성군

2017-2021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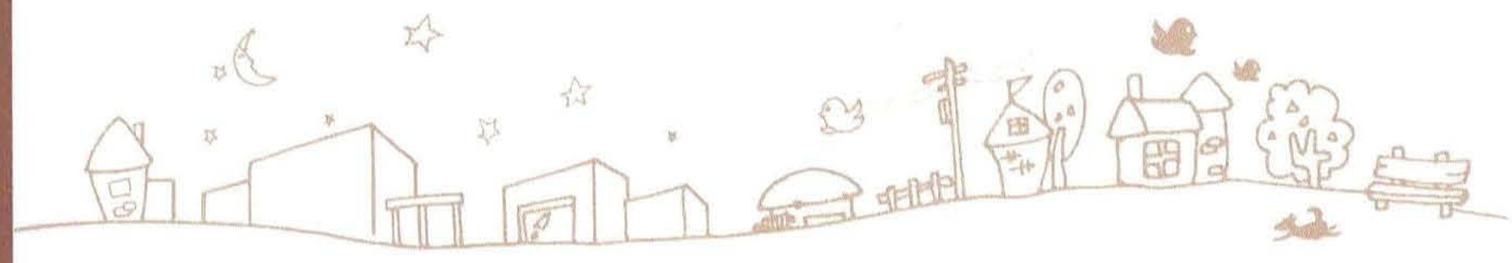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이응노마을 문화재생 '별의별' 이야기



2017-2021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 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6 **4(+1년) 활동을 마치며**
- 양주명(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장)
- 전상진(이응노마을사업 기록집 편집인)

9 **Ⅰ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1.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2.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컨설팅
3.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실행(2017~2021)
   1)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에 들어가며
   2)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을 마치며

23 **Ⅱ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활동**
– 2018~2021년 이응노마을추진위원회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운영회의
1. 2018~2021년 마을사업추진위원회 주민설명회
2. 2018년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운영회의
3. 2019년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운영회의
4. 2020년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운영회의
5. 2021년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운영회의

87 **Ⅲ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관련 〈이응노마을신문 발행〉**
1. 이응노마을신문 제31호(2017년 12월) – 1면 표지이야기
2. 이응노마을신문 제32호(2019년 01 · 02월) – 1면 표지이야기

95 **Ⅳ 이응노마을 주민역량강화 사업**
1. 2019년 이응노마을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1) 이응노마을 주민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2) 이응노마을 리더(추진위원) 교육관련 선진지 연수
   3) 이응노마을 리더와 행정기관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2. 2020~2021년 이응노마을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3. 이응노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강좌
– 2020년 마을 주민역량강화 '협동조합'관련 교육

133 Ⅴ 이응노마을 주민생활예술교육 및 공방교육프로그램 운영
1. 2018~2019년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2. 2020~2021년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143 Ⅵ 이응노마을 '별의별' 시설 · 공간 설치재생 및 활용방안
1. 2018~2021년 이응노마을 '별의별' 시설 · 공간 설치재생
2. 2018~2021년 이응노마을 '별의별' 상징조형물 설치조성
– 2019년 이응노마을 상징조형물 · 안내도 · 이정표 설치조성
– 2021년 이응노마을 '보 쉬르 센의 이응노' 공공미술 조성사업

159 Ⅶ 이응노마을 주민과 마을 이야기
1. 이응노마을 이야기
1) 편집인의 이응노마을 이야기
2) 여러 매체의 이응노마을 이야기
2. 이응노마을 행사, 그리고 일상
1) 2018~2019년 이응노마을 행사, 그리고 일상
2) 2020~2021년 이응노마을 행사, 그리고 일상

205 Ⅷ 이응노의 집, '별의별' 이야기
1. 특집 고암 이응노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
1) 고암 이응노 화백
2) 고암 이응노 화백 연보
2. 이응노의 집 '별의별' 이야기
2-1. 이응노의 집, 전시 이야기
2-2.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이야기
2-3. 이응노의 집, 교육 이야기
2-4. 이응노의 집, 행사 · 방문 · 시설 이야기
2-5. 이응노마을 · 홍성지역과 함께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을 마치며〉

이응노마을 '예술마을' 조성, 그렇게 4년, 그리고 … '희망' 입니다

홍천마을에서 해넘이 겨울 들녘을 바라보면서, 7년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무탈하게 사업을 진행한 5년의 시간과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래 없는 감염증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2년의 시간이 더해져 7년의 마을사업을 끝마친다는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마을이 '이응노마을'이 되기까지, 어쩌면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 개관하면서, 그곳의 학예연구사와 홍성지역의 전문가들은 마을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마을에 미술관 하나만 덩그러니 있다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 그저 미술관 자체 전시 · 교육 · 행사 · 레지던시 프로그램만 있다면, 그리하여 연대의식과 확장성을 얻지 못한다면, 참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마을과 연계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힘으로 '마을사업'은 시작된 것입니다.

10여 년 전 꿈꾼 생각이 2015년 결실을 맺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 '예술마을' 조성은 3년 간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홍성군 '쓰레기매립처리장'이 위치한 곳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고, '이응노마을'이라는 브랜드 이름도 얻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인 마을복지회관이 '별의별' 예술 공간으로, 예술가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마을곳곳에는 '별의별' 공방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에게 일어난 생활의 변화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응노의 집과 이응노마을 '예술마을' 조성의 중심에는 늘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사와 잔치, 견학 등을 다닐 때면, 때로는 성가심과 귀찮음이었겠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선택받은 것이 혜택이자 고마움이었다고 합니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한 작가는 "이곳 홍천마을은 신선하지 않다. 이미 주민들은 예술 속에 있고, 예술을 생활화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곳에서 나는 오히려 예술을 배워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3년의 시간은 홍천마을이 '이응노마을'이라는 매우 큰 덤을 얻은 시간이었고, 그 덤을 기회 삼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4년!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군창의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처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회의를 통해 추진하는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리는 참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사업 추진기간이 4년이라고는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2017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가 사업 추진기간이었고, 만 2년 5개월(29개월) 동안 마을사업을 더 진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마을사업 추진에 앞서 추진 목표와 일정을 점검하고 더욱 선명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2019년 시작되었습니다. 정한 추진일정대로 마을상징조형물과 안내도, 이정표, 게시판 등을 세웠고,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추진위원회 중심 선진지 연수 등을 소화해 냈습니다. 마을 시설 공간 재생과 신축은 마을복지회관에서 마을곳곳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들어오면서 사업기간 1년을 앞두고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장기화로 인하여 주민 역량강화 프



로그램 운영에 큰 타격이 미쳤습니다.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 협동조합 교육만 유지한 채, 대부분의 행사와 잔치, 견학 등은 취소하였습니다.

결국 추진위원회는 마을 '시설 공간 재생과 신축'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고, 1년 사업 연장에 따라 2020~2021년에는 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별의별 갤러리' 재생, 마을자체 창작공방 신축, 마을정자 건립, 마을 경관정비 사업 등에 중점을 둬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홍천마을의 '예술마을 조성' 기반은 갖추었습니다. 7년여 간의 마을사업 결과로,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을에 작은 도서관과 미술관이 생겼고, 공방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창작활동과 농 · 특산물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자체 창작공방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마을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는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뚜렷한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마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우'입니다. 2015년 그리했던 것처럼, 2018년 또 그리했던 것처럼, 마을주민과 함께, 이응노의 집과 홍성지역과 함께 예술마을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그리고 … 희망입니다.

해넘이 겨울들녘에서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내 삶의 행복도 나의 이웃과 함께 할 때 더 빛나고 소중함을 알기에 더 빛나고 아름다운 마을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4년간의, 아니 7년간의 치열함이 마을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응노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7년의 긴 세월 애써주신 마을주민과 이응노의 집 관계자, 지역의 전문가, 홍성군, 충청남도,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주명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장 · 홍천마을 이장)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을 마치며〉

언제나 그랬듯이, 마을은 또 다른 '희망'으로 뚜벅뚜벅 길을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라고 한 故 신영복 선생의 말씀처럼 그리, 해보려고 참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별 일 없이 해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다가도 늘 턱 밑까지 숨이 차야 그 때야 '아 일찍부터 서두를 걸' 하는 후회막급입니다.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이는 데도 여유만만 하다가 낭패를 보곤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을에 참으로 많은 일이 생긴 걸 알고 있습니다. 마을의 변화와 발전 속에서 꼭 일어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좋은 쪽으로 말하면, '이응노마을'이 새롭게 생겼다는 사실과 아직도 '홍천마을'은 있다는 사실 사이에서, 홍천마을 속에 이응노마을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이 참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큼 마을은 폭풍 성장을 해온 셈입니다.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2017년부터 4년간 추진한 시군창의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으로 '예술마을 조성'이라는 대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더해 마을사람들의 '예술에 대한', '예술마을에 대한' 생각이 한층 높아져 마을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 부분은 참으로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하던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리 좋지 않은 일들도 벌어지는 법이지요. "한 기관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마을과 연대해야 한다"며 마을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마을보다는 오로지 관광명소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을사업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맡은 바 일보다는 불평불만으로 훼방 놓은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마을사업은 사실상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결과기록집이 나온 것을 마지막으로 7년이라는 긴 시간도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기록물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역사를 보여줄 겁니다. 마을이 어떻게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왔는지, 이 기록물은 그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기에 '쉽게, 대충대충' 하지는 못합니다. 이 악물고 해낸 것이 이 정도입니다. 부끄럽고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내야 마음 한켠이 후련해집니다.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으로 하다 보니 이제 겨우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늦어짐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라도 해냄에 대견해 합니다. 부끄러움은 늘 '빚진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든 가운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곧 가요' 새벽이 밝아옵니다.

언제라도 마을을 다니다 보면, 이젠 '형님'과 '아우'라도 부를 수 있어 좋습니다. 마을어르신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여겨 자식처럼 굴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마을에서의 일상은 참말이지 기쁩니다. 이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또 마을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야겠습니다. 마을을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희망을 위해….

전상진 (이응노마을 신문 편집인 · 문화그루 '율律' 대표)

Ⅰ.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 사업

1.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2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 '신농촌문화재생중심'사업 컨설팅

3.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실행(2017~2021년)

1)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에 들어가며

2)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을 마치며



1.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지속가능한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세부계획 만들어지길"

주민 중심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가져 … "실현가능한 계획수립 세우길 기대"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진, 3개월여 간 마을 곳곳 다니며 주민들 다양한 의견 듣고 종합정리

홍천(이응노)마을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추진되는 시군창의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의 기본계획이 세워졌다. 이를 토대로 2017년 6월 26일(월)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 마을 거버넌스 보고회를 가졌다.

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연구용역을 맡아, 마을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약 3개월여 간 진행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최종보고에 앞서 마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것.

연구용역에 따르면,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 등 3개 사업을 크게 나눴고, 아트프리마켓과 아트스페이스 조성, 마을 상징조형물과 안내도, 이정표, 아트가드레일, 게시판, 현수막거치대와 LED 홍보판 설치, 상징거리 및 광장, 둑방길 산책로로 이어진 대나무 숲 조성, '별의별' 마을공방 활성화, 마을 농·특산물 개발, 주민리더 양성, 마을 '문화예술잔치', 시군창의 기록화사업 등 세부 사업으로 세분화해 나누었다.

연구용역 결과, 2015~2017년 3년 간 추진된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잘된 점은 더 확대하고, 주민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주민대상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은 마을 공동수익 창출에 이르기까지, 예술상품화를 통한 특산품 패키지 개발을 목적하고 있다.

또한 연잎을 비롯해 표고버섯·고사리·농산물 효소 제품 등 농·특산물 개발을 통해 마을공동 판매장을 구성 설치하고, 마을 공동수익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한결같이 "좀 더 치밀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3년여 간의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 '신농촌문화재생중심'사업 컨설팅

"마을 재생은 곧 마을의 원래 모습 되찾아 가자는 것"



이 섭
• 시군창업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연구원
• 문화예술 기획자

홍성군은 이응노마을(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대상지로 삼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군은 공주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매뉴얼 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주대학교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응노마을을 문화마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연구용역을 맡은 바 있다. 연구원들은 이미 이 지역에 대해 조사를 하고, 주민을 접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매주 2~3일 동안 이곳에서 머물 계획이다. 총 8주간 진행될 예정인 매뉴얼 제작 과제를 통해 이응노마을이 앞으로 수행할 사업 내용과 단계별 행동들이 정리, 제시될 것이다.

정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홍성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생 사업은 새로운 농촌을 만들어보자는 큰 밑그림을 가진 국가개혁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농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주체적인 농업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한계를 여러 가지 이유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경제-문화 활동은 결국 농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모순돼 보이는 상황을 바꾸어 보고자 하는 것이 문화재생 사업이다. 농촌에서 드러나고 있는 수익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자는 목적이 이 문화 사업의 속내이기도 하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 또한 주어진 과제이다. 그런데 왜 명칭이 문화재생 사업일까? 그것은 '문화'라는 말의 의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문화란 삶에 어떤 무늬를 새겨 넣어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간직되어 가는 전체 과정을 부른다. 이 전체 과정에는 저마다 나의 삶도 있고 여럿이 함께하는 삶도 있기 마련이다. 삶이란 생명활동이 그 근간이다. 이로부터 사회적 활동으로 경제적 활동으로 넓혀지고, 생명을 간직하기 위해 반대로 경제활동이 필요하고 사회적 활동이 요구된다. 그래서 문화라는 이름을 앞세워 새로운 삶의 형태가 농촌에서 마련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모든 문화 사업은 그 주체가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 마치 농부가 스스로 논밭에 나가 씨 뿌리고 벌초하고 거두어들여야 한 해 농사가 되듯이, 같은 이치로 문화사업 또한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문화란 저마다 각자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사는 삶의 모양을 가진 것이기에 그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일 수밖에 없다.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이라고 하는 과업도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없다면 결코 실행될 수 없고, 당연히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 무엇보다 주민 중심의 사업 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 진행방식에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누가 이 멍에를 질 것인가?



마을주민들이 가꾼 꽃 화분을 벼룩시장에 들고 나온 일본 나가하마 '아트 인 나가하마' 벼룩시장 풍경

홍성군은 모든 과업 내용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필요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문화재생 사업이 마치 농사일과 같다는 취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마다 자기 논밭을 가꾼다. 하지만 누구라도 이웃의 일을 거든다. 그리고 그 일의 짬을 이용해 함께 놀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한다. 이곳 홍천마을에서 농사일은 삶의 토대를 만들어 준다. 그 토대는 소출을 통한 경제활동이기도 하고, 삶의 형식을 잡아주는 문화 활동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제 문화 사업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도시에서나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전문가들만이 하는 일도 아니고 대학교 연구원들이 이러쿵저러쿵하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이응노마을에서 벌어지는 문화 사업은 이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일머리를 챙기고 의논하여 결정하고, 서로간의 협력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협력하는 일은 문화 사업에서 중요하다. 그 이유는 문화 사업이 주민들에게 아직은 낯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가 의논할 수 있는 협력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의논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우선 홍성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주대학교와 연구원들 또한 마을 주민들이 부르면 달려와 의논해야할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다. 협력 관계를 맺어 일을 함께 해 봤던 경험을 이 마을은 가지고 있다. 몇몇 공방들의 솜씨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이루어낸 결과물들이 있지 않은가?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응노의 집)은 올해 6월이면 축사를 개조한 거주형 예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한다. 하나는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 창작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문학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거주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인문학 관계자들은 마을의 요청에 참여해야 하는 협력자로서 일정 기간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홍성 지역에는 문화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 또한 마을의 요청에 부응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을은 주위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어떤 협력관계를 가져야 할지를 결정하고 요청해야 한다.

마을주민들에게 이응노마을은 생활의 기반이 되는 '곳'이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한발 더 들어가 보면 이응노마을은 생활의 기반이기에 여기서 일하고 생산하고 여기서 이익이 나야만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일하는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은 공장이나 기업에서만 하는 고민거리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터와 생활의 터전이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기를 바란다. 집을 가꾸는 일이 그런 생각 때문이다. 그러니 마을의 환경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기왕이면 개선되는 마을 환경에서 일정한 생산성이 담보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가령 2차 마을 진입부에 덩그러니 커다란 콘크리트 옹벽이 있는데 이것을 보기도 좋고 수익도 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둑방길과 논과 밭 사이로 나 있는 길은 트랙터만 다니는 그런 길 이상의 다른 모습을 갖출 수 있다면 어떨까?

이응노의 집 넓은 잔디밭에서는 지역의 유치원 아이들이 놀러와 뛰어 다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기념관에 관광버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면, 그저 지나쳐 버리는 마을이 되어서 좋을까? 주민들이 의논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마을의 외관을 바꾸려고 하는 일은 우선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생각지 않았던 외지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면, 이제 이응노마을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거리를 우선 정리하여 연구원들이 주민들을 찾아가 물어 볼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한계에 와 있는 농촌마을의 경제적 생산성을 다른 방향에서 찾아보려는 이유 때문이다. 누구라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방식의 관광을 이 마을에서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천천히 걷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잠시라도 앉아서 한 숨 돌리는 그런 삶의 쉼터를 이 마을이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을의 환경이 만들어 질 때, 마을과 주민이 얻어 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아울러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마을에서 자고 일어나 읍내로 아니면 인근 도시로 일하러 간다면 마을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드타운(bed town)이라고 부른다. 단지 잠을 자기 위해 되돌아오는 장소같이 마치 하숙집이나 모텔과 같은 것이다.

마을은 일만하는 곳이 아니다. 마을은 잠시 들러 잠만 잘 수 있는 내 집이 있는 그런 도시에서 찾을 수 없다. 마을은 내 생활이 있고, 그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경제활동의 장소이고, 이웃과 함께 쉴 수 있는 곳이다. 마을을 재생하자는 말은 바로 이런 마을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가자는 것이다. 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실행방식을 찾는 것이 연구의 내용이다.



소박한 꽃길로 조성된 둑방길 (경남 양산)

3.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실행 (2017~2021년)

1)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에 들어가며

마을의 새로운 활력, '창의' 통한 농촌 문화재생으로 미래 비전 그려

마을 새로운 활력 만드는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4년 간 추진 따라 자립 비전 제시
사업핵심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3개 사업으로 내용 정해

2017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통해 사업 기본 및 실행계획 확정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18년 7월 27일(금)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세미나실에서 마을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2020년 4년 간 추진, 운영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이하 마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기본 및 실행계획을 확정지었다.

마을사업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연구용역을 맡아, 2017년 상반기 마을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약 3개월여 간 진행하였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 등 3개 사업을 크게 나눴고, 아트프리마켓과 아트스페이스 조성, 마을 상징조형물과 안내도, 이정표, 아트가드레일, 게시판, 현수막거치대와 LED 홍보판 설치, 상징거리 및 광장, 둑방길 산책로로 이어진 대나무 숲 조성, '별의별' 마을공방 활성화, 마을 농·특산물 개발, 주민리더 양성, 마을 '문화예술잔치', 시군창의사업 기록화 등 세부 사업으로 세분화해 나누었다.

연구용역 결과, 2015~2017년 3년 간 추진된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잘된 점은 더 확대하고, 주민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주민대상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은 마을 공동수익 창출에 이르기까지, 예술상품화를 통한 특산품 패키지 개발을 목적하고 있다.



또한 연잎을 비롯해 표고버섯·고사리·농산물 효소 제품 등 농·특산물 개발을 통해 마을 공동 판매장을 구성 설치하고, 마을 공동수익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위' 구성 완료, 2018년 8월~2020년 12월 2년 5개월(29개월) 간 추진

이와 같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2017년 8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홍성군과 충남도청, 농림축산식품부 간 1년여 간 내용수정과 협의, 보고를 통해 올해 7월 초 사업이 확정된 것.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은 최종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5개월(29개월) 간 추진되며, 사업대상지는 이응노마을(홍천 1,2차 문화마을과 마을복지회관 주변 포함)과 이응노의 집 주변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다.

마을사업은 양주명 이장을 비롯한 홍천마을회 임원진이 사업주체로 '마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양주명 이장, 방정일 총무, 김숙자 부녀회장, 유성진 청년회장, 권재완 마을공방 대표, 이상일·신동학 마을리더 등이 맡았으며,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섭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자가 추진위 자문으로 참여한다. 또 마을사업 기록화를 위해 전상진 마을신문 편집인도 추진위에 참여한다. 마을사업 예산집행은 행정기관인 홍성군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와의 협의 속에 '홍성군 회계지침'을 따르고 예산집행을 결의하게 된다.

문화예술 전시 공간 조성, 공동창작공방 신축, 상징조형물·안내도·이정표 등 설치로 마을경관 개선

마을사업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전시 공간 조성 △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마을공동창작시설(창작공방) 신축 △마을 상징조형물(안내도·이정표 포함) 설치 조성 △마을 환경미화 작업 △주민대상 생활예술교육과 체험·전시 △주민대상 교육사업 △주민대상 선진지 견학 △마을 '문화예술잔치' △마을사업 기록화 등이다.

마을사업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예술 전시 공간 조성'은 '홍천감리교회 마당~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앞길' 아스콘 포장과 창작공방 앞 컨테이너 그늘막 설치, 둑방길(이응노의 집~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따라 들꽃 길과 평상·등의자 등 설치, 1,2차 마을 입구와 마을복지회관 앞 등 안내도와 이정표 설치, 마을행사 시 필요한 이동식 텐트와 야외용 탁상·의자를 자체제작 또는 구입할 예정이다.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태양광 발전시설(3~5㎾)과 신 회관 1,2층 시스템냉난방 설치, 1층 리모델링 통한 '별의별 갤러리' 구축, 회관 앞마당 차양막 교체와 컨테이너 등 시설 보수, '회관~나무공방 소풍~홍천교회 앞~산야초공방~마을리더 신동학 씨 축사 앞길'과 '1차 마을 삼거리~이응노의 집 큰 길', '둑방길 부분(연지蓮池)', '1차 마을~이응노의 집 사이 다락논길' 등을 연결한 태양광 보행등 설치 등이다.

'마을공동창작시설(창작공방) 신축'은 마을에서 20% 자부담을 안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창고형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한 1층 건물(바닥평수 약 40평/132㎡)을 주민이 마을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10년간 토지지상권과 임차권을 확약 받고, 마을 공동명의로 전환해 공동자산관리 방식으로 운영한다. 창작공방은 창작·전시 공간, 창고, 화장실 등으로 구성하며, 추후 창작공방 일부는 마을공동 농·특산물, 공예품 판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 상징조형물 설치 조성'은 현재 마을표지석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주민이 직접 제작한 상징조형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차 마을에서 마을복지회관 쪽으로 들어오는 삼거리, 2차 마을로 진입하는 삼거리' 등에 주민 모두 '사람 모양을 스테인레스 스틸로 절곡·용접해 제작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크기(규모)와 정확한 위치 등은 향후 추진위에서 주민 의견을 모아 결정한다.(주민 직접 제작이 어려울 경우 작가 추천을 통해 제작한다.)

'마을 환경미화 작업'은 현수막거치대(마을복지회관 서쪽 측벽)와 LED 홍보판 설치, 1차 마을 옹벽조형물 설치(주민과 추천작가 협업제작), 1차 마을 교통안전 가드레일(아트가드레일 형식) 교체, 재활용분리수거대(1,2차 마을, 마을복지회관 앞 등 총 3곳) 설치,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뒤 대나무 숲 조성 계획 등이다.

주민대상 생활예술 및 소득창출 교육 강화, 마을공방 활성화, 주민대상 교육연수 실시

'주민대상 생활예술교육과 체험·전시'는 주민참여 생활예술교육 및 마을공방 활성화 방향에서 추진한다. 마을공방 활용범위를 넓혀 기존의 백월산도예, 나무공방 소풍, '별의별' 창작공방, '별의별' 작은 도서관 등에서 공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창작공방을 신축하면 이곳에서 공방교육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월 1일과 15일 열리는 마을 힐링반상회를 통해 '찾아가는 공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주민 공방동아리(도자기공방, 향초와 비누공방, 목공과 정크아트공방 등)을 구성, 주민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대상 교육사업'은 마을리더(추진위원) 중심의 2박 3일 일정의 교육관련 선진지 연수와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마을 협동조합 설립, 문화예술교육, 체험·전시 등)이며, 마을리더 선진지 연수는 지정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2박 3일 일정과 실무워크숍 참여를 필수조건으로 운영한다.

'주민대상 선진지 견학'은 추진위에서 선진지 사전답사 후 마을 노인회·부녀회·청년회 중심으로 연 4회 총 10회 실시하는 기본(안)을 가지고 전체 주민의 의견을 모아 부분 수정·보완 후 실행한다.













‘문화예술잔치’ 등 마을 특색 담은 축제 개발, 마을사업과 일상 담은 ‘결과기록집’ 매해 발간

마을 ‘문화예술잔치’는 2015년부터 매년 11월 초 개최 운영한 마을축제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축제로 육성한다. 기존 마을 ‘문화예술잔치’ 외에도 정월대보름행사 등 마을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24절기 가운데 특정 절기를 선택, 시범적인 잔치를 보여주고자 한다. 마을 ‘문화예술잔치’를 개최할 경우 주민의 생활예술교육 결과물을 필히 체험교육과 전시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사업 기록화’는 2015년 6월 마을신문을 발간한 이후 총 31회 발행했으며, 그 후속 마을신문은 월별 또는 분기별 발행을 기본으로 해 사업의 진행과정과 마을의 일상을 기록한다. 그리고 마을신문의 결과물을 토대로 ‘결과기록집’을 매해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위는 본격 사업실행에 앞서 사무국을 마을복지회관 구회관 2층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마을공용 전산물품(노트북, 프린트기 등)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

3.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실행 (2017~2021년)

2)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 사업을 마치며

마을 여전히 존재하고, 주민 여전히 살고 있는 한 마을의 미래 밝아

추진위 10명 구성 완료, 연도별 계획대로 사업진행, 주민 주도하는 사업추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사업 1년 연장, 어려움 속 사업 성공적인 마무리 거둬

추진위 구성 완료 따라 운영회의 격주 매회 개최, 2018~2021년 사업 본격 추진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2017~2021년까지 5년 간 추진 운영한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이하 마을사업)을 모두 마쳤다.

마을사업은 2017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을 거쳐, 2018년 7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내용을 확정지었으며, 8월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사무국을 구성하고 양주명 이장이 추진위원장, 유성진 청년회장이 사무국장, 권재완 마을공방 대표가 감사, 방정일 총무(2018~2019)와 이상일 총무(2020~), 김숙자 부녀회장, 신동학 동학이네 대표 등이 맡았으며,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섭 연구기획자와 전상진 마을신문 편집인 등도 추진위에 참여하였다. 추진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 간사로 정지연 씨를 채용,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8년 사업승인 및 예산집행 결정 늦어져 … 사업 추진 11월 이후부터 시작

마을사업은 2018년 8월 본격 추진에 들어갔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남도, 홍성군의 사업승인 및 예산 집행결정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추진은 11월 마을 '문화예술잔치' 개최 이후부터 진행되었다. 가장 중점을 둔 마을사업 가운데 공방교육프로그램은 마을 '문화예술잔치'에서










체험교육과 전시판매 등으로 대체했으며, 이 또한 2018년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의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마을축제나 행사 등에 사용되는 이동식 텐트와 야외용 탁자·의자 등 구입과 '홍천교회 앞~별의별 창작공방 앞길' 아스콘포장과 창작공방 앞 컨테이너 그늘막 설치,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앞마당 차양막 교체 등에 그치고 말았다.

2019년 본격 사업추진 … 상징조형물·안내도·이정표·아트가드레일·게시판·홍보판·보행등 등 설치
공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주민대상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과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연수 다녀와

마을사업의 본격 추진은 2019년이 되어서야 가능하였다. 2018년 추진위 운영회의를 통해 협의한 마을상징조형물, 안내도, 이정표 조성이 추천작가의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추천작가 6팀을 섭외, 상반기에 '2차 마을 진입~마을복지회관 쪽 삼거리(이원용)와 2차 마을 입구(오완석·박용선), 1차 마을 입구(노재석)와 솔밭(조형그룹 청산철학원 김동현·이의석·허누리)' 등 4곳에는 상징조형물을, '2차 마을 진입~마을복지회관 쪽 삼거리와 마을공방 입구 버스정류장, 마을복지회관 버스정류장, 이응노의 집, 1차 마을~이응노의 집'(김영수) 4곳에는 이정표를, '마을복지회관과 1,2차 마을노인회관'(김억)에는 안내도 등을 설치 조성하였다. 이어 하반기에는 작품 및 작가 명판과 야간조명을 상징조형물 주변에 설치 조성하였다.

주민대상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은 마을노인회 견학을 시작으로, 전북 완주·전주와 전남 순천 등을 다녀왔고, 마을 부녀회·청년회는 전남 보성과 경남 통영, 추진위 중심인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연수는 제주와 강원 춘천·양구·인제·강릉·원주 등을 다녀왔다. 아울러 이응노의 집 관계자들과의 강원 양구 박수근미술관 답사도 진행하였다.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도 본격 운영하였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기존의 백월산도예(김종석)와 나무공방 소풍(권재완), '별의별' 창작공방(임민숙·박혜선·채정옥)과 마을 거주 신정원·오희숙 강사 등이 도자기·목공·천연염색·현대서예와 캘리그리피·한국화와 가죽공예·토탈공예·전통민화 등 7개 강좌로 공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매월 1일과 15일에 열리는 힐링반상회를 이용, 1,2차 마을노인회관에서는 '찾아가는 공방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특히 마을학교 운영과 공주유구축제 참여 등으로 마을공방을 대내외에 알리는 큰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마을 현수막거치대와 LED홍보판, 마을복지회관 게시판, 재활용부리수거대, 1차 마을 아트가드레일(김영수), 태양광 보행등(1차 마을 삼거리~이응노의 집 큰 길, 둑방길 부분(연지), 1차 마을~이응노의 집 사이 다락논길) 등을 설치하였다.






2019년 '전국고암미술대회'와 '문화예술잔치', 어느 해보다 가장 알차고 풍성하게 치러져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5월 11일 토)는 마을과 이응노의 집, 홍성미술협회 등이 함께 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참가자도 많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을 제공하였다. 마을공방도 어린이와 함께하는 체험교육과 전시 등을 진행하였다.

마을 '문화예술잔치'(11월 2일 토)는 더없이 알차게 꾸며졌다. 마을풍물패인 '고암풍물패' 공연으로 축제의 막을 열어 지역출신 가수(유준과 한여름 등)와 소담소리 9개 팀 초청공연에 이어 그림이 있는 마을음악회 공연, 맛깔스러운 음식대접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으로 풍성하였다. 마을공방은 마을학교 성과발표회와 함께 체험교육과 전시, 연극 '만향' 공연, 마술쇼, 에어바운스 등으로 주민과 외지방문객 모두 흥겨운 하루를 즐겼다.

다만 마을신문의 경우 2019년 1,2월(31호) 격월간 한 번 발행으로 그친 점, 1차 마을 아트가드레일과 옹벽조형물은 주민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추천작가 제작과 미설치 등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2020년 사업 마지막 해, '코로나19' 발생 확산에 따라 사업추진 어려움 겪어
공방교육프로그램, 협동조합교육, 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일부 사업추진

마을사업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추진위원 모두 의욕이 넘쳤다. 하지만 1월 중순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 확산 추세가 1년 내내 꺾이지 않아 모든 일정을 취소 또는 축소하였다.

마을사업은 운영회의와 정월대보름 행사만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뿐, 대부분의 사업추진은 연기 또는 잠정보류, 취소라는 선택을 해야만 하였다.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일정(전남 목포)을 잡았으나 연기되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와 마을 '문화예술잔치', 선진지 견학 일정은 모두 연기 또는 취소하였다.

하지만 추진위에서는 1차 마을 옹벽조형물 설치 대신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에 착수, 회관 1,2층 모두 시스템냉난방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층은 마을 '별의별' 갤러리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고, 2층은 마을 전체회의와 마을풍물패인 '고암풍물패' 연습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주민이 직접 마을 곳곳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마을 '별의별' 갤러리 리모델링 착수와 공동창작시설인 창작공방과 정자 신축을 위한 설계에 들어갔다.

공방교육프로그램은 다소 연기해 5월말께 상반기 일정을 시작했고, 꽃마실공방(정은숙)의 꽃차소믈리에와 '별의별' 작은 도서관(최미옥)의 수채화(어반스케치)를 추가해 운영하였다. 하반기는 다시 9월말께 '별의별' 창작공방(김진선)의 코바늘과 양말목공예를 더 추가해 운영하였다.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연수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강사를 마을로 초청, 5월부터 8월까지 '협동조합' 설립관련 교육일정을 소화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주도의 협동조합을 설립, 마을 농·특산물(연잎·표고버섯·고사리·농산물 효소 제품 등) 개발을 통해 마을공동 판매장을 구성 설치하고, 마을 공동수익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 따라 1년 사업연장 결정, 추진위 사업 마무리 위해 최선 다해
'익명의 개척사', 마을리더 선진지 연수, '문화예술잔치' 등 방역준수와 규모 축소해 치러

마을사업은 2021년에도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정 변경으로, 농림축산부의 1년 사업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마무리를 위한 운영회의를 열어 미진한 사업을 점검, 추진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여전해 주민대상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은 전면 취소 또는 축소되고, 마을공방교육프로그램(10개 강좌)은 8월말께 8주로 편성, 1회만 운영하였다. 주민대상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은 마을리더(추진위원)로 축소, 코로나19 확산세가 약간 누그러진 11월 20일 1박 2일간 일정(경남 하동·전남 구례)으로 다녀왔다.

2차 마을 안에 마을공동 창작공방을 신축하고, 나무공방 소풍 앞 정자를 신축하였다. 또 '별의별' 갤러리 리모델링을 마쳐 운영에 들어갔다. 첫 운영은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 체험교육 전시와 '나 자신의 말 전시', '익명의 개척사'로, 익명의 개척사는 마을과 이응노의 집(정보경 학예연구사 기획)이 협력으로 진행한 것.

익명의 개척사는 마을 '별의별' 갤러리에서 최초(최윤희 캘리그라피)·청년(김나영·함다은 패션디자인)·매체(모은미 홀로그램)·문화(지역 예술창고 오롯의 참여형 예술교육프로그램과 아트프리마켓) 개척자를 공모, 9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3개월 간 전시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마을 '문화예술잔치'는 추진사업 마무리 해라는 점을 감안, 축소 개최하기로 결정, 11월 13일(토) 이응노의 집 잔디밭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운영하였다. 매년 마을 '문화예술잔치' 때 부녀회에서 준비한 음식·다과 등을 생략하고 간단한 다과와 선물(수건)을 준비해 주민들에게 나눠줬고, 공방교육프로그램 체험교육 전시와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도 잔잔하게 펼쳐져 잔치의 마무리를 장식하였다.







마을사업 마쳤지만, 마을사업 여전히 진행 … 마을 미래비전 여전히 희망적

시군창의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은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마을사업은 현재진행형이다. 2015~2017년까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2017~2021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7년여 간의 결과물이 남아있기에 가능하다.

마을 '문화예술잔치'는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의 '마을축제' 육성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마을공방과 공방예술가들은 여전히 마을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마을 창작공방에서는 마을을 살리는 농·특산물과 공예품 제작에 여념이 없을 전망이다.

마을사업은 끝났지만 새로운 마을사업은 시작한다. 마을이 존재하고 주민이 여전히 살고 있는 한 마을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적이다. 그리고 현재진행형이다.



Ⅱ.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활동

– 2018~2021년 이응노마을추진위원회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운영회의

1. 2018~2021년 마을 추진위원회 주민설명회
2. 2018년 마을 추진위원회 운영회의
3. 2019년 마을 추진위원회 운영회의
4. 2020년 마을 추진위원회 운영회의
5. 2021년 마을 추진위원회 운영회의



1. 2018~2021년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주민설명회

2018~2021년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마을추진위원회 운영회의

- **일시 :** 2018년 7월 27일(금) 오후 4시
- **장소 :**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 **참석 :**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상일, 신동학, 유성진, 권재완, 전상진, 이섭(이상 마을리더와 협력),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이상 행정) 外, 그밖에 마을주민 포함 30여 명

1. 경과보고

▶ 2017년 8월 : 기본계획 수립

▶ 2017년 9월~2018년 6월 : 홍성군과 충남도청 실무자 간 내용수정 및 협의

▶ 2018년 7월 : 보고서 납품

▶ 2018년 7월 : 충남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및 협의내용 확정

2. 사업개요

▶ 사업 실행기간 :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29개월 / 2년 5개월)

▶ 사업 주요장소 : 이응노마을(홍천 1,2차 문화마을 및 마을복지회관 주변], 이응노의 집 주변

▶ 사업비 총액 : 10억 원(부가세 및 원천징수액 포함), 실행예산 9억 원

▶ 사업실행의 기본구조

주최 농림축산식품부·충청남도, 주관 홍성군, 사업주체(위탁운영체)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

⇒ 추진위가 결정한 사업내용과 사업순서는 홍성군과 협의하고, 공모사업과 추진위 직접사업으로 구분해 홍성군에서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방식. 모든 사업은 추진위 결의에 따라 홍성군과 협의 후 실행(사업예산 집행관련 회계방식은 홍성군의 지침에 따름)

▶ 사업주체인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보고서 203쪽, 부록 2. 운영회 연명부 및 정관 참조)

⇒ 양주명 이장(위원장), 유성진 청년회장(사무국장), 권재완 나무공방 소풍 소장(감사), 방정일 총무, 김숙자 부녀회장, 이상일 주민리더, 신동학 주민리더, 전상진 마을신문 편집인, 이섭 교수(자문) 등 추진위원 총 9명

3. 사업내용

▶ 문화공간과 전시공간 조성 (주민 자체제작 권장)

⇒ 홍천감리교회 마당~별의별 창작공방 앞길 아스콘 포장, 창작공방 앞 컨테이너 그늘막 설치, 둑방길(이응노의 집~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들꽃 길과 평상, 등의자 등 조성 설치, 마을 안내도 및 이정표(1,2차 마을 입구, 마을복지회관 앞) 설치, 이동식 텐트와 야외용 의자, 테이블 등 자체제작 또는 구입

▶ 마을복지회관 개보수 공사 (외주업체 발주)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3~5Kw) 설치, 1,2층 시스템냉난방 설치 및 1층 개보수 후 별의별 갤러리로 리모델링, 앞마당 시설보수(차양막 교체 또는 컨테이너 보수 등), 태양광 보행등 설치(마을복지회관~나무공방 소풍~홍천교회 앞~산야초공방~마을리더 신동학 씨 축사 앞길, 1차 마을 삼거리~이응노의 집 큰 길, 둑방길 부분(연지), 1차 마을~이응노의 집 사이 다락논길)

▶ 마을공동창작시설(창작공방) 신축

⇒ 창고형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한 1층 건물(바닥평수 약 40평/132㎡)로, 주민이 마을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10년 간 토지지상권과 임차권을 확약 받고, 마을 공동명의로 전환, 공동자산관리 방식으로 운영. 창작공간·전시공간·창고·화장실 등으로 구성(추후 마을공동 농·특산물, 공예품 판매장 역할을 신축 창작공방 일부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마을 상징조형물 (주민 자체제작+외부업체 발주)

⇒ 현재 마을표지석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주민들이 자체 제작한 상징조형물로 대체하는 방안 추진(1차 마을~마을복지회관 쪽 삼거리, 2차 마을 진입 삼거리 등), 주민이 힐링반상회를 이용, 참여해 주민이 사람 모양을(그리고 이를 모아) 스테인레스 스틸로 절곡·용접해 제작하는 방법 이용. 크기와 규모 문제, 정확한 설치 위치에 대해 향후 추진위에서 주민 의견 모아 결정

▶ 마을 환경미화작업 (주민 자체제작+외부업체 발주)

⇒ 현수막거치대(마을복지회관 서쪽 측벽), 1차 마을 옹벽조형물 설치(주민과 추천작가 협업제작), 1차 마을 가드레일 교체(아트가드레일 형식으로 교체), 재활용분리수거대(1,2차 마을, 마을복지회관 앞 등 총 3곳에 설치),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뒤 대나무 숲 조성(협의 후 수정안 제시 가능)

▶ 주민대상 생활예술교육과 체험전시

⇒ 마을공방 활용 통한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자기공방(주민동아리 형태의 참여, 주 2회 개설), 향초와 비누공방과 목공+정크아트공방(주민동아리 형태 참여, 신축공방 활용) 활용, 찾아가는 공방교육(1,2차 마을 힐링반상회를 이용한 다양한 취미활동)

⇒ 마을공방 부문별 책임강사 섭외, 주민설명회 또는 홍보 후 참가자 모집, 동아리 결성 후 부문별 일정표대로 추진

▶ 주민대상 교육사업

⇒ 마을리더 교육관련 지정 프로그램에 2박 3일 일정 및 실무워크숍 참여 필수조건, 하·동절기 이용한 전체 주민교육(마을공동수익창출 및 생활예술 교육 통한 체험·전시 등)

▶ 주민대상 선진지 견학

⇒ 추진위 선진지 사전답사 후 주민(노인회·부녀회·청년회) 대상으로 연 4회 총 10회 실시하는 기본(안)에 전체주민 의견 모아 부분 수정·보완 후 실행

▶ 마을 문화예술잔치 (주민주도형 축제, 직접참여 방식)

⇒ 기존 마을 문화예술잔치 외 대보름잔치 등 마을의 특색 드러낼 수 있는 24절기 가운데 특정 절기를 선택, 시범적인 잔치를 보여 줌. 마을 문화예술잔치 개최의 경우 주민 생활예술교육과 체험의 결과물을 필히 전시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마을사업의 필수조건)

▶ 마을사업 기록화 (주민주도형, 직접참여 방식)

⇒ 마을신문 및 마을사업 〈결과기록집〉 발간(2018~2020년 3년 간), 마을공동 전산물품 구입 사용(공용 컴퓨터와 프린터 外)

▶ 제 경비

⇒ 기본계획 수립(2017년 지급완료), 실시설계비 지급예정(마을복지회관 개보수작업 관련 실시설계, 공방 신축 측량 등), 예비비처럼 활용해야 하는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현장 진행비) 등

[표 1] 2018~2021년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추진위원회 체제구성

구분	소속 (기관/단체명)	성명 (담당자명)	주요역할	주요경력 및 활동실적
마을사업 주민협의체	홍천마을(이응노마을)	양주명 방정일 이상일 김숙자 유성진 권재완 신동학 정지연	•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마을사업 전체)	• 이장 (추진위원장) • 총무 (~2020) • 총무 (교체 2020~) • 부녀회장 • 청년회장 (사무국장) • 주민리더 (감사) • 주민리더 • 사무간사
마을사업 주민협의체 협력 1	용봉산권역 문화예술 및 전시기획	전상진 이 섭	• 마을신문 및 결과기록집 자료수집 및 편집, 발간 • 마을사업 연구용역 및 자문, 회의진행	• 조사·취재·편집 및 저술, 문화예술 공연행사 기획 • 비평, 저술,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행사 기획
마을사업 주민협의체 협력 2	마을공방프로그램	권재완 김종석 신정원 오희숙 임민숙 박혜선 채정옥 정은숙 최미옥 김진선	• 목공예 교육 • 도자기공예 교육 • 토탈공예 교육 • 전통민화 교육 • 천연염색 교육 • 현대서예와 캘리그라피 • 가죽공예 교육 • 제철 꽃차 만들기 교육 • 수채화 어반스케치 교육 • 코바늘과 양말목공예	• 생활공예(목공예) • 생활공예(도자기공예) • 생활공예(토탈공예) • 한국화·민화 • 천연염색 • 서예와 캘리그라피 • 생활공예(가죽공예) • 꽃차 소믈리에 • 수채화 • 코바늘·양말목공예
행정부서	홍성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문화시설)	공필재 조명보 송병숙 윤홍숙 김기정 유경선 길민선 外	• 행정·서무(팀장) • 행정·서무(팀장) (2021~) • 행정·서무(예산·회계) • 행정·서무(예산·회계) • 행정·서무(예산·회계) • 행정·서무(예산·회계) • 행정·서무(예산·회계)	• 홍성군 공무원 • 홍성군 공무원 • 홍성군 공무원 • 홍성군 공무원 • 홍성군 공무원 • 홍성군 공무원 • 홍성군 공무원

구분	소속 (기관/단체명)	성명 (담당자명)	주요역할	주요경력 및 활동실적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이응노의 집)	윤후영 신나라 정보경 서상림 노태훈 전범석 유미란 外	• 학예연구사(2011~2019) • 학예연구사(2019~2020) • 학예연구사(2021~) • 학예연구사(2021~) • 코디네이터(2018~2020) • 코디네이터(2019~2020) • 코디네이터(2020~)	• 전시기획 및 학예연구 • 레지던시 및 교육(학예) • 레지던시 및 마을(학예) • 전시기획 및 교육(학예) • 전시기획 및 교육 보조 • 전시기획 및 교육 보조 • 전시기획 및 교육 보조
홍성지역 전문기관단체	• 한국예총홍성지회 • 한국미술협회홍성지부 •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 • 홍주문화관광재단 • 문화그루 '율律' • 극단 치우미르 外			







2. 2018년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추진위원회 운영회의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회 차)

-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사업비 신청순서 정하기, 사업별 세부진행 담당자 정하기, 사업진행에 따른 홍성군과 협의방식 확인하기, 사업내용 중 주민자체 제작과 업체 발주 사업의 구분

1. 회의 주요의제

▶ 사업예산 신청서(지출결의서) 최소 한 달 전 작성, 행정기관(홍성군) 제출

▶ 8월 중 추진위 명의로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8월 중 9,10월 사업비와 사업내용 검토, 추진위 실행사업 순서에 따라 확정
(※ 2018년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집중화 목록 참고)

▶ 사업비 세부내역 검토 후 인건비 항목 계상금액의 마을기금 전환 방안 결정

▶ 2018년 11월 사업내용 검토 후 실행순서 정하고 9월 말까지 사업비 신청

▶ 2018년 12월 사업비 신청은 11월 중순까지 완료 (행정기관 주무관과 협의 필요)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사업추진위원회 공식출범을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 주민참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업홍보 위해 사안별 회의에 반장(1~4반) 참여 요청할 것인가?

▶ 마을공용비품 구입비(약 5백만 원)의 사용처를 1,2차 마을 방송장비(스피커, 앰프, 마이크) 교체 또는 수리비로 전용해 사용할 것인가? (1차 마을은 엠프와 스피커 고장으로 현재 방송 불가능)

▶ 추진위원들의 마을사업 관련정보 공유와 회의소집 등을 위해 전용 밴드(Band) 개설할 것인가?

▶ 업체 발주공사의 경우 추진위에서 관련 업체 찾고, 견적 받아 행정기관(홍성군)에 추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표 2] 2018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집중화 목록

구분	사 업 명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용 (보고서 쪽수)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아트문화전시 자재	이동식텐트	이동식텐트 50개 구입(업체지명-견적서)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아트문화전시 자재	의자	100개 구입 또는 자체제작
		탁자	50개 구입 또는 자체제작
	광장 포장	아스콘포장	홍천교회 마당, 별의별 창작공방 컨테이너 앞 (공사발주×업체지명-견적서)
		그늘막	별의별 창작공방 컨테이너 앞마당에 설치(자체제작)
	둑방길 공원 조성	둑방꽃길조성	풀꽃 다년초 구입(견적서)
		화분	화분 60개 구입
		등의자	10개 구입, 또는 자체제작 / 10곳에 설치 (74쪽 참고)
		평상	5개 자체제작 / 5곳 설치 (76쪽 참고)
		수변테크	1곳 제작설치(75쪽 참고)
	마을안내도 설치	3곳 설치	가로 2m, 세로 1.5m 판재, 기둥높이 2.2m 자체제작
	마을이정표 설치	24곳 설치	높이 1.8m, 자체제작(설치위치 79쪽, 81쪽 참고) · 마을이정표 19곳 / 자전거도로 안내이정표 5곳
	아트스페이스 조성	태양광발전시설	홍천마을복지회관, 6Kw용량 (공사발주×업체지명-견적서)
		태양광보행등	70~80개 구입, 설치인건비 포함(업체지명-견적서)
		복지회관 야외천막설치	홍천마을복지회관 마당 야외조리 시 천막구조물 설치 (업체지명-견적서)
지역 경관 개선	마을 상징조형물 설치	이응노마을 조형물	자체제작(주민참여) 80%, 작가 제작참여(공정상 20% 이내) 2개×높이 2.2m / 기소높이 0.6m, 지름 0.8~9m 스테인레스재질
		현수막거치대	공사발주(위치: 홍천마을복지회관 도로변 벽면 앞) (115쪽 참고)
		1차마을 옹벽조형물	마을입구부 옹벽 보수공사 및 미화작업 (주민자체 제작참여)
		1차마을 가드레일 조형	주민 제작참여 (118쪽 참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3개1조, 3곳 설치 (120쪽 참고) (업체지명-견적서 또는 자체제작 선택)
		수목구입과 식재	식재장소 콘테이너 레지던시 뒤(122쪽 참고) · 수종변경 선정필요
지역 역량 강화	공방운영과 체험	도자기공방	강사비, 재료구입비, 보조인건비
		향초와 비누공방	상동
		목공공방	상동
		찾아가는 공방	주민요구사항 확인 / 2개 프로그램 운영가능 강사비,재료비,보조인건비
	주민리더 양성교육	실기교육(심화)	강사수당, 간식비, 강의자료비, 1회(1일 4시간)
		실무워크숍	마을리더(추진위 중심): 강사수당, 식비, 강의자료비(1일 6시간)
		마을리더선진지 워크숍	마을리더(추진위 중심): 2박 3일 위탁교육신청, 교통비, 숙박비, 식비
		협동조합워크숍	마을리더(협동조합 관심자): 2박3일 위탁교육신청, 상동
		선지지 견학	노인회 중심 마을주민 40인 기준 당일 여행 1회 마을주민 전체 대상 영화단체관람 1회
	문화예술잔치	마을잔치	마을잔치 준비, 공연자 출연료, 음향장비+무대임대료, 현수막 홍보 등

사업 기록 사업	2018년 사업 기록집 제작	결과 기록집 디자인, 편집, 인쇄, 납품(제작 견적서)
	공동사용 비품구입	데스크톱(또는 노트북), 프린터기, 사진기(동영상겸용), 부속품 등 (견적서-지출결의서 순서로 구입을 진행할 것)
	마을신문 발행	월 제작비 4백244,000원×5개월 (8~12월) · 원고료(책임편집자인건비보조금)와 인쇄비 포함가격 · 마을주민 희망자 광고 컬러인쇄(4면증보판) · 홍성군 군정내용 광고-5단/또는 전면광고 게재 · 지질 하향조절 · 인쇄소 업체 견적서 받기(양면 2도 8면/광고 4도 4면)
2018년 지출내역		8월말까지 8~9월 사업비 지급결의서 제출(행정과 협의 진행) 9월말까지 11월 사업비 지급결의서 제출 10월말까지 12월 사업비 지급결의서 제출 11월말까지 2019년 1/4분기 사업비 지급결의서 제출(논의 후 실행)

마을추진위 운영회의(2회 차)

- **일시** : 2018년 8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추진위 정관 확정 및 대표자 선임 위한 회의록 만들기, 사업진행 위한 사업 순서별 내역서 만들기 등 (사업내용과 연관 있는 주민에게 '견적-내역서' 부탁), 사업예산 운용에 대한 의견 나누기(견적결과 사업비 상당액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 남은 사업비를 항목 내에서 조정하고 마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필요)

1. 회의 주요의제

▶ 추진위 정관 검토 및 세부내용 확정 (사업추진위 명칭, 주소지 등)

▶ 대표자 선임에 대한 참가인원 전원 의견 정리 (회의록 구성 위한 절차)

▶ 사업추진위 명칭에 대한 결정 : 1안)홍천마을사업추진위원회 / 2안)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 2안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선정

▶ 탁자, 의자, 텐트 구입 견적서에 대한 의견 및 결정

▶ 공방교육프로그램 계획표 검토 및 예산운용에 대한 의견 및 결정방향 제시, 강사 확정 등

▶ 사업추진위 명의 통장개설에 대한 결정

▶ 마을자부담 금액 준비 위한 통장개설에 대한 의견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공용비품 구입비(5백만 원) 사용처, 물품항목 정하기(마을 1~4반별 필요비품, 장비 알아보고 목록 만드는 방식)

▶ 탁자, 의자, 텐트 구입 후 보관 방법 및 장소에 대한 결정

▶ 사업추진위 공식출범을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 (마을노인회·부녀회·청년회 별로 알리는 방법, 반상회에서 알리는 방법, 반장모임 통해 알리는 방법 등)

마을추진위 운영회의(3, 4회 차)

- **일시 :** 2018년 9월 18일(화) 오전 10시 / 2018년 10월 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추진위의 공식출범 준비 완료에 따른 사업진행

1. 회의 주요의제

▶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새로운 사업

⇒ 현재 별의별 작은 도서관 앞 데크 차양막과 다목적용 덮개 설치 건, 아스콘 포장비 절감에 따른 차액 이용 마을배수시설 보완 사업 건, 플라스틱 의자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 활용 방안의 건(나무의자 3종 자체제작 예산활용 방식으로 컨테이너 구입 방안, 창고용 컨테이너 위치 확보)

⇒ 추진위 사무국장 선임 건(유성진 마을청년회장 선임)

⇒ 추진위 운영회의 격주 정례화 건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사업비 신청 및 집행에 관한 추진위원장과 행정기관(홍성군) 팀장 협의

▶ 사업진행 순서 재확인(예산집행 수월성 참고해 결정)

마을추진위 운영회의 (5회 차)

-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11월 예산지출 사업에 대한 결정, 3,4차 운영회의 내용에 대한 결정사항 재점검, 추후 진행방법 논의

1. 회의 주요의제

▶ 사업내용에 따른 예산내역서 작성 및 행정기관 팀장·주무관과 협의사항 정리

⇒ 사업내용과 연관 있는 견적서 최종 확인(확정시기 결정 필요)

▶ 2018년 〈결과기록집〉 작성 및 '인쇄 및 납품' 관련 사업주체 논의

▶ 마을신문 재발행에 따른 시기 논의

▶ 마을 '문화예술잔치' 내용과 담당자 논의, 예산집행 방식과 계획 논의

▶ 11,12월 사업에 대한 협의와 예산집행에 대해 행정기관(홍성군) 팀장과 논의

▶ 논의해온 사업에 대해 결정사항 정리(※아래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참고)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공용비품 구입비(5백만 원) 사용처, 물품항목 정하기

▶ 탁자, 의자, 텐트 구입 후 보관 방법 및 장소에 대한 시기 결정.

▶ '현수막거치대·LED구조물' 대체에 대한 결정, 설치장소 협의와 결정

▶ 보행등 설치장소(이응노의 집 연지蓮池 주변) 이동과 실행방법 및 시기 결정

▶ 마을상징조형물과 관련된 내용 의논 후 결정 내용 정리

3. 2018 마을 '문화예술잔치' 세부계획 협의

– 일시 : 2018년 11월 3일(토)

– 장소 : 이응노의 집 잔디밭 일원

– 추진 계획

1. 주차시설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및 이응노의 집 주차 안내판 비치 (마을청년회 및 방범대, 교통안전 및 행사안내 담당)

2. 음식준비 : 마을부녀회 국수, 수육, 떡, 묵, 전, 김치, 과일, 막걸리 등 준비, 수도 및 가스, 화덕 설치, 테이블 운반, 음식물쓰레기통 비치

3. 무대준비 : 이응노의 집 위쪽 잔디밭에 무대설치 → 마을 '고암풍물패' 공연, 홍성예총 찾아가는 예술제 병행 공연 / 이응노의 집 이응노·박인경 '사람·길'展 전시 중

4. 체험준비 : 이응노의 집 연지 위쪽 잔디밭에 체험부스 설치 (2018년 공방교육프로그램 지원은 마을 '문화예술잔치' 전시 및 체험교육 지원으로 대체 → 도자기, 목공, 천연염색, 전통민화, 비누·향초만들기, 현대서예와 캘리그라피, 한국화와 가죽공예 등에서 제작한 공예·예술품 전시 및 체험교육 행사 진행,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성과발표회는 일정이 맞지 않아 별도 행사로 진행)

5. 홍보계획 : 초청장 발송 1000통, 지역신문 광고, 홍성군·이응노의 집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게재

6. 기타사항 : 천막부스, 책상, 의자 등 설치

마을추진위 운영회의 (6회 차)

• **일시** : 2018년 11월 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상징조형물 추천작가 협의, 2018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 '문화예술잔치' 집행내역 및 결과보고

▶ 현재(11월 6일) 진행 중인 마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확인

⇒ 탁자, 의자, 텐트 구입 후 보관 방법 및 장소에 대한 진행 상황, '현수막거치대·LED구조물' 진행 상황, 보행등 설치(이응노의 집 연지 일부에 조성된 상황) 및 보완, 보강 필요 논의

▶ 2018년 〈결과기록집〉 작성 및 '인쇄·납품' 관련 사업주체 논의

▶ 마을신문 재발행에 따른 시기 논의

▶ 마을상징조형물 관련 추천작가와 제작조건에 대한 협의

▶ 2018년 사업내용 협의와 예산집행 관련 행정기관(홍성군) 팀장과 논의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공용비품 구입비(5백만 원) 사용처, 물품항목을 정하고 추진주체 결정하기

▶ 마을상징조형물, 안내도, 이정표 등에 대한 추천작가 검토 후 결정

⇒ 2018년도 계약 후 12월과 2019년 1월에 비어있는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활용해 작가들 마을방문과 사전 준비작업 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홍성군) 팀장과 협의

▶ 2018년 〈결과기록집〉 제작 위한 팀 및 사전미팅 결정

▶ 마을신문 재발행 관련 협의 후 시기 및 준비단계 결정

마을추진위 운영회의(7회 차)

• **일시** : 2018년 11월 1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상징조형물 추천작가 협의 및 확정, 6차 운영회의 안건 중 미진한 사업 검토 후 협의

1. 회의 주요의제

▶ 보행등 설치(이응노의 집 연지 일부에 조성)된 상황으로, 보완, 보강 필요 논의

▶ 2019년 2월로 이월한 〈결과기록집〉 작성과 '인쇄·납품' 관련 사업주체 논의

▶ 마을신문 재발행 시기와 책임자에 대한 논의

▶ 마을상징조형물 추천작가와 제작조건에 대한 협의

⇒ 마을상징조형물 추천작가의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단기 활용방안 논의(2018년도 계약 후 12월과 2019년 1월에 비어있는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활용, 작가 마을방문과 사전 준비작업 시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 논의)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공용비품 구입비 중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 구입 결정, 구입 후 설치장소 논의

▶ 마을상징조형물, 안내도, 이정표 등에 대한 추천작가 결정

▶ 추진위 마을상징조형물 추천작가와 첫 모임 준비과정 공유(추진일정 보고는 계약시점과 연관해 정리 보고 후 진행하는 방향으로 구성)

▶ 2018년 〈결과기록집〉 제작 위한 팀 추천

▶ 마을신문 재발행 시점과 책임자 결정

마을추진위 운영회의(8회 차)

• **일시** : 2018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상징조형물 추천작가 협의 및 확정, 2018년 12월 실행 가능한 사업 정리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상징조형물

⇒ 1,2차 마을 상징조형물, 안내도, 이정표와 1차 마을 아트가드레일 별 추천작가에 대한 협의

▶ 마을안내도 제작에 대한 작가(김억) 확정 관련 최종 협의와 계약추진 건

▶ 새로운 마을상징조형물 추천작가 포토폴리오 검토와 협의

▶ 2018년 12월 예산집행 가능한 사업 협의 및 정리(마을노인회·부녀회·청년회 중심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주민 영화 단체관람 등)

▶ 마을상징조형물 제작 위한 추진 방법과 일정 검토(추진위원 이섭 자문 제안내용 검토)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엠프와 노트북 구입 관련 내용 확인

▶ 의자, 탁자, 텐트 구입 시 개수 확정

▶ 마을상징조형물, 이정표, 아트가드레일 등에 대한 추천작가 결정

▶ 2018년 12월 예산집행 가능한 프로그램 결정

⇒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위한 일정 및 예산 결정, 사전 답사시기와 담당자 결정(답사비용의 정산방법 등 의논, 주민 영화 단체관람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담당자 선정)

▶ 마을상징조형물 제작과 추천작가 관리에 대한 추진 방법과 일정에 대한 결정

▶ 탁자 개수 줄이고, 이동식 매대 자체제작에 대한 의견 결정(담당자 결정, 예산 집행방식에 대한 논의)

3. 마을상징조형물 제작과 추천작가 관리에 대한 추진일정과 방법

[표 3] 2018~2021 이응노마을 '상징조형물' 제작 관련 추진일정과 방법

추 진 내 용	12월	1월				2월				3월
	3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4주
▶ 작가섭외와 계약체결 완료 (추진위원과 대화)										
▶ 참여작가 1차 모임(1박 2일) (브리핑과 마을답사)										
▶ 작가아이디어 1차 스케치 발표(주민과 대화)										
▶ 주민의견 반영한 2차 스케치 발표 (주민 대상)										
주민 참여방법 제시한 제작(안) 발표										
▶ 주민 최종안 결정과 작가의 진행방식 협의										
작품 제작기간 (마을 현장 및 창작스튜디오)										
▶ 현장작업 (마을 현장서 작품 제작마무리)										
▶ 작품 설치 전 기초 작업 (조명작업의 유무결정)										
▶ 작품 설치 (조명설치 병행)										
▶ 작품명판 설치										
결산										

▶표 내용은 작가들의 마을 체류 일정으로 진행

⇒ 12월 주중 3주 이내 결정, 계약하는 것으로 일정 구성, 작품 설치는 2019년 3월 중 작가별 작품 진행 상황에 따라 개별적 진행, 작품설치 완료시점을 2019년 3월 30일 이전까지 우선 결정

※ 추진내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

⇒ 추천작가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작품 제작. 따라서 작가 능력을 고려하되 주민 협력관계를 유지할 작가 추천 및 결정하도록 유의할 필요

⇒ 추천작가는 짧은 기간 내 마을을 집중 방문, 체류하면서 주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 통해 의견 수렴. 이를 위해 2019년 1월 4주 동안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활용하도록 배려할 필요

⇒ 마을상징조형물 제작 사전작업으로 주민과 만남 방식은 추진위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작가 참여방식으로 유도해 진행. 이에 따르는 최소경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방안에 대한 협의 필요 (작품 제작비에 조형물 제작 운영경비를 포함시켜 현장진행비 준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필요)

마을추진위 운영회의(9회 차)

- **일시** : 2018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2019년도 마을사업 실행 팀 김두홍 씨 섭외 건, 2019년 연간 프로그램 기본(안) 정리

1. 회의 주요의제

▶ 2019년도 실행 팀 운영 위한 김두홍 씨 섭외 진행 및 업무내용 결정, 인건비 지급에 대한 협의

▶ 마을상징조형물 작가 계약 진행 건 (행정기관인 홍성군 진행내용 공유)

▶ 이동식 매대 제작과 관련된 내용 협의

▶ 2019년 1,2월 예산집행 가능한 프로그램 협의(마을노인회·부녀회·청년회 중심의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진행 결정)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엠프와 노트북 구입 관련 내용 확인

▶ 의자, 탁자, 텐트 구입 시 개수 확정

▶ 2019년도 실행 팀 운영 위한 김두홍 씨에게 전담시킬 업무내용 결정 및 인건비 지급 내용 결정

▶ 2019년도 '사업기본계획'을 정리할 담당자 결정

▶ 2019년 사업기본계획에 담을 프로그램 결정(공방교육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협동조합 관련 교육프로그램, 마을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마을신문 재발행, 2018년 〈결과기록집〉 제작과 납품 등)

▶ 마을 '문화예술잔치' 집행내역 정리 및 정산

▶ 이동식 매대 제작일정과 예산 집행방식 결정

3. 2019년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추진위원회 운영회의

2018~2021년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 사업 본격 추진

마을 주민리더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관 제정, 주요사업 확정 통해 활동 들어가
올해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 본격 추진

이응노마을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릭 홍천마을의 브랜드가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고암 이응노 화백이 태어나 자란 '고향마을'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예술마을'이라는 지향성을 대내외에 표방하는 보다 근원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의미를 지녔다.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되었다. 추진위는 2017~2020년 4년 간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을 시작하면서, 2018년 8월 추진위 구성 및 정관 제정, 주요사업 확정 등을 마치고, 2019년 올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이응노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양주명 이장이 위원장, 유성진 청년회장이 사무국장, 권재완 마을공방 대표가 감사, 정지연 청년인턴이 사무간사를 맡았다. 그리고 방정일 총무, 김숙자 부녀회장, 이상일 이응노의 집 시설안전관리 담장자, 신동학 동학이네 대표 등이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행정에서는 홍성군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필재 문화시설 팀장과 윤후영 이응노의 집 학예연구사 등이 참여했고, 전문가로는 이섭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기획자와 전상진 이응노마을신문 편집인 등이 참여하였다.

추진위은 또 정관 제정을 통해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체 기구로써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과 관련 행정기관(문화시설 이응노의 집)과의 긴밀하고 원만한 협조체제를 구축, 사업추진에 본격 나섰다.

추진위, 마을상징조형물 설치와 공방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신문 재발행 등 3월부터 진행하기로

추진위는 2019년 1월 8일(화) 첫 운영회의를 시작으로, 1,2월 매주 정기 운영회의를 통해 '2019년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파악과 역할분담을 맡았다. 이어 마을상징조형물 및 아트가드레일 설치, 이동식 매대 제작, 공방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일정 조율, 마을신문 재발행 및 2018년 '결과기록집' 발간 조율, 주민역량강화을 위한 교육 관련 선진지 견학 일정 및 장소 조율 등을 주요의제로 다루었다.

마을상징조형물 및 아트가드레일(노재석, 이원용, 오완석·박영선, 조형그룹 청산철학원 김동현·이의석·허누리, 김영수 추가)과 마을안내도 및 이정표(김억, 김영수) 제작 등이며, 제작 설치는 4,5월께 완료된다. 또 이동식 매대는 권재완 나무공방 소풍 소장 등이 시범제작을 통해 효과적인 매대 활용과 매대 개수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015~2017년 '문화특화지역 이응노마을 조성'사업에 이어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에서도 새롭게 선보일 공방교육프로그램은 도자기(김종석), 토탈공예(신정원), 전통민화(오희숙), 천연염색(임민숙), 목공(권재완), 현대서예와 캘리그라피(박혜선), 가죽공예(채정옥) 등 7개 프로그램을 확정했고, 상반기 교육프로그램은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2018년 사업 '결과기록집' 발간은 올해 상반기 안에 매듭지을 예정이며, 마을

신문은 '문화특화지역 이응노마을 조성'사업 제호를 이어서 제32호부터 격월간으로 발행한다.

주민역량강화 위한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 연수 일정 확정, 운영회의 통해 사업추진 수시점검

주민역량강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은 마을노인회 중심으로, 1/4분기 첫 번째 견학대상지로 2월 27일(수)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와 삼례문화예술촌, 전주동물원 등으로 확정하였다. 추진위원 중심의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연수는 6월 21일(금)~23일(일) 2박 3일 간 마을 만들기 선진지 연수로 확정했으며, 추후 세부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추진위는 2019년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실행여부를 매주 화요일 열리는 운영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간다. 또 사업의 장기적인 목표인 주민공동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연잎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회 차)

- **일시** : 2019년 1월 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간사)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2019년도 사업계획 내용 확인 후 업무순서 정하기, 마을상징조형물 제작관련 추진일정 협의와 수정 요구사항 확인하기

1. 회의 주요의제

▶ 이동식 매대 제작기간과 예산집행 방식

▶ 마을상징조형물 초대작가 워크숍(1월 12~13일) 참가 및 운영방식, 추진위와 추천작가 간 계약체결에 관한 협의(1월 12일)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이동식 매대 제작과 관련된 추진일정 결정과 예산 지급방식, 지급일 결정

▶ 마을사업 실행 팀 프로그램 매니저(PM) 선임과 인건비, 자문비 지급방식과 활용방안 결정

▶ 추진위 (정지연 씨 사무간사 선임)

▶ 사업집행에 따른 영수증 처리방식에 대한 협의와 내규 정리

▶ 2019년 상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운영방식과 추진일정 정리

▶ 2018년 〈결과기록집〉 발행 방식과 납품 완료일 결정

▶ 마을상징조형물 추천작가 워크숍(1월 12~13일) 진행비(※ 공문에 첨부한 주요 일정표 참조) 처리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정

▶ 2019년 1/4분기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조율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관련 예산확정, 선진지 견학 대상지 및 답사포함 일정 논의, 마을신문 재발행 시기와 현실적인 제작비용에 대한 논의, 1차 마을 아트가드레일의 추진위 직접사업 변경에 대한 논의 등

[표 4] 이응노마을 '상징조형물 프로젝트' 전체 추진일정

기간 : 2019년 1월 12일~3월 23일(총70일)

장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천(이응노)마을 일원

추진위	작가	12.13~19	20~26	27~02.02	03~09	10~16	17~23	03~09	10~16	17~23
1차 위크숍과 계약체결										
계약금 지급	2차 현장답사									
설치장소 제안	설치장소 선정									
설치장소 협의 후 확정					8, 9일					
주민설명회 개최	스케치 1안 설명회									
중도금 지급	스케치 2안 설명회									
최종안 결정과 현장 작업 장소 협의					설 연휴 3~6					
숙소제공 (한마음센터)	현장작업 (작업진행)									
기소작업 및 전기공사 시행	기소작업 세부내역 제공									
–	설명판 내용 전달									
설명판 제작–부착	–									
작품 설치 후 조명 실험 가동										
잔금 지급	영수증 처리									03. 29
하자 검토										04. 30

※ 작가는 폐기물을 작업재료로 사용할 경우 추진위에 사전고지 후 협조 얻어 진행, 작가는 현장 작업 시 작업 가능한 장소를 추진위와 협의 결정, 현장작업 시 사용되는 도구나 공구는 정한 장소에 보관

※ 추진위는 2월 23일까지 작가가 현장에서 활동 할 경우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를 숙소로 제공

※ 기소작업 및 전기·조명 공사는 추진위가 공동사업비 활용, 작가와 협의해 공동으로 작업

※ 작품 설치 후 하자 관련 내용을 추진위가 직접 검수, 하자 발생 시 작가에게 통보, 작가는 2019년도 상반기 보완 원칙

[공문] 이응노마을 '상징조형물 프로젝트' 1차 워크숍 안내

이응노마을 지역경관 개선사업 내 상징조형물 제작 · 설치 프로젝트

'천인동구天人同構를 만나보자!'

발송일 : 2019년 1월 4일

발 신 :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프로젝트 큐레이터 이섭

수 신 : 초대작가 6명 (그룹은 1명으로 상정)

김 억, 김영수, 노재석, 오완석 외 1명, 이원용, 조형그룹 청산철학원(김동현 · 이의석 · 허누리)

내 용 : 이응노마을 마을상징조형물 제작의뢰와 관련 1차 워크숍 참가안내

안녕하십니까.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인사드립니다.

2018년 11월에 보내주신 포토폴리오를 통해 이렇게 여러 작가 분들응 저희 추진위에서 초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추진위에서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작가 분들을 모시고 마을상징조형물 제작과 관련한 브리핑을 워크숍 형식으로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1차 워크숍에 꼭 참석하시어 이 프로젝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프로젝트명 : 이응노마을 상징조형물 프로젝트

○ 주제 : '천인동구를 만나보자!' (천인동구는 동양미학 개념으로, 하늘과 사람이 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는 이응노마을 주민들이 세계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 1차 워크숍 일정 : 2019년 1월 12일(토) 오후 2시~13일(일) 오후 2시

○ 워크숍 장소 :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세미나실

○ 프로젝트 운영 : 주최 충칭남도 홍성군 / 주관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 프로젝트에서 작가별 분장 내용

사업구분	조형물구분	작가이름	추진시기
기초생활기반확충	마을안내도	김 억	01. 12~03. 23(70일)
	마을이정표	김영수	
지역경관개선	마을상징물	노재석	
	마을상징물	이원용	
	마을상징물	오완석 외 1명	
	마을상징물	조형그룹 청산철학원	
	아트가드레일	–	

※ 마을 아트가드레일의 경우 추진위가 직접제작에 참여, 초대작가들 기본적인 컨설팅을 통해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함

※ 초대작가 분들은 1차 워크숍 참가 시 계약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 3. 도장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추진위 운영회의(2회 차)

- **일시 :**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대상지 추천 선정, 마을상징조형물 제작관련 추천작가 계약체결 사항 확인

1. 회의 주요의제

▶ 이동식 매대 제작 일정 결정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대상지 선정 및 주민대상 홍보와 안내 방법, 일정 결정

▶ 마을상징조형물 관련 추후 일정관련 추진위원들 간 공유 필요

⇒ 마을상징조형물은 1차 마을 입구와 솔밭 설치, 2차 마을 입구와 삼거리 설치(크기, 장소, 주제 정하기, 입간판 설치)

⇒ 마을상징조형물은 '기러기와 샘', '고암 이응노 작품 변형', '용봉산과 월산' 등으로 주제 결정

▶ 2019년 1/4분기 사업선정 및 추진일정 관련 의견 개진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이동식 매대 제작과 관련된 추진일정 확인

▶ 2018년도 〈결과기록집〉 추진일정 결정 (2월말까지 완료 예정)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대상지와 추진일정 논의

▶ 2019년 상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추진일정 확인

▶ 마을신문 재발행 추진일정 결정

마을추진위 운영회의(3회 차)

- **일시** : 2019년 1월 2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시기 결정 및 준비, 이동식 매대 제작관련 일정과 예산집행 결정, 마을상징조형물 제작관련 추천작가 계약체결 사항 보고(추진위원 이섭 자문 진행)

1. 회의 주요의제

▶ 이동식 매대 제작(담당자 지정 후 추진일정 및 방식 일임)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 담당자 지정 후 추진일정 및 방식 일임 (※ 주요 일정표 참고, 2월 27일(수) 전라북도 완주군·전주시 일원)

▶ 2019년 1/4분기 사업선정 및 추진일정 의견나누기

▶ 2019년 상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홍보하기

⇒ 주민, 기타 홍성지역주민 (1월 31일까지 주민대상 홍보, 2월 1일부터 홍성군청 홈페이지, 이응노의 집 홈페이지 등 홍보 실시)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2018년 〈결과기록집〉과 마을신문 추진일정관련 협의 및 보고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대상지 사전답사 협의

[표 5] 2019년 이응노마을 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일정표

▶ 견 학 일 : 2019년 2월 27일(수)
▶ 견 학 지 : 전라북도 완주군, 전주시 일원
▶ 참 가 자 : 양주명, 유성진, 유성옥, 김송자 外 37명 / 전상진(프로그램 매니저), 정지연 간사
▶ 준비서류 : 참가자명단 (여행자보험 / 개인정보공개동의서)

날짜(요일)	시 간	장 소	견학 및 교육일정	비고
2월 27일(수)	07:30~	홍천(이응노) 1,2차 마을	참가자 확인 및 탑승, 출발	
	07:30~09:30	홍성-완주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09:30~11:30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	완주군민 누구나 예술(NU-E) '새로운 예술 경험'을 통해 소통, 교감하는 문화예술을 누리는 문화교육 공간	
	11:30~12:00	완주-전주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2:00~13:00	전주 (고궁)	점심식사	
	13:00~15:00	전주 전주동물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심 속 생태동물원	
	15:00~15:30	전주-완주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5:30~17:00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일제강점기 역사의 아픔 간직한 수탈의 양곡창고를 현대의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 체험 콘센트로 탈바꿈 시킨 문화 공간	
	17:00~18:30	완주-홍성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8:30~20:00	홍성 (서문횟집)	홍성 도착 후 저녁식사	
	20:00~	홍천(이응노) 1,2차 마을	마을 도착 후 귀가	

※ 현지 사정상 소요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대상지를 부분 변경할 수 있음 / 준비물(사진기, 노트북, 기타)은 추진위원 중 담당자 선정 일임(여행자보험은 추진위 사무국장이 보관)

마을추진위 운영회의(4회 차)

- **일시 :**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준비과정 보고, 이동식 매대 제작관련 일정과 예산 결정, 마을상징조형물 제작관련 추천작가 스케치(안) 보고(추진위원 이섭 자문 진행)

1. 회의 주요의제

▶ 이동식 매대 제작(담당자 지정 후 추진일정 및 방식 일임)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 선진지 견학 대상지 '완주·전주' 관련 견적내용 보고)
▶ 2019년 상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홍보하기
▶ 2018년 〈결과기록집〉 내용 결정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이동식 매대 작업 예산집행 일정과 방식 결정

▶ 2018년 〈결과기록집〉 예산집행 일정과 방식 결정

[표 6] 이응노마을 '2019년 상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추진일정 (2019년 3~6월, 15회 차 운영)

▶ 신청자격 : 1순위 홍천(이응노)마을, 2순위 용봉산권역(상하리·중계리), 3순위 홍성군 전체(내포신도시 포함)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권재완(010-4508-9223) 나무공방 소풍 소장(공방교육 매니저) 또는 양주명 위원장(010-3125-6138), 유성진 국장(010-8885-6024), 정지연 간사(010-5334-6754) 등 전화 접수

▶ 수 강 료 : 무료 (재료비도 무료)

▶ 모집정원 : 각 강좌별 10명

▶ 주요 프로그램 개요

강 좌 명	강 사 명	개 강 일	운영일시	장 소	교육내용
가죽공예	채정옥	3월 4일(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가죽을 이용해 지갑, 필통, 핸드백 등 만들기
목공예	권재완	3월 4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마을 나무공방 소풍	원형스톨, 전통창호 등 목공제품 만들기
전통민화	오희숙	3월 5일(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전통민화 기법을 배우고 민화 소품 만들기
천연염색	임민숙	3월 6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천연염색 기법을 배우고 스카프, 앞치마, 쿠션 만들기
도자기	김종석	3월 8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마을 백월산 도예공방	흙판에 빚고 도자 벽화 만들기
현대서예와 캘리그라피	박혜선	3월 8일(금)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캘리그리피를 배우고 소품·작품에 활용하기
토탈공예	신정원	3월 8일(금)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비즈공예, 퀼트, 향초, 비누, 냅킨공예 등 배우기

※ 찾아가는 공방(마을 힐링반상회)
3. 15(금) 서예(캘리그라피) 2회 / 4. 1(월) 토탈(향초·비누) 1회 / 4. 15(월) 한국화·가죽 2회 / 5. 6(월) 목공 1회 / 5. 15(수) 도자기 2회 / 6. 3(월) 전통민화 1회 / 6. 15(토) 천연염색 2회 실시 예정

마을추진위 운영회의(5회 차)

- **일시** : 2019년 2월 16일(토)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준비과정 사전답사 결과보고(사전답사 영수증 첨부,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 공문처리), 이동식 매대 제작관련 일정 및 예산집행 보고, 마을상징조형물 제작관련 추천작가 스케치(안) 보고

※ 정기회의 후 오후 4시 작가들과 저녁식사 (장소·참여 가능한 추진위원 명단 제출 및 예산지출액 결정)

1. 회의 주요의제

▶ 이동식 매대 제작 일정에 따라 견본작업 결과와 시한 결정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시 날씨 등 변경 필요한 변수 대비하는 두 가지(안) 협의

▶ 2019년 상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홍보하기

⇒ 주민, 기타 홍성지역주민 (운영회의 4회 차 2019년 상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추진일정 확정)

▶ 2018년 〈결과기록집〉 진행과정 협의 후 최종내용 결정

▶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건에 대한 의견 (보고서 135~140쪽 참조)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이동식 매대 작업 예산집행 일정과 방식 보고(결정내용에 따른 일정 확정)

▶ 2018년 〈결과기록집〉 예산집행 방식과 일정 결정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일(2월 27일) 날씨 등 변수 생길 경우 대안 협의 후 결정 (출발 전 날씨 변수일 경우, 견학 진행 중 날씨 변수일 경우 등)

▶ 마을상징조형물 추천작가 스케치 발표 시 추진위원 요구사안을 명확하게 전달 요청 (위치 및 내용과 형태, 그리고 색채)

마을추진위 운영회의(6회 차)

• **일시 :** 2019년 2월 19일(토)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이동식 매대 제작관련 일정 및 예산집행 보고, 마을상징조형물 제작관련 추천작가 스케치(안) 결정 (추천작가 2배수 작품, 작품설치 장소, 작가 요청사항 반영)

1. 회의 주요의제

▶ 2019년 상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안내, 실행일정 확정과 대응

▶ 2018년 〈결과기록집〉과 마을신문 진행과정 확인

▶ 마을상징조형물 위치 확정에 대한 의견 나누기

▶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건에 대한 의견 (보고서 135~140쪽 참조)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상징조형물 작품 위치 결정, 작가 요구사항 정리, 작품 2배수 이상 제시한 추천작가의 경우 작품 선정 유리

▶ 2018년 〈결과기록집〉 예산집행 방식과 일정 결정, 마을신문(종이 재질, 수량, 기본내용)에 대한 결정

마을추진위 운영회의(7회 차)

• **일시 :** 2019년 2월 2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준비과정 검토, 마을상징조형물 제작관련 추천작가 스케치(안) 결정 (작품 설치장소 결정 및 2차 수정 스케치(안) 검토)

1. 회의 주요의제

▶ 2019년 상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진행상황 확인

▶ 2018년 〈결과기록집〉 진행과정 확인

▶ 마을상징조형물 위치 선정에 대한 의견수렴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관련 검토사항 확인 및 의견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상징조형물 작품 위치 결정, 작가 요구사항 정리, 작품 2배수 이상 제시한 추천작가의 경우 작품 선정 유리

▶ 2018년 〈결과기록집〉 예산집행 방식과 일정 결정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참가 추진위원 최종 확인

마을추진위 운영회의(8회 차)

-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관련 지출내역 및 결과보고, 마을상징조형물 제작관련 위치 결정, 2/4분기 (4~6월) 안 진행해야 할 일 결정

1. 회의 주요의제

▶ 2019년 상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진행상황 확인

⇒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와 미결정사항 부분 검토

▶ 2018년 〈결과기록집〉 진행과정 확인

▶ 마을상징조형물 위치 확정에 대한 의견수렴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지출내역(영수증, 첨부서류 등) 및 결과보고

2. 추진회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상징조형물 작품 위치와 이정표 위치(5곳) 결정

⇒ 작가에게 알리는 과정으로 진행 (작가들에게 기초공사 기본 설계도 보내 공사 진행)

▶ 2018년 〈결과기록집〉 예산집행 방식과 일정 결정

⇒ 추진위와 전상진(개인 또는 업체) 간 계약서 체결, 예산 집행방식과 일정 협의 순서로 진행

▶ 3월 중 추진위가 결정하고 진행해야 할 일 결정 (보고서 참조)

⇒ 마을리더 교육관련(2박 3일 코스) 선진지 견학 대상지 선정(희망지역 및 기관에 대한 의견)

⇒ 현재 진행 중 사업의 종료시점 확인 결정

⇒ 2018년 〈결과기록집〉 제작과 납품

⇒ 마을상징조형물과 이정표 제작과 설치

⇒ 이동식 매대 제작과 납품 일정 정하기

▶ 2/4분기 사업부분에 대한 의견 (보고서 참조)

⇒ 마을옹벽 조형물 설치(5월까지) 2천만 원(보고서 106쪽), 아트가드레일 설치(5월까지) 1천만 원(보고서 106쪽),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5월까지) 1천5백만 원(보고서 106쪽)

마을추진위 운영회의(9회 차)

- **일시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상징조형물 제작관련 진행과정 보고, 2/4분기(4~6월)까지 해야 할 사업 결정

1. 회의 주요의제

▶ 2019년 상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진행상황 확인 보고

▶ 2018년 〈결과기록집〉 진행과정 보고 및 예산지출 결의

▶ 마을상징조형물 진행과정 보고

▶ 2/4 분기 사업내용 검토 및 실행사업 결정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상징조형물 기초공사 일정 및 담당자 결정(현재 진행 중인 추천작가 건의사항 청취 및 검토)

▶ 2018년 〈결과기록집〉 예산집행 방식과 일정 결정

▶ 이동식 매대 제작과정 검토 및 진행 결정(최종납품 기일 결정)

▶ 2/4분기 사업부분에 대한 사업 순서와 추진과정 결정 (보고서 참조)

⇒ 마을옹벽 조형물 설치(5월까지) 2천만 원(보고서 106쪽), 아트가드레일 설치(5월까지) 1천만 원(보고서 106쪽),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5월까지) 1천5백만 원(보고서 106쪽)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0회 차)

- **일시 :** 2019년 4월 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상징조형물 기초공사 관련 보고 및 결정, 이동식 매대 구입관련 의견 조정 및 결정

1. 회의 주요의제

▶ 2018년 〈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 진행상황 확인

▶ 마을상징조형물 진행과정 보고

▶ 2019년 제18회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5월 11일 토) 관련 준비상황 협의 및 2/4분기 사업 결정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상징조형물 기초공사 관련 결정사항(일정 및 담당자 결정, 크레인 및 레미콘 사업자 결정)

⇒ 안내도 지명 검토 및 최종안 결정, 이정표 안내 내용 검토 및 최종안 결정

▶ 2018년 〈결과기록집〉 예산집행 방식과 일정 결정

▶ 이동식 매대 구입 건 변경 내용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결정

▶ 2/4분기 사업부분에 대한 사업 순서와 추진과정 결정 (보고서 참조)

⇒ 마을옹벽 조형물 설치(5월까지) 2천만 원(보고서 106쪽), 아트가드레일 설치(5월까지) 1천만 원(보고서 106쪽),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5월까지) 1천5백만 원(보고서 106쪽)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1회 차)

• **일시** : 2019년 4월 17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상징조형물 설치공사 관련 보고 및 결정, 2018년 〈결과기록집〉과 마을신문 진행상황 확인

1. 회의 주요의제

▶ 2018년 〈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 진행상황 확인

▶ 마을상징조형물 진행과정 보고

▶ 제18회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 관련 준비 상황 협의 및 2/4분기 사업 결정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상징조형물 설치공사 관련 결정사항

⇒ 일정 및 담당자 결정, 크레인 및 운송에 따른 추천작가 지원 협의(4월 22~23일 이틀간 마을상징조형물 4개를 4곳에 설치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 중, 추천작가와 협의), 설치당일 잔금청구서 준비 후 잔금 처리방식에 대한 추진위 의결 필요

⇒ 마을안내도 지명 검토 및 최종안 결정, 안내도 원판 및 1차 원판 작품의 보관 장소 및 방식에 대한 협의

▶ 2018년 〈결과기록집〉 예산집행 방식과 진행 일정에 대한 의견조율 및 결정

▶ 마을신문 재발행에 따른 추진위 결정과 책임자의 진행상황 검토

▶ 제18회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 관련 추진위의 결정사항 검토

⇒ 참여공방 확정과 공방별 전시물 및 체험·교육 운영 준비상황 검토, 이동식 매대 또는 부스별 설치 설비 준비과정 및 책임자 선정, 추진위 차원의 미술대회 예산집행 건의 검토 및 예산확정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2회 차)

- **일시** : 2019년 5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상징조형물 설치공사 관련 보고 및 결정,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일정 및 비행기표 예약 건 협의 결정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상징조형물과 아트가드레일 부분(예산 및 추천작가 결정, 계약 추진)

▶ 마을리더와 이응노의 집 연계 선진지 견학 일정 결정 (※ 주요 일정표 참고, 5월 7일(화) 강원도 양구군 '박수근미술관')

▶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추진일정 협의

▶ 마을사업을 위해 일한 주민 인건비(일당) 지급 건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상징조형물 설치공사 관련 보고사항 및 추후작업 건

⇒ 2차 마을 상징조형물 4월 30일 설치 완료, 상징조형물 작가 운송비 및 크레인 비용 지출, 4명의 청구서 사인 받음

⇒ 마을안내도 지명 표시 수정작업 진행(이번 주 스테인레스 스틸판 조형 발주)

⇒ 마을상징조형물 주변 정리(포크레인 사용) 및 잔디 또는 꽃 식재 건, 야간 조명장치 건

⇒ 작품명판 제작 건(이섭 자문 진행) → 작가관련 정보 받아 정리, 돌판에 스테인레스 스틸 부식판 접착 후 정한 위치에 설치 계획

▶ 2018년 〈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 진행 일정에 대한 의견 조율과 결정

▶ 1차 마을 아트가드레일 진행 건 협의 후 결정 (김영수 작가 위임 건과 계약 체결(1천만 원), 추진일정 정리 후 작가에게 통보)

▶ 마을리더와 이응노의 집 연계 선진지 견학 일정 결정

▶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일정 확정 및 추진일정 건

⇒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에 상응하는 교육프로그램 확인, 비행기표, 숙박예약 건 등 진행 및 담당자 결정

▶ 마을상징조형물 설치작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건비 지급 건에 대한 추진위 결정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의결 결정

⇒ 주민 이상일, 신동학, 한재욱 등 3인의 일당 인건비 지급 건(1일 일당 100,000원(안), 150,000원(안) 총 작업일 확인 후 추후 정산)

[표 7] 2019년 이응노마을-이응노의 집 연계 선진지 견학 일정표

▶ 견 학 일 : 2019년 5월 7일(화)

▶ 견 학 지 : 강원도 양구군 일원
양구 박수근미술관 교육관련 방문 (화가 박수근 삶과 예술, 설립배경과 목적, 운영체계, 각 시설 견학 등)

▶ 참 가 자 : 양주명, 유성진, 이상일 外 6명(이상 마을리더) / 공필재, 윤후영 外 3명 (이상 행정) / 전상진 (프로그램 매니저) 등 총 15명

▶ 준비서류 : 참가자명단 (여행자보험 / 개인정보공개동의서)

날짜(요일)	시 간	장 소	견학 및 교육일정	비고
5월 7일(화)	07:30~	이응노의 집 주차장	참가자 확인 및 탑승, 출발	
	07:30~11:00	홍성-양구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1:00~12:00	양구 박수근미술관 전시·해설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화폭에 담은 화가 박수근의 삶과 작품세계를 살필 수 있는 미술관으로, 화가 박수근의 삶과 예술 관련 전시 관람 및 해설	
	12:00~13:00	양구 (인근 음식점)	점심식사	
	13:00~14:00	양구 박수근미술관 교육·강의	양구 박수근미술관 설립배경 및 목적, 운영에 대한 교육·강의	
	14:00~16:30	양구 박수근미술관 시설견학	양구 박수근미술관 시설(기념전시관과현대미술관, 파빌리온, 레지던시 공간, 미석예술인촌 등 시설 견학) → 홍성 이응노의 집 접목 가능성 여부 판단	
	16:30~19:00	양구-홍성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9:00~20:00	홍성 (서문횟집)	홍성 도착 후 저녁식사	
	20:00~	이응노의 집 주차장	마을 도착 후 귀가	

※ 현지 사정상 소요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대상지를 부분 변경할 수 있음 / 준비물(사진기, 노트북, 기타)은 추진위원 중 담당자 선정 일임(여행자보험은 추진위 사무국장이 보관) / 추진위 사무국장은 교육방문지 강사료지급 관련서류를 사전에 준비, 교육당일 강사의 날인을 받도록 함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3회 차)

- **일시** : 2019년 5월 1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안내도와 게시판 진행과정 및 마을상징조형물 관련 진행 보고,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일정 및 준비과정 진행 보고, 2019년 하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운영일정 협의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상징조형물과 아트가드레일 진행내용 정리

▶ 2019년 하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운영일정 토의

▶ 마을사업을 위해 일한 주민 인건비(일당) 지급 건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안내도, 게시판, 아트가드레일

⇒ 마을안내도는 7일 후 납품(중도에 제작난이도로 업체 바뀜)

⇒ 마을게시판은 견적서 확인 필요(가능하면 홍성지역 업체 발주)

⇒ 1차 마을 아트가드레일 진행내용 및 마을상징조형물 주변 정리 진행내용 정리, 작품명판 제작 건(추진위원 이섭 자문 진행)

▶ 2018년 〈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 진행일정에 대한 의견 조율과 결정

▶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추진내용 정리

▶ 마을상징조형물 관련 주민 인건비(일당) 지급 건에 대한 추진내용 정리

▶ 2019년 하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준비 및 협의

⇒ 상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진행결과 정리, 하반기 개최시점과 구성방식에 대한 논의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4회 차)

- **일시** : 2019년 5월 2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안내도와 게시판 진행과정 보고와 제작업체 결정,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일정 및 준비과정 진행 보고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안내도와 게시판 제작 견적 협의 후 업체 결정

▶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제주' 일정 협의 후 결정 및 준비상황 확인 (※ 주요 일정표 참고, 6월 21일(금)~23일(일) 2박 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상징조형물 명판제작 일정 보고(제작설치에 맞춰 진행계획, 명판과 관련한 제목·크기·재료 등 추천작가 전부 전달해옴)

▶ 마을게시판 제작 견적과 업체 결정

⇒ 견적서 총금액 8백200,000원(제작·운송·설치) 확인 후 업체결정,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앞 마을지도 설치비 약 1백200,000원 정도 추가 예상

⇒ 마을게시판과 안내도판 제작설치 일정 확정 협의 후 결정

⇒ 1차 마을 상징조형물 주변 정리에 관한 조형그룹 청산철학원 팀 의견 이응노의 집 전달과 의견조율

▶ 2018년 〈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 진행 일정에 대한 의견조율과 결정

⇒ 인쇄물 발간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대체할 방안 논의 (SNS기반 마을공유 인스타그램 운영 방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인터넷 기반 웹진 운영 방안; 웹진 운영 시 중요부분을 A3프린트로 제공 함)

▶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제주' 일정 협의 후 결정

⇒ 강사비(2시간 이내 30만원) 지급 건에 대한 결정, 방문희망 대상지 결정, '제주' 일정 내 렌트카 사전 예약 건 결정, 홍성-김포공항 출발시간과 장소 등 결정

▶ 공방교육프로그램 제작물의 '유구축제(6월 8~9일)' 프리마켓 참가 건 협의

⇒ 유구축제 내 프리마켓을 통해 이응노마을 운영 프로그램 홍보 기회, 판매에 치중하기보다 전시·홍보에 중점, 담당 아르바이트 현지에서 지원

[표 8] 2019년 이응노마을 리더(추진위원) 교육관련 1차 선진지 견학 일정표

▶ 견 학 일 : 2019년 6월 21일(금)~23일(일)

▶ 견 학 지 : 제주도(서귀포시 및 제주시) : 마을 주민역량강화 위한 교육 방문지 3곳

첫째 날,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중앙로108 (꿈꾸는 고물상 이가영)

둘째 날, 제주 제주시 (해안동) 해안마을길75 (상상창고 '숨' 박진희)

셋째 날, 제주 제주시 (화북2동) 거로남6길 13 (문화공간 '양' 김연주)

▶ 참가자 : 양주명, 유성진, 김숙자, 방정일, 권재완, 신동학, 이상일(이상 마을리더), 이섭(자문), 공필재(행정) / 전상진(프로그램 매니저), 정지연 간사 등 11명

▶ 숙소 : 담앤루리조트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343번길 63)

▶ 준비서류 : 참가자명단 (여행자보험 / 개인정보공개동의서)

날짜(요일)	시 간	장 소	견학 및 교육일정	비고
6월 21일(금)	06:00~	홍성공용버스터미널	공항 직통버스 탑승	
	06:00~07:30	홍성-김포공항 버스 이동	아시아나항공 예약 이용	
	07:30~09:50	김포공항 (플레이보6)	아침식사, 비행시간 대기	
	09:50~11:00	김포공항-제주공항	제주공항 도착 버스 렌트(기사 포함)	
	11:00~11:40	제주공항-서귀포시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 숙소 이동	
	11:40~13:30	서귀포시 (관당네)	점심식사	
	13:30~15:00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화가 이중섭의 제주 주거지와 미술관, 창작레지던시 공간, 이중섭거리 공방, 제주올레매일시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15:00~16:30	서귀포시 '꿈꾸는 고물상'	마을 문화공간 운영 강의	
	16:30~18:50	서귀포시 카멜리아 힐 수목원	동양 최대의 동백 수목원으로, 여름에는 수국이 만개한 수목원. 제주 자생식물 250여 종이 사시사철 어우러지는 식물원	
	18:50~19:50	서귀포시 (서민흑돼지)	저녁식사	
	19:50~22:50	숙소 (담엔루리조트)	방 배정 및 견학 및 교육 관련 토의	
	22:50~	숙소 (담엔루리조트)	자유 시간, 취침	

6월 22일(토)	08:00~09:30	숙소 (담엔루리조트)	아침식사	
	09:30~10:30	서귀포시-제주시 버스 이동	제주시 견학 및 교육일정 이동	
	10:30~12:30	제주시 스카이워터쇼	공중곡예와 마루공연, 다이빙쇼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워터서커스의 세계	
	12:30~15:00	제주시 (태랑)	점심식사 및 식, 견학 및 교육일정 이동	
	15:00~16:30	제주시 '상상창고 숨'	마을 장터운영 관련 강의	
	16:00~18:00	제주시 한라수목원	제주 자생·희귀·특산식물 등 전문 수종원을 갖춘 수목원으로, 도심 속 숲속을 따라 산책하는 삼림욕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8:00~19:30	제주시 수목원길 본초족욕	한방티백, 미용소금, 페퍼먼트 쿨링 오일, 한방차, 제트 겔 등 한방재료 사용한 천연 족욕 테라피 체험	
	19:30~21:30	제주시 (돌고래횟집)	저녁식사	
	21:30~22:30	숙소 (담엔루리조트)	(견학 및 교육관련 토의)	
	22:30~	숙소 (담엔루리조트)	자유 시간, 취침	
6월 23일(일)	08:30~09:30	숙소 (담엔루리조트)	아침식사 및 체크아웃	
	09:30~12:30	제주시 '문화공간 양'	마을 미술관 관련 강의	
	12:30~14:00	제주시 (꺼멍도새기1호점)	점심식사	
	14:00~15:55	제주시 동문시장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동문시장에서 점심식사와 장보기, 제주공항 이동	
	15:55~17:05	제주공항-김포공항	아시아나항공 예약 이용	
	17:05~18:35	김포공항-홍성 버스 이동	왕대골시티투어버스 이동	
	18:35~	홍성공용버스터미널	홍성 도착 후 귀가	

※ 현지 사정상 소요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대상지를 부분 변경할 수 있음 / 준비물(사진기, 노트북, 기타)은 추진위원 중 담당자 선정 일임(여행자보험은 추진위 사무국장이 보관) / 추진위 사무국장은 교육방문지 강사료지급 관련서류를 사전에 준비, 교육당일 강사의 날인을 받도록 함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5회 차)

- **일시** : 2019년 6월 1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안내도와 게시판 진행과정 보고,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일정 및 예산지출 계획(안) 보고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게시판 제작 발주 건에 대한 결정

▶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제주' 일정 결정내용 정리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상징조형물 명판제작 일정 보고(게시판 제작설치에 맞춰 진행 계획, 명판과 관련한 제목·크기·재료 등

추천작가 전부 전달해옴)

▶ 마을게시판 제작 견적과 업체 결정

⇒ 마을이정표와 안내도판 제작설치 일정 확정 협의 후 결정

▶ 2018년 〈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 진행일정 보고

▶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제주' 일정 및 예산지출 계획 내용 정리

⇒ 최종(안) 결정, '제주' 일정 담당자 선정 (정지연 간사 추천)

▶ 공방교육프로그램 제작물의 '유구축제(6월 8~9일)' 프리마켓 참가 결과 보고

▶ 2019년 하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강사참여 희망자에 대한 추진위 선발 기준 마련 및 결정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6회 차)

- **일시** : 2019년 7월 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집행내역 및 결과보고, 7월까지 진행해야 할 사업 정리

1. 회의 주요의제

▶ 7월까지 진행, 완료해야 할 사업 점검 및 준비내용 공유

▶ 마을공동창작공간(=마을공동창작실) 신축관련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게시판 제작진행 및 완료일 결정

⇒ 마을상징조형물 명판제작과 함께 진행, 마을이정표와 안내도판 설치도 동시 진행

▶ 2018년 〈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 진행일정 보고

▶ 마을부녀회·청년회 1차 선진지 견학 일정 및 예산지출 계획 내용정리

⇒ 최종(안)으로 일시와 장소 결정 (※ 주요 일정표 참고, 7월 14일(일) 전라남도 보성군 일원)

▶ 2019년 하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진행일정과 준비내용 정리 및 결정 (※ 하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일정표 참고)

▶ 마을공동창작실 신축사업 관련 추진위 의견을 3/4분기 내 정리하는 방안 논의

⇒ 마을공동창작실의 마을사업 필요성에 대한 토의, 신축 시 장소와 자부담금 준비에 대한 의견, 신축 아닌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의견(대안적 제안)에 대한 논의

[표 9] 2019년 이응노마을 부녀회·청년회 1차 선진지 견학 일정표

▶ 견 학 일 : 2019년 7월 14일(일)

▶ 견 학 지 : 전라남도 보성군 일원
보성 역사와 문화관광 관련 강의 (정경모 보성관광두레 PD)

▶ 참 가 자 : 유성진, 김숙자, 방정일 外 34명 / 전상진(프로그램 매니저), 정지연 간사

▶ 준비서류 : 참가자명단 (여행자보험 / 개인정보공개동의서)

날짜(요일)	시 간	장 소	견학 및 교육일정	비고
7월 14일(일)	06:30~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앞	참가자 확인 및 탑승, 출발	
	06:30~09:00	홍성-보성 벌교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06:30~09:00	홍성 (김밥천국)	버스 이동 간 아침식사	
	09:00~10:30	보성 벌교 태백산맥문학관	조정래 〈태백산맥〉의 문학적 성과를 기려 관광자원화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문학관 보성 역사와 문화관광 관련 강의	
	10:30~11:00	보성 벌교 보성여관, 금융조합	일제강점기(1935년) '강활람'으로 지어진 건물로, 〈태백산맥〉 속 '남도여관'. 근현대 삶의 현장이자 역사적 중요한 기억의 장소	
	11:00~11:50	보성 벌교 월곡영화골벽화마을	〈태백산맥〉 문화거리와 영화를 주제로 한 벽화가 골목마다 그려진 벽화거리	
	12:00~13:30	보성 벌교 (연미정)	점심식사 및 자유 시간	
	13:00~14:30	보성 득량 득량역	경전선 득량역 주변의 7080의 역사를 골목 벽화로 조성한 추억의 거리	
	14:30~16:30	보성 한국차박물관	차茶의 주산지 보성녹차의 문화·역사·생활을 주제로 담은 차 생활체험 박물관	
	16:30~19:00	보성-홍성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9:00~20:30	홍성 광천 (일형가든)	홍성 도착 후 저녁식사	
	20:30~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앞	마을 도착 후 귀가	

※ 현지 사정상 소요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대상지를 부분 변경할 수 있음 / 준비물(사진기, 노트북, 기타)은 추진위원 중 담당자 선정 일임(여행자보험은 추진위 사무국장이 보관) / 추진위 사무국장은 교육방문지 강사료지급 관련서류를 사전에 준비, 교육당일 강사의 날인을 받도록 함

[표 10] 이응노마을 '2019년 하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추진일정 (2019년 7~10월, 15회 차 운영)

▶ 신청자격 : 1순위 홍천(이응노)마을, 2순위 용봉산권역(상하리·중계리), 3순위 홍성군 전체(내포신도시 포함)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권재완(010-4508-9223) 나무공방 소풍 소장(공방교육 매니저) 또는 양주명 위원장(010-3125-6138), 유성진 국장(010-8885-6024), 정지연 간사(010-5334-6754) 등 전화 접수

▶ 수 강 료 : 무료 (재료비도 무료)

▶ 모집정원 : 각 강좌별 10명

▶ 주요 프로그램 개요

강 좌 명	강 사 명	개 강 일	운영일시	장 소	교육내용
목공예	권재완	7월 29일(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마을 나무공방 소풍	원형스톨, 전통창호 등 목공제품 만들기
현대서예와 캘리그라피	박혜선	7월 29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캘리그리피를 배우고 소품·작품에 활용하기

전통민화	오희숙	7월 29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전통민화 기법을 배우고 민화 소품 만들기
토탈공예	신정원	7월 30일(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비즈공예, 퀼트, 향초, 비누, 냅킨공예 등 배우기
가죽공예	채정옥	7월 31일(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가죽을 이용해 지갑, 필통, 핸드백 등 만들기
도자기	김종석	8월 1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마을 백월산 도예공방	흙판에 빚고 도자 벽화 만들기
천연염색	임민숙	8월 1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천연염색 기법을 배우고 스카프, 앞치마, 쿠션 만들기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7회 차)

- **일시** : 2019년 7월 17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부녀회·청년회 1차 선진지 견학 집행내역 및 결과보고, 7월까지 진행해야 할 사업 정리

1. 회의 주요의제

▶ 7월까지 진행, 완료해야 할 사업 점검 및 준비내용 공유

▶ 마을공동창작실 신축관련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게시판 제작진행 및 완료일 결정

▶ 마을상징조형물 명판제작과 안내도판 설치 관련 진행상황 확인

▶ 2018년 〈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 진행일정 보고

▶ 정지연 간사의 업무진행을 위한 사무 공간 및 기기(노트북, 프린트 등) 사용 편의 위한 추진위원 간 의견 개진

▶ 2019년 하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진행일정과 준비내용 정리 및 결정

▶ 마을공동창작실 신축사업 관련 추진위 의견을 3/4분기 내 정리하는 방안 논의

⇒ 마을공동창작실의 마을사업 필요성에 대한 토의, 신축 시 장소와 자부담금 준비에 대한 의견, 신축 아닌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의견(대안적 제안)에 대한 논의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8회 차)

- **일시** : 2019년 7월 3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윤후영,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게시판과 상징조형물 추천작가 명판제작과 설치관련 보고, 8월까지 진행해야 할 사업 정리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게시판 설치 진행과 담당자 확정

▶ 마을공동창작실 신축관련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게시판 제작과 상징조형물 명판제작 관련 내용 보고와 결정

⇒ 마을상징조형물 명판제작과 안내도판 설치관련 진행상황 확인

▶ 2018년 〈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 진행일정 보고 (추진위원 전상진 마을신문 편집인 진행보고)

▶ 정지연 간사의 업무진행을 위한 프린트기 구입 진행과정과 결정

▶ 마을공동창작실 신축사업 관련 추진위 의견을 3/4분기 내 정리하는 방안 논의

⇒ 마을공동창작실의 마을사업 필요성에 대한 토의, 신축 시 장소와 자부담금 준비에 대한 의견, 신축 아닌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의견(대안적 제안)에 대한 논의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9회 차)

• **일시** : 2019년 8월 2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송병숙 外

• **내용** : 마을게시판과 상징조형물 명판제작 및 설치 관련 보고, 9월까지 진행해야 할 사업 논의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게시판 설치 진행일정 결정

▶ 마을공동창작실 신축관련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

▶ 9월 중 시행할 사업 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게시판 제작과 상징조형물 명판 제작관련 내용 보고와 결정 (※ 추석명절 전 정해진 위치 설치에 대한 의견 정리)

▶ 2018년 〈결과기록집〉 추진일정에 대한 관련 보고

▶ 마을상징조형물 주변 정리 방법 결정

⇒ 2차 마을 상징조형물 도색작업 관련 → 오완석 작가 통화내용(상징조형물 주변정리 및 태양광이용 조명장치 설치 등에 대한 의견 나눔)

▶ 마을공동창작실 신축사업 관련 추진위 의견을 3/4분기 내 정리하는 방안 논의

⇒ 마을공동창작실의 마을사업 필요성에 대한 토의, 신축 시 장소와 자부담금 준비에 대한 의견, 신축 아닌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의견(대안적 제안)에 대한 논의

마을추진위 운영회의(20회 차)

- **일시 :** 2019년 9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송병숙 外
- **내용 :** 9월까지 진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토의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게시판 설치 진행 일정

▶ 마을공동창작실 신축관련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

▶ 2차 마을 입구에 설치된 상징조형물 도장 및 기단부 조성

▶ 마을상징조형물 야간조명 설치 건에 대한 결정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게시판 제작과 상징조형물 명판제작 설치 → 담당자 결정 후 업체와 설치 진행(9월 18~20일 사이)

▶ 2차 마을 상징조형물 추천작가 도장작업 및 기단부 조성작업 → 오완석 작가 답신

⇒ 추석명절 후 작업 가능, 기존 컬러 및 녹 제거 후 우레탄 재질 도장 작업, 총 5일 정도 소요 예상, 일정 및 비용지원 추진위 의뢰

⇒ 작가 연락 후 견적내용 받은 뒤 지원 내용 및 결정, 기단부 조성(콘크리트 타설 방식) 작업도 도장작업과 함께 진행, 담당자 결정 후 작가와 협의 진행토록 추진함

▶ 마을상징조형물 야간조명 건은 (※별첨 조명등 자료) 참고해 모델을 선택

▶ 마을공동창작실 신축사업 관련 추진위의 의견을 3/4분기 안에 정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 마을공동창작실의 마을사업 필요성에 대한 토의, 신축 시 장소와 자부담금 준비에 대한 의견, 신축 아닌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의견(대안적 제안)에 대한 논의

〈별첨〉 마을상징조형물 야간조명 설치관련 조명등 자료

▶ 태양광 188구 투광등 (정원등 야외등 LED조명 실외등) 개당 47,500원-95,000원
DC12V LED 투광등 (간판등 10W 작업등 조명등 차량 선박)

▶ 말뚝형 ; 22,000원-72,000원

▶ 부착형 가로등(20W) 개당 79,000원-198,500원까지 (부착용 폴대 제외)
제품 문의 〈모든솔라라이트〉, 〈나눔조명〉 :

⇒ 여러 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가격 차이로 판매하고 있음(국산이 거의 없음), 우리가 필요한 형태는 말뚝형 설치방식에 투광등 형태, 기둥에 등과 태양광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 가능,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등이 점멸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 가능

⇒ 요구내용에 따른 맞춤형 제작비용은 제시된 일반가격보다 높게 책정됨으로 모델을 검토한 후 직접 통화 후 견적 받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필요

마을추진위 운영회의(21회 차)

-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송병숙 外
- **내용** : 10월까지 진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토의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게시판 보강공사 관련 내용 보고

▶ 마을공동창작실 신축관련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

▶ 2차 마을 상징조형물 작가(오완석 외 1명) 기단 조성공사 실행일 결정

▶ 마을상징조형물 야간조명 설치 건에 대한 결정

▶ 마을노인회 2차 선진지 견학 추진내용 보고와 결정 (※ 주요 일정표 참고, 10월 4일(금) 전라남도 순천시 일원)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게시판 보강공사 관련 보고

▶ 2차 마을 상징조형물 추천작가 기단부 조성작업 → 오완석 작가 통화

⇒ 일정과 공사비용 지원 결정 시 착수 가능 통보

⇒ 추진위 담당자 결정 후 추천작가와 진행, 보고 방식 추진

▶ 조명 개당 금액은 40W 9만원, 60W 10만원(투광등, 택비비 포함)

⇒ 말뚝형 포인트조명등은 개당 27,900원(택배비 미포함), 업체 입장은 조형물에 효과 없을 것으로 판단. 말뚝형 투광등은 제작 불가 입장

⇒ 검토안은 홍성군내 지역 조명업체에 직접제작 및 현장설치 발주하는 방안)

▶ 마을공동창작실 신축사업 관련 추진위 의견을 3/4분기 안 정리하는 방안 논의 (마을공동창작실이 필요한 경우 사용방향 및 활용방안 논의)

▶ 마을노인회 2차 선진지 견학 일정 추진내용 점검 및 세부내용 결정

[표 11] 2019년 이응노마을 노인회 2차 선진지 견학 일정표

▶ 견 학 일 : 2019년 10월 4일(금)

▶ 견 학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일원

▶ 참 가 자 : 양주명, 유성진, 유성옥, 김송자 外 37명 / 전상진(프로그램 매니저), 정지연 간사

▶ 준비서류 : 참가자명단 (여행자보험 / 개인정보공개동의서)

날짜(요일)	시 간	장 소	견학 및 교육일정	비고
10월 4일(금)	07:00~	홍천(이응노) 1,2차 마을	참가자 확인 및 탑승, 출발	
	07:00~10:40	홍성-순천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0월 4일(금)	10:40~12:00	순천만자연생태공원(습지)	순천만 자연습지와 희귀생태계 서식지, 가을 갈대밭을 탐방로 따라 산책할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	
	12:00~13:00	순천 (다민정)	점심식사	
	13:00~15:30	순천만자연생태공원(국가정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조성한 정원으로, 산책하면서 사시사철 꽃 축제를 감상하는 자연생태공원	
	15:30~19:00	순천-홍성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9:00~21:00	홍성 (미당한우)	홍성 도착 후 저녁식사	
	20:00~	홍천(이응노) 1,2차 마을	마을 도착 후 귀가	

※ 현지 사정상 소요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대상지를 부분 변경할 수 있음 / 준비물(사진기, 노트북, 기타)은 추진위원 중 담당자 선정 일임(여행자보험은 추진위 사무국장이 보관)

마을추진위 운영회의(22회 차)

-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송병숙 外
- **내용** : 10, 11월까지 진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토의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 문화예술잔치' 개최 관련 논의

▶ '마을 문화예술잔치' 공방교육프로그램 전시 및 체험·교육 관련 논의

▶ 2차 마을 상징조형물 작가(오완석 외 1명) 기단 조성공사 진행보고

▶ 마을상징조형물 야간조명 설치 건 보고 및 결정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노인회 2차 선진지 견학 집행내역 및 결과보고 (정지연 간사)

⇒ 선진지 견학 시 '이름표' 부착 필요, 견적서, 영수증 제출 등

▶ 2차 마을 상징조형물 작가 기단부 조성작업 (추진위원 이섭 자문 진행)

⇒ 마을상징조형물 작가에게 기단공사 관련 연락 (이틀 전 10월 8일 기반조성-바닥 및 벤치 설치)

▶ 홍성군내 지역 조명업체인 천지조명과 연락 (추진위원 이섭 자문 진행)

▶ '마을 문화예술잔치' 개최에 따른 진행일정 및 예산 집행방식 논의

▶ '마을 문화예술잔치' 개최에 따른 공방교육프로그램 전시 및 체험·교육, 장소 및 진행방식 논의

마을추진위 운영회의(23, 24회 차)

- **일시** : 2019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송병숙 外
- **내용** : 10,11월까지 진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토의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 문화예술잔치' 개최 관련 논의

▶ '마을 문화예술잔치' 공방교육프로그램 전시 및 체험·교육 관련 논의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 문화예술잔치' 개최에 따른 진행일정 및 예산 집행방식 논의

▶ '마을 문화예술잔치' 개최에 따른 공방교육프로그램 전시 및 체험·교육, 장소 및 진행방식 논의

3. 2019 마을 '문화예술잔치' 세부계획 협의

- 일시 : 2019년 11월 2일(토)
- 장소 : 이응노의 집 잔디밭 일원
- 추진 계획

1. 주차시설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및 이응노의 집 주차 안내판 비치 (마을청년회 및 방범대, 교통안전 및 행사안내 담당)
2. 음식준비 : 마을부녀회 국수, 수육, 떡, 묵, 전, 김치, 과일, 막걸리 등 준비, 수도 및 가스, 화덕 설치, 테이블 운반, 음식물쓰레기통 비치 →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예산 지원(3백만 원)
3. 무대준비 : 이응노의 집 위쪽 잔디밭에 무대설치 → 마을 '고암풍물패' 공연과 소담소리 9개 팀 공연 / 가수 유준 사회로 지역출신 가수 한여름을 비롯해 윤이나, 이석주 등 공연 / 마을학교 극단 치우미르 만향 공연과 마술쇼 공연, 에어바운스 대여 등 진행 / 이응노의 집 잔디밭과 전시실 로비에 무대 설치 → 그림이 있는 마을음악회 '거인의 정원', '광장' 등 공연 진행
4. 체험준비 : 이응노의 집 아래쪽 잔디밭에 체험부스 설치 (마을 공방교육프로그램과 마을학교 → 도자기, 목공, 천연염색, 전통민화, 비누·향초만들기, 캘리그라피, 한국화 등에서 제작한 공예·예술품 전시 및 체험행사 진행)
5. 홍보계획 : 초청장 발송 1000통, 지역신문 광고, 홍성군·이응노의 집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게재
6. 기타사항 : 천막, 책상, 의자 등 설치

마을추진위 운영회의(25회 차)

- **일시** : 2019년 10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송병숙 外
- **내용** : 10,11월까지 진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토의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 문화예술잔치' 개최 관련 논의

▶ '마을 문화예술잔치' 공방교육프로그램 전시 및 체험·교육 관련 논의

▶ 마을부녀회·청년회 2차 선진지 견학 일정 및 장소 결정
(※ 주요 일정표 참고, 11월 10일(일) 경상남도 통영시 일원)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 문화예술잔치' 개최에 따른 진행일정 및 예산 집행방식 논의

▶ '마을 문화예술잔치' 개최에 따른 공방교육프로그램 전시 및 체험·교육, 장소 및 진행방식 논의

▶ 마을부녀회·청년회 2차 선진지 견학 일정 및 장소 결정

▶ 마을리더 교육관련 2차 선진지 견학 일정 및 장소 협의 (다음 회차 운영회의에서 결정)

[표 12] 2019년 이응노마을 부녀회·청년회 2차 선진지 견학 일정표

▶ 견 학 일 : 2019년 11월 10일(일)

▶ 견 학 지 : 경상남도 통영시 일원
통영 역사와 문화관광 관련 강의 (최원석 통영관광두레 PD)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전통문화 체험 (통제영 공방 전통문화 체험 3가지)

▶ 참 가 자 : 양주명, 유성진, 김숙자 外 26명 / 전상진(프로그램 매니저), 정지연 간사, 최철(홍성관광두레 PD)

▶ 준비서류 : 참가자명단 (여행자보험 / 개인정보공개동의서)

날짜(요일)	시 간	장 소	견학 및 교육일정	비고
11월 10일(일)	07:00~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참가자 확인 및 탑승, 출발	
	07:00~11:00	홍성-통영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1:00~12:30	통영 통제영 세병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 총본부격인 삼도수군통제사영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승전으로 이끈 역사적 현장 통영 역사와 문화관광 관련 강의 전통문화 공방 12곳 중 3가지 체험	
	12:30~13:30	통영 (성림식당)	점심식사	
	13:30~15:30	통영 케이블카	남해 바다와 통영시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탑승	
	15:30~16:30	통영 윤이상기념관	동베를린간첩단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화가 고암 이응노와 음악가 윤이상이 조우하는 기념관	

11월 10일(일)	16:30~20:30	순천-홍성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20:30~21:30	홍성 (미당한우)	홍성 도착 후 저녁식사	
	21:30~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마을 도착 후 귀가 (왕대골시티투어버스)	

※ 현지 사정상 소요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대상지를 부분 변경할 수 있음 / 준비물(사진기, 노트북, 기타)은 추진위원 중 담당자 선정 일임(여행자보험은 추진위 사무국장이 보관) / 추진위 사무국장은 교육방문지 강사료지급 관련서류를 사전에 준비, 교육당일 강사의 날인을 받도록 함

마을추진위 운영회의(26, 27회 차)

-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송병숙 外
- **내용 :** 12월까지 진행해야 할 사업 및 2019년도 예산집행 확인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 문화예술잔치'와 공방교육프로그램 전시 및 체험·교육 관련 집행내역 및 결과보고

▶ 마을리더 교육관련 2차 선진지 견학 대상지 및 일정 협의

▶ 2019년 사업예산 지급현황 확인(의견 제시 및 다음 운영회의 안건 채택)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 문화예술잔치'와 공방교육프로그램 전시·체험 관련 결과보고 (정지연 간사)

▶ 마을부녀회·청년회 2차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 (정지연 간사)

▶ 마을리더 교육관련 2차 선진지 견학 대상지 및 일정 협의 (세부일정은 다음 회차 운영회의에서 결정)

▶ 2019년 사업예산 지급현황에 대한 안건 채택을 위한 협의 (추진위원 이섭 자문 진행)

⇒ 다음 회차 운영회의 안건 → 2019년 사업별 예산총액과 잔액보고, 진행 못한 사업 및 예산내용에 대한 대체방안 준비 등 채택)

마을추진위 운영회의(28회 차)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송병숙 外
- **내용 :** 12월까지 진행해야 할 사업내용 확인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리더 교육관련 2차 선진지 견학 일정 및 진행 세부사항 결정 (※ 주요 일정표 참고, 12월 6일(금)~8일

(일) 강원도 춘천시·양구군·인제군·강릉시·원주시 일원)

▶ 2019년 사업내용 점검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리더 교육관련 2차 선진지 견학 일정 및 진행 세부사항 결정

▶ 2019년 사업내용 부분 점검(추진위원 간 의견 교환)

[표 13] 2019년 이응노마을 리더(추진위원) 교육관련 2차 선진지 견학 일정표

▶ 견 학 일 : 2019년 12월 6일(금)~8일(일)

▶ 견 학 지 : 강원도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강릉시, 원주시 등 강원도 5개 시·군(박물관·미술관·문학촌·예술창작인촌·역사유적지 등 방문 예정 : 마을 주민역량강화 위한 교육방문지 10곳

첫째 날, 강원도 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양구군 박수근미술관, 인제군 만해문학박물관과 한국시집박물관 등

둘째 날, 강원도 강릉시 동양자수박물관, 강릉예술창작인촌, 오죽헌과 오죽헌시립박물관, 테라로사커피공장 등

셋째 날,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 일출, 하슬라아트월드, 원주시 뮤지엄 산 등

▶ 참 석 자 : 양주명, 유성진, 김숙자, 방정일, 권재완, 신동학(이상 마을리더), 신나라, 노태훈, 전범석(이상 행정) / 전상진(프로그램 매니저), 정지연(간사) 등 11명

▶ 숙　소 : 인제스피디움(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하답로 130) / 다우리조텔(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등명길 43)

▶ 준비서류 : 참가자명단 (여행자보험 / 개인정보공개동의서)

날짜(요일)	시 간	장 소	내용 및 견학교육	비고
12월 6일(금)	07:00~	이응노의 집 주차장	참가자 확인 및 탑승, 출발	
	07:00~11:00	홍성-춘천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08:15~09:15	화성휴게소 음식코너	아침식사 (버스 임시정차)	
	11:00~12:40	춘천 김유정문학촌	동백꽃, 봄봄의 천재작가 김유정의 고향인 춘천 실레마을에 조성한 강원도 1호 공립문학관으로, 생가와 기념관, 체험공간, 김유정역 등을 살펴볼 수 있다.	
	12:40~13:40	춘천 (장호더그릴)	점심식사	
	13:40~15:00	춘천-양구 버스 이동	양구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5:00~16:00	양구 박수근미술관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화폭에 담은 화가 박수근의 삶과 작품세계를 살필 수 있는 미술관으로, 홍성 이응노의 집과 연계한 다양한 공간 활용을 배울 수 있다.	
	16:00~17:00	양구-인제 버스 이동	인제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2월 6일(금)	17:00~17:30	인제 만해문학박물관	'님'이 침묵하는 상실과 다시 '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한 만해 한용운이 만해문학박물관은 홍성 만해한용운생가지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과 공간 활용을 배울 수 있다.	
	17:30~18:30	인제 한국시집박물관	한국 근현대 시집을 체계적으로 전시, 교육하는 곳으로, 기증시집 전시와 더불어 체험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18:30~20:30	인제 (백담황태구이)	저녁식사, 숙소로 이동	
	20:30~21:30	인제 숙소 (인제스피디움)	방 배정 및 견학 및 교육관련 토의	
	21:30~	인제 숙소 (인제스피디움)	자유 시간, 취침	
12월 7일(토)	08:00~09:00	인제 숙소 (인제스피디움)	체크아웃	
	09:00~10:00	인제 (고향집식당)	아침식사	
	10:00~10:50	인제-강릉 버스 이동	강릉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0:50~11:50	강릉예술창작인촌, 동양자수박물관	강릉 예술인들의 창작공방과 체험교육을 살피고, 한중일 3국의 전통자수를 감상·체험할 수 있다.	
	11:50~13:15	강릉 오죽헌과 시립박물관	검은 대나무 바람 몸이 흔들이는 곳에 신사임 당과 율곡 이이의 고택 오죽헌을 둘러보고 신사임당의 예술세계를 살필 수 있다.	
	13:15~15:00	강릉 (테라로사 레스토랑)	점심식사	
	15:00~16:30	강릉 테라로사커피공장	테라로사 뮤지엄은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까지 전 과정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박물관으로, 직접 커피 제조과정을 체험하고 한 잔의 커피를 음미할 수 있다.	
	16:30~17:10	강릉 현수네건어물	마을리더 각자 개별 선물용 건어물 구입	
	17:10~20:40	강릉 (성원궁횟집)	저녁식사, 숙소 이동	
	20:40~21:40	숙소 (다우리조텔)	방 배정 및 견학 및 교육관련 토의	
	21:40~	숙소 (다우리조텔)	자유 시간, 취침	
12월 8일(일)	05:40~07:40	강릉 정동진 일출	TV드라마 〈모래시계〉의 명소 정동진에서 일출을 보며, 각자의 소망과 마을 사업 및 발전을 기원해 본다.	
	07:40~08:40	강릉 (정동진전복뚝배기)	아침식사	
	08:40~09:20	강릉 숙소 (다우리조트)	체크아웃	
	09:20~13:00	강릉 하슬라아트월드	고구려·신라의 지명 '하슬라'는 강릉이라는 뜻으로, 박신정·최옥영 부부가 개관한 현대 미술관이다. 인형과 조각 등 대지미술 공간 으로의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	

12월 8일(일)	13:00~14:30	원주 (욕심장어수산)	원주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점심식사	
	14:45~16:45	원주 뮤지엄 산	한솔문화재단에서 설립한 뮤지엄으로 종이 박물관과 청조갤러리를 조합한 뮤지엄이다. 건물과 주변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고, 다양한 현대미술 전시가 이루어진다.	
	16:45~19:45	원주-홍성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9:45~21:00	홍성 구항 (구항한우)	홍성 도착 후 저녁식사	
	21:30~	이응노의 집 주차장	마을 도착 후 귀가 (왕대골시티투어버스)	

※ 현지 사정상 소요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대상지를 부분 변경할 수 있음 / 준비물(사진기, 노트북, 기타)은 추진위원 중 담당자 선정 일임(여행자보험은 추진위 사무국장이 보관) / 추진위 사무국장은 교육방문지 강사료지급 관련서류를 사전에 준비, 교육당일 강사의 날인을 받도록 함

마을추진위 운영회의(29회 차)

- **일시** : 2019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송병숙 外
- **내용** : 12월까지 진행해야 할 사업내용과 예산집행 확인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리더 교육관련 2차 선진지 견학 최종(안) 확정

▶ 2019년 사업내용과 예산집행 내역 점검

▶ 2020년 상반기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리더 교육관련 2차 선진지 견학 최종(안) 확정

▶ 2019년 사업내용 부분 점검(추진위원 간 의견 교환)

▶ 2020년 상반기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추진위원 간 의견 교환)

마을추진위 운영회의(30회 차)

-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송병숙 外
- **내용** : 2019년도 사업내용 및 2020년 1/4분기 사업내용과 예산 확인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리더 교육관련 2차 선진지 견학 집행내역 및 결과보고

⇒ 이번 마을리더 교육관련 2차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는 프로그램 매니저인 전상진 추진위원이 보고서로 작성

▶ 2019년 사업내용과 예산집행 점검

▶ 2020년 1/4분기 사업내용과 예산에 대한 검토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2019년 사업부분 관련 점검(의견 교환)

⇒ 예산잔액 사용처 및 사용방법 결정

▶ 2020년 1/4분기 사업내용과 예산에 대한 검토

⇒ 1/4분기 사업내용과 예산 확인, 2020년 공방교육프로그램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

▶ 기타 2019년 사업 중 미진한 부분, 이월 가능한 사업에 대한 정리







4. 2020년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추진위원회 운영회의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회 차)

- **일시** : 2020년 1월 1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 사업과 예산 확인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 1/4분기 이내 진행방안 검토

▶ 2020년 사업내용과 예산점검 후 사업순서 결정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2019년 사업부분 점검 (이월사업관련 진행방안 결정)

▶ 2020년 상반기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 1/4분기 사업내용과 예산확인 결정 (※아래 사업내용 검토)

⇒ 상반기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장소와 일정 준비, 2018·19년 〈결과기록집〉과 마을신문 진행 추진 방식 검토,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검토, 마을공동창작실(=공방) 신축지 및 신축에 따른 내용 검토 / 2020년 공방교육프로그램 활동계획에 대한 결정

▶ 2020년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 진행방안 시간 결정

▶ 협동조합 결성 시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 2019년 마을리더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방문지 중 제주도 '꿈꾸는 고물상'에서 카페 운영 시 이응노의 집 '연잎차' 메뉴로 개발 제공해 호평 받아 연잎차 구매의사 알려옴에 따라 우선 행정기관 공필재 팀장이 이응노의 집 이름으로 선물 (이후 제조와 판매관련 제도 마련 필요)

▶ 2020년 마을사업관련 제안서 준비와 응모에 따른 홍성군청 내 관계부서 협력 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

마을추진위 운영회의(2회 차)

- **일시** : 2020년 2월 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 2월 사업내용 검토 및 확정

1. 회의 주요의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마을사업 전반에 대한 잠정보류 결정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 일정 확정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장소와 일정 확정 (※ 주요 일정표 참고, 2월 27일(목)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2019년 이월사업 부분 점검

⇒ 옹벽조형물 설치 예산(1천만 원)을 1,2차 마을 환경정비사업 사업비(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1,2차 농구대와 놀이터 정비)로 전환 → 예산 변경신청을 통해 최종 사용방안 및 예산안 확정 후 실행, 환경정비사업 내용정리 후 확정 필요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에 관한 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한원종 연구원)

⇒ 방문교육 가능(교육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강의와 질의응답), 1차 방문일정 2월 14일(금) 오후 2시 이후, 강사비(2시간 강의 기준 30만원), 추진위 결정사항은 일정과 시간, 참가인원, 교육장소, 협동조합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필요

▶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관련 내용 확정 (정지연 간사 보고내용 확인 후 결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잠정보류 결정

3. 정월대보름 관련 점심식사 대접

▶ 2월 8일(토) 12시 1,2차 마을노인회관, 추진위는 오후 6시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에서 식사 및 척사대회(윷놀이) 예정 →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개최 유무 결정

[표 14] 2010년 이응노마을 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일정표 (예정, 코로나 19 확산 추세에 따라 잠정보류 결정)

▶ 견 학 일 : 2020년 2월 27일(목)

▶ 견 학 지 :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

▶ 참 가 자 : 양주명, 유성진, 김숙자 外 / 전상진(프로그램 매니저), 정지연(간사)

▶ 준비서류 : 참가자명단 (여행자보험 / 개인정보공개동의서)

날짜(요일)	시 간	장 소	견학 및 교육일정	비고
10월 4일(금)	07:30~	홍천(이응노) 1,2차 마을	참가자 확인 및 탑승, 출발	
	07:30~10:00	홍성-목포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0:00~12:00	목포근대역사관 1,2관	일제강점기 목포일본영사관과 동양척식주식회사목포지점으로 지어진 건물. 현재는 목포의 시작부터 근대, 일제강점기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역사관으로 탈바꿈시킨 역사공간	
	12:00~13:00	목포 (음식점)	점심식사	
	13:00~16:00	목포해상케이블카	목포시내 북항스테이션을 출발, 유달산 정상부에서 'ㄱ'자로 꺾여, 해상을 지나 반달섬 고하도에 이르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	
	16:00~18:30	목포-홍성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8:30~20:00	홍성 (음식점)	홍성 도착 후 저녁식사	
	20:00~	홍천(이응노) 1,2차 마을	마을 도착 후 귀가	

※ 현지 사정상 소요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대상지를 부분 변경할 수 있음 / 준비물(사진기, 노트북, 기타)은 추진위원 중 담당자 선정 일임(여행자보험은 추진위 사무국장 보관)

마을추진위 운영회의(3회 차)

- **일시** : 2020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 3월 사업내용 검토 및 확정

1. 회의 주요의제

▶ 2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 및 선진지 견학 일정 등 연기에 대한 의견 일치

▶ 2차 회의에서 옹벽조형물을 대체하는 마을 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결정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 일정 확정,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장소와 일정 확정, 마을 환경정비사업 내용에 대한 결정 등

2.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 첨부서류

▶ 추진위 구성

⇒ 위원장 1명(양주명 이장), 사무국장 1명(유성진 청년회장), 감사 1명(권재완 나무공방 소풍 소장), 추진위원 4명(김숙자 부녀회장, 이상일 신임총무, 방정일 전임총무, 신동학 주민리더) 등 총 7명 / 자문 및 서기 1명(이섭), 사무간사 1명(정지연), 이응노의 집 팀장(공필재)과 학예연구사(신나라) 등 2명, 마을신문 및 결과기록집 편집인(전상진) 1명 등 총 5명 운영회의 참가 / 추진위원 7명(위원장 포함)은 공식적인 운영회의 구성원. 기타 5명은 원활한 운영회의를 위해 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가하며, 자문·서기와 간사 직책은 편의상 운영회의에서 명칭 부여

▶ 추진위원회 주요사업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군창의사업 일환으로 2017~2020년 총 4년에 걸쳐 관련 사업을 추진 중. 주요사업으로는 공방교육프로그램, 마을 '문화예술잔치'와 이응노의 집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 전시 및 축제부분 참여, 마을 환경조성사업, 주민 생활편의시설 개선사업, 문화예술마을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교육(마을리더 교육은 주민교육 중 하나)으로 구성됨

▶ 희망하는 교육과 커리큘럼(협동조합 결성과 관련한 교육)

⇒ 이응노마을(행정구역의 공식명칭은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의 향후 발전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식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첫째, 문화예술마을로써 정체성 만들고, 이를 마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공방프로그램'의 협동조합 활동과 사업 관련 지속성에 대하여). 둘째, 이응노의 집에 자리한 연지에서 얻을 수 있는 연잎을 활용해서 연잎차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협동조합에서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 이에 따른 협동조합교육과 커리큘럼 : 협동조합 결성이 마을에 끼치는 좋은 영향, 협동조합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예술체험마을' 가능성과 국내사례, 협동조합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기본입장(자세), 실무적인 내용으로써 협동조합 결성을 위한 절차와 준비, 협동조합 결성 이후 지속적인 교육 필요성과 가능한 기관의 연계 등

마을추진위 운영회의(4회 차)

- **일시** : 2020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 3,4월 사업내용 검토 및 확정

1. 회의 주요의제

▶ 3차 회의에서 결정한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 및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일정 모두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일정 연기에 대한 의견 일치

▶ 옹벽조형물을 대체하는 마을 환경정비사업 내용에 대해 검토 후 결정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4월 중 실행사업 검토 후 사업내용 결정

마을추진위 운영회의(5회 차)

- **일시** : 2020년 04월 0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연기된 2020년 4,5월 사업내용 및 일정에 대한 검토

1. 회의 주요의제

▶ 4차 운영회의에서 결정한 시군창의사업 기록화(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의 진행내용을 점검

▶ 기타 사업일정 연기에 따라 현황점검 및 진행 가능한 일정 검토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2019년 이월 사업 부분 점검

⇒ 옹벽조형물 예산(2천만 원)을 1,2차 마을 환경정비 사업비로 전환 → 예산 변경신청에 대해 행정기관(홍성군) 팀장과 협의 진행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시스템냉난방 설치 결정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에 관한 건

⇒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권고안 받아들여 5월 중으로 일정 변경

▶ 2020년 마을노인회·부녀회·청년회 선진지 견학 관련 일정 연기에 따른 새로운 일정 준비에 대한 의견

▶ 2018·19년 〈결과기록집〉 인쇄 진행상황 및 기록화사업 예산 사용방안에 대한 의견

▶ 2020년 공방교육프로그램 일정 연기에 따른 향후 계획 수정에 대한 의견

▶ 기타 추진위의 검토 및 결정 사항에 대한 이견 시 자유로운 의견 수렴

마을추진위 운영회의(6회 차)

- **일시** : 2020년 4월 2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5차 운영회의 내용에 대한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시군창의사업 기록화(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에서 지출하지 못한 예산변경과 새로운 사업에 관한 건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진행에 관한 건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시군창의사업 기록화(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 중 진행하지 못한 사업비 현황과 사업내용의 변경

⇒ 마을신문 미발행 건과 남은 예산 활용(신규 사업내용 확정과 관련 예산 변경신청 진행)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에 관한 건

⇒ 2차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부권고안을 받아들여 5월 중으로 일정을 변경 (직접 통화 후 가능한 교육일정 확인 후 공지 예정)

▶ 2018·19년 〈결과기록집〉 인쇄 진행상황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관련 설계도면 확인 및 주민 요구사항 반영 건

마을추진위 운영회의(7회 차)

-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6차 운영회의 내용에 대한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진행에 관한 건

▶ 시군창의사업 기록화(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 예산변경에 따른 구체적 사업내용에 관한 건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 이후 일정에 관한 건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관련 설계도면 확인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 건

⇒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설비를 공사비에서 보조 및 지원하는 방안과 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 품목을 구분할 필요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시스템냉난방 설치 결정

▶ 시군창의사업 기록화(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 중 진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예산변경 신청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업내용으로의 전환 의논 (추진일정 확정 필요)

▶ 2018·19년 〈결과기록집〉 인쇄 진행상황 점검

⇒ 경관작물을 마을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마을 곳곳에 평상과 벤치를 자체 제작해 설치하는 건 등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에 관한 건

⇒ 5월 14일 1차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추가 교육일정에 대한 의견

⇒ 차후일정 및 교육장소, 참여인원의 관리, 농번기와 교육 일정이 겹치는 문제 해결방안 등

마을추진위 운영회의(8회 차)

•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6,7차 운영회의 내용에 대한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진행에 관한 건

▶ 2020년 공방교육프로그램 일정 확정에 따른 운영계획 결정 (※ 2020년 상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일정표 참고)

▶ 시군창의사업 기록화(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 예산변경에 따른 구체적 사업내용에 관한 건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 이후 일정에 관한 건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관련 설계도면 확인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 건

⇒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설비를 공사비에서 보조 및 지원하는 방안과 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 품목을 구분할 필요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시스템냉난방 설치 결정

▶ 2020년 공방교육프로그램 일정 확정에 따른 운영계획 점검 및 확인

▶ 시군창의사업 기록화(결과기록집 및 마을신문) 중 진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예산변경 신청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업내용으로의 전환 의논 (추진일정 확정 필요)

▶ 2018·19년 〈결과기록집〉 인쇄 진행상황 점검

⇒ 경관작물을 마을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마을 곳곳에 평상과 벤치를 자체 제작해 설치하는 건 등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에 관한 건

⇒ 5월 14일 1차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추가 교육일정에 대한 의견

⇒ 차후일정 및 교육장소, 참여인원의 관리, 농번기와 교육 일정이 겹치는 문제 해결방안 등

[표 15] 이응노마을 '2020년 상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추진일정 (2020년 5~7월, 13회 차 운영)

▶ 신청자격 : 1순위 홍천(이응노)마을, 2순위 용봉산권역(상하리·중계리), 3순위 홍성군 전체(내포신도시 포함)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권재완(010-4508-9223) 나무공방 소풍 소장(공방교육 매니저) 또는

양주명 위원장(010-3125-6138), 유성진 국장(010-8885-6024), 정지연 간사(010-5334-6754) 등 전화 접수

▶ 수 강 료 : 무료 (재료비도 무료)

▶ 모집정원 : 각 강좌별 10명

▶ 주요 프로그램 개요

강 좌 명	강 사 명	개 강 일	운영일시	장 소	교육내용
가죽공예	채정옥	5월 28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가죽을 이용해 지갑, 필통, 핸드백 등 만들기
도자기	김종석	5월 28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마을 백월산 도예공방	흙판에 빚고 도자 벽화 만들기
목공예	권재완	5월 28일(목)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마을 나무공방 소풍	원형스톨, 전통창호 등 목공제품 만들기
현대서예와 캘리그라피	박혜선	5월 29일(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캘리그리피를 배우고 소품·작품에 활용하기
꽃차 소믈리에	정은숙	5월 29일(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마을 꽃마실 공방	제철 꽃 재료를 사용한 꽃차 만들기
천연염색	임민숙	6월 1일(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천연염색 기법을 배우고 스카프, 앞치마, 쿠션 만들기
토탈공예	신정원	6월 1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비즈공예, 퀼트, 향초, 비누, 냅킨공예 등 배우기
전통민화	오희숙	6월 2일(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전통민화 기법을 배우고 민화 소품 만들기
수채화 (어반 스케치)	최미옥	6월 2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드로잉, 정물화 어반스케치

※ 공방교육프로그램 '꽃차 소믈리에(정은숙)', '수채화(최미옥 강사)' 2개 강좌 추가 (총 9개 강좌)

※ 찾아가는 공방 수업(마을 힐링반상회) : 강좌별 1회 차씩 실시

⇒ 힐링반상회가 다시 개최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 내년까지 이월, 계획된 순서대로 진행

※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 방역책임자 지정 통해 발열체크 및 특이사항(해외여행 및 확진자, 자가격리자 접촉여부 등) 확인 기록 →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질환자는 수업 참석 불가 (확진자 또는 확진자 접촉자 발생 시 수업 중단 후 질병관리본부 지시에 따른다)

⇒ 수강생 참석 시 발열체크 및 손 소독 의무화, 수업 전후 교육장 및 작업도구 소독 실시

⇒ 강사 및 수강생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최대한 거리두기 준수, 수건·물컵 등 각자 사용

⇒ 강사 앞 확인서 징구 (모든 강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교육 전후에 교육장을 소독하고, 알코올티슈 및 손 소독제 등의 방역물품 사용 관리의 의무를 진다) → 교육 시작 전 강사는 수강생에게 위의 조치사항 관련 집합교육 실시 후 확인서 징구

마을추진위 운영회의(9회 차)

- **일시 :** 2020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8회 차 운영회의 내용에 대한 점검,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 준비를 위한 토의

1. 회의 주요의제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결과에 대한 점검

▶ 마을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 이후 일정에 관한 건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점검사항

⇒ 별의별 작은 도서관 배관공사 및 에어컨 작동여부 문제,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운영과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에 관한 건 (6월 22일 2차 교육 완료)

⇒ 3차 교육(협동조합 설립 서류작성 교육)을 위한 준비 → 3차 교육에 대해 일정 확정 필요, 강사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정관 작업과 희망하는 추진사업 기본계획, 조합원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 협의, 사업 지출계획에 따른 최소경비, 인건비에 대한 규정 협의 등)

▶ 마을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 평상, 벤치 작업과 설치 장소 결정, 마을정자 세우기 관련 내용 협의 등

▶ 기타 홍성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문화특화사업 100년 계획' 지원 등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0회 차)

-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결과에 대한 점검

▶ 마을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 이후 일정에 관한 건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점검사항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미장 완공문제 확인,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오픈에 맞춰 공방교육프로그램 전시 개최 점검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에 관한 건(6월 22일 2차 교육 완료)

⇒ 3차 교육(협동조합 설립 서류작성 교육)을 위한 준비 → 3차 교육에 대해 일정 확정 필요, 강사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정관 작업과 희망하는 추진사업 기본계획, 조합원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 협의, 사업 지출계획에 따른 최소경비, 인건비에 대한 규정 협의 등)

▶ 마을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 평상, 벤치 작업과 설치 장소 결정, 마을정자 세우기 관련 내용 협의, 2차 마을 입구 상징조형물 주변 정리 등

▶ 기타 홍성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문화특화사업 100년 계획' 지원 등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1회 차)

- **일시** : 2020년 8월 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 의제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정관 검토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에 관한 건(8월 12일 3차 교육 예정)

⇒ 3차 교육 일정이 8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까지 예정되어 있음(교육은 사업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최종 마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결성에 대한 의견을 추후 추진위에서 결정할 사항)

▶ 마을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 평상과 벤치 작업과 설치장소에 대한 검토가 아직 결정하지 못함(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가까운 기일 내 확정해야 함), 아직 사업대비 예산을 변경해 사용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음(이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나누고 기본 방향을 잡도록 해야 함)

▶ 기타 홍성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문화특화사업 100년 계획' 지원에 대한 신청 건. (※현재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방교육프로그램과 마을잔치, 그리고 사물놀이 교육과 활동 중심으로 신청이 가능함.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함)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2회 차)

- **일시** : 2020년 9월 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2020년 사업 진행상황 및 예산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와 추진일정 정리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리더 교육관련 협동조합교육(8월 12일 3차 교육) 완료 (추후 협동조합 관련 사업진행에 따라 함원종 연구원이 협조하기로 함)

▶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하지 못한 마을사업 점검 필요

⇒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에서, 아트문화전시공간조성 자재구입비 2천4백9십만 원, 둑방길 공원 조성비 1천7백6십만 원 /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문화예술잔치(11월 마을잔치) 4년간 총 4천만 원 / 선지지 견학(노인회·부녀회·청년회 중심 선진지 견학) 4년간 총 2천8백만 원 / 주민 양성교육 중 주민리더교육(추진위 중심) 2박 3일 견학교육 및 협동조합 교육을 포함 총 4천3백5십만 원 / 문화예술잔치 실기교육 총 3백3십만 원 / 사업기록화(4년 총 1억5천8백8십만 원)에서, 결과기록집 발간(4천7백7십만 원), 전산물품 구입(5백만 원), 마을신문 발행(1억6백1십만 원)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

▶ 2020년 상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완료 (※ 2020년 하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일정표 참고)

▶ 나무공방 소풍 앞 마을정자 설치와 1차 마을 어린이놀이터 경관 정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기타 홍성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문화특화사업 100년 계획' 지원에 대한 신청 건

[표 16] 이응노마을 '2020년 하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추진일정 (2020년 9~11월, 13회 차 운영)

▶ 신청자격 : 1순위 홍천(이응노)마을, 2순위 용봉산권역(상하리·중계리), 3순위 홍성군 전체(내포신도시 포함)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권재완(010-4508-9223) 나무공방 소풍 소장(공방교육 매니저) 또는 양주명 위원장(010-3125-6138), 유성진 국장(010-8885-6024), 정지연 간사(010-5334-6754) 등 전화 접수

▶ 수 강 료 : 무료 (재료비도 무료)

▶ 모집정원 : 각 강좌별 10명

▶ 주요 프로그램 개요

강 좌 명	강 사 명	개 강 일	운영일시	장 소	교육내용
전통민화	오희숙	9월 29일(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전통민화 기법을 배우고 민화 소품 만들기
코바늘& 양말목공예	김진선	9월 29일(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가방, 가랜드 등 생활소품 코바늘 양말목공예로 만들기
수채화 (어반 스케치)	최미옥	9월 29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드로잉, 정물화 어반스케치
가죽공예	채정옥	10월 1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가죽을 이용해 지갑, 필통, 핸드백 등 만들기
도자기	김종석	10월 1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마을 백월산 도예공방	흙판에 빚고 도자 벽화 만들기
목공예	권재완	10월 1일(목)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마을 나무공방 소풍	원형스톨, 전통창호 등 목공제품 만들기
현대서예와 캘리그라피	박혜선	10월 2일(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캘리그리피를 배우고 소품·작품에 활용하기

꽃차 소믈리에	정은숙	10월 2일(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마을 꽃마실 공방	제철 꽃 재료를 사용한 꽃차 만들기
천연염색	임민숙	10월 5일(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천연염색 기법을 배우고 스카프, 앞치마, 쿠션 만들기
토탈공예	신정원	10월 5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비즈공예, 퀼트, 향초, 비누, 냅킨공예 등 배우기

※ 공방교육프로그램 '코바늘 & 양말목공예(김진선)' 1개 강좌 추가 (총 10개 강좌)

※ 찾아가는 공방 수업(마을 힐링반상회) : 강좌별 1회 차씩 실시

⇒ 힐링반상회가 다시 개최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 내년까지 이월, 계획된 순서대로 진행

※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 방역책임자 지정 통해 발열체크 및 특이사항(해외여행 및 확진자, 자가격리자 접촉여부 등) 확인 기록 →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질환자는 수업 참석 불가 (확진자 또는 확진자 접촉자 발생 시 수업 중단 후 질병관리본부 지시에 따른다)

⇒ 수강생 참석 시 발열체크 및 손 소독 의무화, 수업 전후 교육장 및 작업도구 소독 실시

⇒ 강사 및 수강생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최대한 거리두기 준수, 수건·물컵 등 각자 사용

⇒ 강사 앞 확인서 징구 (모든 강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교육 전후에 교육장을 소독하고, 알코올티슈 및 손 소독제 등의 방역물품 사용 관리의 의무를 진다) → 교육 시작 전 강사는 수강생에게 위의 조치사항 관련 집합교육 실시 후 확인서 징구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3회 차)

- **일시** : 2020년 9월 25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2020년 사업 진행내용과 예산변경 사항에 따른 새로운 사업진행 검토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마을 주요사업의 경우 예산 변경을 통해 마을경관개선사업으로 방향 정함

⇒ 세부사항과 사업장소에 대한 의견과 추진일정에 대한 정리(반사경 설치 및 마을정자 신축)

▶ 시군창의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하지 못한 예산의 점검(잔액 확인결과 공유)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4회 차)

- **일시** : 2020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2020년 예산 변경사항에 따른 사업진행 검토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신축 마을정자 모델 결정, 반사경 설치 위치에 대한 의견 검토와 결정, 마을공동창작실 필요공간에 대한 의견 수렴, 마을상징조형물 주변 정리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1,2차 마을 놀이터 정비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 하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인원모집 현황 및 재료비 일괄지급에 대한 결정사항 확인 등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5회 차)

-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2020년 사업진행 검토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신축 정자 모델 결정 및 계약 체결(토목공사 관련예산 확인 후 사업일정 확인)

▶ 반사경 설치는 주민 직접 설치방안 검토(설치예산 아껴 많은 반사경을 마을 곳곳 필요한 장소에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데 의견 일치. 추진일정 결정)

▶ 마을공동창작실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의견수렴

▶ 1,2차 마을 놀이터 정비 방식에 대해 황토시멘트 견적 확인 후 사업일정 논의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6회 차)

- **일시** : 2020년 11월 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2020년 사업진행 검토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신축정자 주변정비 방식에 대한 의논 결정

▶ 반사경 설치에 대한 내용(일정, 설치방식, 구입방식)에 대한 결정

▶ 마을공동창작실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 1,2차 마을 놀이터 정비 방식에 대한 결정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7회 차)

- **일시** :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2020년 사업진행 검토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신축 마을정자 진행상황 확인

▶ 1차 반사경 10개 구입 후 설치방안, 장소에 대한 의견 정리

▶ 현재 설계변경 중인 마을공동창작실 설계도면 검토 후 의견 수렴

▶ 1차 마을 놀이터 정비 확인, 2차 마을 놀이터 정비 일정 검토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별의별 갤러리' 사용에 대한 추진위와 이응노의 집 학예연구실 간 의사소통 및 사용허가 절차에 대한 의견 정리 (※ 참고로 현재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갤러리 전시는 11월 28일까지 진행)

▶ 사업 종료시점 50일 전. 전체 사업관련 보고 및 진행상황 확인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8회 차)

-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2020년 사업진행 검토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별의별 갤러리'에서 공방교육프로그램 전시회 진행상황 검토와 지원금 결정(기념품, 다과회, 현수막, 테이블보 등)

▶ 마을 월산공작소 명의로 반사경 10개 구입 견적과 진행 상황 검토

▶ 현재 설계변경 중인 마을공동창작실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

▶ 이응노의 집 뒤편 주차장 안내 표시(도로상 표기, 도로변 안내표지판 설치)를 이 사업예산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지 검토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별의별 갤러리' 사용과 관련 마을주민들에게 홍보·안내를 해 주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준비. 이에 대한 추진위와 이응노의 집 학예연구사 간 소통문제 검토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9회 차)

- **일시 :**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2020년 사업진행 검토와 2021년 사업예산과 기본일정 검토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올해 종료예정인 사업 일부내용이 예산과 함께 2021년 사업으로 이월되도록 문건 신청. 최종 확정내용이 아직 회신되지 않았지만, 구두 문의결과 사업 중 올해 진행될 수 없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2021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

▶ 반사경 구입 및 설치는 위치를 확정, 위치에 맞춰 세부내역을 확인, 구입 후 설치해야 함

▶ 마을공동창작실은 올해 안으로 공사 착수하고, 총 30일로 예상되는 공사일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함. 이에 대한 별도의 사안이 생기면 운영회의에서 확인, 검토함

마을추진위 운영회의(20회 차)

- **일시 :** 2020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2020년 사업진행 검토와 2021년 사업예산과 기본일정 검토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올해 종료예정인 사업 일부내용이 예산과 함께 2021년 사업으로 이월되도록 문건 신청. 최종 확정내용이 아직 회신되지 않았지만, 구두 문의결과 사업 중 올해 진행될 수 없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2021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

▶ 반사경 구입 및 설치는 위치를 확정, 위치에 맞춰 세부내역을 확인, 구입 후 설치해야 함

▶ 마을공동창작실은 올해 안으로 공사 착수하고, 총 30일로 예상되는 공사일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함. 이에 대한 별도의 사안이 생기면 운영회의에서 확인, 검토함

마을추진위 운영회의(21회 차)

- **일시 :** 2020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이상일, 김숙자,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정지연 / 공필재, 신나라 外

• **내용 :** 2020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12월 현재 진행 사업점검 및 2021년 사업예산 검토

2. 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일

▶ 2020년 사업 종결시점이 몇 주 남았음. 현재 진행 중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지급현황을 확인해 내년도 이월예산을 최종 확정해야 함

▶ 2021년 사업예산 계획 확인 후 검토

▶ 2021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의견 제시 필요







5. 2021년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추진위원회 운영회의

마을추진위 운영회의(1회 차)

- **일시** : 2021년 4월 2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이상일,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外
- **내용** : 2021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현재 진행 사업점검 및 2021년 사업예산 지출계획 검토

⇒ 마을사업이 2021년 1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월예산에 대한 지출계획과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추진일정을 결정해야 함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지출계획 검토 (※아래는 2021년 사업계획 내용)

⇒ 2021년 공방교육프로그램 8주 진행 결정 (※2021년 공방교육프로그램 일정표 참고)

⇒ 선진지 견학 대상을 마을리더(추진위원)로 축소 진행 (예상 참가프로그램 검토 필요)

⇒ 마을 협동조합 설립과 추진 (사업내용과 최소 5인 이상 참여희망자 검토 필요)

⇒ 〈결과기록집〉 발간 (4년간 사업을 총정리 하는 단행본으로 결과기록집 발간계획 필요)

⇒ 기타 사업에 대한 논의 (※ 11월 마을 '문화예술잔치' 개최여부)

▶ 위 사업 내용 중 선별된 사업관련 2021년 4월 현재 남아있는 사업예산 계획 확인 필요

▶ 2021년 사업추진 일정 → 월별 구분 후 결정

[표 17] 이응노마을 '2021년 공방교육프로그램' 추진일정 (2021년 8~10월, 13회 차 운영)

▶ 신청자격 : 1순위 홍천(이응노)마을, 2순위 용봉산권역(상하리·중계리), 3순위 홍성군 전체(내포신도시 포함)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권재완(010-4508-9223) 나무공방 소풍 소장(공방교육 매니저) 또는 양주명 위원장(010-3125-6138), 유성진 국장(010-8885-6024), 정지연 간사(010-5334-6754) 등 전화 접수

▶ 수 강 료 : 무료 (재료비도 무료)

▶ 모집정원 : 각 강좌별 10명

▶ 주요 프로그램 개요

강 좌 명	강 사 명	개 강 일	운영일시	장 소	교육내용
수채화 (어반스케치)	최미옥	8월 26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드로잉, 정물화 어반스케치 등

꽃차 소믈리에	정은숙	8월 26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마을 꽃마실 공방	제철 꽃 재료를 사용한 꽃차 만들기
천연염색	임민숙	8월 26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천연염색 기법을 배우고 가방, 바지 만들기
가죽공예	채정옥	8월 26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가죽을 이용해 다이어리, 여권케이스 등 만들기
수묵 캘리그라피	박혜선	8월 27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캘리그리피를 배우고 소품·작품에 활용하기
목공예	권재완	8월 28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마을 나무공방 소풍	원형스톨, 전통창호 등 목공제품 만들기
도자기	김종석	8월 28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마을 백월산 도예공방	흙판에 빚고 세라믹 장신구 만들기
토탈공예	신정원	8월 30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퀼트, 비즈공예, 목걸이, 안경줄 등 만들기
코바늘& 양말목공예	김진선	8월 31일(화)	매주 화요일 오전 2시	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가방, 가랜드 등 생활소품 코바늘 양말목공예로 만들기

※ 공방교육프로그램 '전통민화(오희숙)' 1개 강좌 개인 사정으로 취소 (총 9개 강좌)

※ 찾아가는 공방 수업(마을 힐링반상회) : 강좌별 1회 차씩 실시

⇒ 힐링반상회가 다시 개최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 내년까지 이월, 계획된 순서대로 진행

※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 방역책임자 지정 통해 발열체크 및 특이사항(해외여행 및 확진자, 자가격리자 접촉여부 등) 확인 기록 →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질환자는 수업 참석 불가 (확진자 또는 확진자 접촉자 발생 시 수업 중단 후 질병관리본부 지시에 따른다)

⇒ 수강생 참석 시 발열체크 및 손 소독 의무화, 수업 전후 교육장 및 작업도구 소독 실시

⇒ 강사 및 수강생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최대한 거리두기 준수, 수건·물컵 등 각자 사용

⇒ 강사 앞 확인서 징구 (모든 강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교육 전후에 교육장을 소독하고, 알코올티슈 및 손 소독제 등의 방역물품 사용 관리의 의무를 진다) → 교육 시작 전 강사는 수강생에게 위의 조치사항 관련 집합교육 실시 후 확인서 징구

마을추진위 운영회의(2회 차)

- **일시** : 2021년 6월 2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이상일,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外
- **내용** : 2021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익명의 개척사〉 전시운영비 지원 및 2021년 사업예산 지출계획 검토

⇒ 현재 마을사업 예산 1억5천만 원 미집행 상황, 이 금액 중 3천만 원은 공방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책정, 나머지 1억2천만 원의 예산집행 계획을 결정 못함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 지출계획 검토

⇒ 공방교육프로그램 8주 진행 결정, 선진지 견학 대상을 마을리더(추진위원)으로 축소 진행(예상 참가 프로그램 검토 필요), 〈결과기록집〉 발간 예정(4년간 사업 총정리용 단행본으로 보고서 발간), 마을 '문화예술잔치' 11월 개최여부 검토

▶ 이응노의 집 학예연구실 제안 〈익명의 개척사〉 전시사업에 마을사업 추진비 중 1천만 원 지원 내용에 대한 협의 및 결정

⇒ 이응노의 집 정보경 학예연구사의 사업내용 설명 후 결정. 지원비 중 50%는 주민(전시보조) 인력비로 지출

마을추진위 운영회의(3회 차)

- **일시** : 2021년 7월 2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이상일,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外
- **내용** : 2021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익명의 개척사〉 전시운영비 지원 및 2021년 사업예산 지출계획 검토

⇒ 현재 마을사업 예산이 1억5천만 원 미집행 상황, 이 금액 중 3천만 원은 공방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책정, 2차 마을 마을공동창작실 신축관련 토목과 전기공사비 지급이 약 3천만 원 지출 예정, 나머지 9천만 원의 사용처 및 일정 결정 필요 → 결정내용과 예산구분을 행정기관(홍성군)에 알리고, 내용을 공유해야 함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지출계획 검토

⇒ 공방교육프로그램 8주 진행 결정 (최종예산 결정 필요. 자료상 4천2백만 원이 기입됨)

⇒ 선진지 견학 대상 마을리더(추진위원)으로 축소 진행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빠름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

⇒ 〈결과기록집〉(4년간 사업 총정리용 단행본)은 누가,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제작 납품할지 결정한 후, 제작 위임받은 사람이 자료 수집을 직접 진행하도록 결정 (납품부수와 예산범위 결정)

⇒ 마을 '문화예술잔치' 11월 개최여부는 검토 중

마을추진위 운영회의(4회 차)

- **일시** : 2021년 8월 20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이상일,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外
- **내용** : 2021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마을 운영회의 통해 결정한 사업내용 정리, 사업미정 사업정리에 대한 의논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익명의 개척사〉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하여

▶ 공방교육프로그램 8주 진행일정과 예산에 대하여

▶ 마을리더(추진위원)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 또는 관련 교육 참여방식에 대하여

▶ 〈결과기록집〉 발간과 마을 '문화예술잔치'에 대하여

마을추진위 운영회의(5회 차)

- **일시** : 2021년 9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이상일,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外
- **내용** : 2021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익명의 개척사〉 전시운영 진행상황 보고 및 지원내용 결정사항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익명의 개척사〉 지원내용에 대한 1차 결과보고 (이응노의 집 정보경 학예연구사)

⇒ 심사비 지급 완료, 최윤희 작가 지원비 및 홍보비·평론비 지급 완료, 별의별 작은 도서관 1층 배수로 정비 완료(주민 박광명 씨 수리)

▶ 〈익명의 개척사〉 요청사항에 대한 결정내용 → '예술창고 오롯'의 별의별 작은 도서관 사용연장 요청 건 (기존 2021년 11월까지에서 2022년까지 사용 연장 가능 문의)

⇒ 별의별 작은 도서관 외부계단 페인트칠 공사 요청 건, 별의별 작은 도서관 내부 비치용품 중 장구·북 등을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2층으로 이동보관 요청 건, 전시장 관리자 계약서 작성 필요(정보경 학예연구사), 별의별 작은 도서관 처마에 달린 말벌 집 제거 필요

⇒ 최윤희 작가가 목요일 저녁 관계자들께 감사 표시로 술과 고기를 대접한다고 함. 상추와 깻잎, 마늘, 고추 그리고 김치 제공을 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

▶ 공방교육프로그램 8주 진행일정과 진행상황 관련 보고 (추진위원 권재완 '나무공방 소풍' 소장)

마을추진위 운영회의(6회 차)

- **일시** : 2021년 11월 8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2층)
- **참석** :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이상일, 방정일, 신동학, 전상진, 이섭 外
- **내용** : 2021년 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1. 회의 주요의제

▶ 〈익명의 개척사〉 진행상황 보고 및 마을사업 결정사항

▶ 마을 '문화예술잔치' 실행여부 및 일정 결정

▶ 마을리더 교육관련 1차 선진지 견학 일정 및 장소 결정 (※ 주요 일정표 참고, 11월 20일(토)~21일(일) 1박 2일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구례군 일원)

2. 추진위가 결정해야 할 일

▶ 〈익명의 개척사〉 지원내용에 대한 최종 보고 (이응노의 집 정보경 학예연구사)

⇒ 작가 지원비 및 평론비 지급, 전시현황 및 홍보내용, 언론 노출내용 등 완료

▶ 〈익명의 개척사〉 요청사항 외 결정할 내용 : '별의별 갤러리' 전시장 대관 문의내용과 대관에 따른 조건 결정

▶ 마을 '문화예술잔치' 실행여부 및 일정 결정

⇒ 11월 13일(토) 이응노의 집 잔디밭 개최 결정 ('코로나19' 방역의 철저한 준수에 따른 행사인원 최소화)

▶ 마을리더 교육관련 1차 선진지 견학 일정 및 장소 결정

3. 2021 마을 '문화예술잔치' 세부계획 협의

– 일시 :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 장소 : 이응노의 집 잔디밭 일원

– 추진 계획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철저한 방역준수와 인원 최소화 통한 행사 개최)

1. 주차시설 : 홍천(이응노)마을복지회관 및 이응노의 집 주차 안내판 비치 (마을청년회 및 방범대, 교통안전 및 행사안내 담당)
2. 음식준비 : 커피오감에 다과 및 음료 준비, 주민 대상 선물(수건) 준비
3. 무대준비 : 이응노의 집 잔디밭에 무대설치, 자원봉사단체 공연행사 준비
4. 홍보계획 : 초청문자 발송, 홍성군·이응노의 집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재
5. 기타사항 : 천막, 책상, 의자 등 설치

[표 18] 2021년 이응노마을 리더(추진위원) 교육관련 1차 선진지 견학 일정표

▶ 견 학 일 : 2021년 11월 20일(토)~21일(일)

▶ 견 학 지 :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구례군

첫째 날, 경상남도 하동군 마을공방 '두니' (마을공방 '두니' 이혜원 이사), 하동·구례 '화개장터'

둘째 날, 전라남도 구례군 화엄사, 충청남도 서천군 국립생태원

▶ 참 석 자 : 양주명, 김숙자, 이상일, 방정일(이상 마을리더), 정보경(이상 행정) / 전상진(프로그램 매니저), 이섭(마을사업 자문) 등 7명

▶ 숙　　소 : The K. 지리산가족호텔

▶ 준비서류 : 참가자명단 (여행자보험 / 개인정보공개동의서)

날짜(요일)	시 간	장 소	내용 및 견학교육	비고
11월 20일(토)	08:00~	이응노의 집 주차장	참가자 확인 및 탑승, 출발	
	08:00~12:00	홍성-하동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09:00~10:00	금강휴게소 음식코너	아침식사 (버스 임시정차)	
	12:00~13:00	하동 (만지횟집)	점심식사	
	13:00~14:00	하동 마을공방 '두니'	행정안전부 마을공방육성사업으로 조성한 하동 마을공방 '두니'는 축지초등학교(폐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설치, 식물공방과 책공방, 카페, 농·특산물 판매장, 유튜브 방송실, 공유공간, 전시실 등을 운영하며, 마을공동체 소통·협업을 통한 마을주민 간 유대감 강화를 실현하고 있다. 마을공방 '두니' 설립운영관련 강의교육	
	14:00~17:00	하동 마을공방 '두니'	마을공방 '두니' 체험·교육 (책바인딩, 식물식재 체험·교육 진행)	
	17:00~18:30	하동·구례 화개장터	경상남도 하동군과 전라남도 구례군 경계인 지리산 화개천과 섬진강이 만나는 곳에 전통시장 오일장이 형성되었고, 현재는 상설 관광시장으로 탈바꿈하였다. 조영남의 '화개장터'가 생각나는 옛 장터이다.	
	18:30~20:00	구례 (광양불고기)	저녁식사, 숙소로 이동	
	20:00~21:30	구례 숙소 (The K, 지리산가족호텔)	방 배정 및 견학 및 교육관련 토의	
	21:30~	구례 숙소 (The K, 지리산가족호텔)	자유 시간, 취침	
11월 21일(일)	08:00~09:30	구례 숙소 (The K, 지리산가족호텔)	아침식사, 체크아웃	
	09:30~10:00	구례-화엄사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0:00~11:00	구례 화엄사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의 대찰이자 천년 고찰. 화엄종 대총림으로, 백제 성왕 때 창건하였다. 각황전, 각황전 앞 석등, 영산회괘불탱, 사사자삼층석탑, 모조비로자나 삼신불좌상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사찰이다.	
	11:00~12:00	구례-전주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2:00~13:00	전주 (전라도음식이야기)	점심식사	
	13:00~14:00	전주-서천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4:00~15:30	서천 국립생태원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한반도 생태계를 비롯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세계 5대 기후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눈에 관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고품격 생태연구·전시·교육의 공간이다.	
	15:30~17:30	서천-홍성 버스 이동	견학 및 교육일정상 이동	
	17:30~	이응노의 집 주차장	홍성(마을) 도착 후 귀가	

※ 현지 사정상 소요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대상지를 부분 변경할 수 있음 / 준비물(사진기, 노트북, 기타)은 추진위원 중 담당자 선정 일임(여행자보험은 추진위 사무국장이 보관) / 추진위 사무국장은 교육방문지 강사료지급 관련서류를 사전에 준비, 교육당일 강사의 날인을 받도록 함

Ⅲ.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관련 〈이응노마을신문 발행〉

1. 이응노마을신문 제31호(2017년 12월) – 1면 표지이야기

2. 이응노마을신문 제32호(2019년 01·02월) – 1면 표지이야기



1. 이응노마을신문 제31호(2017년 12월) – 1면 표지이야기

'이응노마을'에서의 평화로운 일상,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마을신문〉과의 3년간 세월, 후회와 보람은 언제나 함께 … 다시 새롭게 마주하길

이응노마을(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에서의 3년간 생활은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지역신문사를 퇴사하고, 종잡을 수 없었던 나날들 속에 얼마 후, 〈마을신문〉을 만드는 일에 뛰어들어 한 세월을 보낸 것이 후회와 보람으로 뒤범벅입니다.

과연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려는 찰나, 한 순간 미풍微風에 날아가는 여린 종이처럼 뜻도 모르고 일도 모르는 채 그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남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냥 좋아서 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일도 아닙니다. 즐긴 일도 아니고, 억지로 한 일도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는 생각 속에서 그래도 〈마을신문〉 만드는 일이 그 중 쉽겠지, 로 시작했지요.





조급함과 산만함이 만든 결과 〈마을신문〉, 언제나 '꽈당'만 되풀이해 후회막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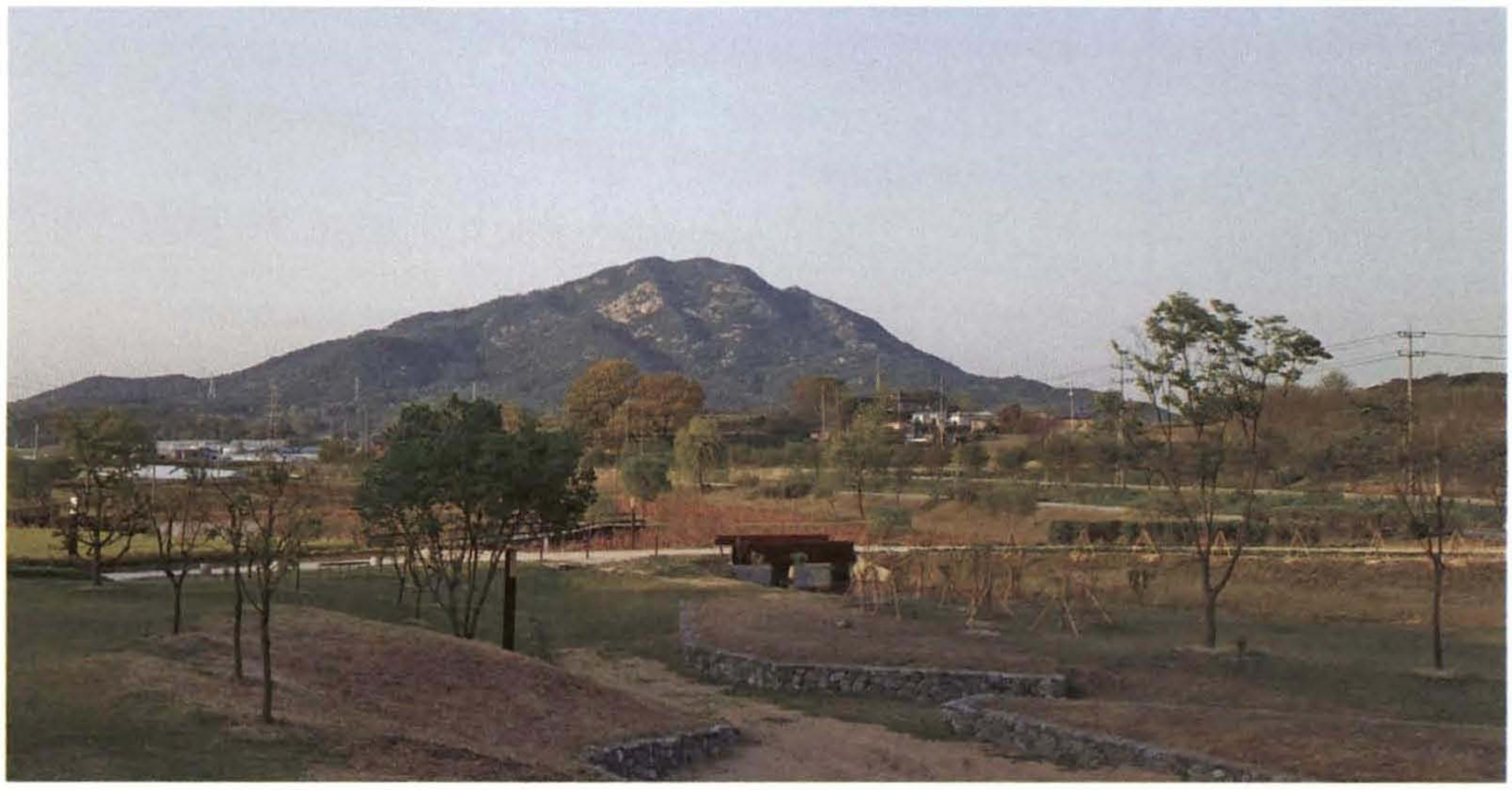
그래서 후회막급입니다. 왜 난 그 흔한 사명감을 가지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 속에 시간이 흐를수록 제호題號가 늘어날수록 초조하고 조급해지면서, '옛다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쓰고 또 쓴 것이 벌써 서른한 번째 〈마을신문〉입니다.

아직도 이 미숙한 머리와 가슴을 단련시켜야 할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옳은데 가슴은 그걸 못 받아드립니다. 그러니 좋은 글이 나올 수 없지요. 그 반대로 가슴은 미칠 듯이 받아드리는데 머리로 좀체 돌아가지 않지요. 그러니 역시 '꽈당'입니다. 그래서 후회막급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일체된 그런 인간이고자 하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급함과 산만함의 결과입니다. 천천히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 순간도 너는 진실로 그 누군가 사랑한 적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오늘도 서성이며 방황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그래도 마을과 그곳 사람들 알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을'처럼 느껴진 게 보람

그래도 알아간다는 것, 마을을 알고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 3분의 2는 마을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나에겐 보람입니다. 〈종 치는 사람〉 아래에서 왠지 모를 흐뭇함과 뿌듯함으로 설레고, 그렇게 일상이 이 마을을 향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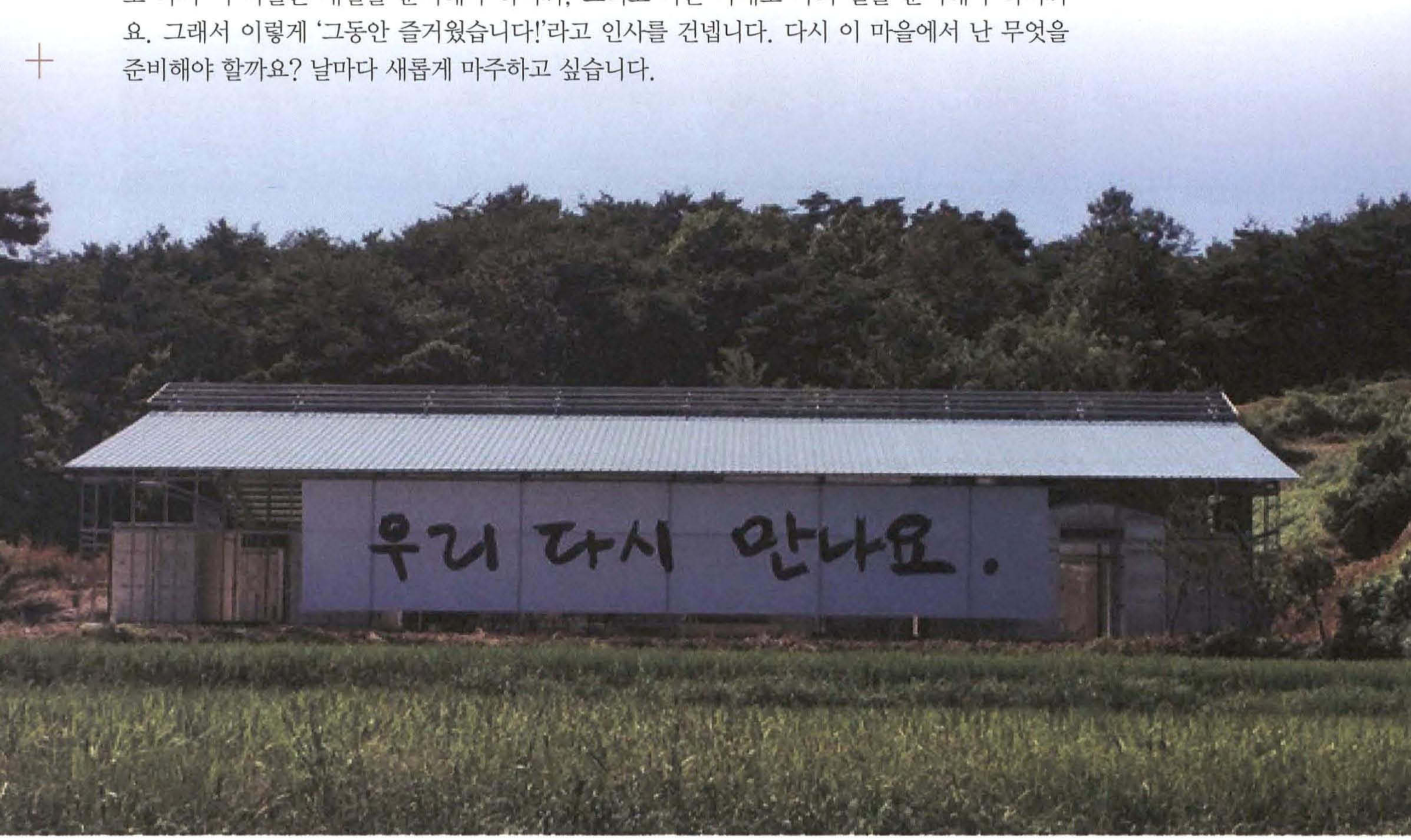
어느 날부터인지 이 마을에 오는 것이 일상이 되고, 이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반갑고 고맙고 기쁩니다. 이들이 든든한 이웃이자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알게 된 것이 보람입니다. 이 마을에 땅 한 평과 집 한 채 없지만, 그래도 이 마을은 '우리 마을'이 되어 갑니다.

삶이 언제나 잔잔한 물결 같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 잔잔한 물결에서는 아무도 못 살지, 라고 응수한 나는 삶의 파노라마 속을 견뎌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걸일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부딪치고 늘 나가 떨어져야 했던 삶이 그래도 괜찮은 마을에서 그래도 괜찮은 대접 받으며, 그래도 열심히 부딪치고 살아가니 이 또한 보람입니다.

그래서 3년간의 〈마을신문〉 끝마치고,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인사 건네고 싶어

'이응노마을'의 겨울은 온통 하이얀 빛깔입니다. 언제나처럼 이 마을은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집니다. 밑에서 꿈틀대는 물결 같이 또 내일을 준비하는 마을사람들이 겹쳐 보입니다. 이젠 그 일상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그들의 내일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3년간의 나의 일(마을신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안녕히…', 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 이 마을은 내일을 준비해야 하니까, 그리고 나는 나대로 나의 일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즐거웠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다시 이 마을에서 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날마다 새롭게 마주하고 싶습니다.



[이응노마을 신문 제 31 호]

2017년 12월호

이응노 마을
LEEUNGNO VILLAGE NEWSPAPER
CULTURAL COMMUNICATION

이응노마을신문 vol.31 | 2017.12 | 발행 홍천마을·홍성생태학교 나무 | 발행인 양주명·모영선 | 편집인 전상진 | 디자인 ㈜공감 |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100

마을이야기 02-03 특집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년간의 기록1
마을이야기 04-05 특집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년간의 기록2
마을과 함께 06 특집/이응노의 집 소식1 경향신문 창간 70주년 기획 - 명사 70인과의 동행 63
마을과 함께 07 특집/이응노의 집 소식2 경향신문 창간 70주년 기획 - 명사 70인과의 동행 63
마을과 함께 08 이응노의 집 소식 2018년 창작스튜디오 제2기 입주작가 모집

표지이야기
COVER STORY

'이응노마을'에서의 평화로운 일상,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응노마을'에서의 평화로운 일상,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마을신문〉과의 3년간 세월, 후회와 보람은 언제나 함께 … 다시 새롭게 마주하길

이응노마을(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에서의 3년간 생활은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지역신문사를 퇴사하고, 종잡을 수 없었던 나날들 속 얼마 후, 〈마을신문〉을 만드는 일에 뛰어들어 한 세월을 보낸 것이 후회와 보람으로 뒤범벅입니다.

과연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려는 찰나, 한 순간 미풍微風에 날아가는 여린 종이처럼 뜻도 모르고 일도 모르는 채 그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남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냥 좋아서 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일도 아닙니다. 즐긴 일도 아니고, 억지로 한 일도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는 생각 속에서 그래도 〈마을신문〉 만드는 일이 그중 쉽겠지, 로 시작했지요.

조급함과 산만함이 만든 결과 〈마을신문〉, 언제나 '꽈당'만 되풀이 '후회막급'

그래서 후회막급입니다. 왜 난 그 흔한 사명감을 가지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 속에 시간이 흐를수록 제호題號가 늘어날수록 초조하고 조급해지면서, '옛다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쓰고 또 쓴 것이 벌써 서른한 번째 〈마을신문〉입니다.

아직도 이 미숙한 머리와 가슴을 단련시켜야 할 공부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읊은데 가슴은 그걸 못 받아드립니다. 그러니 좋은 글이 나올 수 없지요. 그 반대로 가슴은 미칠 듯이 받아드리는데 머리로 좀체 돌아가지 않지요. 그러니 역시 '꽈당'입니다. 그래서 후회막급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일체된 그런 인간이고자 하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급함과 산만함의 결과입니다. 천천히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 순간도 너는 진실로 그 누군가 사랑한 적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오늘도 서성이며 방황의 시간은 계속 됩니다.

그래도 마을과 그곳 사람들 알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을'처럼 느껴진 게 보람

그래도 알아간다는 것, 마을을 알고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 3분의 2는 마을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나에겐 보람입니다. 〈종 치는 사람〉 아래에서 왠지 모를 흐뭇함과 뿌듯함으로 설레고, 그렇게 하루의 일상이 이 마을을 향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이 마을에 오는 것이 일상이 되고, 이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반갑고 고맙고 기쁩니다. 이들이 든든한 이웃이자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알게 된 것이 보람입니다. 이 마을에 땅 한 평과 집 한 채 없지만, 그래도 이 마을은 '우리 마을'이 되어 갑니다.

삶이 언제나 잔잔한 물결 같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 잔잔한 물결에서는 아무도 못 살지, 라고 응수한 난 삶의 파노라마 속을 견뎌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걸일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부딪치고 나가 떨어져야 했던 삶이 그래도 괜찮은 마을에서 그래도 괜찮은 대접 받으며, 그래도 열심히 부딪치고 살아가니 이 또한 보람입니다.

그래서 3년간의 〈마을신문〉 끝마치고,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인사 건네고 싶어

'이응노마을'의 겨울은 온통 하이얀 빛깔입니다. 언제나처럼 이 마을은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집니다. 밑에서 꿈틀대는 물결 같이 또 내일을 준비하는 마을사람들이 겹쳐 보입니다. 이젠 그 일상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그들의 내일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3년간의 나의 일(마을신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안녕히…', 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 이 마을은 내일을 준비해야 하니까, 그리고 나는 나대로 나의 일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다시 이 마을에서 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날마다 새롭게 마주하고 싶습니다.



2. 이응노마을신문 제32호(2019년 01·02월 격월) – 1면 표지이야기

'이응노마을', 용龍이 飛翔을 꿈꾸듯, 새로운 마을로 거듭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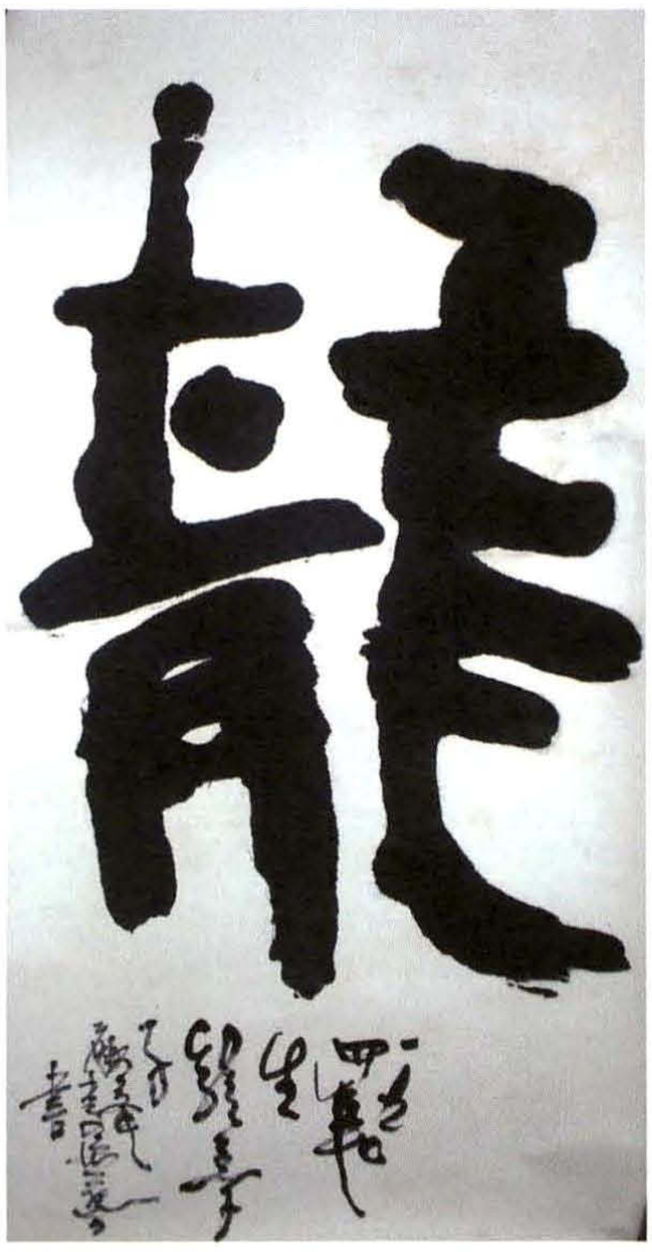
용의 승천昇天! 그야말로 그 통로가 '등용문登龍門'이다 용의 비상飛翔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진다. 등용문登龍門을 통해 용龍이 날아오른다.

사실은 2018년 10월 6일, 도불渡佛 60주년 기념 이응노·박인경 화백의 '사람·길'展 개막을 앞둔 전날(10월 5일) 신령스럽게도 '용구름龍雲'이 하늘을 가로질러 갔다. 그러니 생각할밖에! 고암顧菴 이응노李應魯 화백이 태어난 해가 1904년 '갑진년甲辰年' 용龍의 해이니, 이 아니 신령스러운가! 고맙고도 기쁠 일이다.

여기에 용구름의 한자어가 '용운龍雲'이라 이 또한 억지 의미를 담을 수밖에!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선생의 법명法名이 용운龍雲이니,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감회感懷가 더욱 새롭다.

이응노마을에도 다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2019년을 맞아 용龍의 비상飛翔을 꿈꾸어도 좋으련만. 천년을 살아도 다시 못 볼 이 엄청난 장관壯觀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이유理由 또한 짐작하리라.

다시 살아나는 '마을의 이야기'가 백년을 잇고 천년을 잇고 그때 또 다시 '용구름龍雲'은 두둥실 하늘에 걸리고, 마을사람들이, 마을의 삶이 '좋다!' 이 한 마디 던질 수 있도록 이제부터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어야겠다.





[이응노마을 신문 제 32 호]

2019년 01·02월 격월

이응노 마을

LEEUNGNO
VILLAGE
NEWSPAPER

CULTURAL
COMMUNICATION

이응노마을신문 vol.32 | 2019 01·02 [격월] | 발행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 발행인 양주명 | 편집인 전상진 | 디자인 ㈜공감 |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100

마을이야기[02]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신농촌 문화재생 중심지' 사업 본격 추진

마을이야기[03]
마을상징조형물 작가와의 만남
기해년 정월대보름 행사

마을과 함께[04~05]
이응노의 집 특별전시
이응노·박인경의 '사람·길' 展

마을과 함께[06~07]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제3기 입주작가 모집 선정

마을과 함께[08]
이응노의 집 행사
이응노의 집, 지승공예 프로그램 운영

표지이야기
COVER STORY

'이응노마을', 용龍이 비상飛翔을 꿈꾸듯 새로운 마을로 거듭나야

'이응노마을', 용龍이 비상飛翔을 꿈꾸듯 새로운 마을로 거듭나야







용龍의 승천昇天 그야말로 그 통로가 '등용문登龍門'이다. 용龍의 비상飛翔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진다. 등용문登龍門을 통해 용龍이 날아오른다.

사실은 2018년 10월 6일 도불 60주년 기념 이응노·박인경 화백의 '사람·길'展 개막을 앞둔 전날(10월 5일) 신령스럽게도 '용구름龍雲'이 하늘을 가로질러 갔다. 그러니 생각할밖에! 고암顧菴 이응노李應魯 화백이 태어난 해가 1904년 '갑진년甲辰年' 용龍의 해이니, 이 아니 신령스러운가! 고맙고도 기쁠 일이다.

여기에 용구름의 한자어가 '용운龍雲'이라 이 또한 억지 의미를 담을 수밖에!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선생의 법명法名이 '용운龍雲'이니,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감회感懷가 더욱 새롭다.

이응노마을에도 다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2019년을 맞아 용龍의 비상飛翔을 꿈꾸어도 좋으련만. 천년을 살아도 다시 못 볼 이 엄청난 장관壯觀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이유 또한 짐작하리라.

다시 살아나는 '마을의 이야기'가 백년을 잇고 천년을 잇고 그때 또 다시 '용구름龍雲'은 두둥실 하늘에 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삶을 '좋다' 한 마디 던질 수 있도록 이제부터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어야겠다.

2017-2021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 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이응노마을 문화재생 '별의별' 이야기

Ⅳ. 이응노마을 주민역량강화 사업

1. 2019년 이응노마을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1) 이응노마을 주민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2) 이응노마을 리더(추진위원) 교육관련 선진지 연수

3) 이응노마을 리더와 행정기관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2. 2020~2021년 이응노마을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3. 이응노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강좌

- 2020년 마을 주민역량강화 '협동조합'관련 교육



1. 2019년 이응노마을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1) 이응노마을 주민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 이응노마을 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 전라북도 완주군·전주시 일원

마을노인회,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와 '삼례문화예술촌' 등으로 선진지 견학 다녀와

'누구나 예술(NU-E)', 새로운 예술경험 통해 지역민과 예술가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 공간 만들어

홍천(이응노)마을 주민들이 2019년 2월 27일(수) 전라북도 완주군 '복합문화지구 누에'와 '삼례문화예술촌', 전주시 '전주동물원'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완주·전주 견학은 마을노인회 첫 번째 견학으로 참석희망 주민 38명이 다녀왔다.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는 옛 잠업시험장(잠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및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는 완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누에는 완주군민 누구나 예술(NU-E), '새로운 예술경험'을 통해 소통, 교감하며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간이다. 창의성·융복합·일상성·다양성·협업 등을 핵심가치로 삼아 '누구나 예술'로 지역민과 예술가가 소통하는 삶의 공간, 놀이와 교육의 장, 문화생산과 소비의 공간, 상상력의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으로는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지원, 꿈꾸는 누에 놀이터,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 '예술또래', 공예시설 활성화, '아트메이커 공방',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영재양성 '난 나비야',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깨금발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기획으로는 창작 워크숍 '3D 창작소', 완주적 해석, 우주를 품다, 채워가는 미술관, 모두의 갤러리 '시민 도슨트 양성', 지하 전시 공간 활성화, 상설전시 활성화, 전시 해설사 육성사업, 홍보 공감 등을 운영하며, 창의 및 공유 공간 조성 활성화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양곡수탈의 아픔의 역사 … 지역재생 통한 공간 탈바꿈,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기여
전주 도심 속 푸른 쉼터 활용 … 멸종위기 동물과 다양한 식물 보전, '행동풍부화' 등 동물복지

또한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의 중심'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은 원래 1920년대 일제강점기 산미증식 계획과 함께 호남지방 수탈이 가속되던 때, 삼례역을 통해 일본으로 양곡반출을 목적으로 지어진 창고이다.

광복 이후 2010년까지 농협창고로 사용된 이 건물을 완주군이 매입, 지역재생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했고, 2013년 6월 개관 이후 삼례문화예술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제1전시관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높은 층고와 함께 양곡적재를 위한 목조구조가 드러나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는 곳. 다목적공간과 야외광장은 주민들이 문화의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세미나, 전시체험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주동물원은 1978년 6월 개원한 이래 40년 동안 사람과 자연의 공감 형성, 생물적 다양성을 통한 생태계 유지 보존, 미래 세대를 위한 멸종위기, 천연자원종 보전 등을 핵심가치로, 생태동물원을 조성했으며, 도심 속 푸른 쉼터로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다. 호랑이, 사자, 하마, 원숭이, 조류 등 100여종 600여 마리의 동물과 다양한 계절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또 동물들에게 쾌적한 사육장을 제공하고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주민들은 '복합문화지구 누에'에서 잠종장의 역사와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탈바꿈에 대해 민경박 기획·홍보팀장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도자·목공 등 공예시설과 전시실 등을 둘러보았다. 또 일정 상 전주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전주동물원을 거쳐, 삼례문화예술촌의 공간 활용을 둘러보며, 마을 공간 활용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 주민들은 마을에 도착, 저녁식사 시간을 통해 마을공방 작가와 이응노의 집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 이응노마을 부녀회·청년회 1차 선진지 견학
– 전라남도 보성군 일원

마을 부녀회·청년회,
보성 '태백산맥문학관·보성여관', '한국차박물관' 등으로 선진지 견학 다녀와

해방공간 '좌우대립'의 비극 그린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배경, 통일 염원의 건축·벽화 등 돋보여

홍천(이응노)마을 주민들이 2019년 7월 14일(일)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문학관', '보성여관과 벌교금융조합', '월곡영화골벽화마을'을 거쳐, '득량역 7080벽화거리', '한국차박물관'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보성 견학은 마을부녀회·청년회 첫 번째 견학으로 참석희망 주민 34명이 다녀왔다.

먼저, 첫 번째 방문지는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문학관'이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땅속에 묻혀있던 해방공간 '좌우대립'의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주제의식을 보여줬듯이, 이를 형상화하기 위해 태백산맥 첫 장의 현부잣집과 소화의 집이 있는 제석산 끝자락에 2008년 11월 산자락을 파내서 특이하게 설계된 건물로 세워져 개관하였다.

문학관에는 분단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태백산맥의 집필과정과 이와 관련된 1만 6천여 매 분량의 육필원고를 비롯해 185건 737점의 증여 작품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문학관 건물은 김원 건축가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과거 아픈 역사를 끄집어내기 위해 벌교 제석산의 등줄기를 잘라내고, 2전시실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상으로 건축되었다. 또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북쪽을 향하고 있다. 또 전시실에서 마주 보게 될 높이 8m, 폭81m에 이르는 '원형상–백두대간의 염원'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이종상 화백이 시각화하였으며, 세계 최대·최초의 야외건식 '옹석벽화'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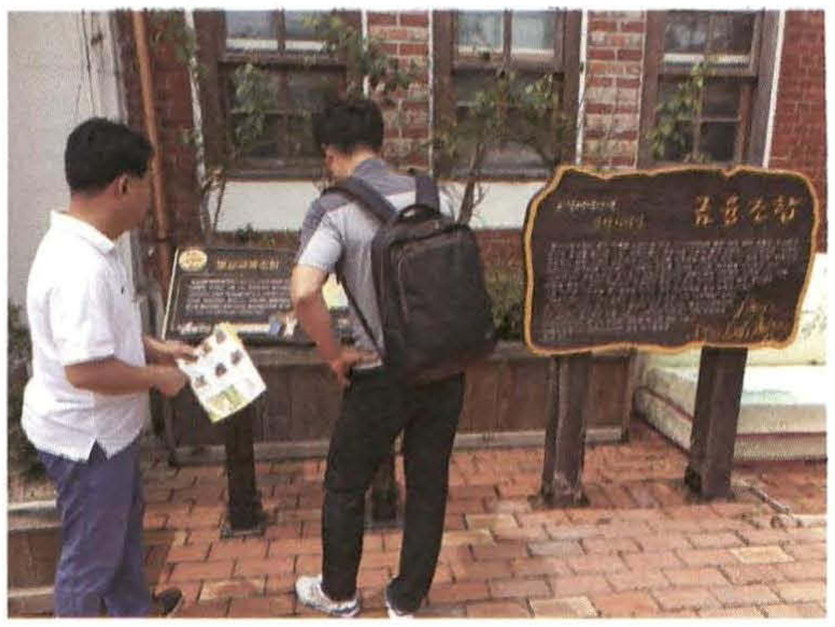
주민들은 이곳에서 정경모 보성문화관광두레 PD의 '보성의 역사와 문화관광, 보성 차 문화'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보성여관과 벌교금융조합으로 향하였다.











보성여관·벌교금융조합 등 일본식 건물,
보성 관광 일번지 … 영화로 꾸민 마을 골목풍경도 정겨워

보성여관은 1935년에 지어진 일본식 2층 적산가옥으로, 그 당시 5성급 호텔이었다. 20여 년 전부터 살림집과 상가로 쓰였으며, 2004년 건축사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132호가 되었다. 민간기금으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이 2008년부터 관리를 맡아왔고, 2009년 12월 문화재청과 보성군의 재원을 사용해 여관 건물로 복원하였다. 2012년 6월 보성여관이 복원되어 새로 문을 열었다. 1층에는 벌교와 건물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장과 카페, 소극장, 2층 다다미방은 세미나와 발표장으로, 1층 안쪽의 한옥 부분에 있는 온돌방 7개는 2012년 7~8월께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보성여관에서 한 5분여 걷다보면 '보성 (구)벌교금융조합'이 있다. 1919년에 금융시설로 지은 2층의 붉은색 벽돌 건물이다. 중앙에 출입문이 있고 전면에 크게 창이 나 있으며,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의 균형미를 이룬다. 르네상스 양식을 바탕으로 당시 유행하던 절충주의 양식을 따른 건축물이다. 일제강점기에 벌교금융조합 건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농민상담소로 사용하고 있다.

벌교 '월곡영화골벽화마을'은 영화포스터와 영화의 명장면이 건물마다 집집마다 그려져 있다. '웰컴 투 동막골'과 '동주', '어벤저스', '아톰·마린보이·겨울왕국 등 애니메이션 영화', 벽화가 그려진 골목마다 정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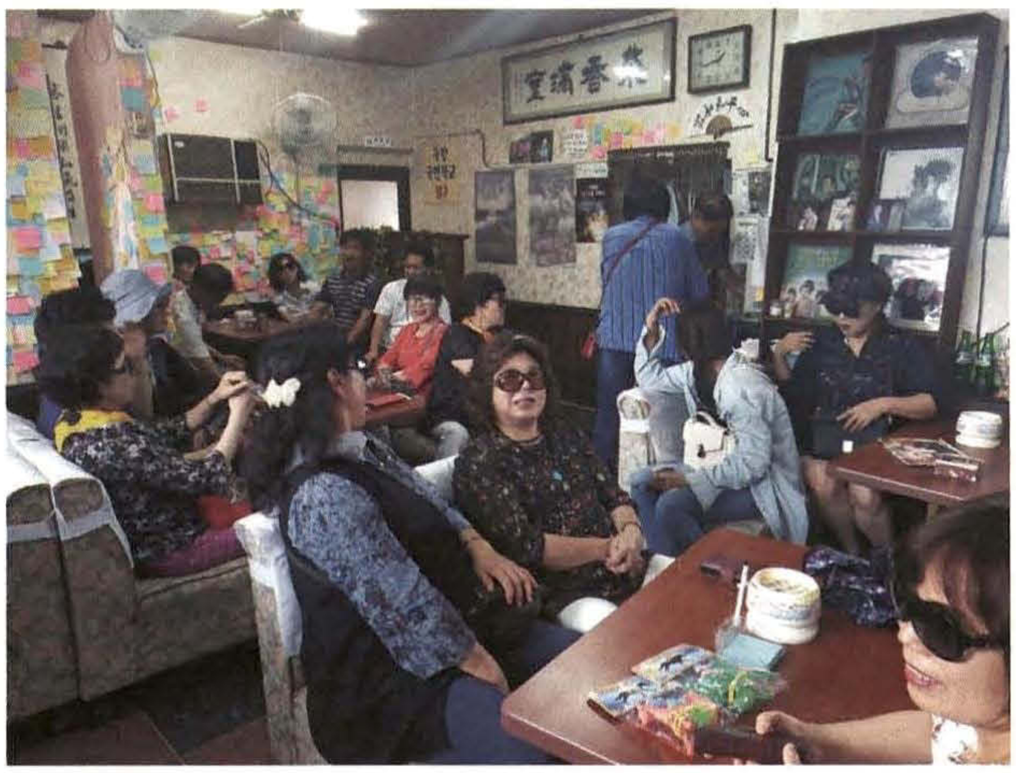
7080 추억의 거리와 벽화그림 조성한 '득량역' … 한국차박물관 들러 다도 예절 체험교육도 진행

주민들은 득량역을 향하였다. '득량역과 그 주변'에는 1970~80년대 추억의 거리 벽화가 그려져 있고, 역 내부에는 옛날 역사驛舍의 풍경이 재현되어 있다. 이순신 장군이 군량미를 조달한 곳이 바로 득량역이다. 아직도 경전선 간이역에는 열차가 탑승객을 위해 멈춰 선다. 득량역 주변 다방에서 쌍화차 한 잔을 마시고, '한국차박물관'으로 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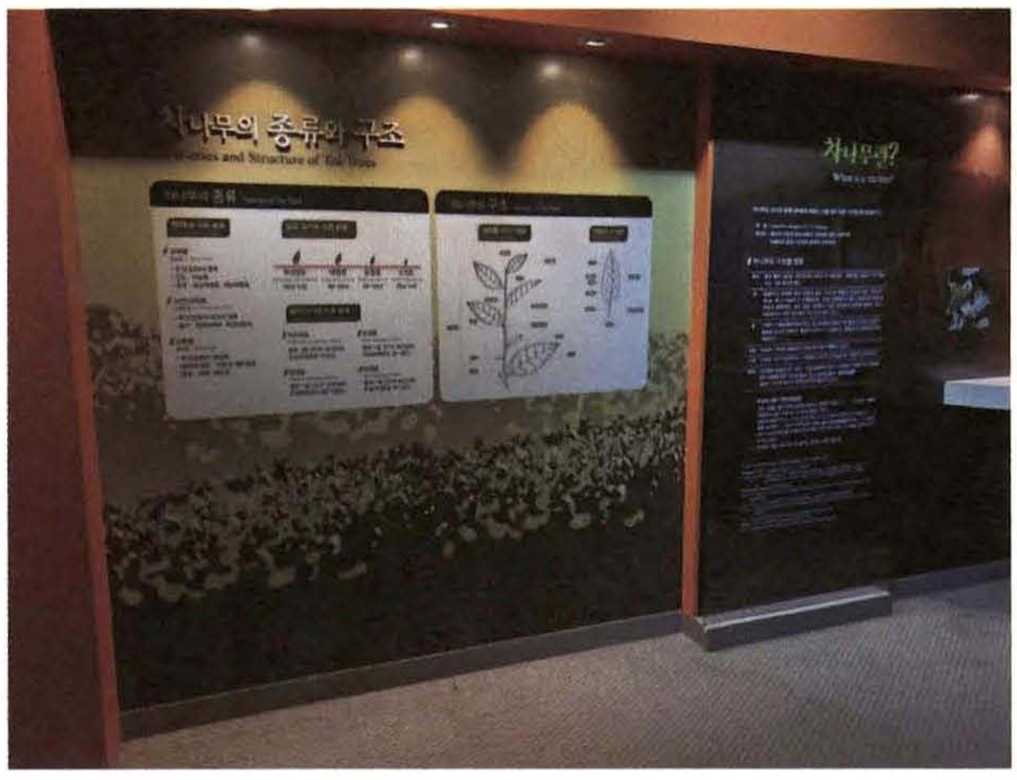
한국차박물관은 세계 녹차의 중심을 꿈꾸는 차의 주산지인 보성읍 녹차로에 위치해 있으며, 2010년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수장고와 전시실 등을 갖춰 개관하였다. 1층 차문화관, 2층 차역사관, 3층 차생활관을 주제로 했고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과 다례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도예절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 주민들은 시간 관계상 차문화공원은 마저 둘러보지 못하고 견학 일정을 모두 마쳤다.

주민들은 이번 견학을 통해 이응노의 집과 연계한 마을 문화공간 활용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연잎 등 마을 농·특산물 개발 활용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 이응노마을 노인회 2차 선진지 견학
– 전라남도 순천시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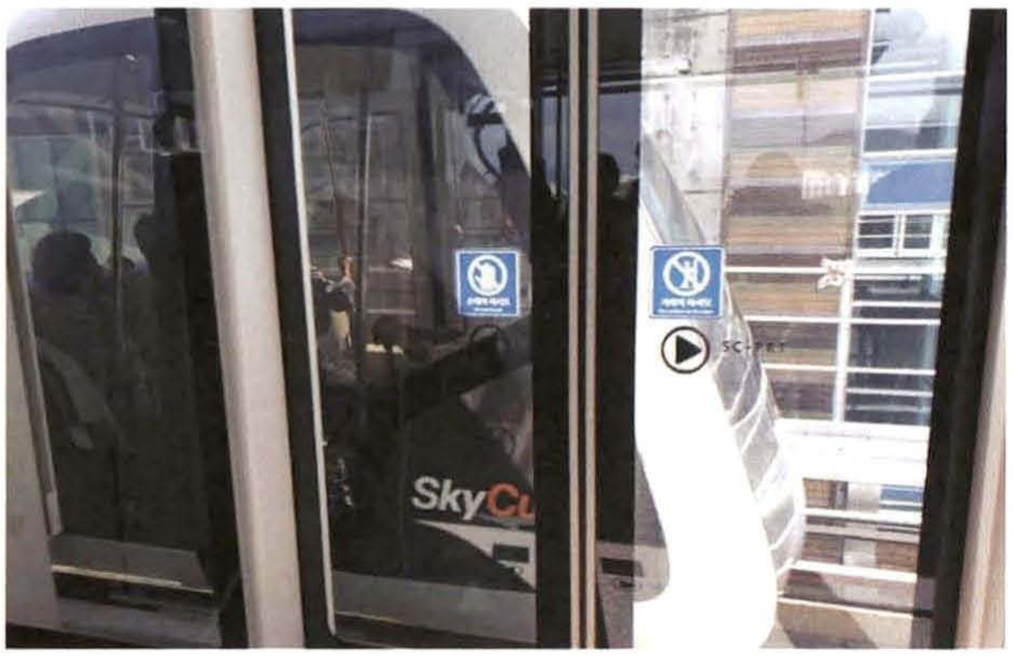
마을노인회,
순천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 자연생태관' 등으로 두 번째 선진지 견학 다녀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통해 조성된 국가정원 1호 … 테마별 정원 둘러보고, 스카이큐브도 즐겨

홍천(이응노)마을 주민들이 2019년 10월 4일(금)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으로 교육 관련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순천 견학은 마을노인회 두 번째 견학으로 참석희망 주민 37명이 다녀왔다.

먼저, 주민들이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순천만국가정원'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순천만 국제공인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조성되었다. 박람회는 국제원예박람회인증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승인으로 2009년 9월 유치가 확정되었다. 박람회가 폐막한 뒤 2014년 4월에 순천만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영구 개장했고, 2015년 9월에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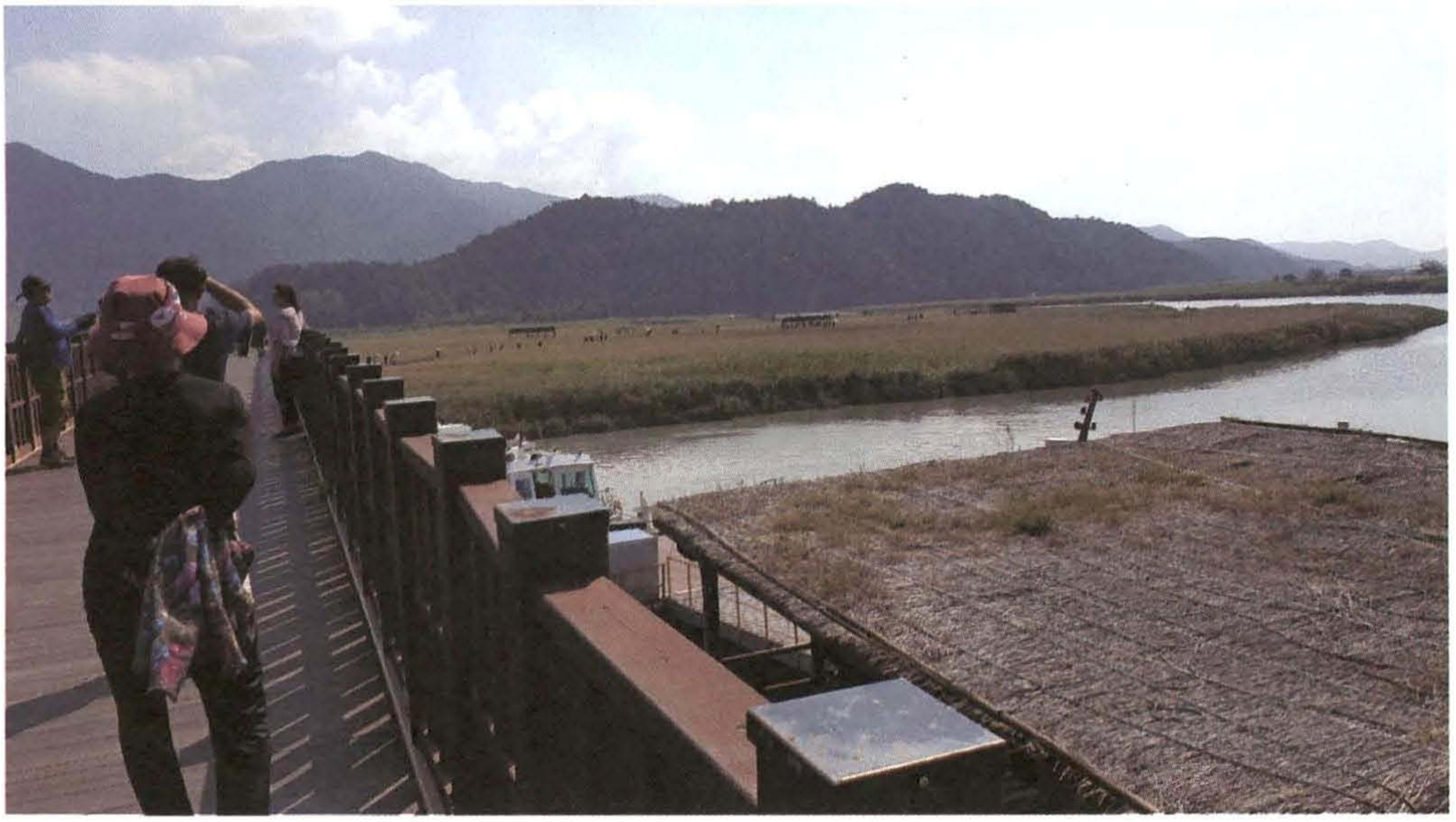
주민들은 국가정원 안 국가별 테마별 정원, 야생동물원, 한방체험·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등을 둘러봤고, 스카이큐브를 이용해 순천만습지로 향하였다.





순천만습지, 염습지 남아있는 유일한 연안습지 … 넓은 갯벌과 흑두루미, 갈대밭 등 생태자원 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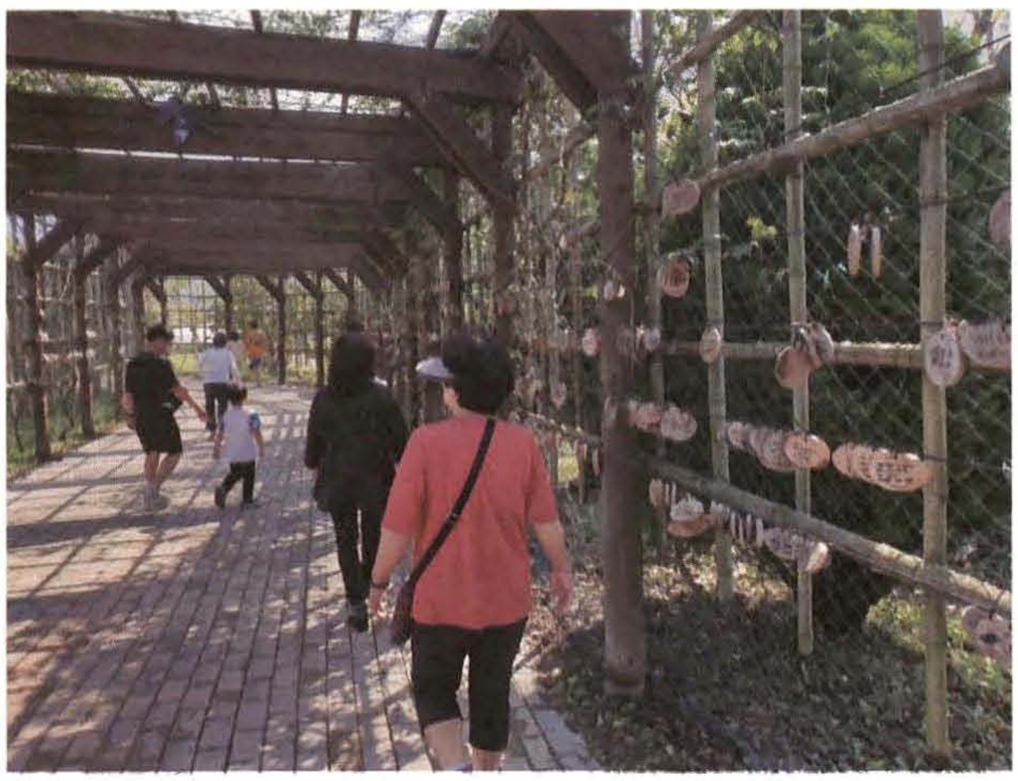
순천만은 국가지정 명승 제41호로, 남해안 중앙에 위치해 여수반도와 고흥반도를 항아리 모양으로 에워싸고 있다. 순천만은 남해안 지역에 발달한 연안습지 중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하며, 갯벌에 펼쳐지는 갈대밭과 칠면초 군락, S자형 수로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해안생태 경관을 보여 주고 있다. 넓은 갯벌에는 갯지렁이류와 각종 게류, 조개류 등 갯벌 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해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와 먹황새,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한 흰목물떼새, 방울새, 개개비, 검은머리물떼새 등 25종의 국제 희귀조류와 220여종의 조류가 이곳을 찾는 등 생물학적 가치가 크다. 특히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몰과 철새가 떼 지어 날아오르는 광경이 장관을 이루어 2006년에는 한국관광공사 최우수 경관 감상형지로 선정되는 등 경관 가치가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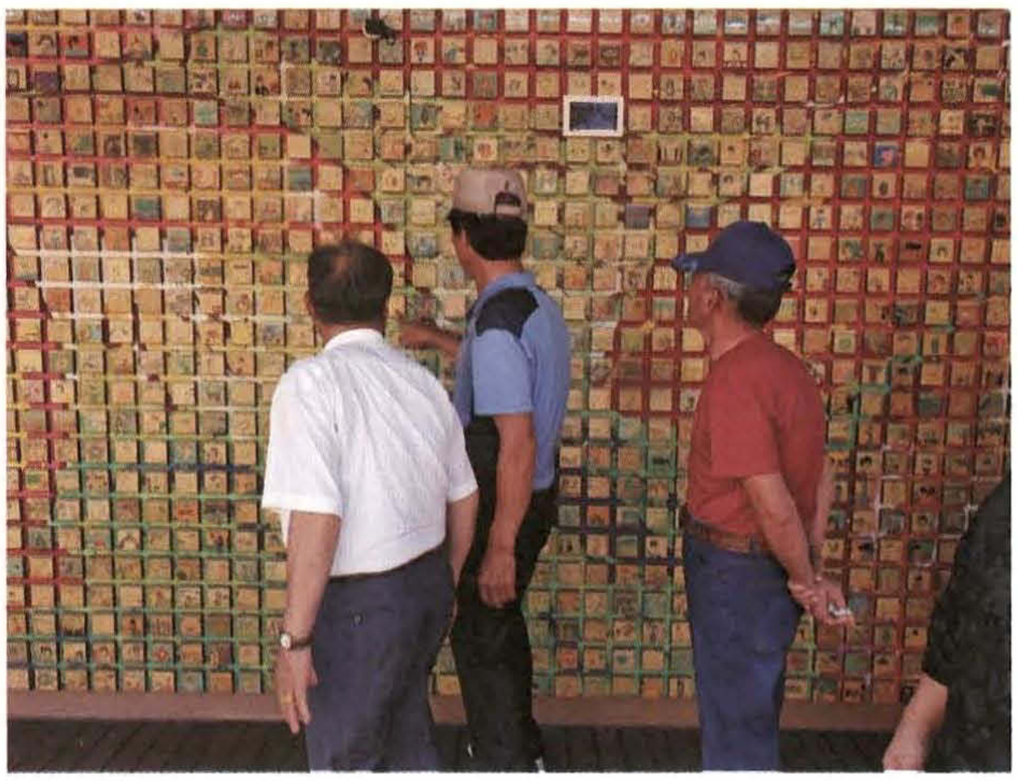


이 가운데 순천만 습지는 한국에서 갯벌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고 염습지가 남아있는 유일한 연안습지이자 세계 5대 연안습지로서 자연생태 측면에서 높은 보존가치를 지닌다. 또 이 일대에는 주로 갈대밭과 칠면초밭이 우점종으로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철새들의 서식지가 되어주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갈대밭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 순천만을 찾고 있다. 순천만 습지에는 해수가 침입하던 갯골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형은 배수가 불량해 오래된 간척지에도 남아 있어, 현재도 농경지 가운데서 논의 취수 및 배수구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연생태관과 천문대, 자연의 소리 체험관, 문학관과 역사관, 흑두루미 소망터널 등을 들러봤고, 용산전망대와 갈대숲 탐방로 산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집으로 향하였다.

주민들은 자연생태 보전에 앞장 선 순천시민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고, 마을의 특색 있는 용봉산과 용봉천 등 자연생태자원을 찾아 보전하는 일, 이를 많은 외지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을 생각하며 이번 선진지 견학을 마쳤다.





• 이응노마을 부녀회·청년회 2차 선진지 견학
– 경상남도 통영시 일원

마을 부녀회·청년회,
통영 '통제영'과 '윤이상기념관' 등으로 두 번째 선진지 견학 다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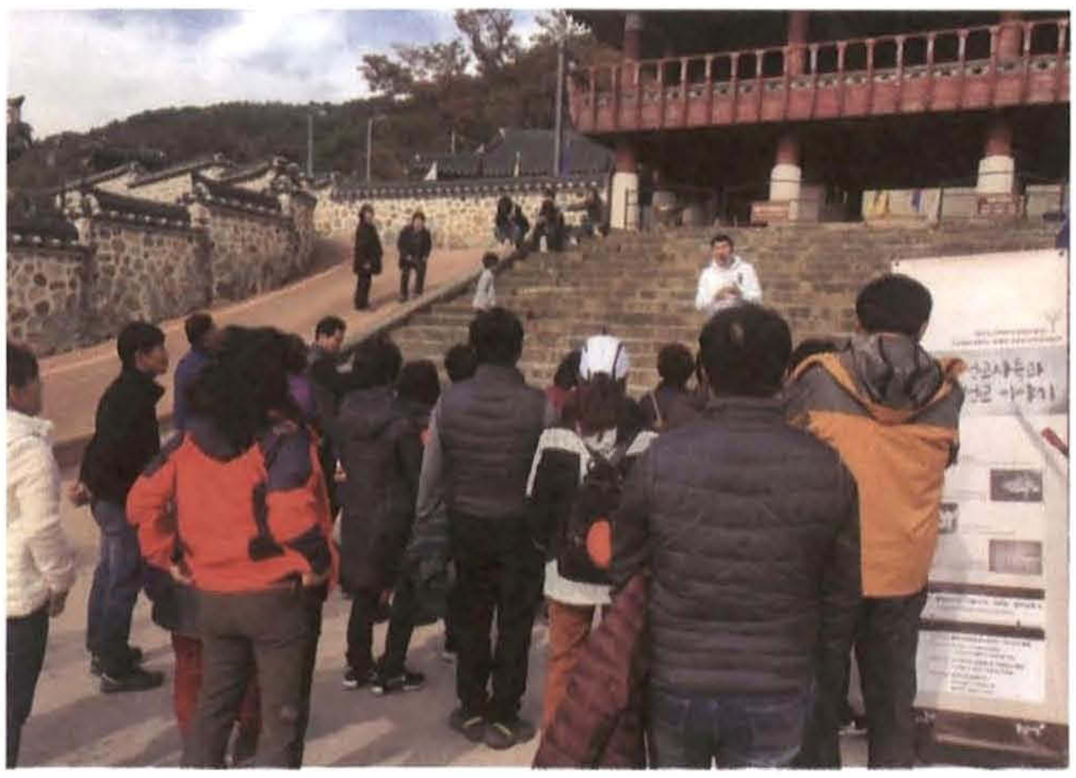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그리고 삼도수군통제영 … 평화를 바라는 당시 사람들 마음 느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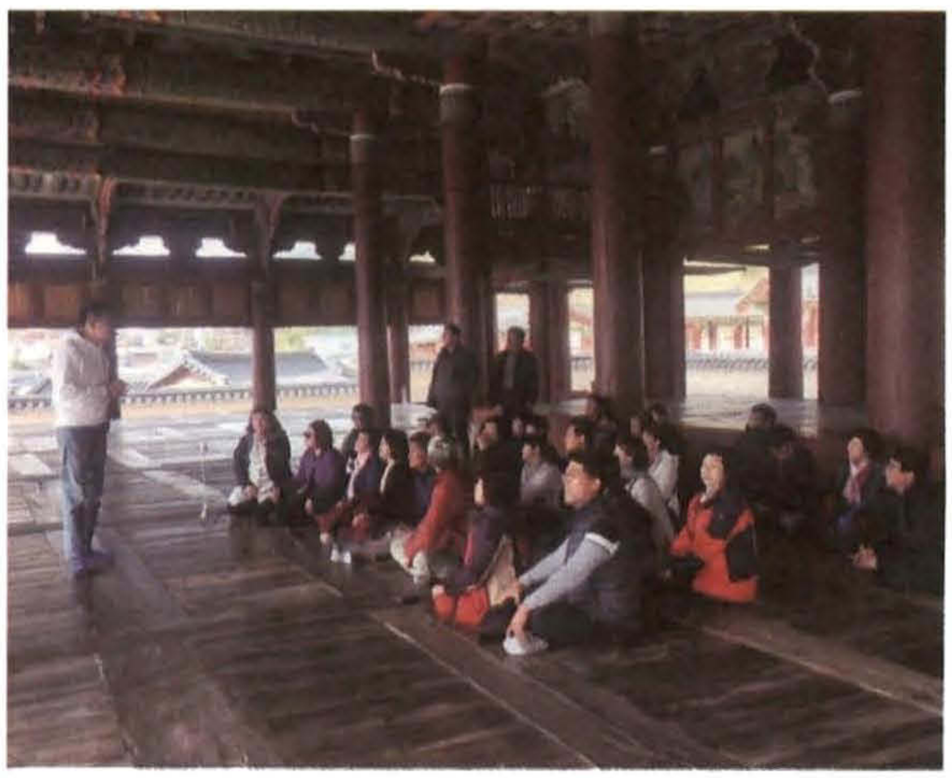
홍천(이응노)마을 주민들이 2019년 11월 10일(일) 경상남도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사영 세병관', '세병관 12공방', '통영케이블카', '윤이상기념관'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통영 견학은 마을부녀회·청년회의 두 번째 견학으로 참석희망 주민 26명이 다녀왔다.

먼저, 첫 번째 방문지는 통영시 '삼군수군통제사영 세병관'이다. 세병관은 국보 제306호로, '하늘의 은하수를 가져다 피 묻은 병장기를 닦아낸다'라는 뜻을 가졌다. 세병관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산도에 있던 통제영이 육지로 옮겨오면서 지어진 객사 건물로, 망일루를 거쳐 삼문인 지과문을 지나면 나타나는 정면 9칸, 측면 5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지과문 옆 2층 정자인 수항루는 통영시내에 있던 것이었으나 근래에 이곳으로 옮겨온 건물로 이름 그대로 왜장에게 항복문서를 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세병관은 1603년에 이순신 장군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세웠으며, 후일 통제영의 본영 건물로 사용되었다. 성인 남자의 키보다도 더 큰 현판의 글씨를 보고 있자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세병관 주위로 옛 통제영지 복원 공사가 2013년에 완료되어 12공방, 백화당 등의 건물이 복원 되었다.

이곳 세병관에서 주민들은 최원석 통영문화관광두레 PD로부터 통영의 삼도수군통제사영과 한산도대첩을 비롯한 통영의 역사, 통영의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12공방으로 향하였다.





통제영 12공방, 군수물자 제작 목적으로 생겨
… 나전칠기, 갓, 부채, 소목가구 등 통영브랜드 만들어

12공방은 통제영에 물건을 댈 요량으로 만들어졌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통영 나전칠기도 그 때부터 명성을 얻은 것.

12공방은 상자방(대나무제품), 입자방(통영갓·벙거지·패랭이 등), 패부방(통영자개장·나전칠기, 후기 신설), 소목방(통영장·각종 목가구 등), 주석방(각종 놋쇠, 장석), 선자방(단오절선·각종 부채 등), 칠방(옻칠), 총방(말총방, 망건·탕건·유건 등), 화원방(화실, 지도·수조도·의장용장식화 등), 미선방(세미선·각종 둥근 부채 등, 후기 신설), 야장방(대장간·조병창), 통개방(활집통개 등, 후기 폐방), 은방(금은방), 안자방(말안장, 후기 폐방), 화자방(신발, 후기 폐방), 주피방(가죽제품, 후기 신설) 등으로, 지금 12공방은 통영갓과 부채(세미선), 나전칠기, 소목가구와 소반, 두석(금속), 대발 등 7가지만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12공방을 둘러보고, 나전칠기 체험교육을 진행하였다. 전복자개를 오려붙여 만든 나전 열쇠고리를 직접 붙여보면서 생활예술체험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으며, 통영 미륵산에 설치된 케이블카에 탑승해 통영시내와 수려한 남해바다와 한려수도의 경관도 마음껏 즐겼다.

고암 이응노와 깊은 인연 속 동백림사건으로 억울한 옥고
… 두 예술가의 생가마을서 연대 필요해

통영의 마지막 방문지인 '윤이상기념관'은 슬픔과 억압이 있는 곳에 음악으로 말하고 싶어 했던 작곡가 윤이상의 생전 모습과 친필 글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지상 2층 연면적 867.5m² 규모의 기념전시관이 있다. 전시실에는 그가 생전 독일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남긴 유품 148종 412점이 있고, 독일정부로 받은 훈장과 괴테메달을 비롯한 사무집기, 생전 연주하던 바이올린, 항상 품고 다녔던 소형태극기와 사진 5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주변으로는 그의 음악을 테마로 한 기념공원과 소공연장이 생가 옆 6745m² 부지에 조성되었다.

윤이상(1917~1995)은 1917년 9월 17일,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서당과 보통학교를 마친 뒤 오사카 음악학교에서 2년 동안 수학하며 첼로와 작곡, 대위법 등을 배웠다. 고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며 옥고를 치르기도 한 그는 통영여자고등학교, 부산사범학교, 부산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교가와 동요들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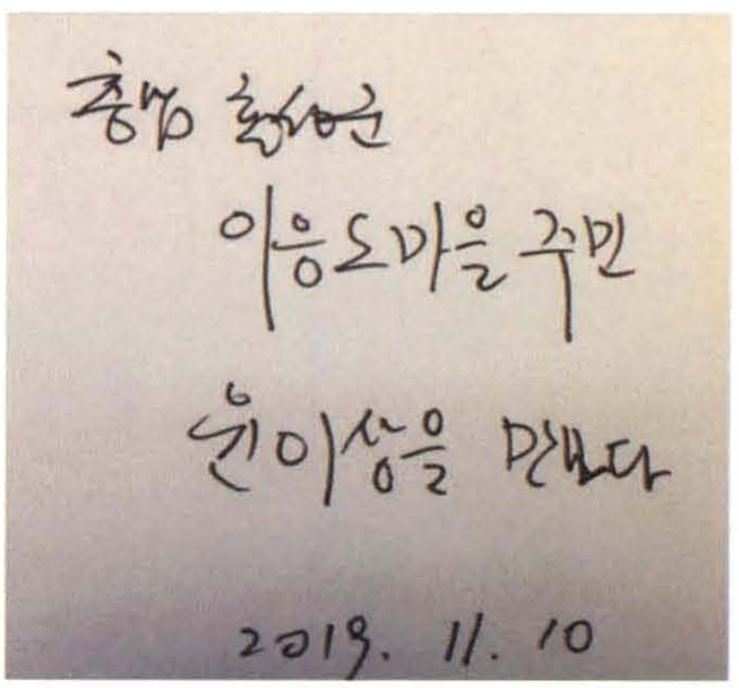
윤이상은 살아생전 이미 세계 5대 작곡가로 꼽혔고 150여 곡의 작품을 남겼으며, 서양음악의 모든 전통을 완벽하게 흡수한 바탕 위에 동양의 철학적 사상과 국악의 음향을 완벽하게 결합시켜 인류 음악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다.

윤이상은 화가 고암 이응노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 동베를린간첩단사건(동백림사건)에 연루되어 두 분 다 억울한 옥고를 겪었다는 것. 지금은 남북 분단보다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때임을 생각한다면, 두 예술가의 아픔과 상실은 또 어떠했을까?

주민들은 홍성과 통영의 두 예술가를 돌이켜보며, 두 예술가의 생가마을에 기념관이 들어서고,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 속에서 함께 연대하고 미술과 음악이 만나는 행사개최 등을 소망하며 이번 견학을 마쳤다.







1. 2019년 이응노마을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2) 이응노마을 리더(추진위원) 교육관련 선진지 연수

• 이응노마을 리더(추진위원) 교육관련 선진지 연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시 일원

마을 리더,
제주 마을 문화공간·장터·미술관 운영하는 단체 찾아 선진지 연수 다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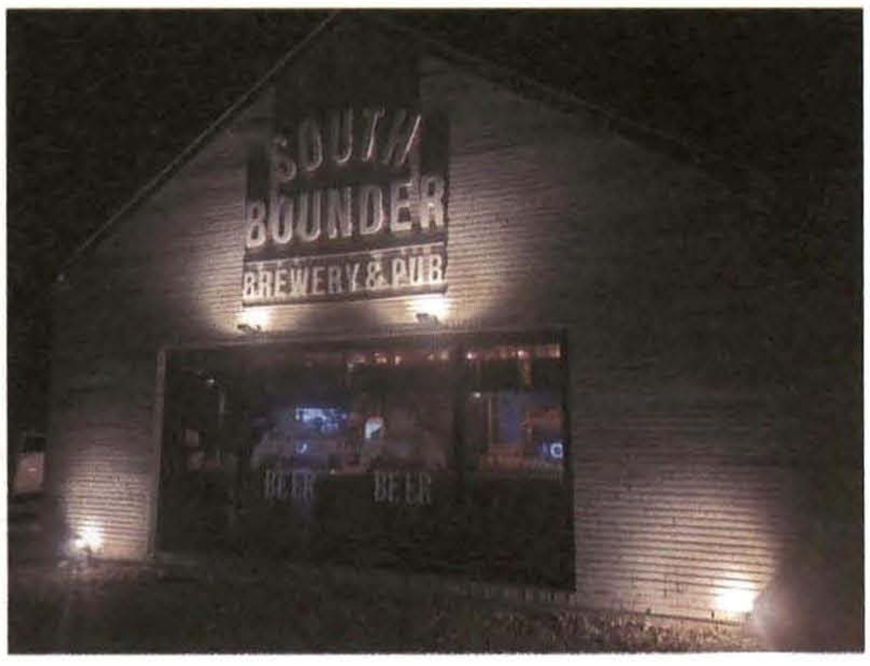
마을관련 서귀포 '꿈꾸는 고물상'과 제주 '상상창고 숨', '문화공간 양' 등 찾아 교육 연수

홍천(이응노)마을 리더들이 6월 21~23일 2박 3일 간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시 등으로 교육관련 선진지 연수를 다녀왔다.

참석희망 리더는 11명. 연수 방문지는 서귀포시 '꿈꾸는 고물상과'과 제주시 '상상창고 숨', '문화공간 양' 등이다. 이밖에도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과 제주거주지가 있는 '이중섭거리', '카멜리아 힐 수목원', '스카이워터쇼', 제주시 '한라수목원', '본초족욕' 등이다.

마을 리더들은 특히, 이번 선진지 연수에서 '꿈꾸는 고물상의 마을 문화 공간 운영에 대해서', '상상창고 숨의 마을 장터 운영에 대해서', '문화공간 양의 마을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등 마을 만들기와 마을 문화예술 공간 관계자들의 강의를 듣고 직접 체험하며, 마을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꿈꾸는 고물상, 마을 문화공간 재생 통해 영화 상영·연극공연, '고물데이' 등 통해 마을사람과 소통

6월 21일(금) 제주에 도착, 먼저 찾아간 곳은 '꿈꾸는 고물상'이다. '꿈꾸는 고물상'은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3쌍의 부부가 인연이 되어 만든 곳.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빈집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서귀포시 하례리에 있는 감귤창고 2동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마을과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영화상영회, 연극공연, 벼룩시장(고물데이)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열고 있다.

꿈꾸는 고물상은 연극과 뮤지컬 등 공연예술 분야에서 배우와 기획·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경언·이가영 부부가 대표로 처음 이 일을 기획했고, 이치웅·이은희 부부, 유광국·염정은 부부가 함께 해 이곳을 멋진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강의를 진행한 이가영 씨는 "꿈꾸는 고물상은 매달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통해 마을사람들 간 소통을 이끌어내는 '고물데이'를 진행하고 있어요"라며 "꿈꾸는 고물상의 집들이로 기획된 '첫 번째 고물데이, 차를 마셔요' 행사에서는, 고물 재료로 만든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간단한 다과와 차를 마시면서 마을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라고 한다.

이가영 씨가 전하는 에피소드는 "고물데이를 진행하면서 마을사람들에게 의자나 그릇 등 집에서 안 쓰는 고물을 수집하려 했는데, 아무리 감귤농사로 잘 사는 집이라 해도 시골어르신들은 무엇이든 버리는 일 없이 재활용하다 보니 '고물'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해요"라며 그래서 서귀포 시내로 나가 주워오기도 한다며 멋쩍게 웃는다.

감귤창고가 보물창고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에는 3쌍의 부부가 회의를 해 낡은 감귤창고를 부수고 세워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게 편집되어 있다. 감귤창고 뒤로 가면 2층 건물을 개조한 또 하나의 꿈꾸는 고물상이 자리하고 있다. 그 앞에는 '꿈꾸는 이랑'이라는 작은 텃밭이 있는데 이치웅·이은희 부부가 마을어르신에게 잔소리를 들어가며 일군 텃밭이다. 이치웅 작가는 유광국·염정은 부부와 함께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목공·조소 작업 등으로 덩치가 큰 작품들을 주로 만든다.

이가영 씨는 앞으로 꿈꾸는 고물상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고민이 많다. "이 좋은 공간을 작가들의 작업실만으로 쓰기엔 아깝고, 정부지원만 의존할 수도 없고…"라며 "꿈꾸는 고물상을 잘 운영하려면 마을사람들과 예술가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상업적인 활동도 진행해나가야 할 듯 싶어요"라고 한다.

마을 리더들은 숙소로 돌아와 이응노마을의 빈 공간들을 어떻게 채워야 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예술마을의 지향성을 살리면서, 예술과 마을의 삶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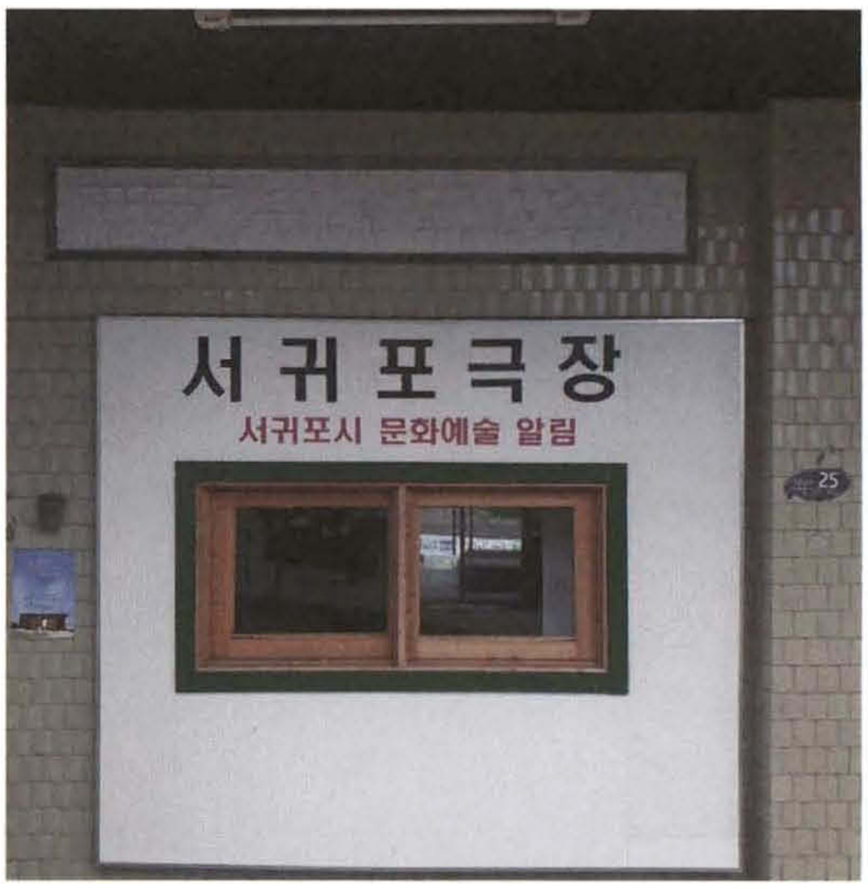
이중섭 화가 사랑한 서귀포, 미술관과 거주지, 공방거리 조성 … 수국 만발한 카멜리아 힐 수목원 산책

이밖에 마을 리더들은 하례리로 가기 전, 이중섭미술관과 그의 제주거주지가 있는 이중섭거리를 찾았다. 이중섭의 제주거주지와 거리에 펼쳐진 공예공방을 보며 '마을공방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배웠다. 미술관은 공사 중이라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제주를 사랑한 화가 이중섭의 마음을 느끼며 매일올레시장을 들러보았다.

화가 이중섭(1916~1956)은 한국 근대를 대표하는 서양화가로, 박수근과 함께 한국 근대 서양화의 양대 거목으로 시대의 아픔과 굴곡 많은 생애의 울분을 '소'라는 모티프를 통해 분출해 냈다. 주 작품의 소재는 소·닭·어린이·가족 등이 가장 많고, 불상·풍경도 몇 점 전한다. 소재상의 특징은 향토성을 강하게 띠는 요소와 동화적이며 동시에 자전적인 요소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흰 소', '황소', '서귀포의 환상', '물고기와 노는 세 어린이', '달과 까마귀', '길 떠나는 가족' 등이 있다.

또 하례리 방문 후에는 동양 최대의 동백 수목원인 '카멜리아 힐'을 찾았다. 계절이 초여름이라 동백꽃은 없지만, 수국이 만발은 수목원을 산책했고, 다양한 제주 자생식물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상창고 숨, 사람과 관계 만들어가는 단체 … '살림공작소' 통해 마을사람 예술교육과 마을장터 펼쳐

6월 22일(토) 두 번째 방문지는 제주시 해안마을에 위치한 '상상창고 숨'이다. 해안마을은 앞으로 바다가 보이고 뒤로는 한라산이 보이는 경치 좋은 마을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주 열풍이 불 때 많은 외지인이 이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조상 대대로 마을에 살아온 사람과 새로 이사 온 사람 사이에 틈이 있게 마련이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지낸 세월이 길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 틈을 예술로 채워 서로를 연결해주는 단체가 바로 '상상창고 숨'이다.





숨이 운영하는 '살림공작소'에 들어서자 공간 안 마을아이들의 꿈과 어르신들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다. 박진희 대표에게 소개를 부탁하자 슬로건을 이야기해 주었다. "삶을 닮아가는 예술, 삶을 담아내는 예술, 예술을 닮아가는 삶, 예술을 담아내는 삶"이라는 의미다. 숨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슬로건이다.

박진희 대표는 "숨의 철학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시간을 잇고, 사람과 공간 그러니까 공동체를 잇는 관계의 감각을 회복시키는 예술교육이에요. 숨이 마을 초입, 해안초등학교와 마을회관 앞에 있다 보니 지역의 터무늬를 알아가는 것에 소홀히 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라 한다.

예술교육 외에도 살림공작소 안에서는 엄마들의 업사이클링 모임, 영상동아리, 바느질동아리 등의 활동이 이어지고 마당에서는 마을장터가 열리는데, 그 이유는 숨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숨의 예술교육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마을에 스며들어 있다. 아이와 노인이, 선주민과 이주민이 만나 추억을 공유하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 함께 움직이게 만든다. 관계의 감각을 회복해 가고, 아이들의 상상으로 채워지는 해안마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기대된다.

마을 리더들은 숙소로 돌아와 마을주민과 외지인들이 어떻게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였다. 공방교육프로그램이 그 대안이라는 점에서 마을공방의 확대와 주민 생활예술화를 선행해야 한다는 데 각자의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마을 리더들은 해안마을로 가기 전 공중곡예와 마루공연, 다이빙쇼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워터서커스의 세계가 펼쳐지는 스카이워터쇼를 관람하고, 해안마을 방문 후에는 제주 최대의 한라수목원을 찾았다. 수목원 산책로를 따라 거닐고 자생·희귀·특산식물이 즐비한 수목원 삼림욕을 즐기며, 본초족욕에서는 한방테라피 족욕 체험으로 일정의 피로를 풀었다.

문화공간 양, 제주 전통가옥 그대로 살려 '마을미술관'과 '마을이야기' 프로그램 등 예술 프로그램 운영

6월 23일(일) 마지막 일정으로 아침 일찍 '문화공간 양'을 찾았다. 양은 제주시 거로마을에 있다. 제주 전통가옥의 구조를 그대로 살려 전시실, 강의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안거리, 밖거리, 통시, 우영팟' 구조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감나무, 하귤나무, 앵두나무, 석류나무 등이 있어서 제주도 옛집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김연주 기획자는 "양이 무슨 뜻이냐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양'은 제주어로 말을 걸 때 쓰는 말이에요. "양~"하면 사람들이 돌아봐요, 예술로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라며 "이곳이 원래 김범진 관장의 외갓집이었는데, 외할머니 성이 양 씨예요. 외할머니의 성을 딴 것은 제주여성에 대한 오마주를 담고 싶어서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자로 '두 양'을 써서 김범진 관장과 김연주 기획자, 두 명이 함께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고요"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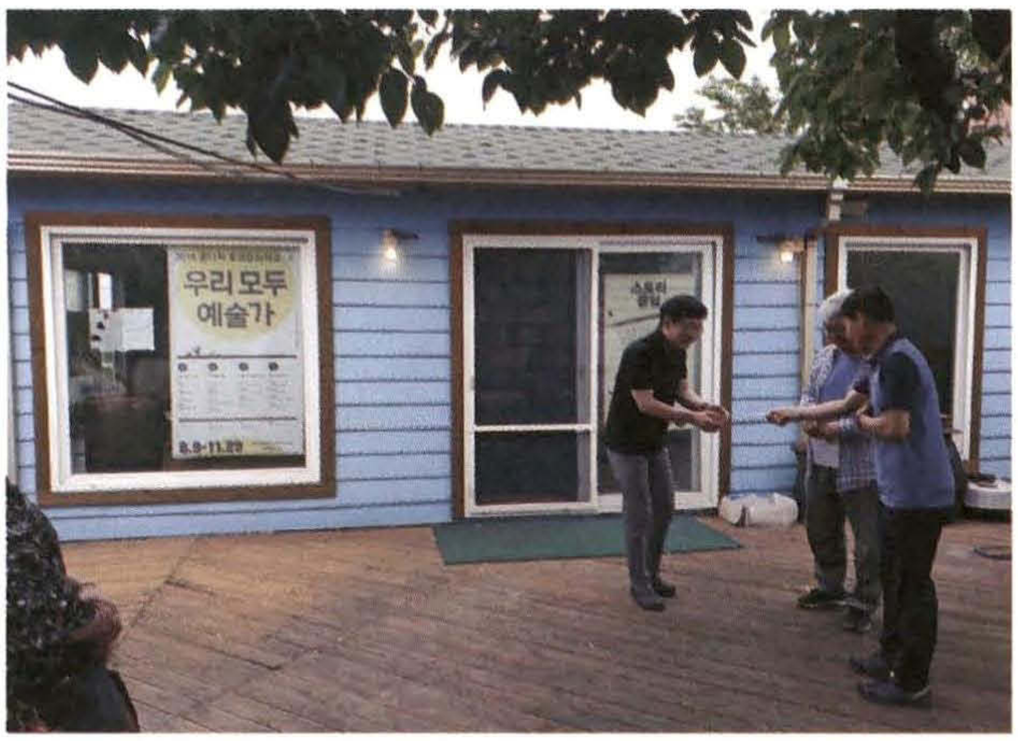
양은 작가와 비평가, 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가 레지던시, 작가를 위한 전시지원, 제주도내 기획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문화기획자 양성프로그램, 미술계의 주요담론을 형성하고 논의하는 강좌·스터디·토론회, 마을의 역사를 예술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사람들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마을의 기억과 현재를 예술가의 시선과 다양한 매체로 기록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양에서는 거로마을의 이야기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거로마을의 이야기는 작가들이 마을을 기록하는 방식과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 담은 작품을 작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전자는 사진집, 인터뷰집, 지도책 등으로 옛 마을의 기억을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냈고, 후자는 옛날 마을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은 기능을 상실한 당충대에 작가와 마을주민이 함께 '삶의 빛'이라 불리는 모자이크 벽화를 만들었다.

김연주 기획자는 "삶과 더불어 함께하는 예술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을에 문화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의 삶이 조금 더 예술과 가까워지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양~"하고 말을 건넬 거예요"라 한다.

마을 리더, 마을과 예술가 연대의식 필요성 공감 … 마을과 예술과 상생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노력

마을 리더들은 제주를 떠나기 전, '꿈꾸는 고물상'과 '상상창고 숨', '문화공간 양' 등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토대로, 마을주민과 예술가들이 연대의식을 갖고 '예술마을'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마을사업의 방향성도 마을과 예술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이응노마을 리더(추진위원) 교육관련 선진지 연수
– 강원도 춘천시·양구군·인제군·강릉시·원주시 일원

마을 리더,
'기념시설·미술관·박물관'의 도시 강원도 5개 지역으로 선진지 연수 다녀와

강원도 춘천·양구·인제·강릉·원주 등 '기념시설과 미술관·박물관' 찾아 마을 문화시설 활용방안 찾아

홍천(이응노)마을 리더(추진위원)들이 12월 6~8일 2박 3일간 일정으로 강원도 5개 도시(춘천·양구·인제·강릉·원주)에 흩어져 있는 기념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교육관련 선진지 연수를 다녀왔다.

참석희망 리더는 11명. 연수 방문지는 강원도 춘천시 김유정문학촌과 실레마을, 양구군 박수근미술관, 인제 만해마을 만해문학박물관과 한국시집박물관, 강릉 예술창작인촌과 동양자수박물관, 오죽헌과 시립박물관, 테라로사커피공장, 하슬라아트월드, 원주 뮤지엄 산 등이다.

리더들은 특히, 이번 선진지 연수를 이응노의 집과 연계한 예술마을 조성 거점구축을 위한 일정으로 채워 강원도 각 지역의 상징 기념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등을 찾은 것.

리더들의 이번 강원도 5개 지역 선진지 연수는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공동 소득창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수익모델 모색과 예술마을을 위한 이응노의 집과 연계한 독특한 아트상품 개발계획 수립,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예술마을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춘천 '김유정문학촌과 실레이야기길', 한국 근대 천재 소설가 김유정 생가 주변 관광명소로 재생

12월 6일(금) 첫 번째 방문지는 춘천 '김유정문학촌'이다. 강원도 문학관 제1호인 김유정문학촌은 2002년 조카 김영수 씨와 금병의숙 제자들에 의해 생가와 기념전시관, 디딜방아, 연못, 외양간 등을 고증복원 후 개관했고, 2006년 이야기 집과 야외공연장, 한지공예·도자기·민화 공방체험관도 갖추었다. 또 고향 실레마을도 김유정의 대표작 12편을 주제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장소마다 '실레이야기길'을 조성하였다.





김유정문학촌 인근에 한국철도 최초로 지역 유명작가의 인명을 사용한 역이 바로 '김유정역'이다. 원래는 경춘선 신남역이었는데, 2004년 실레마을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역명을 변경하고, 2010년 역사를 이전하면서 구 역사는 이곳을 찾는 외지방문객들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김유정(1908~1937)은 한국 근대 대표 소설가로, 불과 2년 남짓 왕성한 창작욕을 발휘했으나, 폐결핵으로 아쉽게 29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그는 '동백꽃·봄봄' 등 고향 실레마을 사람들의 가난하고 무지하며 순박한 생활을 그린 작품, '노다지·금 따는 콩밭' 등 그의 금광체험에서 얻어진 민족항일기의 가난 속에서 일확천금의 꿈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의 생태를 그린 작품, 그리고 '따라지·봄과 따라지' 등 도시에서의 가난한 한 작가인 자신의 생활을 투영시킨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의 문학세계는 본질적으로 희화적이어서, 냉철하고 이지적인 현실감각이나 비극적인 진지성보다는 따뜻하고 희극적인 인간미가 넘쳐흐르는 게 특징이다. 등장인물들의 우직하고 순진한 모습, 사건의 의외적인 전개와 엉뚱한 반전, 매우 육담적인 속어의 구사 등으로 독특한 개성을 보여주었다. 어리숭한 사람들을 해학적으로 다룬 것은 그의 애상적인 성격에 대한 반동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박수근미술관, 가장 서민적이고 현대적인 화가 박수근 기리기 위해 양구군 기념시설 매해 넓혀나가

춘천에서 부랴부랴 리더들은 양구로 향하였다.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을 찾아가기 위해서다. 이종호 건축가가 설계한 박수근미술관은 2002년 생가 터에 건립한 기념전시관, 공원 개관에 이어 2003년 박수근·김복순 부부 묘소 이장, 2005년 마을 전시장과 현대미술관 개관, 2006년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2011년 마을벽화 프로젝트 '박수근마을에 봄이 오다' 개최, 2012년 수군수군 마을장터 및 잔치 개최, 박수근마을살리기 프로젝트, 2014년 파빌리온 개관, 2015년 박수근미술상 제정, 2016년 미석예술인촌 조성 등 양구군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다.

화가 박수근(1914~1965)의 삶과 예술은 '서민의 화가'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곤궁한 시절에 힘겹게 살아갔던 서민화가 그 자체였다. 박수근은 어릴 적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다닐 수 없었다. 6·25한국전쟁 때 월남한 그는 부두 노동자, 미군부대 PX에서 초상화 그려주는 일 따위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 힘들고 고단한 삶속에서도 그는 삶의 힘겨움을 탓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무던한 마음을 그렸다.





"절구질하는 여인, 광주리를 이고 가는 여인, 길가의 행상들, 아기를 업은 소녀,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김장철 마른 가지의 고목들…."

그의 부인이 쓴 〈아내의 일기〉를 보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진 마음을 그려야 한다는 극히 평범한 예술관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은 곧 예술의지가 되어 서민의 모습을 단순히 인상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감정에서 독립된 완전한 객체로서의 서민을 담아냈다. 그래서 박수근의 그림은 화강암 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처럼 움직일 수 없는 뜻과 따뜻한 정이 동시에 느껴진다. 박수근은 가장 서민적이면서 가장 거룩한 세계를 보여준 화가가 되었고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현대적인 화가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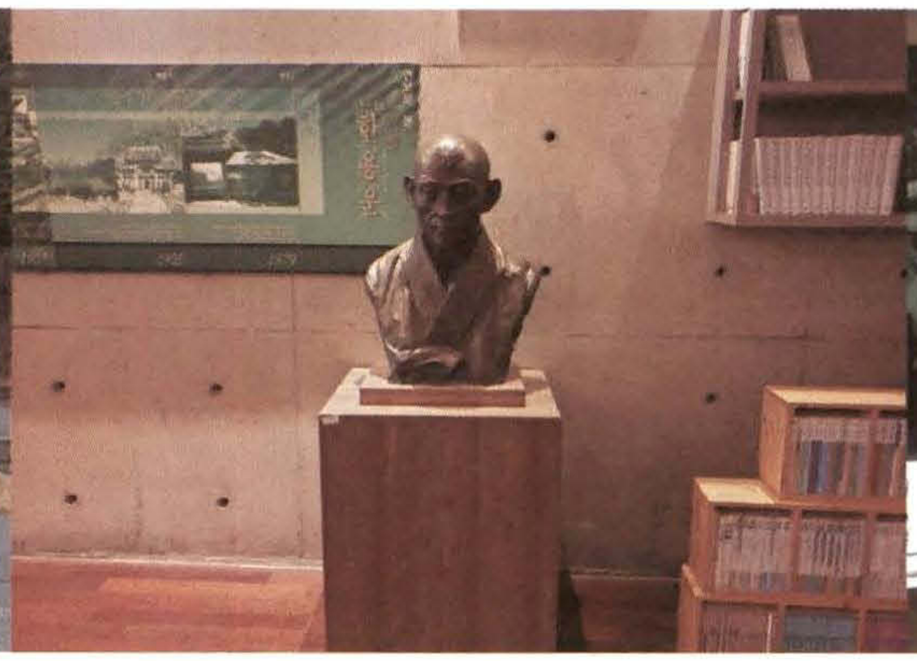
만해문학박물관·한국시집박물관, 한용운 그리고 한국 근현대 시인들 희귀시집 보관한 문학의 보고

짧은 시간이라 리더들은 미술관 주변을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고 아쉬워하며 숙소가 있는 인제로 향하였다. 인제에서 '만해마을'을 찾았다. 동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만해마을은 추위 탓인지 벌써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만해마을에서는 '만해문학박물관'과 '한국시집박물관'을 둘러봤다.

김용직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쓴 '만해문학박물관'이라는 두텁고 힘 있는 제자를 지나 박물관 문을 들어서면 벽에 새겨 놓은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류의 행복이다"라는 한용운의 법문이 생생하게 전해온다. 박물관은 한용운의 인종과 종교, 국경을 초월한 실천과 개혁정신, 문학과 철학사상을 조명할 수 있다.

박물관 1층 상설전시실(70여 평 규모)은 내부 공간 외에 주변의 전경과 외부공간이 함께 전시공간을 이룬다. 박물관 입구 중앙홀 벽면으로부터 '만해연대기'와 만해 한용운의 친필 '풍상세월風箱歲月 유수인생流水人生'를 만나게 된다. 입구에 들어서면 좌측 유리벽으로 외부전경이, 우측 벽면으로 한용운 초상화를 대한다. 박물관 안 전면 유리벽 밖에는 만고의 풍상을 담은 초월자의 모습을 한 한용운 동상이 손을 내민다. 한용운의 친필서예와 작품집, '연보로 본 만해선사의 생애'와 '주제로 본 만해선사의 삶'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되어 있다.

한용운(1879~1944)의 생애와 업적을 어찌 다 말과 글로 표현할까. 고향 홍성 출신인 관계로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한용운을 기리는 곳은 이곳 말고도 고향인 홍성군 만해한용운생가지 문학체험관. 서울 성북구 심우장, 종로구 선학원, 경기 광주 남한산성 안 만해기념관 등이 있다. 인제 백담사 인근에 만해마을이 조성되고 다양한 시설을 갖춘 점이 몹시 부럽기만 하다. 다만 무인입장시스템은 아쉬움이 남는다.


박물관 인근에 건립된 한국시집박물관은 2010년부터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해 여초서예관 인근에 준공하였다. 박물관에 전시할 근현대 시인의 시집과 자료를 공개 구입하는 등 1970년대 이전 한국시의 역사를 전시·교육장으로 꾸미고 있다.

박물관은 9459㎡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었고, 상설·기획전시실과 열람실, 컨벤션룸,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박물관은 국내외 300여 명의 시인들과 소장가들이 기증한 기증시집 1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기증시집에는 1950년대 이전에 간행된 희귀시집 100여 권도 포함되어 있다. 1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각종 체험학습이 가능한 교육·체험공간, 안내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계절이 겨울이라 그런지 벌써 어둠이 내려앉아 리더들은 식사를 마치고 인제 숙소로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숙소에서는 오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유정문학촌과 실레이야기길은 '김유정' 브랜드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응노마을·이응노의 집과 닮아있다. 통일성은 있지만 개별적 특성은 잘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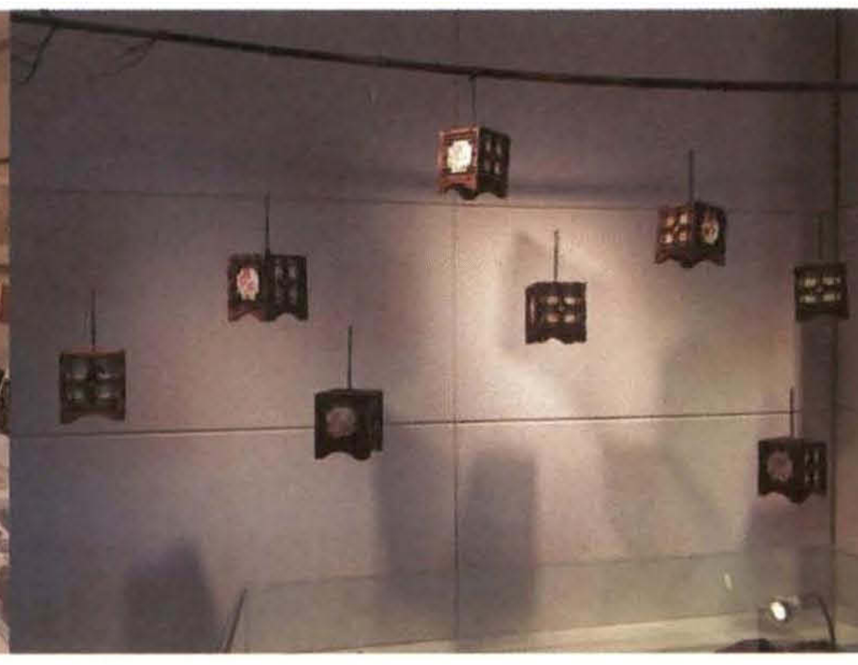
박수근미술관은 양구군의 전폭적인 투자 지원이 부러움이었다. 이응노의 집보다 10년 앞서 있지만, 벌써 기념전시관·정림갤러리·현대미술관·파빌리온(어린이미술관 건립 예정) 등 4개의 미술관 건립과 미석예술촌을 조성했다는 점은 참고할 바 크다. 마을과 지역을 연계하는 동력도 매우 높이 살만하다. 이응노의 집·이응노마을의 미래를 박수근미술관에 찾는다.

만해마을 또한 부러움을 살만하다. 인제군을 넘어 강원도·범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고향인 홍성에서 더 분발해야 한다는 교훈이었다.

강릉예술창작인촌과 동양자수박물관, 오죽헌공방마을과 연계 '강릉자수'와 다양한 공방예술 활성화

12월 7일(토) 일찌감치 강릉으로 출발을 서둘렀다. 강릉 일정도 꽉 채워져 게으름을 피우기 어려웠다. 강릉의 첫 번째 방문지는 '강릉예술창작인촌'과 '동양자수박물관'이다. 강릉예술창작인촌은 오죽헌공방마을과 연결되어 있다. 1층과 별관에는 강릉방짜수저상설전시장, 갤러리 토토, 도예공방 빔, 강릉 요, 닥종이인형연구소, 섬유공예공방, 황상봉 우드스튜디오, 율디자인, 솜씨공방 등 20여 개의 공방이 자리 잡았고, 2층에는 동양자수박물관, 3층에는 입주 작가들의 작업실이 있다. 강릉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오죽헌 공예 주말마켓'을 열어 강릉공예 활성화에 앞장섰다. 오죽헌공방마을길에는 강릉커피거리도 조성되어 있다.



2층 동양자수박물관은 2011년 1월 안영갑 관장이 개관한 규방공예 전문박물관이다. 한·중·일 동양자수 2000여 점뿐만 아니라, 서양자수와 천연염색, 색동조각보, 색동조각 생활소품, 자개·인형·복식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다. 특히 안영갑 관장은 강릉 전통자수를 수년간 수집, 재현과 응용을 통해 추상적인 강릉 전통자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오죽헌과 강릉시립박물관, '세계 최초 모자 화폐인물 탄생지'로 국내외 외지방문객 발길 끊이질 않아

리더들은 오죽헌공방마을길을 지나 '오죽헌'을 찾았다. 보물 제165호인 오죽헌은 이이가 태어난 몽룡실이 있는 별당 건물로, 우리나라 주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이다. 검은 대나무가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오죽헌烏竹軒'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오죽헌은 '세계 최초 모자 화폐인물 탄생지'라는 수식어와 함께 세계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 어머니 신사임당과 아들 이이가 태어나고 살아온 집. 검은 대나무가 바람에 몸을 흔드는 소리와 마당 가득 들어앉은 오후 햇살의 한가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어머니 신사임당(1504~1551)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학자이며 경세가인 이이의 어머니이다. 시·그림·글씨에 능했던 예술가이다. 작품으로는 '산수도, 초충도, 노안도, 요안조압도' 등과 '6폭 초서병풍' 등이 있다. 신사임당은 실로 현모로서 아들 이이는 백대의 스승으로, 아들 이우와 큰딸 이매창은 자신의 재주를 계승한 예술가로 키웠다. 이이는 어머니 신사임당의 행장기를 저술했는데, 이이는 여기에서 신사임당의 예술적 재능, 우아한 천품, 정결한 지조, 순효한 성품 등을 소상히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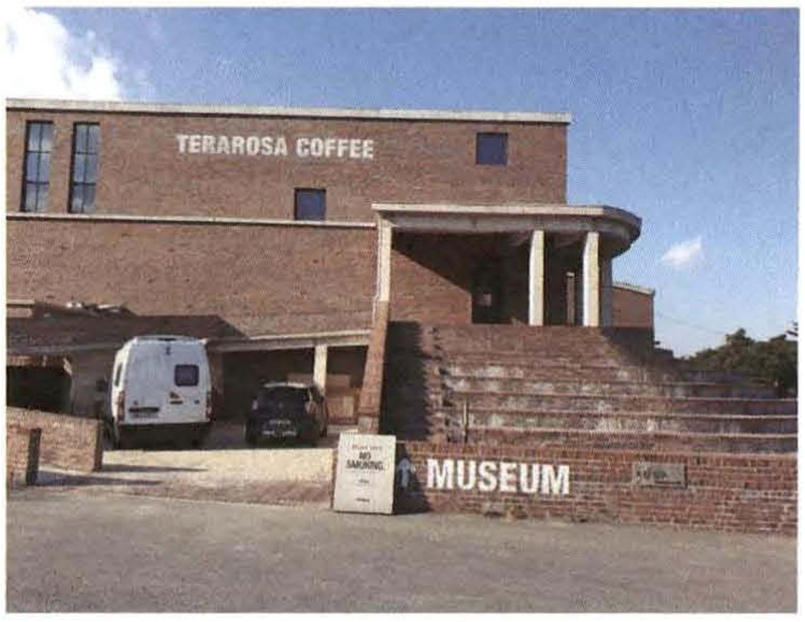


아들 율곡 이이(1536~1584)는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자 정치가로 〈동호문답〉, 〈성학집요〉 등의 저술을 남겼다. 현실·원리의 조화와 실공·실효를 강조하는 철학사상을 제시했으며, 〈동호문답〉, 〈만언봉사〉, 〈시무육조〉 등을 통해 조선 사회의 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18대 명현 가운데 한 명으로 문묘에 배향되어 있다. 아명을 현룡이라 했는데, 어머니 신사임당이 그를 낳던 날 흑룡이 바다에서 집으로 날아 들어와 서리는 꿈을 꾸었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그 산실은 '몽룡실'이라 해 지금도 오죽헌 안에 보존되고 있다.

오죽헌을 지나면 강릉사람들의 심성을 닮아 순하게 생긴 강릉시립박물관이 나온다.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지정학적, 인문사회학적 환경에 맞춰 특징적으로 형성되어 온 강릉문화의 면면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박물관 앞쪽에는 율곡인성교육관이 있으며, 디지털 체험 및 교육체험을 할 수 있다.

테라로사 커피 견학 후 리더들 마을공방과 공예품 개발, 마을 농·특산물 생산·가공·판매 전략 세워야

오죽헌을 나온 리더들은 식사 겸 다음 연수방문지인 테라로사커피공장으로 향하였다. 테라로사에 도착, 직영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테라로사뮤지엄 커피가공 현장에서 가이드투어를 통해 설명을 들었다. 테라로사 뮤지엄은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커피생산지에서 시작된 커피의 여





정을 영상과 회화로 실감나게 전달하고, 역사·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커피의 다양한 면모를 여러 예술가들과의 협업으로 흥미롭게 구성하였다. 테라로사가 오랫동안 수집한 앤티크 로스터기와 소장품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가이드가 권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었다.

리더들은 이날 일정을 마치고 강릉 숙소를 향하였다. 숙소에서는 방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마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방 육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마을공동 소득창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강릉예술창작인촌 마을공방 육성은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만 가능하고, 다양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 사실에서 갈 길에 멀게만 느껴졌다. 동양자수박물관 전시물이 매우 많아 관람에 방해가 되었고, 체험프로그램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을에서는 공방을 인위적으로 육성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마을로 공방예술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것.

테라로사는 커피, 음식으로는 대기업이다. '한 잔의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연수는 필요하지만, 마을의 농·특산물인 연잎, 딸기, 고사리, 표고버섯 등과 공방예술품을 '어떻게 생산·가공·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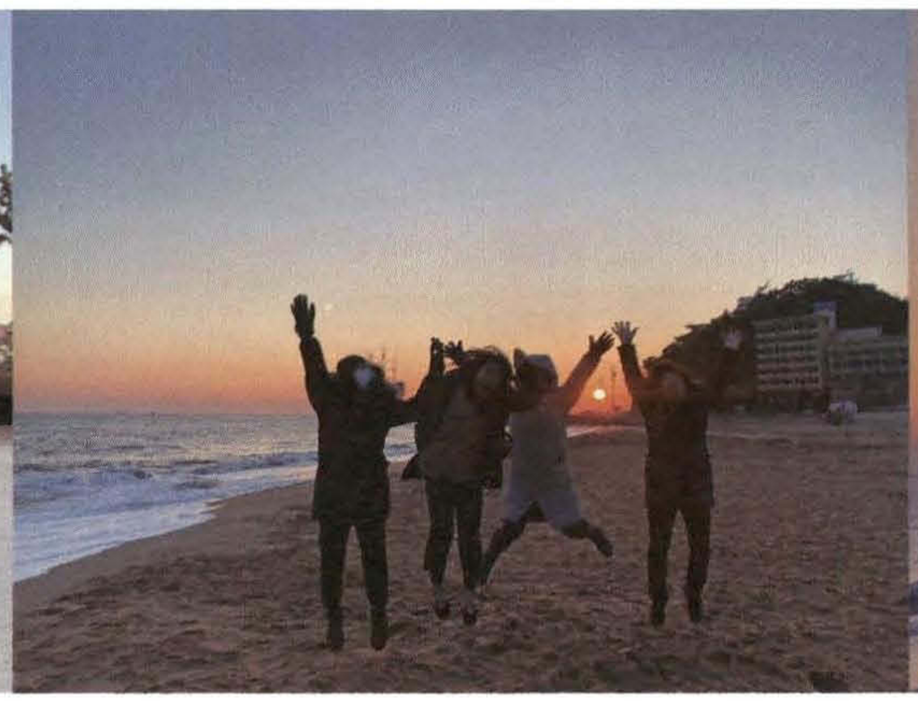






정동진 일출 보며 차질 없는 마을사업 추진 소망 … 하슬라아트월드의 야외조각공원 대지미술은 볼만해

12월 8일(일) 연수 마지막 날, 리더들은 새벽 숙소에서 눈을 떠야만 하였다. 강릉 '정동진 일출'을 보기 위해서다. 정동진 일출을 보면서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 소원을 빌어본다. 개인의 소망을, 마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소망을 빌어보며…. 정동진커피거리에서 식사와 한 잔의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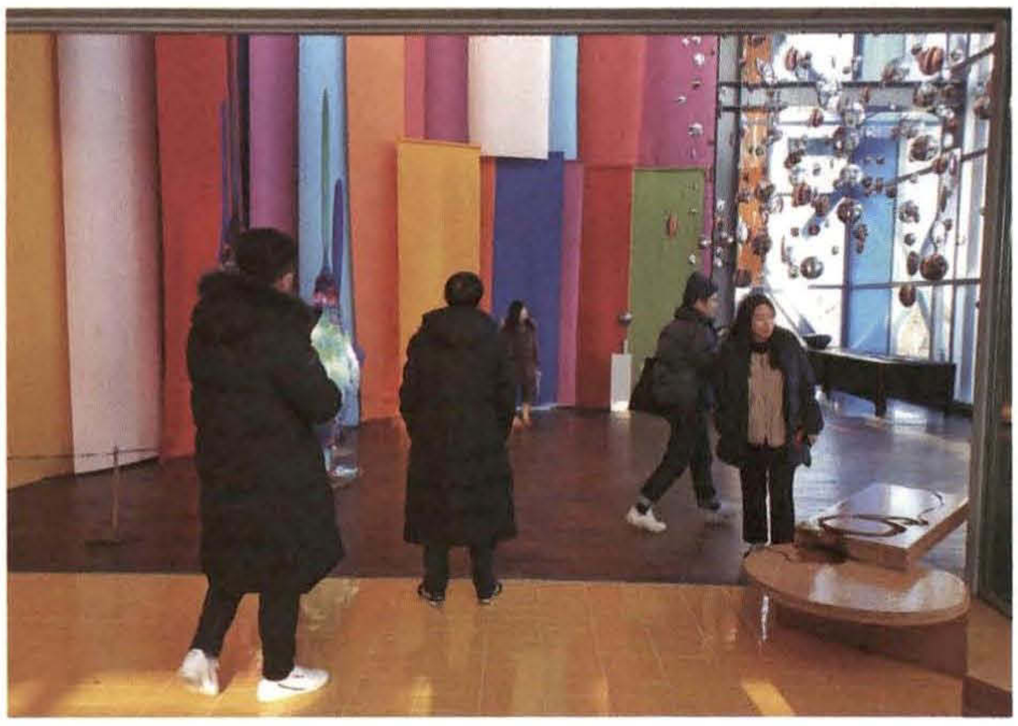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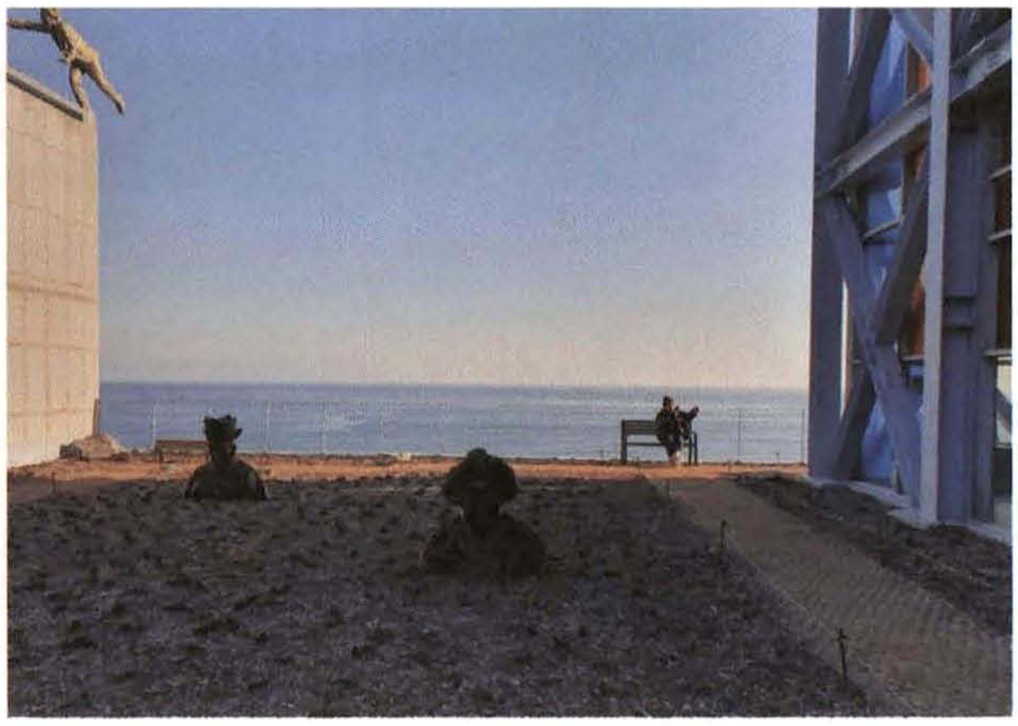

리더들은 일정 첫 방문지인 강릉 '하슬라아트월드'로 향하였다. '하슬라'는 해와 밝음을 뜻하는 고구려와 통일 신라 때 강릉의 옛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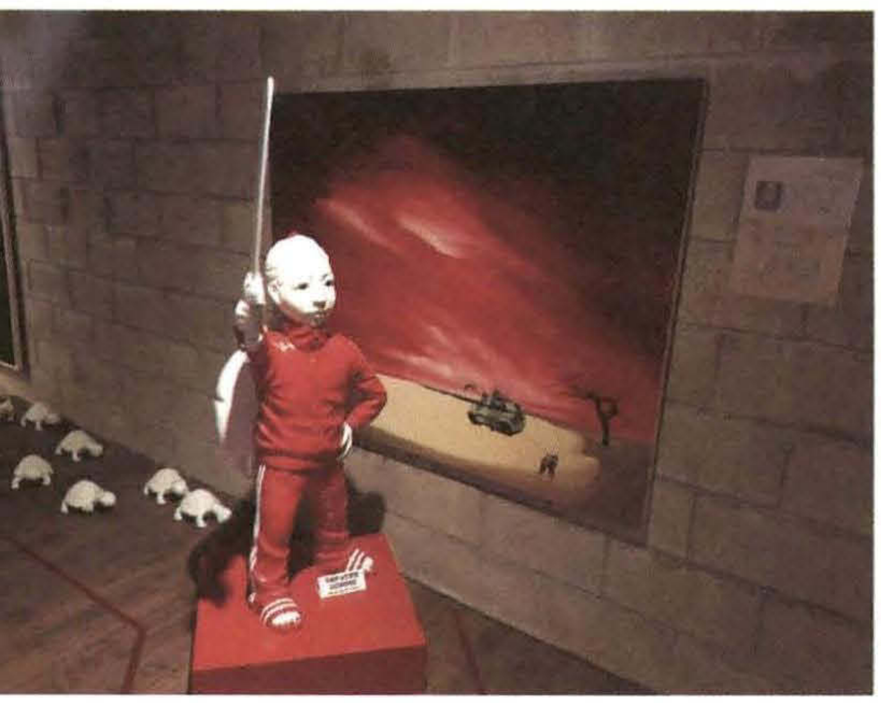
하슬라아트월드는 2003년 개관 후 2004년 야외미술관 등록, 2009년 호텔 개관, 2010년 현대미술관 개관, 2011~2012년 피노키오/마리오네트 미술박물관 개관 등록했으며, 총 10만여 평에 조성된 예술공간으로 박신정·최옥영 조각가 부부가 2003년부터 문을 열어 다양한 현대미술 전시와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시도하고 있다. 바다가 보이는 산 위에 작품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생각하도록 구현된 야외조각공원 등 대지미술 공간을 통해 현대미술공간의 폭을 넓히고 있다.

뮤지엄 산, 안도 타다오 건축 '도시의 번잡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산과 자연으로 둘러쌓인 아늑함' 추구

리더들의 최종 방문지는 원주 '뮤지엄 산(SAN, Space Art Nature)'이다. 뮤지엄 산은 한솔제지로 유명한 한솔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공헌의 역할 확대 및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제공하고자 2013년 5월 종이박물관과 청조갤러리로 종합한 뮤지엄이다.

종이박물관은 우리 종이의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연구, 소개 작업을 추진해왔고, 청조갤러리는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엿볼 수 있는 역사적 맥락과 우리 독자의 정서라는 고유성과 미술이 인류공통의 문화현상이라는 보편성을 추구한 수준 높은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산속에 감춰진 뮤지엄 산은 2005년 노출 콘크리트의 미니멀한 건축물의 대가 안도 타다오의 뮤지엄 부지 방문 때 느꼈던 '도시의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난 아름다운 산과 자연으로 둘러쌓인 아늑함'이라는 인상을 통해 지금의 개성 강한 건축물로 설계되었다.

'산상山上'이라는 고유의 지형에 순응하며 오솔길을 따라 웰컴 센터, 잔디주차장을 시작으로 플라워가든, 워터가든, 본관, 명상관(2019년 개관), 스톤가든 그리고 빛과 공간의 예술가 '제임스 터렐' 작품관 등으로 이어지는 전체길이 700m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관은 네 개의 윙 구조물이 사각, 삼각, 원형의 공간들로 연결되어 대지와 하늘, 사람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건축가의 철학이 담겨있다.

리더들은 뮤지엄 산에서 한국미술의 산책 V 추상화전展, 낯선 시간의 산책자전展, 제임스 터렐관 스카이스페이스·스페이스 디비전展, 호라이즌룸·웨지워크·간츠펠트, 나를 발견하는 여행 명상관, 종이박물관 '종이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등을 감상하였다.

마을 리더, 마을과 이응노의 집 연계 통해 공간 활용과 협업 구상, 마을공동 소득창출 위한 방안 마련

리더들은 선진지 연수를 미친 후 마을로 돌아오면서 "주로 기념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연수로 이뤄진 이번 선진지 연수를 통해 마을과 이응노의 집 문화예술 전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한다.", "테라로사커피공장과 기타 시설 아트숍 등의 작품들을 보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 소득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좋았다.", "이번 선진지 연수를 통해 이응노마을과 이응노의 집 공동 연계협력 방안을 만들 수 있고, 기관과 마을 창작 공간의 다양한 협업방법 등을 찾아낼 필요성이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1. 2019년 이응노마을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3) 이응노마을 리더와 행정기관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 이응노마을 리더와 행정기관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 강원도 양구군 '박수근미술관'

마을주민과 이응노의 집 관계자, 양구 박수근미술관으로 선진지 견학 다녀와

박수근미술관, 이응노의 집과 닮은 점 많아 … 미술관과 마을연계 협력 방안 등 함께할 필요 느껴

홍천(이응노)마을 주민들이 2019년 5월 7일(화) 강원도 양구군 '박수근미술관'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양구 선진지 견학은 마을 리더와 주민, 그리고 이응노의 집 관계자 등 15명이 박수근미술관 운영현황과 시설관련 성과를 보기 위해 진행된 것.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은 2002년 이종호 건축가가 생가 터에 설계, 건립한 미술관이다. 박수근기념전시관, 박수근공원 개관에 이어 2003년 경기도 포천 동신교회 묘지에서 미술관 공원으로 박수근·김복순 부부 묘소를 이장하고 2005년 박수근마을 전시장과 현대미술관 개관, 2006년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2011년 박수근마을 벽화프로젝트 '박수근마을에 봄이 오다' 개최, 2012년 수군수군 박수근마을장터 및 잔치 개최, 박수근마을살리기 프로젝트, 2014년 박수근파빌리온 개관, 2015년 박수근미술상 제정, 2016년 미석예술인촌 조성 등 양구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가장 서민적·현대적인 화가 박수근에게 배우는 마을과 사람 사이의 연대, 이응노의 집 확장 필요 절감

박수근(1914~1965)은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린 화가로 유명하다. 독학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한국의 대표화가, 죽은 뒤 더 유명해져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가,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그림 값이 비싼 화가…. 그의 삶과 예술은 '서민의 화가'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화가 이중섭과 양대 산맥을 형성할 만큼 그는 근현대 화가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화가이다. 그는 곤궁한 시절에 힘겹게 살아갔던 서민화가 그 자체였다. 박수근은 어릴 적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다닐 수 없었다. 6·25한국전쟁 때 월남한 그는 부두 노동자, 미군부대 PX에서 초상화 그려주는 일 따위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 힘들고 고단한 삶속에서도 그는 삶의 힘겨움을 탓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무던한 마음을 그렸다.

"절구질하는 여인, 광주리를 이고 가는 여인, 길가의 행상들, 아기를 업은 소녀,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김장철 마른 가지의 고목들…."

그의 부인이 쓴 〈아내의 일기〉를 보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진 마음을 그려야 한다는 극히 평범한 예술관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은 곧 예술의지가 되어 서민의 모습을 단순히 인상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감정에서 독립된 완전한 객체로서의 서민을 담아냈다. 그래서 박수근의 그림은 화강암 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처럼 움직일 수 없는 뜻과 따뜻한 정이 동시에 느껴진다. 박수근은 가장 서민적이면서 가장 거룩한 세계를 보여준 화가가 되었고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현대적인 화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마을주민과 이응노의 집 관계자들은 10여 년을 앞서 개관한 박수근미술관과 이응노의 집이 닮아있음에 주목하고, 기념시설의 운영관리, 현대미술관과 파빌리온 개관, 예술촌 조성 등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박수근미술관과 박수근마을의 연대, 이응노의 집과 이응노마을의 연대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우는 시간으로 채웠다.







2. 2020~2021년 이응노마을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

마을주민 역량강화,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취소·축소 등 일정 변경

2020년 주민 선진지 견학 등 일체의 역량강화 중단, 마을사업 내용 및 일정 등 변경 불가피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는 2020년 2월 5일(수) 2회 차 운영회의를 통해 마을노인회 1차 선진지 견학 방문지로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을 선정 추진하였다.

하지만 올해 1월 중순께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정부의 전 국민 방역지침과 여행자제 권고사항을 지키고자 마을노인회 교육관련 1차 선진지 견학을 전면 중단하였다.

특히, 마을어르신들이 중심이 되는 견학의 경우 확진율과 위중증 발생이 높아 전면 중단했고, 추이에 따라 견학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올 한해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더 확산되는 추세에서 견학을 강행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추진위에서는 올해 예정한 4차례의 마을노인회·부녀회·청년회 중심 견학과 2차례의 마을리더(추진위원) 연수 일정 모두 잠정취소 결정하였다.

또한 마을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전면 취소 결정하면서, 2020년 한해 주민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연수, 마을활성화 교육 등이 전면 취소 또는 잠정 보류되었다.

다행히 마을사업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면서 추진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살펴보면서 다가오는 2021년에는 조심스레 주민역량강화 견학 연수와 마을활성화 교육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2021년 역시 주민 선진지 견학 등 중단, 사업 마무리 위해 마을 잔치와 연수 일정 축소해 진행

추진위는 또한 2021년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더 확산되는 추세에서 교육관련 선진지 견학을 강행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추진위에서는 올해 예정한 네 차례의 마을노인회·부녀회·청년회 중심 견학과 두 차례의 마을리더(추진위원) 교육관련 연수 일정 모두 취소 또는 축소를 결정하였다.

추진위는 마을사업 마무리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누그러진 시기를 선택해 마을 '문화예술잔치'와 마을리더 연수를 추진하기로 결정, 11월 13일(토) 마을 '문화예술잔치', 11월 20,21일 이틀간 마을리더 연수 일정을 정하고 정부권고안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와 최소인원이 참석하는 마을 잔치와 연수 일정을 마쳤다.

• 이응노마을 리더(추진위원) 교육관련 선진지 연수
– 경상남도 하동군·전라남도 구례군·충청남도 서천군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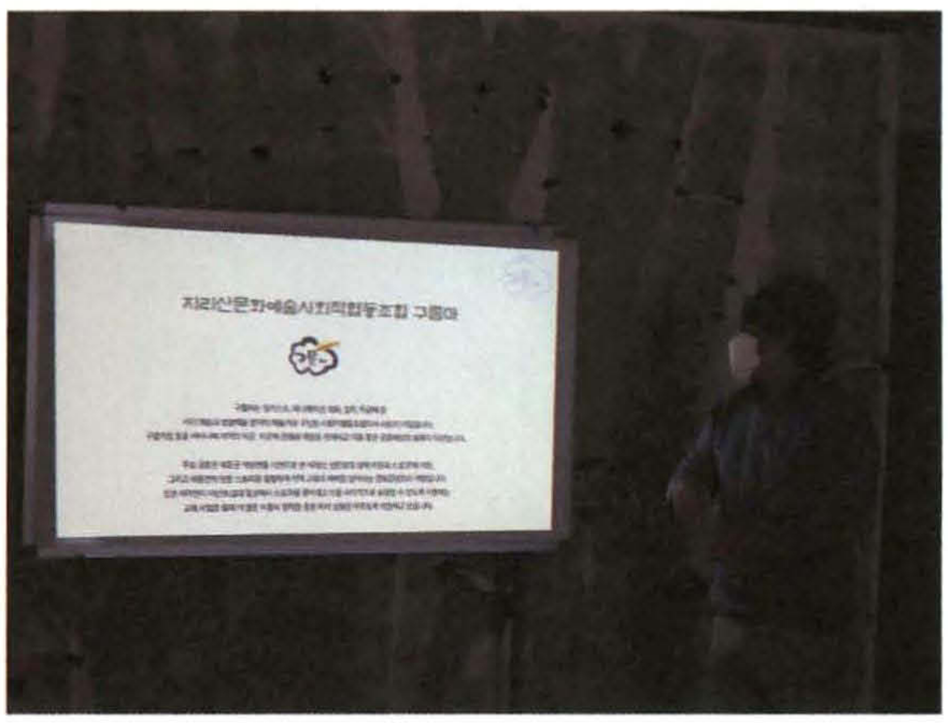
마을리더, 하동 '마을공방 두니'로 교육관련 선진지 연수 다녀와

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 운영하는 '마을공방 두니', 마을사람들과 연계해 마을공방육성사업 선정

홍천(이응노)마을 리더(추진위원)들이 11월 20,21일 1박 2일 간 일정으로 경상남도 하동군 마을공방 두니를 찾아 '협동조합의 설립과 조직, 활동에 대한 사례'를 배우고자 참석희망 리더 7명이 교육관련 선진지 연수를 다녀왔다.

11월 20일(토) 마을 리더들은 하동에 도착, 먼저 찾은 곳은 소축마을 '마을공방 두니'이다. 두니는 마을사람들의 어린 시절 추억이 남아있는 옛 축지초등학교(폐교) 운동장에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 2021년 6월 문을 연 이후 식물공방 '탐구생활', 책공방 '지이산', 카페 '평사리', 농·특산물판매장 '두니네농산물', 유튜브 방송국 'YTBC', 전시실 '1/3 스페이스', 공유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두니가 들어선 곳은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대축·소축마을이다. 대축·소축마을은 대봉감 정보화마을로 알려져 있으며, 마을 이름의 유래를 따서 대축의 '큰 둔이', 소축의 '작은 둔이'를 발음하기 쉽게 '두니'로 공방 이름을 정하였다.

두니는 소축마을 주민이 주민공정여행 '놀루와'와 지역예술단체 겸 사회적기업인 '구름마'와 교류하는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 2019년 행정안전부 마을공방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았다. 여기서 '마을공방육성사업'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간 소통·협업하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주민 행복증진을 도모하는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름마, 설립과 조직, 활동관련 강의 … 그림책 작가와 목공·설치·순수예술가로 조합 결성
지리산 마을과 공존하는 예술 공간 조성 … 하동군과 상생하는 예술가 모임으로 거듭나길

옛 축지초 본관에는 '악양생활문화센터'와 '악양작은미술관', '악양창작스튜디오'을 갖췄고, 운동장 한 켠에는 '마을공방 두니'가 있다. 이 두 곳을 운영하는 단체는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이다.

마을 리더들은 '악양생활문화센터'에서 구름마의 양성빈 대표이사로부터 구름마의 설립과 조직, 활동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구름마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구름마는 이혜원 초대 대표이사와 서울의 그림책 작가들이 하동의 풍광에 반해 하동에 정착하면서 시작되었다. 2013년 아트숍을 시작으로 하동과 지리산을 소재로 한 작품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하동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2015년 협동조합을 발족했고,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2018년 9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처음 6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해 현재 10명으로 늘었다."

구름마가 하는 일은? "구름마 소속 작가 7명은 각각 목공, 설치·순수예술 등 각자 전문 분야를 살려 협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출판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하동의 자연과 이야기가 담긴 여행 그림책 5권을 펴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동과 서울에서 전시회도 열었고 지역 학교에서 20회 정도 그림책 체험행사도 진행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신나는 예술여행 섬진강 200리 △'시골 할머니의 나의 삶, 시 그림책 수업' 등을 진행하며 대상 연령을 다양화해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 하동군과 협약을 맺고 마을벽화 그리기, 직접 제작한 화분 설치 등으로 공공예술 부분에도 힘쓰고 있다."

구름마의 다음 목표는? "구름마는 현재 입주 공간인 악양생활문화센터를 지역민과 예술을 공유하는 장으로 가꿔나갈 목표다. 악양생활문화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마을어르신과 아이들이 모여 직접 공간을 가꾸고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만들어 마을과 공존하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목표다. 또 하동을 여행하며 예술가들의 공연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인 '다원예술순례', '찻자리 콘서트'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구름마가 명실상부한 하동과 상생하는 예술가 모임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다."

구름마가 지자체에 바라는 점은? "지자체, 조금 더 관심을…. 출판·교육·여행·전시·공연 등을 구름마 구성원 10명이 모두 다 진행하기는 벅찬 상황이다. 이에 초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사회적기업이나 공공예술에 대한 민관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하다. 지금 악양생활문화센터의 빈 공간을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같이 사용하고 교류한다면 새로운 사업도 구상할 수 있고 지역에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답할 수 있다."







마을리더, 마을 협동조합 설립 통해 마을 농·특산물, 마을공방 예술품 생산·유통·판매 등 활용방안 논의

마을 리더들은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의 설립과 조직, 활동사항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마을공방 두니에서 2개 조로 나눠 체험교육을 받았다. 1조는 식물공방 '탐구생활'에서 다육식물 식재를, 2조는 책공방 '지이산'에서 우리나라 전통방식의 북바인딩을 체험하였다. 이어 카페 '평사리'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공방작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마을 리더들은 식사 후 숙소에서 협동조합 설립과 조직, 활동 등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다. 마을 협동조합은 연잎·고사리·표고버섯 등 마을 농·특산물이나, 마을 공방예술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설립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가닥을 잡았다. 활동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회의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화엄사, 민족의 영산 지리산 속 화엄사상으로 창건 … 아름다운 풍광과 국보·보물 등 문화유산도 많아

11월 21일(일) 마을로 돌아가기 전, 마을 리더들은 지리산 대찰 화엄사를 찾았다. 장엄한 민족의 영산 지리산 속 '대한불교조계종제19교구본사지리산대화엄사'는 백제 성왕 22년(544)에 인도승려 연기조사가 대웅상적광전과 해회당을 짓고 화엄사를 창건 후, 백제 법왕(599) 때 3천여 명의 승려가 수도정진하면서 화엄사상을 백제 땅에 꽃피웠다.

(또 다른 사실은 '화엄사'는 신라고승이 창건하고 중창한 절이다. 오늘날의 구례와 광양 지역은 원래 가야의 영토였고, 6세기 중반 신라 진흥왕이 가야의 전 지역을 신라에 완전히 병합하면서 이 지역도 신라에 편입되었다. 애초에 절을 창건한 사람이 진흥왕의 총애를 받던 신라 고승 연기조사다.)

화엄사로 오르는 길은 아름다운 풍광이 사로잡지만, 매화와 올벚나무도 방문객들을 반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봄철이 아니라 매화·벚나무 꽃은 찾을 길이 없다. 화엄사 매화와 올벚나무는 천연기념물 제485호와 제38호로 지정되어 있다.

화엄사에서 가장 눈여겨 볼 곳이 각황전이다. '각황覺皇'은 깨달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으로, '부처'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각황전(제67호)과 앞쪽의 석등(제12호)은 그 특이한 가람배치, 크기와 특색 때문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이밖에 국보로 사사자삼층석탑(제35호), 영산회괘불탱(제301호), 목조비로자나 삼신불좌상(제336호) 등이 있으며, 보물로 대웅전(제299호)과 대웅전 삼신탱화(제1463호), 동오층석탑(제132호), 서오층석탑(제133호)과 서오층석탑 사리장엄구(제1348호), 원통전전사자탑(사사자감로탑, 제300호), 화엄석경(제1040호) 등이 있다.

화엄사에서 꼭 국보·보물 같은 문화유산만 보기보다 각황전 남쪽 계단 위로 올라가서 '효대와 구층암'이란 곳을 보는 것이 좋다. 화엄사의 웅장함과 다르게 아담하지만 자연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독특한 건물로 사랑받고 있다.







마을리더, 마을공방 신축에 따른 공예품 개발, 협동조합 설립준비, 농·특산물 육성 등 다양한 의견 나눠

마을 리더들은 화엄사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식사 후 서천으로, 서천군 '국립생태원'을 찾았다. 국립생태원은 2013년 10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해 한반도의 생태계와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세계 5대 기후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눈에 관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조성한 생태연구, 전시교육 공간이다.

특히 에코리움은 살아있는 생태전시공간으로 식물 1900여 종, 동물 280여 종이 2만1000㎡가 넘는 공간에 함께 전시되어 있으며, 기후대별 생태계를 최대한 재현함으로써 기후와 생물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5개 구역으로 구분된 야외 전시공간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습지생태계에서부터 세계의 다양한 식물, 고산에 자생하는 희귀식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슴류의 서식 공간, 연못생태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 국립생태원은 전문 생태교육기관으로 생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행사,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마을 리더들은 마을사업이 끝나는 올해, 마을의 자립을 위한 활동으로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마을을 살리는 방법으로 공방신축에 따른 입주단체 선정 및 공예품 개발, 협동조합 설립 위한 준비, 마을의 농·특산물 육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이번 연수를 마쳤다.

3. 이응노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강좌

– 2020년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 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구성 교육 통한 마을 활성화

마을리더, '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 구성' 위한 역량강화 교육 강좌 마련

1.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장 1명(양주명 이장), 사무국장 1명(유성진 청년회장), 감사 1명(권재완 나무공방 소풍 소장), 추진위원 4명(김숙자 부녀회장, 이상일 신임총무, 방정일 전임총무, 신동학 동학이네 대표) 등 총 7명 / 자문 및 서기 1명(이섭), 마을신문 기록화 편집인 1명(전상진), 사무간사 1명(정지연) 등 총 3명 / 이응노의 집 문화시설팀장(공필재)과 학예연구사(신나라) 등 2명 총 5명 운영회의 참가

▶ 추진위원 7명(추진위원장 포함)은 공식적인 운영회의 구성원. 기타 5명은 원활한 운영회의를 위해 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가하며, 자문·서기와 간사 직책은 편의상 운영회의에서 명칭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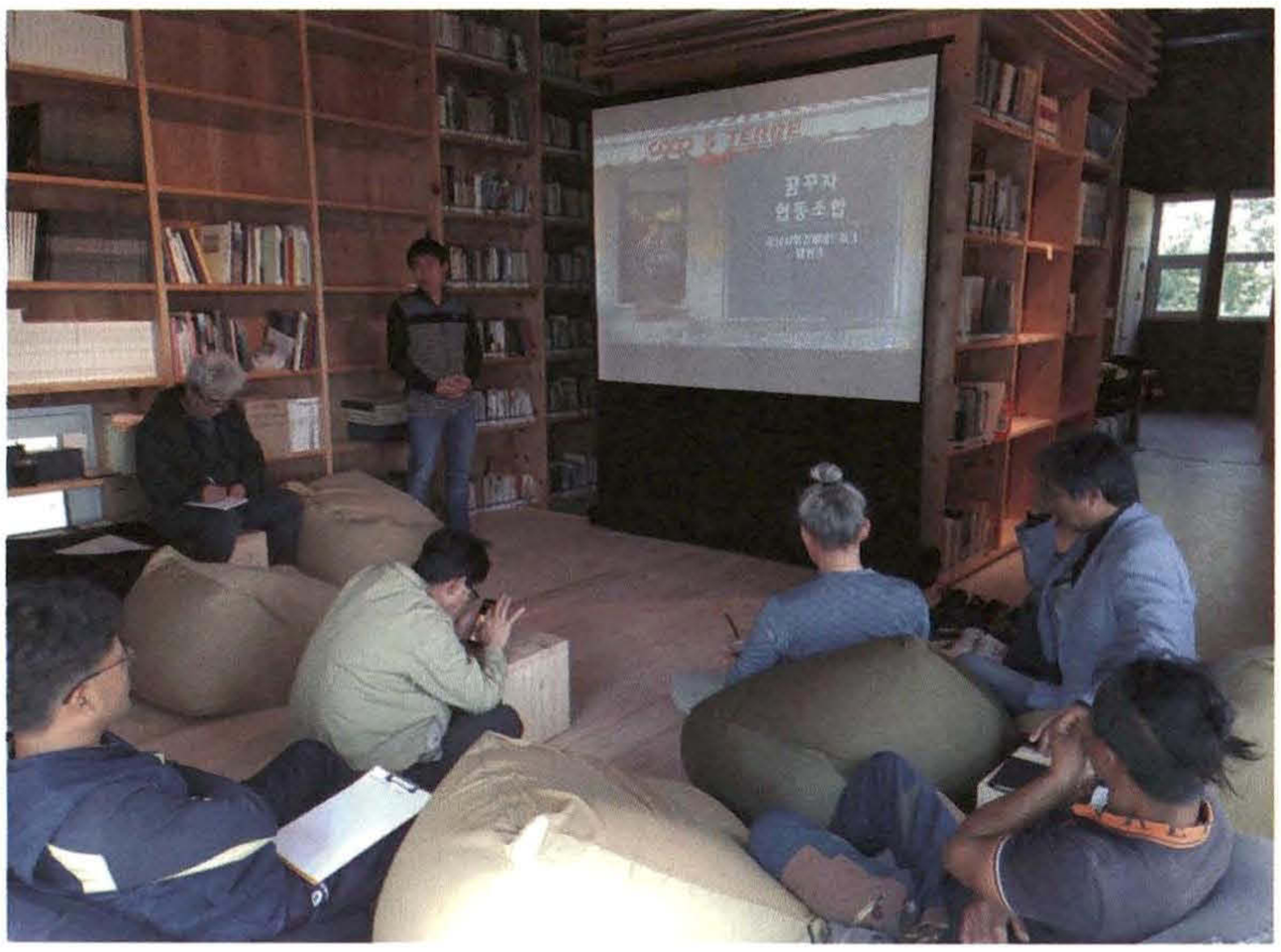
2.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주요사업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일환으로 2017~2020년 총 4년에 걸쳐 관련 사업을 추진 중.

▶ 주요사업으로는 공방교육프로그램, 마을 '문화예술잔치'와 이응노의 집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 전시 및 축제부분 참여, 마을 환경조성사업, 주민 생활편의시설 개선사업, 문화예술마을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교육(마을 리더 교육은 주민교육 중 하나)으로 구성됨

3.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가 희망하는 교육과 커리큘럼 (협동조합 결성 관련 교육)

▶ 이응노마을(행정구역상 공식명칭은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의 향후 발전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식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첫째, 문화예술마을로써 정체성을 만들고, 이를 마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공방교육프로그램'의 협동조합 활동과 사업 관련 지속성에 대하여). 둘째, 이응노의 집에 자리한 연지蓮池에서 얻을 수 있는 연잎을 활용해서 연잎차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협동조합에서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 이에 따른 협동조합 교육과 커리큘럼은? 협동조합 결성이 마을에 끼치는 좋은 영향, 협동조합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예술체험마을' 가능성과 국내사례, 협동조합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기본 입장(자세), 실무적인 내용으로써 협동조합 결성을 위한 절차와 준비, 협동조합 결성 이후 지속적인 교육 필요성과 가능한 기관의 연계 등

-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2020년 6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2020년 8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 장소 : 이응노의 집 예술문화자료실
- 강사 : 함원종(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연구원)



양주명 이장 (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 구성 위한 제언)

2015년부터 이응노의 집에서 주도한 마을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8년부터 마을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사업을 홍성군(이응노의 집)과 추진위가 5대 5 비율로 나눠 자발적 사업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협동조합 관련 교육은 준비와 강사 섭외 등 추진위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의 필요성은 2017년 일본 선진지 연수 후 마을단위 협동조합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추진위원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어떤 사업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마을단위사업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우리 마을은 원주민이 70%, 이주민이 3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다행인 것은 주민들 60%의 연령대가 50대 이하라는 점이다. 마을중심의 소득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협동조합 결성 준비 교육을 추진위원 중심으로 이수하고자 한다.

마을주민 모두에게 고지하고 참가를 독려했으나, 출퇴근하는 분들 그리고 농번기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반주민들은 많지 않다. 여전히 교육 과정의 문을 열어 언제라도 일반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하겠다.

오늘 귀한 시간내어 교육에 참여하는 추진위원들은 열심히 듣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염두에 두고 활발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 강사로 모신 함원종 씨에게 감사하고, 좋은 교육장 환경을 제공해 준 홍성군과 이응노의 집에도 감사의 말씀 전한다.

함원종 강사 (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 구성 위한 다양한 방안 강의)

강의에 앞서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성격을 말씀드려야겠다. 협동조합이란 경제활동을 하는 다양한 집단 중 하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제활동은 기업형태이든 협동조합의 형태이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몇 가지 공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점은 바로 이 공통적인 입장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하는 가하는 부분이다.

경제활동 중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부분이 바로 고정비용을 낮추는 방식이다.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을 요구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고정비용으로 인건비를 낮추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구성원 전체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때로 협동조합은 인건비 부분이 비록 고정비용일지라도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 인건비를 보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기업과 차별을 가지게 된다.

협동조합에는 구성원 간 사용자 입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분명 있지만, 기업에서처럼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수익구조를 협동조합에서는 생활의 고통을 함께 치유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조합결성의 기본 목표를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구성

원 간의 협동정신이 요구된다. 물론 조합의 활동에 따라 일에 참여하는 '이용실적'이라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용실적'이라는 개념은 조합원 가운데 수익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입장에서 일에 참여하고 있거나, 노동의 강도가 직접적인 사람의 활동을 지시한다. 따라서 '이용실적'에 따르는 인건비는 정당한 지급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만 조합 전체의 이익부분의 배분이 별도의 규칙에 따라 정해지고, 회계방식에 의해 분배이익을 평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협동조합을 근간으로 사회적 기업(사회적 경제개념으로 이해된 조직)으로 진일보된 조직형태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출발은 결국 협동조합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조합의 핵심가치는 수익을 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평등'한 관계를 구성원 간에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수익배분의 정당성까지도 바로 이 '평등' 관계로부터 구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최종 목표를 이윤창출에 두지 않고 정당하고 평등한 이윤의 배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수익을 배분할 때 조합은 첫째 사람-노동, 둘째 조직의 운영, 셋째 조직의 지속성 순서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이용실적'에 따른 사람-노동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가 월급형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의 운영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고 이후 수익모델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의 지속성에 대한 비용을 처리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분'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은 일반 기업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에서 '협동'은 평등의 관계를 실천하는 방식이다. 우선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협동관계를 갖추기 위해 준비기간 및 실행단계에서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평등의 원칙에서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인간 사이 신뢰관계를 밑바탕으로 삼아야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에서는 경제활동의 의미가 언제나 문화 활동의 의미보다 우선될 수 없다. 하지만 대개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 해서 조합 결성 후 해체되는 원인이 경제활동 중심의 생각을 미처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다. 문화 활동이란 구성원간의 생활에서 인간관계 우선의 대화와 소통이다.

협동하는 태도는 지향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조합 활동에서 경제 원리를 구성원들은 꼭 지켜야한다. 조합의 경제 원리는 첫째 우리 조합이 마을단위, 공동체(구성원 간)의 공유될 수 있는 목적에 부합된 경제활동인가 물어보는 것이다. 둘째 조합 활동은 마을공동체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합은 구성원들의 공유경제 개념을 잘 운영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조합운영이 민주적 절차를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투명한 절차를 공개하고, 구성원들은 도덕적으로 상호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등한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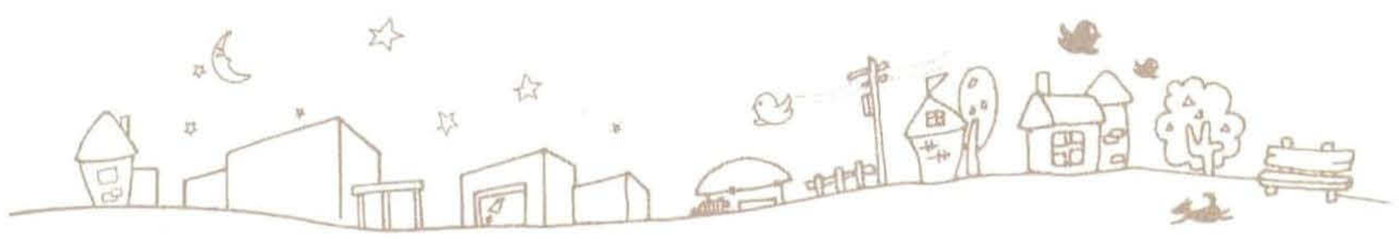
협동조합은 세 가지 지원형태를 통해 민관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데, 첫째가 사회적 기업의 형식이고 둘째가 마을기업 형식이며, 셋째가 자활기업형식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모든 형식의 근간은 협동조합이며, 조합은 '국제협동조합(ICA)'의 정의와 기본법을 충실히 따르는 정관을 통해 조합성격이 규정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법인으로서 성격을 가지는데, 이 법인으로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협동조합은 자립-목적, 원가형 사업-조합의 성격, 의무출자-조합의 자본, 조직의 개방성을 기본으로 하는 가입조건, 이용실적에 따르는 배당을 지켜야 한다.

협동조합의 장점(강점)은 실행 단위에서 첫째 품질과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의 가격 결정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둘째 규모의 경제라는 일반 기업논리에 맞서 조합 구성원들이 규모를 작게, 적은 량의 생산을 결정하고도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조합의 생산내용이 독창적이어야 하고, 아니면 조합의 만족으로 규모경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노동과 배분에서 소외가능성이 기업보다 적거나 아예 거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배당과 이용실적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다음의 내용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구성원들이 숙지하지 못할 경우 조직 자체가 약점으로 작동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주의할 점을 정리하자면, 첫째 무엇을 하려고 조합이 필요한지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한다. 둘째 공통된 과제를 동의하고, 이후 공통의 과제를 함께 성취하기 위한 방법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준비할 내용을 회의체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일치된 내용을 실행하도록 한다. 넷째 빈번한 의결행위를 해야 하기에, 회의구성원과 구성방식, 회의체 운영을 매주-매월-매년 단위로 시행해야 한다. 이때 조합별 구성원들의 동의한 내용에 따라 "이용실적"을 규정 또는 규약으로 명시해야 한다.

신협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주 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 결성 후 지역신협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합은 4대 보험을 실질적인 업무를 분담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구성원 간에 평등관계가 매우 중요한 조합의 문화이기에 이에 대한 규약을 꼼꼼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Ⅴ. 이응노마을 주민생활예술교육 및 공방교육프로그램 운영

1. 2018~2019년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2. 2020~2021년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1. 2018~2019년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응노마을 다양한 공방 갖춰져 공방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마련

2018년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운영 힘입어 '마을 문화예술잔치' 체험교육 및 전시판매 진행

이응노마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사업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첫 해인 2018년 올해는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매우 힘들었다.

마을 곳곳에는 '별의별' 작은 도서관과 도예·창작공방, 나무공방 소풍, 백월산도예 등 마을공방이 구축되었다. 이에 2018년 8월 사업이 시작되면서, 공방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남도, 홍성군의 예산집행 결정이 늦어지면서 11월 마을 '문화예술잔치'부터 사업예산을 집행하였다.

다행히도 올해 8월 홍성행복교육지구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운영에 따라 마을공방 7개 교육프로그램도 자연스레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었다. 마을과 학교(용봉초등학교)가 연계해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마을학교는 마을공방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에 발맞춰 마을에서는 11월 마을잔치에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을 십분 활용하였다. 마을공방 7개 교육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 마을주민과 외지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교육과 전시판매를 통해 마을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19년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 상·하반기 정상운영, 예술마을 조성 알리는데 큰 효과 거둬

2019년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도 정상 운영하였다. 3월 4일(월) 가죽공예 강좌를 시작으로,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였다. 마을공방 활성화에 따라 마을의 예술마을 조성에도 큰 효과를 거두는데 도움을 되었다.

교육프로그램 강좌는 모집대상은 마을주민과 용봉산권역(상하리·중계리) 주민, 홍성군민(내포신도시 주민 포함) 전체 순으로, 모집인원은 각 강좌별 10명 내외이다. 성인 남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3~5월 3개월 간 15회 차로 진행하였다.

교육프로그램 강좌는 목공 강사인 권재완 나무공방 소장이 프로그램 매니저로 활동했으며, 도자기, 토탈공예, 전통민화, 천연염색, 목공, 현대서예와 캘리그라피, 가죽공예 등 7개의 강좌로 짜여졌다.

도자기는 기존 백월산도예를 운영한 김종석 강사가 맡아, '청·백자토 활용해 흙판에 빚어 도자벽화, 생활도자기 등 만들기' 강좌를 진행했으며, 초벌·재벌굽기 과정은 강사가 직접 진행하였다.

토탈공예는 마을주민인 신정원 강사가 참여하였다. '비즈, 퀼트, 천연향초, 천연비누, 냅킨공예 등 배우기' 강좌를 진행했으며, 전통민화도 역시 마을주민인 오희숙 강사가 참여해 '전통민화 기법을 알고 민화 소품 만들기' 강좌를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하였다.





천연염색은 기존 '별의별' 창작공방에 입주한 임민숙 강사가 맡아, '천연염색 기법 배우고 스카프, 앞치마, 쿠션 등 만들기' 강좌를 진행하였다.

목공은 기존 나무공방 소풍을 운영하는 권재완 강사가 맡아, '원형스톨, 전통창호 등 목공제품 만들기' 강좌를 진행하였다.

현대서예와 캘리그라피는 기존 별의별 창작공방에 입주한 박혜선 강사가 맡아, '캘리그리피를 배우고 소품·작품에 활용하기' 강좌를 진행했으며, 가죽공예 역시 기존 별의별 창작공방에 입주한 채정옥 강사가 맡아, '가죽을 이용해 지갑, 필통, 핸드백 등 만들기' 강좌를 진행하였다.

하반기는 7월 29일(월) 목공 강좌를 시작으로,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7~9월 3개월 간 7개의 강좌를 운영했으며, 모집대상과 인원, 강좌 기간과 내용도 동일하다.

한편 마을공방에서는 마을 힐링 반상회(1차 마을 1일, 2차 마을 15일)에 맞춰 '찾아가는 공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상·하반기 내내 마을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캘리그라피, 토탈공예(향초·비누), 가죽공예, 목공, 도자기, 전통민화, 천연염색 강좌를 2회씩 진행하였다.

특히,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은 11월 2일(토) 마을 '문화예술잔치'에서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성과발표회와 공동으로 체험교육과 전시판매 부스를 설치, 마을주민과 가족단위 외지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 2020~2021년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 '코로나19' 발생 확산 따라 최소화 해 운영

2020년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 '코로나19'로 주춤, 추진위 결정 따라 방역 우선해 운영

2020년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이 1월 중순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추세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되었다.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진행하는 마을사업도 선진지 견학, 협동조합 교육, 운영회의 등을 비롯한 전체 일정을 축소, 또는 잠정보류, 취소한 가운데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추진위는 교육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코로나19 대응 전담자를 배치,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권고안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손 씻기·교육장소 소독 등) 준수에 따라 (다소 연기했지만)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은 5월 28일(목) 가죽공예 강좌를 시작으로,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였다.

교육프로그램 강좌는 모집대상은 마을주민과 용봉산권역(상하리·중계리) 주민, 홍성군민(내포신도시 주민 포함) 전체 순으로, 모집인원은 각 강좌별 10명 내외이다. 성인 남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5~6월 2개월 간 13회 차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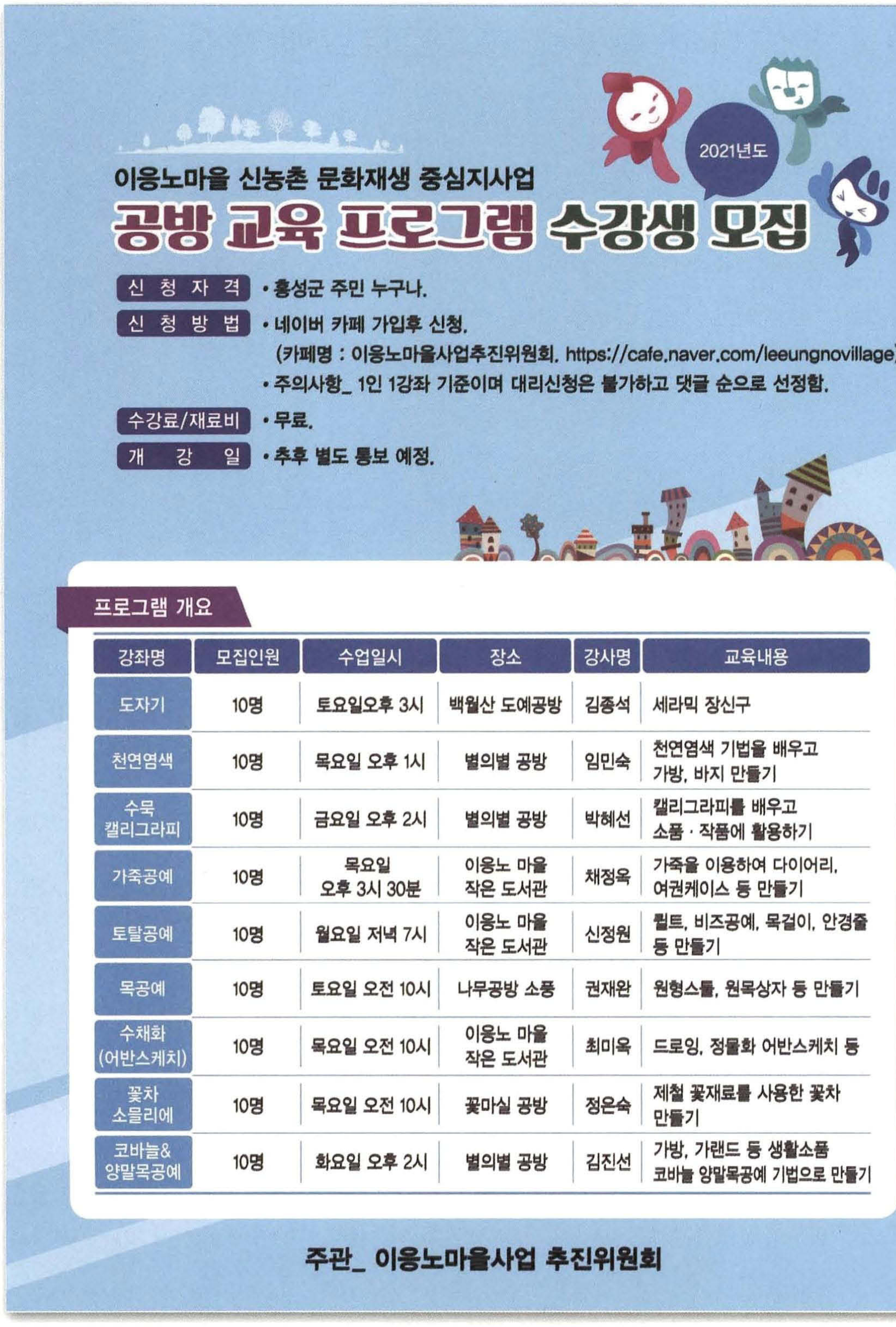
교육프로그램 강좌는 목공 강사인 권재완 나무공방 소장이 프로그램 매니저로 활동했으며, 도자기, 토탈공예, 전통민화, 천연염색, 목공, 현대서예와 캘리그라피, 가죽공예 등 기존 7개의 강좌로 짜여졌다.

여기에 올해 새롭게 2개의 강좌를 개설해 강사를 희망한 마을주민 정은숙·최미옥 강사가 합류, 총 9개의 강좌로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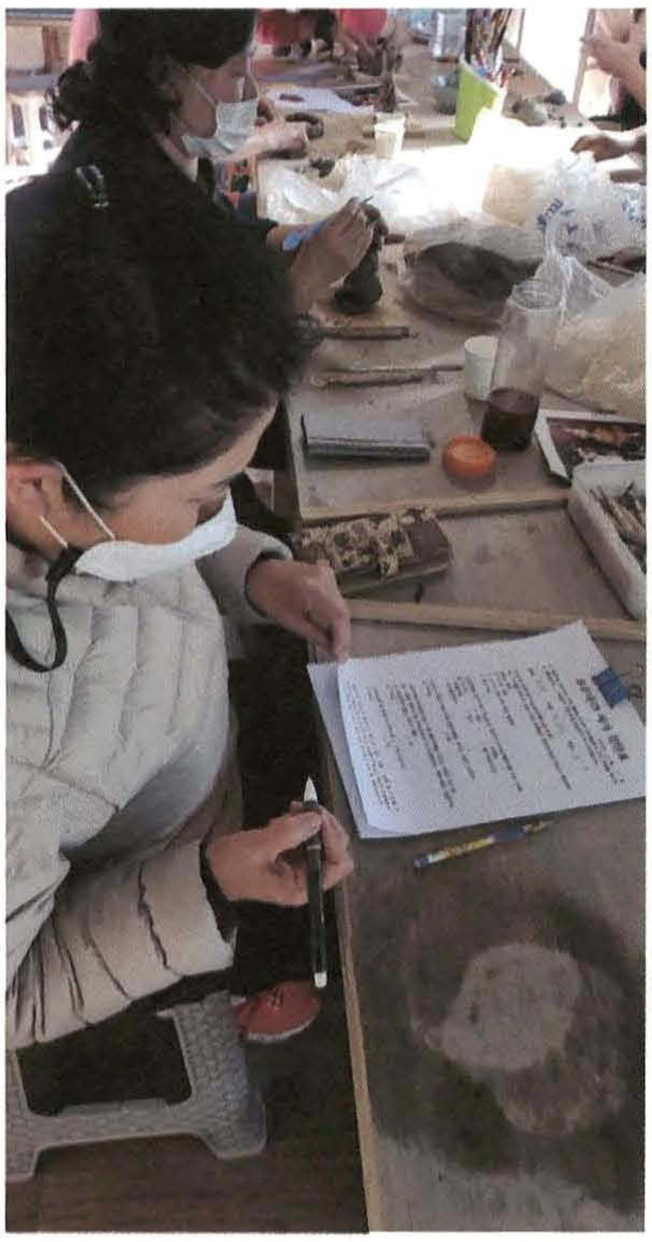
도자기는 기존 백월산도예를 운영한 김종석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청·백자토 활용해 흙판에 빚어 도자벽화, 생활도자기 등 만들기' 강좌를 진행했으며, 초벌·재벌굽기 과정은 강사가 직접 진행하였다.

토탈공예는 마을주민인 신정원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비즈, 퀼트, 천연향초, 천연비누, 냅킨공예 등 배우기' 강좌를 진행했으며, 전통민화도 역시 마을주민인 오희숙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전통민화 기법을 알고 민화 소품 만들기' 강좌를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하였다.

천연염색은 기존 '별의별' 창작공방에 입주한 임민숙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천연염색 기법 배우고 스카프, 앞치마, 쿠션 등 만들기' 강좌를 진행하였다.



강좌명	모집인원	수업일시	장소	강사명	교육내용
도자기	10명	토요일오후 3시	백월산 도예공방	김종석	세라믹 장신구
천연염색	10명	목요일 오후 1시	별의별 공방	임민숙	천연염색 기법을 배우고 가방, 바지 만들기
수묵 캘리그라피	10명	금요일 오후 2시	별의별 공방	박혜선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소품 · 작품에 활용하기
가죽공예	10명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이응노 마을 작은 도서관	채정옥	가죽을 이용하여 다이어리, 여권케이스 등 만들기
토탈공예	10명	월요일 저녁 7시	이응노 마을 작은 도서관	신정원	퀼트, 비즈공예, 목걸이, 안경줄 등 만들기
목공예	10명	토요일 오전 10시	나무공방 소풍	권재완	원형스툴, 원목상자 등 만들기
수채화 (어반스케치)	10명	목요일 오전 10시	이응노 마을 작은 도서관	최미옥	드로잉, 정물화 어반스케치 등
꽃차 소믈리에	10명	목요일 오전 10시	꽃마실 공방	정은숙	제철 꽃재료를 사용한 꽃차 만들기
코바늘& 양말목공예	10명	화요일 오후 2시	별의별 공방	김진선	가방, 가랜드 등 생활소품 코바늘 양말목공예 기법으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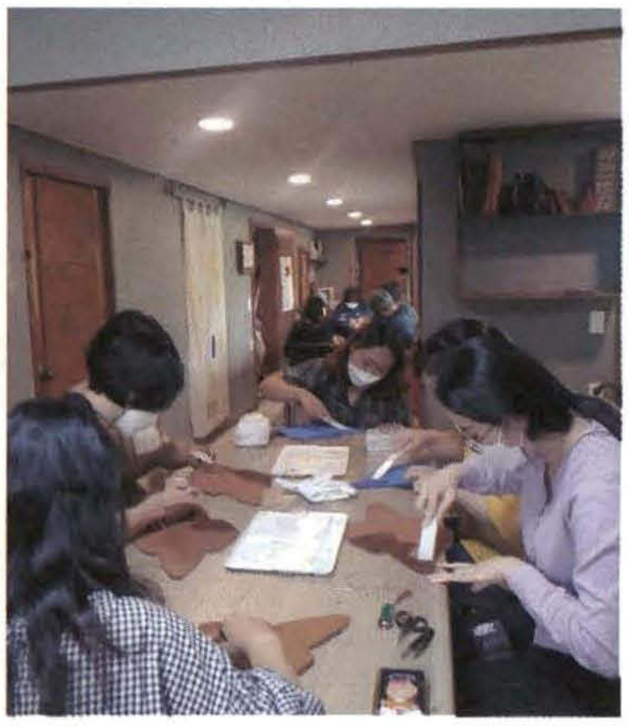



전통민
수채화인









목공은 기존 나무공방 소풍을 운영하는 권재완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원형스톨, 전통창호 등 목공제품 만들기' 강좌를 진행하였다.

현대서예와 캘리그라피는 기존 별의별 창작공방에 입주한 박혜선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캘리그리피를 배우고 소품·작품에 활용하기' 강좌를 진행했으며, 가죽공예 역시 기존 별의별 창작공방에 입주한 채정옥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가죽을 이용해 지갑, 필통, 핸드백 등 만들기' 강좌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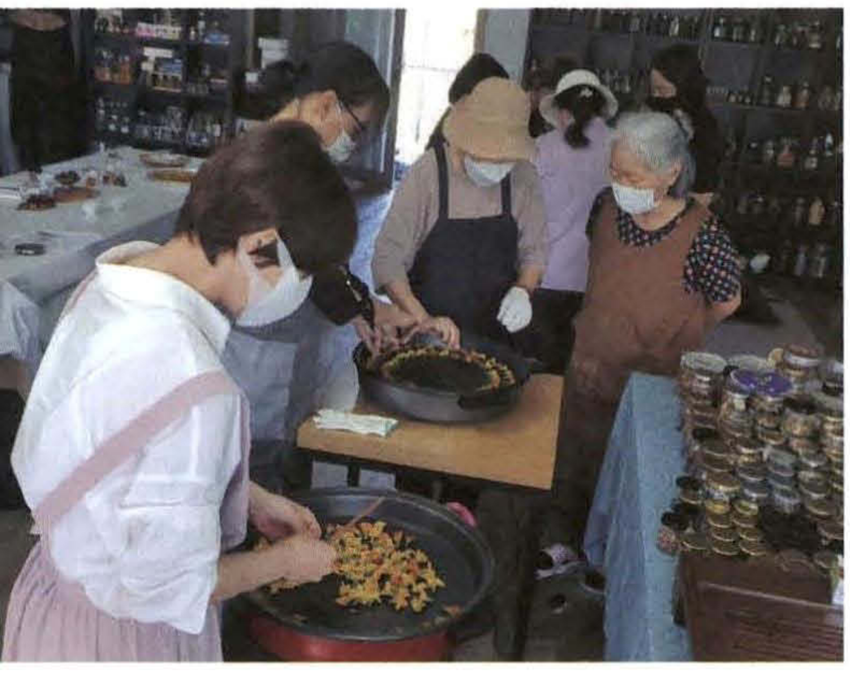
새로 개설한 꽃차 소믈리에는 기존 꽃마실공방을 운영한 정은숙 강사가 참여해 '제철 꽃 재료를 사용한 꽃차 만들기' 강좌를 진행했으며, 수채화-어반스케치는 지역 활동 화가인 최미옥 강사가 참여해 '드로잉, 정물화 어반스케치' 강좌를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하였다.

하반기는 9월 29일(화) 전통민화 강좌를 시작으로,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하반기에는 다시 새롭게 1개 강좌가 개설해 강사를 희망한 '별의별' 창작공방 김진선 강사가 합류, 총 10개의 강좌로 운영하였다.

새로 개설한 코바늘과 양말목공예는 기존 '별의별' 창작공방에 입주한 김진선 강사가 참여해 '가방, 가랜드 등 생활소품 코바늘과 양말목공예로 만들기' 강좌를 '별의별' 창작공방에서 진행하였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9~10월 2개월 간 13회 차로 운영했으며, 모집대상과 인원, 강좌 기간과 내용은 동일하다.

한편 마을공방에서는 마을 힐링 반상회(1차 마을 1일, 2차 마을 15일)에 맞춰 '찾아가는 공방교육프로그램'을 축소해 운영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아 아예 취소하였다.

또한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은 11월 초순께 열릴 예정이었던 마을 '문화예술잔치'가 취소되면서 마을 각 공방에서 전시만 진행하였다.







2021년 사업 1년 연장 따라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 1회 축소 운영 … '마을 잔치' 전시만 진행

2021년 이응노마을 사업이 1년 더 연장되어 마을공방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연 1회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그쳐야 하였다.

2021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추세 여파로 연기되어 8월 26일(목) 수채화-어반스케치 강좌를 시작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육프로그램 강좌는 모집대상은 마을주민과 용봉산권역(상하리·중계리) 주민, 홍성군민(내포신도시 주민 포함) 전체 순으로, 모집인원은 각 강좌별 10명 내외이다. 성인 남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8~10월 3개월 간 13회 차로 진행하였다.

교육프로그램 강좌는 목공 강사인 권재완 나무공방 소장이 프로그램 매니저로 활동했으며, 도자기, 토탈공예, 천연염색, 목공, 현대서예와 캘리그라피, 가죽공예, 꽃차 소믈리에, 수채화-어반스케치, 코바늘과 양말목공예 등 기존 10개의 교육프로그램 강좌로 짜여졌다. 하지만 전통민화 강좌를 맡은 오희숙 강사가 개인사정으로 빠지면서 9개의 강좌로 운영하였다.

도자기는 기존 백월산도예를 운영한 김종석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청·백자토 활용해 흙판에 빚어 도자벽화, 세라믹장신구, 생활도자기 등 만들기' 강좌를 진행했으며, 초벌·재벌굽기 과정은 강사가 직접 진행하였다.

토탈공예는 마을주민인 신정원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비즈, 퀼트, 목걸리, 안경줄 만들기' 강좌를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하였다.

천연염색은 기존 '별의별' 창작공방에 입주한 임민숙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천연염색 기법을 배우고 가방, 바지 만들기' 강좌를 진행하였다.

목공은 기존 나무공방 소풍을 운영하는 권재완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원형스톨, 전통창호 등 목공제품 만들기' 강좌를 진행하였다.

현대서예와 캘리그라피는 기존 별의별 창작공방에 입주한 박혜선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캘리그리피를 배우고 소품·작품에 활용하기' 강좌를 진행했으며, 가죽공예 역시 기존 별의별 창작공방에 입주한 채정옥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가죽을 이용해 다이어리, 여권케이스 등 만들기' 강좌를 진행하였다.

꽃차 소믈리에는 기존 꽃마실공방을 운영한 정은숙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제철 꽃 재료를 사용한 꽃차 만들기' 강좌를 진행했으며, 수채화 어반스케치는 지역 활동 화가인 최미옥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드로잉, 정물화 어반스케치' 강좌를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코바늘과 양말목공예는 기존 '별의별' 창작공방에 입주한 김진선 강사가 지난해에 이어 '가방, 가랜드 등 생활소품 코바늘과 양말목공예로 만들기' 강좌를 '별의별' 창작공방에서 진행하였다.









Ⅵ. 이응노마을 '별의별' 시설·공간 설치재생 및 활용방안

1. 2018~2021년 이응노마을 '별의별' 시설·공간 설치재생

2. 2018~2021년 이응노마을 '별의별' 상징조형물 설치조성

- 2019년 이응노마을 상징조형물·안내도·이정표 설치조성
- 2021년 이응노마을 '보 쉬르 센의 이응노' 공공미술 조성사업



1. 2018~2021년 이응노마을 '별의별' 시설 · 공간 설치재생

– 2018~2021년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일환
'별의별' 시설 · 공간 설치재생 및 활용방안

마을 '별의별' 시설·공간, 재생 통해 멋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2017~2020년(2021년) 마을사업 통해 예술마을 조성 앞서 나가, 마을의 변화와 발전 토대 구축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는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2017~2020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사업을 2018년 8월 이후부터 본격 추진해 예술마을 조성에 한 걸음 앞서 나갔으며, 마을의 변화와 발전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재생을 통해 멋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마을 사업은 이미 2015~2017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따라 마을복지회관 '신구회관' 리모델링에 착수, 舊회관을 '별의별' 공간 명칭을 붙여 탈바꿈시켰다.

2015년 '신구회관' 리모델링 결과로, 舊회관 1층은 도예작업에 필요한 가스·전기 혼합용 가마를 구입 설치해 도예공방으로 꾸몄으며, 주민 생활예술교육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았다. 2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마쳐, 마을의 역사와 일상을 보여주는 박물관과 인문예술을 함양할 수 있는 도서관 역할을 담당하였다. 회관 옆쪽으로 컨테이너를 설치, 마을공동비품 창고로 활용하고 있으며, 회관 화장실을 말끔히 정비하였다.

특히, 2층 작은 도서관은 리모델링 공사에 앞장서 봉사한 청운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류혜지 교수와 밸런스디자인팀의 열정에 힘입었으며, 작은 도서관 안 탁자와 의자·선반 등을 제작한 마을 목공수업 권재완 나무공방 소풍 소장과 수강생들의 노력으로 가능하였다. 그리고 마을 거버넌스 위원과 홍성지역 및 타 지역 주민·기관 사회단체의 도서기증(약 2,000여 권)에 따라 도서관 프로그램은 물론 마을회의, 세미나, 공방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어 2016년에는 마을 안 홍천교회 주변의 빈 집을 활용, '별의별' 창작공방으로 리모델링해 마을의 창작공간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창작공방 옆에는 컨테이너를 구입 설치해 마을신문사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창작공방 교육체험실로 활용되고 있다.)

창작공방(입주 작가는 임민숙, 박혜선, 채정옥, 김진선 작가 등) 조성에 따라 마을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나무공방 소풍 이외에도 홍천교회 아래쪽 또 다른 빈 집에는 백월산도예공방(김종석 작가)이 자리를 잡고 문을 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창작공방과 마을 입주를 희망한 작가 등 6명이 마을의 개인소유 토지를 구입, 개인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이미 조각가 부부와 추진위 이섭 자문 등이 창작공간을 조성, 마을에 둥지를 틀었다.





2018년 8월 이후 마을사업 시작, 마을복지회관 중심으로 공방 주변 시설·공간 문화재생 들어가

추진위에서는 2018년 8월 이후 마을사업 추진에 따라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추진위는 먼저, 마을공동창작시설(이하 공동창작공방)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사업초기부터 운영회의 등을 통해 자부담 마련방법과 필요성 등 구체적인 신축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밖에도 마을복지회관 '신구회관' 리모델링과 주변시설 교체 및 설치, 태양광보행등 설치 등 아트스페이스 조성을 비롯해 '별의별' 창작공방 주변 아스콘 포장과 그늘막 설치, 마을안내도와 이정표 설치, 이동식 텐트와 탁자·의자, 이동식 매대 제작 등 아트문화전시용품 구입과 제작, 둑방길 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 설치 등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 왔다.

2018년에는 마을사업 시행 첫 해로, 농림축산식품부·충청남도·홍성군의 사업 타당성 논의와 사업 예산집행이 늦어지면서, 마을사업 시행 추진도 그만큼 늦추어졌다.

2018년 11월께 사업 예산집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당장 필요한 사업으로, 창작공방 주변 아스콘 포장을 서둘렀다. 나무공방 소풍에서 창작공방까지 이르는 길과 주민 다수가 다니는 홍천교회 앞마당은 비포장 길로, 눈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땅도 패어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따라 마을 첫 사업으로 주변 아스콘 포장을 통해 마을 창작공방 주변 정비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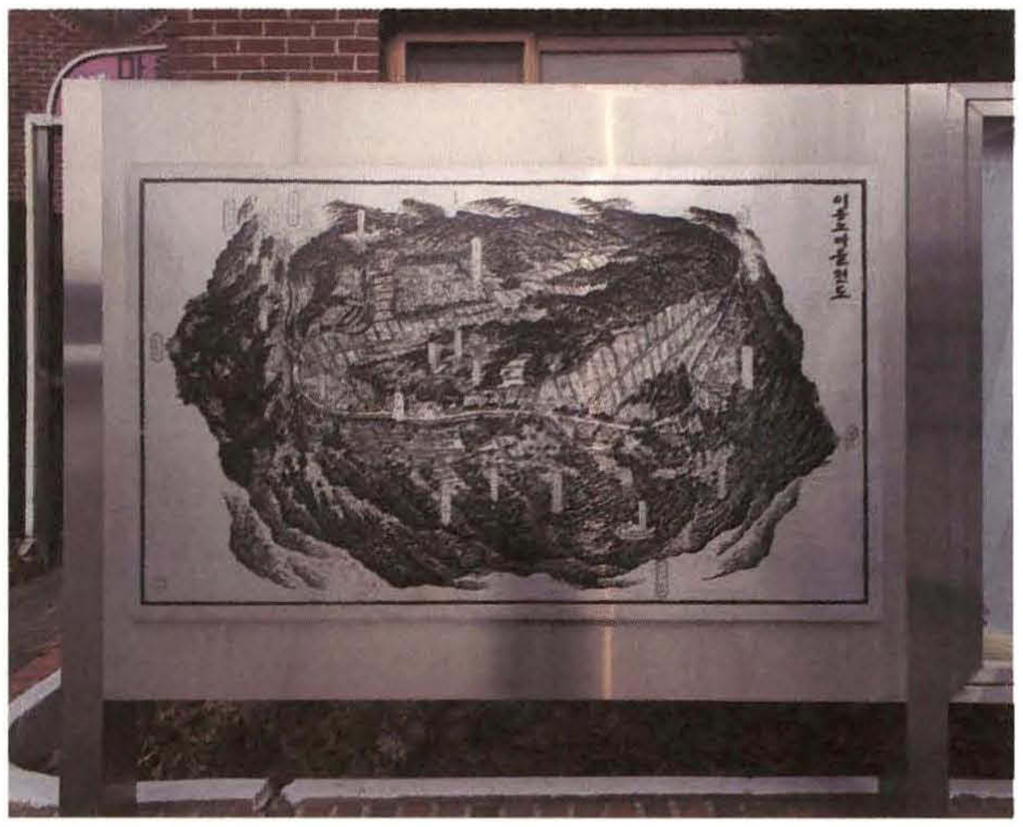







수채화/어반스케치
꽃차 소물리에
목 공 예
토 탈 공 예
한국화/가죽공예
수묵 캘리그라피
천 연 염 색






우리
성별학 입시다
이응노 은


홍성

이어 마을복지회관 앞마당 차양막이 낡고 오래되어 새 차양막으로 교체했고 안쪽의 작은 도서관 옆에는 현수막거치대를 설치했으며, '신구회관' 배수시설도 보수하였다.

그리고 마을공동비품 창고인 컨테이너를 회관 옆으로 이동 배치했으며, 컨테이너 옆면에는 '마을홍보 LED전광판'을 설치, 마을소개와 행사안내, 이응노의 집 전시공연행사 안내, 차량 서행유도 등을 LED전광판을 통해 알리고 있다.

또한 마을 '문화예술잔치'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이동식 텐트와 야외천막, 탁자·의자 등을 구입해 컨테이너에 보관, 관리하고 있다.

2019년 시설·공간 문화재생 가장 활발하게 추진 … 마을상징조형물 설치조성, 경관 보행등 중점 둬

추진위에서는 2019년에 들어서자마자 마을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 마을복지회관 주변과 홍천문화 1,2차 마을, 이응노의 집 주변에 이르기까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을상징조형물 전체 설치조성을 위한 추진위 논의는 2018년 11월 시작했으며, 이섭 추진위 자문의 작가 추천을 통해 6팀(개인 및 단체 작가 총 9명)을 선정하였다. 상징조형물은 노재석, 이원용, 오완석·박영선, 조형그룹 청산철학원(김동현·이의석·허누리) 작가와 안내도는 김억 작가, 이정표와 아트가드레일는 김영수 작가 등이 맡아 제작, 설치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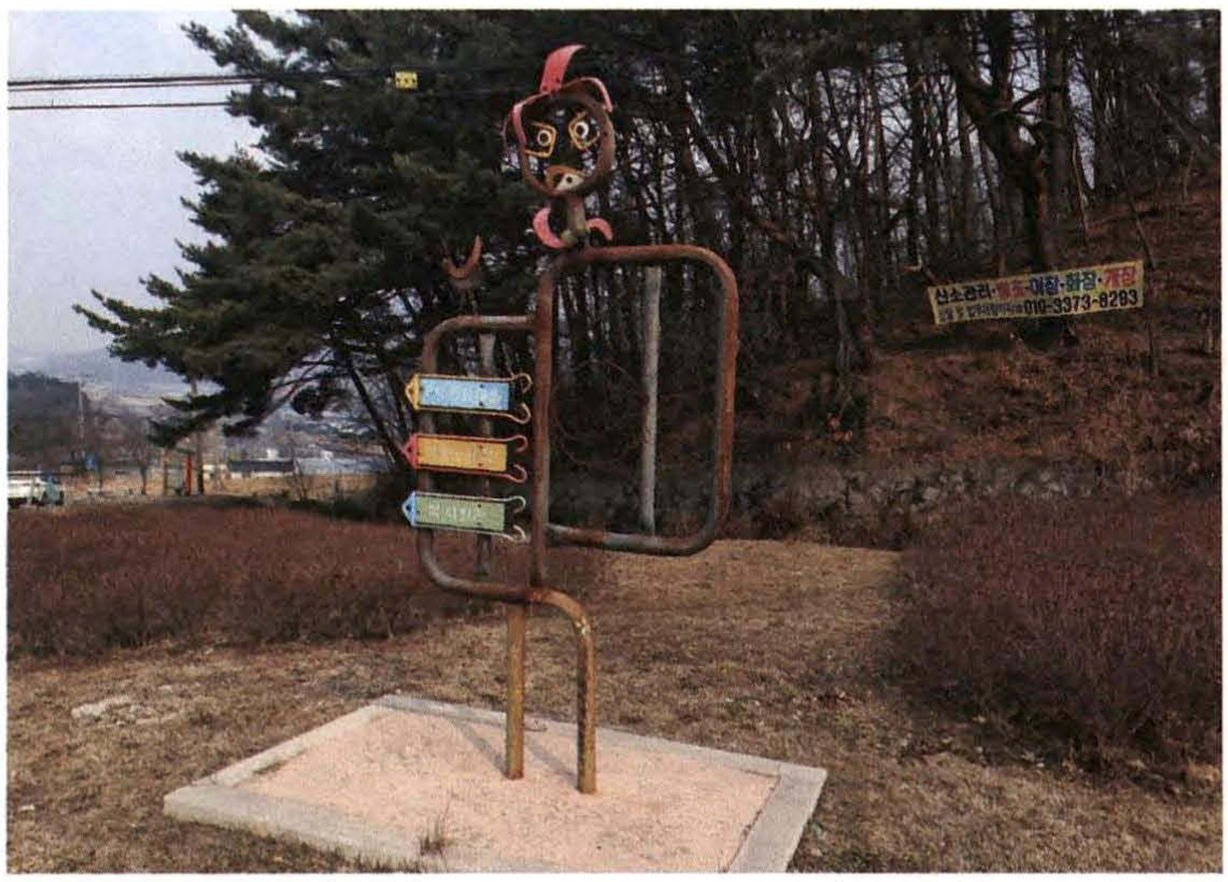




이에 따라 추진위에서는 1월 12일(토) 추천작가 초청 워크숍에서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작품주제 결정, 제작 설치 일정 및 협조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마을복지회관과 홍천문화 1, 2차 마을 주변, 이응노의 집 주변 등 설치장소 확정에 따라 3월 말 작품제작 완료 후, 5월 15일 마을상징조형물 전체를 마을 안에 설치 완료하였다.

먼저, 상징조형물은 1차 마을 입구(노재석 작가)와 주변 솔밭(조형그룹 청산철학원), 2차 마을 입구(오완석·박영선 작가)와 마을 진입 삼거리(이원용 작가) 등 4곳에 4월 20일 설치 완료했고, 마을안내도는 마을복지회관과 1,2차 마을 게시판(김억 작가) 등 3곳에 5월 15일 최종 설치 완료하였다.

마을이정표는 1차 마을서 이응노의 집으로 꺾인 진입도로 옆, 이응노의 집, 마을복지회관 '舊회관'과 버스정류장, 백월산도예 입구 버스정류장, 2차 마을 진입 삼거리(김영수 작가) 등 6곳에 4월 30일 최종 설치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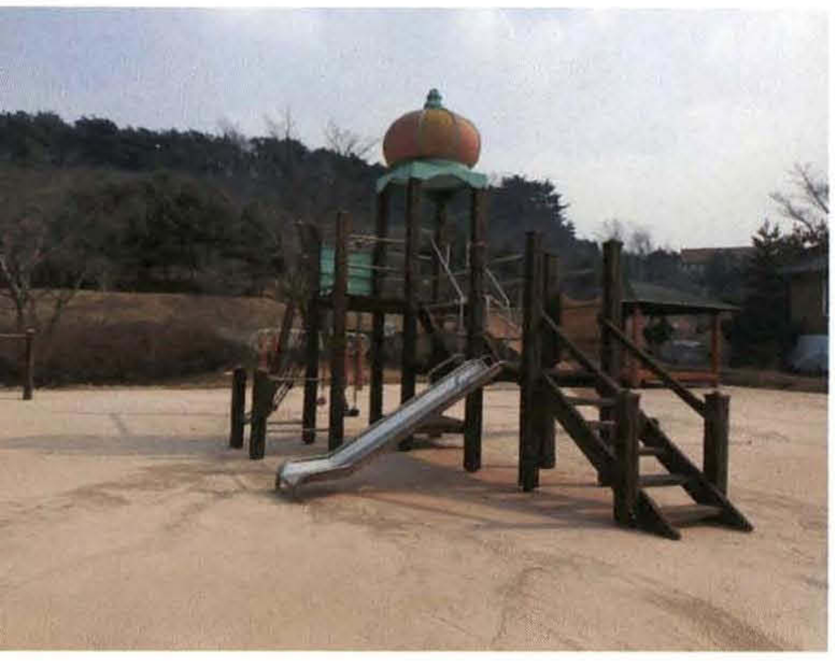
추진위에서는 마을아트가드레일의 경우 기존 가드레일이 부러지거나 녹슬러 주민과 작가 협업을 통해 조형미 있는 아트작품으로 제작하려 했으나, 농번기와 더위 등으로 주민 참여가 힘들다고 판단, 김영수 작가에게 일임해 7월 4일 최종 설치 완료하였다.

마을상징조형물 전체 설치조성 과정 속에서 추진위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이정표 제작설치를 담당한 김영수 작가가 마을을 상대로 분탕질(?)을 쳐 이정표와 아트가드레일 관련 제작설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

(마을상징조형물 설치 조성 관련 구체적인 설명은 '2) 이응노마을 '별의별' 상징조형물 설치조성'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또한 추진위에서는 1차 마을 옹벽 조형물 설치와 이동식 매대 주민 직접제작 및 외주업체 구입 관련 논의를 했으나, 김영수 작가 분탕질 이후 작가 제작의뢰에 대한 회의감과 주민들의 참여 어려움, 자체제작 여건 미흡 등으로 포기하였다. 그 대신 마을공동 창작공방과 정자 신축, 1, 2차 마을 놀이터와 운동기구 정비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상징조형물은 후속작업으로 도색과 기단부 조성, 작자·작품명판 제작과 야간조명 설치 등을 10월 중순 설치 완료하였다.







이밖에 마을 아트스페이스 조성에 따른 태양광보행등은 마을과 이응노의 집을 연결하는 연밭(이응노의 집 연지蓮池) 주위에 3월 31일 설치 완료했으며, 마을게시판은 마을복지회관과 1,2차 마을노인회관 등에 10월 14일 설치 완료하였다. 그리고 재활용분리수거대도 마을복지회관과 1,2차 마을,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등에 설치 완료하였다.

추진위에서는 공동창작공방 신축과 관련 '마을사업을 통해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신축 시 설치장소와 자부담(20%) 준비', '신축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 마을 시설·공간 문화재생 지속 …
마을복지회관 '별의별 갤러리' 탄생

추진위에서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마을사업 일부의 경우 축소 또는 취소했고, 사업일정도 연기하였다.

하지만 추진위는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가운데 2019년 추진하지 못한 1차 마을 옹벽 조형물 설치조성과 마을신문 미발행에 따른 사업예산을 사용에 대한 논의 후 '마을환경정비 사업' 전환을 결정하였다.

마을환경정비 사업은 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과 마을정자 신축, 홍천문화 1,2차 마을 놀이터와 운동기구 정비

등으로, 新회관 리모델링은 1,2층 시스템냉난방 설치와 舊회관 2층 '별의별' 작은 도서관 배관공사·냉난방 보수공사 등을 5월 말에 완료했으며, 新회관 1층 마을어르신 무더위쉼터를 개조, '별의별 갤러리'로 리모델링해 8월 말 공사를 모두 마쳤다.

이에 11월 초 열릴 예정인 마을 문화예술잔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11월 초 문을 연 '별의별 갤러리'에서 마을 문화예술잔치를 대신해 상·하반기 공방교육프로그램 운영 결과물을 전시하였다.

또한 마을정자는 팔각정자형으로, 홍천교회와 마을공방이 밀집되어 있는 나무공방 소풍 옆 빈 터에 11월 20일 신축, 주변 정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교회를 찾는 주민과 공방수업 수강생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마을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밖에 2차 마을 놀이터와 운동기구를 5월 7일 정비 완료했으며, 1차 마을 놀이터 포장공사는 11월 20일 완료하였다. 그리고 7,8월 상징조형물 주변 잡초를 정리했으며, 마을 월산공작소를 통해 반사경 10개를 구입, 마을 곳곳에 설치 완료하였다.

추진위에서는 공동창작공방 신축, 둑방길 공원 조성에 따른 평상과 의자를 주민 직접제작으로 설치 조성하는 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2021년, 1년 사업연장 따라 공동창작공방 신축 … '별의별 갤러리' 협업 전시 '익명의 개척사' 운영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을사업 추진 어려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1년 사업연장 방침에 따라 추진위는 마을사업 가운데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다.

2020년 12월 공사에 들어간 마을공동창작공방은 2021년 2월 신축했으며, 마을복지회관과 홍천문화 1,2차 마을 곳곳에 CCTV을 설치, 보안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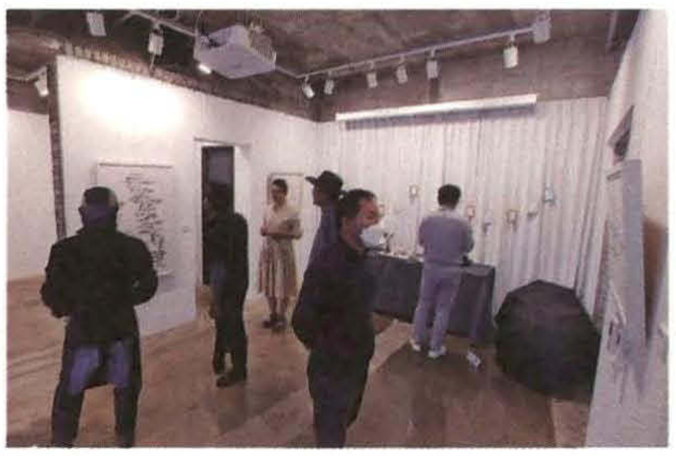
공동창작공방은 2차 마을 노인회관 옆에 창고형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한 1층 건물(바닥평수 약 40평/132㎡)로 2월 9일 신축 완료하였다. 자부담 20%가 투입된 공동창작공방은 마을 공동자산으로 운영하며, 창작·전시공간, 창고, 화장실 등으로 구성해 추후 공동창작공방 일부는 마을 농·특산물과 공예품 판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11월 문을 연 '별의별 갤러리'는 2021년 9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마을과 이응노의 집 협업을 통해 '익명의 개척사'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참여 작가는 최윤희, 김나영·함다은, 모은미, 예술창고 오롯(김정숙·박혜선·신현미·이안·채정옥)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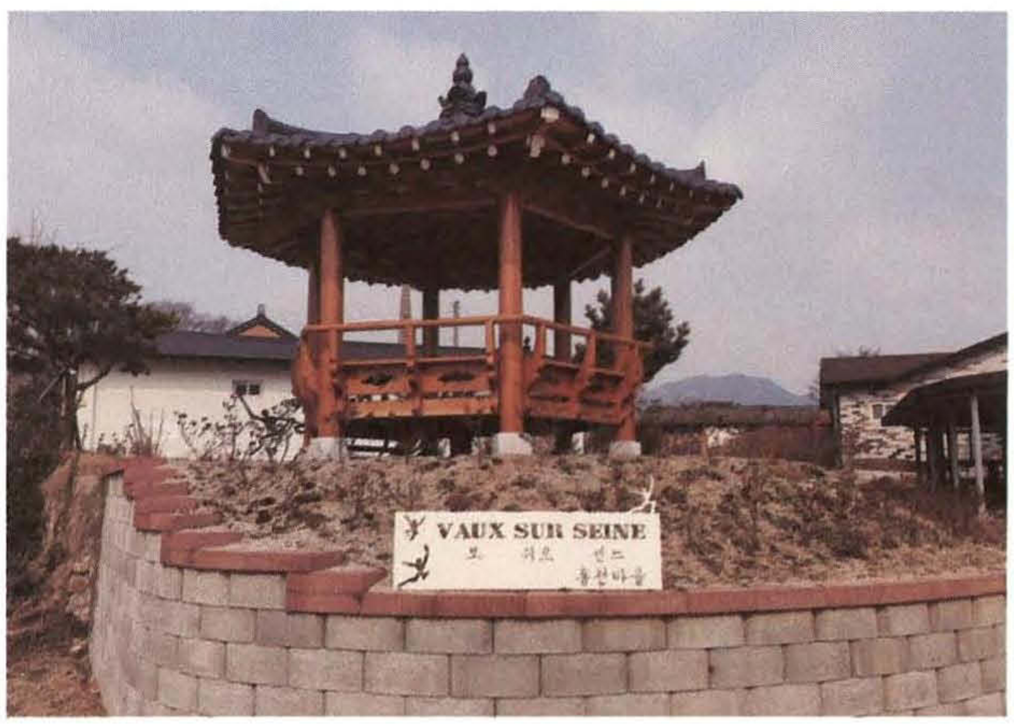
추진위에서는 2018~2021년 마을사업 가운데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사업을 대부분 완료했지만,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뒤편 대나무 숲 조성과 '마을~이응노의 집~창작스튜디오'를 연결하는 둑방길 공원 조성 추진은 불발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2. 2018~2021년 이응노마을 '별의별' 상징조형물 설치조성

– 2018~2021년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일환 '별의별' 시설 · 공간 설치재생 및 활용방안

• 2019년 이응노마을 상징조형물·안내도·이정표 설치조성

마을상징조형물 설치, 예술마을 조성 통해 '지역특화브랜드 마을'로 우뚝 서

마을상징조형물 설치 위해 추천작가 6팀(9명) 선정, 4월 말까지 제작설치 완료 후 후속작업 진행해 '홍천 기러기와 샘', '고암 이응노 화백', '용봉산과 월산' 주제로 상징조형물 설치, 안내도·이정표 제작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는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2017~2020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사업을 2018년 8월 이후부터 본격 추진해 예술마을 조성에 한 걸음 앞서 나갔으며, 마을의 변화와 발전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 가운데 지역경관개선을 위한 마을상징조형물 설치는 2018년 11월부터 추진위 운영회의를 통해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마을상징조형물 설치는 곧 이응노마을의 예술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특화 브랜드 마을'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대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을상징조형물 작가 추천은 이섭 추진위 자문이 6팀을 선정하였다. 상징조형물은 노재석, 이원용, 오완석·박영선, 조형그룹 청산철학원(김동현·이의석·허누리) 작가와 안내도는 김억 작가, 이정표와 아트가드레일은 김영수 작가 등이 맡아 제작, 설치 조성하였다.

추진위원과 작가 간 워크숍 … '천인동구天人同構', 작품주제와 제작설치 기간, 협조사항 등 의견 나눠

마을상징조형물 전체 설치 조성은 2019년 1월 12일(토)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세미나실에서 열린 작가 초청 워크숍에서, 추진위와 추천작가 간 협의를 통해 작품주제와 제작설치 일정 및 협조사항 등을 결정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천인동구天人同構(동양미학 개념으로, 하늘과 사람이 같다는 뜻. 따라서 이응노마을 주민들이 세계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만나보자'는 주제로 열려, 작가들의 작품 주제발표와 제작설치 및 협조사항과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작가들은 이응노의 집 생가와 기념관, 한옥·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홍천문화 1,2차 마을 등을 돌며 작품 창작구성 및 설치장소 등을 살펴보았다.

이날 양주명 추진위원장은 "이응노마을 상징조형물은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세계가 투영되고, 마을의 정체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모쪼록 여기 모인 작가 모두가 이응노마을의 정서와 예술마을의 상징성을 잘 살려 좋은 작품을 만들어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을 통해 작가들의 작품주제는 홍천(이응노)마을의 상징인 기러기와 샘,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작품 변형,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용봉산과 월산 등으로 결정했으며, 작가들은 수시로 추진위와 소통 속에서 오는 3월 말까지 작품제작, 4월 말까지 마을복지회관과 1,2차 마을 등 마을곳곳에 마을상징조형물 전체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상징조형물·안내도·이정표·아트가드레일 … 마을복지회관과 1,2차 마을, 이응노의 집 주변 설치 완료

이에 마을상징조형물 전체 설치장소가 확정됨에 따라 3월 말 작품제작 후 4월 말 상징조형물과 이정표, 5월 중순 안내도, 7월 초 아트가드레일 등 마을상징조형물 전체를 마을곳곳에 설치 완료하였다.

상징조형물은 1차 마을 입구(노재석 작가 제작설치, 작품명 '뿌리 깊은 나무')와 주변 솔밭(조형그룹 청산철학원 제작설치, 작품명 '승승장구') 2곳, 2차 마을 입구(오완석·박영선 작가 제작설치, 작품명 '사람, 함께 날다')와 마을 진입 삼거리(이원용 작가 제작설치, 작품명 '꽃과 함께 날다') 2곳 등 상징조형물 전체는 4월 20일 설치 완료하였다. 안내도는 마을복지회관과 1,2차 마을 게시판(김억 작가) 등에 5월 15일 설치 완료하였다.

이정표는 1차 마을서 이응노의 집 방향으로 꺾인 진입도로 옆, 이응노의 집 잔디밭, 마을복지회관 '舊회관'과 버스정류장, 백월산도예 입구 버스정류장, 2차 마을 진입 삼거리 등 6곳에 4월 30일 설치 완료하였다.

추진위에서는 마을아트가드레일의 경우 기존 가드레일이 부러지거나 녹슬러 주민과 작가 협업을 통해 조형미 있는 아트작품으로 제작하려 했으나, 농번기와 더위 등으로 주민 참여가 힘들다고 판단, 김영수 작가에게 일임해 7월 4일 최종 설치 완료하였다.




뿌리 깊은 나무
2019.
노 재 석






승승장승(乘勝長丞)
2019.




사람. 날아 오르다.
2019.




꿈과 함께 날다.
20
이 억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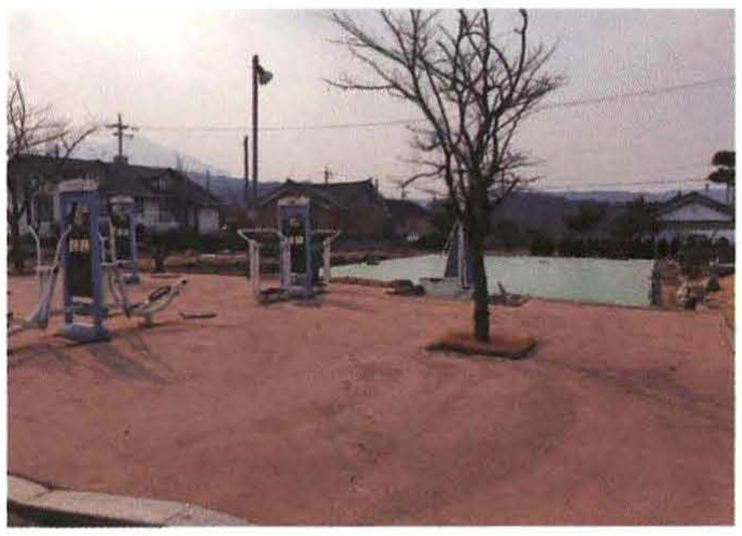


1차 마을 옹벽 조형물 설치 대신 마을정자와 공동창작공방, 1,2차 마을 놀이터 정비 중점 두기로

마을상징조형물 전체 설치조성 과정 속에서 추진위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이정표 제작설치를 담당한 김영수 작가가 마을을 상대로 분탕질(?)을 쳐 이정표와 아트가드레일 관련 제작설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추진위에서는 1차 마을 옹벽 조형물 설치와 이동식 매대 주민 직접제작 및 외주업체 구입 관련 논의를 했으나, 김영수 작가 분탕질 이후 작가 제작의뢰에 대한 회의감과 주민들의 참여 어려움, 자체제작 여건 미흡 등으로 포기하였다. 그 대신 공동창작공방과 정자 신축, 1,2차 마을 놀이터와 운동기구 정비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상징조형물은 후속작업으로 도색과 기단부 조성, 작자·작품명판 제작과 야간조명 설치 등을 10월 중순 설치 완료하였다.









• 2021년 이응노마을 공공미술 조성사업 '보 쉬르 센의 이응노' 시설·공간 재생

이응노마을 창작공방 주변, '보 쉬르 센의 이응노' 새기다

마을 '공공미술 조성사업', 고암 이응노 화백 제2의 예술 터 형상화한 설치와 벽화 새겨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홍성역사인물축제 주제 선정 따라 '이응노' 콘텐츠 개발해

이응노마을 '별의별' 공방 주변에 고암 이응노 화백의 제2의 예술 터이자 거주지인 프랑스 파리 '보 쉬르 센(Vaux-sur-Seine)'을 형상화한 설치와 벽화 '보 쉬르 센의 이응노'가 새겨졌다.

'보 쉬르 센의 이응노'는 마을 공공미술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의 의뢰에 따라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보 쉬르 센의 이응노'는 마을복지회관 구 회관 외벽에 프랑스 마을 건물(갤러리 창 볼레)을 표현하기 위해 목공덧창과 그물철망(메쉬망) 실사, 내후성강판(코르텐강)으로 타이틀 작품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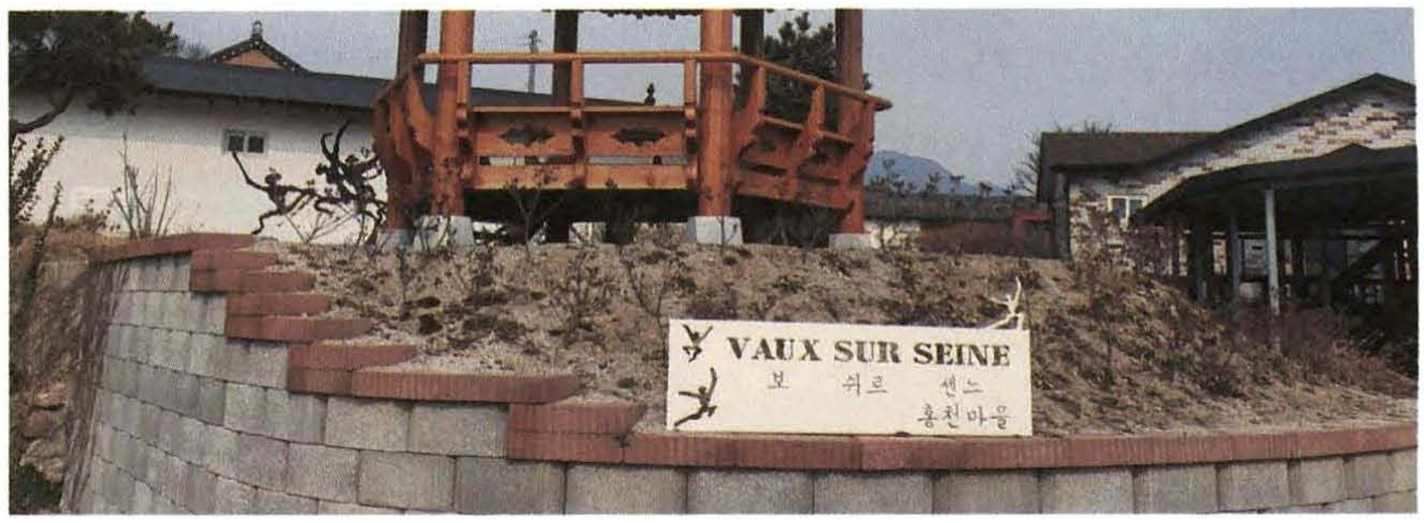
그리고 나무공방 소풍 옆 신축 마을정자 하단에는 '보 쉬르 센' 타이틀 작품을 설치하고, 뒤쪽 일반가옥 벽면과 창작공방 벽면에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대표작 '군상群像'과 '문자추상文字抽象' 벽화작품을 그려 새겼다.

이번 사업 추진에는 청운대학교 김서룡 공연기획경영학과 교수가 책임연구·기획을 맡았으며, 임창주 연극예술학과 교수가 공동연구·작가로, 무대예술학과 김미조, 김성령, 민주화, 염다은, 임명원, 진경환 씨 등이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마을 공공미술 조성사업은 2021 홍성역사인물축제 주제인물인 '고암 이응노'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이응노의 집 주변 문화예술 거점인 '이응노마을'을 중심으로 문화벨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이 참여, 공공미술을 통한 콘텐츠 개발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되었다.

한편 이번 사업 추진을 의뢰한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은 앞으로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작품세계를 공공미술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연구개발을 통해 국제적인 전시와 공연, 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응노의 집 중심의 문화예술 마스터플랜을 마련, 고암 이응노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주제로 해 이응노마을로 확장하고 홍성 문화도시의 거점공간으로 브랜드화 할 예정이다.


VAUX SUR SEINE
보 쉬르 센느
홍천마을


ATELIER DE LEE UNG-NO





2017-2021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 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이응노마을 문화재생 '별의별' 이야기

Ⅷ. 이응노마을 주민과 마을 이야기

1. 이응노마을 이야기

1) 편집인의 이응노마을 이야기

2) 여러 매체의 이응노마을 이야기

2. 이응노마을 행사, 그리고 일상

1) 2018~2019년 이응노마을 행사, 그리고 일상

2) 2020~2021년 이응노마을 행사, 그리고 일상



1. 이응노마을 이야기

1) 편집인의 이응노마을 이야기

• 〈마을독본〉 (창간호 통권 3호)
희노애락 마을활동가의 경험담

마을살이 속 특별한 일상
– '이응노마을' 3년 간의 기록과 마을에서의 특별한 일상

이응노마을, '이응노의 집과 연계한 예술마을, 더 나아가 생태마을 조성' 목표로 출발

아마도 4년 전 즈음이다. '이응노마을'이라는 다소 생소한 명칭의 마을 일을 시작한 것이 인연이 되어 이젠 마을 일이 나의 일처럼 되어버렸으니까. 10여 년간 몸담아온 지역신문사 기자 일을 접고 고민과 선택 속에서 주저주저하는 순간 불현 듯 마을 일이 내게로 왔다.

홍성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하는 친구와 이응노마을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훨씬 전부터 함께 마을조성에 대한 고민을 공유해 왔다.

"마을 일을 하고 싶은데… 이응노의 집과 연계한 예술마을, 더 나아가 생태마을을 만드는 일이 꿈"이라는 친구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겼다. '고암예술마을 조성 연구사업'을 시작하면서, 친구와 나는 그 꿈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바삐 움직였다.

'고암예술마을 조성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꿈은 현실이 되었다. 이응노의 집을 구성하고 있는 행정인력과 홍성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마을주민들로 구성한 '거버넌스'에서 모든 마을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이 '이응노마을'이라는 브랜드가치를 나타내는 명칭을 얻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3년간의 이응노마을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이응노마을 주민들과 이 글을 쓴 전상진 사무장(양구 박수근미술관 견학 모습)

이응노마을, 홍천마을 브랜드가치이자 '이응노 태어나 자란 고향마을'이라는 가치지향성 지녀

'이응노마을'은 홍천마을의 브랜드가치이다. 이응노가 태어나 자란 '고향마을'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예술마을'이라는 지향성을 대내외에 표방하는 보다 근원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응노마을'의 가치지향성은 홍천마을에서 찾을 수 있다. 고암 이응노의 고향마을인 홍천마을에 2005년 홍성군위생매립장(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면서, 홍천문화 1,2차 마을로 나눠져 마을공동체 문화가 훼손된 채 마을의 정체성마저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2011년 11월 이응노의 집이 개관하면서, 홍천마을도 새로운 마을공동체와 예술가치 확산에 대한 잠재력 및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관 이후, 양주명 이장과 방정일 총무, 김숙자 부녀회장를 비롯한 주민들과 이응노의 집 윤후영 학예연구사와 공필재 팀장, 이기선 교육담당 등 행정담당자, 모영선·주남수·노보성·김두홍·전상진 등 지역예술분야 전문가 등이 '이응노의 집과 연계한 홍천마을'의 예술가치화를 끊임없이 논의해 왔다.

그 결과, 홍천마을은 이응노의 집과 연계한 예술가치 프로그램 개발을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조성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휴休+학學+유游+습習' 개념으로 예술마을 인프라 구축

'이응노마을'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13년 10월, '고암예술마을 조성사업'이라는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시작하였다.

고암예술마을 조성사업은 한국미술계의 거장인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인 이응노의 집을 중심으로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주변 마을인 홍천마을 일원을 문화예술 복합공간화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홍성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였다.

이어 홍천마을의 '고암예술마을' 조성 시 홍성군에서 토지를 매입 후 개발 분양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참여 속에 생활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 2차적으로 예술가들이 주민화하는 과정을 거쳐 예술과 농업, 예술의 농촌생활화 형태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롤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휴休+학學+유游+습習'의 개념 아래, 소요逍遙방식의 레저공간과 프로그램 제공, 농촌생활 체험프로그램 제공, 홍성인물 탐방루트 개발 등 주변 문화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 제공, 공동 창작공간을 이용한 놀이와 체험 제공 등이 제안되었다. 또 이응노의 집과 이응노마을복지회관 新舊회관 및 빈집 등을 활용해 건축·디자인 관련 창작스튜디오를 지원하고 숙박시설, 전시장, 북카페 등을 조성해 예술마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응노마을, 쓰레기매립장 설치 따른 공동체 훼손 … 주민 적극 참여하는 '자립형 예술마을' 조성

2014년 10월, '고암예술마을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1년간 2억 원씩 3년간 총 사업비 6억 원이 투입되었고, '고암예술마을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민관 협력으로, 이응노의 집과 홍천마을, 지역예술가 등 14명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위원회'를 구축, 16차례의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3년간 추진되는 고암예술마을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응노마을 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회의 모습

특히,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그동안 홍천마을이 홍성군위생매립장(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라 마을의 공동화 및 공동체 문화훼손 등이 심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예술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정서 공유로 문화정체 해소, 공동체 의식 함양을 고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응노의 집과 연계한 다양한 예술가치 창출 및 마을문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내포신도시 배후의 자립형 예술마을로 육성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응노마을, 2015~17년 3년 간 '힐링 반상회, 주민생활예술교육, 선진지 견학 등' 주민참여 주력




이응노마을 주민참여 생활예술교육 모습 (목공수업과 가죽공예수업)

'이응노마을'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된 후 3년여 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 주민 역량강화에 집중된 조성사업은 먼저, 마을 반상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힐링 반상회(1차 마을 매달 첫째 주 월요일과 2차 마을 매달 15일)'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힐링 반상회를 통하여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생활예술 활동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주민 모두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갔다.

'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강좌, '우리 동네 사진사' 강좌, '산야초, 달지 않은 명품효소' 강좌, '도예-내가 만든 밥그릇' 강좌, '가죽·유리공예' 강좌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에 대한 소중한 감각을 일깨웠다. 그리고 주민 리더와 주민들의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마을의 예술화와 공동 소득창출 등을 고민하며, 마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였다.





이응노마을 주민과 마을 리더들의 선진지 견학

이응노마을, 예술마을 토대인 '별의별' 공간 재생과 마을 사업·일상 담은 '마을신문·다큐영상' 제작

또한 3년여 간의 이응노마을 사업성과를 담은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시리즈'와 주민리더와 주민들의 인터뷰 다큐멘터리 책자, 마을신문(1~31호), 마을 다큐멘터리 영상, 주민 캐리커처 명함 등의 제작으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홍천마을(이응노마을)복지회관 구 회관 1층은 '도자기공방', 2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건물재생을 통해 사업의 거점을 만드는 데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도자기공방은 가스 가마, 도자기틀, 도자기 흙 등을 구비, 제작여건을 갖췄고, 컨테이너형 마을신문사 설치와 내포창조관광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창작공방을 개소하였다. 이에 따라 마을 안의 예술마을화 주요거점에 대한 명칭을 '별의별' 공간으로 통일하였다.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 '도서기증' 이어져 … 매해 주민화합과 사업성과 모아 '문화예술잔치' 열어

작은 도서관은 거버넌스 운영위원이 중심이 되어 도서기증이 줄을 이어졌으며, 2000여 권이 넘는 도서로 채워졌다. 거버넌스 운영위원 외에도 홍성과 내포신도시, 타 지역의 많은 이들이 도서기증에 참여해 작은 도서

관 설립에 의미를 더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종합한 흥겨운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가 매해 11월 초순에 펼쳐졌다.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 이응노의 집 개관일에 맞춰 매해 11월초 열린다.

특히,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기원하는 상징물 〈종치는 사람〉이 이응노마을(홍천마을)복지회관 신 회관 옥상 위에 설치되었으며, 마을의 리더를 형상화한 〈종치는 사람〉은 주민 모두의 배려와 격려 속에 이응노마을 사업의 또 다른 시작과 변화, 발전을 핑크빛 열애 속에 꿈꿀 수 있게 형상화 하였다.

이응노마을은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마을로 선정되면서 마을활동가를 통해 현장밀착형으로 주민자치 교육과 컨설팅, 선진지 견학, 모니터링 및 종합자문 등 마을컨설팅이 진행되었다. 특히 시범공동체 마을 컨설팅 결과 마을의 '고암풍물회'가 조직되었으며, 마을의 특색 있는 '문패만들기' 사업도 추진되었다.

이응노마을, 시군창의 '신농촌문화재생중심'사업 선정 … 예술마을 토대 위 마을공동소득 창출 필요

2016년 5월 이응노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군창의사업 '신농촌 문화재생 중심(Centre)'사업에 선정되었고, 2017년 1년여 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들의 연구용역이 진행되어 2018년부터 3년간 예술마을 바탕 위에 마을 공동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의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응노마을은 올해 시군창의사업 '신농촌 문화재생 중심'사업 추진을 앞두고 급변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 단순한 주민 생활예술화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인문학 전문자 등이 정주할 수 있는 공간구축 필요와 마을 협동조합·마을기업·주식회사 등 주민 공동 소득창출 방안 모색 등 변화를 꾀해야 하는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응노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 본격 추진에 들어가야 한다. 이 또한 2015년부터 3년



이응노마을 회관에 설치된 상징조형물 '종치는 사람'

간 추진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는 다른 결을 지니고 있다. 예술마을의 토대 위에 마을 공동소득 창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앞으로 이응노마을은 올해 시군창의사업 '신농촌 문화재생 중심'사업 추진에 앞서 현재의 거버넌스 운영위원회 확장을 통한 예술마을화와 소득창출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주요 거점의 보강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마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거점시설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자생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마을 공동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응노마을, 3년 간 기록 담은 '마을신문' 버틸 수 있는 원동력 … "이젠 마을의 희망 찾는 일 시작"

이응노마을에서 3년간 버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마을신문'이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10여 년 지역신문 기자생활이 마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마을자원을 기록화 하는 일, 나에게 주어진 마을에서의 책무였다. 제대로 수행했나, 는 차후에 따져볼 일이고, 친구와의 약속은 지킨 것 같아 제법 안심이다.

다시 마을자원을 기록화 하는 일을 맡았다. 이젠 단순히 기록하는 일을 넘어서 그 깊이를 짐작해야 한다. 다시 3년간 나에게 책무가 주어졌다. '잘해 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조심스레 돌다리를 건너는 심정이다. 마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책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언제나 두려움은 내 뒷목을 부여잡는다.

더 확장한 마을과의 조우遭遇! 이제 이응노마을을 넘어서 용봉산 돌바위마을에서의 하루하루가 날 더 두렵게 한다. 그러나 이내 생각을 바꾼다.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딪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될 일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말이다. 다소 느리다고 무어라 할 사람들은 있을 수 있으나, 언젠가는 두고 보라지, 반드시 마을의 희망적인 변화는 시작될 거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 출처 : 〈마을독본〉(창간호 통권 3호), 전상진 (2018. 04. 01), 충청남도·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수록 글

전상진 (홍성군 용봉산권역 돌바위마을 사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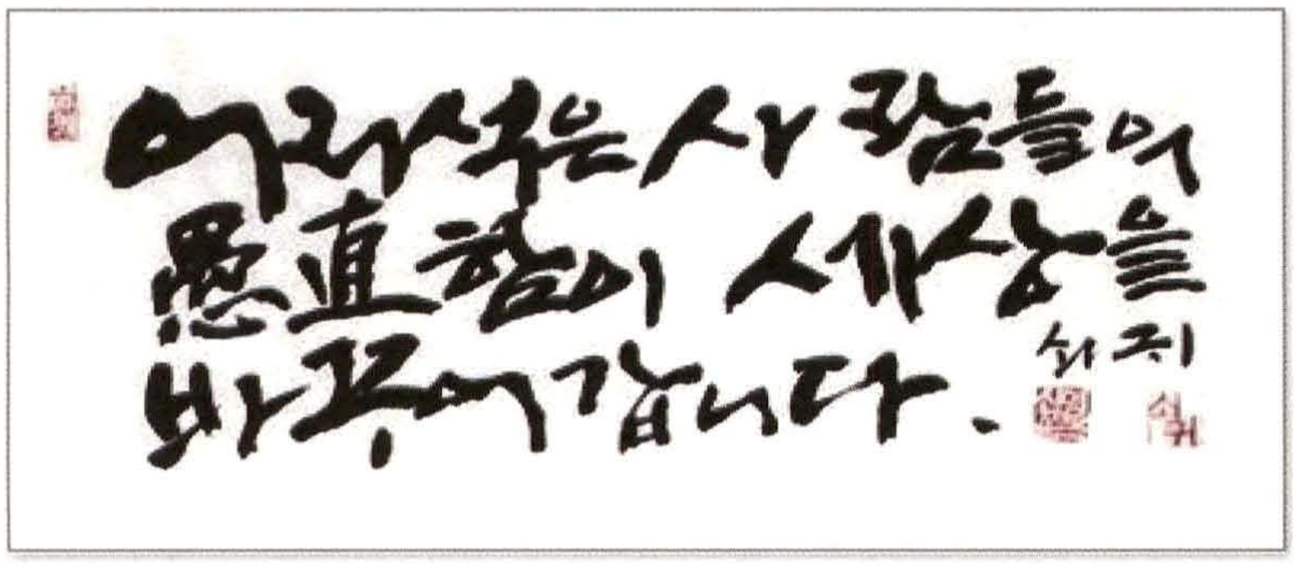
전상진 사무장은 지역신문 기자로 재직하던 중 이응노마을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마을 일에 뛰어들었다. 이응노마을에서 '마을신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 이응노마을 이야기

2) 여러 매체의 이응노마을 이야기

• 〈열린 충남〉 (2018 봄호)
충남마을기행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으로 조금씩 세상을 바꿔가는 이응노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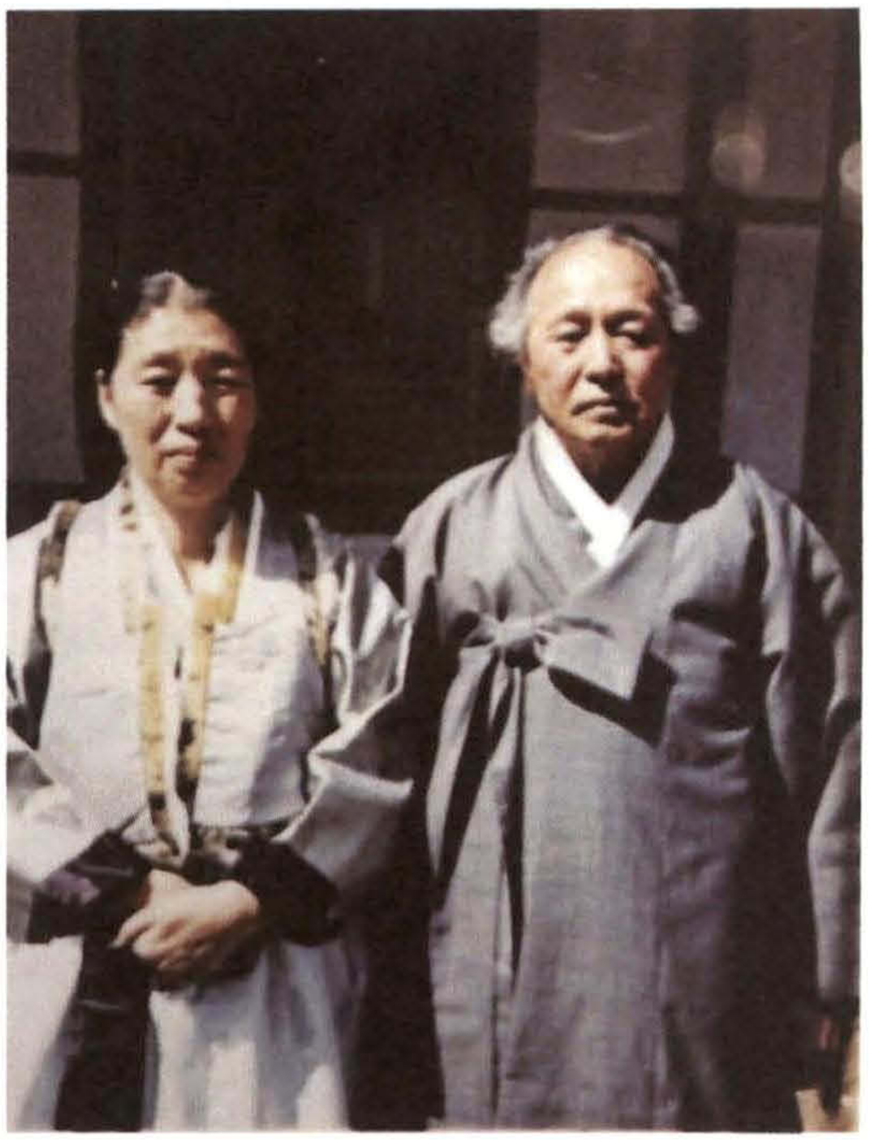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 갑니다.' 故 신영복 선생의 『나무야 나무야』 (돌베개, 1996) '이응노마을'의 뚝심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다.

마을을 위해 냄새만 풍기는 것이 아닌 삶을 썩혀 밑거름이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응노마을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응노의 집 윤후영 주무관과 마을신문의 편집장이기도 한 전상진 사무장.



무심한 듯 자리에 앉은 그들에게 '이응노마을'에 대해 묻자 두 사람은 금세 열정 가득한 기획자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2011년,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가 있던 자리에 건물이 복원되고 그 옆에 미술관이 생겼다. 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을 세우기 위해 원주민들을 이주시켰고 즐비한 폐가들 사이어 덩그러니 세워진 미술관.



고암 이응노 화백과 박귀희 여사

그 미술관 학예사로 일하게 된 윤후영 주무관에게 마을의 첫 인상은 매우 의미심장했다고 한다. 윤 주무관은 미술관이 마을과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고암 부부의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마을 노부부의 사진을 찍고 그들의 생활용품을 미술관에 전시하기로 하였다.

그 전시회는 '홍천마을 기념관'이라는 이름의 마을 행사가 되었고, 마을주민이 미술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마을주민을 단순히 객석에 앉은 손님이 아닌 주체로 세우고, 그렇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주민들과 신뢰를 쌓은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그는 민民·관官·예藝가 함께하는 마을을 기획하기 시작하였다. 갑작스런 강요와 금전적 지원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예술마을이 되면 참 좋은데…" 라며, 사람들 스스로 문화예술마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던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고, 그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그저 머릿속에만 있던 그림에 이론을 입혀 논리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마을신문. 연극전공의 지역신문 기자였던 전상진 사무장은 본래부터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지역의 문화예술기관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 윤 주무관이 처음 미술관에 왔을 때 했던 인터뷰를 인연으로 그는 마을지도를 함께 그리게 되었다. 그렇게 마을소식지이자 언어가 될 마을신문을 위해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이응노마을의 편집장(?)이 되었고, 현재의 용봉산권역 사무장까지 맡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예술에 차츰 젖어들게 만들며 관이 지원하지만 민이 주도하는 구도를 다져나갔다.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 '힐링 반상회', '문화예술잔치'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민의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 도예, 목공예, 가죽공예 등 생활예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밖에도 마을 해설사 양성, 도서관 활용 등 주민을 주도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과 예술마을이라는 성격에 맞게 입주 작가 활동으로 지역의 새로운 문화자원을 축적해 공공 예술을 지향하는 '창작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소득을 위해 연잎 가공 사업과 더불어 주민 공동소득 창출 기반인 마을합동조합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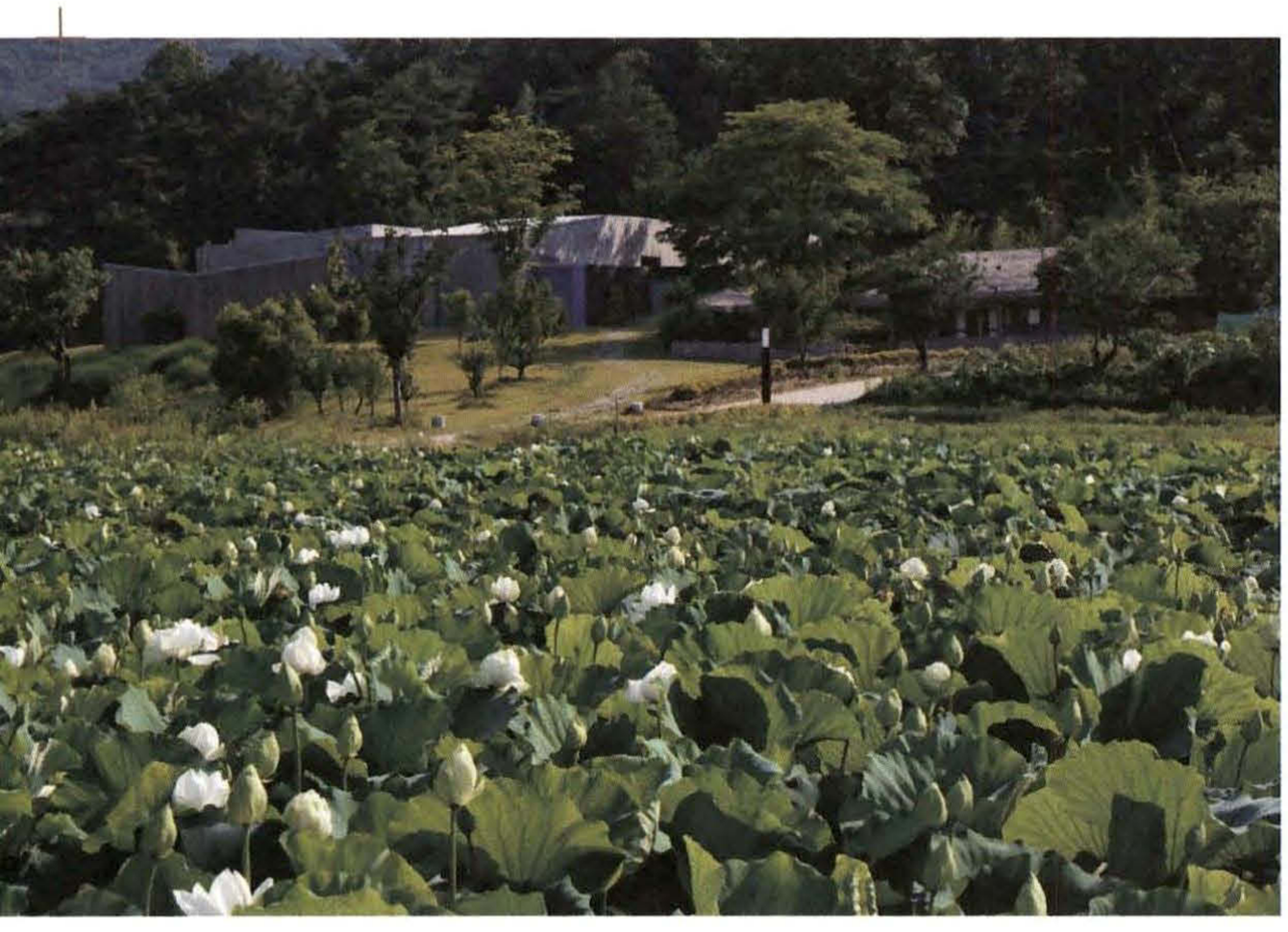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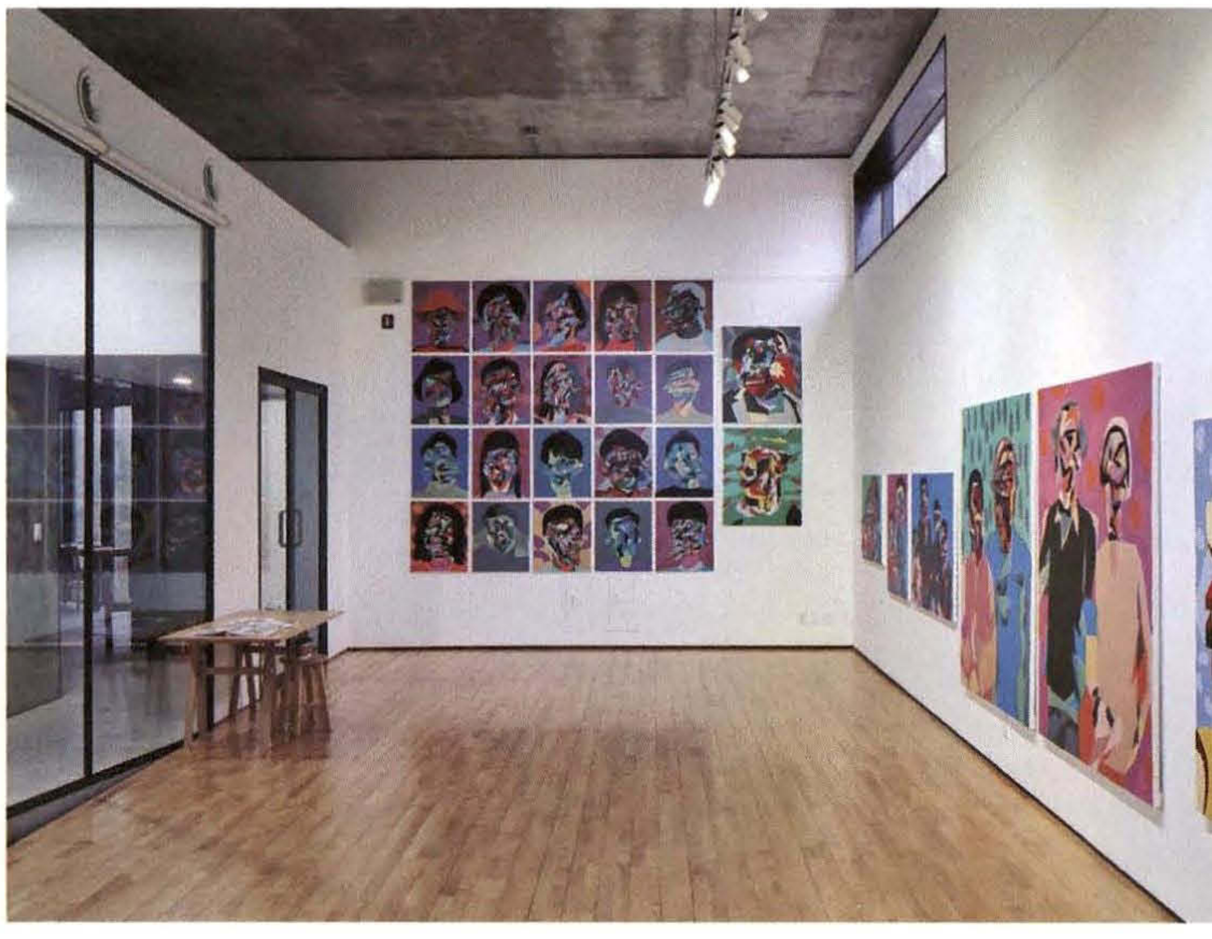
왼쪽부터 전상진 사무장, 윤후영 주무관

그렇게 씨를 심어 3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사업'에 선정되어 새로운 3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3년은 뿌렸던 씨를 묘목으로 키우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체험객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프로그램은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억지로 사업을 만들어 내지는 않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완벽히 마을에 녹아들어 함께 살아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돈만 들고 들어와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마을을 적시는 시늉만 하고 빠져나가는 관행적인 마을 사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그들의 의지가 느껴졌다.



이응노 생가기념관 앞 연밭



창작스튜디오 손민광 작가의 다양한 관점

홍동마을을 닮고 싶다고 하였다. 하지만 제2의 홍동마을은 아니라고 하였다. 관의 금전적 지원이 다가 아닌, 민이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은, 예술이 그저 겉치레가 아닌, 그래서 소멸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제1의 문화예술마을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관의 지원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마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면서 마

을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원주민들에게만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대화와 회의가 중요하다고 했고, 이것이 세대를 어우르는 언어가 되어 마을을 소통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을의 주인이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그 당연한 민주주의를 위해, 그 당연한 민주주의가 마을에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논리가 되기를 꿈꾸며, 세상이 어리석다 말해도 우직하게 마을을 바꾸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갈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응노마을'이 어디냐 물으면 "여기는 중계리여~ 기념관 근처로 가봐." "미술관 근처일 껄요?"라는 대답이 아닌, 바로 여기가 이응노마을이고, 내가 이 마을 사람이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진짜 마을 주민이 사는 진짜 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어쩌면 가장 밑바닥에서 단단한 뿌리가 되어야 할 마을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응노마을'에 가면 들을 수 있다.



이응노의 집 입간판

※ 출처 : 〈열린 충남〉(2018 봄호 통권 82호), 이유나 연구원·정봉희 홍보팀장, 충남연구원 (2018) 수록 글



이응노의 집 전경

• 〈당진시대〉 (2019) 기획 특집기사
미술관, 지역을 잇다 4·이응노 화백으로 다시 살아난 홍천예술마을

이응노의 집 개관 이후 마을과 문화예술 연계 활성화

본지에서는 '미술관, 지역을 잇다' 기획취재를 통해 미술관으로 대표되는 문화예술이 지역사회와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홍성 이응노의 집 사례를 취재·보도한다.

〈기자 주〉

고암 이응노 화백이 태어난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은 수려한 용봉산과 백월산에 싸인 평온한 마을이다. 이 화백이 17세 때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살았던 이 마을은 화백의 마음에 예술의 씨앗을 심어준 곳이다.

그러나 예술가에게 감수성을 심어줬던 마을이 위기에 놓였던 적이 있다. 지난 2005년 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인 홍성군위생매립장이 들어서면서 마을은 홍천문화 1·2차 마을로 나뉘고, 이로 인해 마을공동체 문화가 훼손되어 마을의 정체성까지 흔들렸다.

그러던 홍천마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고암을 기리며 이응노의 집이 문 열었고, 이응노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마을은 예술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기 시작하였다.



고암 이응노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해 2011년 11월 개관한 이응노의 집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쓰레기매립장 마을이 예술을 품다

지난 2011년 개관한 이응노의 집은 초가로 지은 생가, 전시홀, 북카페, 창작스튜디오, 연밭 등을 갖춘 기념관이자 미술관이다. 고암이 탄생하고 유년을 보낸 곳에 지어진 만큼 이응노의 집에서는 초기작과 스케치, 습작 등 고암의 인생 전반기에 중심을 둔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다.

이응노의 집은 중소 규모의 기념관으로 개인의 작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면서도 문화적으로 '열린 공간'이다.

이곳의 주된 목표는 사람들이 고암의 예술세계를 형성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와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응노의 집이 개관하면서 예술을 연계한 새로운 마을공동체에 대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정과 지역예술분야 전문가, 마을주민들이 함께 이응노의 집과 연계한 홍천마을의 예술가치화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며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응노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별의별 도자기공방에서 '도예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응노마을 조성사업 이뤄져

홍천마을이 '이응노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얻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1년간 2억 원씩 총 3년간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이응노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응노마을 조성사업은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기념관인 이응노의 집을 중심으로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주변 마을인 홍천마을 일원을 문화예술 복합공간화해 홍성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사업이다. 중요한 것은 마을 조성 당시 행정이 주도해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진 부분이다.

이 사업으로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주민 역량강화와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또한 홍천마을이

이원화되기 전 사용했던 마을회관 1층을 별의별 도자기 공방으로, 2층은 별의별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였다. 더불어 마을지도를 만들고 마을의 빈 집을 활용해 창작공방을 구축했으며, 매월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매월 1일과 15일에 1,2차 마을에 열리는 '힐링반상회' 모습

성공요인은 거버넌스 구축

이응노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과 마을신문 제작, 도서관 조성이었다.

이응노의 집과 홍천마을, 지역예술가 등 14명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16차례의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3년간 진행될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마을 조성사업은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을 중점으로 진행하였다. 주민 역량강화에 집중된 마을 조성사업은 '힐링반상회'를 열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힐링반상회를 통해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생활예술활동은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주민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갔다. 또한 주민 리더와 주민들의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마을 예술화와 공동 소득창출 등을 고민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생활화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였다.

마을신문은 사람들의 소통을 풀어내고 전하는 창구가 되었다. 마을과 주민 간 소통의 연대를 위한 마을신문사가 지난 2016년 8월 별의별 창작공방 옆 공터에 설치되었다. 2015년 6월 첫 호를 시작으로 마을신문은 매달 제작돼 2017년 10월까지 총 29호를 발간하였다. 신문에는 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마을이 예술적으로 변화하는 모습, 이응노의 집 전시·행사, 주민들의 삶, 국내·외 마을 만들기 성공사례 등의 콘텐츠들이 차곡차곡 담겼다. 마을신문은 올해부터 다시 이어지며, 격월로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별의별 작은 도서관은 빈 건물이나 공간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도서는 거버넌스 운영위원이 기증하고, 이외에도 홍성과 내포신도시 등 타 지역에서도 도서를 기증하였다.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예술 활동의 주요거점이 되고자 하였다.



이응노마을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별의별' 작은 도서관



2019년 마을상징조형물 설치 조성에 따라 마을 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조형물

예술을 심고 마을에 깃든 변화

홍천마을이 예술을 품은 이응노마을이라는 씨앗을 뿌리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윤후영 학예사는 "마을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거나 마을로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마을에 비어 있던 공간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하였다. 이어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와 이응노마을 내 공방 등을 통해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마을로 찾고, 또 이들이 이응노마을에 예술을 불어넣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응노마을 신문 편집인이자 마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상진 편집인은 "예술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또한 쓰레기매립장이라는 마을의 이미지가 예술마을로 바뀌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응노마을은 또 다른 분기점에 놓여있다. 이응노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군창의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예술마을 토대 위에 마을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응노마을추진위원장을 맡는 양주명 홍천마을 이장은 "소득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등 주민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응노의 집에 자리한 연밭을 활용한 소득창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미니인터뷰〉

양주명 이장·전상진 편집인·윤후영 학예사

"대화와 소통, 성공으로 이끌어"



(왼쪽부터) 양주명 이장, 전상진 편집인, 윤후영 학예사

– 다른 지자체의 마을 조성사업과 차별점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구축이 먼저였다. 마을조성 사업에 있어 중점이 됐던 것은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역량강화였다.

–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화와 소통이다. 행정, 마을, 예술가가 함께 대화하고 모든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최고의 자원은 사람이다. 이를 활용할 지역민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또한 사업 콘텐츠에 대해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지원해야 한다.

– 홍성의 사례에서 당진시가 적용할만한 부분은?

목표(이상적 가치)를 설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화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조사하고 문화활동가들이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또한 문화는 10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행정이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당진 심훈기념관 운영에 대해 조언하자면?

기념관이 활성화되려면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박경리 문학관처럼 지속적인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심훈의 가치와 상징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당시 심훈의 농촌계몽사상을 오늘날의 마을재생 또는 농촌재생과 연계해보면 좋을 것이다.

※ 출처 : 〈당진시대〉, 박경미 기자 (2019. 06. 22) 기획 특집기사

• 〈내포뉴스〉 (2020) 기획 특집기사
– 이응노마을 '예술마을' 조성]

이응노와 고향마을의 대화 … 예술로 피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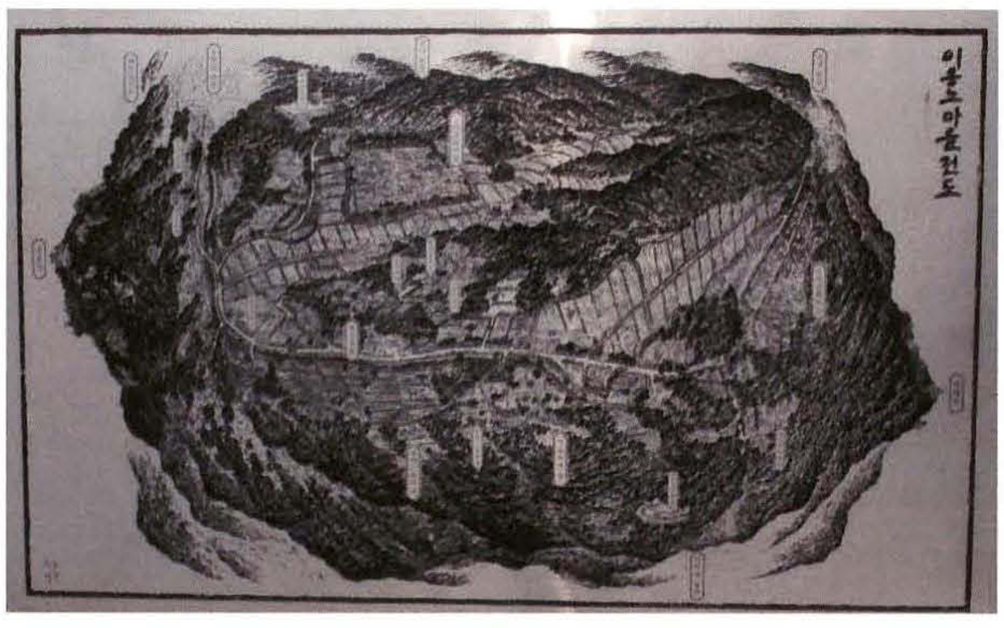
홍성 '이응노마을' … 홍천마을 예술가치화·주민 역량강화 등 결실
전상진 추진위원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체된 마을 공동체 복원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의 낮은 산자락 끝에 자리한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은 세계적인 화가인 이응노 선생의 예술이 발아했으며, 그의 정서가 담긴 곳이다. 2011년 11월 8일 문을 연 '이응노의 집'은 선생에 대한 기억을 동시대에 맞춰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응노 정신의 현대화와 현재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내포뉴스는 이응노 선생을 그저 역사 속 인물이 아닌 현 시대와 함께 숨 쉬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거점을 소개하려 한다. 그곳은 바로 '이응노마을'이다. '이응노마을'에 대한 취재는 전상진 추진위원(이응노마을신문 편집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세 차례에 걸쳐 발간된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도 참고하였다.

'이응노마을'은 생가지 인근 홍천마을을 이응노의 집과 연계해 '예술마을'로 변모시킨 것이다. 이 역사적인 구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2015~2017년)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군창의 사업(2017~2020년)에 선정되며 현실화될 수 있었다.

전상진 위원은 "이응노의 집 개관 전시 준비를 함께한 윤후영 학예사가 '기념관만 있으면 고립될 수 있다. 마을과 함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며 "나도 개인적으로 마을재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동갑내기 친구였던 우린 곧 의기투합해 '고암 예술마을'에 대한 구상을 시작했다"고 회고하였다. 이어 "홍천마을 양주명 이장님과 논의를 했고, 수행단체의 필요성을 느껴 홍성생태학교 나무 모영선 이사장에게 맡겼다"며 "이후 이곳을 위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응노마을복지회관 신 회관 앞에 설치된 이응노마을 지도
(김 억 작가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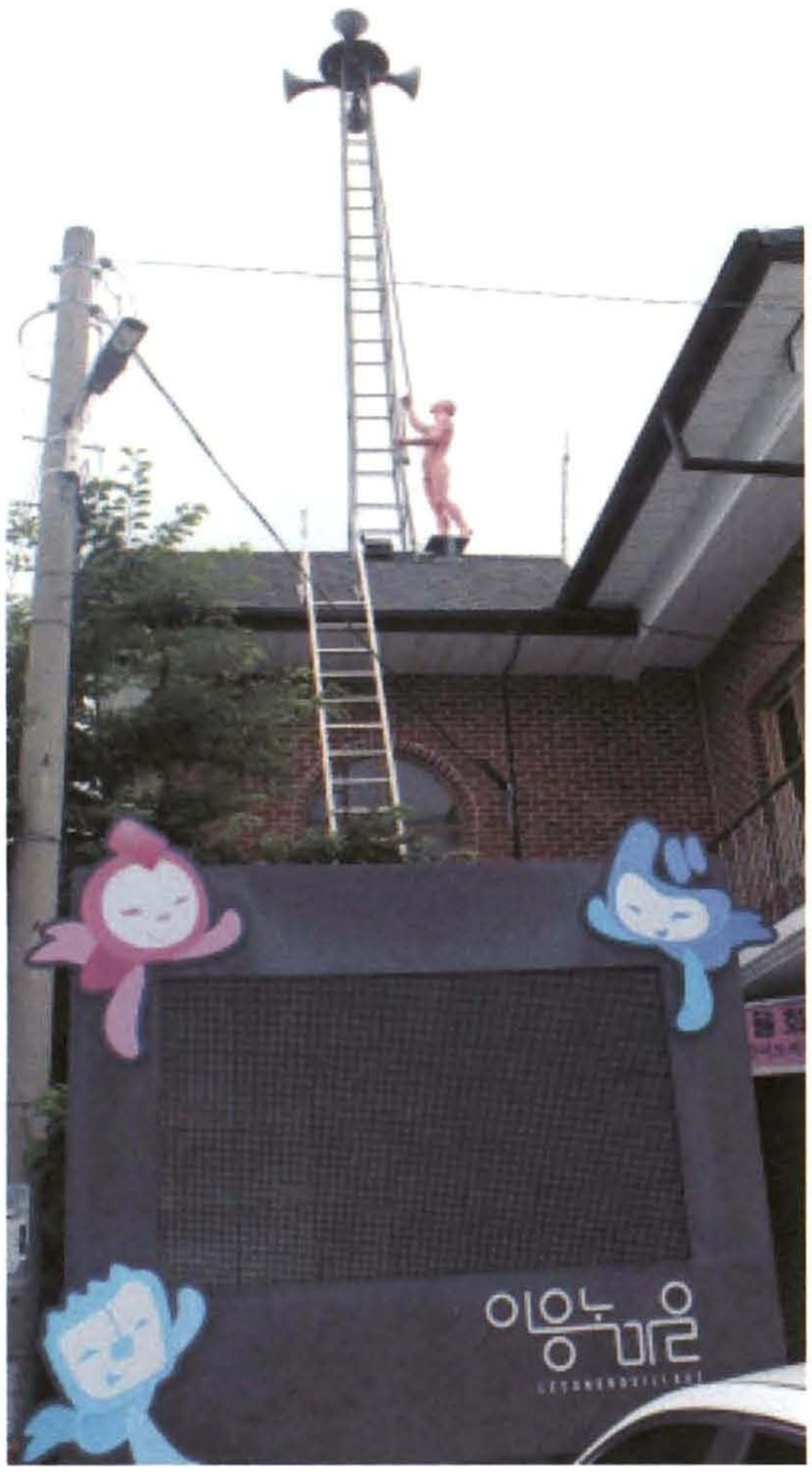
취재를 도와준 전상진 위원이 이응노마을 지도(김 억 작가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응노마을 거버넌스는 전문가와 주민협의체, 행정부서, 지역문화영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암 예술마을'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이응노마을'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지금의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2014년 12월 23일 첫 회의를 가진 이응노마을 거버넌스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성격과 목적, 방향성 제고 등을 논의했으며, 이듬해인 2015년 2월 24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정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응노마을' 사업이 추진된 것은 같은 해 6월쯤부터다.

이응노마을의 탄생과 관련해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홍성군 쓰레기 매립장'이다.

전 위원은 "홍성군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 홍천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집단 이주를 약속했고, 그렇게 생긴 게 홍천문화1차마을이다.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늘자 군은 이 지역에 제2매립장을 추진했고, 그에 따른 주민 반발로 2차마을까지 생기게 된 것"이라며 "1, 2차마을 주민들은 서로 섞이기 힘든 구조였고, 공동체 해체에 대한 위기의식도 점점 더 커졌다"며 "이응노마을은 이 같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 코드이기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응노마을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물 '종치는 사람'

2015년 11월 발간된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에 실린 홍천마을 양주명 이장의 글에서도 이 같은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양 이장은 '예술마을로 희망을 찾는 주민들의 아름다운 변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홍천마을은 쓰레기 매립장 있는 마을로, 마을은 둘로 나뉘어 서로 서먹하기만 했다.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마을이 2011년 이응노의 집이 개관하면서 차츰 이응노 화백이 자란 예술마을이란 좋은 이미지가 퍼져나갔다. 지난해부터 이응노의 집과 연계해 마을을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의견을 들었다.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마을 신물을 만들고 주민 영상도 제작했다. 주민들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도 행복하게 이뤄졌고, 홍천마을복지회관도 아름다운 변화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전 위원은 이응노마을의 추진동력이 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시·군창의 사업에 대해서도 말해줬다. 그는 "문체부 사업이 주민 역량강화가 중심이라면, 농식품부의 경우는 소득기반 구축이 포함돼야 한다. 그래서 큰 틀은 같지만,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며 "문체부 사업 2년차 때 농식품부 공모가 떴다. 이응노마을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준비를 시작했고, 대전까지 가서 브리핑을 해 사업에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응노마을과 그곳의 사람들은 이 두 사업을 발판으로 통

해 지난 6년간 참 많은 일을 해냈다.

우선 2015년 6월 1호를 시작으로 총 30호까지 이응노마을 신문을 펴냈다. 이 신문의 제자(題字)는 홍성군 구항면 출신의 대한민국 대표 서예가 홍운 김창수 선생이 직접 써줬다.

이 신문의 의미는 이응노마을 관련 책자에 실린 글을 빌려온다. '마을 주민들이 두려움 속에서 시작한 예술마을의 정체를 신문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이응노마을 신문이 태어났다. 예술마을의 기록이 겹겹이 쌓여 마을주민들의 변화와 발전이 거듭된다. 기록은 단지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보존은 영원한 역사가 되고 후대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도 이어졌다.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 △제주 가시리권역·이중섭미술관 △전남 무안 백련지마을 △대전 이응노미술관 △경기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전북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강원 양구 박수근미술관 △경북 청도 성수월마을 △충남 당진 아미미술관 등을 통해 견문을 넓혔다 또 주민리더를 위한 △일본 키소 후쿠시마·도쿄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연수 등도 진행됐다.

주민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도 다채로웠다. 그간 이응노마을에서는 △홈패션 △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DIY·정크아트 작품 만들기 △우리 동네 사진사 △산야초, 달지 않은 명품 효소 △도예공방 '내가 만든 밥그릇' △가죽공예 '손 안의 명품 만들기' △유리공예 관광아트상품 만들기 △풍물패 등이 진행됐다.

물론 오직 마을주민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마을 밖의 학교나 기관·단체와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올해도 이응노마을에서는 별의별 공방·나무공방 소풍·백월산 도예 등에서 △슬립 캐스팅 △천연염색 △수묵 캘리그라피 △한국화/가죽공예 △전통민화 △토탈공예 △목공예 △꽃차 소믈리에 △수채화 어반스케치 등의 공방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더불어 이응노마을에서는 주민 화합을 위한 '힐링 반상회'가 지속됐으며, 해마다 이응노의 집 개관일에 즈음해 문화예술잔치도 열었다. 또 신·구 마을회관을 갤러리와 도예공방, 북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하기도 했으며, 2015년에는 신 회관 옥상 위에 '종치는 사람'이라는 상징 조형물도 설치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이 운영한 2015 파리 이응노 레지던시 입주 작가인 홍상식 작가가 만든 이 작품은 이응노 선생이 대한 오마주이자 마을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메신저다.

올해는 농식품부 시·군창의 사업의 마지막 해이다. 그렇다고 이응노마을의 끝은 아니다.

전 위원은 "사업 마지막 해인데 코로나19로 대부분 스톱됐다"며 당혹감을 전하면서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방안을 놓고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응노마을 신문 30호에 실린 이응노의 집 윤후영 전 학예사의 말에서도 이곳이 계속해서 '예술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윤 학예사는 당시 "'희망은 멀리 두어야 한다'는





이응노마을 공방체험 프로그램

고암 이응노 화백의 말처럼, '이응노마을' 사업은 기본에 충실하며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희망의 중턱에 올라 서 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더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앞으로도 그런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응노마을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 세 차례(2015~2017년)에 걸쳐 발간된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책자 뒤표지에 적힌 문구에 이곳의 의미가 함축돼 있음을 깨달았다. 이번 기사는 그 문구를 발간 순서대로 전하며 마무리 하겠다.

"고암 이응노, 고향마을에 말을 걸다", "이응노 마을, 고암 이응노에 말을 걸다", "고암 이응노, 고향마을로 돌아오다"….

※ 출처 : 〈내포뉴스〉, 노진호 기자 (2020. 09. 20) 기획 특집기사

2. 이응노마을 행사, 그리고 일상

1) 2018~2019년 이응노마을 행사, 그리고 일상

[2018~2019년 정월대보름 행사]

마을 주민화합과 풍년 기원한 정월대보름 행사 가져

마을청년회·부녀회 중심되어 마을어르신과 주민 화합의 행사 치러
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주민협조 구해

홍천(이응노)마을에서는 2018년 무술년 정월대보름 행사에 이어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의 해에도 주민 화합을 위한 정월대보름 행사를 치렀다.

2019년 2월 19일(화) 민족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어르신 및 주민 점심식사 대접과 윷놀이, 부럼, 귀밝이술 등으로 주민 화합행사를 가졌다. 2019년 기해년 한해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빌고, 각 가정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마을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10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점심식사는 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오곡밥과 뼈해장국, 대보름 나물, 부럼 등을 준비해 마을어르신과 주민들에게 대접하였다.

이날 주요행사는 마을 풍물패인 '고암풍물회'의 풍물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주민들은 4개 반으로 나눠 윷놀이와 경품추첨, 부럼 등을 함께 나누며, 정월대보름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양주명 이장은 "주민화합과 주민들의 마을사업 적극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조촐하게 청년회, 부녀회 등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마련했다"며 "주민이 하나가 되어 잊혀져 가는 옛 고유의 행사를 이어갈 수 있어 보람을 느끼다. 이 행사를 통해 풍년과 주민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2018~2019년 홍성행복교육지구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운영]

용봉산이응노마을 아이들이 꿈꾸는 예쁜 자연과 예술사랑

홍성행복교육지구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9월 15일부터 본격 운영 들어가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가 마을학교 운영 첫 해를 맞아 2018년 9월 15일(토)부터 본격 운영되었다. 마을학교는 용봉초등학교와의 연계협력 속에 올해 12월 말까지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한창이다.

마을학교 운영은 홍성군과 충남교육청·홍성교육지원청의 '홍성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운영' 협력사업으로, 향후 5년간 진행된다. 홍성군에서는 '온 마을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이라는 슬로건으로,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를 비롯해 구항 거북이마을학교, 홍동 햇살배움터마을학교, 장곡 오누이마을학교, 결성 마을학교 등 5개 단체를 첫 해 운영단체로 선정,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는 다른 마을학교와는 달리 예술인문(역사)교육을 중점으로 운영한다. 이응노의 집과 연계한 문화특화지역 예술마을 조성에 힘입어 도자기(김종석)를 비롯해 천연염색(임민숙), 목공(권재완), 우리 전통악기와 연극놀이(노수경), 현대서예·캘리그라피(박혜선), 한국화(채정옥), 마을자원 잘 알기와 신문 만들기(전상진) 수업 등 7개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는 12월 12일(수) 이응노마을 '별의별' 공간에서, 홍성 마을학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성과발표회를 펼쳤다. 이날 마을학교 성과전시는 물론 체험교육도 전행되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상진 마을학교 실무담당자는 "앞으로 '용봉산'의 자연환경과 불교유적, 예술인문적 요소를 결합해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마을학교 수업의 내실을 기해 홍성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마을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 의별 도자기공방













용봉산이응노마을에서 함께 자라는 우리 아이들

'와당탕탕! 오늘 뭐하지, 마을서 함께 자라는 아이들' 주제로 성과발표회 펼쳐져
마을학교, 예술인문교육 중점운영 통해 마을과 학교 연계협력 속 공존상생 추구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가 지난 12월 12일(수) 마을복지회관과 홍천교회 주차장, 각 창작공방 일원에서 마을아이들이 함께 한바탕 즐거운 마을학교 성과발표회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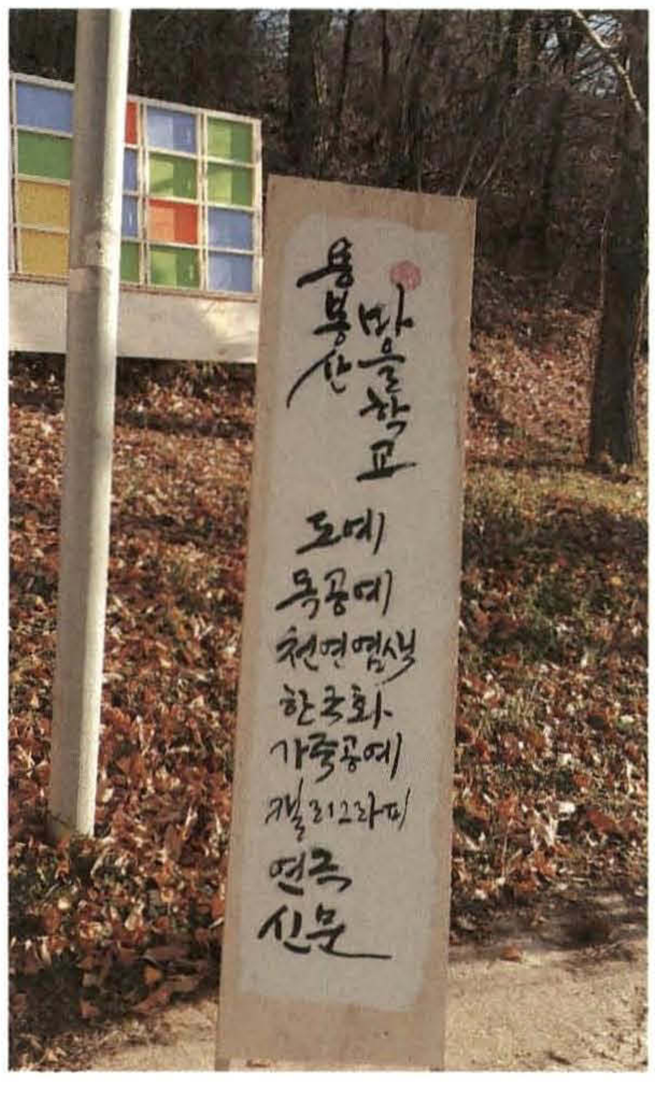
이날 '와당탕탕! 오늘 뭐하지, 용봉산 이응노마을에서 함께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주제로 펼쳐진 마을학교 성과발표회는 용봉초등학교와의 협력연계 속에 지난 9월 15일부터 12월 초까지의 마을학교 운영 성과를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한바탕 축제형식의 성과발표회로 펼쳐졌다.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용봉초등학교 참여학생과 전교생, 학부모, 교직원, 마을주민을 비롯해 홍북·내포·한울·갈산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홍성지역 5개 마을학교 관계자, 군내 기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날 체험지도와 바람개비 안내판을 제작해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장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마을주민들이 직접 나와 교통안전, 안내 등을 맡는 등 마을과 학교의 연계협력을 돈독하게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용봉초등학교 학생들과 마을주민교사의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교육프로그램 수업내용을 편집해 제작한 동영상을 감상하였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7개 교육프로그램과 2개 시범교육프로그램(비즈공예와 민화그리기)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는 홍성지역의 4개 마을학교와는 달리 예술인문(역사)교육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과 연계한 예술마을 조성에 힘입어 도자기, 천연염색, 목공, 전통악기와 연극놀이, 현대서예·캘리그라피, 한국화, 마을자원 잘 알기와 신문만들기 수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용봉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호응이 얻고 있다.



내년에는 용봉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홍북초등학교와의 연계협력 속에 마을학교를 확장 운영, 내포신도시를 제외한 홍북읍 전 지역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며, 마을주민교사(토탈공예, 민화, 조각 外)와 용봉산 숲체험단체, 학교교구 제작단체 등을 마을학교 주민교사로 추가, 다양한 마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상진 운영관리자는 "앞으로 '용봉산'의 자연환경과 불교유적, 예술인문적 요소를 결합해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마을학교 수업의 내실을 기해 홍성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마을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지역 마을학교는 홍성군과 충남교육청·홍성교육지원청의 '2018 홍성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운영' 협력사업으로, 향후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홍성군에서는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를 비롯해 구항 거북이마을학교, 홍동 햇살배움터 마을교육연구소, 장곡 마을학교, 결성 마을학교 등 5개 단체를 선정, 지난 9월 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5개 마을학교의 예술, 자연, 역사, 인성, 친환경, 정체성 등 각각의 특색을 살려 마을과 학교가 공존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할 방침이다.









홍주신문 홍주인

"와당탕탕 오늘 뭐하지?"

용봉산 이응노 마을학교… 염색·캘리그라피·한지만들기

용봉산 이응노마을학교 발표회가 지난 12일 풍향마을 복지회관 및 냉이방 창작공방과 소풍공방 일원에서 열렸다.

용봉산 이응노마을학교는 온 마을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2018홍성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시작해 마을 신문 만들기, 연극 놀이, 캘리그라피, 가죽공예, 염색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와당탕탕, 오늘 뭐 하지?'라는 주제로 열린 발표회에는 갈산초등학교, 한솔초등학교, 용봉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천연염색 체험, 캘리그라피 체험, 한지 만들기, 난타 배우기, 비즈공예, 도자기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졌다.

체험목 작가가 마련한 한지만들기 체험은 머리 핑에 붙이놓은 한지를 나무틀에 넣은 다음 다비비로 말려 붙이는 과정이다. 한지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한솔초등학교 학생은 "한지가 모두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에 "앞으로 종이를 아껴 써야겠다"고 말했다.

박혜선 작가가 마련한 캘리그라피 체험은 머리 구입한 나무에 학생들이 직접 쓰거나 박 작가가 쓴 캘리그라피를 선물 받으며 기쁨을 나눴다.



홍동산 이응노마을학교 발표회에서 소풍공방이 마련한 체험 모습.

이응노마을학교 전상진 운영자는 "냉이텃골방과 소풍공방 등 특색된 예술 여행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선 기자



〈특집 1〉 홍성행복교육지구사업 마을학교 운영
〈홍성신문〉 홍성군 마을학교 2 기획연재기사

역사와 예술로 특성화된 교실 밖 학교

–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홍북면 용봉초등학교 학생들은 토요일 오후 홍북면 이응노마을 나무공방에 나가 결에 따라 다른 목재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톱과 끌, 대패, 못, 망치 사용법에 대해 익힌다. 학생들이 직접 전통 창호 좌등, 서랍박스 등을 만든다. 전동드릴과 드라이버를 사용해 벤치도 만들어낸다. 용봉산권역 마을학교의 '나도 우리마을 목수' 프로그램이다.



용봉초 학생들이 이응노마을 도자기 공방에서 체험수업을 하고 있다.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는 이밖에도 흙을 빚어 도자를 만드는 도예 배움반, 천연염색 방법과 염료를 사용하는 천연염색 물들여요반, 서예와 캘라그라피 작품을 만드는 현대서예반, 한국화 가운데 만화를 그리는 한국화(만화)반, 전통음악을 배워 연극놀이에 적응하는 전통음악과 연극놀이반, 가족신문과 마을신문을 만드는 신문, 기자반 모두 7개 반을 운영한다. 각 반별 15명씩 편성하였다. 이 마을학교 사업명은 '용봉산 마을 아이들이 꿈꾸는 예쁜 자연·예술사랑'이다. 9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과목당 2시간씩 8회에 걸쳐 총 112시간 진행한다.

용봉산 아래 상산, 하산, 동막, 홍천 4개 마을을 '돌바위마을'이라고 부른다. 작은 금강산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용봉산을 동, 남, 서쪽으로 둘러 싼 마을이다.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가 있는 마을이다. 이응노의 집을 중심으로 이응노마을 조성에 힘입어 인문, 예술, 역사분야 전문가들이 마을에 정착해 창작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위 4개 마을은 2015년 용봉산권역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인성학교로 지정받았다. 용봉산권역은 이같이 풍부한 인적, 물적, 역사적 자원을 활용해 후세교육에 나서기로 하고 홍성군에 마을학교 설치운영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되었다.

주 강사는 도자기 김종석, 천연염색 임민숙, 목공 권재완, 전통음악·연극 노수경, 현대서예·캘리그라피 박혜선, 한국화 채정옥, 신문기자 전상진 등 최소 12년에서 최고 30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주강사로, 각 분야 5년 경력의 보조강사 등 모두 14명으로 포진되어 있다.



이응노마을 나무공방을 둘러보는 마을학교 심사위원들

학습장은 마을 내 6곳에 분산되어 있다. 용봉산돌바위마을 한마음센터 강의실, 이응노마을 나무공방 '소풍', 도자기 공방 2개(별의별 도예공방, 백월산도예공방), '별의별' 창작공방, '별의별' 작은 도서관 등이다.

용봉산권역과 마을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학교는 용봉산 아래 용봉초등학교다. 용봉초등학교는 1949년 홍북초 상하분교로 인가받은 후 1957년 용봉초등학교로 개교했다. 현재 학생 88명, 박종대 교장 이하 16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마을학교는 전상진 용봉산권역 사무장이 총괄하며 운영, 효과, 점검 및 평가를 맡을 학부모 2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다. 용봉산권역 영농조합법인 양주명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3명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다. 송용순 용봉초 교감 및 교직원 3명이 마을학교운영 전반을 자문한다.

용봉산마을학교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다.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한 전문가만도 10명이 넘는다. 특히, 전상진 사무장은 지역신문(홍성신문) 기자 출신이면서 연극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개인기가 최대한 발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봉산권역 영농조합법인은 마을의 역사 자산이 풍부하고 예술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역 초등학교와 학생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여 지역 청소년이 역사와 예술자원을 교육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와 예술마을의 특징을 살려 특화된 마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육기부를 하겠다는 장기적인 구상도 갖고 있다.

※ 출처 : 〈홍성신문〉, 이번영 기자 (2018. 08. 29) 기획 특집기사

〈특집 2〉 홍성행복교육지구사업 마을학교 운영
〈홍성소식 7월호〉 홍성 마을학교 소식

'온 마을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홍성지역 마을학교 호응

홍성군내 7개 마을학교, 민관 교육협력 사업으로 운영의 활성화 꾀해
마을학교협동조합 결성 등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위해 한걸음 내디뎌

'온 마을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홍성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운영이 2019년 올해 4월 위촉식 및 마을학교 운영교육을 시작으로, 홍성군내 7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홍성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운영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관심에서 출발해 지난해부터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청, 홍성군교육지원청과 홍성군이 함께 마을의 물적·인적 자원을 투자해 교육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인재를 키우는 민관 교육협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홍성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는 지난해 하반기 홍북읍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를 비롯해 홍동면 온마을학교, 장곡면 장곡마을학교, 구항면 거북이마을학교, 결성면 결성마을학교 등 5개 단체가 선정,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왔다.

올해는 특히 은하면 대천마을학교, 서부면 천수만마을학교 등 2개 신규단체를 선정, 총 7개 마을학교가 마을 인근 학교와의 연계 속에 '마을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홍북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는 용봉·홍북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성의 명산 용봉산과 이응노의 집을 중심으로 조성된 예술과 인문역사의 특성을 살려, 지난해 도자기, 천연염색, 목공, 전통악기와 연극놀이, 현대서예·캘리그라피, 한국화, 마을자원 잘 알기와 신문만들기 수업 등 7개 프로그램에서 2개 프로그램(토탈공예, 우리 전통민화)을 추가해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홍동 온마을학교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와 홍동중학교, 홍동·금당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상징인 문당권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친환경농업, 마을아카이빙, 예술·인문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곡마을학교는 장곡초등하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동지역과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업, 예술·인문, 음식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항 거북이마을학교는 구항·대정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농어촌인성학교에 걸맞게 인성, 농업과 숲, 예술·인문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성마을학교는 폐교 위기의 결성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호응을 얻은 돼지 키우기의 성과를 높여 돼지와 미각, 곤충과 미래식량, 예술·인문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규 마을학교로 선정된 은하 대천마을학교는 은하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과 마을아카이빙, 음식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부 천수만마을학교는 신당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과 마을 아카이빙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홍성군내 7개 마을학교는 앞으로 합동 역량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 농어촌인성학교와의 연계 등을 통해 마을학교 운영 활성화는 물론 마을학교협동조합 결성 등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한걸음을 내디딜 예정이다.

※ 출처 : 〈홍성소식〉, 전상진 (2019. 07.), 홍성군



[2018~2019년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

이응노마을 주민들의 흥겨운 '문화예술잔치' 펼쳐져

2018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 본격 추진 첫 해 맞아 축하의 자리 마련
1년간 다양한 활동 결과물 선보여 … 생활예술 체험교육과 음식 정성껏 대접

홍천(이응노)마을 주민들의 1년간의 문화예술 활동의 결실을 맺는 자리가 2018년 11월 3일(토) 오전 11시부터 마을복지회관 '별의별' 공간과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날 마을주민을 비롯해 홍성군민과 내포신도시 주민, 외지방문객, 홍성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잔치를 즐겼다.

이응노마을은 현대미술의 세계적인 거장 고암 이응노 화백이 태어난 곳으로, 2017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을주민들의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리더를 양성하는 시군창의사업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이다.

마을사업 본격 추진 앞서 축하와 주민화합 … 다양한 공연와 뒤풀이 행사 준비

이날 마을잔치는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의 첫 삽을 뜨면서, 주민화합과 축하하는 자리로 열려 주민 역량강화와 생활예술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로 꾸며졌다.











마을풍물패인 '고암풍물패'의 길놀이로 막을 올린 이날 잔치는 한국예총홍성지회의 '찾아가는 예술제'를 비롯해 외부 초청공연으로 채워졌으며, 잔치의 대미는 마을주민들의 노래자랑으로 끝마쳤다.

특히, 올해 마을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애쓴 부녀회·청년회·노인회원 등 주민들의 잔치 뒤풀이로 흥겨운 노래자랑을 펼쳐졌다.

마을 공방작가 참여 '생활예술프로그램' 체험교육 진행 … "주민참여 마을사업 추진"

주민 생활예술 프로그램은 올해 공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관계로,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별의별' 공방작가들이 참여해 도예체험을 비롯해 천연염색 체험, 목공체험, 비눗방울 한국화 그리기, 캘리그라피 가훈 써주기, 민화체험, 비누공예 등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날 잔치는 준비과정에서 마을학교 성과발표회와 함께 하고자 했으나, 일정과 시간 조정 등이 맞지 않아 함께 하지 못하였다.

마을잔치의 백미는 역시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다과. 마을부녀회에서는 이응노의 집 앞마당에서 직접 채취한 연잎으로 만든 연잎국수를 비롯해 수육, 묵, 떡 등 맛있는 음식과 다과를 정성껏 준비해 주민들과 외지방문객들을 부족함 없이 대접하였다.

양주명 이장은 "이번 마을잔치를 통해 1년 동안 주민들이 일구어낸 결과물을 확인하고, 내년의 목표를 확인하는 자리"라 말하며 "이응노마을 사업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사업 홍보와 사업이미지를 높이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을잔치와 함께 이응노의 집에서는 '도불 60주년 이응노·박인경 사람·길'展이 열리고 있어 이곳을 찾는 예술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응노와 박인경의 도불 60주년을 맞이해 전통회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발견함으로써 민족 미술을 새로운 표현으로 세계화화한 위업을 이룬 두 사람의 예술적 궤적을 그린 이번 전시는 2019년 5월 26일(일)까지 이어진다.









이응노마을 주민들의 더~ 더~ 신나는 '문화예술잔치' 펼쳐져

2019년 마을사업 본격 추진 따라 1년 간 주민 생활예술 활동 더 활발하게 진행
마을사업 1년차 활동 결과물 선보여 … 마을공방·마을학교 체험교육 장도 마련해
마을잔치 사상 가장 많은 외지방문객 찾아 … 예술마을 조성 한 걸음 더 앞서가

홍천(이응노)마을 주민들의 1년간의 문화예술 활동의 결실을 맺는 자리가 2019년 11월 2일(토) 오전 11시부터 마을복지회관 '별의별' 공간을 비롯해 '별의별' 창작공방,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날 마을주민을 비롯해 홍성군민과 내포신도시 주민, 외지방문객, 홍성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잔치를 즐겼다.

이응노마을은 현대미술의 세계적인 거장 고암 이응노 화백이 태어난 곳으로, 2017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을주민들의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리더를 양성하는 시군창의사업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이다.





마을 '별의별' 공간마다 주민·학생 생활예술프로그램 통해 흐린 땀 알차게 구성해 전시

이날 마을잔치는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을 본격 추진한 1년간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로, 주민 역량강화와 생활예술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이번 마을잔치는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성과발표회와 함께 열리면서, 주민 성과물뿐만 아니라 마을 내 용봉·홍북초등학교 학생들의 성과물을 보여주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날 마을복지회관 新舊회관과 마을곳곳에 있는 각 '별의별' 창작공방에서는 주민들이 땀 흘리며 1년여 간 공방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낸 다양한 생활도예품을 비롯해 비누·향초 등 토탈공예, 전통민화 작품, 천연염색 작품, 목공품, 캘리그리피 작품, 가죽공예 작품 등이 전시되었다.









홍성예총 '찾아가는 예술제'와 초청공연 펼쳐 … 마을주민, 노래자랑으로 흥겨운 뒤풀이해
마을부녀회, 마련한 음식다과 정성껏 대접 … 마을청년회, 주차안전 및 안내 등 행사 빛내
마을풍물패 '고암풍물패' 잔치 여는 길놀이 … 마을학교 운영 성과발표회 통해 '만향' 공연

이응노의 집 일원에서는 흥겨운 잔치 한마당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마을풍물패인 '고암풍물패'의 길놀이로 막을 올린 이날 잔치는 한국예총홍성지회의 '찾아가는 예술제'를 비롯해 외부 초청공연 등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잔치의 대미는 역시 올해 마을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애쓴 부녀회·청년회·노인회원 등 주민들의 잔치 뒤풀이로 흥겨운 노래자랑도 펼쳐졌다.

특히, 마을학교 성과발표회 프로그램으로 극단 치우미르에서는 '홍성의 열녀, 함흥예기 만향' 공연과 가야금 공연, 부채춤 등을 선보였다.

마을잔치의 백미는 역시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다과. 마을부녀회에서는 이응노의 집 앞마당에서 직접 채취한 연잎으로 만든 연잎국수를 비롯해 수육, 묵, 떡 등 맛있는 음식과 다과를 정성껏 준비해 주민들과 외지방문객들을 부족함 없이 대접하였다. 마을청년회에서는 밀어닥치는 참석자들의 차량을 통제하고 주차 및 안전관리, 행사안내 등을 맡아 더욱 행사를 빛냈다.









마을학교 운영 성과발표회 통해 체험교육 운영 … 참석 가족들 다양한 행사로 '신나는 하루'
양주명 이장, "마을잔치 통해 사업추진 동력 얻어, 예술마을 조성 한 걸음 더 앞서 간 듯해"

마을학교 운영 성과발표회 체험교육프로그램은 이응노의 집 넓은 잔디밭에서 그 어느 해보다 가장 활발하게 펼쳐졌다. 마을학교 운영성과 전시부스는 물론 마을학교 운영 9개 프로그램 체험교육이 운영되었다. 도자기, 토탈공예, 전통민화, 천연염색, 목공예, 우리 전통악기, 현대서예와 캘리그라피, 한국화와 가죽공예, 신문만들기 '마을신문' 전시 등이 체험교육과 함께 운영되었다.

이날 마을잔치 체험교육에 참석한 가족(특히 아이들)을 위해서는 에어바운스가 설치, 운영되었고, 마술쇼도 신나게 펼쳐져 마을잔치를 더욱 흥겹게 하였다.

양주명 이장은 "이번 마을잔치는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하다. 마을학교 성과발표회와 함께 열리다보니, 주민들과 외지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예술마을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 만족스럽다"며 "내년에도 더 풍성한 마을잔치를 열 수 있도록 마을사업 추진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2. 이응노마을 행사, 그리고 일상

2) 2020~2021년 이응노마을 행사, 그리고 일상

[2020~2021년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 '문화도시홍성' 협력사업]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사업 거점 더하기 통해 문화도시 홍성 '발돋움'

마을추진위, 문화특화사업단과 '예술마을과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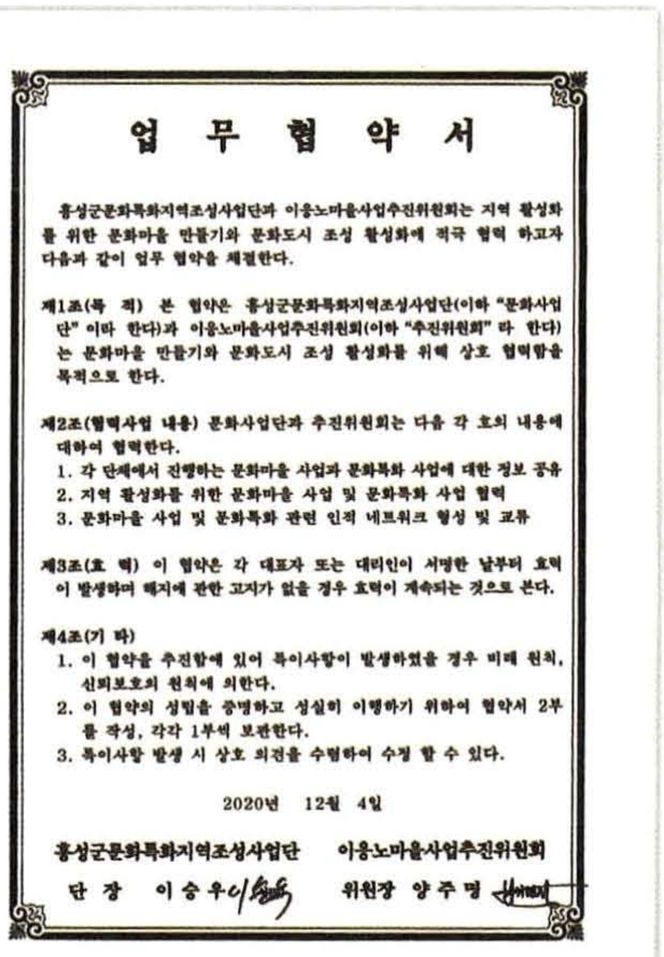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양주명·이하 마을추진위)와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단장 이승우)은 2020년 12월 4일(금) 이응노의 집 북까페에서 두 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단체가 '예술(문화)마을'과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은 것.

마을추진위의 이날 문특사업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마을주민과 홍성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고 배우는 문화공간 조성사업 연계를 통한 협력으로, 문화도시 홍성이 '발돋움' 하는데 마을이 주요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각 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마을 사업과 문화특화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마을 사업과 문화특화 사업 협력 △예술(문화)마을 사업과 문화특화 사업 관련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등이다.

마을추진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단체가 보유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내 인적·물적·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지역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도시 홍성의 모습을 갖춰 가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업 무 협 약 서

홍성군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과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마을 만들기와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에 적극 협력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홍성군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 이라 한다)과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는 문화마을 만들기와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업 내용) 문화사업단과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협력한다.
1. 각 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마을 사업과 문화특화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2.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마을 사업 및 문화특화 사업 협력
3. 문화마을 사업 및 문화특화 관련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제3조(효 력) 이 협약은 각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지에 관한 고지가 없을 경우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기 타)
1. 이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례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다.
2.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특이사항 발생 시 상호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할 수 있다.

2020년 12월 4일

홍성군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 단 장 이 승 우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양 주 명

이응노마을 '별의별' 공간, '문화도시홍성 공유공간 문화터' 지정'

마을주민과 홍성지역 주민들 문화예술 향유 공간 제공,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될 터

이응노마을 '별의별' 창작공방과 도예공방이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 '문화도시홍성 공유공간 문화터'로 지정, 업무협약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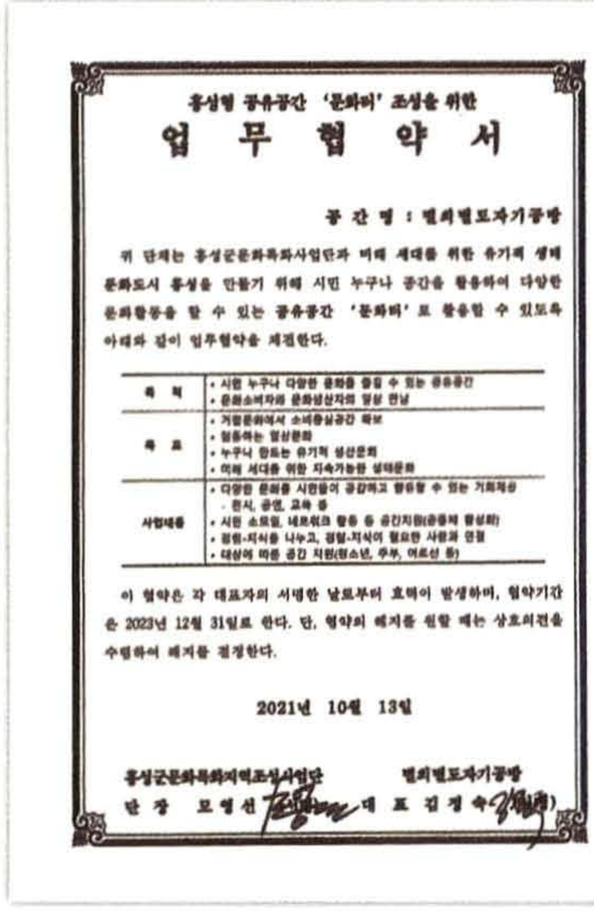
마을 '별의별' 공간은 2015~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공방작가들의 창작공방으로 재탄생한 곳.

'별의별' 창작공방은 임민숙, 박혜선, 채정옥, 김지선 작가의 창작 작업실로, 마을공방프로그램과 마을학교 운영 등을 맡아 예술마을 조성에 앞장 서 왔다.

'별의별' 도예공방은 마을복지회관 舊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재탄생한 곳으로, 1층 도예공방과 2층 작은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에서는 이들 공간에 대한 '공유공간 문화터' 지정으로, '문화도시홍성'의 문화예술 거점 확보와 공유공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별의별' 창작공방은 2021년 7월 30일, 도예공방은 10월 13일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다.

'별의별' 창작공방은 마을과 홍성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결성한 '예술창고 오롯'이 맡고, 도예공방은 서부속동전망대 짙은 갤러리를 운영한 김정숙 작가가 맡아 '공유공간 문화터'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에 이곳 '별의별' 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전시, 공연, 교육 등)을 마을주민과 홍성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지원한다. 또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요한 공간이자 세대별 대상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홍성형 공유공간 '문화터' 조성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공 간 명 : 별의별도자기공방

귀 단체는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과 미래 세대를 위한 유기적 생태문화도시 홍성을 만들기 위해 시민 누구나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 '문화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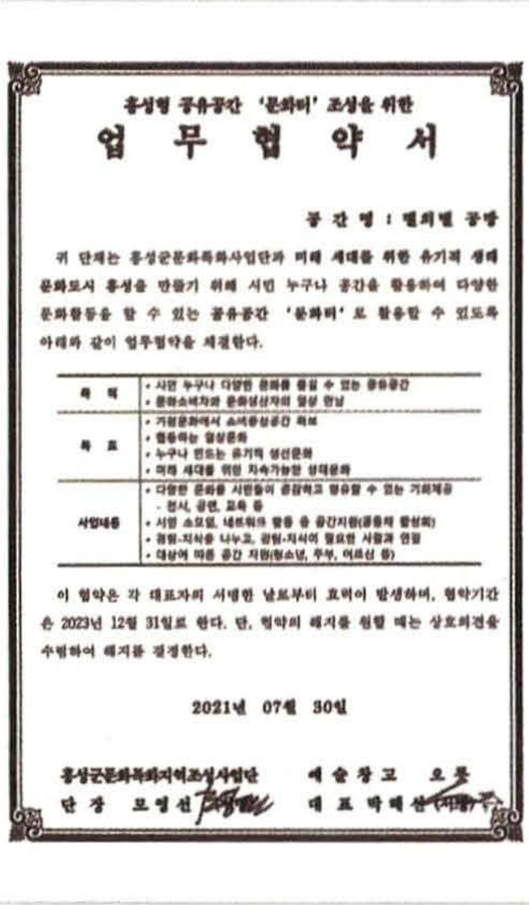
목 적	• 시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유공간 • 문화소비자와 문화생산자의 일상 만남
목 표	• 거점문화에서 소비중심공간 확보 • 함께하는 일상문화 • 누구나 만드는 유기적 생산문화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문화
사업내용	• 다양한 문화를 시민들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전시, 공연, 교육 등 • 시민 소모임, 네트워크 활동 등 공간지원(공동체 활성화) • 경험·지식을 나누고, 경험·지식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 • 대상에 따른 공간 지원(청소년, 주부, 어르신 등)

이 협약은 각 대표자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협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상호의견을 수렴하여 해지를 결정한다.

2021년 10월 13일

홍성군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 별의별도자기공방

단 장 모영선 대 표 김정숙



홍성형 공유공간 '문화터' 조성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공 간 명 : 별의별 공방

귀 단체는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과 미래 세대를 위한 유기적 생태문화도시 홍성을 만들기 위해 시민 누구나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 '문화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목 적	• 시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유공간 • 문화소비자와 문화생산자의 일상 만남
목 표	• 거점문화에서 소비중심공간 확보 • 함께하는 일상문화 • 누구나 만드는 유기적 생산문화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문화
사업내용	• 다양한 문화를 시민들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전시, 공연, 교육 등 • 시민 소모임, 네트워크 활동 등 공간지원(공동체 활성화) • 경험·지식을 나누고, 경험·지식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 • 대상에 따른 공간 지원(청소년, 주부, 어르신 등)

이 협약은 각 대표자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협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상호의견을 수렴하여 해지를 결정한다.

2021년 07월 30일

홍성군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 예술창고 오롯

단 장 모영선 대 표 박혜선





[2020~2021년 홍성행복교육지구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운영]

용봉산이응노마을에서 '융합수업'으로 즐기는 우리 아이들

2020년 '우리가 사는 마을 제대로 알기'로 교육콘셉트 잡아 다양한 수업 진행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학교 등교 늦어져 … 다양한 마을교육 수업 개발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지던 홍성지역 각 마을의 초·중·고등학교 등교 개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선생님들이 바빠지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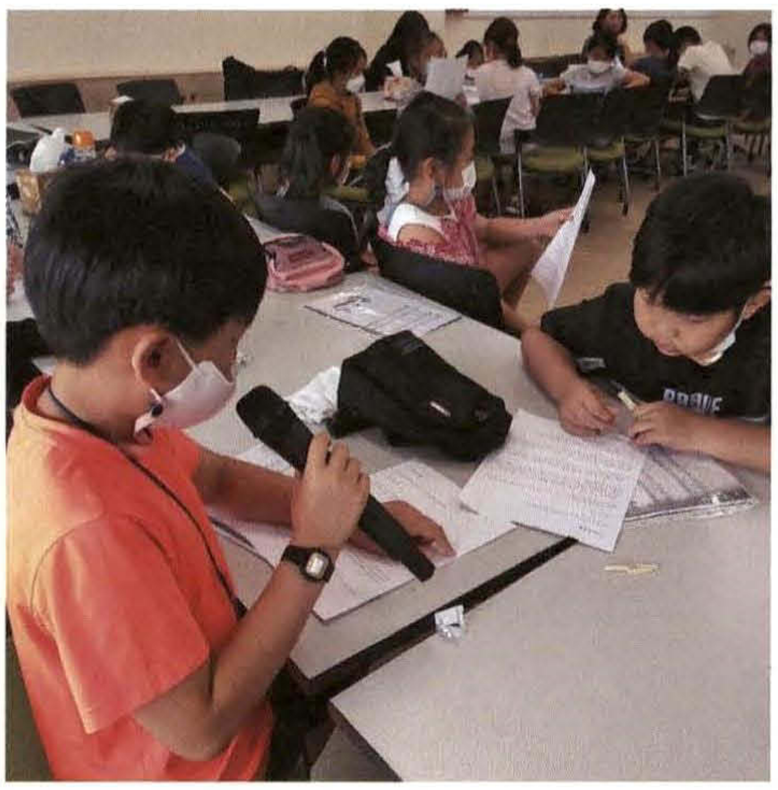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이하 마을학교)는 다른 마을학교와는 달리 2018년부터 3년간 예술인문(역사)교육을 중점 운영하고 있다.

마을학교는 올해 교육 콘셉트를 '우리가 사는 마을 제대로 알기'로 잡고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용봉산권역의 4개 마을(상산, 하산, 동막, 홍천마을)에는 남쪽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용봉산과 함께 주민들이 딸기농사와 벼농사,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 맞춰 아이들에게 마을의 자원을 제대로 알고 배우는데 초점을 맞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학교는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과 연계한 예술마을 조성에 힘입어 2018년부터 목공목수, 도자기공예, 천연염색, 목공목수, 전통악기와 함께하는 연극놀이, 현대서예·캘리그라피, 한국화, 마을자원알기와 신문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토탈공예(비즈·향초·비누 등)와 전통민화, 홈트레이닝 수업 등을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마을학교, '쓰레기' 자원·용봉산 생태 숲과 불교자원 등 활용한 다양한 교육 개발 계획

마을학교는 하반기에 그동안의 반복적인 수업방식에서 탈피, 융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융합수업이란 2개 이상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수업방식으로, 도자기와 한국화 또는 목공과 전통민화를 결합해 수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고암 이응노 화백 예술세계의 정수인 문인화(사군자 중 대나무竹그림)와 가죽·활용공예, 마을자원과 홍성역사 제대로 알기, 전래놀이(쌍육놀이) 배우기 수업 등을 추가해 융합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4개 마을 가운데 홍천마을은 홍성군쓰레기위생매립장이 위치하면서 '쓰레기마을'이란 오명을 쓴 마을이다. 2011년 이응노의 집이 건립 개관하고, 이후 2015년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예술마을'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오명에서 벗어나 예술마을로 거듭나고 있지만, 쓰레기매립장이 가동을 멈추지 않는 한 '쓰레기마을'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마을학교에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환경문제와 예술자원화 과정을 수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천혜의 보물 용봉산에 숨겨진 생태 숲과 불교자원 등으로 결합한 수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마을학교는 용봉산이라는 자연환경과 불교유적, 예술·인문적 요소를 결합하고, 쓰레기매립장의 환경문제를 진단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년을 기약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이응노의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에게 마을학교 수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더욱 다양한 예술·인문교육의 지평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상진 마을학교 매니저는 "홍성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마을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운영 중간성과보고회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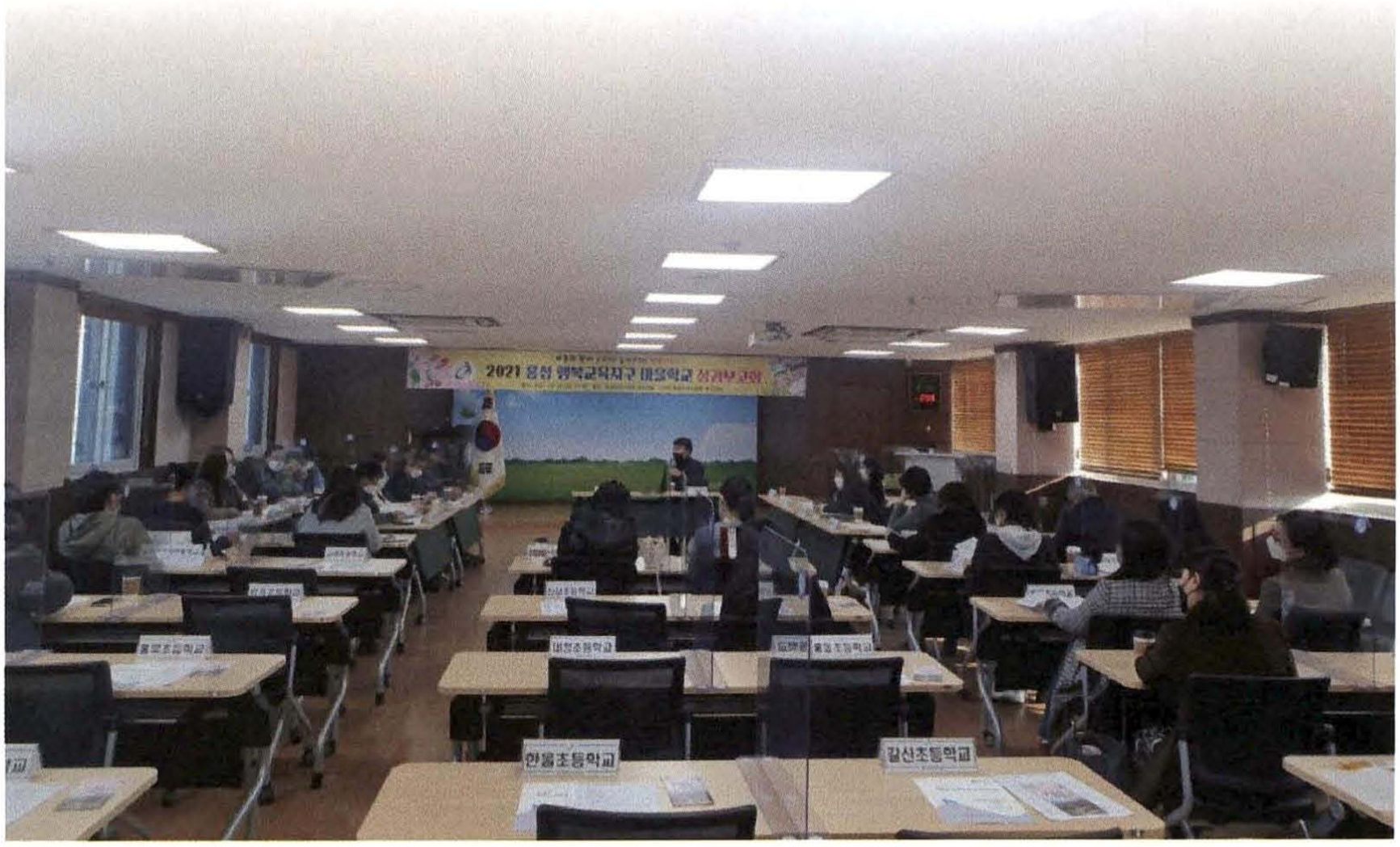
'온 마을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 마을과 함께 꿈꾸자! 놀아보자! 행복하자!

홍성행복교육지구사업 4년 차를 맞아 2021년 12월 10일(금) 홍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고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홍성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운영 중간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중간성과보고회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마을학교별 성과를 담은 마을학교 성과 운영 동영상 및 전시물을 통해 4년간 마을 안에서 이뤄온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마을주민과 관계자들의 피와 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아울러 지역과 학교의 상생발전을 위해 힘써온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를 초빙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 홍성군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 개선사항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희전 홍성군 교육체육과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다가오는 '충남 행복교육지구 제2기 협약'의 기틀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앞으로 마을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집〉 2021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운영
〈홍성신문〉 홍성 마을학교 기획연재기사

고암 이응노 화백 예술정신 정신 잇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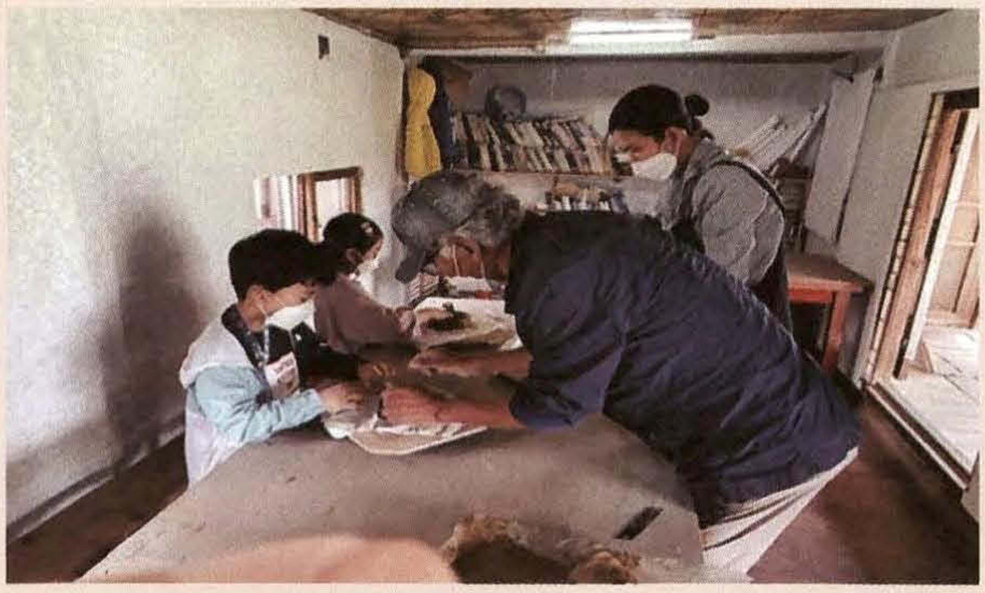
–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는 '소풍 가는 날' 행사의 명칭을 바꿔 '마실 가는 날' 행사를 상·하반기 두 번 운영하고 있다.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마을자원 잘 알기와 신문 만들기' 수업의 일환으로 이응노의 집을 탐방하고 있다.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도자기' 수업 모습.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문인화 사군자 그림 수업 중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 있는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는 이응노마을 '예술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확보된 예술자원을 적극 활용, 공연예술 특화 마을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진행된 마을사업을 통해 예술마을이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이응노마을 곳곳에는 예술전문가들이 정착해 창작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과 이응노의 집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을학교는 2018년 9월 개교해 이응노마을 이장 양주명 운영위원장과 전상진 매니저, 노수경 강사와 18명의 강사가 운영을 맡고 있다. 인적, 물적 자원 모두 확보되어 있는 것이 강점이다.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는 현재 용봉초등학교 70여 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개교 당시에는 용봉초와 홍북초 학생들을 함께 교육했지만, 현재는 용봉초만 맡고 있다. 홍북초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내포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연예술 특화 위해 노력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4시간 가량 용봉산권역한마음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도자기, 문인화, 캘리그라피, 천연염색, 활용공예, 연극과 국악, 유튜브 활용, 신문 교육 등 총 9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아이들에게는 목공 수업이 가장 인기가 많다. 전상진 매니저는 "목공 수업을 마치면 작품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보니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반응이 가장 좋다"고 말하였다.

처음에는 마을에 있는 공방을 활용하기도 하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투어도 했었지만 지금은 규모가 줄어들고 일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용봉산권역한마음센터의 공간만을 활용하고 있다. 이 한마음센터에도 3개의 교육장이 갖춰져 있어 문제없이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다.

수업 중 만든 작품은 매년 열리는 '성과발표회'에 함께 전시된다. 성과발표회는 코로나로 인해 2018년과 2019년에만 진행되었다. 2019년에는 이응노의 집 개관일인 11월 8일에 맞춰 행사가 열렸다. 매년 11월 초에는 마을 '문화예술잔치'도 함께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맞물려 마을주민 모두가 참석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공방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많다 보니 체험교육 행사도 진행해 성과발표회가 한껏 풍성해졌다.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천연염색' 수업 모습.

보다 좋은 마을학교 만들기 위해

전 매니저는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마을학교 수업에 마을주민들이 강사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마을의 전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업을 하는 게 진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수업을 하려면 자격증 등 갖춰야 될 것도 많고, 외부 강사보다 경험이 적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 마을 주민들에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교육도 필요하다. 이것이 마을학교의 본래 목적이고, 마을교육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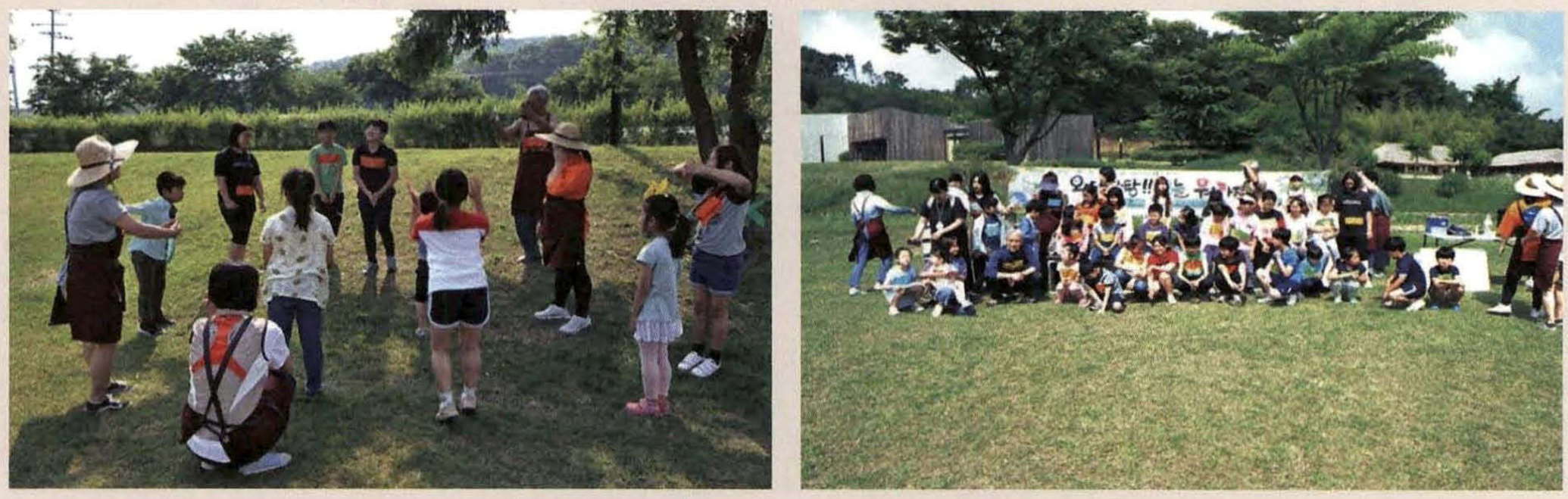
11개의 읍·면 중 9개의 읍·면에만 마을학교가 있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내포신도시에는 홍성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운영하는 마을학교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면보다 규모가 큰 읍 소재지는 마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도 ~~홍북읍을~~ 소재지로 두고 있지만, 내포신도시가 아니라 예전 홍북면에 속한 곳이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마을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전 매니저는 내년에는 홍성읍과 내포신도시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2의 금강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용봉산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용봉산을 활용한 생태교육도 진행해 보고 싶은 바람이다. 또한 딸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관련 수업도 계획하고 있다.

전 매니저는 "우리 마을학교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 정신을 잇고 있다. 예술마을로 만들고 싶은 목표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들을 어떻게 접목시킬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아이들이 훗날 이 마을에서는 그래도 함께 호흡하고 함께하는 마을학교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웃어보였다.

※ 출처 : 〈홍성신문〉, 신혜지 기자 (2021. 12. 04) 기획연재기사



용봉산이응노마을학교 2019년 '소풍 가는 날' 행사 모습.

[2020~2021년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

이응노마을 주민들, 조용하고 차분한 '문화예술잔치' 열어

2020년 '코로나19' 발생과 확산 추세로 마을잔치 열리지 못해
2021년 마을사업 마무리 해, '품앗이 마을축제' 공모 선정되어
참석인원·행사규모 등 줄여 '조용하고 차분하게' 마을잔치 열어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양주명·이하 추진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사업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 11월 13일(토)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잔디밭에서 마을 '문화예술잔치'를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열었다.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는 2015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힘입어 2017년까지 열렸고, 2018, 19년에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빠짐없이 열렸지만,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과 확산 추세에 따라 열리지 못하였다.

이에 추진위에서는 마을사업 마무리 해만큼은 마을잔치 개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 잔치개최를 확정지었다. 여기에 더해 마을잔치가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의 '품앗이 마을축제' 기획 공모에 선정, 11월 13일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마을잔치가 열렸다.





공방교육프로그램 1년간 활동 결실 전시 … 마을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도시홍성 디카시 수상작,
강서한 어반드로잉 작품 등 전시 … 남성중창단 '아르티스' 공연, 신기하고 흥미로운 '마술쇼' 펼쳐져

이날 마을잔치는 참석방문객 인원수를 제한, 최소한 참석을 유도하였다. 참석 못한 마을어르신과 주민들에게는 잔치선물을 준비, 집집마다 방문해 전달하였다. 마을부녀회의 점심식사 대접도 취소하였다.

마을잔치는 공방교육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땀 흘린 1년간의 문화예술 활동의 결실을 모아 전시했으며, 마을 농·특산물 전시 판매도 눈길을 끌었다.


2021 '품앗이' 마을축제
LEEUNGNOVILLAGE
이응노
문 화 예 술 잔 치
2021. 11. 13.(토) 13:00~16:00
이응노의 집
공연 13:00~14:40
13:00~14:00 아르티스 공연
14:00~14:40 마술쇼
전시 13:00~16:00
2021 문화도시홍성 디카시 수상작 전시
이응노마을 공방 전시 판매
마을특산물 판매
강서한 어반드로잉 전시
이응노마을추진위원회
홍성군 문화특화사업단





그리고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의 '문화도시홍성 디카시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강서한 작가의 어반드로잉 작품 등이 전시되었다. 강서한 작가는 이음커뮤니케이션아트 소속으로, 수채화와 어반드로잉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홍성과의 인연은 '문화도시홍성' 작업으로, 광천·홍성 골목 어반드로잉 작업과 '짙은' 갤러리 기획전 등을 하였다.

또한 마을잔치는 매력적인 보이스와 화음이 돋보이는 남성중창단 '아르티스' 공연을 시작으로, 신기하고 재밌는 '2인조 마술쇼'도 진행되어 코로나19로 답답했던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잠시나마 힘든 일상을 놓아둔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였다.





마을주민들, 이응노의 집 생가 초가 '이엉잇기' 작업

마을노인회 중심, 이응노의 집 개관 이래 해마다 생가 초가 '이엉잇기' 작업 공들여

홍천(이응노)마을 노인회가 중심이 되어 2021년 11월 18일(목)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 있는 '이응노 생가' 초가의 '이엉잇기'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마을노인회는 2011년 이응노의 집 개관 이래 매해마다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의 초가 '이엉잇기' 작업에 공들이고 있다.





이날 마을노인회 회원 10여 명은 수북히 쌓인 볏단을 이엉으로 용마루가 되게 만들어 초가에 얹기 작업까지 끝마쳤고, 회원 2~3명은 초가에 올라가 짚을 펴서 정리하고 묶으며, 능숙하게 '이엉잇기'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날 '이엉잇기' 작업에는 마을추진위원회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위원과 이응노의 집 조명보 문화시설팀장, 정보영 학예연구사 등이 참여해 일손을 도왔다.

볏단은 마을에서 구하기가 힘들어 매해 이응노의 집에서 구입, 마을노인회의 도움을 받아 '이엉잇기'를 하고 있다.

마을노인회 한 회원은 "이응노 선생의 생가가 복원되고 초가이엉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이엉잇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안타깝다"며 "마을의 젊은이들이 많이 배워서 이응노 선생 생가 초가지붕만은 계속 우리 마을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였다.







Ⅷ. 이응노의 집, '별의별' 이야기

1. 특집 고암 이응노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

1) 고암 이응노 화백

2) 고암 이응노 화백 연보

2. 이응노의 집 '별의별' 이야기

2-1. 이응노의 집, 전시 이야기

2-2.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이야기

2-3. 이응노의 집, 교육 이야기

2-4. 이응노의 집, 행사·방문·시설 이야기

2-5. 이응노마을·홍성지역과 함께



1. 고암 이응노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

1) 고암顧菴 이응노李應魯 화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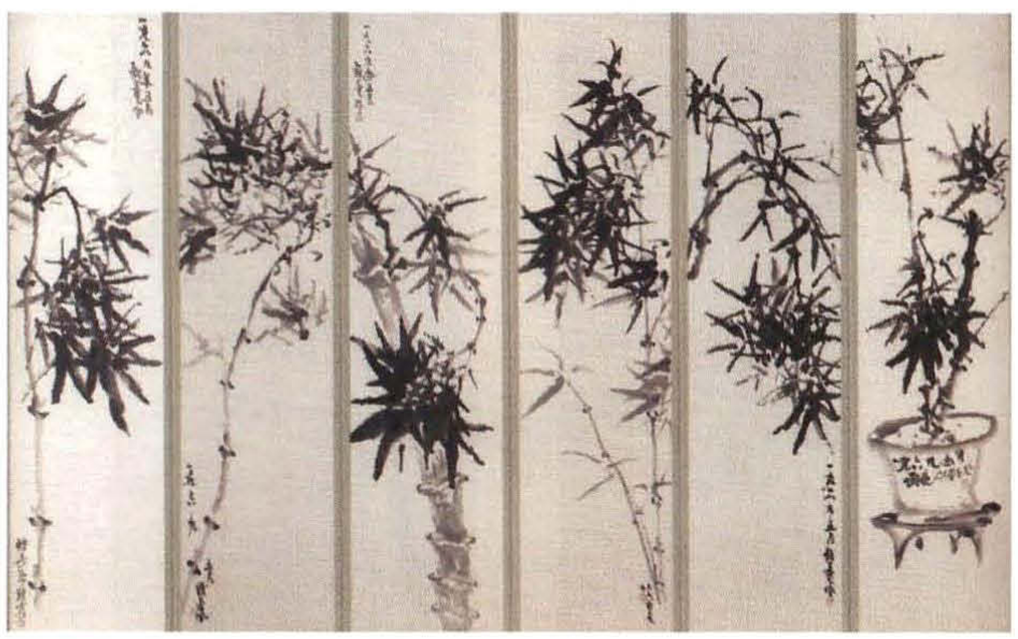
고암顧菴 이응노李應魯(1904~1989)는 1904년 용띠 해 음력 1월, 충청남도 홍주군 홍천면 중리(지금의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에서 5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홍천마을의 훈장 집안이었습니다. 1910년에 보통학교에 입학했지만, 나라가 일본에 강제 병탄되자 한학을 한 부친은 신식 교육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서양식 옷을 입고 학교 다니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어린 이응노는 집안일을 돕고 한학과 서예를 익혔습니다. 집안에서는 '상놈들이나 그리는 그림'이라며 꾸짖었지만, 보통학교의 도화圖畵 수업을 잊지 못해 몰래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 때 고향 마을을 감싸 안은 용봉산과 월산은 때로 외롭고 때로 뜨겁던 소년의 마음을 품어 주었습니다. 그 묵묵한 바위들은 어린 이응노에게 첫 미적 경험이 되었고, 그 한결같은 고향 풍경은 그의 삶 내내 떠받치고 치유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대나무 그림에서 살아 있는 대나무로]

열아홉 청년(1922년)이 된 이응노는 고향을 떠났다. 먼 여정의 시작이었다. 어느 마을 서낭당의 단청이나 장의사의 상여 장식 그리는 일이 상경길의 노잣돈이 되어 주었다. 왕실의 서화 스승을 했을 만큼 이름 높던 해강 김규진을 찾아갔지요. 십수 차례 간청한 끝에 겨우 문하에 들기를 허락받고, 집안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며 밤중에나 그림 그릴 시간을 얻었습니다. 옛 교육 방식에 따라 스승의 그림을 똑같이 본뜨며 문인화법과 서예를 익혀 나갔습니다. 2년여의 노력 끝에 1924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청죽〉으로 입선을 했습니다. 스승은 호 '죽사竹史'를 선물할 만큼 제자를 아꼈고, 고향의 아버지도 아들을 서화가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응노에게도 스승의 품을 떠나 홀로 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표구집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1926년에는 전주에 정착해 '개척사'라는 간판점을 운영하며 묵죽을 쳤습니다. 또 다른 호, '고암顧菴'을 얻은 것도 이 무렵입니다. 몇 년이나 스승의 발치를 따라잡으려 그리던 어느 날 비바람 휘몰아쳐 일렁이는 대숲 앞에서 크게 깨닫습니다. 화본 속의 대나무 그림이 아니라, 비로소 살아 있는 대나무를, 자신만의 대나무를 만 난 것이지요.
청년 이응노는 더 크고 새로운 물결로 나아가기를 마음먹습니다.











[관찰과 사생]

1935년, 일본 동경東京(도쿄)으로 떠난 이응노는 미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설 미술 교육원[가와바타 미술학교, 혼고 회화연구소]나 개인 화실[마츠바야시 케이게츠의 덴코화숙]에서 서양화와 일본화를 배웁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고유한 남화南畵에 서양화의 방법을 섞어 고안한 신남화新南畵 양식이 큰 유행이었습니다. 이응노도 서양의 스케치 풍에 동양화의 필묵 맛이 결합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제 대상을 보고 느낀 것을 그리는 '사생寫生'이 그의 화본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과 조선, 도시와 고향으로 여행을 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붓으로 연필로 스케치를 했습니다. 때로는 먹과 파스텔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발견한 것을 부지런히 그림으로 기록하는 사이 30대의 이응노는 전통적 서화가에서 현대적 동양화가로 변모해 갑니다.

[율동과 흥취]

젊은 이응노가 예민하게 느꼈던 변화의 바람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우리 화단을 흔들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향토주의' 굴레를 벗어나서 전통 서화의 정신을 되찾자는 움직임, 국제화에 맞춰 동양과 서양의 장점을 융합하자는 움직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앵포르멜 경향에 도취되는 움직임 등이 나타납니다. 해방 공간의 혼란과 격변, 곧 이은 전쟁의 상처 또한 이 땅 사람들이 딛고 일어서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이응노는 사생을 유지하되 쾌활한 필묵을 결합한 양식으로 파괴된 도시와 재건의 현장을 포착합니다. 대상을 그리면서도 흥취를 한껏 살려, 가난하고 어둠침침하던 시대에 보기 드물게 생명감 넘치는 율동적인 그림을 개척합니다. 이응노의 집에서는 이 시기의 작품을 다수 선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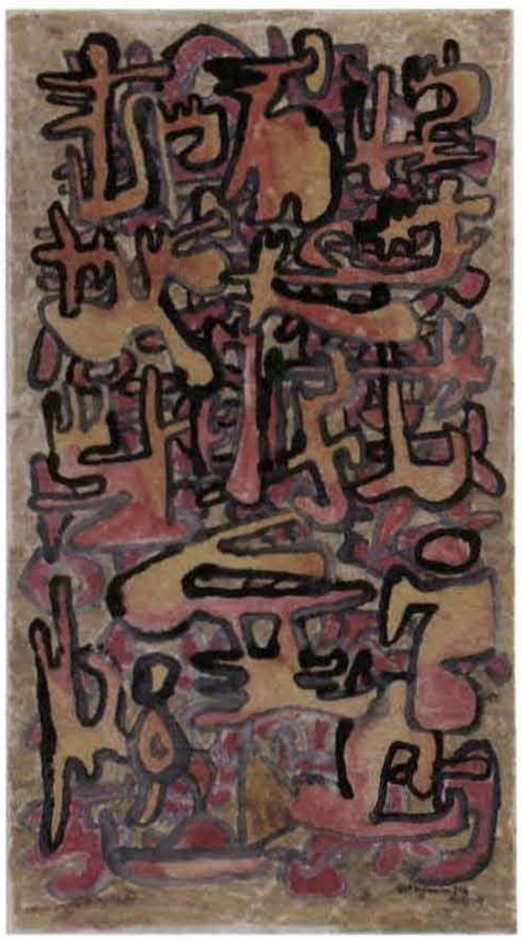
[낯선 재료로 새로운 예술을]

1950년대에 한국의 미술가들이 미국과 유럽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에 접어든 이응노였지만,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독일을 거쳐 1960년 프랑스 파리에 정착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이응노는 폐지나 잡지를 종이죽처럼 짓이겨 붙이기도 했고[파피에 콜레], 수묵의 겹쳐지고 번지는 본연의 성질을 표현[사의적 추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프랑스 화단에서 신선한 반응을 이끌어 냅니다.

이응노는 거의 모든 작품에 〈구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선의 움직임, 먹의 번짐, 문자의 형태와 여백의 관계 등 자신에게 추상 예술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어려서부터 익힌 서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응노는 동양의 필묵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쇠, 타일, 점토, 솜, 양털 등 모든 재료들을 다루었고, 유럽 화단은 이러한 실험을 주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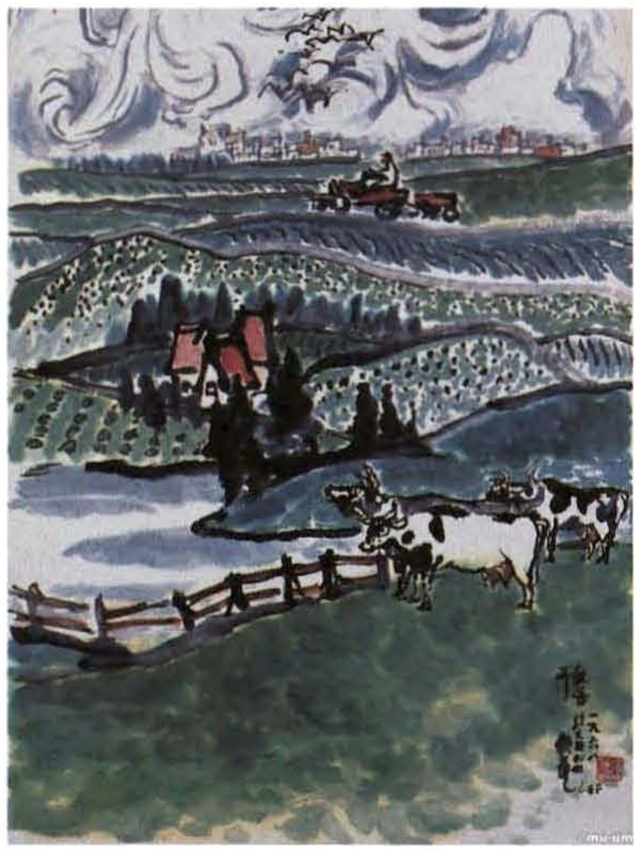




[억압된 몸, 한없는 열정]

1960년대는 유럽 전역에서 이념을 넘어선 자유를 향한 외침 이 터져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두려워한 한국의 독재 정부에서는 이른 바 '동백림 사건'을 조작합니다. 이응노 또한 이에 얽혀 교도소에 유배됩니다. '해외 국위 선양 예술인 초청 전시'를 개최해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되어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억울하고 암울한 감옥 속에서도 이응노는 배움과 창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도소 생활이, 삶과 예술과 세계를 새로이 깨우치는 학교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비좁은 곳에서도 간장이며 김칫국물을 젓가락으로 찍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밥과 폐지를 섞은 종이죽으로 형상을 부지런히 빚었습니다. 출소 직후 치유를 하기 위해 고향 근처 수덕여관에 머무르며 그린 너럭바위의 문자 추상 암각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겪은 세계와 사람들의 모습은, 이응노의 작업을 새로운 주제로 이끌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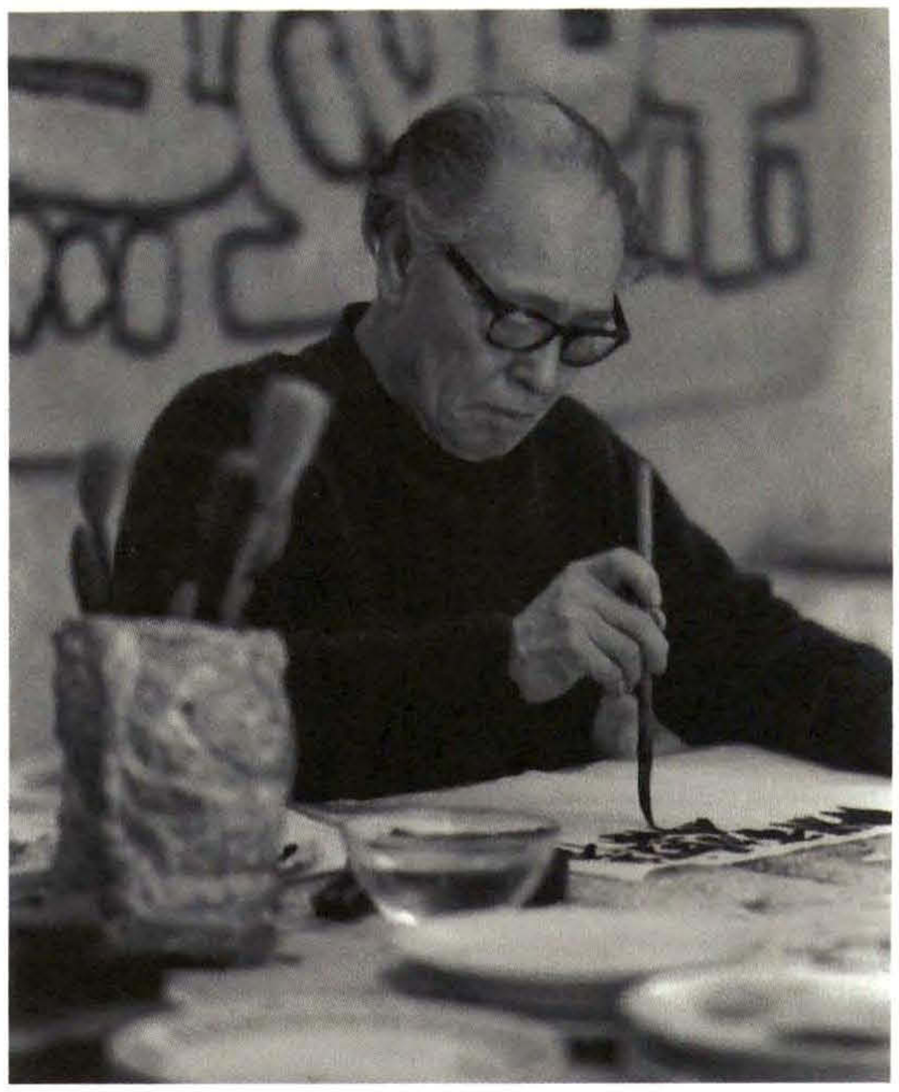




[문자 추상의 세계를 열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응노는 한자나 한글, 세계 곳곳의 여러 고대 문자 형상을 재구성한 작품[서예적 추상]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문자추상'으로 알려진 이 양식은 이응노가 가장 어려서 접한 서예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며, 평생 추구했던 동·서양의 결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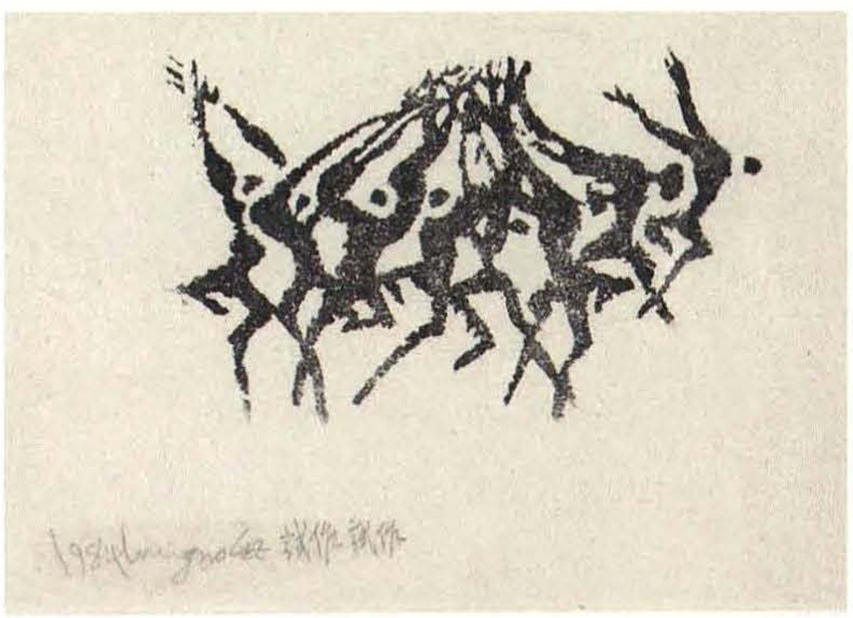
이응노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다양한 재료들로 실험하면서도 서화, 수묵, 풍경, 인물, 사군자 등 자신을 이끌고 깨우치게 했던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창작이라는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수 없었고 그의 활동을 한국에서 언급할 수도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이응노는 파리에 동양미술학교를 설립하고 푸른 눈의 제자들에게 한국의 서예와 수묵, 산수를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한국사람, 홍성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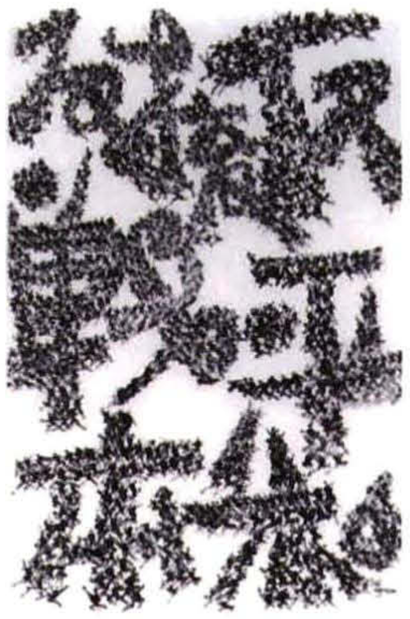
[나의 그림은 평화]

말년에 이응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그리고, 만들고 새겼습니다. 화폭 안의 사람들은 인종, 민족, 빈부, 최향, 남녀, 노소, 표정을 도무지 구별할 필요조차 없는, 그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서 있거나 뛰고 걷거나 춤추고 행진합니다. 모여 큰 형상을 만들었다가, 화폭 밖으로 퍼집니다. 사람인가 했더니 잎이거나 획인 듯도 하고, 바위에 새긴 고대의 형상인 듯, 추상 미술인 듯도 합니다. 그의 붓 은 댓잎에서 시작하여 풍경으로, 서체로, 추상으로, 그리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긴 여정을 돌았습니다. 그가 이승에서 이룬 예술 세계의 대단원입니다.

마침내 한국 땅에서도 이응노를 찾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9년 1월, 그가 애타게 그리던 고국에서의 전시회가 기획되었습니다. 고암은 혼신을 다해 화해와 용서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살아 국경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응노는 유해로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파리 시립 페르라세즈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1. 고암 이응노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

2) 고암顧菴 이응노李應魯 화백 연보年譜

1904년(01세)

• 충청남도 홍주군 홍천면 중리(지금의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에서 5남 1녀의 넷째아들로 태어나다. 아버지 이근상, 어머니 김해 김씨.

1910년(07세)

• 서당 훈장인 부친으로부터 한문과 서사를 익히다가, 홍성보통학교에 입학하다.

1919(16세)

• 부모가 정해준 대로 경기도 이천 태생인 한월희와 결혼하다.

1920(17세)

• 부친과 평소 친교가 있던 충남 당진의 서화가 염재念齋 송태회宋泰會 문하에서 몇 달 간 문인화의 기초를 배우다.

1922(19세)

• 서울로 가다. 서화가 해강海崗 김규진金奎鎭 문하에서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사군자 등 전통 문인화와 서예를 익히다. 전통 대나무 화법에 일가를 이뤄, 스승 해강에게서 '죽사竹史'라는 첫 호를 받다.

1924(21세)

•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 사군자부에 〈청죽〉을 출품해 첫 입선하다.

1927(24세)

• 두 번째 부인으로 대전 태생의 박귀희와 결혼하다.

1928(25세)

• 공주, 대전 등지에서 활동하다 전주 중앙동에 정착해 '개척사' 라는 간판집을 운영하다. 전주에서 살던 시기에 묵죽을 쳐서 스승 해강에게 보이고, 난·죽·매 등을 연구하는 한편, 해마다 조선미술전람회(조선미전)에 출품하다.

1931(28세)

• 제10회 조선미전 사군자부에 출품한 〈청죽〉이 특선, 〈풍죽〉이 입선하다. 이후 1934년까지 연속 입선.

1933(30세)

• 한학자 규원葵園 정병조鄭丙朝에게 호 '고암顧庵'을 새로 얻다.

1935(32세)

• 일본 도쿄로 건너가다. 일본인 화가 마츠바야시 케이게츠[松林桂月]가 운영한 덴코화숙[天香畵塾], 혼고양화연구소[本鄕洋畵研究所],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畵學校]에서 서양화와 동양화를 두루 배우다. 같은 시기에 요미우리 신문배급소에서 일하다.

1945(42세)

• 태평양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 해방 직전에 귀국하다. 예산 수덕사 밑 수덕여관을 인수하고 부인 박귀희와 머물다. 해방 후 동생 이흥노에게 수덕여관 운영을 맡기고 서울로 올라가 고암화숙을 개설하고 조선서화동연회, 단구미술원 설립에 참여하다. 이 시기 일본화풍을 극복하고 우리 화맥을 계승해 전통을 재창조한다는 당면 과제를 내세우다.

1948(45세)

• 홍익대학관(지금의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주임 교수로 부임하다. 같은 시기 여러 곳에서 개인전, 초대전, 단체전을 열다.

1948(45세)

• 서울 태생의 박인경을 만나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여 같이 살다. 양자로 융세를 들이다.

1949(46세)

• 6·25한국전쟁이 일어나 부인 박귀희 사이에 양자로 삼은 아들 문세가 의용군으로 끌려가다. 남은 가족을 이끌고 수덕여관에 피난하다.

1954(51세)

• 서라벌예술대학(지금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 출강하다.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의 폐단을 비판, 초대작가를 거부하다.

1956(53세)

• 저서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문화교육출판사)을 출간하다.

1957(54세)

• 뉴욕 월드하우스 갤러리에서 주최한 한국현대미술전에 〈출범〉과 〈산〉을 출품하다. 이 두 작품을 미국 록펠러재단에서 구입해 뉴욕현대미술관(MoMA)에 기증하다.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 프랑스 지부장 자크 라세뉴(Jacques Lassaigne)가 파리 이응노 개인전을 주선해 초청받다.

1958(55세)

• 3월에 도불渡佛 기념 개인전(중앙공보관, 서울)을 개최하고, 12월 26일에 유럽으로 출국하다.

1959(56세)

•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 쾰른 등에 1년간 체류하며 순회전을 열다.

1960(57세)

• 프랑스로 건너와 파리에 정착하다. 폴 파케티 갤러리(Galerie Paul Facchetti) 단체전에 참여하고 전속계약을 맺다. 궁핍 속에서 버려진 잡지와 폐품을 주워 콜라주(collage) 기법의 작품을 제작하며 프랑스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다.

1962(59세)

• 서울 중앙공보관과 파리 폴 파케티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다.

1963(60세)

• 스위스 라 쇼드퐁 시립미술관(Musée des Beaux-Arts de La Chauxde-Fonds)에서 초대전을 갖다.

1964(61세)

• 스위스 오베르니에의 누마가 갤러리(Galerie Numaga)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다. 11월, 프랑스와 중국, 일본, 한국의 문화계 인사들의 후원 속에서 파리 세르뉘쉬 미술관(Musée Cernuschi)에 파리동양미술학교(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를 설립하다.

1965(62세)

•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8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받다.

1966(63세)

• 덴마크 코펜하겐 국립미술관(Statens Museum for Kunst)에서 개인전이 열리다.

1967(64세)

• 의용군으로 끌려간 아들 소식을 들으러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대사관에 여러 차례 방문하다. 7월, '동백림 사건'(동베를린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형무소, 대전·안양 교도소에 수감되다. 옥중에서도 휴지와 밥을 이용해서 계속 작품을 만들다.

1969(66세)

• 3월, 형집행 정지 가석방으로 옥중작 300여 점을 가지고 나와 수덕여관에서 다시 머물다. 요양 중 너럭바위에 문자 추상 암각화를 새기다. 5월, 프랑스로 돌아가다.

1970(67세)

• 프랑스 르 바르카레스(Le Barcarès)의 사브르미술관(Le Musée des Sables, Allée des Arts) 개관에 맞추어 야외 조각을 제작하다. [작품은 영구 설치되었다.]

1972(69세)

• 프랑스 국립가구연구원(Mobilier national)에서 타피스트리 원형(밑그림)을 의뢰하고 매입하다.

1973(70세)

• 피에르 자키아르(Pierre Jaquillard)와 『서(書, Ides et Calendes)』를 공동 출간하다.

1976(73세)

• 파리에 고려화랑을 개관하다. 이후 고려화랑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열다.

1977(74세)

• 윤정희·백건우 부부 납치 미수 사건에 연루되다.

1978(75세)

• 스위스 라 쇼드퐁 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다. 파리에서 동양화 교습서 『수묵담채화법(L'art de Peindre a l'encre de Chine)』을 출간하다.

1980(77세)

• 한국에서 발발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럽 언론을 통해 접하고 〈군상〉 시리즈를 제작하다.

1982(79세)

•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공장의 의뢰로 작품을 제작하다. 프랑스 국립가구연구원에 타피스트리 도안이 소장되다.

1983(80세)

• 10월, 프랑스에 귀화하다. [1985년 국적 상실 신고]

1985(82세)

• 일본 요코하마의 가나가와 현민홀 갤러리[神奈川県民ホールギャ ラリー], 도쿄의 갤러리 산요[ギャラリーさんよう] 등에서 이응노·박인경 부부 순회전이 개최되다. 더불어 일본에서 이응노·박인경·도미야마 다에코[富山妙子] 대담집 『이응노—서울, 파리, 동경(그림과 민족에 대한 사색)』(기록사, 도쿄)를 출간하다.

1986(83세)

•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나라ウリナラ』(16mm, 40분)가 일본에서 제작되다. 북한을 방문,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개인전이 열리다.

1988(85세)

• 동백림 사건(동베를린간첩단사건)의 혐의가 풀림에 따라 국내 미술계 인사들이 초청 전시를 준비하다.

1989(86세)

• 서울 호암미술관에서 전시가 개최되다. 1월 10일, 귀국을 앞두고 파리 아비센느병원(Hôpital Avicenne)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하다. 파리 시립 페르 라세즈 묘지(Cimetiére du Père Lachaise)에 안장되다.

2004

• 〈다시 고암을 생각한다: 고암 이응노 탄생 100주년 기념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2004년 11월 3일~2005년 2월 13일).

2007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7번지에 '이응노미술관' 개관.

2011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61-7번지 일대에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개관.

2012

• 고암미술상[홍성군 제정, '이응노의 집' 시행, 격년제] 제정
• 고암미술상 제1회 수상자 오윤석.

2014

• 고암미술상 제2회 수상자 배종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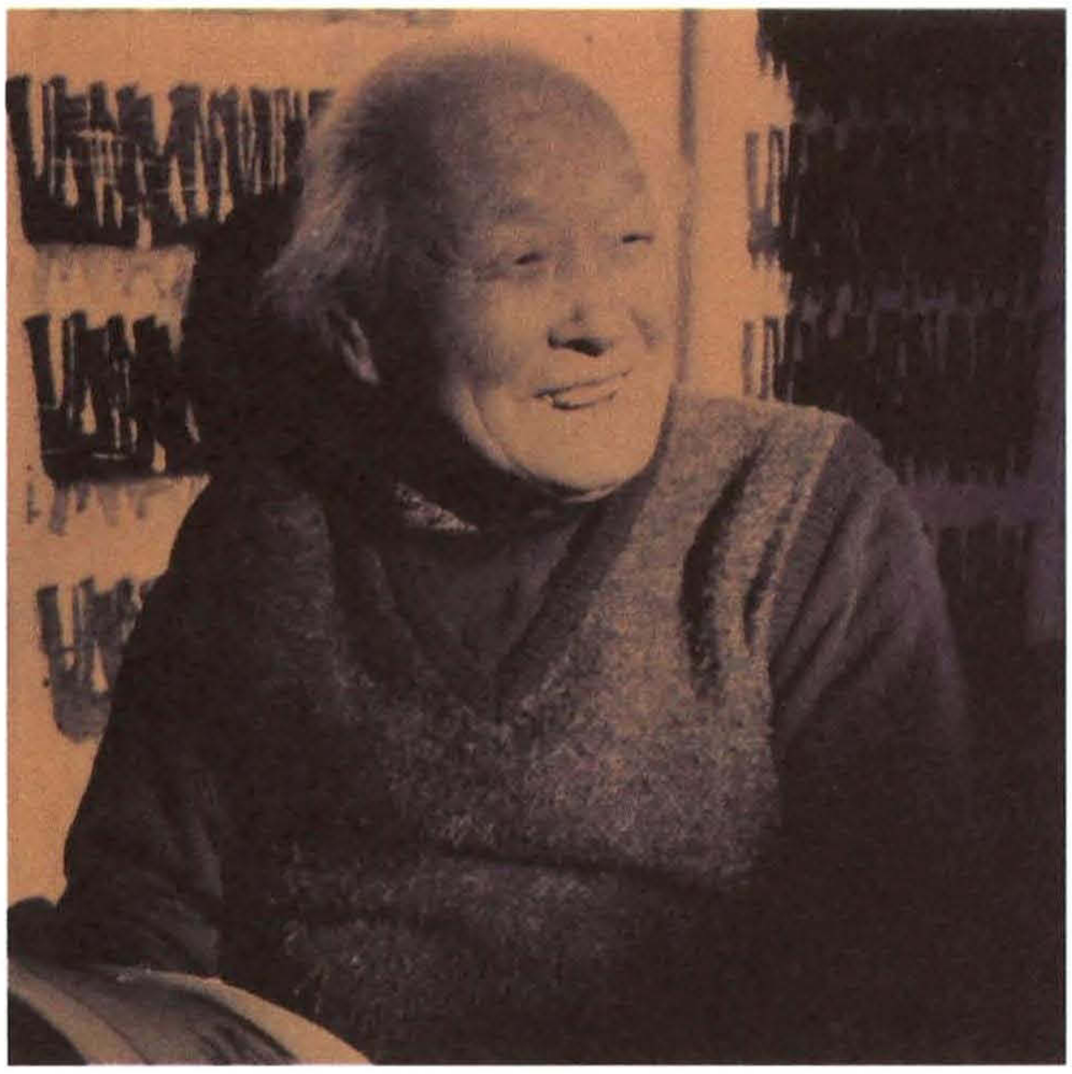
• 고암미술상 제3회 수상자 박은태.

2018

• 고암미술상 제4회 수상자 정정엽.

2020

• 고암미술상 제5회 수상자 이진경















2. 이응노의 집 '별의별' 이야기

"이응노의 집 잘 오셨습니다. 홍성은 '이응노' 다시 고향으로 맞이합니다"

'이응노'의 고향, 지금의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

이곳, 충남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은 이응노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응노는 열아홉 살 때(1922년)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자라며 그림에 뜻을 품었습니다. 수려한 용봉산과 월산에 싸인 평온한 마을 풍경은 소년을 예술로 이끌어 준 스승이자 벗이었습니다. 평생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새로운 예술을 탐구하는 동안 그에게 고향은 언제나 작품의 원천이었습니다. 유럽 예술 무대에서 동양 정신으로 높이 인정받았지만, 암울한 시대에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끝내 타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과 주변은 건축가 조성룡이 정성을 다해 지어 2011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동양의 전통 시詩·서書·화畵와 서양 현대미술을 아울러 낸 활달한 예술세계를 살필 수 있도록 컬렉션을 꾸준히 키워 왔습니다. 이응노가 생전에 쓰던 유품은 우리를 예술가의 삶 속으로 한걸음 더 이끕니다. 옛 모습의 시골길은 초가와 대숲, 밭과 연못, 다리를 건너 이웃 마을로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이응노의 마음 깊이 든든한 뿌리가 되어 준 풍경 속에서, 그가 작품으로 표출한 인류 평화와 화해의 염원을 다음 세대에 이어 주는 터전이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20세기를 치열하게 살고 간 한 예술가, 한 인간의 삶과 정신의 궤적 속으로 고즈넉하게 들어오십시오.

굽고 비탈져, 어쩌면 조금 거칠 지도 모를 이 길에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묵향의 여운, 고향의 풍경 한 자락 마음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았던 곳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삼백 리 떨어져 있는 홍성에서도 몇십 리 더 떨어진 고요하고 평온한 작은 마을이다. 우리 집 남쪽으로는 월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고, 북쪽에는 용봉산이라고 불리는 바위투성이의 봉우리가 있었다.

아침저녁으로, 그리고 계절에 따라, 이 산들의 모습은 그 이름처럼 보였다. 즉, 월산이 아름답고 수수하고 우아하여 한마디로 여인의 자태를 보여 준다면, 용봉산은 강인하고 위엄 있게 우뚝 솟아 있었다. 선인들은 어찌 이리도 잘 어울리는 이름을 지었을까.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감탄을 하게 된다.

산들은 저마다 꼭 알맞은 높이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어린 시절 내게 이 산들은 실제보다도 훨씬 커 보였다. 살아가면서 산들은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올빼미 바위, 새색시 바위, 늙은이 바위, 거울 바위

처럼 우리는 바윗돌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붙여 주곤 했다. 그것은 단지 생김새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의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내 마음은 마치 늙으신 부모님이나 형제 혹은 친구에게 끌리듯이 그 바위들 에게 끌렸다.

나는 열아홉 살(1922년)까지 이러한 자연 속에서 자라났다.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그런 나를 도와주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나를 방해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했지만, 나는 남몰래 가벼운 마음으로 줄곧 그리고 또 그렸다. 땅 위에, 나뭇가지로 혹은 조약돌로…. 그러면서 나는 외로 움을 잊었다. | 아득히 지나가 버린 시절이 이렇게 또렷이 떠오르다니! 오늘도 내 손 은 붓을 잡고 내 눈은 당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지금도 그 때처럼, 그린다는 것으로 나는 여전히 행복하다."

– 고암 이응노, 파케티 갤러리 개인전 도록 서문, 1971

이응노의 여정, 홍성에서 서울로, 도쿄로, 다시 서울로, 그리고 파리로

이응노는 1904년 홍성에서 태어나 1989년 파리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온 삶을 그림으로 채운 예술가입니다.

21세인 1924년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처음 입선한 이후 일제 강점기에 이 전람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일본을 거쳐 해방 후에는 새로 개설된 홍익대학교 미술 대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50대의 나이에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응노는 한국의 전통서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유럽 예술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학교를 세우고 서구 젊은이들에게 동양예술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남긴 3만여 점의 작품은 전통서화부터 현대추상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합니다.

이응노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의 치욕, 해방의 기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향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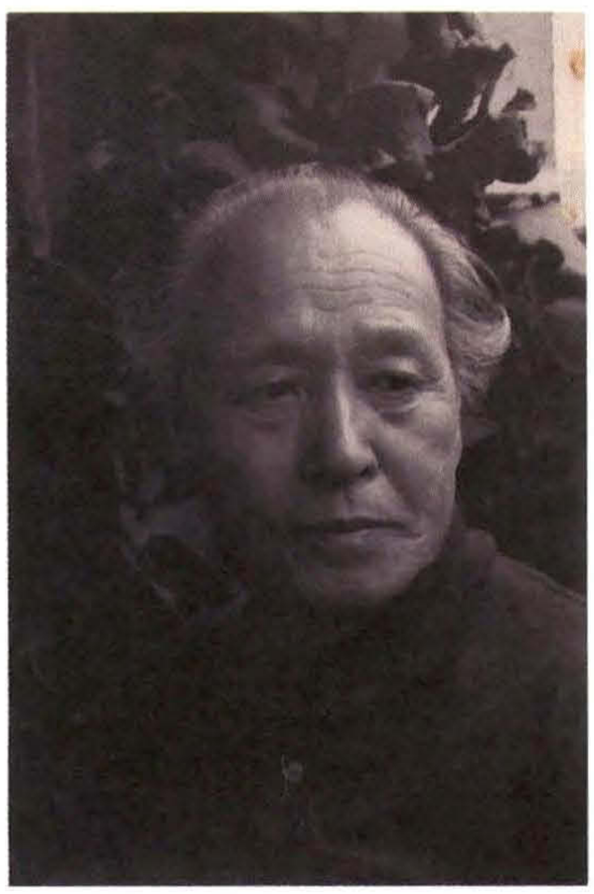
이응노는 우리 근현대사의 비극을 삶 속에서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1960년대에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러야 했고, 다시는 그리던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열아홉 나이에 상경해서 도쿄로, 다시 서울로, 또 파리로, 쉼 없이 이어지는 긴 역정 속에서 예술 세계와 함께 한 인간의 의식 세계가 확장해 가는 여정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응노는 끊임없이 낯선 것을 받아들여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마침내는 인종 남녀노소 취향까지 융화시켜 냈습니다. 안주安住는 그의 삶과 화폭에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과감한 걸음마다 든든한 뿌리가 되어 주었던 고향 홍성에서 이 모든 것들이 녹아들어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2011년 개관 후 10년 기억과 기록

"화가의 꿈이 시작된 터.
희망과 열정으로 꿈을 키우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 자리.
평화 통일과 인류 화해의 염원,
그의 예술혼이 함께 하는 곳."

이응노의 집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 2011년 개관하면서 생가 앞에 고암 이응노 화백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글이다.





이응노의 집, 이응노의 어린 시절과 예술혼이 켜켜이 쌓은 곳

'이응노의 집'은 이응노가 태어난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에 자리한다. 그가 열아홉 살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그림에 뜻을 품었던 이 땅은 수려한 용봉산과 월산, 옛 마을과 논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대지 2만596㎡, 건축 1002㎡로 전시 홀, 북 카페, 다목적실 등 전시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기념 공간과 초가로 지은 생가, 야외 전시장, 연밭, 산책로 등을 갖춰 2011년 11월에 개관하였다.

이응노라는 한 예술가를 기리는 기념미술관으로 시작해, 차츰 입주 작가 창작스튜디오와 예술문화자료실 등 시설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장하며 새로운 예술을 품는 마을, 마을과 소통하는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응노 생가'가 있다. 그는 1940년대에 고향집 스케치를 여러 장 남겼다. 그 고향집 그림들과, 자신의 옛집에 대해 "수양버들이 늘어진 사이로 옛집의 기역자 모습이 보이고"(「우짖는 솔바람 / 시원한 내 고장 충남 덕숭산」, 1958년)라고 서술한 글 등을 참고해 2010년에 현재의 안채와 헛간채를 새로 지었다.

이응노의 집 10년, 다양한 기획 및 전시행사로 방문객 맞아

이응노의 집은 언제 방문하더라도, 늘 이응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그의 예술세계에 한층 깊고 풍성하게 다가가도록 상설전시와 더불어 해마다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2012년부터 그를 선양하고자 '고암미술상'을 제정해 시행하고, 격년제로 그의 예술 정신을 동시대에 새로이 이어내는 한국의 현대미술가 1명을 시상하고, 그 이듬해 수상작가의 작품세계를 펼쳐 보이는 〈고암미술상 수상 작가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다.

그가 화가의 꿈을 키운 이 뜰에서 해마다 5월 둘째 주 토요일에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가 열린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면 한 해 동안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산 젊은 작가들의 〈입주작가 개인전〉, 〈입주작가 지역연계협력전〉도 개최한다.

이응노의 집과 이응노마을, 협력과 상생으로 예술마을 조성해

또한 '이응노의 집'은 자연과 어우러진 미술관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일상의 경험을 재발견하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와 연계한 어린이교육프로그램부터 미술관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청소년교육프로그램, 성인대상 인문예술기행까지, 생동감 있는 예술 현장경험과 대상에 맞춘 눈높이 교육을 지향한다.

이응노의 집 10년, 철거예정인 홍성읍 남문동 한옥을 2016년 그대로 옮겨와 한옥 창작스튜디오로 재생했고, 낡은 축사(우사)를 재생해 2017년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2018년 이태호 초대 명예관장의 도서 1만 권을 기증 받고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예술문화자료실'의 문을 열었다.

이응노의 집은 북 카페에서 마을주민들이 직접 덖은 연잎차를 긴 여운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연꽃 만발한 연밭과 논밭두렁길을 산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응노의 집은 2015년부터 홍천(이응노)마을과의 소통을 통해 예술마을을 지향하고 이응노의 예술혼을 확장하는데 진심을 다하고 있다. 이응노의 집은 원로 건축가 조성룡의 마음이 담겼다.





"고암 이응노 선생이 그리던 고향 마을,
고암 선생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오고 지나 갈 여러분의 마음이 어우러져,
새로운 예술의 켜, 새로운 역사의 켜가 이 땅에서 다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2-1 이응노의 집, 전시 이야기

– 2018년 이응노의 집 전시

• 기증작 중심, '이응노의 꿈, 평화를 그리다' 소장품展
(2018년 05월 12일~08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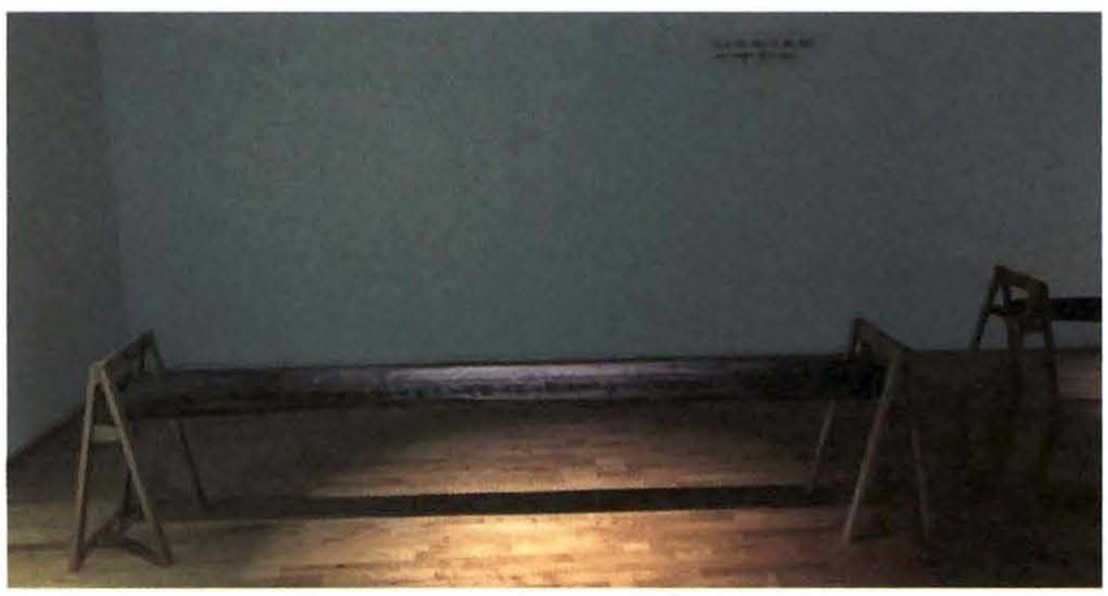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 기증 소장품 통해 '이응노' 예술의 꿈 그려나가

세계로 나아가 인류보편의 '평화' 메시지 전달 … 개관 당시 기증 작품 통해 미술관 위상 높여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기증 작품을 중심으로 '이응노의 꿈, 평화를 그리다' 소장품展을 2018년 5월 12일(토)부터 개막, 전시하고 있다.

2,3,4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이응노의 꿈, 평화를 그리다' 소장품展은 전통 문인화에서 출발해 서구 현대미술과 접속한 후 변화하는 화풍을 시대 양식별로 전개하였다. 또 생가의 장소성을 확인할 수 있는 스케치 작품과 서예, 그리고 생가 대들보를 포함하고 있다.





생가 대들보는 2009년 생가 복원 당시 이곳에서 살았던 고암 이응노의 친척 이승호 씨가 기증한 것으로, 상량문에는 '광무光武사년 경자更子 삼월(1900년 3월 15일)'에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집을 지은 후 4년 후 이응노가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대들보는 이응노가 19세(1921년)에 생가를 떠나 서울로 간 이후, 아버지 이근상은 1925년 덕산면 낙상리(지금은 예산군)로 전적했고, 타인 소유인 생가를 증축(소화昭和 십삼년, 1938년 7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들보이다.

고향 홍성에서 시작된 화가의 꿈이 세계로 나아가 인류보편의 염원인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미를 장식한 고암 이응노의 예술을 크게 구분해 놓았다.

특히, 이번 전시는 기증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011년 11월 이응노의 집이 개관할 때 기증자들이 주

옥같은 작품을 채워줘, 성공적인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에 넉넉지 못한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고암 이응노의 예술정신에 공감하는 기증의 후의를 기억하고자 기증 작품 중심으로 전시를 연 것.







이응노의 집 작품 기증은 부인 박인경 여사와 손자손녀 이종진·이경인, 친척 이승호, 박명자(갤러리현대 대표), 이호재(가나아트센터 대표), 박우홍(동산방화랑 대표), 노승진(노화랑 대표), 우찬규(학고재 갤러리 대표), 공상구(공아트스페이스 대표), 박경임(청관재컬렉션 대표), 이준호(학교법인 혜전학원 이사장), 이상렬(청운대학교 총장), 이환근(대륭그룹 회장), 조윤호(스킨푸드 대표), 유홍준(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이태호(명지대학교 초빙교수) 등으로, 이들의 기증이 있었기에 이응노의 집 7년여 간의 성공적인 전시가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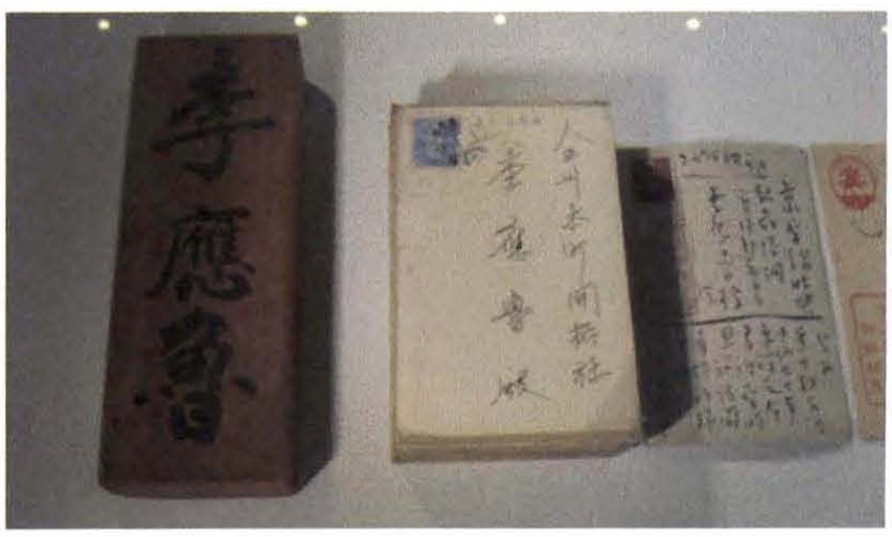
이밖에도 고암 이응노의 생애를 담은 연표와 아카이브, 생가주변을 그린 작품 등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기증 작품 중심 '이응노의 꿈, 평화를그리다' 소장품展은 2018년 8월 19일(일)까지 열린다.

"예술이란 자신의 뿌리를 나타내는 작업입니다."
– 이응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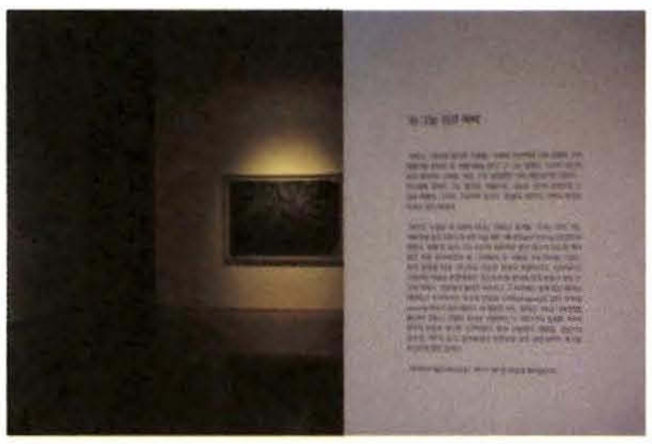
• 도불 60주년 기념 이응노·박인경展, '사람·길'
(2018년 10월 06일~2019년 05월 26일)

삶 속의 예술 살고, 삶 속의 예술 지킨 '사람의 길' 보여준다

이응노의 집, 도불 60주년 기념 이응노·박인경展 '사람·길', 2018년 10월 6일 개막 전시
이번 전시 2019년 5월 26일까지 '이응노·박인경'의 '사람'의 삶 담은 예술세계 보여줘
이응노의 집 관계자, "이번 전시 통해 고암 이응노 화백 선양사업 탄력 받을 것 기대"

"난 한국사람이야. 난 홍성사람이야. 조국 땅에 돌아가 묻히고 싶은 사람이야."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고암 이응노 화백 도불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로, 이응노·박인경 '사람·길'展을 2018년 10월 6일(토)부터 개막 후 이응노·박인경 두 화백의 '사람'의 삶을 담은 추상적 예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8년은 두 화백이 동반의 길을 걸으면서, 1958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간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마련한 '사람·길'展은 2011년 11월 이응노의 집 개관 이후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전시 프로젝트이다.

특히, 두 화백이 발을 맞춰 걸어간 이 땅과 먼 이국땅의 예술적 발자취는 '길' 위에 펼쳐놓고, 두 화백이 자유와 평화에 바탕을 두고, 우리네 '사람'들의 어울림을 담아낸 예술적 성취는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해 보고 느껴야 할 대목이다

이번 전시의 책임기획을 맡아 1년여 동안 동분서주한 박응주 미술평론가는 "이응노·박인경의 1958년은 '한국미술 사랑하기'의 역설적 숙명을 따라갔던 그 길이었다"며 "이로써 우리는 이응노의 가장 어둡기에 가장 찬란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결정체와 박인경의 가장 어둡기에 가장 밝은 '백년 후의 자연의 찬가'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시는 이응노·박인경 도불 60주년을 기념하며, 전통회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발견함을써 민족미술을 새로운 표현으로 국제화한 위업을 이룬 두 사람의 예술적 반려의 궤적을 그리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응노, '사람'과 '사랑' 그리고 '살림'과 '죽임'의 감옥으로부터 저항하는 몸짓 담아
박인경, 목 놓아 불러보지 못한 사랑, '나무숲이 곧 사람의 숲'인 '사랑가' 함께 놓아
이응노·박인경, '두 사람의 길'은 '사람'의 길, 사람에게로 난 창조와 생육, 살림의 길

전시는 1~4전시실 및 기획전시실, 중앙홀 연결공간까지 이응노의 집 전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응노의 작품 29점과 박인경의 작품 41점이 전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응노의 여러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1전시실 '이응노의 집'에서는 〈한국미술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죄. 차라리 먹墨빛의 仁愛. 그리하여 추방!〉으로 이응노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결정체와 박인경의 '백년 후의 자연의 찬가'를 이제야 어머니의 집에서 화답하도록 풀어놓았다.

중앙홀 회랑 '도입부(인트로)'에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그림〉으로, 이응노의 '사람'이고 '사랑'이고 '살림'이고 '죽임'의 감옥에 저항하는 몸짓을 담았다. 그 곁에 박인경의 여태껏 제대로 목 놓아 불러보지 못한 사랑, 나무숲이 곧 사람의 숲인 '사랑가'를 함께 놓았다. 여기서는 자연철학자 이응노·박인경을 만날 수 있다.

2전시실 '1959년 파리'에서는 〈흉중胸中에 뜻을 쓰다〉로, 풍죽風竹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이응노의 자작自覺, '현실이 포함되지 않은 예술은 없다'며 일제치하의 굴욕, 동족상잔 전쟁의 참상, 남북분단의 쓰라림 등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던 예술가의 삶. 그리고 1958년의 파리행. 여기에서는 반추상적 사의적 표현인 '문자추상文字抽象'의 혁신적 발견,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서예적 추상'이라는 형식의 도달, 당당한 20세기의 전위적 현대동양화 수립이라는 위업에 손색없는 이응노의 폭발적인 예술혼을 더듬어간다.

3전시실 〈흰 그늘·검은 여백〉에서는 한국 여성미술 1세대 박인경. 1949년 이응노의 '옹기장수'나 '공사장 인부'를 먼발치에서 스케치하던 자생적 인문성의 힘으로, 박인경은 1960년대 서정과 색채를 강조, 격정적이고 주관적인 호소력을 갖는 앵포르멜적 혹은 자유분방한 붓놀림과 거친 터치를 특징으로 하는 타시즘적이고 내면적인 자연의 충일한 생명감 가득 찬 회화일 때도, 1980년대 언어가 풍경을 이룰 때도, 2000년대 들어 절제된 자연의 표현일 때도 자신의 몸이 자연의 화선지가 되도록 한 절대주의자의 고독으로 일관하였다. 이렇게 박인경은 이응노와 예술적 동반의 길을 걷는다.

4전시실 〈서書, 새기다·쓰다·치다·기르다〉에서는 이응노·박인경 두 화백이 삶 속에서 예술을 찾고, 삶 속에서 예술을 지킨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두 사람의 길'을 생각한다. 그것은 '사람'의 길, 사람에게로 난 길이다.

기획전시실 〈사람·길〉에서는 그림을 통해 말(언어)을 보아야 한다. 박인경의 키 큰 나무들 사이와 줄기들 사이로 관통하는 바람을 보고, 그 생의 태반에서 이응노의 인간 군상群像이 내지르는 환희의 노래가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 이응노가 '형形'을 그렸다면, 박인경은 어쩌면 '지地'를 그렸던 듯하다. 환한 밤풍경이다. 창조의 시간, 생육의 시간, 살림의 기운이다.





이응노, '사람 그 자체 몰두'해 동양화의 필묵 바탕으로 현대적 추상 도달한 한국미술사의 거장

고암 이응노 화백은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 출신으로, 동양 수묵을 바탕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의 사의寫意에서 사생寫生의 풍경화를 거쳐, 사의와 사생을 접목해 해방 공간에서 조선 민중을 화폭에 담았다.

이어 그는 1958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추상抽象 실험에 몰두하였다. 특히 '문자추상'이라고 잘 알려진 추상 실험은 동·서양 원시기호·문자에서 한글·한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추상화하면서 결국 인간탐구에 몰두래 수많은 작품을 발표한다. 그는 말년에 더욱 더 '사의적寫意的 추상抽象'으로 인간탐구에 몰두해 '군상'을 통한 화합과 평화, 자유를 꿈꾸는 마음을 담아 세상 모든 사람이 어울려 한 바탕 춤추는 모습을 호탕하게 그렸다.

한 마디로 그는 '사람 그 자체'에 몰두해 동양화의 필묵을 바탕으로, 현대적 추상에 도달한 한국미술사의 거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필재 홍성군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문화시설 팀장은 "고암 이응노 화백의 지난한 삶과 예술세계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현재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고암선양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응노의 집에서는 이번 이응노·박인경 '사람·길'展이 열리는 기간 중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이응노·박인경 학술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이응노·박인경 '사람·길'展이 이응노의 예술적 뿌리가 홍성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고암선양사업에도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이응노·박인경 '사람·길'展은 2019년 5월 26(일)까지 열린다.

"난 한국 사람이야. 난 충남 홍성사람이야. 조국 땅에 돌아가 묻히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살았던 곳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삼백 리 떨어져 있는 홍성에서도 몇십 리 더 떨어진 고요하고 평온한 작은 마을이다. 우리 집 남쪽으로는 월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고, 북쪽에는 용봉산이라고 불리는 바위투성이의 봉우리가 있었다.

아침저녁으로, 그리고 계절에 따라, 이 산들의 모습은 그 이름처럼 보였다. 즉, 월산이 아름답고 수수하고 우아하여 한마디로 여인의 자태를 보여 준다면, 용봉산은 강인하고 위엄 있게 우뚝 솟아 있었다. 선인들은 어찌 이리도 잘 어울리는 이름을 지었을까.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감탄을 하게 된다. 산들은 저마다 꼭 알맞은 높이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어린 시절 내게 이 산들은 실체보다도 훨씬 커 보였다. 살아가면서 산들은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올빼미 바위, 새색시 바위, 늙은이 바위, 거울 바위처럼 우리는 바윗돌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불러 주곤 했다.

그것은 단지 생김새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의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내 마음은 마치 늙으신 부모님이나 형제 혹은 친구에게 끌리듯이 그 바위들에게 끌렸다.

나는 열일곱 살까지 이러한 자연 속에서 자라났다.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그런 나를 도와주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나를 방해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했지만, 나는 남몰래 가벼운 마음으로 줄곧 그리고 또 그렸다. 땅 위에, 담벼락에, 눈 위에, 검게 그을린 내 살갗에… 손가락으로, 나뭇가지로 혹은 조약돌로… 그러면서 나는 외로움을 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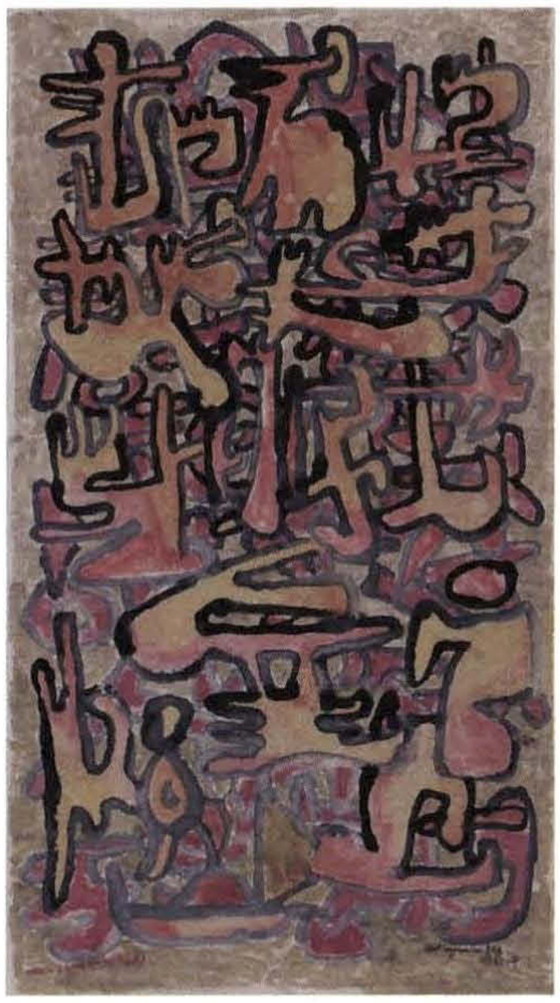
아득히 지나가 버린 시절이 이렇게 또렷이 떠오르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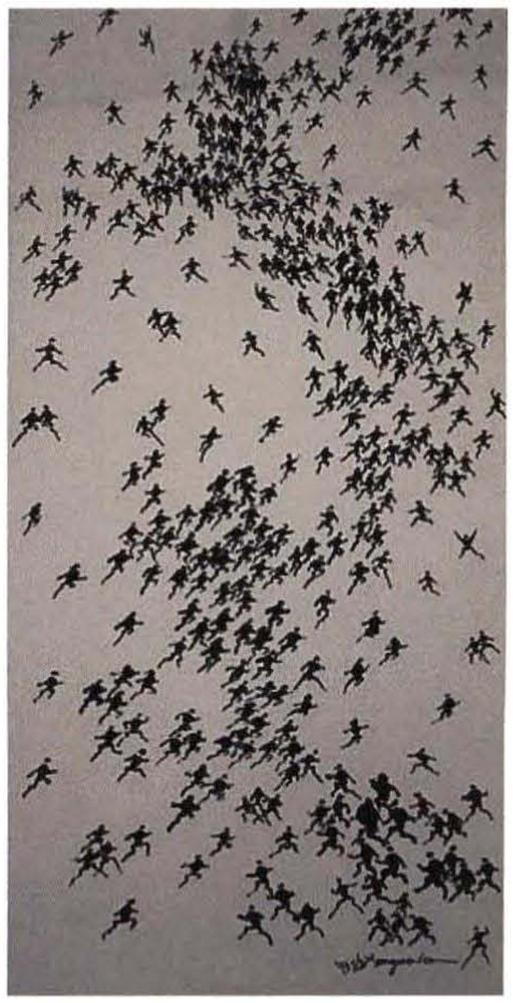
오늘도 내 손은 붓을 잡고 내 눈은 당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지금도 그때처럼, 그린다는 것으로 나는 여전히 행복하다.

– 고암 이응노 화백, 파리 파게티 갤러리(Galerie Paul Facchetti) 개인전 도록 서문, 19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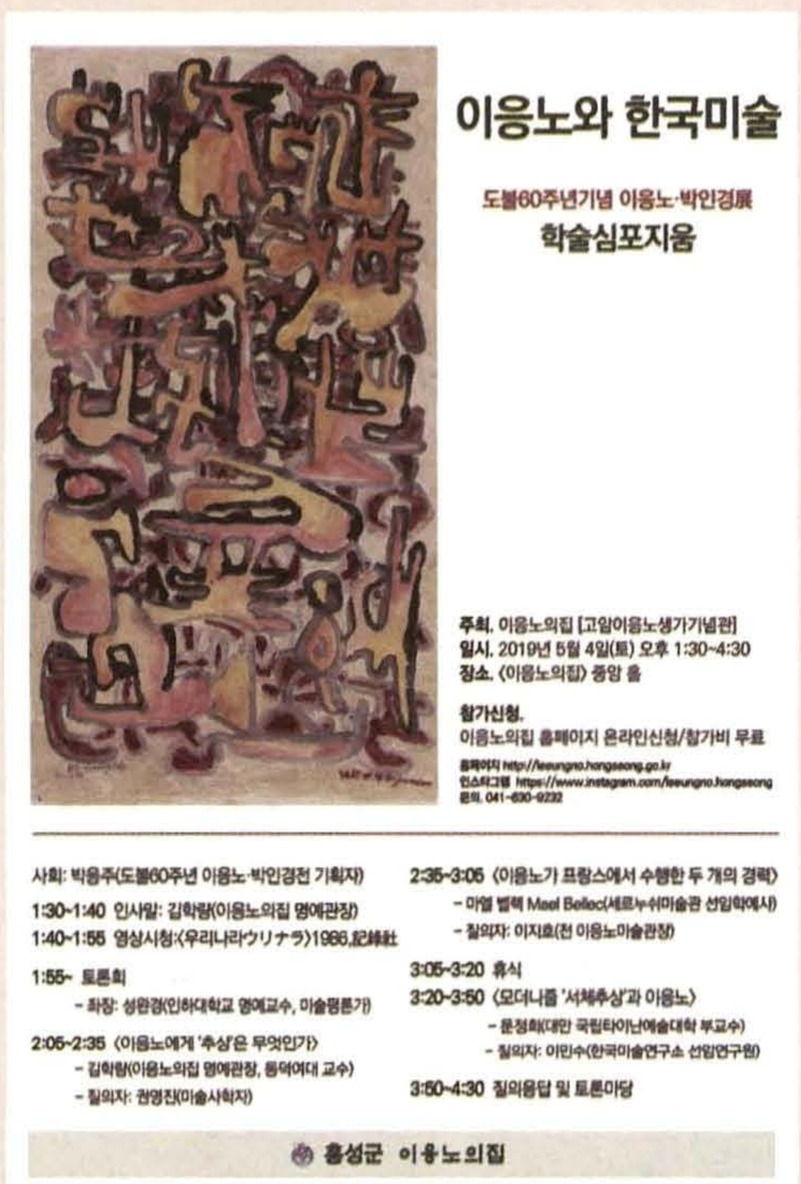




도불 60주년 기념 이응노·박인경 '사람·길'展 연계 〈이응노와 한국미술〉 학술심포지움

도불 60주년 이응노가 향한 '사람'의 길 따라 예술가의 실존 밝혀

이응노의 집, 한국·동아시아·프랑스에서 활동한 이응노 예술세계와 정신 조명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2018년 5월 4일(토) 오후 1시 30분 도불 60주년 이응노·박인경 '사람과 길'展의 연계행사인 '이응노와 한국미술'이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번 학술심포지움 좌장은 성완경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미술평론가)가 맡았으며, 주제와 방향은 한국에서 동아시아, 프랑스에서의 활동을 통한 고암 이응노의 구체적인 예술가로서의 실존을 조명하였다.

김학량 이응노의 집 명예관장(동덕여자대학교 교수)가 첫 번째로 나서 '이응노에게 추상이란 무엇인가'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응노에게는 다른 식민지 세대 화가들과는 달리 동서·고금, 전통·현대 같은 것을 구분하는 일이 무의미해졌다. 그는 동서·고금, 전통·현대를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오로지 현재를 성찰하고 표현하는 문화적 자원으로 삼았다. 그가 귀띔한 '자연물질과의 융화'라는 말은 재료·매체·기법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대립을 넘나들며 화해를 꾀하고자 하는 삶의 노선이나 예술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응노의 추상은, 또는 이응노에게 추상은 말하는 매체이다. 그것은 세계와 씩씩하게 대화하는 일이며, 잠자던 무언가를 깨워 숨을 불어넣는 일이다.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그의 체질에서 추상은 다만 유희의 장임이 분명하다."

프랑스 파리의 동양미술관인 세르뉘시미술관 마엘벨렉 선임학예사는 '이응노가 프랑스에서 수행한 두 개의 경력'으로 두 번째 주제발제를 하였다.

"이응노는 1958년 프랑스 파리 도착은 유럽에 온 이후, 유럽의 일부 지배적인 경향과 일치하는 마티에르에 대해 새로운 모색이 시도한다. 그는 자신의 조국과 독일에서 쌓은 다양한 인맥을 통해 화가로서의 전략을 선택하면서 보다 큰 자율성을 누리게 된다. 이응노는 공식적인 예술가의 위상을 부여한 성공가도는 독일에서 수행한 시연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1964년 파리동양미술학교의 설립이라는 또 다른 경력과 나란히 펼쳐졌다. 이리하여 그가 지닌 아우라는 1970년대 말부터 그의 명성을 강화시키면서 일종의 지지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식적인 경력을 쌓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동시에 망명한 아시아 예술가로서의 위상을 통해 그는 본래 극

동과 결부되는 '평온과 정신성을 지닌 현자'이자 '필묵의 대가'라는 이미지를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이어 마지막으로 문정희 국립타이난 예술대학 부교수가 '모더니즘 서체추상과 이응노' 주제로 이응노 작품의 근원과 확장에 대한 독창적 조형예술론을 펼쳤다.

"1960년대 초반 파리 개인전에서 보여준 이응노의 콜라주는 서구 앵포르멜 형식의 현실적 실험과 전통서예의 예서와 해서의 결구를 가지고 조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응노는 1920년대 죽사 시절의 행초서의 필묵을 바탕으로 대나무 그림을 그렸고, 이후 전주 시절 예서와 해서에 새로운 서예풍을 수립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1960년대 콜라주 작품에서 서화가 융합된 서체의 골격은 강골한 용묵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응노의 서예추상에 드러난 사의적인 맥락은 유럽에서 독특한 화풍을 수립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학술심포지움 진행을 맡은 이응노의 집 학술연구 박응주 책임연구원·기획자는 "그간 미술사적 틀 속의 이응노 연구를 그의 신념과 행동을 주목하는 역사적 실존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미술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심포지움 좌장을 맡은 성완경 미술평론가와 질의자 또한 "미술학계의 저명한 전문가들로서 이번 심포지움 내용과 토론을 통해 이응노 예술세계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넓히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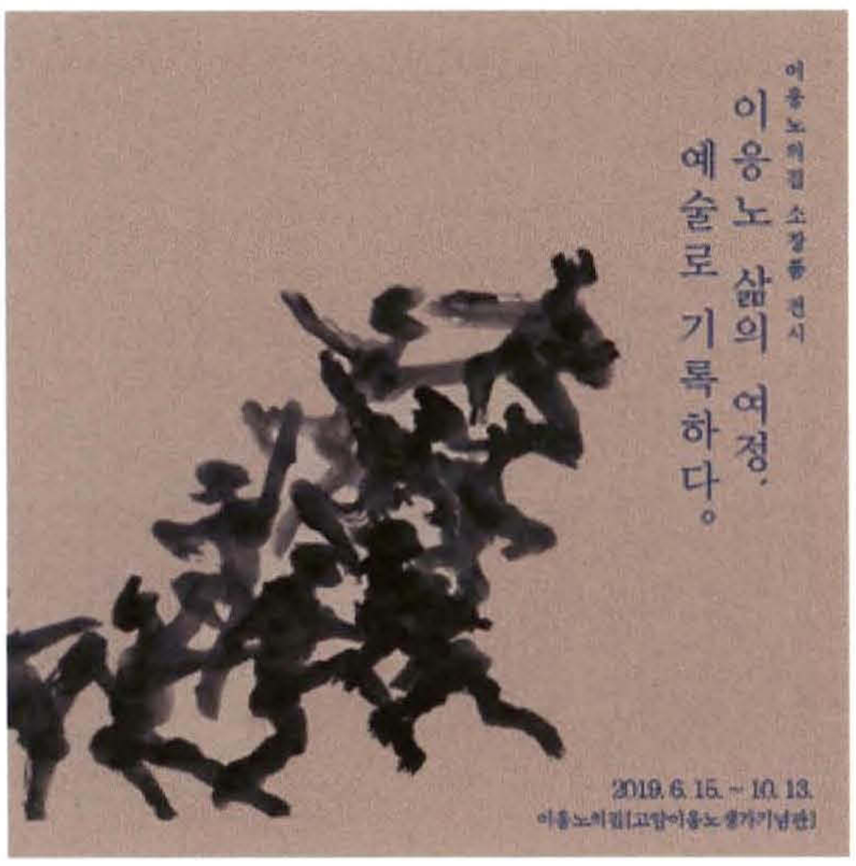
2-1 이응노의 집, 전시 이야기

– 2019년 이응노의 집 전시

- '이응노 삶의 여정, 예술로 기록하다' 소장품展
  (2019년 06월 15일~11월 14일)

이응노의 집, '이응노' 삶의 여정 예술로 기록하다

홍성서 태어나 경성과 동경 그리고 파리에 이르기까지,
장소성·시간성 따라 변주하는 예술 … 도전·실험정신 이어지는 예술성 느껴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이응노 삶의 여정, 예술로 기록하다' 소장품展을 2019년 6월 15일(토) 개막한 후 홍성에서 태어나 경성과 동경 그리고 파리에 이르기까지, 이응노 삶의 여정에 따른 예술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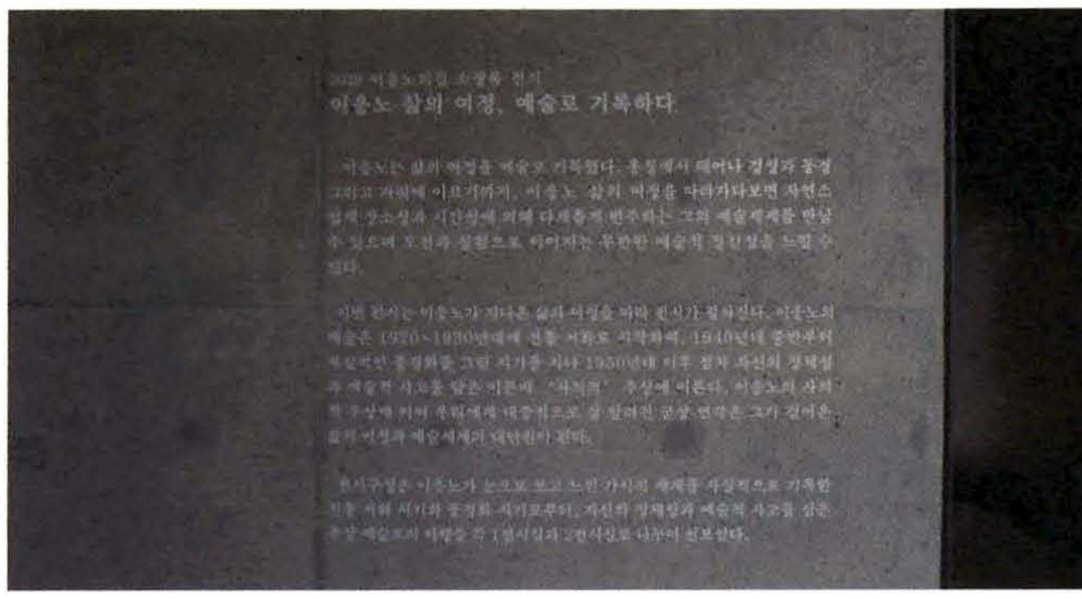
이응노 삶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소성과 시간성에 의해 다채롭게 변주하는 그의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으며 도전과 실험으로 이어지는 무한한 예술적 정신성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이응노의 집 소장품과 자료위주로 전시가 기획되었으며, 그가 지나온 삶의 여정을 따라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그의 예술은 1920~1930년대에 전통서화로 시작해, 1940년대 중반부터 사실적인 풍경화를 그린 시기를 지나 1950년대 이후 점차 자신의 정체성과 예술적 사고를 담은 이른바 '사의적寫意的' 추상에 이른다.

이응노의 사의적 추상에 이어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군상群像' 연작은 그가 걸어온 삶의 여정과 예술세계의 대단원이 된다. 전시는 '기록의 시작'과 '사의적 기록' 두 가지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1전시실 '기록의 시작'은 그가 눈으로 보고 느낀 가시적 세계를 사실적으로 기록한 전통서화 시기와 풍경화 시기의 삶과 예술을 살펴볼 수 있으며, 2전시실 '사의적 기록'에서는 전통서화와 풍경화시기를 지나, 자신의 정체성과 예술적 사고를 심은 추상예술로의 이행, 그리고 이를 통해 전근대를 지나 현대와 소통하고 동양화의 현대적 조형까지 이룬 이응노의 예술을 마주할 수 있다.





1전시실 '기록의 시작: 홍성에서 경성과 동경 그리고 다시 경성'

이응노 예술은 그가 태어나 자란 홍성에서 시작한다. 보통학교 재학 시절, 그는 그림 수업시간을 가장 좋아했고 종이와 땅 위, 담벼락, 눈 위에 그림을 그리며 화가의 꿈을 키웠다. 1923년 열 아홉 살이 된 그는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향을 떠나 상경해 마침내 서화가書畵家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1930년대까지 서화가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예술적 사고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했으며 이는 그의 예술세계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 식민지 사회 속 미술의 경향이 서화書畵에서 서양화西洋畵의 추세로 흐르면서, 그 또한 변화의 물결을 따라 동경으로 건너간다. 1936년 동경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서양화와 일본화를 배우게 되었고, 초기 작품인 전통 서화 양식에서 자연과 사람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풍경화 양식으로 이행한다. 이는 전통서화 시기와 더불어 그의 예술세계 또 다른 지층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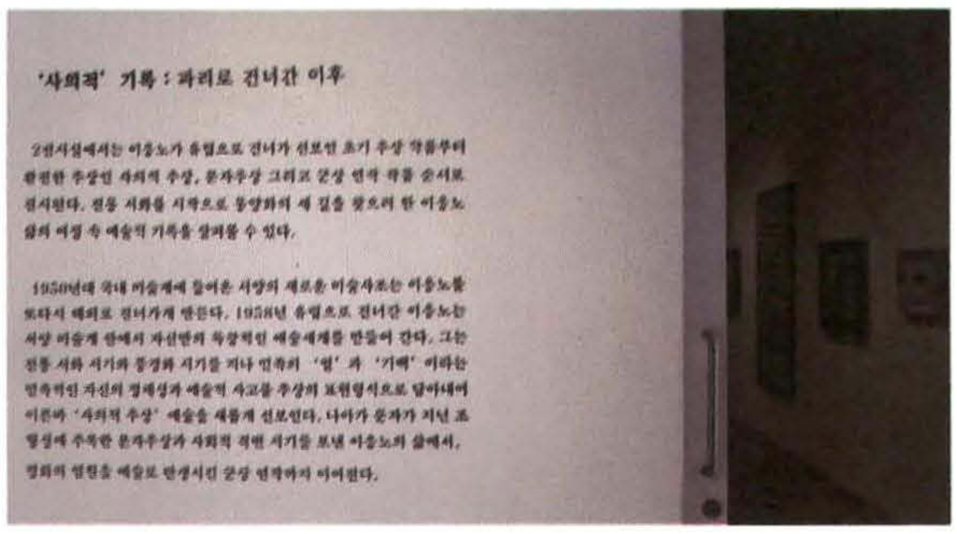
1전시실에서는 홍성에서부터 경성 그리고 동경 다시 경성으로 이동하는 그의 삶의 여정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는 예술로서의 기록을 작품과 유품·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중앙복도 '평화의 염원: 동베를린간첩단사건'

1967년 7월 8일, 이응노는 '동베를린간첩단사건' 이른바 '동백림사건'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다. 이로 인해 그는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다. 한국의 이념적 대립이 만들어낸 비극적 사건이며, 이때 그의 가슴 한켠에는 평화라는 소망이 맺힌다. 이는 훗날 그의 군상 연작으로 이어진다.

이번 아카이브 전시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여러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그의 격동적인 삶을 기념관 내부 건축으로 표현한 중앙복도에 대입해, 우리에게 한국사회의 흐름과 맞물려 흐르는 이응노 삶의 여정을 간접적으로 소개한다.





2전시실 '사의적 기록: 파리로 건너간 이후'

1950년대 국내 미술계에 들어온 서양의 새로운 미술사조는 이응노를 또다시 해외로 건너가게 만든다. 1958년 유럽으로 건너간 그는 서양미술계 안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만들어 간다. 그는 전통서화시기와 풍경화시기를 지나 민족의 '얼'과 '기백'이라는 민족적인 자신의 정체성과 예술적 사고를 추상의 표현형식으로 담아내어 이른바 '사의적 추상' 예술을 새롭게 선보인다. 나아가 문자가 지닌 조형성에 주목한 문자추상과 사회적 격변 시기를 보낸 그의 삶에서, 평화의 염원을 예술로 탄생시킨 군상 연작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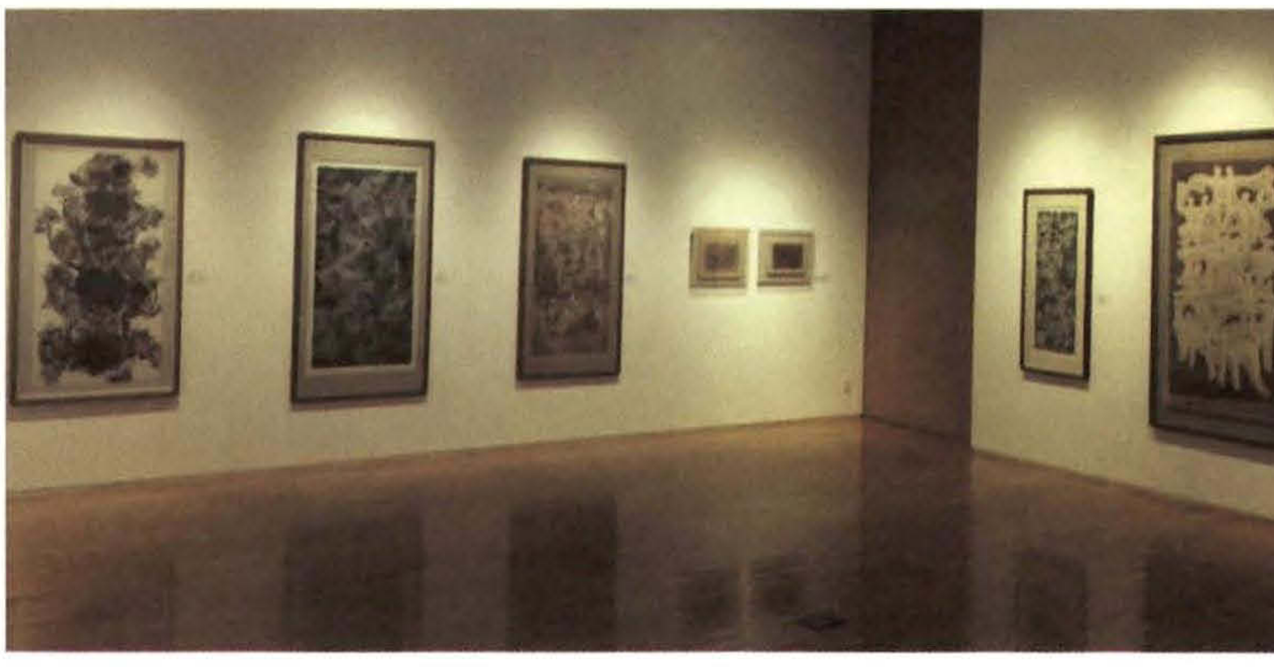
2전시실에서는 이응노가 유럽으로 건너가 선보인 초기 추상 작품부터 완전한 추상인 사의적 추상, 문자추상 그리고 군상 연작 작품 순서로 전시된다. 전통 서화를 시작으로 동양화의 새 길을 찾으려 한 이응노 삶의 여정 속 예술적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이응노의 집 노태훈 전시코디네이터는 "이응노는 삶을 예술로 기록했다. 그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응노의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서화를 시작으로 동양화의 새 길을 찾으려 한 이응노의 삶의 여정 속 예술적 기록을 직접 체험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이번 '이응노 삶의 여정, 예술로 기록하다' 소장품展은 11월 14일(목)까지 열린다.

"내 그림은 모두 제목을 '평화'라고 붙이고 싶어요.
모두 서로 손잡고 같은 율동으로 공생공존을 말하는 민중그림 아닙니까?
그런 민중의 삶이 곧 평화지 뭐…."

– 이응노, 파케티 갤러리 개인전 도록 서문 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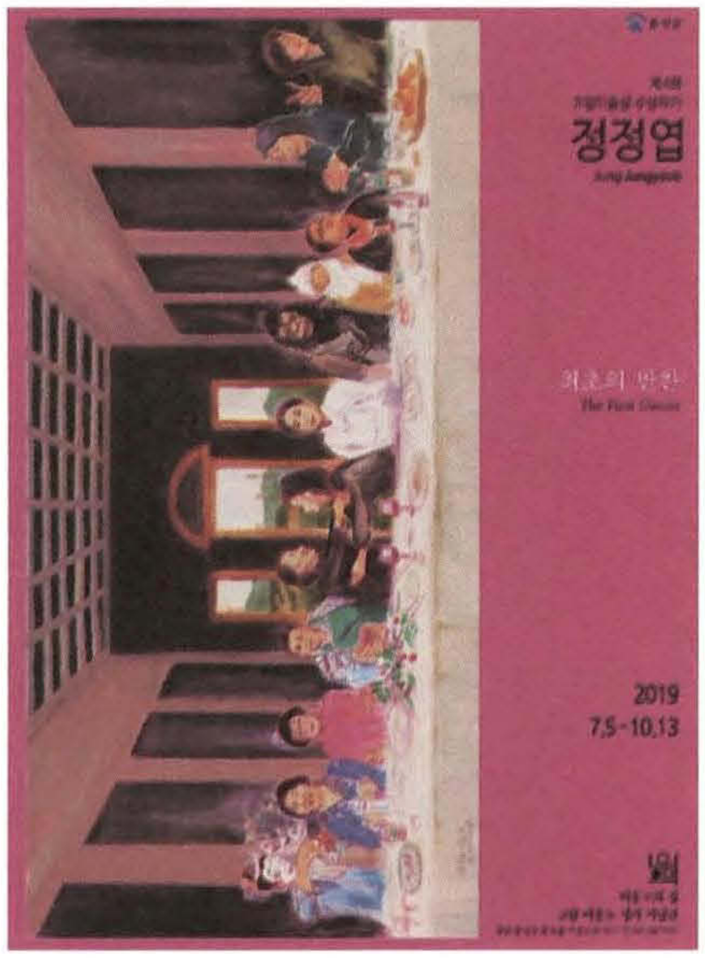




• 제4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정정엽의 '최초의 만찬'展
(2019년 07월 05일~10월 13일)

이응노 예술정신 기리는 제4회 고암미술상 '정정엽 작가' 선정·시상

개인·여성·예술가로서 정체성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작품세계 호평



2018년 8월,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제4회 고암미술상에 정정엽 작가를 선정하며 진정한 예술의 힘을 보여줄 또 한 명의 예술가를 잉태시켰다.

이응노의 집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제4회 고암미술상 작가 공모를 시행, 최종 190명의 포트폴리오를 접수했고,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참가자들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8월 14일(화) 최열·김종길·이선영(이상 미술평론가), 이준희(월간미술 편집장), 정현(인하대학교 교수, 이론비평) 등 한국미술계의 유명한 평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심사위원들은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분석한 후 2차에 걸친 심층검토와 공개토론, 작가세계 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작가로 '정정엽(57·회화)' 작가를 선정하였다.

정 작가는 심사위원 총평에서 "정정엽 작가는 올해 '부드러운 권력'展(청주시립미술관), '나의 작업실 변천사'(이상원 미술관)와 같은 주요 기획전과 개인전을 치르며 거대담론과 미시담론을 아우르는 예술적 실천을 보여주는 작가"라는 평과 함께 "고암 이응노 선생의 든든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와 미학을 두루 아우르는 작업세계를 총체적으로 펼쳐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9월 4일(화) 열린 홍성군청 대강당 직원모임에서 이뤄졌으며, 정 작가는 시상금 2000만 원과 함께 2019년 7월 수상작가 전시를 이응노의 집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4회 고암미술상을 선정·시상한 정정엽 작가는 1985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졸업 전후부터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한 작가로 한국사회의 모순이 분출하는 현장에서 공동, 개인 작업을 진행해오며 한국 최초의 여성주의 미술을 천작한 작가다. 최근까지 12회의 개인전시를 개최하고 미술관과 갤러리의 주요기획전에 활발히 초대되는 등 한국미술계의 주요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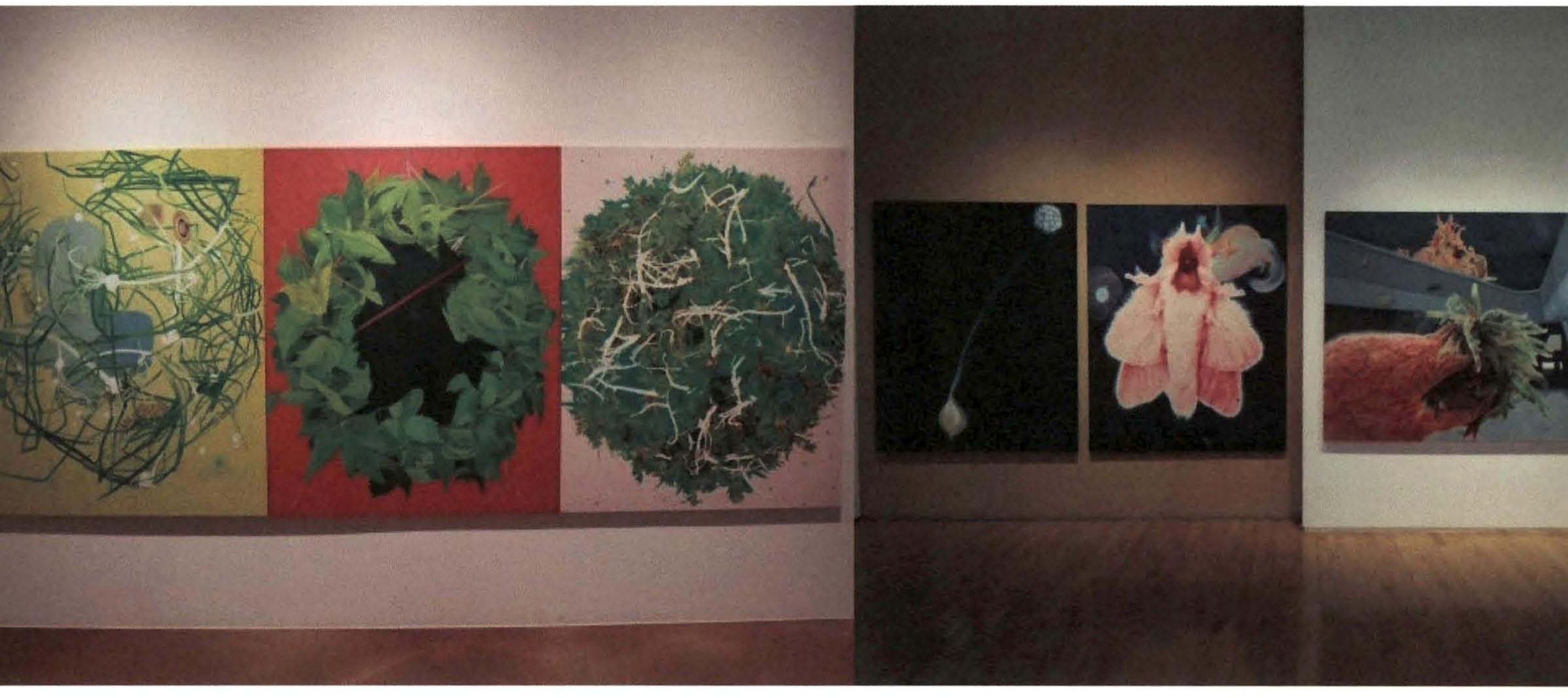
대표작은 생명과 생태, 여성과 다중多衆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상징을 가진 '팥 이미지'로, 추상적 환원이 아니라, 많은 상징가象徵

價를 가지는 다산성이 있는 소재이자 주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감자의 싹이나 벌레 등의 이미지에서 출발해 죽음을 포함한 삶으로 작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응노의 집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의 인원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며 한국미술계에서 고암미술상의 관심과 위상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었다"며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을 빛내는 또 한 명의 훌륭한 작가를 선정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이응노의 집에서는 2012년부터 동서미술의 융합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작가정신이 돋보이는 현대미술의 거장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정신을 이어가기위해 '고암미술상'을 제정해 다양한 작가들을 발굴해 오고 있다.





이응노의 집, 제4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정정엽 '최초의 만찬'展

개인·공동작업 통해 예술적 실천 보여줘 … 소외된 대상에게 선사하는 특별한 전시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제4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정정엽의 '최초의 만찬'展을 7월 5일(금)부터 개막하였다.

7월 12일(금) 열린 개막식에는 수상작가을 비롯해 동료작가와 비평가, 김학량 이응노의 집 명예관장, 류철하 대전이응노미술관장, 김홍희 백남준문화재단 이사장 등 한국 미술계 주요 인사들과 김석환 군수와 홍성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의 참석해 수상작가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정엽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 사회의 모순이 분출하는 현장에서 개인작업과 공동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미시담론과 거대담론을 아우르는 예술적 실천을 보여주는 작가로 평가되면서 이번 '고암미술상'을 수상하였다. 사회 갈등과 노동의 현장에서 활발한 작업을 해오며 한국 여성주의 미술에서 굵직한 활동을 해온 작가로, 현재까지도 소외된 대상에 관심을 가지며 활발한 작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정엽은 1962년 전라남도 강진에서 출생해 어린 시절 서울 답십리로 이사 와 학창 시절을 보냈다. 1985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했고, 졸업과 동시에 민중미술 그룹 '두렁'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86년 인천의 부평공단에 취업,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미술 집단 '일손나눔'을 거쳐 인천 미술 소집단 '갯꽃', '터', '여성미술연구회', '입김' 등의 그룹 활동을 병행하였다. 1994년부터 '인천미술인연합' 회원으로 활동하며 2003년 '미술인회의' 단체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1995년 첫 개인전 이후 19회의 개인전과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민중미술의 경향으로부터 삶 속의 여성, 보이지 않는 여성의 노동, 여성의 정체성에 집중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이번 전시 '최초의 만찬'은 정정엽 작가의 30년 화업에서 나타난 '곡식, 나물, 여성, 곤충, 붉은 팥' 등 현대사회 안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대상들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최초의 만찬'이란 전시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간 만찬에 초대되지 못했던 대상을 만찬에 초대하듯 작품과 전시의 주체로 불러들인다.

한편, 이응노의 집 '고암미술상'은 동서미술의 융합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작가정신이 돋보이는 현대미술의 거장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정신을 이어가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현대미술 작가상이다. 이번 제4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정정엽의 '최초의 만찬'展은 10월 13일(일)까지 열린다.









〈특집 1〉 제4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전 '최초의 만찬'

여성들, '최초의 만찬'을 펼치다

정정엽, 제4회 고암미술상 수상기념 전시 '최초의 만찬'
김혜순·나혜석 시인·서지현 검사 등 작가 삶 영향 준 인물들 한 자리에
콩·팥 등 곡식으로 여성 노동 그려



정정엽 작가의 '최초의 만찬2'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던 작가가 그림 속에 여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린 작품이다.

태국에서 만난 트랜스젠더 여성부터 '평화의 소녀상' 옆에 앉아 있던 한 여성 교육자, 김혜순 시인, 태국 노점상 식당 주인, 서지현 검사, 이토 시오리 일본 프리랜서 기자, 나혜석 시인, 게릴라 걸즈(페미니스트 여성예술가 단체) 고릴라, 평화의 소녀상, 후배 여성 작가들까지. 평범한 여성들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 페미니즘을 화두로 던진 인물들이 여럿 보인다. 이 여성들이 그림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열두 여성들이 직사각형의 긴 식탁에 나란히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활짝 미소를 짓고 있다. 식탁에는 과일과 음료수 등의 만찬이 차려져 있다. '12'라는 숫자와 만찬, 그리고 긴 식탁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과 어딘가 익숙한 이 배경 구도까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린 정정엽 작가의 '최초의 만찬2'이다.

이 그림은 화가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인 '이응노의 집'에서 열리고 있는 정정엽 작가의 '최초의 만찬'에서 볼



정정엽 작가가 2019년 8월 9일 여성신문 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수 있다. 지난해 '이응노의 집'이 선정한 제4회 고암 미술상을 받은 정 작가는 현재 '이응노의 집'에서 기념 전시를 열고 있다. 보통 상을 받은 작가들은 자신의 기존 작품만 전시하고는 하는데, 정 작가는 신작을 포함한 68점을 준비했다. '최초의 만찬'은 신작 시리즈이자 이번 기념 전시 제목이다.

'최초의 만찬'에 등장하는 열두 여성은 정 작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인물 혹은 조각상이다. "'최후의 만찬'이 세계 명화인데 지난해 그림에 여자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만찬이라는 게 공식석상을 의미하는데, 왜 여성은 없을까 스스로에게 따져 물어봤어요. 여성은 제자로 삼지 않았다는 거고, 여성에겐 스승이 없다는 의미더라고요. 여성의 노동과 여성의 삶이 최후의 '만찬'을 가능하게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성의 만찬 자리가 이뤄진다면 최초의 만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최후의 만찬'에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최초의 만찬'에는 중심이 되는 인물이 없이 열두 여성들로만 채워져 있다. "공식석상이지만 평등하고 다양한 만찬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성들은 스승 없이 자기 삶을 일궈왔고, 평범한 여성들도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985년 이화여대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한 정 작가는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삶과 노동에 집중해온 대표적인 여성주의 화가다. 대표작은 콩, 팥 등 곡식이나 나물 등을 가지고 한 작품이다. 곡식을 주제로 작품을 한지 20년이 넘었다. "반복적 노동 뒤에 숨은 여성의 시선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니 곡식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곡식은 다양한 색깔이 있어서 조형적으로도 아름답지만 만지는 건 주로 여자잖아요. 그걸 작품으로 드러냄으로써, 여성 노동의 힘이 드러날 수 있어요." 한 알 한 알 그린 자그마한 콩과 팥이 모였을 때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도 정 작가는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20대부터 자연스럽게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정 작가는 1980년대 후반 미술여성연구회에서 활동했다. "페미니스트가 아니면 살 수 없었다"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여성 작가가 아기를 낳고 작업을 포기하면 사회는 당연히 받아드려요. 반면 남성은 꿈을 포기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아기를 키우면서 끝까지 작업을 하고 여성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작가의 힘을 키웠어요. 후배들에게도 작가로서 물러서지 말고 구조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작품을 창작하는 것처럼 삶의 방식을 창작해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창작해야 돼요. 최초의 만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최초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거든요. '왜 여기에 여자가 없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창작의 시작이라고 봐요."

※ 출처 : 〈여성신문〉, 김진수 기자 (2019. 8. 14.)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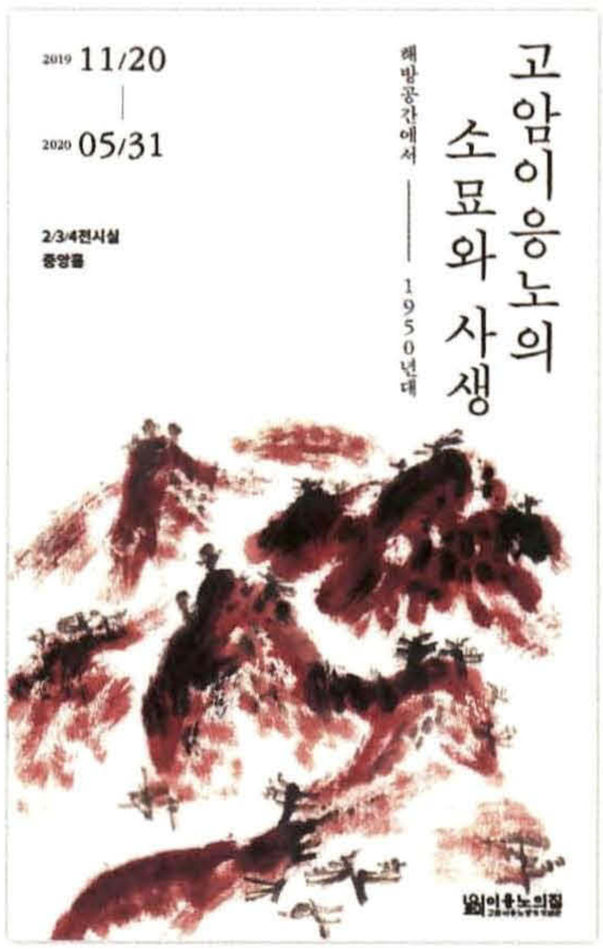


정정엽 작가의 '최초의 만찬6'. 지난해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왼쪽)와 일본 프리랜서 기자 이토 시오리다.

• '고암 이응노의 소묘와 사생: 해방공간에서~1950년대'展
(2019년 11월 20일~2020년 05월 31일)

이응노의 집, '이응노의 소묘와 사생' 주제로 소장품 상설전 열려

일제강점 식민지 벗어난 해방시기부터 1950년대까지, 이응노의 예술정신과 세계 만나다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 소장품 상설전시로, '고암 이응노의 사생과 소묘: 해방시기부터 1950년대'展을 2019년 11월 20일(수)부터 개막,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고암 이응노 화백이 1945년도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홍성과 서울, 전국을 기행하면서 사생한 인물·풍속, 풍경·정물, 영모화조, 그리고 추상을 위한 습작에 이르기까지 고암의 예술정신과 예술세계를 확립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한 사생과 소묘작품 120여 점 및 그의 '사생첩'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이응노의 집에서는 소장품 가운데 '사생寫生'과 '소묘素描' 작품 100여 점을 우선 보존·수복했고, 이를 처음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공개하였다.

작품들은 연필소묘, 수묵채색, 콩테 등 그 시대의 다양한 미술재료를 사용했고, 홍성과 서울지역의 풍경, 피난시절의 풍경, 번화한 도심이나 고요한 사찰의 풍경, 소와 새, 꽃, 물고기 등 평소 그의 그림대상에 대한 호기심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총괄 기획한 김학량 명예관장(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은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은 고암 이응노 화백이 식민지 시기 이후 한국화단의 당면한 과제였던 식민문화 탈출과 새로운 한국화풍의 정립 요구에 응답하는 태도요 방법론이었다"면서, "이응노 자신의 예술세계를 정초하기 위한 예술정신이 가득 담겨 있으며, 한국화단에서의 고암의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시기획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고암 이응노의 사생과 소묘: 해방시기부터 1950년대'展 소장품 상설전시는 2020년 5월 31일(일)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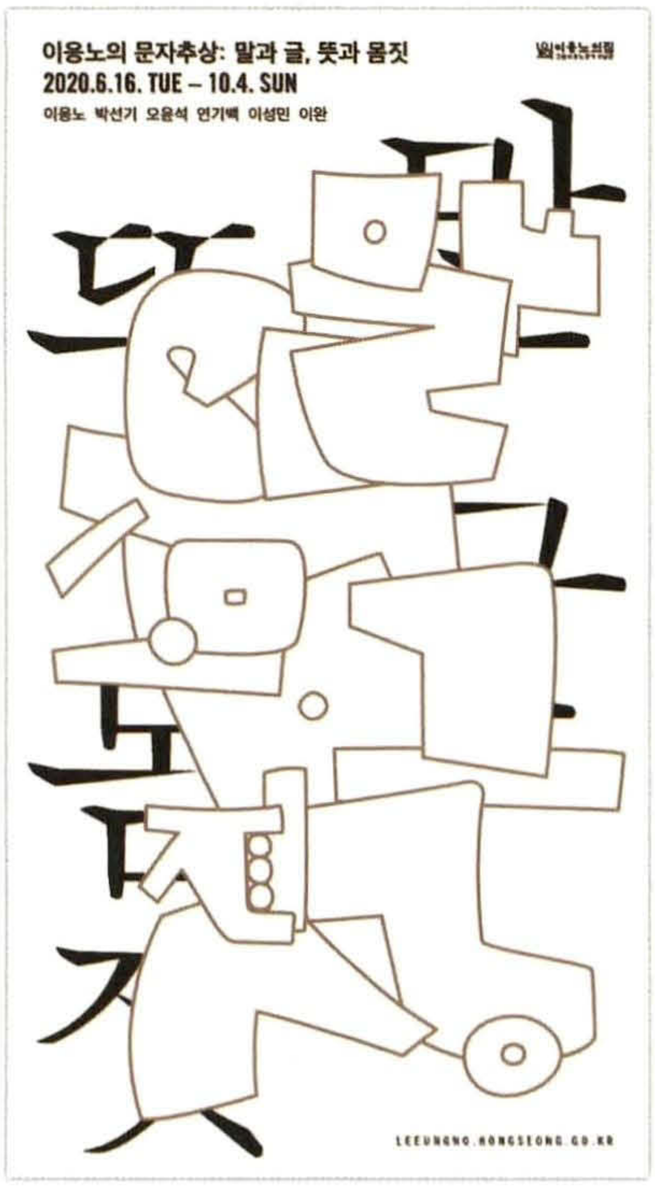

2-1 이응노의 집, 전시 이야기

- 2020년 이응노의 집 전시

• '이응노의 문자추상: 말과 글, 뜻과 몸짓'展
(2020년 06월 16일~10월 04일)

이응노의 집, '이응노의 문자추상' 현대적 감각으로 바로보기

이응노 '문자추상'에 담긴 말·글·뜻·몸짓 … 해체와 탈구축 연결성 살필 수 있는 기회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이응노의 문자추상: 말과 글, 뜻과 몸짓'展을 2020년 6월 16일(화)부터 개막,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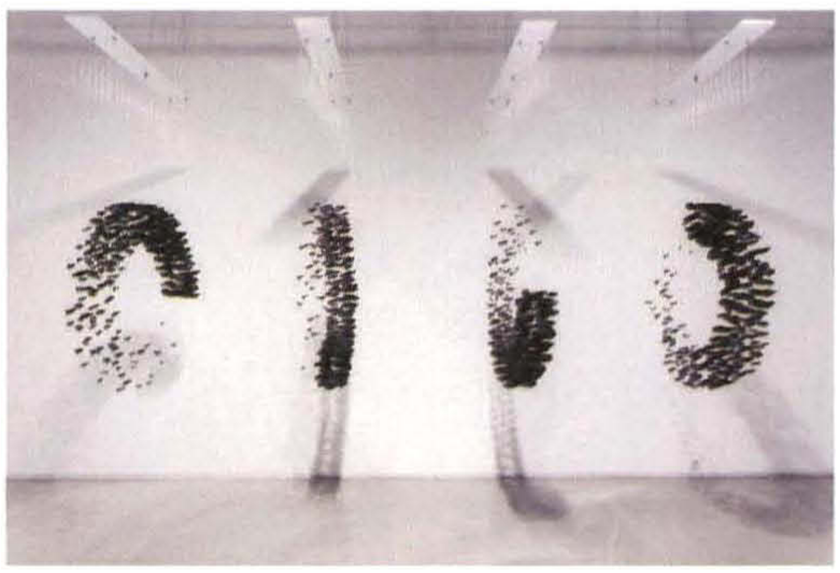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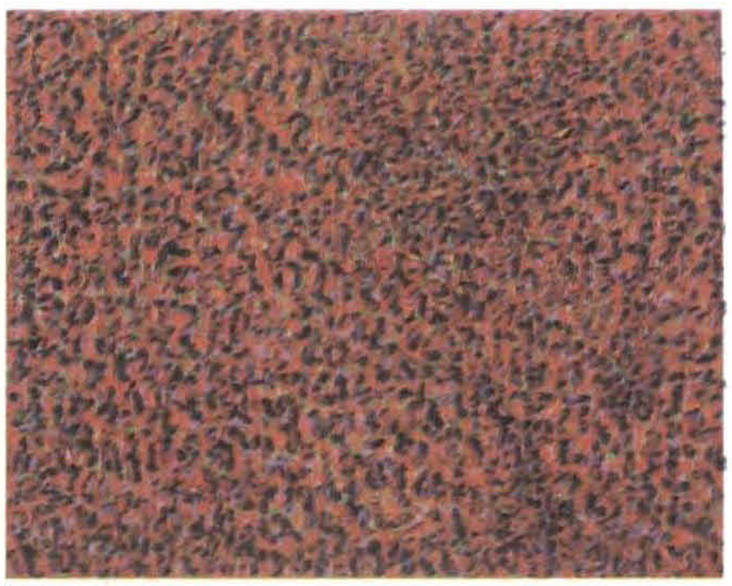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문자추상文字抽象'과 '군상群像' 작품을 중심으로 국내 작가 5인(박선기, 연기백, 오윤석, 이성민, 이완)을 초청해 이응노가 추구했던 예술 정신과 세계를 현대의 작가들과 함께 오늘의 그 의미를 되새겨보기 위해 기획하였다.

전시의 주제는 이응노 예술작품의 백미로 인정받고 있는 '문자추상'과 '군상'에 담긴 그의 예술적 감각을 '말', '글', '뜻', '몸짓'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1960~80년대 그가 추구했던 예술창작의 주제들을 현대의 작가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창작하고 있는가를 작품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박선기는 가늘고 얇은 라일론 실과 숯 등으로, 현묘한 천지자연 속에 '예술'이라는 광활한 지성과 사유의 바다, 가득하면서도 텅 빈 무한공간에 풀어놓고자 하였다.

오윤석은 제1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로, 동양의 직관적·영적인 사유체계와 자연물의 형상, 비가시적 세계 등을 비언어적 이미지로 시각화하고 있다. 종교적 경전이나 금석문, 산수화 등의 텍스트를 차용하되, 인간의 모든 감정이 녹아들고 자신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완은 한글 전각체를 자신의 서법으로 삼아 한글을 즐겨 쓰고 돌에 새기는 현대서예가로, 서법은 "자신만의 목소리"라는데, 한글이 가지고 있는 기하하적이고 추상적 특성에 관심을 두고 붓 선의 질감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각각의 자음과 모음의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표정을 찾아 드러내고자 한다.




이성민은 불과 쇠를 다루어 인간의 몸짓을 빚어낸다. '침묵의 바다'를 배경으로 비틀거리며 달려 나가는 사람들, 춤을 추는 사람들, 강렬한 인간의 몸짓은 언어세계를 벗어난 심미적 세계 의 기호처럼 인간실존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달하고 있다.

연기백의 작업은 예술의 무위적 행위로 인위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기존의 인식을 해체하고 부정해봄으로써 출발하는 태도는 직접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껴보면서 우리의 고착화된 감각과 인식에 새로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응노의 문자추상이 갖는 형식적·내용적 측면을 말, 글, 뜻, 몸짓으로 해체하고 그 낱낱의 성격과 특성을 살펴본 후 특성들을 상호결합해서 어떠한 새로운 형식과 의미를 만들어내고자 했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이응노가 지속적으로 탐구했던 해체와 탈구축의 방식을 오늘의 예술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 풀어내고 있는가를 국내 작가 5인의 작품을 통해 가늠해 보고 있으며, 그리고 이 네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에 있어 문자언어와 이미지언어 간의 분화와 새로운 융합 그리고 해체와 재구축, 탈구축으로의 연결성을 고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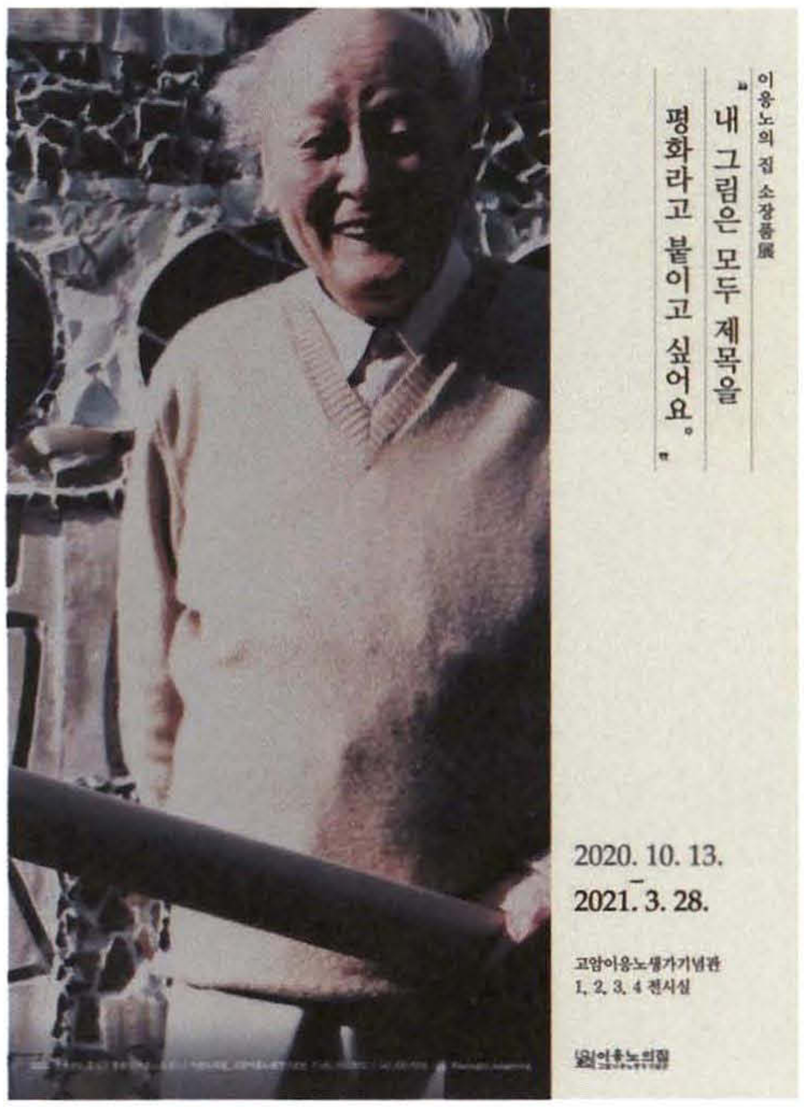
이번 전시 총괄기획인 김학량 이응노의 집 명예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고암이 이룩한 문자추상의 세계를 깊이 이해할 있으며, 5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고암의 독창성과 현대미술을 관통하는 선구적 창의성을 함께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전시기획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한편, 이응노의 집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대전 이응노미술관에서 작품 5점 대여 및 자료제공 등의 협력을 받았다. 이번 '이응노의 문자추상: 말과 뜻, 뜻과 몸짓'展은 2020년 10월 4일(일)까지 이어진다.

• '내 그림은 모두 제목을 평화라고 붙이고 싶어요' 소장품展
(2020년 10월 13일~2021년 03월 28일)

이응노의 집, '내 그림 모두 평화' 소망한 이응노 작품 상설전

이응노 예술세계 속 다양한 변화과정 … 끊임없는 실험·도전정신으로 탄생한 예술 살필 수 있어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2020년 하반기 소장품 상설전시로, '내 그림은 모두 제목을 평화라고 붙이고 싶어요'展을 2020년 10월 13일(화)부터 개막,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세계 속 변천 과정을 소장 작품과 아카이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전시는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전시실은 아카이브와 연표를 통해 예술가 이응노를 소개한다. 동시에 20대 서예적 기법을 기초로 한 모방시기와 30대 자연물체의 사실주의적 탐구시대의 회화, 드로잉 작품을 살펴 볼 수 있으며, 2전시실은 40대 반추상적 표현인 자연 사실에 대한 사의적 표현시기와 이후 유럽으로 건너가 선보인 사의적 추상시기의 회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3전시실에서는 선의 움직임과 문자의 형상을 재구성한 서예적 추상시기와 1980년대부터 선보인 평화의 염원 '군상'시기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으며, 4전시실에서는 1989년 이응노가 유럽에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응노는 1976년 개인전 도록에서 자신의 예술 세계는 10년 주기로 여섯 번 변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대 우리나라 전통의 동양화와 서예적 기법을 기초로 한 모방시기부터 30대 자연물체의 사실주의적 탐구시대, 40대 반추상적 표현인 자연사실에 대한 사의적 표현, 50대 유럽에서의 추상화, 그로부터 사의적 추상, 서예적 추상이 이어진다.

이후 시기상 도록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1980년부터 인간이 모여 무리를 이루고 춤을 추는 민중 그림, 이른바 평화를 염원하는 '군상'이 등장하며 그의 예술세계 대단원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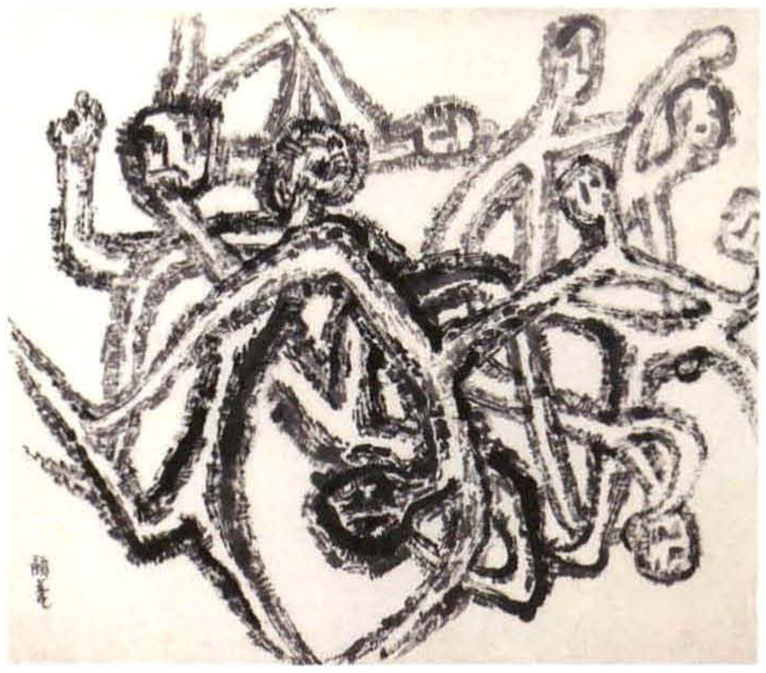
노태훈 전시코디네이터는 "이번 전시에서는 이응노 예술세계 속 다양한 변화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응노가 지녔던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 정신으로 탄생한 예술을 마음으로 살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내 그림은 모두 제목을 평화라고 붙이고 싶어요'展은 2021년 3월 28일(일)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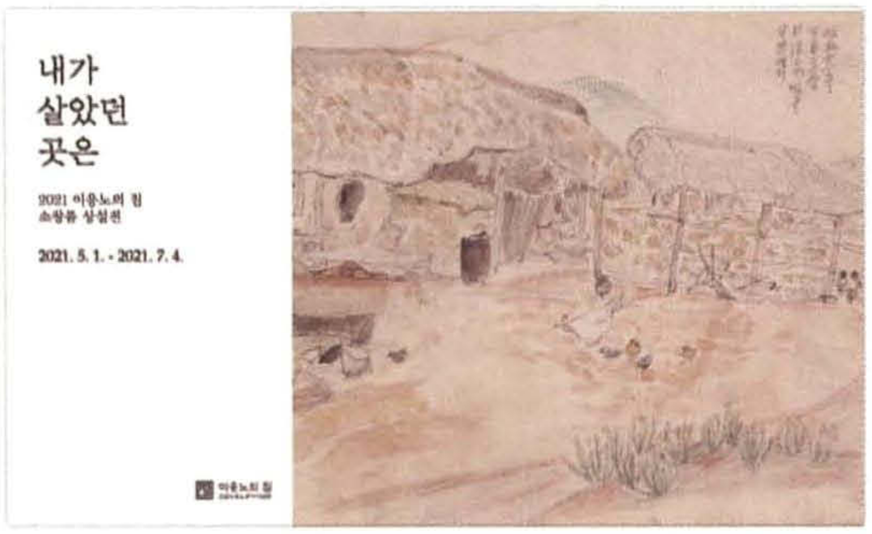
2-1 이응노의 집, 전시 이야기

- 2021년 이응노의 집 전시

- 이응노의 집, '내가 살았던 곳은' 소장품展
  (2021년 05월 01일~07월 04일)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 맞아 '내가 살았던 곳은' 기획전 열어

2021 홍성역사인물축제 '이응노편' 연계, '고향' 이미지 담은 소장품 상설전 열어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첫 번째 기획전시이자 2021 홍성역사인물축제와 연계한 '내가 살았던 곳은' 소장품展을 2021년 5월 1일(토)부터 개막,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2016년 이응노의 집 개관 5주년 기념전시인 '새로운 세계와 리얼리즘: 이응노, 해방공간~1950년대展'과 2019년 '고암 이응노 소묘와 사생'展을 잇고 있다. 앞선 두 전시가 1950년대 이전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세계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면, 이번 전시는 그가 '태어나 자란 곳'이라는 '고향'에 주목하고 있다.

"예술은 자신의 뿌리를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나는 충남 홍성사람입니다."

이응노가 태어나 자란 고향 홍천마을과 프랑스로 건너간 시점인 1958년 이전의 풍경화와 사생을 중심으로, 고향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그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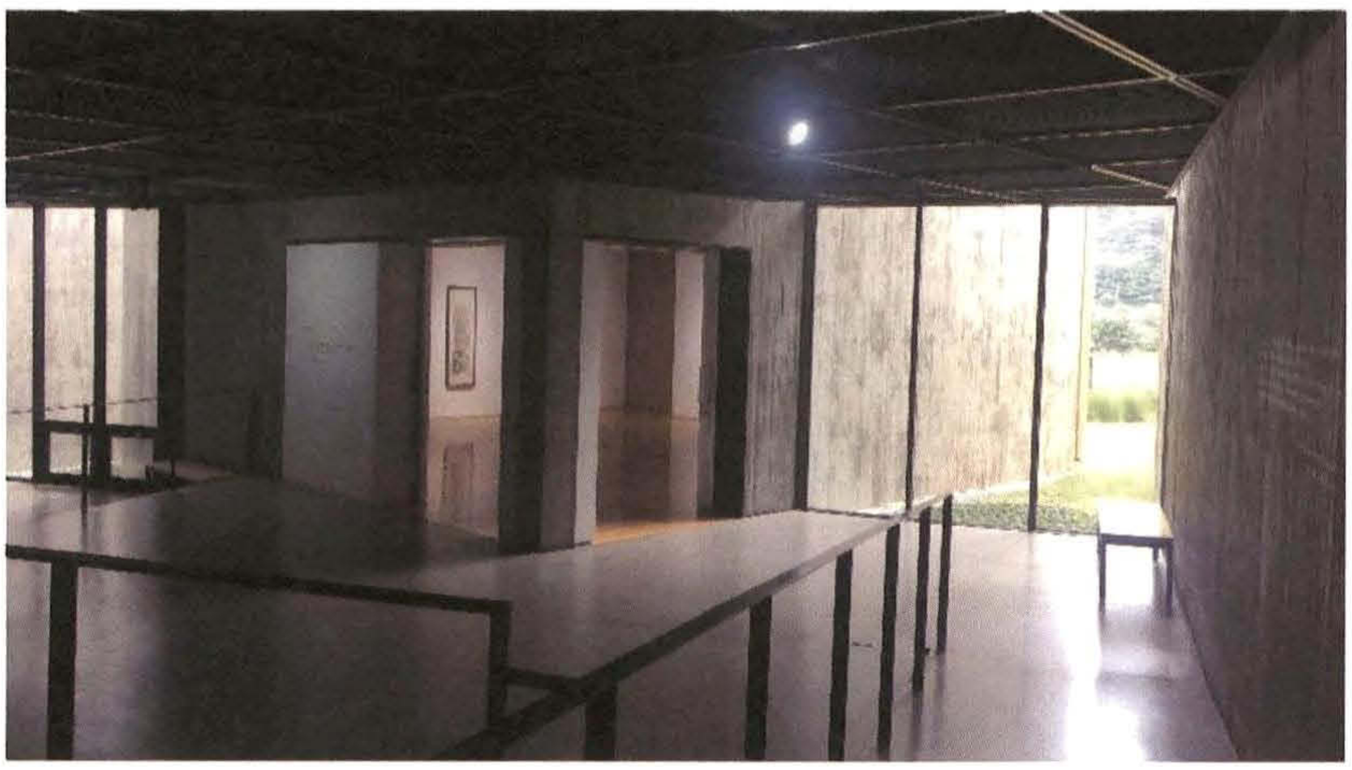
이응노는 1971년 개인전 서문에서 고향마을을 감싸 안은 용봉산과 월산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행복함을 담아냈다. 이는 어릴 적 자연과 함께한 기억에서 출발하는 이응노 예술여정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시도와 실험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한 이응노에게 자연에서의 사생은 예술의 고향이었고,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머나먼 타향에서 눈을 감은 그에게 고향은 예술창작의 원천이자 늘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유대근 홍성군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전시를 관람하며 고암 이응노 화백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였

을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라며 "화가의 꿈이 시작된 터이자 그의 예술혼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이응노 예술의 고향 정취를 마음에 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내가 살았던 곳'展은 2021년 7월 4일(일)까지 이어지며, 2021 홍성역사인물축제 '이응노편'은 5월 14~16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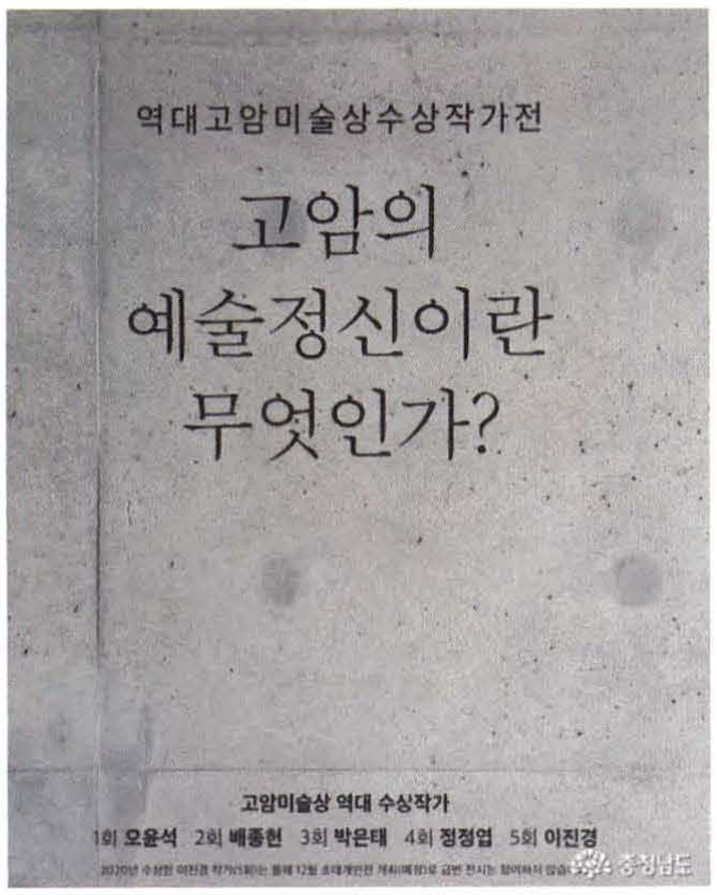




• 개관 10주년 '고암의 예술정신이란 무엇인가? 역대고암미술상수상작가 기획'展
(2020년 07월 13일~09월 26일)

고암의 예술정신이란? 현대작가들이 재해석한 '이응노 예술세계'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 맞아 이응노 예술정신 잇는 역대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기획전 열어
오윤석 자연언어로 마음 치유 … 배종헌 일상·사회적 문제 연결 …
박은태 우리사회 왜곡된 탐욕 … 정정엽 소수자·약자의 삶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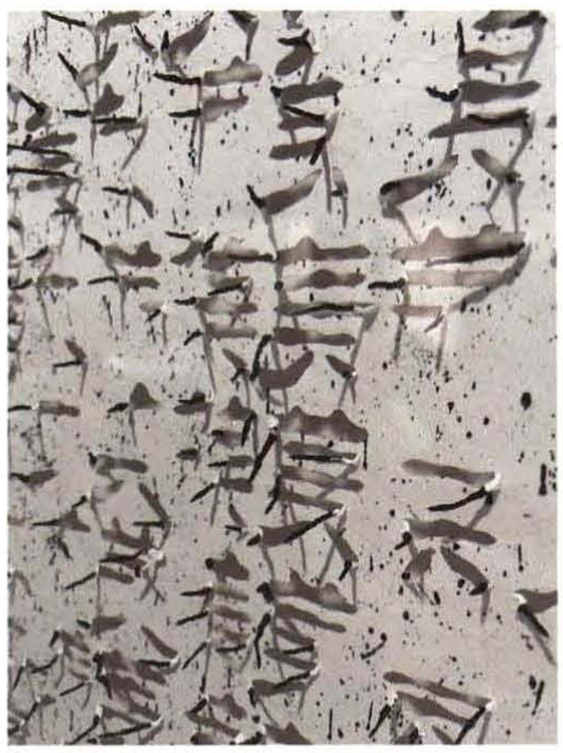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 기획전시와 학술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응노의 집에서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세계를 현대작가들과 재해석하기 위해 두 번째 기획전시인 '고암의 예술정신이란 무엇인가? 역대고암미술상수상작가 기획'展을 2021년 7월 13일(화)부터 개막, 전시하고 있다.

또한 2021년 8월 28일(토)에는 '고암의 예술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이번 기획전시는 고암선양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홍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고암미술상' 수상작가인 1회 오윤석, 2회 배종헌, 3회 박은태, 4회 정정엽 등의 초대전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진경 5회 수상작가는 '수상작가展' 관계로 이번 기획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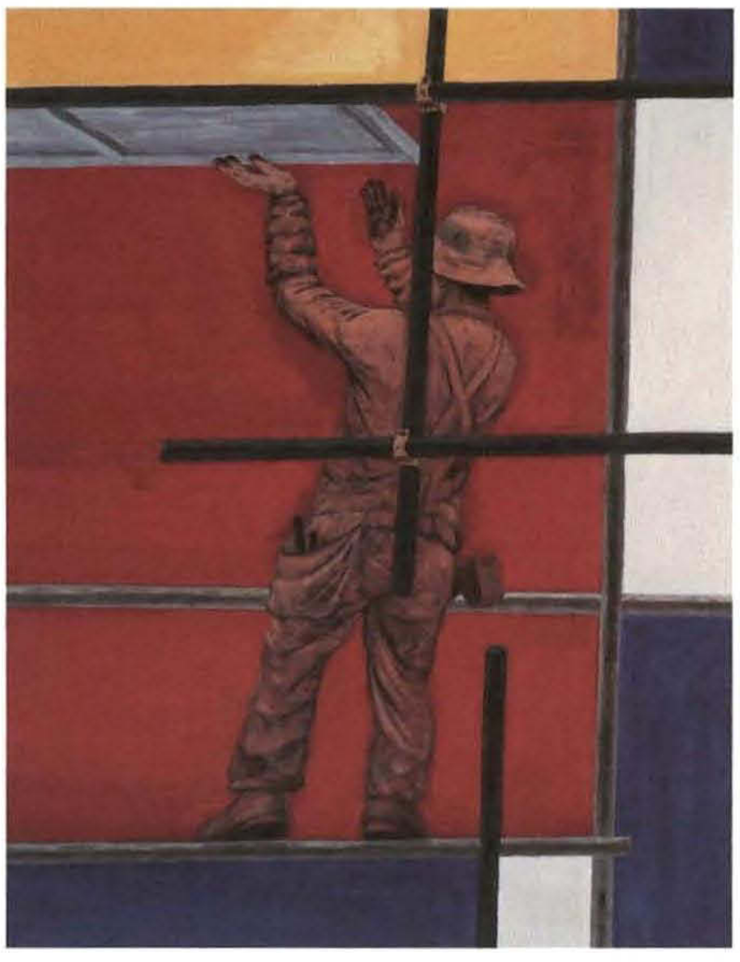
오늘날 현대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이응노가 추구한 예술정신과 세계를 되새겨보고 미래적 가능성을 모색하며 그의 예술정신이 현재에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오윤석 작가는 자연의 언어를 통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염원이 담긴 작품을, 배종헌 작가는 일상적 경험과 사회적 문제를 연결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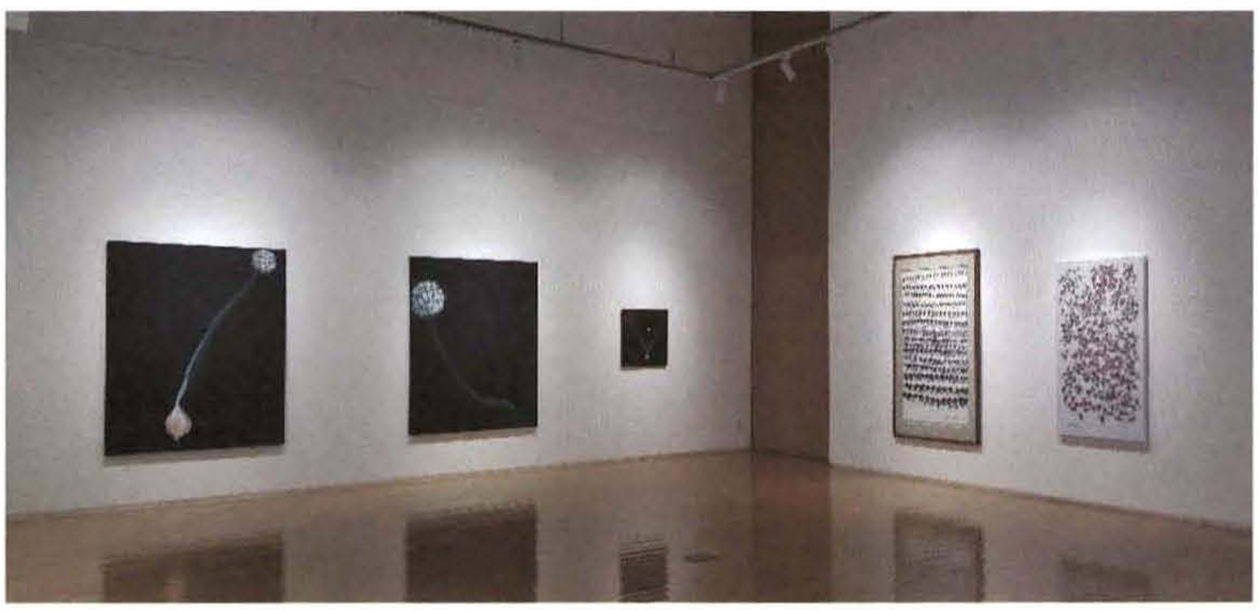




박은태 작가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탐욕과 정치 사회문화의 혼잡스러운 상황을 제시하는 작품을, 정정엽 작가는 우리사회의 익명화된 여성들의 삶과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 소수자이며 약자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등 4명의 작가 손에서 태어난 독특한 예술적 조형언어와 실험성과 창의성이 탁월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이응노의 집은 이밖에도 개관 10주년 기념사업으로 특별전시 3회, 학술심포지엄 3회, 아카이브 전시, 초청강사 랜선강연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개관 10주년 기획전시인 '고암의 예술정신이란 무엇인가? 역대고암미술상수상작가 기획'展은 2021년 9월 26일(일)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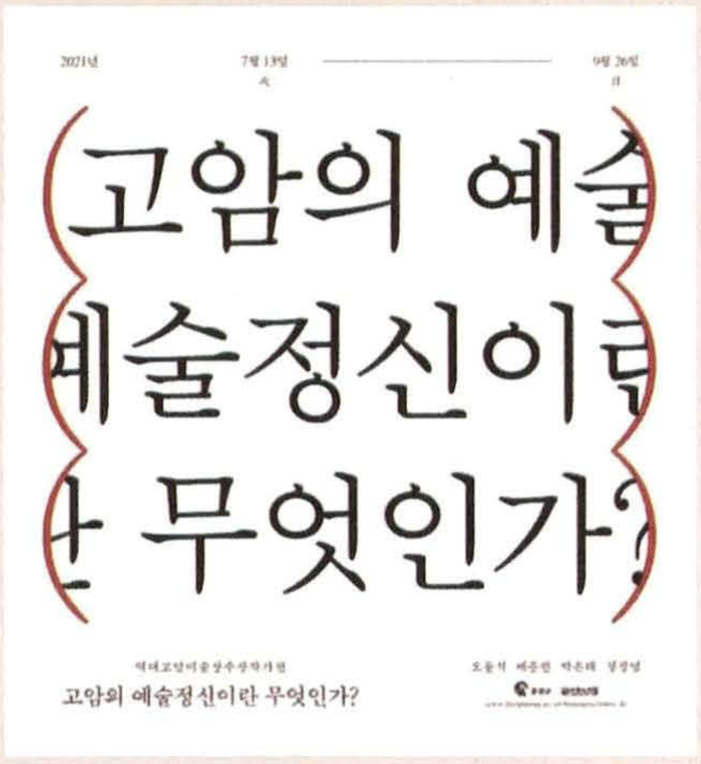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 '고암의 예술정신은 무엇인가?'展 연계 학술심포지엄

이응노의 집 학술심포지엄, '고암미술상' 10년 … 새로운 변화 기대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 맞아 '고암의 예술정신' 잇는 기획전시와 학술심포지엄 등 열어
수상자 파격 선정, 격년제 운영은 긍정평가 … 학술·평론·사진·조각 등 수상분야 확대해야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2021년 8월 28일(토) '고암의 예술정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기념관 중앙홀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학술심포지엄 발제자와 토론자, 김석환 홍성군수와 이종화 충남도의회의원 등 홍성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학술심포지엄은 개회식에 이어 김석환 군수의 환영사, 이태호 이응노의 집 운영위원장의 인사말, 성완경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김종길 DMZ아트프로젝트 전시예술감독·이윤희 수원시립미술관 학예과장·윤후영 충청남도립미술관건립팀 학예연구사의 발표·발제, 수상작가 종합토론, 김학량 이응노의 집 명예관장·류철하 대전이응노미술관장의 질의 순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성완경 교수는 '이응노의 동과 서, 남과 북-새 노랫길을 위한 메모'라는 주제로 이응노의 삶과 예술세계를 아우르는 동양과 서양, 남북 분단에 대해 설명했고, "미술은 반드시 보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형식이어야 한다. 이것은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응노의 작품인 '군상' 시리즈와도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

이어 김종길 감독은 이응노의 옥중 조각 작품에 대해 말하면서 "이응노 화백이 옥고를 치르게 된 배경인 '동백림사건(동베를린간첩단사건)'은 이응노의 작품세계가 통째로 뒤집히게 된 계기"라고 주장하였다.

이윤희 학예과장은 "고암미술상이 이응노의 작품을 지금보다 더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작가와 연구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안전한 수상자 선택보다는 이응노라는 사람이 가졌을 고민과 작품의 방향이 맞닿아 있는 작가들을 선정하는 것이 상의 취지에도 부합되고, 화제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이 학예과장은 고암미술상이 여성작가들에게도 문호가 많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페미니즘 양상을 강하게 보이던 정정엽 작가가 이응노 미술상의 수상작가로 발표되었을 때 이응노를 한국화 방향으로 몰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에게는 파격적인 결과였을 것"이라며 "이 선정은 상당히 유쾌한 부분이고, 이처럼 고암미술상이 이응노의 작품세계처럼 제한보다는 확장의 방향성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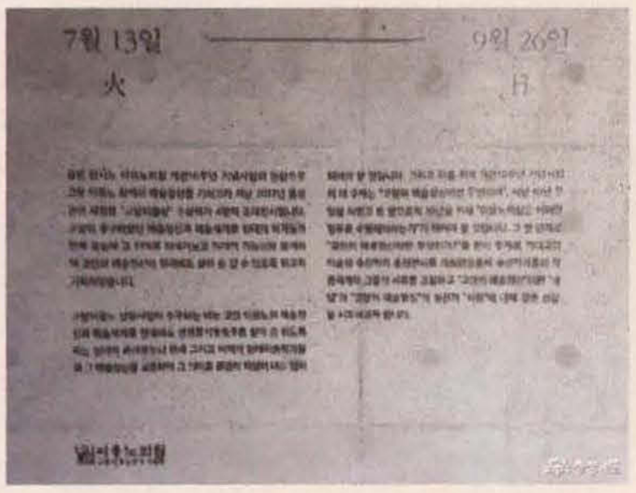
'고암의 예술정신이란 무엇인가' 학술심포지엄(왼쪽부터 윤후영 학예연구사, 김학량 이응노의 집 명예관장, 이윤희 수원시립미술관 학예과장, 김종길 DMZ아트프로젝트 전시예술감독)

윤후영 학예연구사는 "고암미술상이 격년제로 운영되어 배출 작가가 적은 것은 마케팅 전략에서 희소가치성을 담보하는 역발상이고, 상의 남발로부터 거리를 두고 지속적으로 지켜야할 시스템"이라고 말하며 "현재 작가상만 운영되고 있는데, 대전이응노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술·평론상과 전시기획상을 종합화해 운영한다면 미술상의 위상이 한 층 더 격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윤 학예연구사는 "수상분야를 사진, 조각, 공공미술,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고암미술상 수상작가들(1~5회)은 "고암미술상이 2014년부터 추천제에서 공모제로 변화하면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잘 보장되고 있다", "응모방식을 더욱 자유롭게 확대해 수상 작가를 늘렸으면 좋겠다", "수상작가들이 새로운 작업을 할 때 상금과 별개로 작업 보조금이 지원되기를 희망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이응노의 열린 작품세계와 확장의 방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던 만큼, 이번 행사가 고암미술상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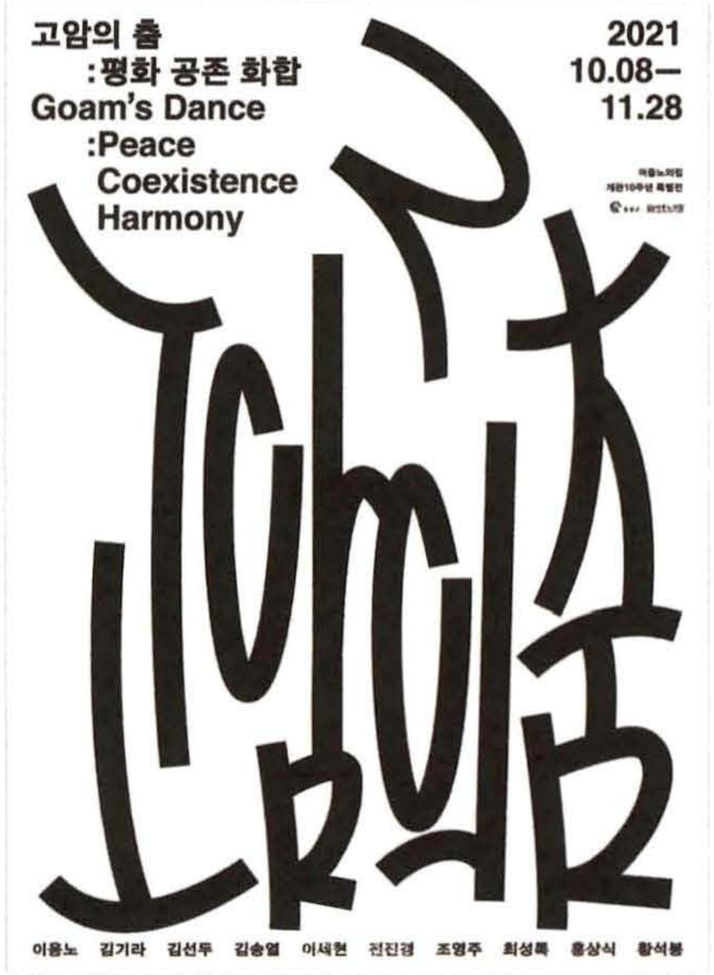




• 이응노의 집, '고암의 춤: 평화, 공존, 화합' 개관 10주년 기념展
(2021년 10월 08일~11월 28일)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 맞아 '고암의 춤: 평화, 공존, 화합' 기획전 열어

이응노, 현대사 굴곡 속에서 자유와 평화의 예술정신 '문자추상', '군상' 시리즈로 제작
이응노 예술정신 잇는 현대작가 9인, 자신들만의 시대를 관통하고 진실한 사유 소통해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세 번째 기획전시인 '고암의 춤: 평화, 공존, 화합'展을 2021년 10월 8일(금)부터 개막,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정신의 큰 화두이자 전 생애를 통해 창작된 작품세계에 담아내고자 했던 '평화·공존·화합'을 주제로, 9명의 현대작가와 작품 속에서 그 공명하고 있는 지점을 포착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진실한 사유의 지점을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전시를 통해 이응노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시대가 성찰하고 새로이 정립해야 할 팬데믹 시대의 사회윤리학적 관점과 예술의 사회적 실천과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전체 일정 동안 기념관 중앙홀에서는 이응노의 삶과 예술세계를 극화한 황재섭 감독의 '군상' 작품이 시연되며, 전시실 전관에서는 이응노의 작품을 비롯해 김기라, 김선두, 김송열, 이세현, 전진경, 조영주, 최성록, 홍상식, 황석봉 등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 3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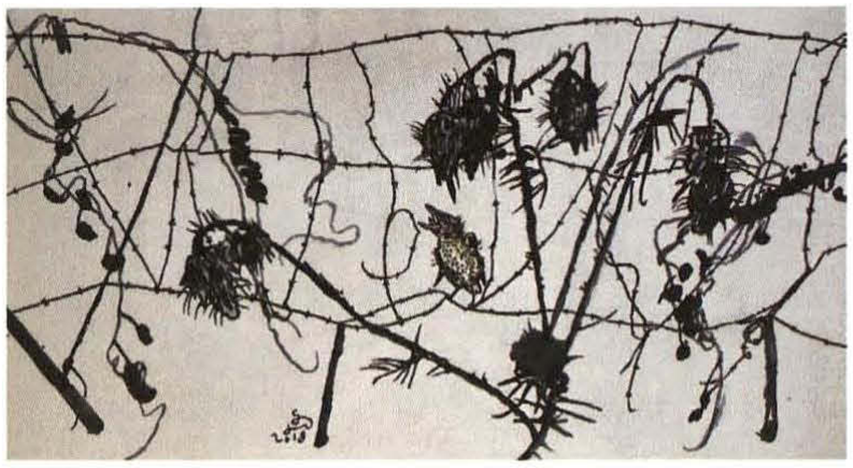
김기라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이행 속에서 내재된 첨예한 갈등, 그 갈등을 관리하고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세상은 '부조리'라고 바라본다. 바로 이 부조리에 작가의 역량을 할애하고 있다. 김선두는 느린 선의 미학을 바탕으로 생명과 삶의 대지, 대지와 꿈의 노래,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해 전통장지 기법을 끝없는 실험을 통해 한국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김송열은 자의적 사생에 기반을 두고 이를 담백하고 함축적인 사물표현, 섬세한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독자적인 회화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세현











은 순백의 캔버스에 붉은색만을 써서 산수의 풍경을 펼쳐낸다. 어둠 속에서 적외선 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풍경은 '붉은 빛'이다 이 경험이 '붉은 산수'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붉은색은 생명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상처를 표현한다.

전진경은 대추리에서 강정마을과 용산 4가, 콜트콜텍 노동자 등 이 시대가 처한 초자본주의의 민낯에 전위적으로 맞서 가장 먼저 상처받고 마지막 최후까지 소모되는 약자들의 처절한 거리농성 곁에서 언제나 따뜻한 가슴과 열정으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정의와 양심을 증언해내는 용감한 시선을 갖고 있다. 조영주는 한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여성주의적' 이슈에 대한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예술사에서 다뤄진 여성 신체의 이미지와 무의식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동시대의 몸의 이미지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최성록은 디지털화 되는 세계를 바라보며 인간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지에 관한 탐구를 이어왔고 발달하는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홍상식은 이응노마을의 상징조형물인 '종치는 사람'을 제작한 작가로, 현대 물질문명의 부산물인 소비적이며 일회성인 재료를 선택해 현대사회의 이중적인 구조를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의 욕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황석봉은 서화, 전각이자 생태예술가로서 한국 현대서예라는 장르를 탄생시키며, 서예의 대중화와 예술화, 세계화에 힘써오고 있다.

그리고 이응노는 동베를린간첩단사건을 통해 복역한 교도소 생활 속에서 민족과 민중 공동체, 자유와 평화의 정신을 깨닫고 '군상'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그 예술정신이 현대작가들에게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맞닥뜨리게 된다.

한편, 이번 개관 10주년 세 번째 기획전시인 '고암의 춤: 평화, 공존, 화합'展은 2021년 11월 28일(일)까지 이어진다.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 '고암의 춤: 평화, 공존, 화합'展 연계 첫 번째 학술심포지엄
〈고암 이응노의 예술과 시대정신〉

이응노의 집, '미술관 운영 현황과 방향성' 대한 학술심포지엄 열어

'이응노' 예술세계와 정신, 그리고 '이응노의 집' 현주소와 운영 방향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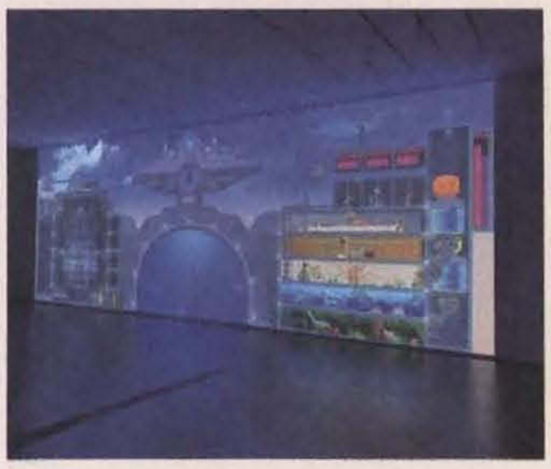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에서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고암의 춤: 평화, 공존, 화합'展과 연계해 2021년 10월 23일(토) 오후 1시 '고암 이응노의 예술과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이응노의 집과 한국큐레이터협회가 공동주관하는 학술심포지엄 '고암 이응노의 예술과 시대정신'에서는 최열 미술사학자의 '이응노 정신, 20세기 시대정신의 총아'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영준 김해문화도시센터장의 '미술관 정책과 문화민주주의'와 배혜정 홍익대학교 교수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 전시기획의 방향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응노의 집의 현주소와 운영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의 '평화예술로서 이응노의 세계'와 김허경 전남대학교 교수의 '이응노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세계와 정신을 탐구하고 있다.

종합토론은 김주원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이 좌장을 맡고 김경연 대전이응노미술관 책임연구원과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문화융합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이응노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응노의 집'의 시대적 역할 및 현대사회의 생명, 인종, 젠더, 생태환경, 인문과학철학, 종교, 역사 등 우리 사회의 다층적 시선과 제 문제들을 성찰하고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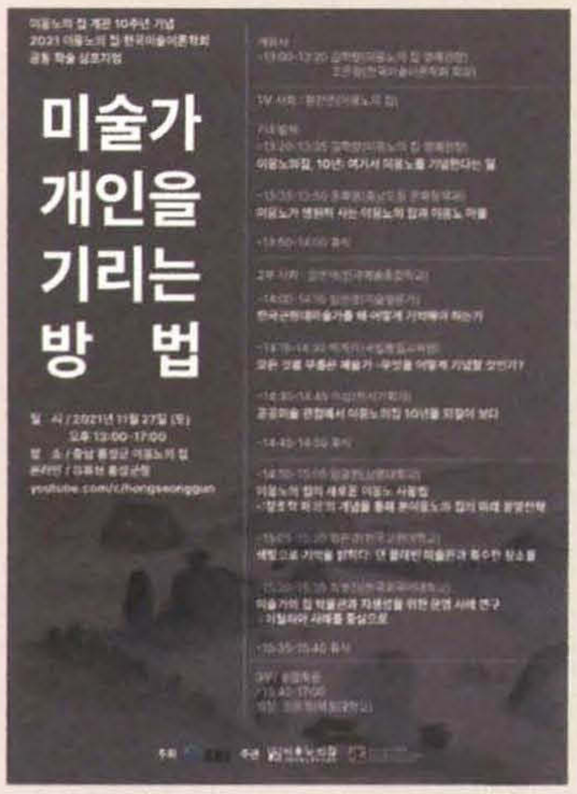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 '고암의 춤: 평화, 공존, 화합'展 연계 두 번째 학술심포지엄 〈미술가 개인을 기리는 방법〉

이응노의 집, '미술가 선양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학술심포지엄 열어

미술가 개인 '이응노' 기리는 방법, 그리고 '이응노의 집'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이응노의 집에서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고암의 춤: 평화, 공존, 화합'展과 연계해 2021년 11월 27일(토) 오후 1시 '미술가 개인을 기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이응노의 집과 한국미술이론학회가 공동주관하는 학술심포지엄 '미술가 개인을 기리는 방법'에서는 김학량 명예관장의 '이응노의 집, 10년: 여기서 이응노를 기념한다는 일'과 윤후영 충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의 '이응노가 영원히 사는 이응노의 집과 이응노 마을' 등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두 기조 강연은 2011년 개관한 이응노의 집 10주년을 되돌아보며, '왜, 여기서, 어떻게 이응노를 기념하는가'에 대한 고향 홍성과 한국, 세계 속의 이응노의 예술세계와 정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이응노의 집 건립배경과 의미 등을 새롭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응노의 집 개관에 힘입어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한 홍천마을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예술마을 조성이라는 당위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성완경 미술평론가의 '한국 근현대미술가를 왜·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와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 연구원의 '모든 것을 무릅쓴 예술가–무엇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이섭 전시기획자의 '공공미술 관점에서 이응노의 집 10년을 되짚어보다', 엄광현 상명대학교 교수의 '이응노의 집의 새로운 이응노 사용법–'창조적 파괴'의 개념을 통해 본 이응노의 집의 미래 전략', 정은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의 '색빛으로 기억을 밝히다–댄 플래빈 미술관과 특수한 장소들', 최병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미술가의 집 박물관과 자생성을 위한 운영 사례 연구–이탈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등으로 연구자들의 주제발표와 조은정 목포대학교 교수가 조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서는 이응노의 집이 지난 10년 동안 추구해 온 과제를 돌아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개인 미술가를 기념하는 미술관의 역할, 지역 사회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미술사와 미술비평, 문화경영과 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미술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였다.

한편 이응노의 집은 고암 이응노(1904~1989) 화백이 태어나고 자란 생가 터에 세워진 기념관 겸 미술관으로, 지난 2011년 개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작품 수집 및 보존, 수복, 전시뿐만 아니라 기획 전시와 창작스튜디오 운영 등 이응노의 예술정신을 선양하고 있다.

• '고암 이응노 아카이브' 소장품展
(2021년 12월 10일~2022년 4월 24일)

'이응노' 삶과 예술세계, 기록으로 보는 아카이브 소장품전 열려

이응노의 집, 이응노의 '사생첩과 신문첩' 기록 통해 한국 근현대 미술 되돌아봐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네 번째 기획전시인 '고암 이응노 아카이브'展을 2021년 12월 10일(금)부터 개막, 전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이진경의 '먼 먼 산-헤치고 흐르고'展과 함께 열리며, 고암 이응노 화백의 넋을 위로하는 이진경 전과 함께 '이응노'의 삶과 예술의 기록을 살피고 있다.

한 인간의 탄생에서 그 몸의 시작은 첫 호흡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몸의 오롯한 지혜는 현재를 관통하는 주체적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기록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경험을 만든다는 것이며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신을 형성하게 하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 권의 '이응노' 개인자료를 출품한다. 한 권은 이응노의 '사생첩'으로 일본 유학시기(1935~1945)에 그가 탐구했던 다양한 미술형식이 나타난다. 입체파 형식, 미래주의, 추상표현 등 사생첩 주인의 관심사도 알게 해주며, 동시에 당시의 미술계 정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안내서이다.

그리고 두 권의 신문첩으로, 하나는 1920년~1950년대 이전으로 식민지 시대 조선미술전람회(조선미전) 자료와 이 시기의 이응노의 작품과 경향 등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것은 1950년대 이후 프랑스로 이주하기 전까지로 해방 후 한국미술계에 나타난 한국미술의 정신성 회복과 현대미술 운동, 그리고 동베를린간첩단사건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번 전시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 '이응노'에 대해 위대한 예술가가 아닌 '인간 이응노'의 삶의 궤적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되기를!

한편 이번 개관 10주년 네 번째 기획전시인 '고암 이응노 아카이브'展은 2022년 4월 24일(일)까지 이어진다.









•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이진경 '먼 먼 산–헤치고 흐르고'展
(2021년 12월 10일~2022년 04월 24일)

이응노 예술정신 기리는 제5회 고암미술상 '이진경' 작가 선정

다양한 장르·매체 넘나들며 폭넓은 작업세계 구현 … 한글문자 활용, 독특한 서체의 맛 살려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제5회 고암미술상에 이진경 작가를 선정하며, 진정한 예술의 힘을 보여줄 또 한 명의 예술가를 잉태시켰다.

이응노의 집에서는 2020년 7월 한 달 동안 제5회 고암미술상 작가공모를 시행했으며, 최종 78명이 포트폴리오를 접수하였다.

심사는 박영택 경기대학교 교수와 강수정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1과장, 김윤경 독립큐레이터, 김학량 이응노의 집 명예관장·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황석권 월간미술 편집장 등 5명의 심사위원들이 맡았다.

이들 심사위원들은 서류심사와 두 차례에 걸친 심층검토 및 토론을 통해 강원도 홍천군에 거주하는 현대회화 작가 이진경 작가를 최종 수상작가로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영택 교수는 "고암의 예술과 정신을 되새기고 고암미술상의 위상과 의미를 확장하는데 부합하는 작가를 선정했다"며 "회화, 오브제 및 다양한 장르, 매체를 넘나들며 폭 넓은 작업세계를 구현해옴과 동시에 한글문자를 활용, 독특한 서체의 맛을 살려 좋은 평가를 받은 이진경 작가가 고암미술상의 적임자"라고 심사총평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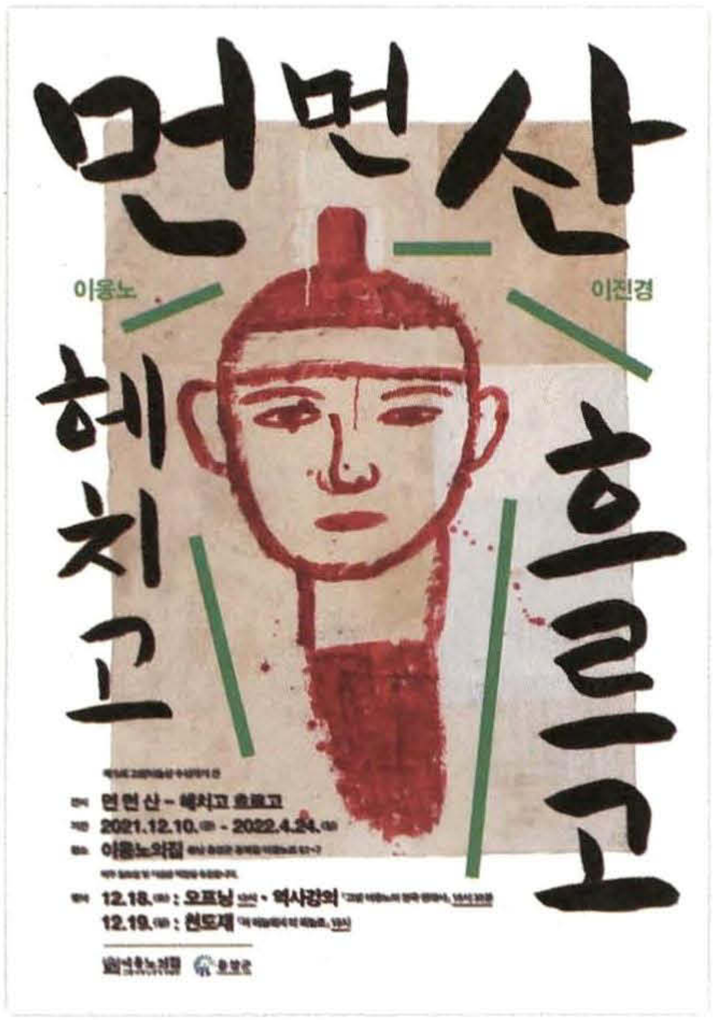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비대면 수상으로 바꿨으며, 수상작가에게는 시상금 2000만 원과 2021년 12월께 수상작가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응노의 집,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이진경의 '먼 먼 산–'展 열어

이응노 넋 위로하는 전시 … "수많은 사람 흘린 피로 오늘이 더 반짝이고 나아졌기를…"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이진경의 '먼 먼 산–헤치고 흐르고'展을 2020년 12월 10일(금)부터 개막, 전시하고 있다.

이진경 작가의 '먼 먼 산–'展는 다양한 지형(지역)에서 수집된 재료와 작가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고암 이응노 화백의 삶과 예술 인생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이응노의 넋을 위로하는 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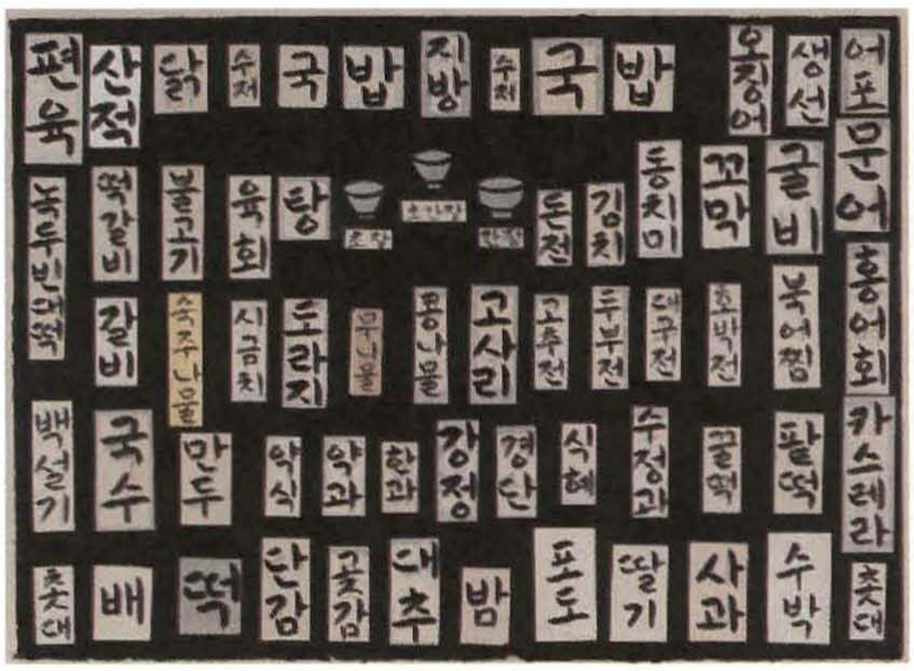
특히 작품 가운데 부표를 재료로 사용한 작업은 이응노와 이진경을 연결해주는 증표이자, 타향에서 타계한 이응노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재', '설위설경'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한다.

이진경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들로 오늘이 조금 더 반짝이고 나아졌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였다.

한편 전시 기간 중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지화 교육·체험(정용재)', '작가와의 대화(김종길, 박영택, 임정희)', '역사 강연(배기성)', '천도재(강노심)' 등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이진경 '먼 먼 산–헤치고 흐르고'展은 2022년 4월 24일(일)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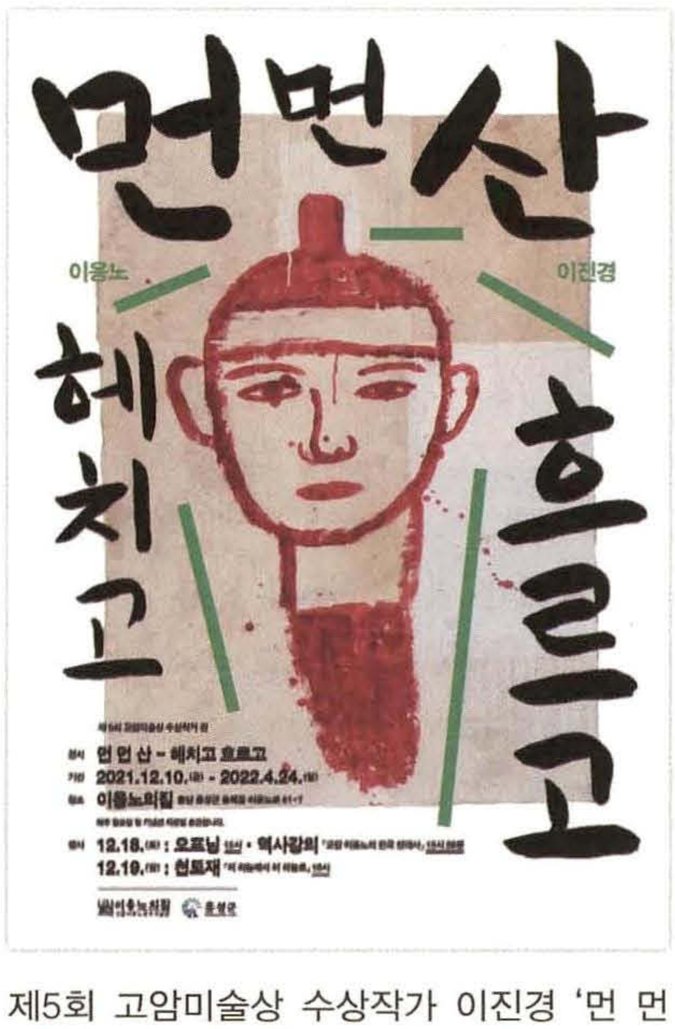


〈특집〉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전 '먼 먼 산–헤치고 흐르고'

이진경의 〈먼 먼 산–〉는 어디인가?

이응노 넋 위로코자 … 충청도 사람과 부딪치고 땅 밟으며 재해석한 신작 중심 발표

이응노의 집에서 2021년 마지막 전시로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이진경의 '먼 먼 산—헤치고 흐르고'가 열린다. 고암미술상의 부상으로 주어지는 이번 이진경 전시는 2011년 개관한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과 맞물려 더욱 뜻 깊게 준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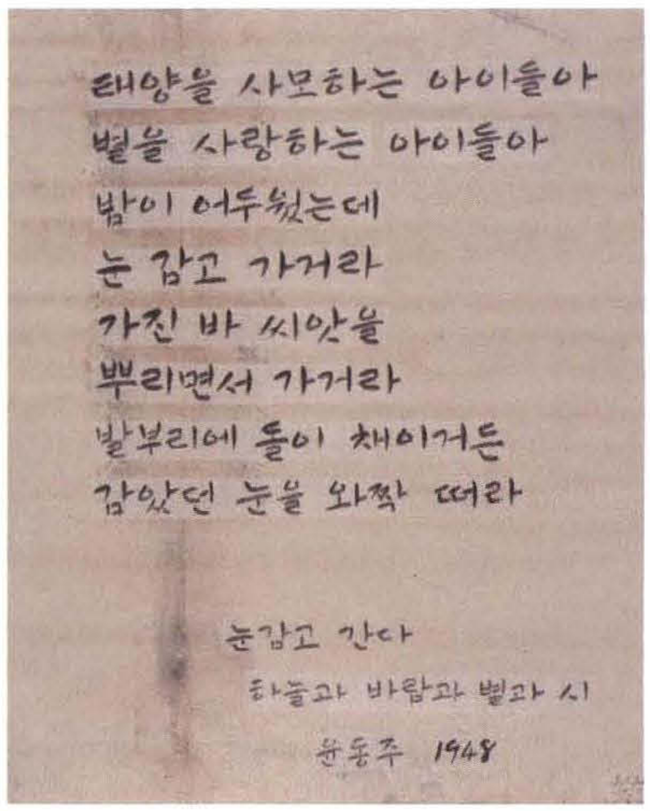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이진경 '먼 먼 산–헤치고 흐르고'展 포스터

이응노를 고향 홍성으로 다시 모시기 위한 130여 점의 신작

이진경은 자신의 작업 세계를 확장해 이응노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도록 의도하고, 이응노의 집 전시공간에 맞춰 신작 위주로 준비하였다. 기존의 수상작가 전시회와 크게 다른 지점이다. 수상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작가는 이응노와 그의 삶에 드리운 한국 근현대사의 흔적, 그리고 그의 고향인 홍성을 이루는 지리 인문 요소들을 작가 특유의 방법론으로 연구하고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충청도 땅에서 사람과 부딪치고 땅을 밟으며 만나고 익힌 물산과 민속들을 엮어 재해석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무려 600점을 헤아리는 전시작 중 절반 이상인 300여 점이 지난 1년간의 신작으로 구성된다.

전시 제목은 〈먼 먼 산—헤치고 흐르고〉이다. 여기서 '먼 먼 산–'은 근대시인 김소월의 '합장'에서 모셔온 구절이다. 산은 우리나라 땅 그 자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섬은 바다 밑 땅에 솟은 산의 봉우리다. 산은 단단한 바위를 품고, 그 바위 밑에는 뜨거운 불꽃이 있다. 백두산과 한라산은 그 불꽃의 흔적이다. 어린 이응노를 위로해 준 배움터, 늙은 이응노가 프랑스에서 가장 그리워한 기억은 고향의 용봉산과 월산이었다.

우리는 문득 그리운 마음이 들 때 먼 산을 보고, 그 마음이 치솟아 어쩌지 못할 때 산에 오른다. 작가가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



이진경, 눈감고 간다

나의 산–아리랑 고개를 넘는 일이었다. 산을 짓는 일이었다고 해도 좋다. '먼 먼 산–'은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북녘의 산, 백두산과 금강산이며 죽은 자들이 간 곳이다. 이응노에게 대나무와 사람과 문자가 하나로 얽히듯, 이진경에게 산과 싹과 불과 획은 하나로 솟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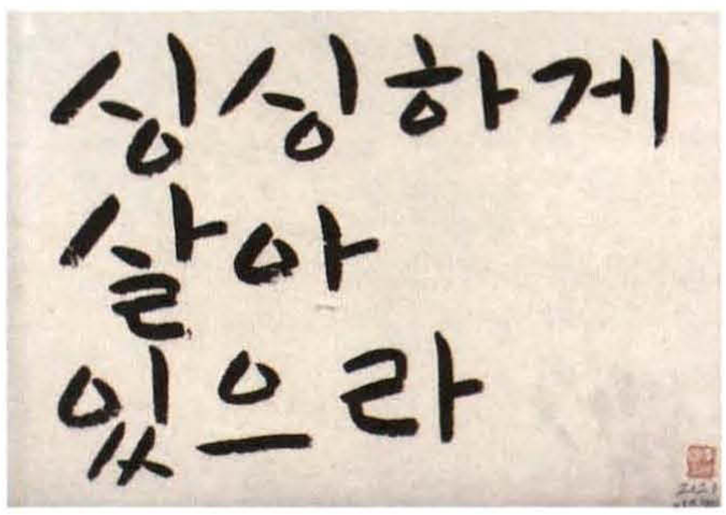
"김소월의 시 중에 840편이 일본 총독부에 의해 불태워졌고 200여 편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노래로 만들기도 좋아 여러 곡의 노래가 김소월의 시로 만들어졌습니다. 쉬운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 그림도 쉬워요."

– 이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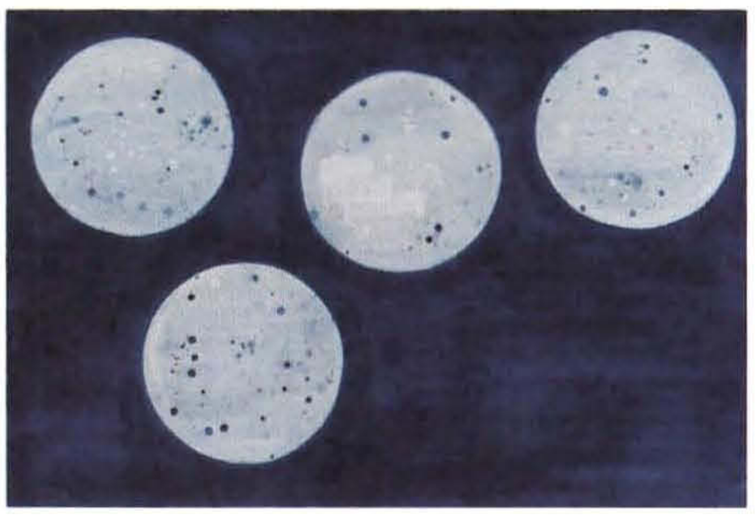
글씨와 그림은 하나의 붓이다

이진경은 한국의 일상 곳곳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이진경체'로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미술가다. 작가는 과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페인트 붓으로 쓴 간판에서 영감을 얻은 서체를 화폭 속으로 끌어와 회화–서예의 영역을 아우르고 이런 작품들을 여러 점 병치해 회화–설치 작업을 진행한다. 전시장과 일상 공간을 구분 짓지 않고 넘나드는 작가의 이러한 활동은 주류 미술의 권위에 좀처럼 포섭되지 않고 단단하고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해 왔다.

간판이 그렇듯 호소성 짙은 글씨는 표어나 구호문이 되기도 하고 명패가 되기도 한다. 이름 불리지 않던 주체들, 우리말의 다양한 발음과 낱말과 음보들을 작가는 작업 속에서 또박또박 불러 준다. 글씨로 가득한 그의 화폭은 그 자체로 조형적이고, 감상자로 하여금 각자의 고향을 떠올리게도 하고, 각자의 기억과 감각을 되살려 낸다.



이진경, 싱싱하게 살아 있으라



이진경, 달, 2021



이진경, 소로리볍씨

한글이라는 기호로 대체된 형상이 이진경 작업의 한 축이라면, 전통 서화와 민화의 태도를 계승한 필획은 작가의 또 다른 세계다. 대나무와 서예의 경계를 넘어섰던 이응노의 태도, 이 땅 곳곳을 유랑하며 사람과 풍경을 사생해 문자 추상과 군상에 가 닿은 이응노의 세계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생명력을 품어 키우는 이진경의 작업 세계



이진경, 목숨 수, 2021

이진경의 작업은 비단 미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환경, 생태, 지역, 역사 등 삶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를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로 담아내 왔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상처 받은 동물, 토종 식물, 씨앗, 사람, 태도, 노래, 민요는 모두 이진경이 작가로서 품어 치유해 온 것들이다. 작가는 그것들을 치유하지만, 그 작품을 통해 감상자는 약해서 잊혀진 듯했던 이 땅의 이름과 가락들을 만나 치유 받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다.

특히 이진경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고지도를 연구하고 재해석하며 한반도 물산 지도를 다시 그려 왔다. 한반도 각 지역의 기후, 풍토, 물산, 전설, 공예, 장소, 민속, 문화 등을 깊이 익히고 사람들을 만나 자료를 얻어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조형을 창출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고지도들은 이 연작의 일부로 전시로서는 처음 소개된다.

확장된 전시로 고암의 넋을 부르는 전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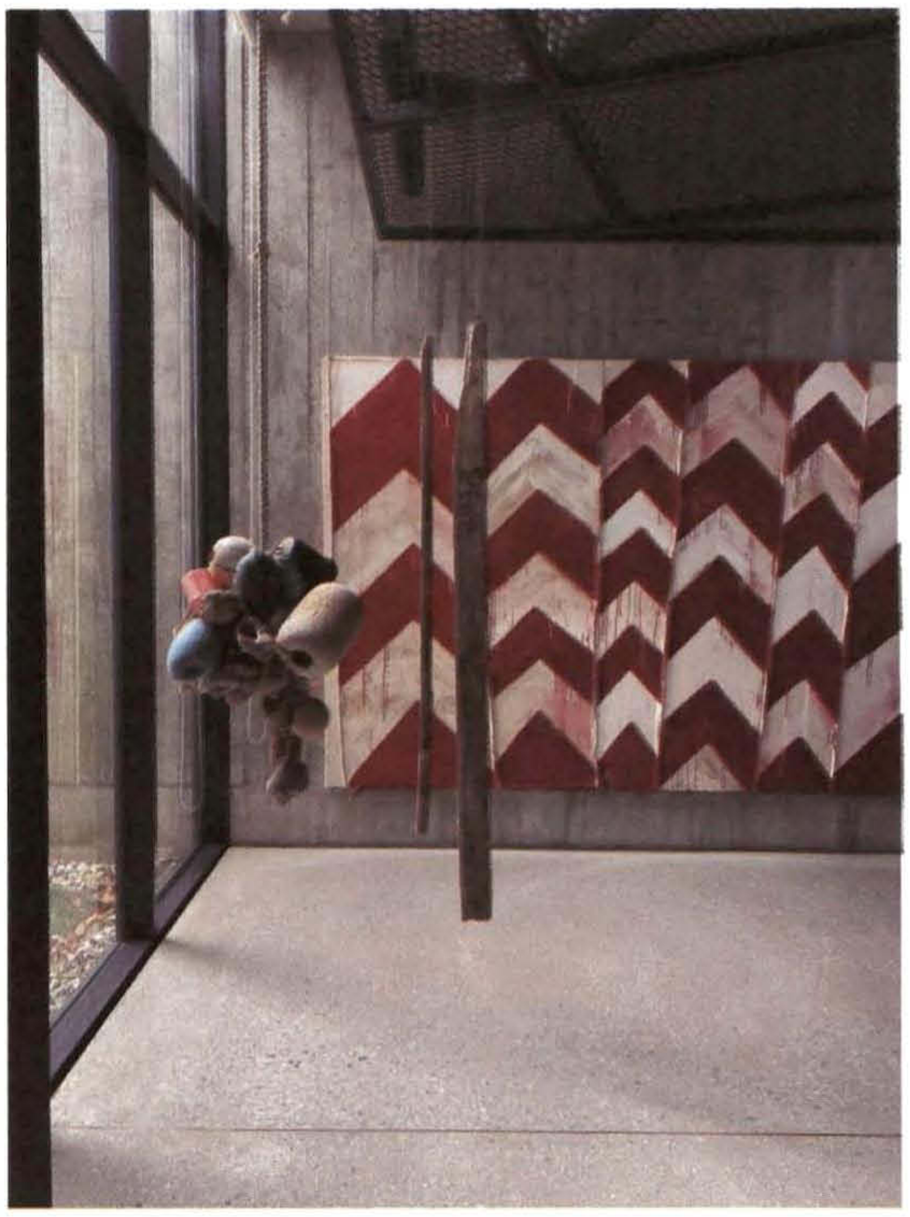
이번 개인전은 전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시장 밖 외부로까지 공간을 펼친다. 외부에 설치된 부표 작업은 이응노와 이진경을 연결해 주는 증표이다. 이응노는 생전에 고국에서 철저히 상처받고 배제되었다. 타향에서 타계하여 아직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며 홍성 이응노의 집은 그 뜻을 기려 세워졌다. 이 의의에 비추어 이진경은 이응노 화백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재〉, 〈설위설경〉을 준비했다.

'설위설경設位設經'은 홍성과 태안 일대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 온 민속 유산이다. 강노심 법사는 설경設經 앉은굿으로 평생 잡귀를 물리치고 죽은 이를 달래어 왔다. 이진경 작가는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홍성에 내려와 설위설경의 진법을 배웠고 전시의 일부로서 강노심 법사와 함께 천도재를 지낸다. 이는 이응노의 천도이기도 하지만 동학-독립운동-분단-동백림 사건-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이응노가 그렸던 군상 속 수많은 이들의 천도이기도 하다. '절두', '불꽃' 등 새로 선보이는 연작들은 강렬한 필치로 이 주제에 관해 한국인들의 마음 바닥에 깔려 있던 지점을 건드린다.

야외 외벽(북카페) 한쪽은 작가가 직접 쓰고 제작한 간판 작업을 설치하고, 실내는 이응노의 집 전시홀 전체에 설위설경을 설치해 한을 품고 죽은 이들을 부르는 초혼의 무대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는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이응노의 집 건축의 기획 의도를 샅샅이 살려 낸 전시다. 이진경의 1990년대 작업부터 신작까지를 통틀어 다시 살피고 새로운 주제로 구성해 낸 이번 전시에서 지난 30여 년간 작가가 다양하게 확장해 온 드넓은 우주를,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서로를 비추는 만다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응노의 집을 설계한 건축가 조성룡, 설위설경 강노심 법사, 역사 강사 배기성, 지화 장인 정용재 등은 이진경과 지난 2년간 깊은 대화와 교감 속에서 함께 전시를 준비해 왔다. 이 협업의 과정 또한 영상으로 전시된다.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전 '먼 먼 산—헤치고 흐르고'에서 이진경은 기존 성과의 정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지평으로 넘어간다. 그것은 이 시대 예술과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상을 모색하는 험난한 시도이기도 했다. 한 작가의 개인전을 넘어서 고암 이응노와의 대화, 더 나아가 한국 근현대사의 예술을 통한 치유로 초대한다. 생명과 평화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굿판이 2021년 신축년 겨울 홍성에서 펼쳐진다.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전 전시 설치완료

"역사 강의, 천도재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이 잘 된다면 그 뒤에서 제 그림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디오 작업으로 민요, 윤이상 선생님 곡, 항일 운동가, 동요, 자연 소리 등 전시 공간에 스피커를 배치해 내내 틀어요. 200곡 정도 되요. 이 노래들을 묶어 제목을 붙혔어요. 〈무수한 사람 무수한 노래〉입니다."

– 이진경

※ 출처 : 〈디자인프레스〉, 김만나 편집장 (2021. 12. 13.) 글 (자료협조 이응노의 집, 수류산방)

* 12월 18일, 19일 이틀 예정된 오프닝과 천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2-2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이야기

- 2018년 제2기 입주작가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제2기 입주작가 5명 선정

회화부문 2명·공공예술부문 3명 선발 … 2018년 10개월간 활동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은 2018년 10개월 간 창작스튜디오에서 활동할 입주작가 5명을 선정하였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는 지난해 이론(한국미술사, 한국근현대미술사)·회화(한국화 기반)·공공예술부문의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했으며, 총 17명의 이론가와 예술가가 창작스튜디오에 지원하였다.

이응노의 집은 2018년 1월 30일(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9명에 대해 2차 면접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최종 5명(회화 2명, 공공예술 3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입주작가는 회화부문 △장태영(한국화) △박세연(서양화), 공공예술부문 △권용주(환경조각) △박유미(영상, 드로잉, 설치) △정상철(건축) 등이다.

심사평에서는 "회화부문 선정 작가는 고암 이응노 회화를 과제로 자신의 작업을 재설정하려는 의지가 돋보였으며 공공예술부문은 마을과 연계해 예술의 가능성을 공공적 역할로 확산하려는 작품계획이 입주 후의 활동을 기대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선정 작가는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응노의 집에 위치한 전통한옥·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오픈스튜디오, 입주작가 개인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작가제안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다.







이응노의 집, '젊은 예술가'들이 사는 창작스튜디오 본격 운영

입주작가 10개월 간 작업발표 세미나 … 5월 12일부터 사흘간 '오픈스튜디오' 열려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은 2018년 3월 16일(금) 오후 2시 기획전시실에서 올해 선정된 입주작가 5명의 작업 및 활동계획 발표 세미나를 열었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는 지난해 이론·회화·공공예술 세 부문의 연구 및 예술가를 모집, 심사를 통해 총 5명의 작가를 선정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이들 5명 작가의 작품론을 알아가는 동시에, 작가가 기획하는 '지역연계 프로젝트'를 함께 발표하고 공유하며, 10개월간 유망작가의 창작환경 지원과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기반의 문화예술 발전가능성을 모색·실현하고자 마련하였다.

장태영 작가는 수묵화를 바탕으로 동양화 감상기법을 연구하고 드로잉 퍼포먼스 등의 새로운 표현방법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박세연 작가 또한 현대화된 한국미술과 시·서·화 정신의 가치를 탐색하며 평면작업과 미술비평 등의 글쓰기를 병행한다.

공공예술 영역의 권용주 작가는 일상에서 수집한 물건을 추상적 형태로 재구성하며 사회 다각면의 삶과 정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박유미 작가는 노년 여성의 개인사에 주목하여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가려진 개인의 이야기를 생성한다.

정상철 작가는 '건물 짓기'를 개인과 공동체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여기며 건축이 하나의 예술영역으로 성장 할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응노의 집, '오픈스튜디오' 열어 창작스튜디오 예술가와 만나

전통한옥·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예술가와 마을·지역주민의 예술공감 시간 가져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은 2018년 7월 27~28일(금, 토) 이틀간에 걸쳐 예술가들의 창작스튜디오를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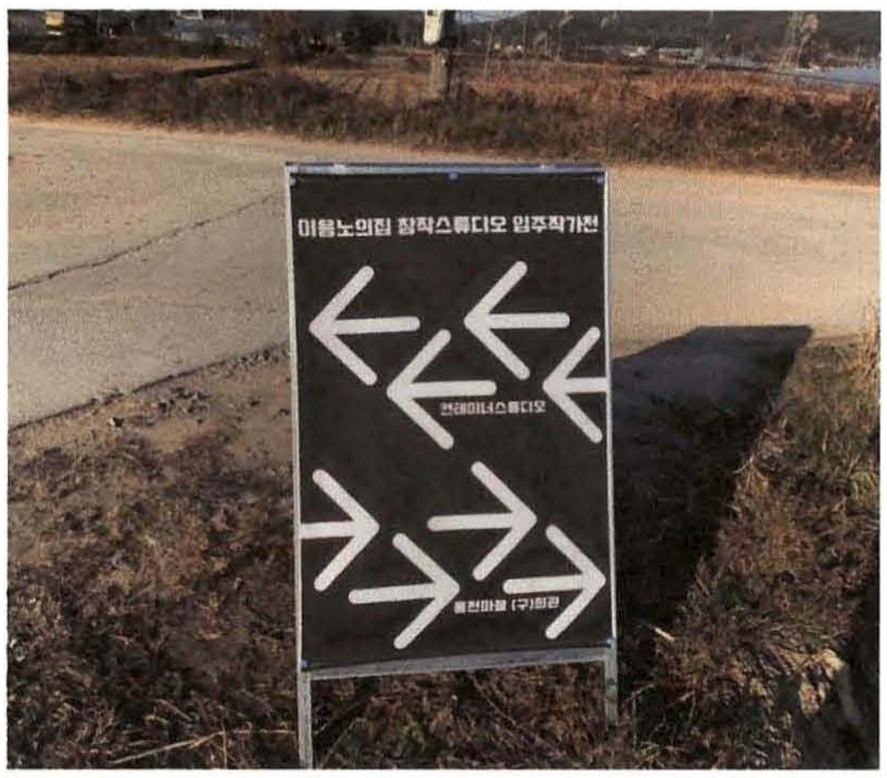
올해 선정된 작가 5명은 한옥 박세연, 박유미 작가와 컨테이너 권용주, 장태영, 정상철 작가들로, 이들은 마을과 홍성·내포주민들에게 창작스튜디오의 문을 활짝 열고 그간의 창작 활동과 과정을 공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화, 설치, 커뮤니티 아트, 영상 등 예술가들의 기존 작품과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품 등을 선보였고, 주민을 위한 한국무용과 해금연주, 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오픈스튜디오 둘째 날에는 정상철 작가와 박승진(desing studio loci) 조경 건축가가 함께 '10개의 키워드로 만나는 조경과 건축이야기' 특강을 진행했고, 박세연 작가와 이응노의 집이 협력 기획한 청소년교육프로그램 '예술가와의 산책', 외부 미술전문가를 초청해 작가의 작업 역량을 강화하는 '예술가-전문가 1:1 비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윤후영 이응노의 집 학예연구사는 "이번 오픈 스튜디오를 계기로 입주작가들이 홍성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입주작가들이 구상한 예술 세계에 집중해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응노의 집 창작 스튜디오는 11월께 입주작가 5명의 창작 결과를 선보이는 개인전을 연다.





•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2018 제2기 입주작가 개인展 1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제2기 입주작가 개인展 열어

2018년 11월 20일~12월 9일까지, 이응노의 집과 창작스튜디오, 이응노마을서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한옥·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다섯 작가의 입주작가 개인展이 열렸다.

이번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제2기 입주작가 개인展은 다섯 작가들이 홍성에 머물며 작업한 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개인전 형식으로 공개하는 자리이다. 2018년 11월 20일(화)부터 12월 9일(일)까지 20일간 계속되었다.

한옥 창작스튜디오 박세연, 박유미 작가의 전시는 각각 이응노의 집 예술문화자료실과 이응노 생가에서 이루어졌다.

박세연 작가는 본인이 홍성에 머물면서 느낀 감상들을 회화와 글로 표현한 '홍성 시간'이라는 전시로 꾸며냈다.

박유미 작가는 노년 여성을 드로잉한 작품과 그 작업과정을 담은 영상을 담아 '다시 부르는 이름' 프로젝트를 꾸렸다.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에 머무는 권용주, 장태영, 정상철 작가의 전시는 홍성군 홍북읍 홍천마을(이응노마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권용주 작가는 이응노의 집 외부 잔디에 바위를 형상화한 캐스팅 작품 '포장천막Ⅳ'을 설치하였다.

장태영 작가는 낮에는 컨테이너 스튜디오에서 영상 미디어로 재구성한 한국현대회화를 선보이고 야간에는 이응노의 집 외벽에 영상을 상영하였다.

정상철 작가의 '홍천마을 사람과 집 이야기'는 홍천마을복지회관을 포함한 마을 일대에서 건축조형물의 형태로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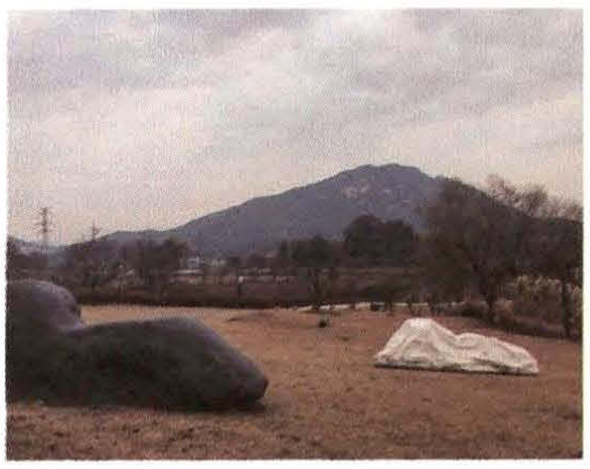
특히, 11월 24일(토) 오후 3시에는 박유미, 정상철 작가가 마을 주민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시 소개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매주 주말 오후 2시에는 방문객들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 전시해설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2018 제2기 입주작가 개인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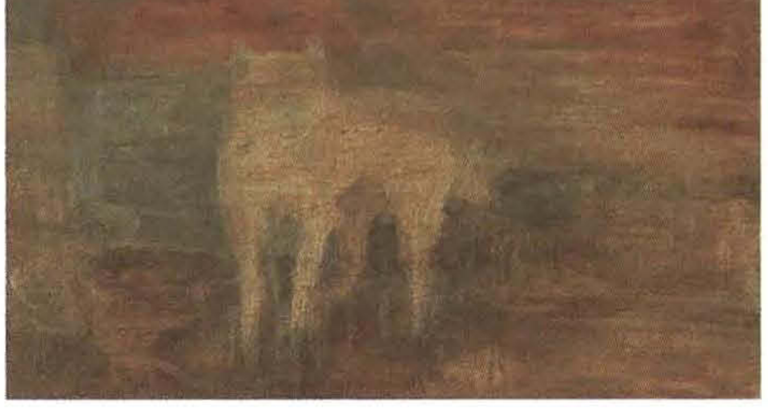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은 2017년 6월,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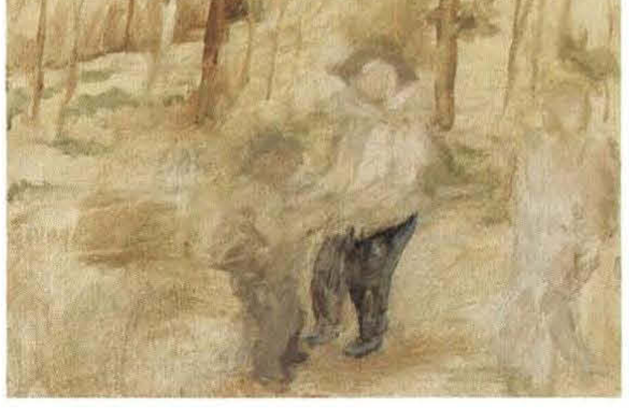
1960년대에 지어진 근대 전통한옥과 축사 컨테이너에 입주한 작가는 홍천마을(이응노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고유의 예술작업을 이어왔다. 작가들의 적극적인 지역연계 프로젝트 제안으로 이곳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었다.

2018년 2월, 예술담론이 홍성의 자원이 되는 공공성을 지향하며 지역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다섯 작가(권용주, 박세연, 박유미, 장태영, 정상철)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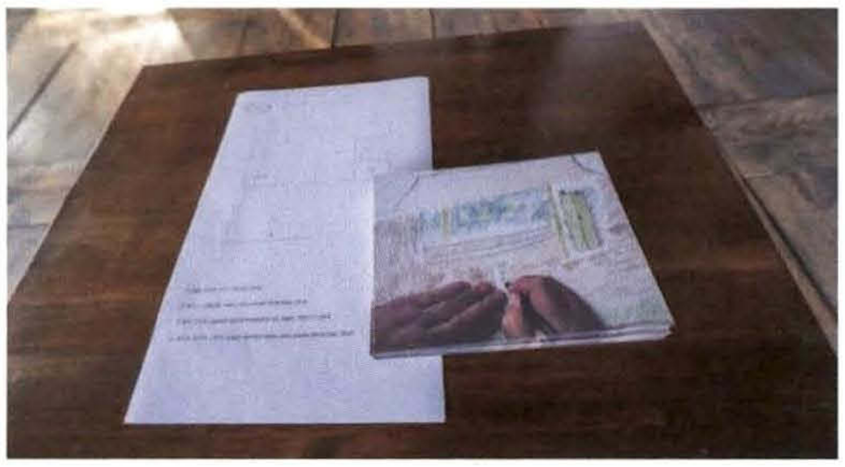

권용주 작가의 〈포장천막Ⅳ〉는 입주기간 동안 꾸준히 발표한 'casting' 연작 중 하나로 이응노의 집 잔디에 놓인 바위를 석고 캐스팅한 작품이다. 사회의 권력과 정서 등을 담기 위해 작가는 우리 주변에 버려진 사각 말통, 알류미늄 식기, 플라스틱 바구니 등의 오브제를 사용하였다. 홍성 일대에 놓인 농기구와 같은 농촌 사물이 일상에 오래도록 놓여있는 모습을 착안해 자연을 닮은 인공물을 형상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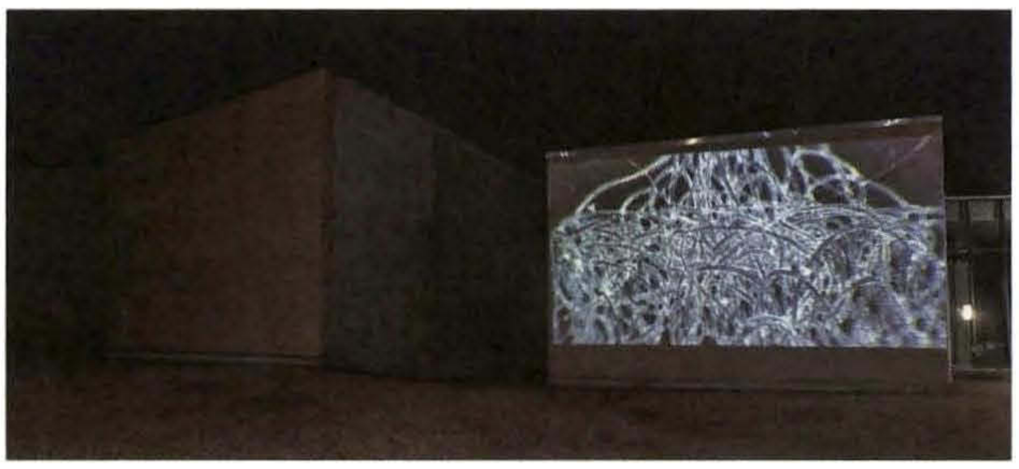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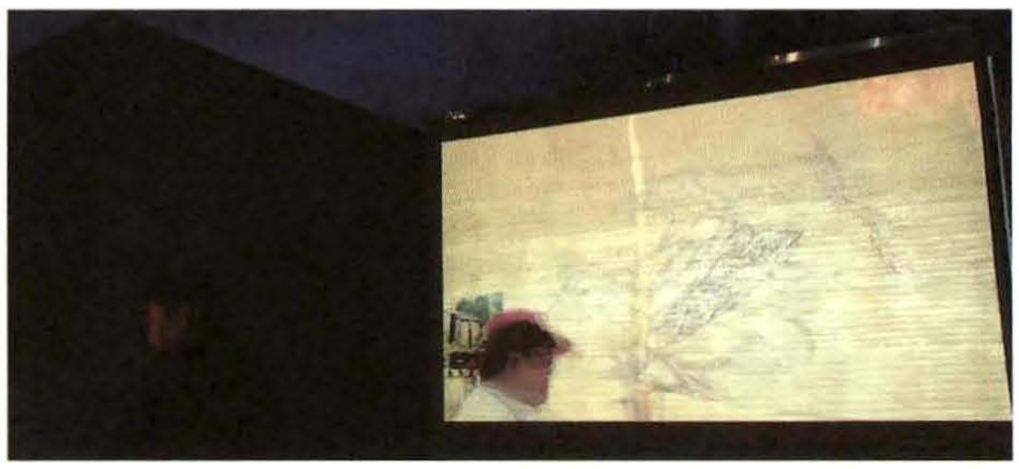
박세연 작가는 〈예술가와의 산책〉을 통해 홍성에 거주하는 중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작가의 창작스튜디오에서 시와 인문학 텍스트, 근현대 예술작품을 함께 읽으면서 예술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홍성시간〉은 홍성에서 지낸 시간 동안의 감상에 대한 작가의 회화적 서술이다. 이는 대상에 대해 자신과의 거리를 가늠하고 균형을 찾는 가운데 관찰자이자 참여자로서 각 존재의 상태와 의미를 고양하고자 하는 존재방식이다.

박유미 작가의 〈다시 부르는 이름〉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타자화 된 노년 여성의 방치된 언어를 창작활동을 통해 의미화한 프로젝트이다. 누구의 '할머니'와 '어머니'로 불리는 노년 여성이 창작하는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본인을 정체화 하였다. 작가는 올해 3월부터 홍천마을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동고동락하





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작가를 만난 노년 여성은 그림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고, 이응노 생가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민을 위해 아뜰리에와 갤러리를 조성하였다.

한국회화의 현대화를 탐구하는 장태영 작가는 입주기간 〈라이브 드로잉〉을 진행하였다. 직관적으로 포착한 홍성의 산수를 먹선으로 구현했고, 교차된 선들 사이로 조각난 면은 불특정 관객이 참여해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나갔다. 'anything or nothing' 이라는 문구 아래 전시된 회화는 실제 작품이 아닌 편집된 영상이 보여진다. 특정 사회구조의 부조리함을 대변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달매체를 사용해 한국화 표현의 범주를 확장하였습니다.





건축가 정상철 작가는 주민이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주체적 사유와 감성이 담긴 집을 설계해 보는 프로그램 〈내가 꿈꾸는 집〉을 진행하였다. 마을과 자연, 그리고 그 속에서 유대감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존을 위해 작가는 건축의 사회성을 연구하고 주민과 접촉해 왔다. 건축가의 시선으로 재구성된 홍천마을과 기념관은 〈홍천마을 건축 규약집〉, 〈이응노의 집 일대 시설정비 계획안〉, 〈홍천마을 사람과 집 이야기展〉으로 보여진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는 고암 이응노 화백이 탄생한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의 이응노 생가 옆에 자리 잡고 있다. 약 5킬로미터 거리로 떨어져 있는 홍성의 주산인 용봉산과 월산을 바라보면 고암 이응노 화백이 고향에서 받았을 산정山精과 예술적 갈망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바로 이곳에서 10개월간 홍성에서 지속가능한 예술적 실험을 이어간 2018년 입주작가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2-2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이야기

- 2019년 제3기 입주작가

•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2019년 제3기 입주작가)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제3기 입주작가 선정

컨테이너만 시각미술 및 공공미술 분야 '박용화, 유영주, 이자연 작가' 선정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은 2019년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에서 10개월간 활동할 제3기 입주작가를 3명 선정하였다. 한옥 창작스튜디오는 고암 이응노 화백 학술연구로 입주작가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응노의 집은 2018년 12월 공공예술부문 입주작가의 공개모집이 시작된 이후 총 16명의 예술가가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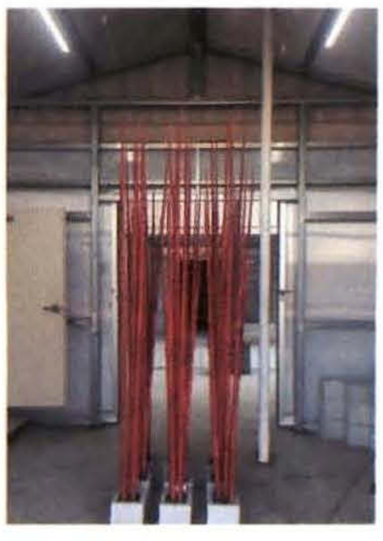
1,2차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시각미술 및 공공미술 분야에 박용화(회화), 유영주(설치), 이자연(설치·조각) 등 총 3명의 작가가 최종 선정되었다.

입주작가 심사 관계자는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작가선정에 엄선을 기했다"며 "올해 입주작가 선정 모집분야인 공공예술부문은 예술의 가능성을 공공적 역할로 확산하는 것이 주목표가 될 것 같다. 이번 창작스튜디오 선정 작가들의 입주 후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응노의 집 제3기 선정 입주작가는 2019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이응노의 집에 위치한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에서 오픈스튜디오, 입주작가 개인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작가제안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다.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첫 만남 후 마을과 지역탐방

오리엔테이션 후 이응노마을과 홍성지역 탐방 … 주민연계 프로그램 구성 도움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창작스튜디오 제3기 입주작가 오리엔테이션이 2019년 2월 27일(수) 컨테이너스튜디오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오리엔테이션 1부는 첫 인사와 입주작가 작업세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2부는 창작스튜디오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입주사항 설명 등이 이어졌다.

오리엔테이션 후에는 이응노의 집 문화 공간 가이드 투어가 진행되었다. 한옥과 축사재생을 통한 창작스튜디오를 비롯해 예술문화자료실, 이응노 생가, 이응노·박인경 '사람·길'展이 열리고 있는 기념관을 돌았다.

3월 6일(수)에는 1차 '이응노마을' 탐방으로, 홍성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탐방을 시작해 홍천문화 1차 마을, 2차 마을, 마을복지회관(별의별 작은 도서관, 별의별 도예공방), 나무공방 소풍, 별의별 창작공방, 백월산도예, 동학이네 집 순으로 탐방이 진행되었다.

3월 15(금)에는 2차 '홍성 탐방'으로, 지역사회와 역사문화 이해 및 창작활동, 주민연계 프로그램 아이디어 모색을 위해 기획되었고, 홍주성역사관 탐방을 시작해 홍주의사총,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 결성향교, 광천전통시장, 홍동 마을(밝맑도서관, 그물코출판사, 풀무생협 갓골빵집)과 장곡 오누이권역 탐방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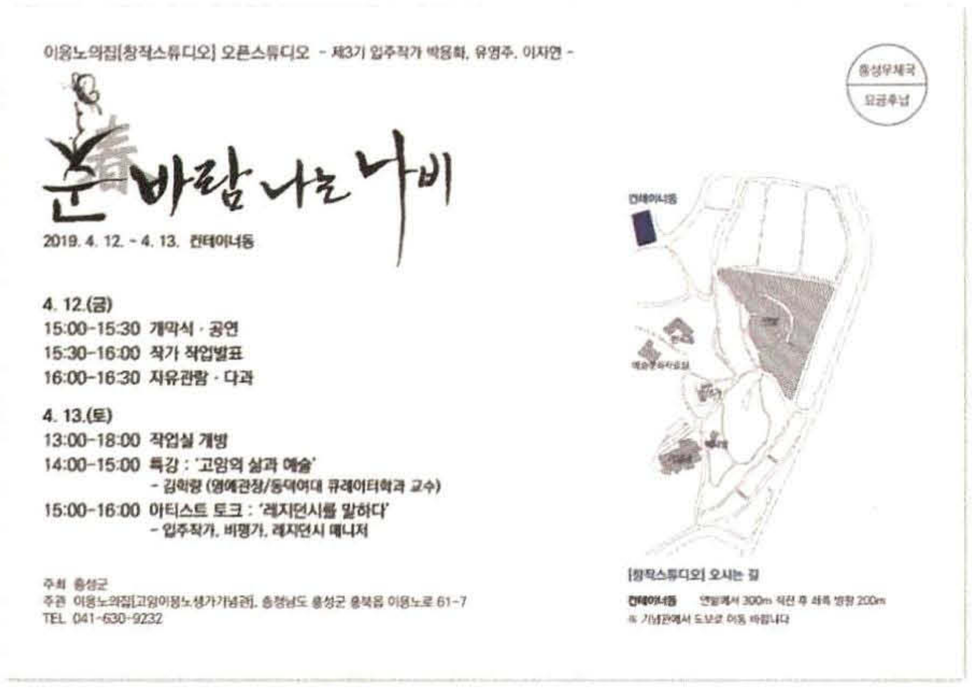
한편,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제3기 입주작가들은 1,2차 탐방에서 이응노마을과 홍성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주민연계 프로그램과 개별 작업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춘春 바람 나는 나비’처럼 설레는 첫 ‘오픈스튜디오’ 열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박용화·유영주·이자연’ … 레지던시 프로그램 진행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창작스튜디오 제3기 입주작가들의 ‘오픈스튜디오’가 2019년 4월 12~13일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시각예술과 공공예술분야의 박용화, 유영주, 이자연 3명의 작가를 선정, 2019년 3월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10개월간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오픈스튜디오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첫 번째 자리로, 입주작가 소개와 함께 마을과 지역주민에게 열린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12일(금)에는 오픈스튜디오 오프닝 행사로, 김진희 안무가의 ‘춤추는 군상’ 공연과 입주작가 작업 발표, 13일(토)에는 입주작가의 창작스튜디오를 개방하고 이응노의 집 명예관장인 김학량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의 ‘고암의 삶과 예술’ 특강, 입주작가와 비평가, 학예연구사가 진행하는 ‘레지던시를 말하다’ 등이 진행되었다.

박용화 작가는 충청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각예술가로 회색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이미지를 그려내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박 작가는 “다시 돌아와 반갑고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공미술 작품을 선보이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였다.

유영주 작가는 서울, 아프리카, 유럽 등을 다니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소리로 들려주는 작업세계를 선보인다. 시각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오로지 소리를 통해 타인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마음 속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유 작가는 “아름다운 홍성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 삶의 지혜를 담는 좋은 작업을 하고 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자연 작가는 인근 예산이 고향으로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작은 개체들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켜켜이 쌓아 올려 연결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전국을 다니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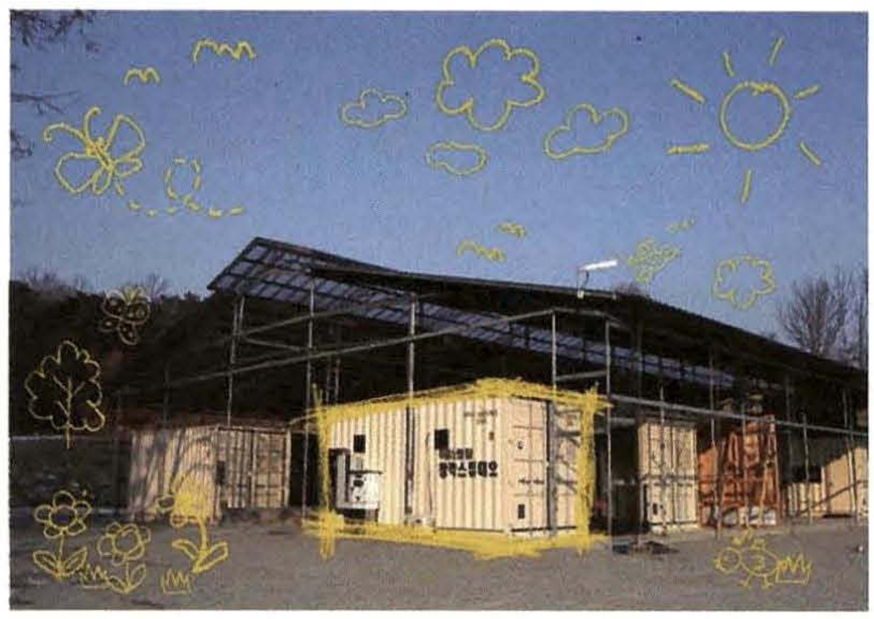
홍성에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녀본 홍성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기쁘고 고향처럼 푸근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가겠다"고 말하였다.

박 작가는 마을의 공간제작 프로젝트인 '아트뱅커 프로젝트'를 10월 중 선보이며, 유 작가는 이응노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을 소리로 담아보는 '늦여름 밤의 이야기 콘서트'를 9월 중에, 이 작가는 마을 어르신들의 삶의 흔적을 담아보는 '나의 얼굴, 나의 손'을 5월 중에 선보인다.

한편,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는 지역밀착형 공공미술프로젝트, 전문가 멘토링 및 비평, 교류탐방, 종합전시 등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술가의 창의적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창작지원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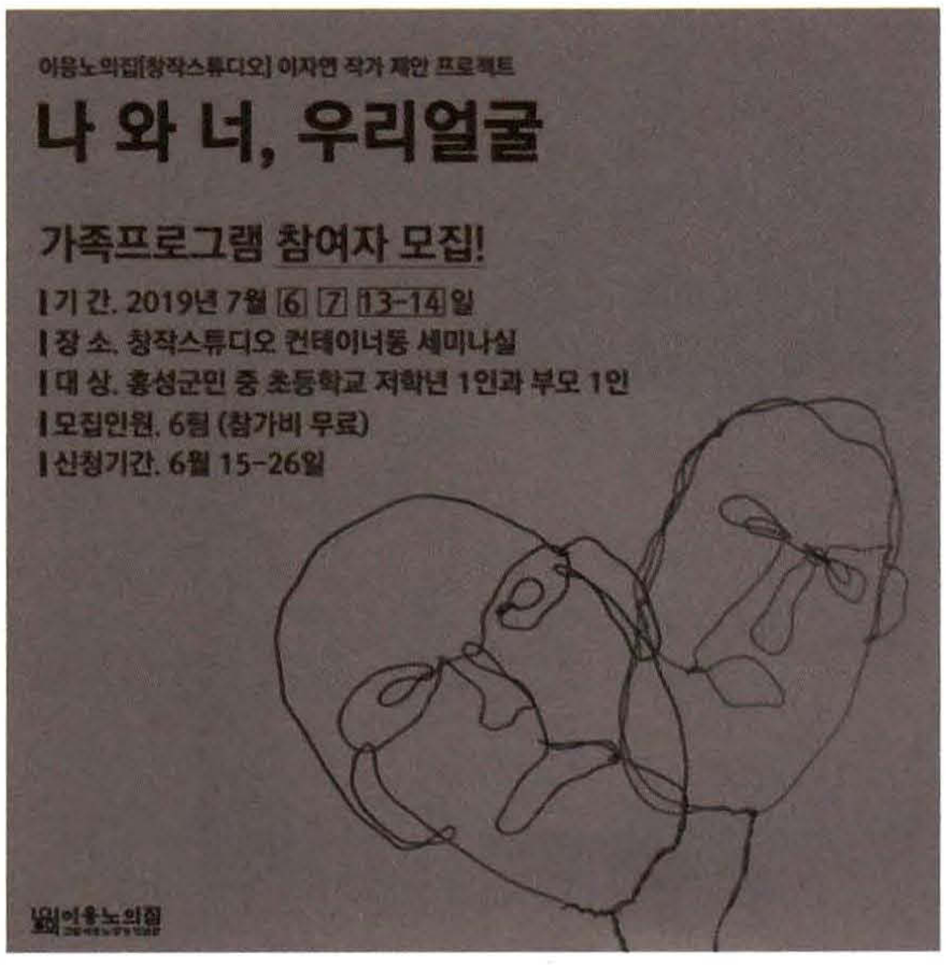




•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2019 제3기 입주 작가 제안 공공미술프로젝트

이자연 작가의 '나와 너, 우리 얼굴'

이응노의 집 주변서 가족 팀 활동 통해 '자화상' 만들기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창작스튜디오 이자연 작가의 제안 공공미술프로젝트는 '나와 너, 우리 얼굴'을 주제로 한 교육프로그램. 2019년 7월 6,7일(토,일)과 7월 13,14일(토,일) 두 차례 진행되었다.

'나와 너, 우리 얼굴'은 마을과 홍성·내포 주민 가족이 팀(자녀1명+학부모1명)을 이뤄 놀이형식으로 이응노 생가와 잔디밭, 연밭 등 이응노의 집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투어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놀이형식으로 추억을 쌓고 이응노 작품과 이응노의 집 주변 환경을 관찰 결과를 이해하며, 주어진 미션해결을 통해 다양한 만들기 재료아이템을 획득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가족이 함께 '자화상'을 주제로 한 미술 활동을 통해 조형 작품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유영주 작가의 '홍천마을, 아는 사람들 이야기'

마을주민들 각자의 삶속에서 '몰랐던 이야기' 끄집어 내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창작스튜디오 유영주 작가의 제안 공공미술프로젝트는 '홍천마을, 아는 사람들 이야기'이다.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긴 호흡으로 진행되었다.

'홍천마을, 아는 사람들 이야기'는 홍천문화 1,2차 주민과 마을리더 등을 6개월 여간 산책하면서 만나 두런두런 수다를 떨 듯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로 물음은 시작하고, 스물아홉명,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이야기의 순간을 사진에 담았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실은 '몰랐던 이야기'를 소리와 모습으로 담아 9월 6일() 컨테이너스튜디오에서 소박한 행사로 펼쳐냈다.

소박한 잔치퍼포먼스로 열린 행사는 마을주민인 한영덕 어르신의 색소폰 연주와 고암풍물패 풍물연주, 만찬, 그리고 영상 상영, 주민장기자랑, '도시의 노마드' 초청공연으로 이어졌다.





•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2019 제3기 입주작가 개인展

'붉은 촉', 불안한 심리와 부러지기 쉬운 예민한 촉觸

이자연 작가, 이응노의 집 기획전시실에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려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창작스튜디오 제3기 입주작가 이자연 작가의 개인전 '붉은 촉–어떤 상황적 풍경'이 2019년 10월 22일(화)부터 31일(목)까지 이응노의 집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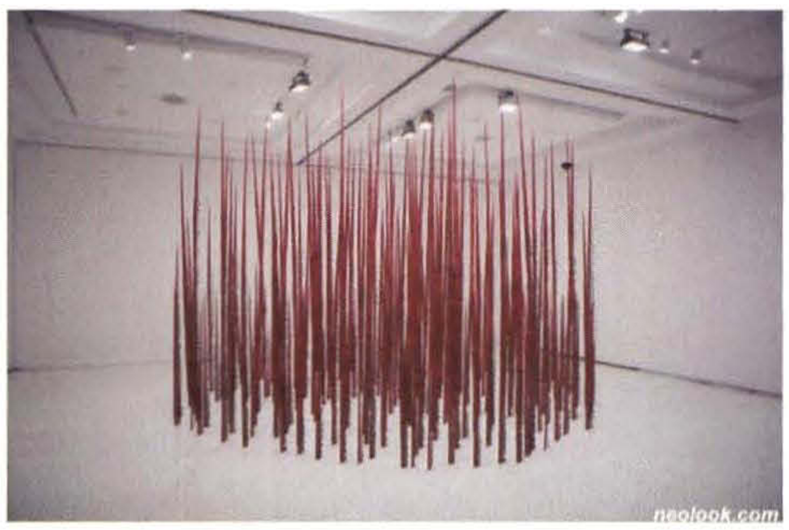
이 작가의 '붉은 촉–어떤 상황적 풍경'은 불안한 요소와 심리적 성장 또는 부러지기 쉬운 예민한 촉을 '붉은 촉觸(2018)'으로 하여 2019년 시시각각 변화되는 감정과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펼쳐지는 상황적 풍경을 연작으로 설치하고 있다.

붉은 촉은 '날카로운. 부러지기 쉬운. 연약함. 동물적인. 핏덩이. 갸날픈. 시작과 끝. 미세함. 성장점. 시간. 증오. 에너지. 관찰. 돌연변이. 투영. 마디식물. 치유. 온화. 긴장감. 회피. 두려움. 다가설 수 없는. 자화상. 경계. 숲. 살아있는. 매혹적인. 부드러운. 불안한. 거울. 붉은 촉'이다.

이 작가의 작업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나'라는 개인이 관계에서 드러나는 현상, 여성의 사회학적 측면의 정체성을 사유한다. 또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 이것을 동식물의 형상으로 변형하고 기형적 형태로 드러내어 상징적, 은유적으로 형상화 한다. 동식물과 사람의 언어적·신체적·자연적 특성을 연구하고 결합해, 기형적 형태이거나 추상적 이미지로 입체조각 혹은 공간설치조각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면'으로 빚어낸 따뜻한 마을사람 '사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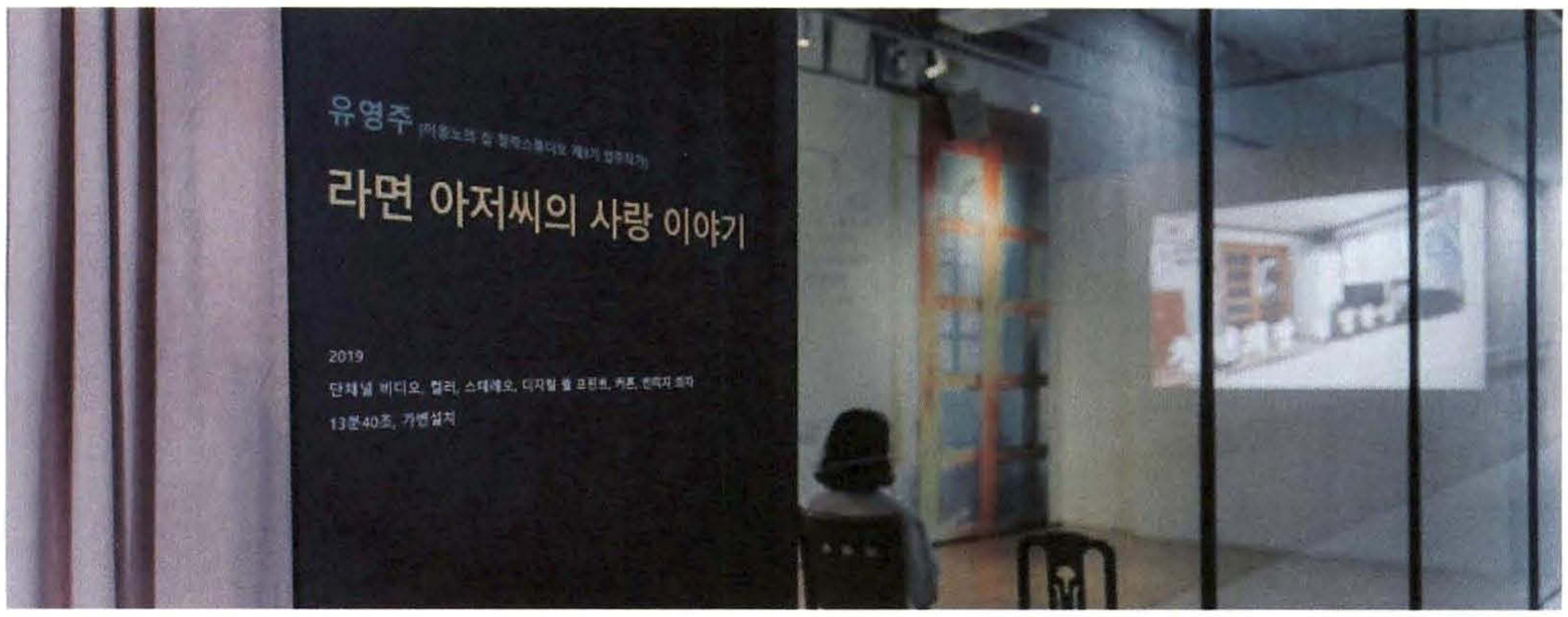
유영주 작가, 이응노의 집 기획전시실에서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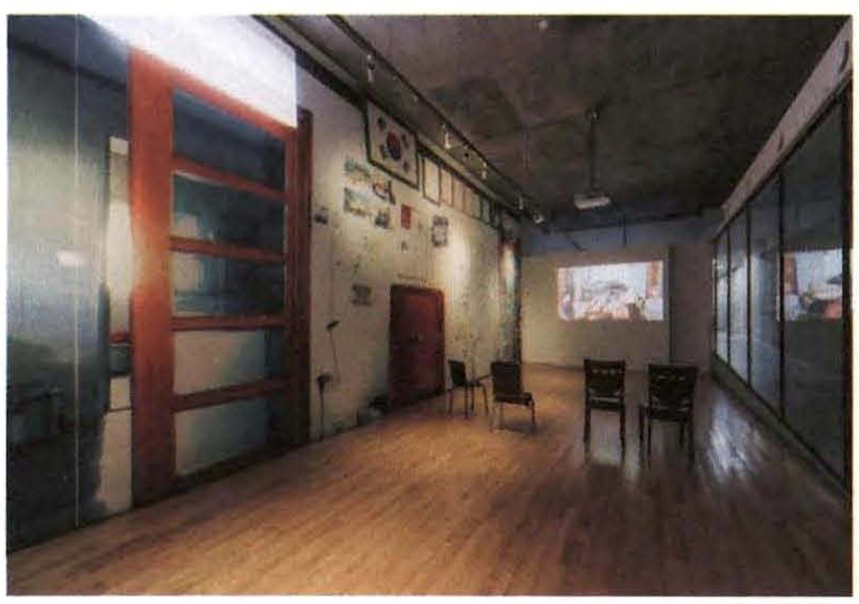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창작스튜디오 제3기 입주작가 유영주 작가의 개인전 '라면 아저씨의 사랑 이야기'가 2019년 11월 5일(화)부터 14일(목)까지 이응노의 집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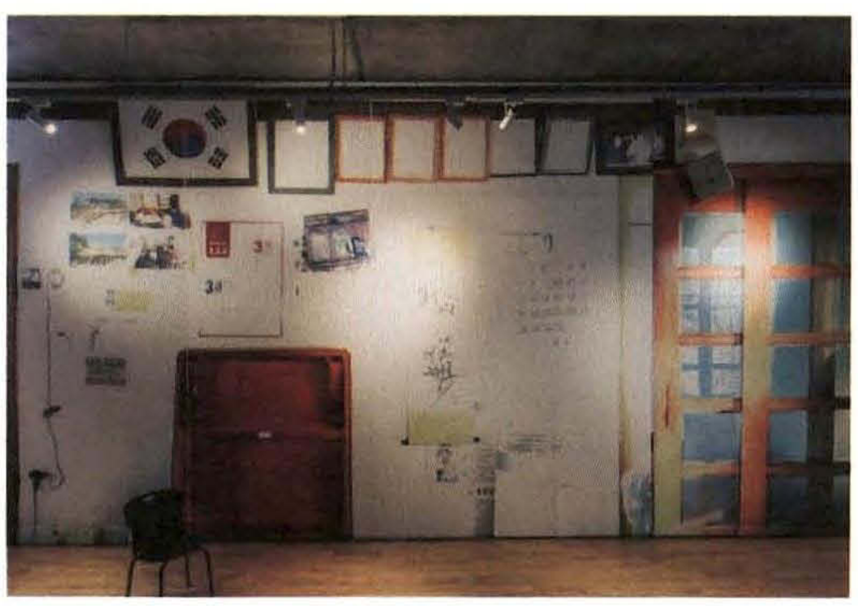
유 작가의 '라면 아저씨의 사랑 이야기'는 홍천문화2차마을회관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풀어낸다. 회관에 모인 마을어르신들이 컵라면을 먹는다며 상을 펴고 뜨거운 물을 붓고, … 한 어르신이 회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물었다. 라면을 좋아하는 아주머니(어르신의 부인)를 모시러 간 것. 얼마 후 두 내외 어르신들이 회관으로 들어오고 화기애애하고 맛있게 라면을 드시는 모습에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 그렇게 촬영에 들어간 장면이 '라면 아저씨의 사랑 이야기'이다.

유 작가의 '라면 아저씨의 사랑 이야기'는 촬영 전 주민들과 에피소드가 벌어진 날의 기억을 공유하며 단 한 번의 촬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다. "이 이야기를 꼭 좀 들어 봐 주세요."

한편, 전시 첫 날인 11월 5일, 이응노의 집 기획전시실에는 출연배우를 위한 레드카펫 행사가 열렸고, 배우들이 들어올 때마다 유 작가는 그들에게 꽃을 달아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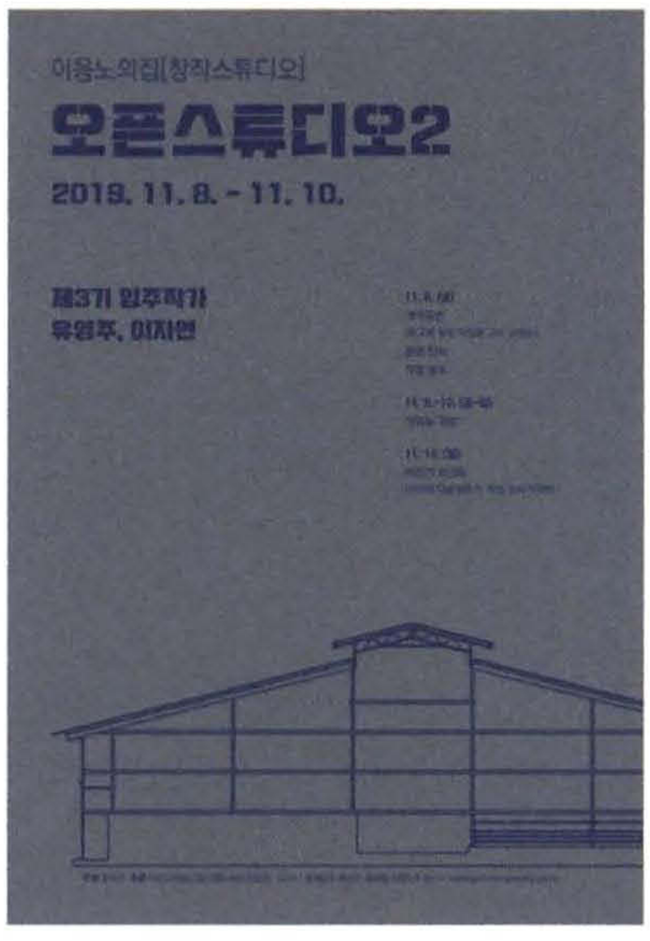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 입주작가 작업 마무리하는 두 번째 '오픈스튜디오' 열어

유영주 작가 '이승호 씨 이야기', 이자연 작가 '붉은 촉–어떤 상황적 풍경' 등 보여줘
마을주민 참여한 '홍천오페라' … '관계의 부재' 담은 신나라 학예연구사의 '무제無題'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창작스튜디오 제3기 입주작가의 두 번째 '오픈스튜디오'가 2019년 11월 8~10일 컨테이너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시각예술과 공공예술분야의 박용화, 유영주, 이자연 3명의 작가를 선정, 2019년 3월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10개월간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박용화 작가가 개인상의 이유로 이탈하면서, 우영주, 이자연 작가만 두 번째 '오픈스튜디오'를 함께 하였다.

이번 오픈스튜디오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두 번째 자리로, 9개월 간 쌓아온 창작 활동과 작업 환경을 공개하는 자리로, 마을과 지역주민에게 창작 작업을 공유하고 소통하였다.

8일(금)에는 오픈스튜디오 오프닝 행사로 유영주 작가가 직접 연출한 '홍천오페라'와 박성환 중고제 명창과 신성수 고수의 백발가, 심청가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작업실 투어로 유영주 작가의 '이승호 씨 이야기'와 이자연 작가의 '붉은 촉, 세줄 일기, 2019 스튜디오 생활', 신나라 학예연구사의 부제不在 '무제無題' 등을 발표했고, 2019 창작스튜디오 이야기 슬라이드 영상을 감상하였다.

9일(토)에는 작업실 자유 관람, 10일(일)에는 입주작가와 비평가, 학예연구사가 진행하는 비평가조담회가 진행되었다.

유영주 작가는 서울, 아프리카, 유럽 등을 다니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소리로 들려주는 작업세계를 선보인다. 시각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오로지 소리를 통해 타인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마음 속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유영주 작가는 "마을주민 이승호 씨의 발견은 매우 흥미로웠다"며 "그의 성격, 삶의 태도에서 마을 이곳저곳의 명칭과 유래를 기록물로 남기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자연 작가는 인근 예산이 고향으로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작은 개체들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켜켜이 쌓아 올려 연결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약 8개월 동안 이곳에서 지내면서 사유하고 경험한 여러 일상의 단상들을 기록했다"며 "특히 세줄 일기는 나와 타자의 내면을 탐구하고 관찰하는 작업의 키워드로서 일기처럼 기록되는 작업노트"라고

말하였다.

이자연 작가는 '붉은 촉-어떤 상황적 풍경'을 주제로 10월 22일(화)부터 31일(목)까지, 유영주 작가는 '라면 아저씨의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11월 5일(화)부터 14일(목)까지 이응노의 집 기획전시실 개인전을 열었다.

한편,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는 지역밀착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문가 멘토링 및 비평, 교류탐방, 종합전시 등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술가의 창의적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창작지원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F-3-4] 2호실 : 부재不在 〈무제〉

2019년 2월에 입주 작가 선정을 마친 후로, 창작스튜디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입주 작가가 살아가는 삶의 터이자 창작 활동을 하는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약 9개월간의 시간 속에서 변화된 공간에 비례해 바뀐 삶의 태도나 양식, 창작에 대한 생각, 관계는 무엇이 있나. 변화해 온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축적해 왔고, 무엇이 부재해 왔는가. 축적의 시간과 부재의 시간을 지나온 창작스튜디오의 얼굴을 마주하며 현재 주목하는 것은 '관계'이다. 올해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하며 쌓여온 경험-잘못된 소통의 축적과 관계의 부재에 대한 경험-속에서 미래를 여는 열쇠는 '관계'이다.

[관계 주체]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 이응노의 집(기관)은, 입주 작가는, 홍천마을은. / 관계의 주체가 되는 대상은 '기관', '입주 작가', '마을'이다. /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운영의 핵심은 이 '삼각관계'다

[관계 설정] '어떤 관계 설정을 원하는가' --- **[이응노의집-입주 작가]** ①지원육성기관과 선정 작가 ②운영관리주체와 수용주체 ③매니저와 입주 작가 ④기획자와 예술가 ⑤매개자와 예술문화 생산주체 ⑥기타 [입주 작가-마을] ①예술가와 관람주체 ②입주 작가와 참여주체 ③문화예술 생산자와 수요자 ④새로운 입주민과 마을 ⑤기타 [마을-이응노의 집] ①수혜지역과 공공기관 ②문화 향유주체와 예술매개주체 ③신농촌과 문화관광명소 ④재생콘텐츠 허브(hub)와 문화생산기관 ⑤기타

[이해 관계]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정의 --- [홍성군] ①홍성군 소유의 공적 재산 ②지역 문화예술 정책에서 생산성과 효용 가치가 있는 사업 ③홍성군민의 공익과 문화예술 향수권 증진에 기여하는 곳 [기관] ①기관이 운영하고 입주 작가의 생활 권리가 있는 곳 ②프로그램을 운영해 입주 작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곳 ③신농촌 문화재생 지역에서 문화예술 자원을 생산하는 곳 [입주 작가] ①입주 작가의 생활공간이자 삶의 터 ②자율성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작업실 ③문화예술 정책 사업으로 창작지원금과 거주 및 창작 공간,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비용과 인적 자원을 지원을 받는 곳 [마을] ①매해 새로운 젊은 예술가가 마을에 와서 살아가며, 마을 혹은 마을주민에게 예술행사를 펼쳐 보이는 곳 ②'쓰레기마을'이라 불리던 아픈 역사 속 지역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는 곳

[공동체 관계 : "공동체는 없(었)다"] --- "공동체는 자신의 삶을 이타적으로 그리고 감내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의 긴밀한 관계를 상정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2019년 3월 14일 '레지던시를 말하다' 대화 중 비평가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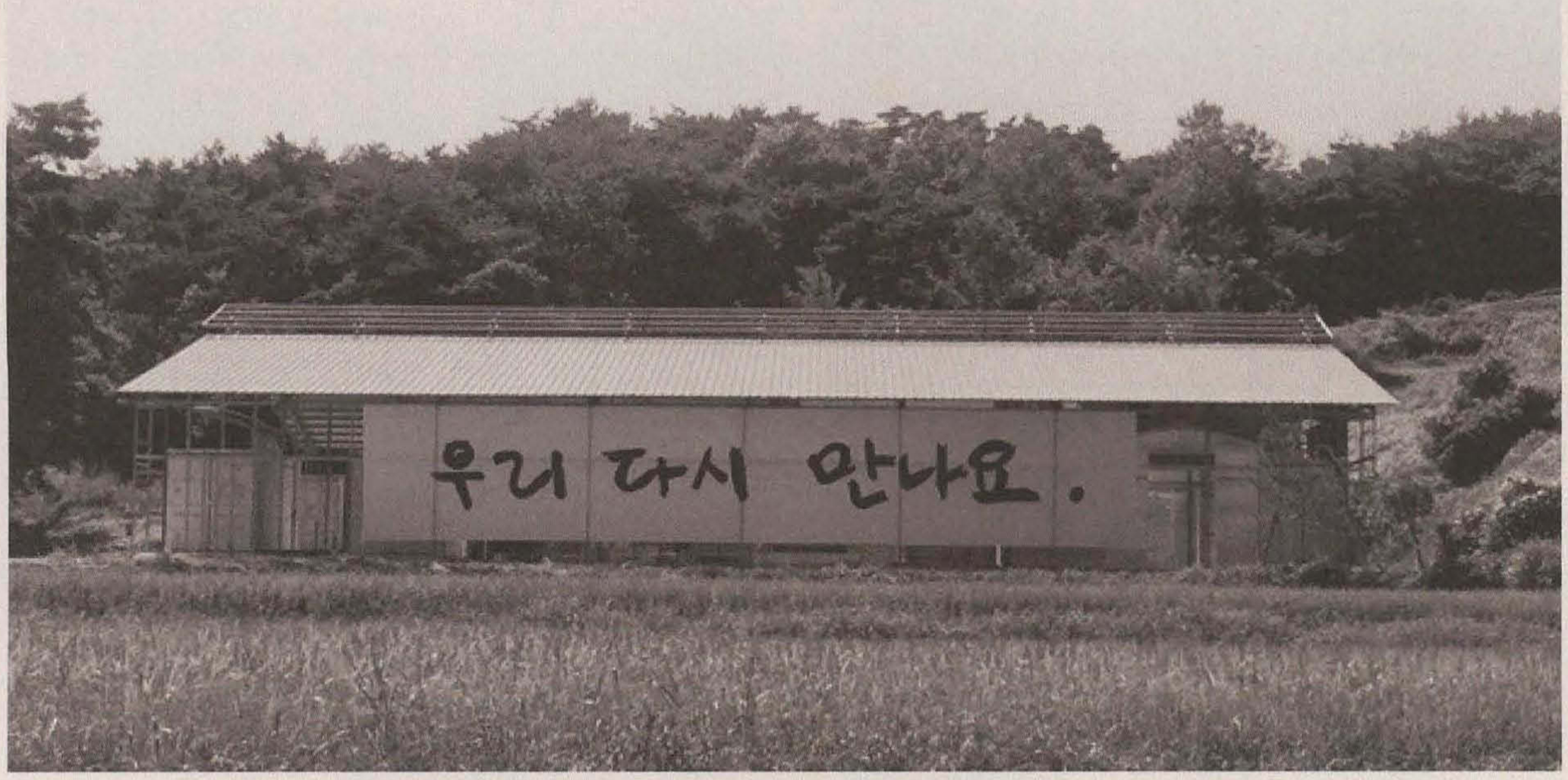
[잘못된 소통의 축적] --- A: 그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다시 말씀 드릴게요. --- B: 내부적이요? 어디 내부요? 우리요? 아니면 기관이요? 그럼 우린 외부인가요? 아, 우린 외부 사람이죠. 참. --- C: 내

년에는 작가 제안 프로젝트 여기 마을주민 대상 말고 넓게 잡으셔야겠어요. / 저는 솔직히 여기 마을주민들에게 창작스튜디오에서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마을사업에서 하는 행사들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여기서 하려는 프로그램들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귀찮아 하고. 여기 입주한 작가 모두가 마을주민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려고 하니까 그것도 나름의 경쟁이에요. --- D: 창작스튜디오에서 작가가 제안하는 지역 협력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꼭 '주민'만을 대상으로 기획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을에 이정표 세우는 일이나, 마을의 의미 있는 조각품을 세우는 일처럼 '마을'을 대상으로 작가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제안하는 게 프로젝트의 취지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꼭 '주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소통했었나 봐요. --- E: 마을행사 때 제가 참여하는 부분 사진이랑 영상이랑 찍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날 토요일인데 출근하시나요? 저는 ○○○가 찍어주셨으면 하는데, ○○○ 출근하나요? --- F: 저 그날 출근 안합니다. G: 마을행사인데, 다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H: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에 꼭 출근해서 찍어드려야 하는 건가요? --- I: 아니 그게 어떻게 내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창작스튜디오 일이죠. / 내 작업에 마을주민을 동원하기 위해 나도 마을에 보탬이 되는 걸 해애 해요. / 그래서 주말마다 시간 내서 연습하러 나가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걸 내 개인 일이라고 보면 안 되죠.

[관계의 부재不在] --- #시스템 #운영규칙과 질서 #단일한 의사소통 체계 #매개자 #2호실 #작가의 권리 #기관의 권한 #상호신뢰관계 #인간적인 관계 --- 기관을 기관으로 보고, 입주 작가를 입주 작가로 보고, 마을을 마을로 보고. /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보았다면, 입주 작가를 '우리 마을 입주민'으로 보았다면, 마을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보았다면.

[관계에 대한 심상]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 아니 불, 가할 가, 가까울 근, 멀 원 : 가까이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음.

※ 출처 :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2019〉, 신나라 (2019. 12. 31.) 수록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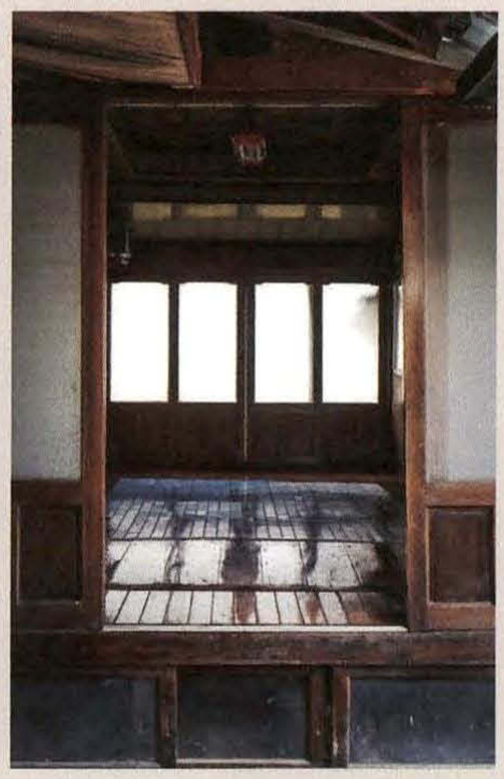
〈특집 2〉 이응노의 집, 2019 창작스튜디오 '책자 발간 서문'

'창작스튜디오 2019'의 순간들을 기록하다

다사다난 했던 올해 창작스튜디오 순간마다 입주 작가 삶의 시간들과, 또 많은 영향을 주고 받은 이응노마을 모습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부임한 신참학예연구사의 좌충우돌 이야기도 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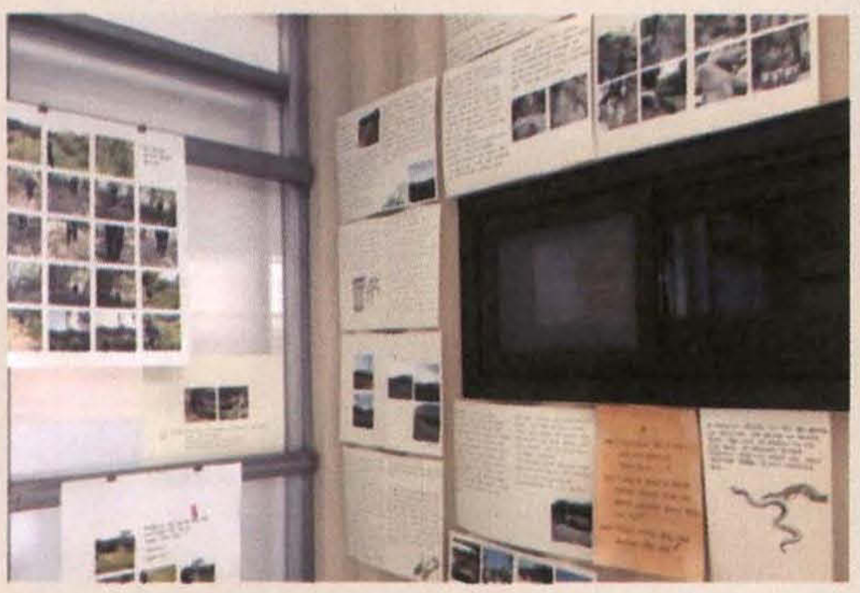
보편적으로 보자면 예술가의 창작 활동과 작업 공간, 그리고 환경은 미술계에 속하고, 주된 관람자는 전문인 및 전공 분야의 사람들과 일반 대중 사이에서 그 비율이 적절히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곳 이응노의 집에서 입주 작가 활동과 창작스튜디오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람자의 80%는 마을주민, '어르신들'입니다. 이 점이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가 특수성을 띠는 지점입니다.





신기하고 인상 깊었던 순간은 4월 오픈 스튜디오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응노마을의 어르신들 거의 모두가 입주 작가의 '오픈 스튜디오'가 무엇을 하는 일인지를 잘 알고 참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홍성이라는 낯선 지역에서 처음 살아 보며 지역을 이해하고 스미는 활동으로 '지역협력형'–'작가 제안프로젝트'가 입주 작가에게 쉽지만은 않은 새로운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 도전의 과정과 결과물들을 이 책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술 활동으로 지역과 유대감을 형성한 올해의 성과는 작가 제안 프로젝트 행사에서, "나이가 들어 힘들었지, 그 시간과 행사는 힘든 게 아니었다. 있겠다 하면 더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신 주민 어르신들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새로운 예술적 시도의 축적은 신농촌 문화재생 마을의 문화예술 자원이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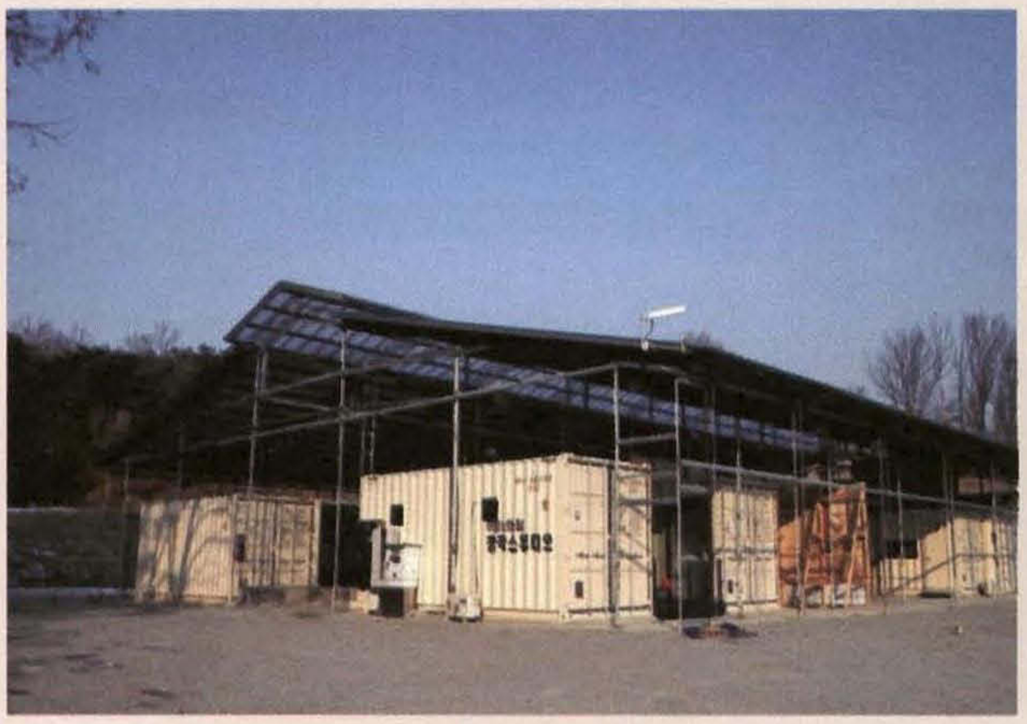
고, 이는 다시 또 새로운 예술가의 영감이 되어 순환을 이룹니다. 지역과 기관, 입주 작가와 기획자, 마을과 주민 모두의 시시각각 다른 현상 속에서 서로가 마주하는 '산 경험'들이 언제나 쉽게 얻어지거나 평화롭지만은 않지만,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드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에서는 대형 창작스튜디오가 갖춘 주류 시스템이나 교단의 커리큘럼처럼 짜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홍천마을과 홍성지역 알기', '지역협력형 작가 제안 프로젝트', '전문가매칭프로그램', '개인전', '오픈 슈튜디오 1·2'는 해마다 선정된 작가의 작업 성향에 따라, 지역과 기관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그리고 새로운 기획에 따라 늘 새롭게 시도하고 창작하기를 지향합니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순간들을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보이며 값진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오늘의 시행착오가 더 나은 내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리라고 믿으며….

※ 출처 :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2019〉, 신나라 (2019. 12. 31.) 수록 글

※ 신나라(이응노의 집 학예연구사)





2-2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이야기

- 2020년 제4기 입주작가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3명 선정

2020.02.24

이응노의 집[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은 2020년 창작스튜디오에서 활동할 제4기 입주작가 3명을 선정하였다.

이응노의 집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화·시각예술·공공예술부문 제4기 입주 작가 공개모집에 재작년보다 약 2배 늘은 28명의 예술가가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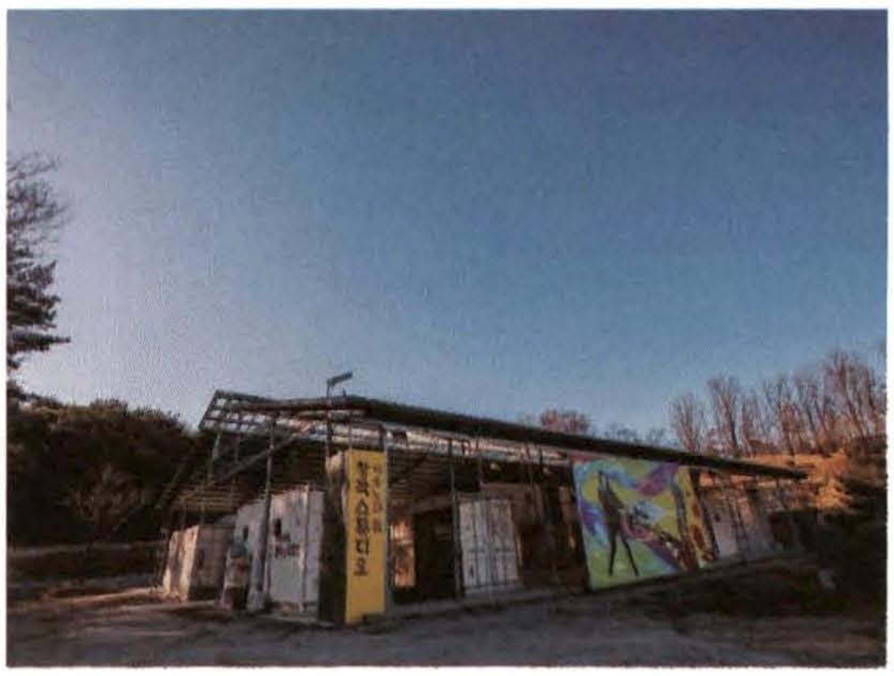
지난 5일 지원자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자발적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일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6명을 대상으로 13일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해 2020년 입주작가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입주작가는 시각예술분야에 ▲김제원(지역 리서치·설치미술), ▲민택기(사진), ▲정직성(회화) 등 총 3명이다.

이응노의 집 관계자는 "이응노 화백의 철학과 작품성이 기념관 안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으로 확산돼 문화적 활력을 줄 수 있는 작가들 위주로 선정했다"며 "이번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4기 입주 작가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응노의 집에 위치한 창작스튜디오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오픈스튜디오, 입주작가 개인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작가제안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이응노마을과 홍성탐방'

마을과 홍성탐방 …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통해 작가제안 프로그램 모색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제4기 입주작가들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11~12일 '이응노마을'과 '홍성지역' 탐방 등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11일(수) 1차 '이응노마을' 탐방의 첫 목적지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형제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프랑스 파리 시립 페르 라 셰즈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염원을 담아 이응노의 머리카락을 잘라 고향에 묻은 묘소이다. 고향에 잠든 이응노와 그의 형제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홍성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탐방을 시작으로 홍천문화 1차 마을, 나무공방 소풍, 별의별 창작공방, 백월산도예를 거쳐 홍천마을 사랑방인 동학이네 집 순으로 진행되었고, 탐방은 마을복지회관(별의별 작은 도서관, 별의별 도예공방)과 홍천문화 2차 마을을 끝으로 마무리 하였다.

12일(목)에는 2차 '홍성지역' 탐방으로, 입주작가 가운데 민택기 작가의 제안대로, '맘대로 투어'가 진행되었다. 내포신도시에서 홍성읍 월산상가, 홍성전통시장을 지나 홍동 밝맑도서관, 갓골빵집, 게스트하우스, 생각실천창작소 안 '민택기사진관'과 도방 '옹기종기', 갓골목공소 등을 둘러봤고, 장곡 오누이권역에 점심식사를 하였다.

토굴새우젓으로 유명한 광천으로 향해 '토굴새우홍보전시관'과 실제 새우젓을 보관한 토굴을 둘러보면서, 양조장을 개조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일정을 마쳤다.

입주작가와 마을주민의 직접 만남은 3월 19일(목)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다. 이응노마을신문 전상진 편집인의 '마을 이야기' 강의와 입주작가들의 '홍천마을탐방 보고서' 발표로 제4기 입주작가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쳤다.

한편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제4기 입주작가 오리엔테이션은 지역사회와 역사문화 이해 및 창작활동, 주민연계 프로그램 아이디어 모색을 위해 기획되었고, 1,2차 탐방에서 이응노마을과 홍성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주민연계 프로그램과 개별 작업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예술 이미지 담은 '파사드' 제작

축사재생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개선 위해 예술 이미지 살린 파사드 제작해
민택기 작가, "작가의 행위는 마술, '파사드'는 서커스 극단의 캐릭터처럼 표현"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에서는 축사재생을 통한 예술 공간 이미지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에서 202년 5월 6일(수) '파사드'를 제작하였다.

'파사드(Façade)'란 건축물의 정면부로, 건물 전체의 인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건축양식의 용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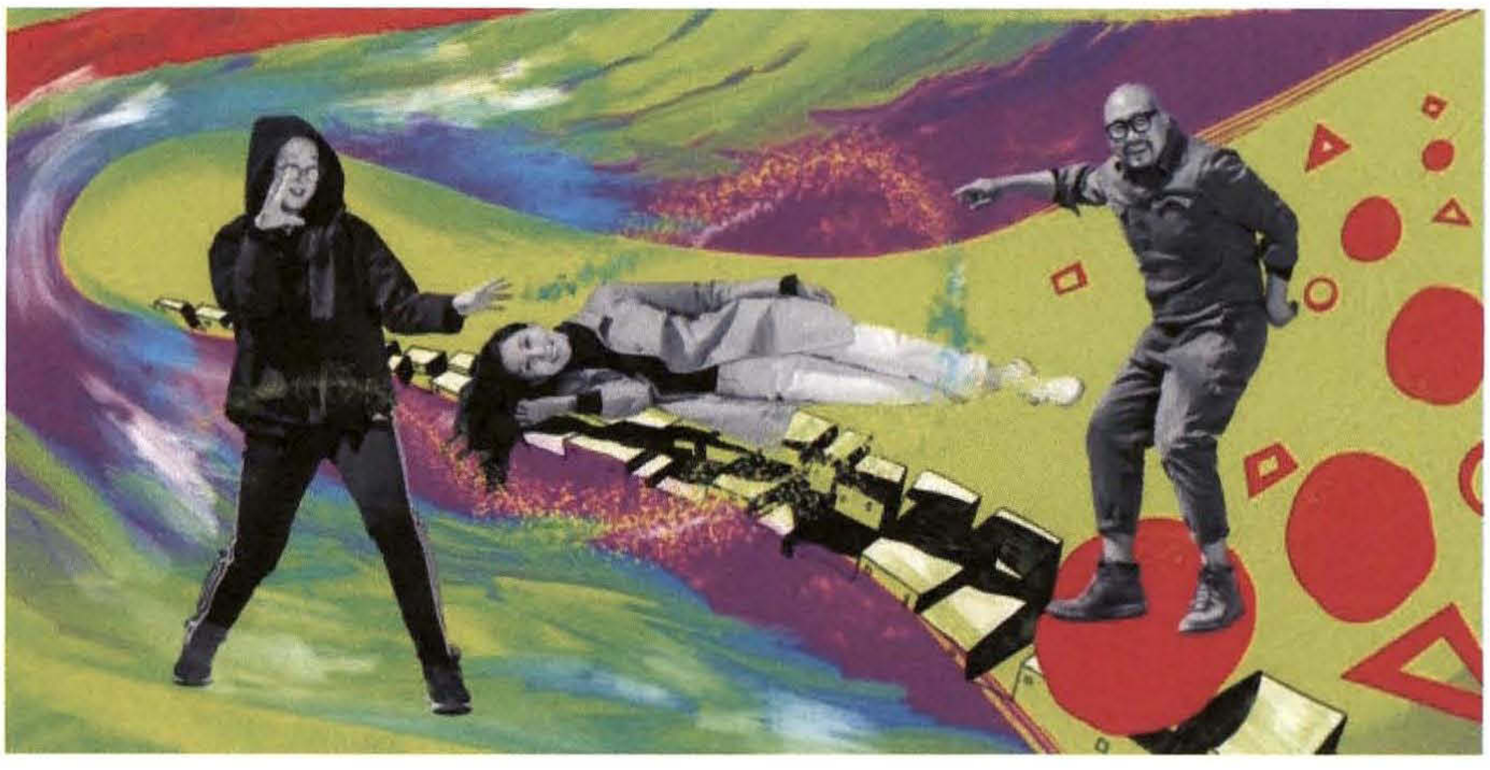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매해 4월 마을과 홍성·내포주민들에게 입주작가 작업실을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이응노의 집에서는 입주작가와 지역주민들 간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고안하였다.

신나라 이응노의 집 학예연구사는 "축사 외관으로 4m×8m 규모의 한 이미지가 멀리 있는 도로에서도 보인다면, 시각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소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파사드 제작 동기를 밝혔다.

파사드는 창작스튜디오가 보존한 기존 축사원형 정면부에 천막과 각관을 사용해 가로 4m, 높이 3.8m의 2개의 시설물 형태로 가로 레일을 달아 좌우 이동이 가능한 창고 문형으로 제작되었다.

파사드의 내용은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과 학예연구사의 수차례 논의 끝에 고안해낸 것으로 입주작가의 캐릭터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미지를 담아냈다.

'이응노의 집이 사랑한 얼굴들'이란 제목은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Faces Places, 2017'제목에서 차용한 것.



파사드에 담긴 첫 작품 이미지를 제작한 민택기 작가는 "작가가 하는 행위는 마술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커스 극단의 캐릭터와 같이 표현했다"며 제작의도를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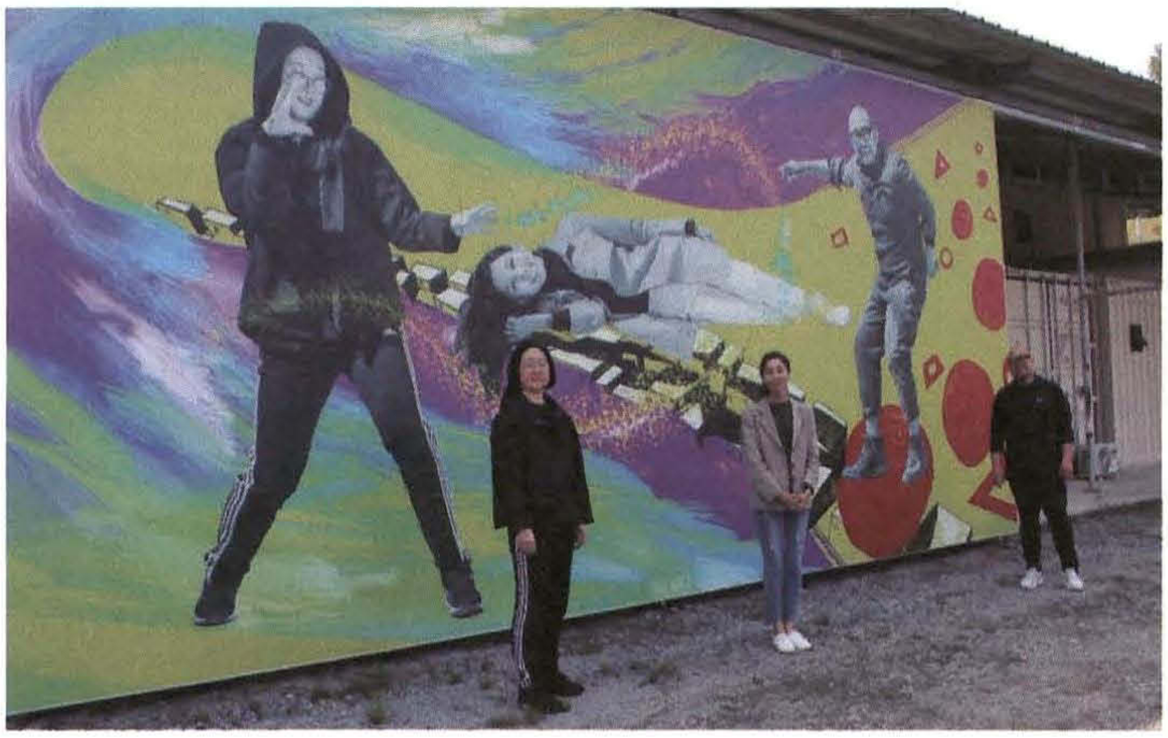
'파사드가 어떤 효과를 보여줄 것 인가'라는 질문에, 김제원 작가는 "전보다는 훨씬 더 '이곳이 예술적인 무언가를 하는 곳이구나'하고 알아차릴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정직성 작가는 "마을 공방에서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을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함께 경험하고 여러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면서 10개월이란 기간을 통과해서 제 작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다"며 앞으로의 창작스튜디오 활동계획에 대해 답하였다.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파사드 전시는 5월 8일(금)부터 6월 30일(화)까지 두 달여 간 세 명의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릴레이로 선보인다.

아울러 창작스튜디오 세 입주작가의 '슬기로운 창스 생활'은 이응노의 집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특집 3〉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축사 예술문화 산실로 다시 살다'

창작스튜디오 '축사' 이미지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가 개관 3주년을 맞으며 예술인의 꿈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특히 홍성의 큰 경제원인 축산업의 상징인 축사를 창작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축사 창작스튜디오'의 태동과 성장, 변화와 함께 4기 입주 작가들의 활동계획을 신나라 이응노의 집 학예사의 글로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축사, 예술 · 문화 산실로 다시 살다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하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에 올해 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2020년 4월 21일 창작스튜디오 앞부분에 '파사드'를 세운 것. '파사드(façade)' 는 건축물의 정면을 일컫는 말로, 일반적인 건축 시공에서는 그다지 별나지 않다. 하지만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파사드는 공공의 고민으로 탄생한 결과라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고민의 시작은 창작스튜디오 건립과 연관된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는 고암 이응노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2011년) 이후, 문화특화지역 이응노마을 조성사업(2015~2017)과 관련해 2017년 5월에 개관했다. 이응노의 집에서는 이에 따라 주변의 사용하지 않는 축사를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스튜디오'로 탈바꿈 시켰다. 사용하지 않은 축사의 모습과 공사 후 창작스튜디오로 변화한 모습은 다음과 같다.



마을주민이 운영한 축사 모습.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는 2017년 6월, 첫 입주 작가 레지던시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3월 네 번째 입주작가를 맞이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소프트웨어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1.0에서 4.0으로 나날이 성장하는데 비해, 하드웨어인 외관은 "멀리서 봤을 때, 예술가의 창작스튜디오로 보이지 않고 여전히 축사로 보인다"는 점에서, 외부의 관점에서 꾸준한 논란의 주제로 다뤄져왔다. 또 일부 사람들은 "예술가의 창작 터가 축사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지붕의 파란 색을 다른 색으로 칠하거나, 지붕에 커다란 간판을 다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축사재생을 통한 예술 공간 구축 사례.

축사 이미지 버려야 할까? 지켜야 할까?

이응노의 집 학예연구사에게 건축물 시설 변경은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창작스튜디오 외관이 축사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라'는 당면 과제 안에서 축사의 '장소특정성'을 잃지 않아야 했으니 말이다. 2016년 사용하지 않는 축사를 창작 터로 삼은 것은, 당시 도시재생 정책과 맞물린 농촌 문화재생의 필요성과 공공성을 실행하고자 했던 제도권의 선택이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심폐소생 시키려는 도시재생은 2000년대 초반의 주요 경향이었다. 또 유휴공간의 건축물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예술 공간으로 탄생시키는 일은 미술계에서도 하나의 트렌드였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 창동레지던시(마트),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쓰레기매립장), 금천예술공장(공장) 등이 있으며, 해외 사례로는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미술관(화력발전소),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PS1(공립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테이트모던이 재생을 통해 어떻게 예술 공간으로 바뀌었는지, 원형을 살린 건물 재생 요소가 또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는 또 다른 기회에 다루고자 한다.

그렇다면 '장소특정성'을 왜 가져가야 할까? 기존의 건축물 원형을 그대로 활용하는 일은,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를 축사 원형으로 남기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기능적으로도 중요하다.

홍성군 축산업이 창출하는 경제 가치는 다른 농업 생산액의 4배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아울러 홍성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정체성에 기여하는 요소가 된다. 지역의 자연풍경 속에 파란 지붕과 노란 천막의 축사는 상징적인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니 말이다.

하지만 축사 이미지가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도시화 과정에서 양질의 고급화를 향한 움직임은 축산 악취 문제와 맞물려 축사는 천덕꾸러기로 떨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축사를 '예술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 상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는 축산업 차원을 넘어 지역 이미지 쇄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축사 원형을 보존 활용하는 일은 기능면에서도 예술창작 공간에 유용하다. 왜냐하면, 환기에 적합한 건축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축사는 가축 배설물로 인해 습기가 차고 악취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지니는데, 이는 물감안료의 원재료인 파라핀 냄새나 조각·설치작품 제작에서 생기는 부스러기와 분진 등의 문제를 해소시킨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관련 노트르담 대성당 파사드 일부와 대림미술관 파사드.

축사를 창작스튜디오로 리모델링한 정상철 건축가는 "레지던시(=창작스튜디오)를 계획함에 있어서, 높은 층고가 확보 되어 있는 우사의 구조적 특징은 예술가의 다양한작업 활동에 유리한 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축사는 외벽이 모두 열려 있어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 야외 작업을할 수 있는 공간구성이 용이하다"고 보았다.

미국의 건축가 루이 설리번(Louis Sullivan, 1856~1924)은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고 말했다. 이것은 곧 건축사에 뿌리 깊은 바우하우스 정신이다. 축사 형태를 지닌 창작스튜디오는 그대로 축사 건축 기능을 따른다.

상상해 보라. 먼 훗날, 미래 산업의 발달에 따라 홍성의 모든 축사가 사라진다 해도, 형태와 기능면에서 살아남은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증언하듯 말해 주리라. 그렇기에 축사의 지붕 색을 바꾸거나, 지붕 위 큰 간판으로 축사 외관을 훼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창작스튜디오 파사드 제작

앞서 거론된 지붕 색 교체와 지붕의 큰 간판 설치 등은 아예 배제하고 본격적으로 이에 대체할 방안을 고민했다. 창작스튜디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술가가 사는 공간이자 창작활동을 하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홍성=축산'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주는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나 기대하는 창작공간의 예술적 이미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창작스튜디오 정면에 예술성이 돋보여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파사드'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전통 건축의 파사드는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파사드처럼 섬세한 입체세공으로 장식한 고전 형식을 띈다. 하지만 현대에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들이 앞 다투어 기관의 정체성과 특정한 인상을 풍기는 데 활용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해 장식미에 실용미를 더한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는 기존 축사 원형에 이질적인 재료 사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축사 천막과 각관을 사용했다. 그 결과, 2020년 4월 21일에 가로 4m, 높이 3.8m의 파사드 2개를 제작했고, 가로 레일을 달아 좌우 이동이 가능한 파사드로 구현했다.

창작스튜디오 김제원 작가는 야외 홍보무대가 생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파사드가 어떤 효과를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작가는 "부모님이 창작스튜디오에 오신 적이 있는데, 처음엔 이곳을 못 찾으셨어요"라고 웃으며, "마찬가지로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사람들도 이곳이 무얼 하는 곳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파사드를 활용해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보인다면, 이곳이 '예술적인 무언가를 하는 곳이구나'하고 알아차릴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향후 파사드를 활용해 드로잉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창작스튜디오 '축사' 이미지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해 4월에 홍성 지역주민들에게 입주작가 작업실을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1' 행사가 전격 취소되었다.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입주작가와 지역주민들 간 새로운 소통 방법이 필요했다.

파사드는 '입주작가의 인물 캐릭터가 담겨있는 4m×8m 규모의 이미지를 멀리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소통의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Faces Places, 2017〉에서 받은 영감을 작가들에게 이미지화 해보길 제안했다. 그 영화 속 이미지는 인물사진을 커다랗게 건축물에 전사한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Faces Places, 2017 영화 속 장면.

5월 파사드 첫 이미지, '이응노의 집이 사랑한 얼굴들'

영화 속에 구현된 이미지처럼, '여기 창작스튜디오에 살고 있고, 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입주작가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그대로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인 이미지 기획 및 구상은 모두 작가들에게 맡겼다. '예술가니까 예술적인 미감으로 이미지가 새롭게 탄생하기를'하고 내심 바랐는데, 민택기 작가가 작품화해서 보여주니 또 새롭고 독특한 작품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파사드 작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 작가는 "입주작가 세 명의 개성이 드러나 있는 이미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라며 "한 달 넘게 함께 생활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하고 작가들 개인 SNS도 찾아보며 이미지에 개성이나 특징들을 담으려 했어요"라고 말했다.

파사드 제작은 4월 14일 민 작가 주도 아래 촬영을 시작했고, 세 작가의 모습을 한데 합성한 뒤 태블릿PC와 앱(APP) 등을 이용하여 배경을 더했다.

민 작가는 "그림은 제가 그렸지만, 정직성 작가의 작품에서 보이는 회화적 붓 터치를 표현하려고 했어요. 중앙에는 김제원 작가의 드로잉 작품 특징을 보여주고 싶어서 흑백 펜촉으로 김 작가의 작업 소재인 건축이미지를 그려 넣었어요. 이것은 누운 채 공중에 떠 있는 김 작가의 그림자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죠"라며 오른편에 위치한 민 작가 배경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형태들로 구성해 그래픽 요소를 담으려했다고 배경이미지의 표현 의도를 밝혔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파사드 이미지'는 5월 6일부터~6월 30일까지 두 달여 간 입주작가 환영 이미지로 개막해 이후 세 명의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릴레이로 선보인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첫 파사드 이미지

함께 입주해 살아가는 정직성 작가에게는 앞으로의 창작스튜디오 활동계획에 대해 물었다. 정 작가는 "입주작가로서 10개월간 머무는데, 이 지역의 지리 감각이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방에서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을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함께 경험하고 여러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면서 그 참여에 대한 결과(물)을 20년 경력이 넘는 예술가로서 어떻게 작업세계에 투영시키는지, 작업이 10개월이란 기간을 통과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한편, 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작가 활동은 올 12월까지 이어지며, 참여할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협력형 작가제안프로젝트'(5~11월)와 '문화교류탐방'(6월), '전문가매칭프로그램'(7~11월), '개인전'(10~11월), '오픈스튜디오2'(11월) 등이다. 아울러 창작스튜디오 세 입주 작가의 '슬기로운 창스 생활'이 궁금하다면, 이응노의 집 홈페이지(http://leeungno.hongseong.go.kr)와 SNS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출처 : 〈홍성신문〉, 신나라 (2020. 5. 4. / 5. 17.) 기고 글

※ 신나라(이응노의 집 학예연구사)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제4기 민택기 입주 작가



이응노의 집 신나라 학예연구사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제4기 입주작가 릴레이 전시 열어

'슬기로운 2020년 창스 생활' 마무리 짓는 입주작가 개인展 … 10월 7~11월 15일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2020년 10월 7일(수)부터 11월 15일(일)까지 제4기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개인展을 열었다.

릴레이로 진행되는 이번 개인전은 △10월 7~18일 민택기 작가 'Passing through'展 △10월 21일~11월 1일 정직성 작가 '기계 The Mechanic'展 △11월 4~15일 김제원 작가 'The Third Spaces'展의 순서로 펼쳐졌다.

입주작가 개인전 첫 번째 순서인 민택기 작가는 홍성에서 8년간 살면서 작업한 풍경 사진 작품들로 이루어졌다. 민 작가는 "이번 작업으로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선험적 지식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사진으로 그린 12점의 작품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내면의 소리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전시인 '기계 The Mechanic'展은 재현과 추상을 넘나들며 직관적 필치로 역동적인 화면을 펼쳐온 정직성 작가가 선보였다. 정 작가는 "자동차 정비공의 작업장에 있는 기계들을 속도감 있는 붓질로 형상화 해 작업장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그림들을 전시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마지막 전시인 'The Third Spaces'展은 김제원 작가가 지난 5년여 동안 여러 나라를 이동하며 진행해 온 '장소 특정적 미술' 설치 프로젝트의 전반을 아우르는 전시가 되었다.

또 김 작가는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에 사는 노부부 이삼랑 씨 집에서 진행한 '어떤 노부부의 집 프로젝트'를 새로이 선보이며, 이 집을 프로젝트 장소로 결정하기까지의 8개월 정도의 여정도 함께 보여주었다.

한편, 이응노의 집에서는 10월 5일(월)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휴관 중이지만, 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 개인전을 위해 거리두기 및 코로나 대응 지침을 준수하면서 재개관을 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응노마을 '별의별 갤러리' 개관展, '나 자신의 말'展 열려

이응노의 집, 정직성 작가 제안해 민택기 작가와 마을 박혜선 작가 함께 참여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창작스튜디오에서는 2020년 11월 2일(월)부터 28일(토)까지 '나 자신의 말(My Own Words)'展이 이응노마을 '별의별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올해 제4기를 맞은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정직성 작가가 제안한 지역과 소통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마을 '별의별 갤러리'의 개관전으로, 민택기·정직성 작가와 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박혜선 작가의 릴레이 전시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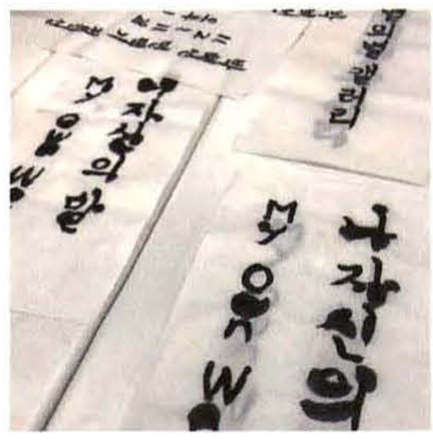
특히, 릴레이 전시의 시작은 서예가 박혜선 작가가 열어 11월 2일(월)부터 10일(화)까지 전통적인 형식의 한문과 한글서예를 중심으로 전시회가 진행되었고, 11일(수)부터 19일(목)까지 민택기 작가의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전시가, 마지막으로 20일(금)부터 28일(토)까지 정직성 작가의 전시가 이어졌다.

또한 '나 자신의 말(My Own Words)'이라는 제목 아래 세 명의 작가가 서예와 문자, 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시나 문학을 다루는 전통 서예형식에서부터 '문자추상'과 퍼포먼스 등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세 작가의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이응노의 집에서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내 그림은 모두 제목을 평화라고 붙이고 싶어요'展과 11월 4일부터 15ㅇ일까지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 제4기 입주작가인 김제원 개인전 'The Third Spaces'展이 열렸다.









2-3 이응노의 집, 교육 이야기

– 2018년 이응노의 집 교육문화프로그램

• 이응노의 집, 어린이대상 교육문화프로그램

이응노의 집에서 비눗방울 놀이와 그림 그려요!

6~9세 가족방문객 대상 … 어린이 미술체험프로그램 '톡톡! 터지는 먹그림' 운영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주말을 맞아 이응노의 집을 방문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고암 이응노 화백과 한국화를 알리기 위한 미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2018년 5월 4일(금)부터 6월 2일(토)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6~9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응노 생가에서 진행했으며, 단 5월 12일(토)은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가 주관하는 '2018 제17회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 진행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준비했고, 이응노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채정옥 작가의 '비눗방울 놀이와 접목한 한국화 그리기–톡톡! 터지는 먹그림'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응노 작품 감상도 동시에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응노의 집에서는 '건축, 장소, 예술, 사람'을 주제로 마을주민과 홍성·내포주민을 위한 '인문예술강좌'를 2018년 4월 5일(목)부터 진행했으며, 7월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술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이응노의 집 청소년 교육체험프로그램 '예술가와의 산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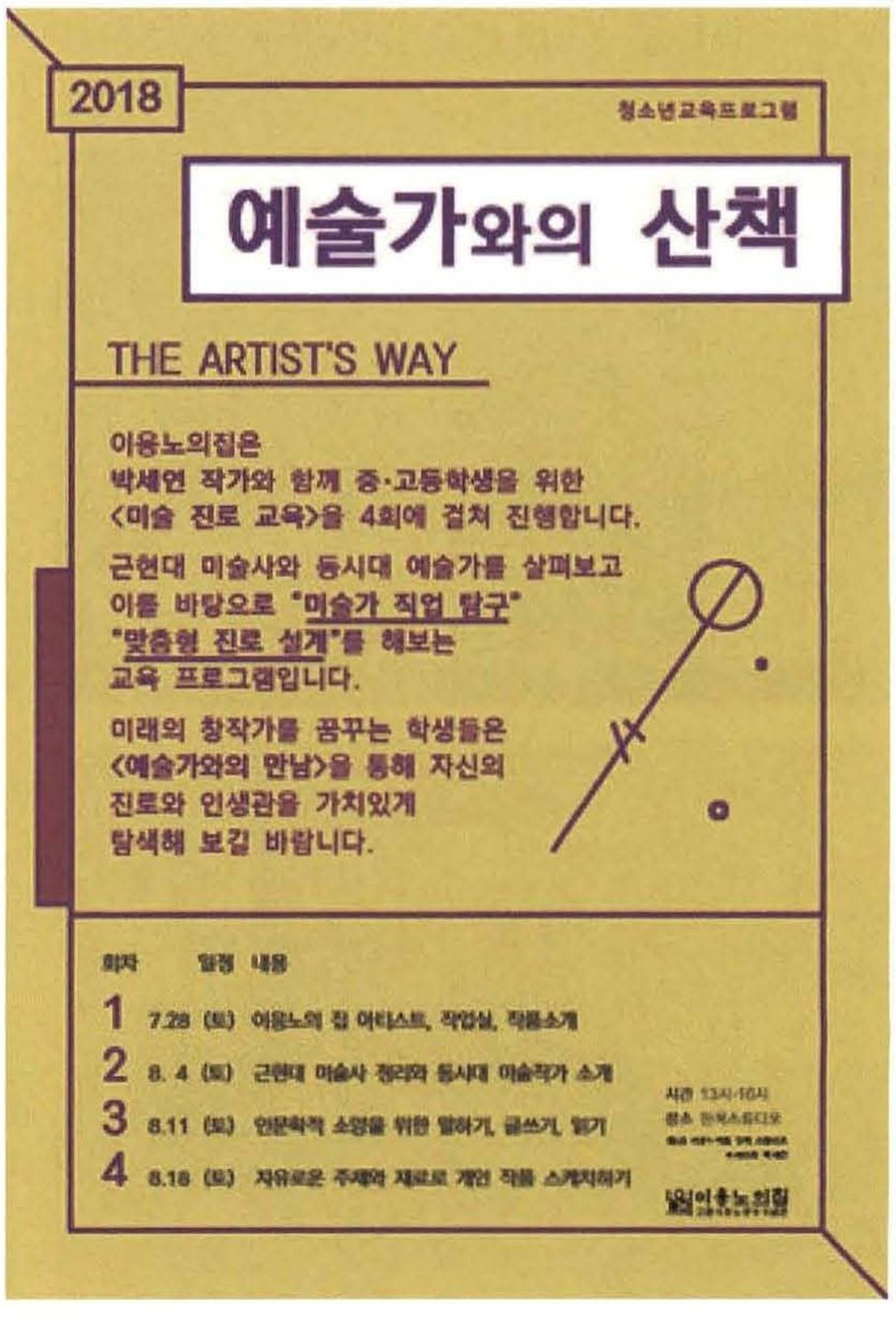
청소년 직업탐구 및 체험 … 미술 및 예술관련 진로 상담 제공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청소년 교육체험프로그램인 '예술가와의 산책'을 2018년 7월 28일(토)부터 8월 18일(토)까지 운영하였다.

'예술가와의 산책'은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있는 박세연 작가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직업탐구 및 체험을 위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근·현대미술사와 동시대의 예술을 한눈에 가늠해보고, 예술가라는 직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이야기를 나누며 맞춤형 자유주제 및 진로 설계를 구체화 해보는 수업으로, 해당 학생에 한해 미술 및 예술관련 진로 고민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였다.

한편, 박세연 작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인문대학 미학과 및 동대학원 서양화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 덕원예술고등학교 미술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 이응노의 집, 성인대상 교육문화프로그램

이응노의 집, 지승장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1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40회 진행 … 초·중급 각각 15명씩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최영준 지승장인(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과 함께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지승공예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이어 운영하였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2018년 1월 30일(화)부터 6월 27일(수)까지 초·고급반 각각 20회씩 총 40회를 진행했으며, 인원은 초·고급반 각 15명이다.

지승공예는 한지를 길게 꼬아 엮어 생활용품을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공예로, 이번 참가자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다기, 항아리, 탁자 등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

한편, 이응노의 집은 올해 체험프로그램으로 지승공예와 더불어 천연염색을 진행하며, 성인 예술인문학과 어린이미술아카데미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였다.









‘자연의 색을 담아가세요!’ 천연염색 생활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응노의 집, 자연에서 얻은 다양한 재료로 ‘나만의 옷 만들어요!’ 큰 호응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에서는 2018년 천연염색 생활예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을과 홍성·내포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9월 26일(수)부터 10월 18일(목)까지 4주 과정으로 총 8강이 운영되며, 체험인원은 15명으로 매주 수, 금요일에 진행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재료비는 별도)이다.

교육에 앞서 이응노의 집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강희망자를 모집했으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지원자가 조기에 모집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천연염색은 꽃, 식물, 과일 껍질 등 자연에서 추출한 재료를 원단에 물들여 색을 만들며,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옷을 만들면 아토피 등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개선효과를 볼 수 있고,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지 않아 예로부터 자연친화적 염색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응노의 집 이수연 학예연구사는 “이응노의 집에서는 매년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고 있다”며 “홍성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프로그램에는 적극 참여해 지역문화 인프라 확대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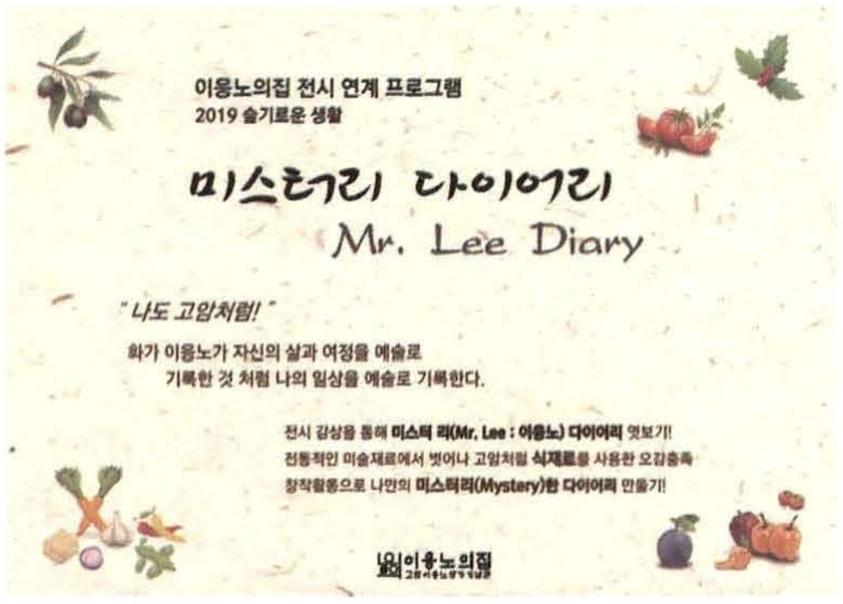
2-3 이응노의 집, 교육 이야기

- 2019년 이응노의 집 교육문화프로그램

• 이응노의 집, 어린이·청소년대상 교육문화프로그램

이응노의 집, 여름방학 기간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시연계 '미스터리 다이어리 만들기', 콩과 대나무 펜, 다이어리 등 활용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2019년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 어린이 대상 '슬기로운 생활'과 '창작워크숍'을 결합한 전시연계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은 2019년 7월 25일(목)부터 8월 19일(월)까지 총 10회 간 매주 목·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였다.

이번 '전시연계 교육문화프로그램'이란 단순 체험위주를 넘어서 전시 내용에 연관한 감상활동과 창작활동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전시 콘텐츠를 활용해 학교 교육과 차별화된 미술관의 예술현장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미스터리 다이어리 : Mr. Lee Diary'란 제목으로 열린 슬기로운 생활과 창작워크숍에서는 이응노의 집 소장품전 '이응노 삶의 여정, 예술로 기록하다'展과 '제4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정정엽 최초의 만찬'展을 연계해 예술작품에 기록된 고암 이응노 화백 삶의 별별 이야기와 함께 상상력을 더한 '화가 이응노 그날의 일기(Mr. Lee Diary)'나, 나의 '미스터리한 일기(Mystery Diary)'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화가 이응노가 표현에 한계를 두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적인 화구가 아닌 특별한 재료인 다양한 '콩'을 활용하고 대나무 펜과 다이어리를 통해 창작활동을 진행하였다.

슬기로운 생활과 창작워크숍은 이응노의 집 신나라 학예연구사와 이응노마을 별의별 창작공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옥이's 색깔공작소 채정옥 작가가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미술관 전시감상과 미스터 리 찾기, 촉감놀이, 퀴즈 맞추기, 미스터리 다이어리 만들기 창작활동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에서는 7월 6~7일, 13~14일 토, 일요일 주말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재료로 자화상을 만드는 '나와 너, 우리 얼굴' 가족워크숍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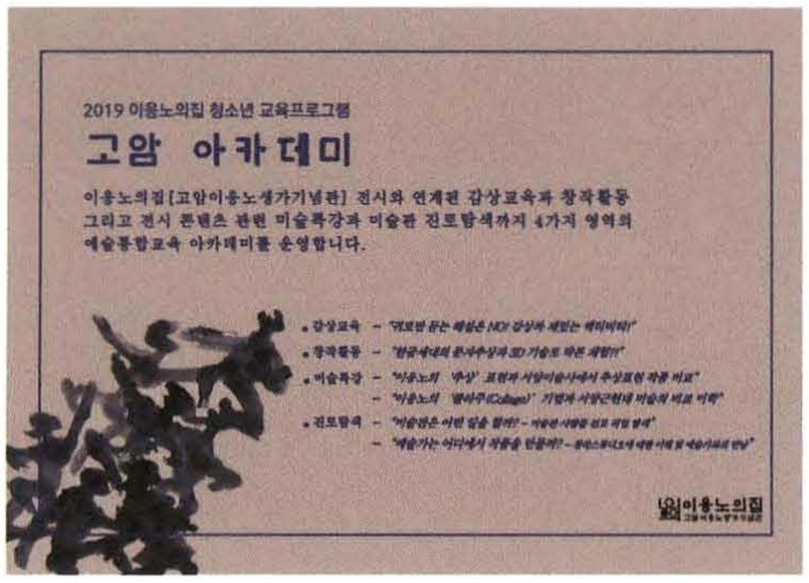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고암아카데미, '예술감상·창작워크숍·미술특강·진로탐색' 등 4가지 통합예술교육 이뤄져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2019년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 청소년 대상 통합예술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은 2019년 7월 19일(금)부터 8월 16일(금)까지 총 6회 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문화프로그램인 '고암아카데미'란 예술감상교육, 창작워크숍, 미술특강, 진로탐색교육 등 4가지 통합예술 프로그램으로, '내가 보는 미술관과 내가 아는 미술관, 내가 만드는 미술관, 내가 되는 미술관'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

이번 교육문화프로그램에서는 이응노의 집 소장품전 '이응노 삶의 여정, 예술로 기록하다'展과 '제4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정정엽 최초의 만찬'展 등 전시와 연계된 감상과 창작활동 뿐만 아니라, 화가 이응노의 추상표현과 콜라주 기법에 관한 미술특강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응노의 집과 주변 문화시설을 직접 견학하고 직업으로써 학예연구사(큐레이터)와 예술가를 만나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얻었다.

고암아카데미는 이응노의 집 신나라 학예연구사가 예술감상교육과 창작워크숍, 미술특강 등을 진행했으며, 신나라 학예연구사와 노태훈·전범석 코디네이터가 '미술관 큐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이응노의 집 주요 문화시설에 대한 현장학습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제3기 입주작가인 유영주 작가가 '예술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한편,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에서는 7월 6~7일, 13~14일 토, 일요일 주말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재료로 자화상을 만드는 '나와 너, 우리 얼굴' 가족워크숍도 진행하였다.









• 이응노의 집, 성인대상 교육문화프로그램

우리 전통문화 우수성 알리는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응노의 집, 전통한지 이용해 전통공예품 제작 … 초·중급 나눠 각각 25회씩 진행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우리 전통문화인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최영준 지승공예 장인의 지도로, 마을주민과 홍성·내포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이응노 생가에서 초급·중급반 각각 15명씩 모집, 2019년 1월 22일(화)부터 7월 17일(수)까지 매주 화, 수요일 2회씩 25주간 초급·중급반으로 나눠 총 50회 간 진행하였다.

초급반은 지승공예의 의미와 한지 자르기, 바닥 엮기로 다기세트를, 중급반은 원동 옆 엮기와 겹줄 엮기로 항아리와 가방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전통공예품을 만들었다.

한편, 지승공예는 전통한지를 이용해 접거나 꼬아 각종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술로, 조선시대 한지제조 발달과 함께 발전했으며, 지승공예는 현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보존 계승하고 있다.











미술관 '가상의 아트상품' 제작 위한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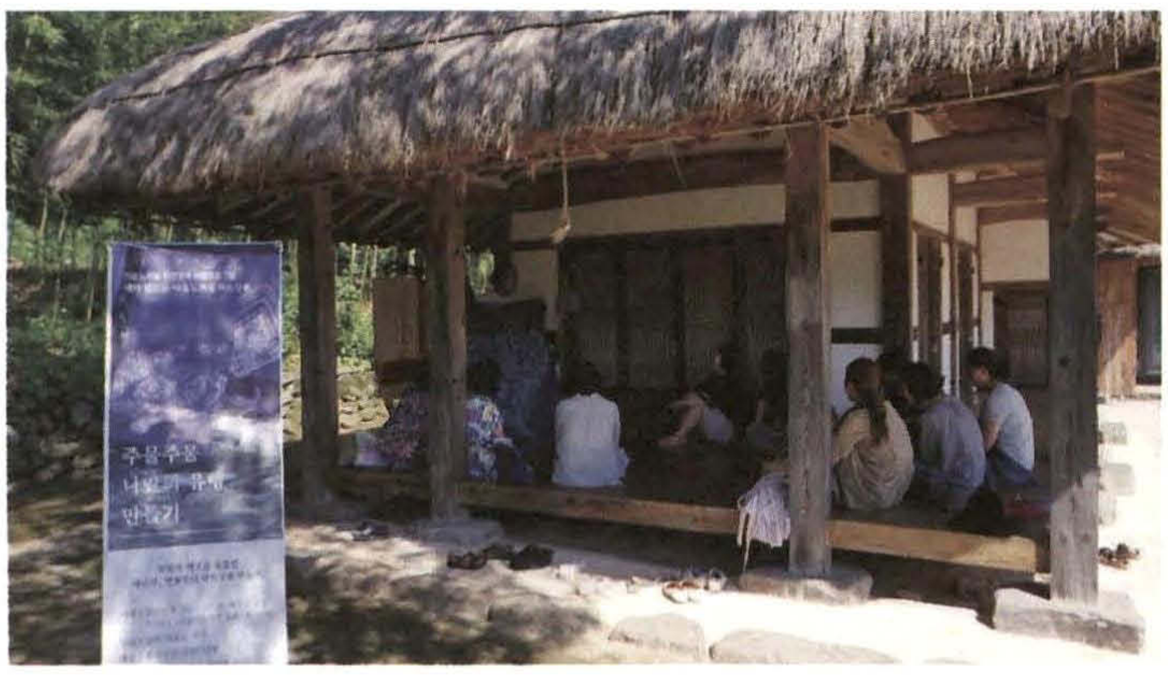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 상징인 '대나무와 연꽃·연잎' 무늬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통해 수놓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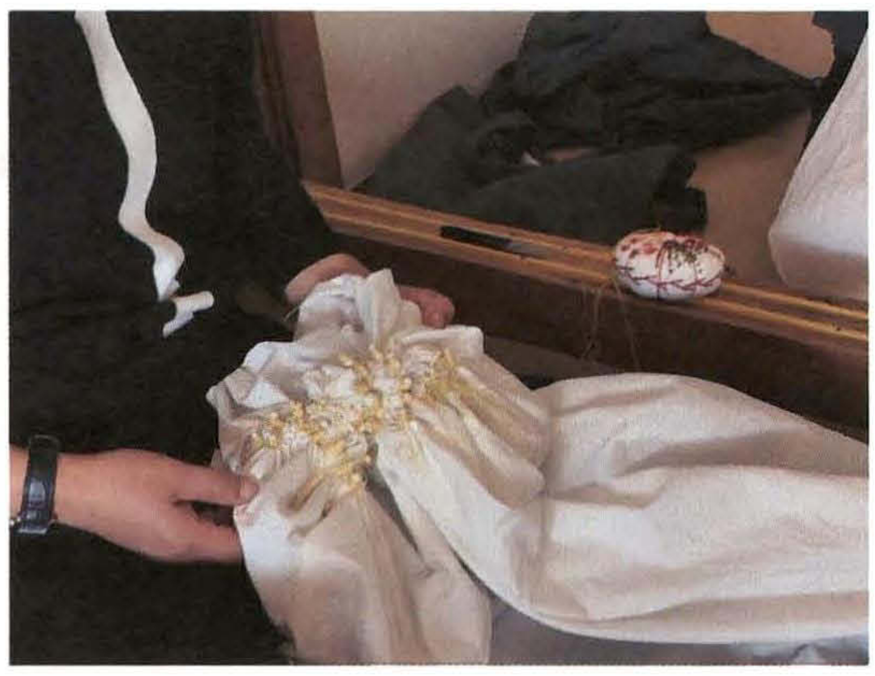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자연의 색으로 물들이는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마을주민과 홍성·내포주민 등 10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이응노 생가에서 2019년 8월 30일(금)부터 11월 8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3시간 씩 총 10회 간 운영하였다.

체험프로그램은 '주물주물 나만의 유행 만들기'를 주제로, 자연에서 얻은 천연염료와 손으로 주물러 만드는 전통 천연염색 방식을 고수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자연의 색으로 물들일 뿐 아니라 '바느질기법'과 '도안그리기'를 통해 이응노의 집 상징인 '대나무와 연꽃·연잎' 무늬를 표현했고, 이를 미술관 아트상품으로 개발하는 콘셉트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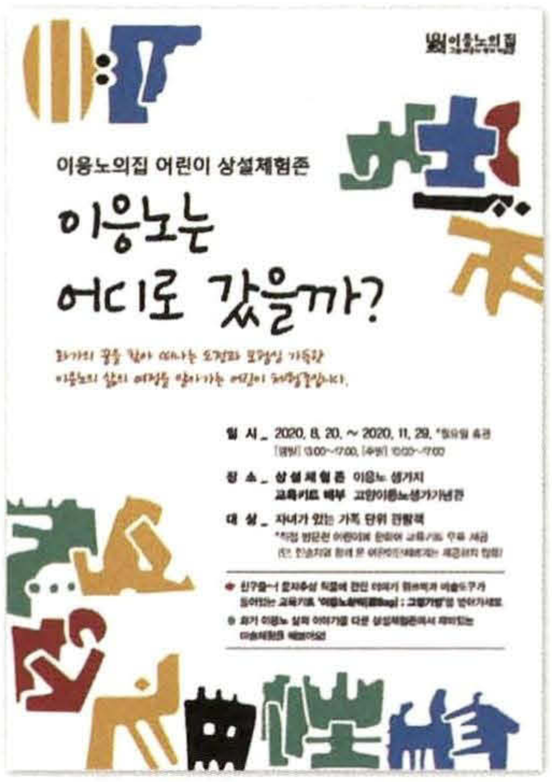
2-3 이응노의 집, 교육 이야기

– 2020년 이응노의 집 교육문화프로그램

• 이응노의 집, 어린이대상 교육문화프로그램

이응노는 어디로 갔을까? 미술체험으로 즐기는 '이응노 삶의 여정'

이응노의 집, 어린이 상설체험존 운영 … 교육키트 '이응노 화백(畵bag): 그림가방' 무료 제공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에 따라 어린이 상설체험존 '이응노는 어디로 갔을까?'를 운영하였다.

이번 어린이 상설체험존은 2020년 8월 20일(목)부터 11월 29일(일)까지 약 3개월여 간 월요일(휴관)을 제외한 평일 오후 1~5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이응노의 생가에서 운영하였다.

'이응노는 어디로 갔을까?'는 열아홉 살에 고향 홍성을 떠난 이응노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왜 떠났는지 등 화가의 꿈을 펼쳐나간 이응노 삶의 여정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로 재구성해 미술체험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이응노의 집 '고암 이응노 사생과 소묘: 해방시기부터 1950년대'展과 '이응노의 문자추상: 말과 글, 뜻과 몸짓'展을 연계해 작품 감상과 화가 이응노의 삶에 예술에 대한 이야기로 알아가기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 상설체험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응노의 집에서 자체 개발한 교육키트를 개별 제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였다. 개별 교육키트는 '이응노 화백(畵bag): 그림가방'으로 화가 이응노가 여행하면서 실제 들고 다녔던 화구가방을 참고해 제작했으며, '이응노의 문자추상 워크북'와 미술재료들로 구성되었다. 이응노의 집에서는 가족과 함께 이응노의 집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개별 교육키트를 제공하였다.

신나라 이응노의 집 학예연구사는 "화가의 꿈을 품고 세계로 나아간 이응노의 이야기를 담아 어린이들에게 미술체험과 함께 모험심 가득한 꿈과 희망을 그대로 손에 쥐어주고 싶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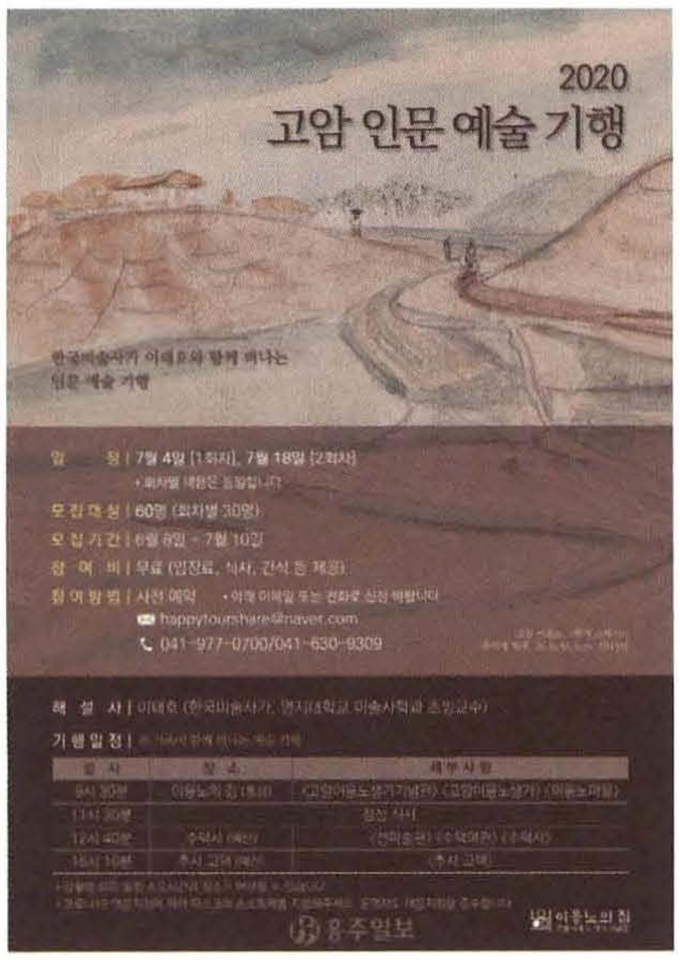




• 이응노의 집, 가족대상 교육문화프로그램

이응노의 집, 이응노 삶과 예술 따라 '고암인문예술기행' 운영

이태호 한국미술사가의 '해설이 있는 기행' … 이응노 발자취 따라 떠나는 기행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2020년 가족대상 교육문화프로그램으로, 고암 이응노 화백을 선양하기 위한 '고암인문예술기행'을 운영하였다.

이번 고암인문예술기행은 2020년 7월 4일(토)과 7월 18일(토) 총 2회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회당 홍성·예산지역 주민 30명을 모집, 진행하였다.

이번 고암인문예술기행은 '해설이 있는 기행'으로 이태호 한국미술사가(이응노의 집 운영위원장 겸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이 해설을 맡았다. 또 이번 고암인문예술기행은 일반특강과 달리 '기행' 형식을 통해 고암 이응노 화백의 삶의 태도와 예술정신, 문화적 감수성을 직접 경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고암인문예술기행은 '이응노의 집' 방문을 시작으로, 신나라 학예연구사와 함께 이응노 생가지와 연지공원, 2013년 건축대상을 수상한 기념관으로 이야기와 전시투어가 이어졌다.

이태호 한국미술사가의 '이응노의 삶과 예술' 특강에 이어 점식식사 후 이응노가 살다간 흔적인 '수덕여관과 선미술관', '수덕사', 이응노가 사랑한 '추사고택'에 들러 여러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응노의 집에서는 2020년 10월 4일(일)까지 기획전시 '고암 이응노의 문자추상: 말과 글, 뜻과 몸짓'展을 진행하였다.



• 이응노의 집, 성인대상 교육문화프로그램

우리 전통문화인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 지난해에 이어 운영

이응노의 집, 전통한지 이용해 공예품 제작 … 초·중급 나눠 각각 25회씩 진행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우리 전통문화인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최영준 지승공예 장인의 지도로 운영하였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이응노 생가에서 마을과 홍성·내포주민 초급·중급반 각각 20명씩 모집, 2020년 2월 4일(화)부터 10월 7일(수)까지 매주 화, 수요일 2회씩 25주간 초급·중급반으로 나눠 총 50회 간 진행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2월 25일(화)부터 5월 6일(수)까지는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였다.

초급반은 지승공예의 의미와 한지 자르기, 바닥 엮기로 다기세트를, 중급반은 원동 옆 엮기와 홑줄과 겹줄 엮기로 항아리와 가방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전통공예품을 만들었다.

한편, 지승공예는 전통한지를 이용해 접거나 꼬아 가방, 항아리, 수납함 등 각종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술로, 조선시대 한지제조 발달과 함께 발전했으며, 지승공예는 현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보존 계승하고 있다.








미술관 '가상의 아트상품' 제작 위한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응노의 집 상징인 '대나무와 연꽃·연잎' 무늬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통해 수놓아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자연의 색으로 물들이는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마을주민과 홍성·내포주민 등 10명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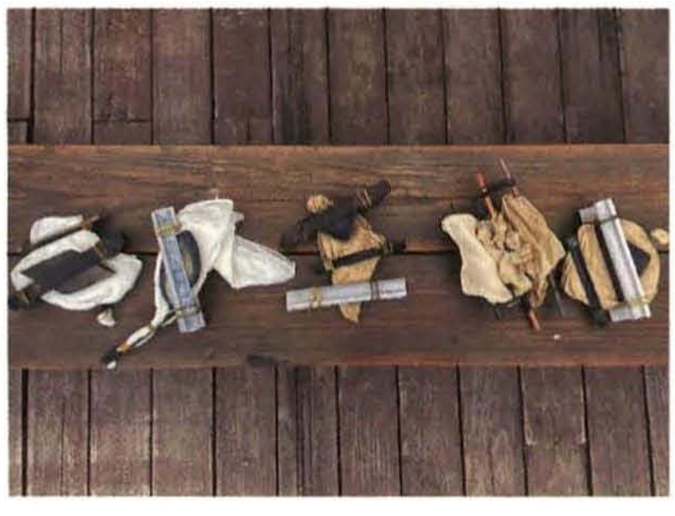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이응노 생가에서 2020년 8월 19일(수)부터 10월 19일(수)까지 약 한 달 간 매주 수요일 3시간 씩 총 10회 간 운영하였다.

체험프로그램은 '천에 그리는 그림, 아트상품 만들기'를 주제로, 자연에서 얻은 천연염료와 손으로 주물러 만드는 전통 천연염색 방식을 고수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자연의 색으로 물들일 뿐 아니라 '바느질기법'과 '도안그리기'를 통해 이응노의 집 상징인 '대나무와 연꽃·연잎' 무늬를 표현했고, 이를 미술관 아트상품으로 개발하는 콘셉트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10회 체험프로그램 진행 후에는 이응노마을 '별의별 갤러리'에서 결과물 전시회로 이어졌다.








2-3 이응노의 집, 교육 이야기

– 2021년 이응노의 집 교육문화프로그램

• 이응노의 집, 어린이·가족대상 교육문화프로그램

이응노의 집, 다양한 '어린이·가족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관 10주년 맞아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교육 통해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2021년 어린이와 가족대상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부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문화프로그램 참가는 홍성·내포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 어린이·가족으로, 7월에는 '내가 살았던 곳은' 소장품展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8월에는 개관 10주년 '고암의 예술정신이란 무엇인가? 역대고암미술상수상작가 기획'展과 연계한 배종헌 작가의 '새로운 시선'(8월 12일 목요일), '시끌벅적 내 맘대로, 군상'(8월 21일 토요일)을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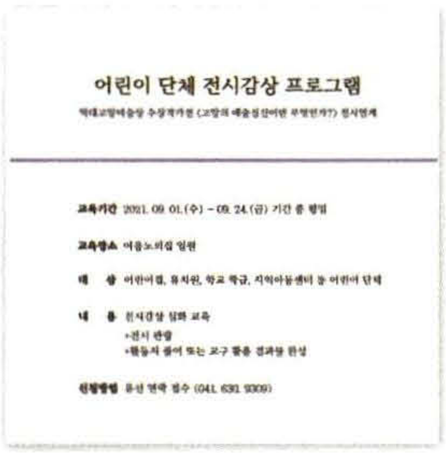




'내가 살았던 곳은'에서는 전시연계 작품 감상과 체험활동, '새로운 시선'은 배종헌 작가의 작품이해를 바탕으로, 시멘트벽에 생긴 균열, 흔적 등을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보고 새롭게 의미 부여해 나만의 작품으로 제작해보는 활동, '시끌벅적 내 맘대로, 군상'에서는 고암 이응노, 정정엽 작가의 작품 속 움직임 관찰을 통해 작품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몸으로 표현해 우리만의 '군상' 작품을 만들어보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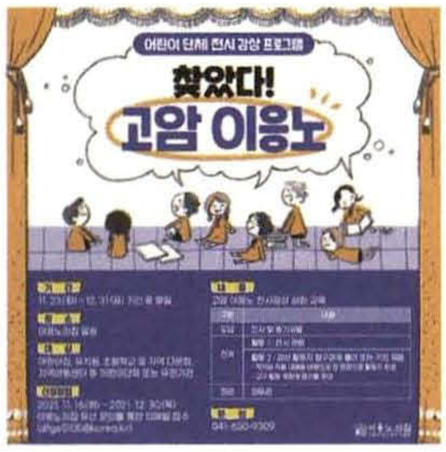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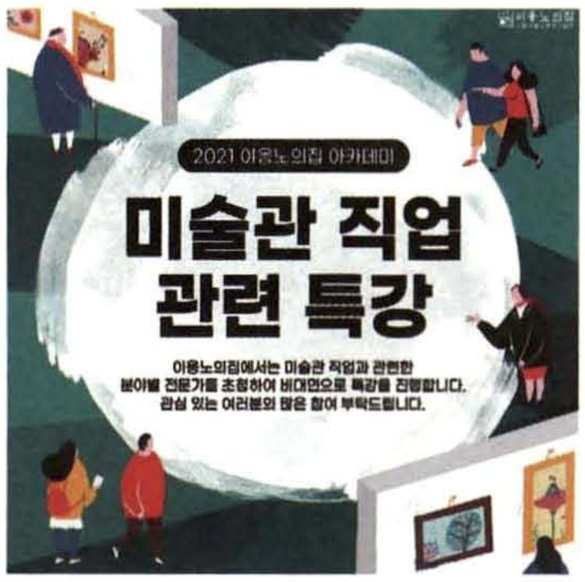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 대면 교육문화프로그램인 '그림으로만 보게 되면 어떡해'는 8월 14일(토) 내포생태교육협동조합과 연계해 이응노의 집 일원에서 진행했으며, 개관 10주년 기념 '고암의 예술정신이란 무엇인가? 역대고암미술상수상작가 기획'展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9월 1일(수)부터 24일(금)까지 평일에 진행하였다.

'그림으로만 보게 되면 어떡해'는 자연 풍경을 담은 고암 이응노의 작품을 바탕으로, 곤충과 소통하며 생명 존중의 마음을 다지고,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생물종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고 환경지킴이 활동을 해보는 생태프로그램, '고암의 예술정신이란 무엇인가?'는 전시연계 작품 감상과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개관 10주년 기념 '고암의 춤: 평화, 공존, 화합'展과 '고암 이응노 아카이브' 소장품展,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이진경 '먼 먼 산—헤치고 흐르고'展을 연계한 '찾았다! 고암 이응노'는 11월 23일(화)부터 12월 31일(금)까지 평일에 전시연계 작품 감상과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응노의 집, 다양한 '청소년·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관 10주년 맞아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교육 통해 미술관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2021년 청소년·성인대상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어린이·가족대상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부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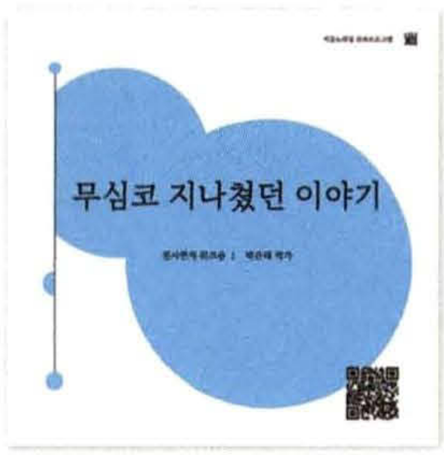
이번 교육문화프로그램 참가는 홍성·내포주민과 관심 있는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미술관 직업 관련 특강'을 진행하였다. 기간은 12월 4일(토)부터 18일까지(토) 정은정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의 '경험이 다르면, 사고가 다르다-미술관 교육의 실제', 아트닥터, 김겸 미술품보존연구소 대표의 '미술품 보존복원의 세계', 황호경 국립현대미술관 에듀케이터의 '도슨트 활동의 이해', 김영철 변호사의 '법, 미술로 풀다', 최영민 부산현대미술관 기록연구사의 '동시대를 기록하다, 미술관 아카이브의 이해' 등 미술관 진로탐색 특강을 토, 일요일에 진행하였다.

또한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 기념 '고암의 예술정신이란 무엇인가? 역대고암미술상수상작가 기획'展과 연계한 배종헌 작가의 '새로운 시선'(8월 12일 목요일)과 박은태 작가의 '무심코 지나쳤던 이야기'(8월 11일과 18일 수요일), 랜선 아티스트 오윤석 작가의 '기억메모리Hidden Memories'와 정정엽 작가의 '최초의 만찬'(9월 10일 금요일) 등 토크쇼를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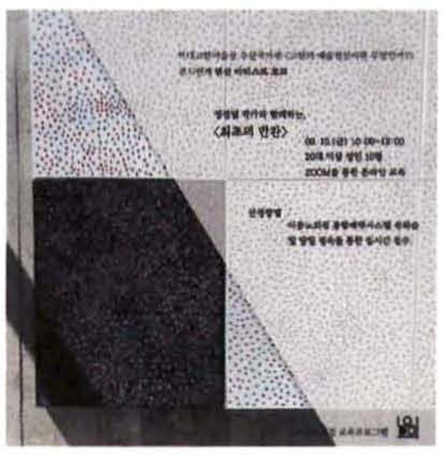
'새로운 시선'은 배종헌 작가의 작품이해를 바탕으로, 시멘트벽에 생긴 균열, 흔적 등을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보고 새롭게 의미 부여해 나만의 작품으로 제작해보는 활동, '무심코 지나쳤던 이야기'는 박은태 작가의 작품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야기(애써 외면했던 어떤 것,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다뤄야 하지만, 불편해서 미뤄왔던 것 등)를 사진으로 남겨보고, 나만의 작품으로 제작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랜선 아티스트 토크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오윤석 작가와 대화를 나눴고, 줌(ZOOM)을 활용해 정정엽 작가와도 대화를 나누었다.









이응노의 집, 지승공예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 최영준 지승장 초청 … 다기세트·동구리·화살통 등 만들어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 2021년 첫 체험프로그램으로 '지승공예'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마을과 홍성·내포주민 등 총 20명을 모집, 기초·심화반 각 25강씩 총 50강으로 2월 8일(월)부터 8월 11일(수)까지 운영하였다.

기초반은 지승공예의 의미와 한지 자르기, 바닥 엮기로 다기세트를, 심화중급반은 원동 옆 엮기와 홑줄과 겹줄 엮기로 동구리와 화살통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전통공예품을 만들었다.

'지승공예'란 길게 오려낸 한지를 꼬아 가방, 수납함 등의 생활용품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의 한지공예를 말하며, 이번 체험프로그램 진행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 최영준 지승장이 맡는다.

한편, 이응노의 집에서는 개관 10주년과 홍성역사인물축제와 연계한 '내가 살았던 곳은' 소장품展이 7월 4일(일)까지 열렸다.








이응노의 집, 천연염색 생활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

천연염색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처음 신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만 염색
코로나19 대유행시대 필수품인 블랭킷, 마스크와 마스크스트랩 등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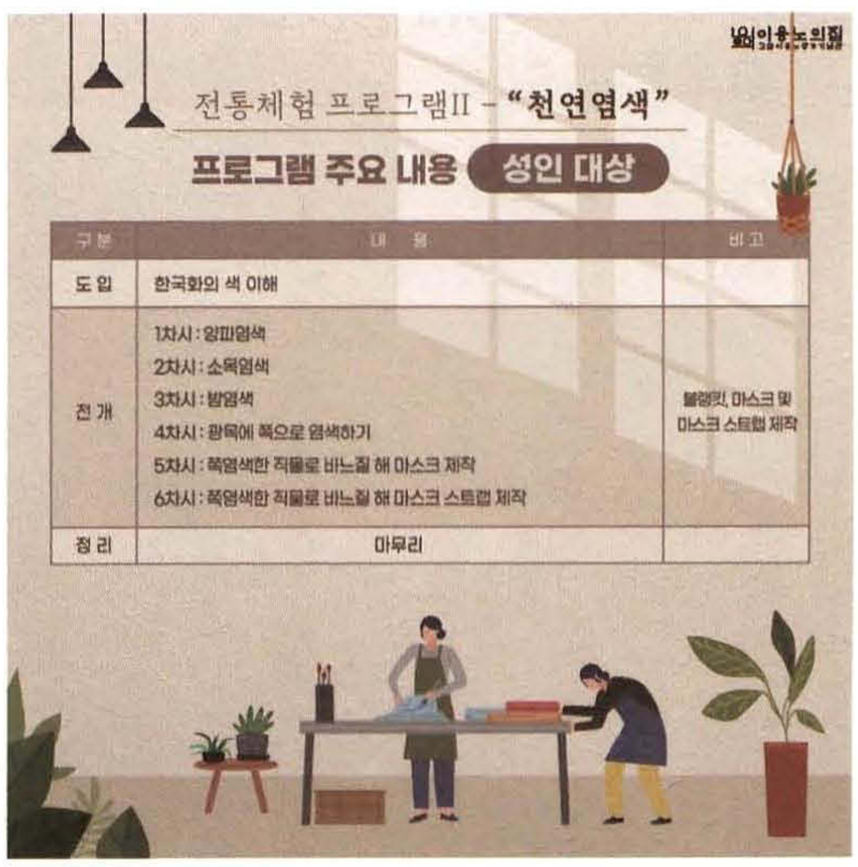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자연의 색으로 물들이는 천연염색 생활예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과 마을·홍성·내포주민 등 10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이응노마을 '별의별' 창작공방에서 2021년 10월 20일(수)부터 11월 24일(수)까지 약 한 달 간 매주 수요일 3시간 씩 총 6회 간 운영하였다.

또한 올해는 청소년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처음 신설, 10월 23일(토)부터 11월 6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3시간 씩 총 3회 간 운영하였다.

체험프로그램은 양파와 소목, 밤 등 자연에서 얻은 천연염료와 광목을 손으로 주물러 만드는 전통 천연염색 방식을 고수해 수업을 진행했으며, '바느질기법'과 '도안그리기'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시대에 필수품인 청소년 수강생들은 블랭킷(천지저귀)만 만들었고, 성인들은 블랭킷과 마스크, 마스크스트랩 등을 만들었다.





2-4. 이응노의 집 행사·방문·시설 이야기

– 이응노의 집 2018년 시설 공간 재생 및 신축

〈특집〉 사진으로 보는 이응노의 집 '예술문화자료실'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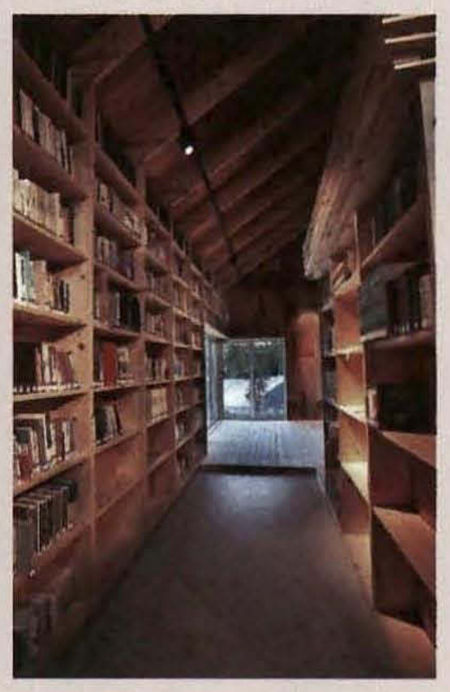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 기증도서 힘입어 문화공간 '예술문화자료실' 건립

이응노 예술 배우는 "알찬 예술문화 전문 도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전통한옥 창작스튜디오 맞은편 홍천마을(이하 이응노마을)의 유휴 공간을 활용, '예술문화자료실'을 건립, 문을 활짝 열었다.

예술문화자료실은 이응노의 생가 뒤편인 전통한옥 창작스튜디오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정상철 조성룡도시건축 부소장이자 JSC건축(Architecture) 소장의 설계로, 2017년 10월 25일(수) 착공에 들어가 이해 12월 22일(금) 완공하였다.





2018년 상반기 정상철 내부 공사를 마친 예술문화자료실은 7월 초 도서 및 자료기증에 이어, 2019년 4월 1일(월)부터 6월 7일(금)까지 기증도서 전산화 작업 및 DB구축을 완료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응노의 집 예술문화자료실은(이응노마을 주민 이승호 전 이장의 증언에 따르면, 고암 이응노 화백의 큰아버지 댁이 위치한 곳이다.) 예술문화 관련 도서 및 자료기증에 힘입어 문을 열게 되었다.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인 이태호 이응노의 집 운영위원장이 2018년 7월 7일(토) 1만 여권이 넘는 도서 및 자료를 기증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예술문화 전문 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태호 운영위원장은 “기증한 도서를 토대로 미술 분야 쪽으로 도서자료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향후 도서자료실이 만들어지면 지인들의 협조를 얻어 더욱 많은 도서와 자료를 기증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7월 4~7일까지 이응노마을신문 전상진 편집인과 마을리더인 이상일·신동학 씨 등 3명이 이태호 운영위원장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효은서실曉垠書室’를 방문, 도서 및 자료 1만여 권을 기증 받았다.

기증도서 및 자료는 전상진 편집인이 7~9월까지 약 2개월 간 1차 분류 작업을 마쳤고,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전문업체에 의뢰, 전산화 작업 및 DB구축을 완료한 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한편, 예술문화자료실은 이응노의 집 학예실 연구자와 창작스튜디오 입주 예술가의 예술문화 자료실로 활용할 예정이며, 점차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이응노 관련서적과 영상자료, 기타 예술문화 도서 및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극단 치우미르, '만향晩香, 꽃잎 바람에 흩날려 옷깃 여미네' 공연

이응노의 집 중앙홀, 열녀이자 예기인 함흥기생 '만향' 의 삶과 사랑 이야기 들려줘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2018년 11월 14일(수) 오후 6시 30분부터 극단 치우미르의 공연 '만향晩香, 꽃잎 바람에 흩날려 옷깃 여미네'(부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막이 올랐다.

이날 공연은 홍성의 연극단체인 '극단 치우미르'가 창단 5주년을 맞아 오는 이응노의 집 중앙홀에서 공연을 펼친 것.

창단 5주년을 맞아 무료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은 노수경 대표의 1인극으로, 홍성의 여성인물인 열녀 '만향'의 일대기를 표현하였다. 여기에 더해 가야금병창과 대금연주, 전통춤이 가미되어 '만향, 꽃잎 바람에 흩날려 옷깃 여미네'라는 한편의 종합예술극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청운대학교 무대디자인학과 임창주 교수가 우리 전통의 무대양식을 선보이고, 청운대학교 김원석 교수가 연출을 맡아 현대 여성에 뒤지지 않는 조선시대의 당당한 여성상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함흥감영의 예기藝妓라는 신분에도 당당하고 실천적인 여성으로 살았던 만향의 삶을 표현하였다.

만향은 조선 숙종 때의 함흥 출신 기녀로, 홍성 출신인 함흥감사의 아들 황규하와 연인 사이였다. 하지만 황규하의 아버지가 한성판윤으로 발령이 나면서 황규하와 만향은 이별하게 되고, 만향은 황규하를 찾아 긴 여정을 떠난다. 이윽고 만향은 홍주 홍동 원천마을에 도착하지만 황규하는 이미 병으로 사망한 뒤였고, 만향은 실의에 빠져 있다가 사랑을 지키기 위해 황규하의 산소 앞에서 시묘살이를 하다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얼핏 열녀 춘향의 이야기를 담은 고전소설 '춘향전春香傳'과 비슷하지만,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내던졌던 만향의 애달픈 사연을 '극단 치우미르'의 전상진 예술감독이 직접 극으로 각색하였다.

이번 공연은 충남문화재단 '2018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신진예술단체' 선정작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한편, 이응노의 집에서는 도불 60주년 기념 이응노·박인경의 '사람·길'展이 2019년 5월 26일(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 공연을 시작으로 학술세미나와 무용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시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이응노의 추상 '군상群像'과 창작 춤 '무심상舞心想' 만남 이뤄져

충남문화재단 신진예술가 김진희 창작 춤, 이응노와의 추상의 만남 이루어져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충남문화재단 신진예술가로 선정된 김진희의 창작 춤 '무심상舞心想–내일의 형상을 위한 춤' 공연과 도불 60주년 기념 이응노·박인경 '사람·길' 특별 야간전시를 2018년 11월 24일(토) 오후 7시 성황리에 열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암 이응노 화백의 '군상群像' 연작들을 관통하는 핵심주제로,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역동적으로 드러내는, 한마디로 인간의 고귀함 인간의 품격에 대한 찬사에 다름 아니라 평했을 때, 김진희의 이날 창작 춤 공연은 "이에 조응하며, 합일하며, 나아가 새로운 떨림을 열게 할 몸짓이 될 수 있을까" 꿈을 꾸며 기획되었다.

신진예술가인 김진희 안무가의 이날 공연은 이응노 '군상' 연작을 모티브로 '무심상舞心想–춤과 마음의 생각' 속에, 우리 미래를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내일의 형상을 위함 춤'으로 구성되었다.

공연은 기획과정과 작품전반에 대한 설명을 담은 짧은 영상을 시작으로, 1시간 동안 프롤로그 '백지'와 본 공연 '첫·점으로부터', '허튼 획을 그리며', '선으로 이어지는 춤'에 이어 에필로그 '내일의 형상'으로 펼쳐졌다.

김진희 안무가는 "이번 공연은 고암 이응노 화백의 '군상'과 '문자추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직접 창작한 안무들"이라며, "점이 획을 그리고 선이 춤으로 이어지는 한국무용의 몸짓을 담은 창작 공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문화자원인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작품 '군상'과 창작 춤의 만남을 통해 일반인들이 다양한 예술을 하나로 즐기길 바란다"며 "극장을 탈피한 창작 춤으로 많은 사람이 춤추는 군상과 함께 하기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번 작품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연은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재단, 이응노의 집, 최선무용단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응노의 집에서는 도불 60주년 기념 이응노·박인경의 '사람·길'展이 2019년 5월 26일(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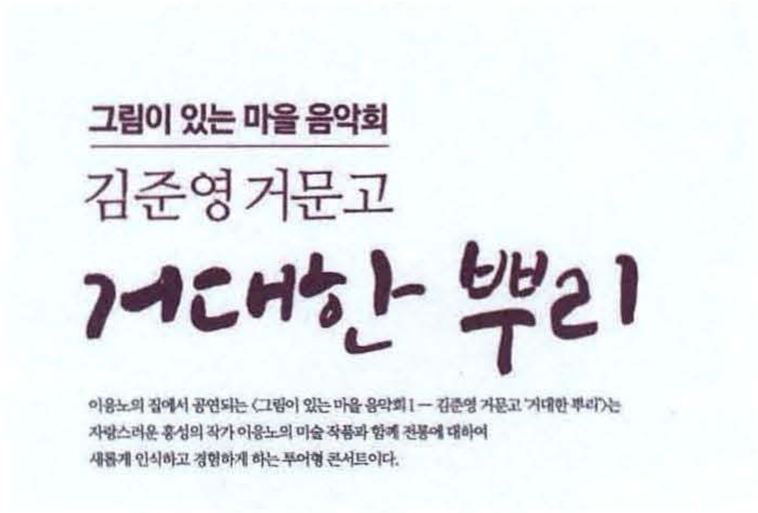


2-4. 이응노의 집 행사·방문·시설 이야기

– 2019년 이응노의 집 행사·방문·시설 이야기

이응노의 집, '아주 보잘 것 없는 거대한 뿌리' 거문고로 들려줘

국립국악원 수석단원 김준영 거문고 독주회, 시인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서 영감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선정,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이응노의 집'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응노의 집 공연 활성화는 홍성군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속 부서인 '홍주문화회관'이 2019 '문화가 있는 날' 문화산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은 것.

홍주문화회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이응노의 집에서 '그림이 있는 마을음악회' 공연을 펼쳤다.

이번 '그림이 있는 마을음악회'는 홍성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의 작품 '군상'을 주제로 첫 번째 이응노의 집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음악극 '거인의 정원' 및 아카이빙 퍼포먼스 '광장' 공연을 비롯해 세 번째 미술관 투어콘서트 '거대한 뿌리', 시와 음악이 결합된 '콘서트 시인의 나라' 등을 공연했고, 청운대학교, 홍동중학교 등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까지 총 6회에 걸쳐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였다.





이응노의 집에서는 '그림이 있는 마을음악회' 세 번째 공연으로 미술관 투어콘서트를 마련,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수석단원인 김준영의 거문고 독주회 〈거대한 뿌리〉 공연을 2019년 4월 27일(토) 마을과 홍성·내포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쳤다.





김준영은 오랜 시간 '전통은 무엇이며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의문을 가져왔고,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 한국대표 시인인 김수영의 동명의 시 '거대한 뿌리'에 투영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에서 찾으려한 시인의 정서를 거문고에 이번 공연을 통해 투영하였다.

공연 프로그램은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전통'의 조각들이 무질서하게 섞인 선율의 혼돈인 'Broken Melody'를 비롯해 몽골의 '토올', 서양의 '그레고리안 찬트', '제례악'과 '씻김굿' 등 죽은 자를 위한 산 자의 의식에서 사용되는 음악들을 모티프로한 '산 자의 기도' 등 2곡의 자작곡을 연주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바라보는 이방인의 시선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류찬이 작곡한 '기이한 아름다움의 시간'도 들려주었다.

이번 공연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서 함께 활동 중인 유흥(대금), 강지은(해금), 김용식(타악), 안상화(무용) 등이 무대를 함께 하였다.

한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와 예술을 한정된 공간이 아닌 지역 내 다양한 공간 및 학교로 찾아가 누구나 삶속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응노의 집, "더위에 지친 여름, '타악'으로 날려 보내요!"

국내 타악전문 연주단체 '방타타악기 앙상블', 〈아이 러브 리듬〉 공연 펼쳐
열대 아프리카 리듬과 스페인 탱고, 남미 삼바까지 열정의 타악 연주 들려줘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그림이 있는 마을 음악회' 네 번째로, '방타타악기 앙상블'의 〈아이 러브 리듬(I love Rhythm)〉 공연을 2019년 8월 31일(토) 마을과 홍성·내포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쳤다.

이번 '그림이 있는 마을음악회'는 홍성군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속 부서인 홍주문화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이응노의 집에서 공연 행사를 펼쳐나간다.

〈아이 러브 리듬〉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음악극 '거인의 정원'과 아카이빙 퍼포먼스 '광장' 공연, 미술관 투어콘서트 '거대한 뿌리'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공연.

이날 공연은 열대 아프리카의 원초적인 리듬과 멜로디가 인상적인 음악부터 새롭게 편곡한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 여름을 음악으로 체험하는 열정적인 삼바 무대까지 타악기의 신명나고 화려한 리듬과 음악을 들려주었다. 신나는 공놀이 시간과 관객참여 CM송 퀴즈, 손 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흔들 짝짝~ 등 우리에게 익숙한 리듬으로 관람객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방타타악기 앙상블'은 2006년 11월 음악감독 방승주을 주축으로, 타악기 대중화를 위해 국내 각 교향악단과 대학 강단에서 활동하는 정상의 타악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프로전문 타악 연주단체이다. '방타타악기 앙상블'은 그동안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수십여 회 정기연주회, 초청연주회 등 공연을 활동하며, 타악기의 대중화 및 보급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공연을 통해 타악기만의 다이내믹한 표현으로 거친 면과 섬세한 면을 표현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어울림으로 수준 높은 음악적 기량을 선보이고 있을뿐더러 가까이 호흡하고 함께하는 공연문화를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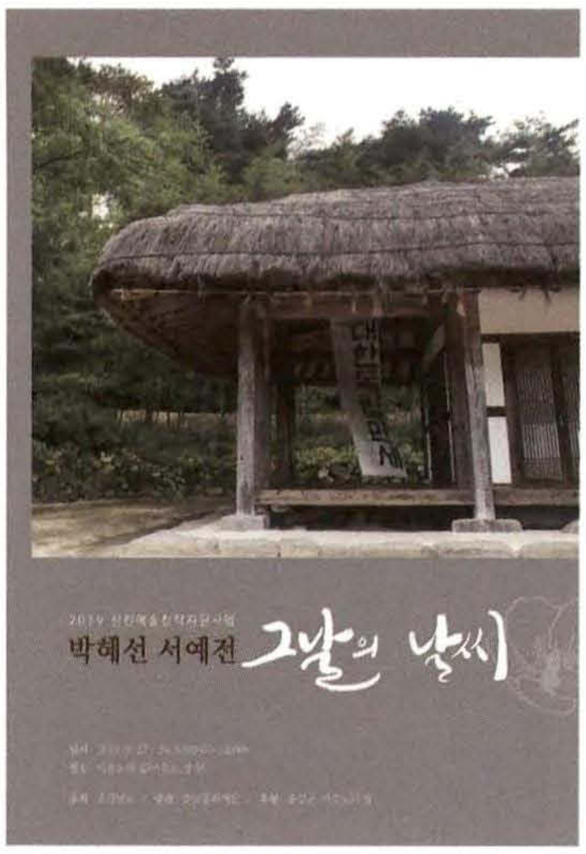






이응노마을 '별의별' 공방 입주작가 박혜선 서예가의 '그날의 날씨'

이응노의 집 생가서 9월 27일~10월 6일까지, '만해 한용운 선생' 독립정신 한지에 옮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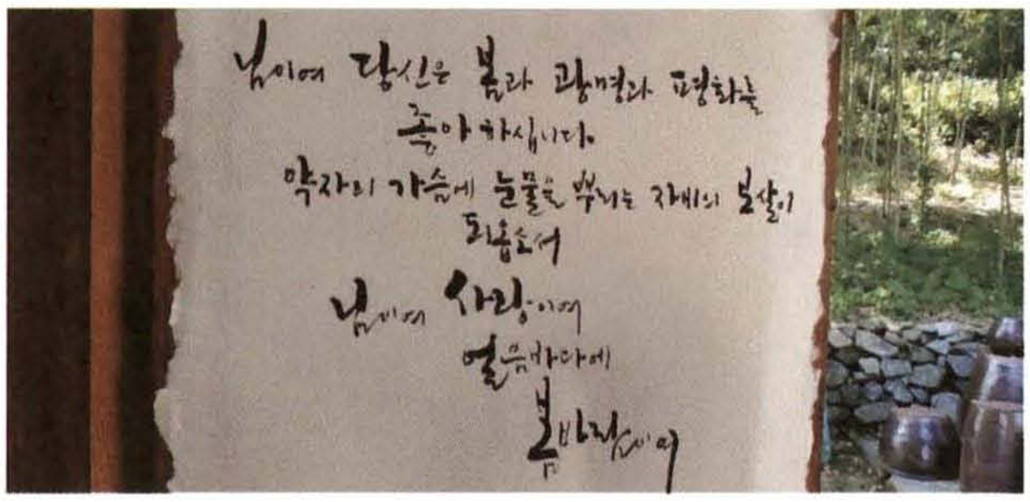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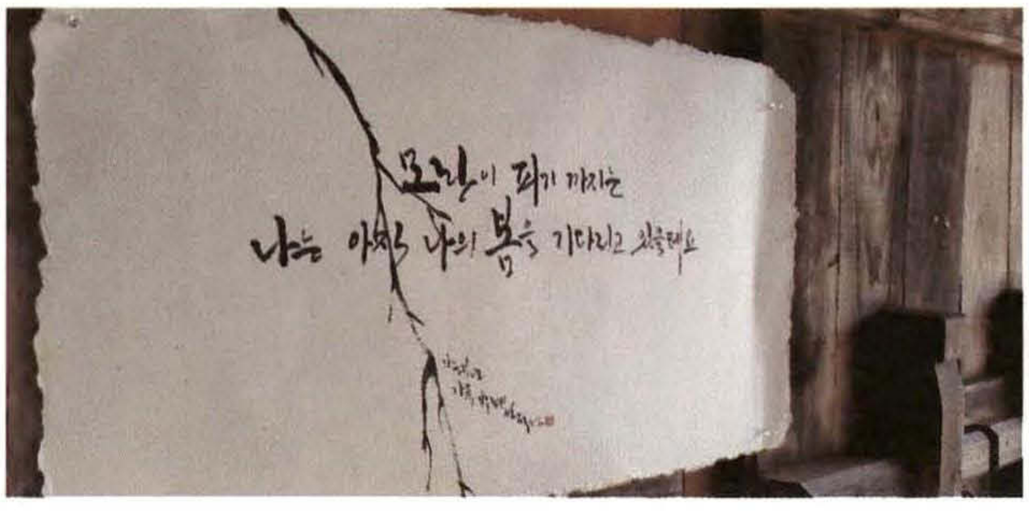
이응노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입주작가인 박혜선 서예가가 '그날의 날씨'라는 주제로, 2019년 9월 27일(금)부터 10월 6일(일)까지 이응노의 집 생가에서 서예전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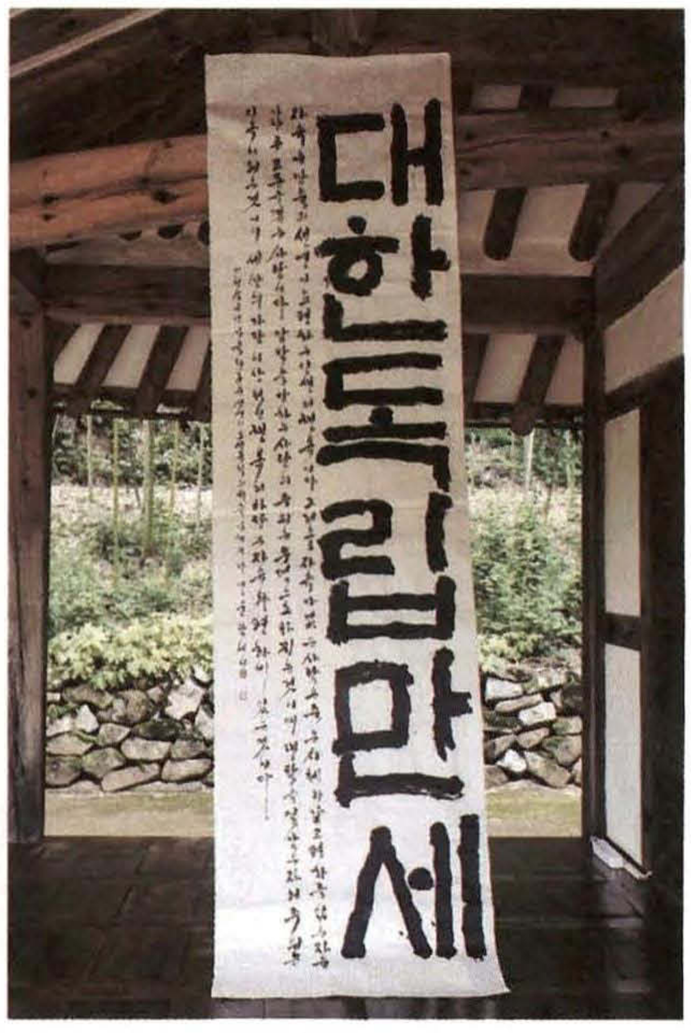
충남문화재단의 2019 신진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된 박 서예가는 이번 전시에서 주요작품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과 관련이 깊은 '기미독립선언서(490×140cm)'와 '공약삼장(70×140cm)', '조선독립의 서(70×280cm)' 등이다. 또 '사랑하는 까닭',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 일제강점기 시인들의 시 작품도 한지에 옮겼다.

특히, 서예작품 가운데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을 만방에 선언한 '기미독립선언서'는 국한문 혼용 행서체로 글자가 1762자에 이른다. 하루 8시간씩 3일 동안 써서 완성하였다.

박 서예가는 "올해 홍성역사인물축제의 주제가 한용운이다. 만해 한용운의 '그날'을 표현하고자 관련 작품을 전시하게 됐다"며 "서예전시에서는 많이 없는 야외 전시로 꾸며 날씨에 따라서 전시 공간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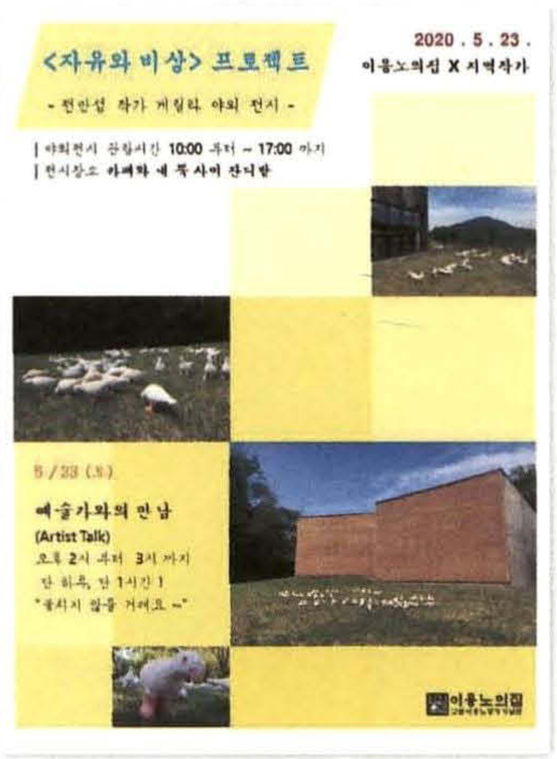


2-4. 이응노의 집 행사·방문·시설 이야기

– 2020년 이응노의 집 행사·방문·시설 이야기

코로나19 상황 속 열린 공간서 '자유와 비상' 체험하는 이색 전시 열려

이응노의 집 잔디밭, 홍성지역서 작품 활동하는 전만성 작가의 게릴라 야외 기획전시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의 예술분야에서 새로운 전시환경을 개척해가는 작가가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홍성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전만성 작가가 그 주인공.

전만성 작가가 새롭게 선보인 게릴라 야외전시 작품 '자유와 비상'이 코로나19로 달라진 전시환경에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잔디밭에서 2020년 5월 23일(토) 전만성 작가의 '자유와 비상'展이 열렸다.

'자유와 비상'은 전 작가가 테라코타 기법으로 비둘기 모양을 형상화한 가변설치 작품으로 전시 공간은 잔디가 깔린 넓은 야외공간이다.

전 작가는 "작품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작가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획 전시"라며 "열린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 전시형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 겸 자유롭게 와서 자연 속에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며 '자유'를 만끽하면 된다"고 전시공간을 소개하였다.

전 작가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으로 전 지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남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조차 누리지 못하는 부자유와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인류가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지구는 회복되고 있다"며 "지구와 인간,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은 공생할 수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사람을 기피하고 멀리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 역설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다"고 전시배경을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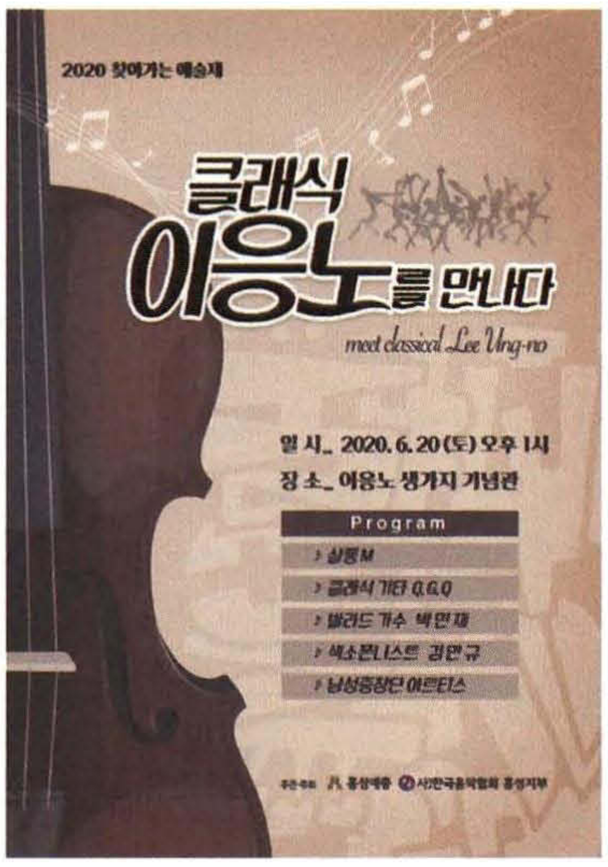
그래서 전 작가가 소재로 삼은 것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이다. 전 작가는 "인류는 드디어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감염병을 극복할 것"이라며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더 자유롭게 비상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자유와 비상'展은 이응노의 집 잔디밭 야외전시 말고도 △충남도청 남문잔디밭(5월 19일) △홍주성역사관 잔디밭(5월 20일과 6월 1일)에서 열렸다.

이응노의 집, '클래식으로 만나는 이응노' 공연 펼쳐져

'지역 거주하는 클래식 뮤지션' 모아 아름다운 선율과 목소리 들려줘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2020년 6월 20일(토) 한국음악협회 홍성지부의 '클래식 이응노를 만나다' 공연을 펼쳤다.

이날 '클래식 이응노를 만나다' 공연은 한국예총 홍성지회에서 매해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주민과 소외이웃들에게 따뜻한 예술 보따리를 선물하며 소통하는 '2020 찾아가는 예술제' 공연전시 행사로, 코로나19의 지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었다.

공연은 홍성지역에 거주하면서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클래식 남성중창단 '아르티스'(이승용·김현범·유승화·원유대·이윤석·백동현)와 클래식 실내악단 '살롱M(강재명·서솔·하가람·박혁진 등)', 클래식기타 'Q.G.Q'(이우형·조성현), 발라드가수 '박민재', 색소폰니스트 '김만규' 등이 출연하였다.

공연프로그램은 아름다운 '비목, 청산에 살리라' 등 우리의 가곡과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조르주 비제의 하바네라 카르멘 조곡, 챔피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등 클래식 고전, 우리에게 익숙한 가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고맙소' 등 초여름의 더위를 잊게 하는 아름다운 선율과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2-4. 이응노의 집 행사·방문·시설 이야기

– 2021년 이응노의 집 행사·방문·시설 이야기

이응노의 집,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인증기관' 선정

설립목적 등 5개 항목 우수성적 거둬 … 2022년 12월까지 2년 간 인증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관 '2020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 1월 11일(월) 이응노의 집에 따르면, 2020년 문체부가 '이응노의 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평가와 현장조사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하였다. 이번 문체부 인증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다.

이응노의 집은 홍성군의 제1종 공립미술관으로,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적 정신을 되새기고자 해마다 기획 및 상설전시와 교육·체험프로그램, 고암미술상 운영과 학술연구 사업 등을 진행하며, 고암 이응노 화백 선양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미술관의 질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에 처음 공립미술관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 맞아 유공자 선정 '명예군민증' 전달

이응노의 집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조성룡, 이태호, 이진경 등에 '명예군민증' 전달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이응노의 집'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명예군민증을 전달하였다.

이응노의 집에 따르면, 2021년 3월 31일(수) 홍성군청 군수실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및 창작 활동 발전에 기여한 이응노의 집 유공자 3명에게 명예군민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석환 군수는 이응노의 집 유공자인 조성룡 건축사, 이태호 교수, 이진경 작가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였다.

조성룡 건축사는 이응노의 집 건축설계로 2013 대한민국건축문화대상(공공건축부문, 대통령상 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개관준비위원으로도 활동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2010년부터 이응노의 집 개관준비위원으로 활동한 이태호 전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명예관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운영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신의 도서 1만여 권을 기증, 이응노의 집 예술문화자료실 건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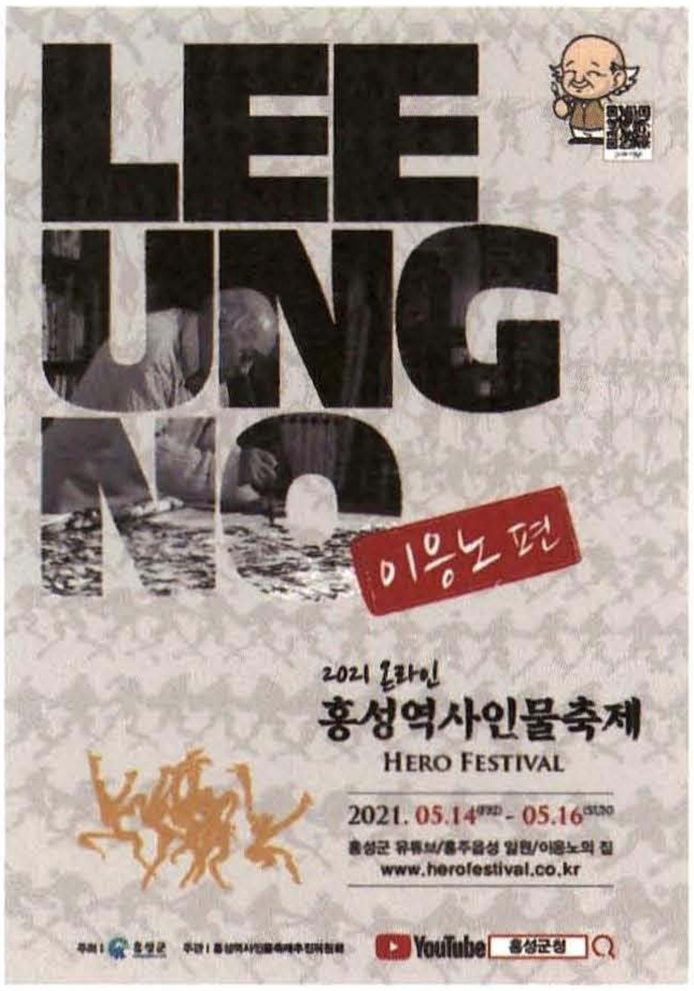
2020년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로 선정된 이진경 작가는 고암미술상의 위상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으며, 올해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전시와 관련, 홍성군 일대를 대상으로 한 작품제작 및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 2021 홍성역사인물축제 '이응노편'

2021 홍성역사인물축제 세계적인 화가 '이응노편' 개막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 맞아 고암 이응노 화백 삶과 예술정신 기리는 축제 열려



'2021년 홍성역사인물축제-이응노편'이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2021년 5월 14일(금) 오전 10시 온·오프라인 동시 개막하였다.

올해 축제의 주제인물인 고암顧菴 이응노李應魯(1904~1989) 화백. 이응노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 출신으로, 전통성과 현대성, 동·서양을 전부 아우르는 작품세계를 구축한 20세기 대표하는 세계적인 화가이자 홍성의 역사인물로 손꼽힌다.

축제는 5월 16일(일)까지 사흘간 홍주읍성과 이응노의 일원에서 펼쳐졌으며, 5월 30일(일)까지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홍주읍성에서 이응노의 작품과 제19회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 수상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야간에는 미디어 파사드로 만나는 '이응노 이야기'와 홍주읍성 스토리 월, 나무맵핑으로 조명을 담은 이응노의 예술세계를 관람할 수 있다.

이응노의 집에서는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 특별전시인 '내가 살았던 곳은' 소장품展와 이응노 군상 포토존, 배너 작품전이 열리며 '이응노 아터디 캠핑' 등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오프라인 행사장 주요 출입구에는 코로나 방역부스를 조성, 철저한 방역이 진행했고, 방문객은 방역부스의 안내를 받아 체온측정, 소독, 안심콜 출입관리전화, 스티커 부착 등 절차를 거친 후 입장하였다.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는 '해설이 있는 태평기원제', 홍성 랜선 콘서트인 △14일 홍성출신 트롯가수 3인방 '공소원·한이재·한여름' △15일 인디음악의 아이콘 '10cm(권정열)' △16일 최고의 감성보컬 '허각' 등 국내 최정상 가수들이 온라인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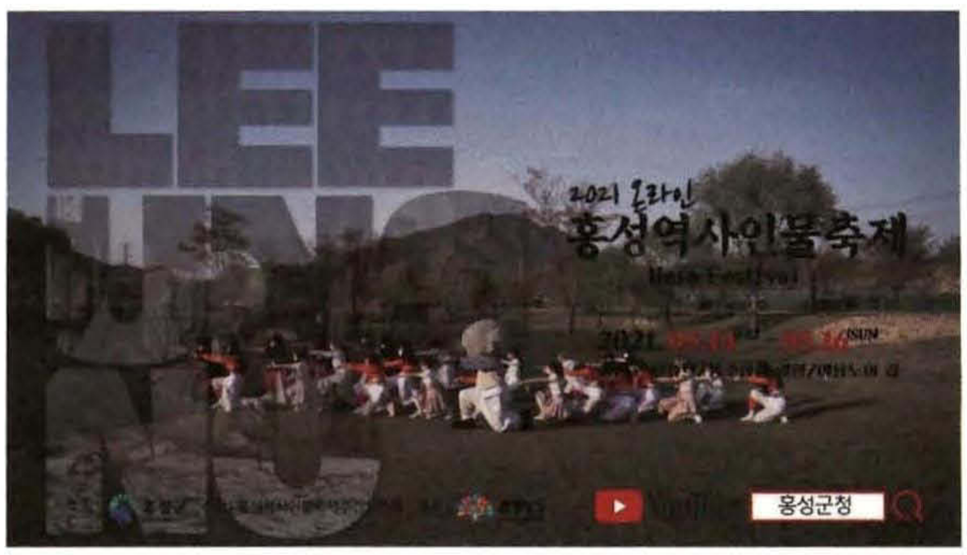


또한 14일 오후 3시 드로잉 뮤지컬 '이응노, 길'을 통해 영상과 뮤지컬로 이응노의 삶을 흥미롭게 재해석한 퓨전극을 선보였고, 15일 오후 3시에는 여행 유튜버 '여락이들'이, 16일 오후 3시에는 인기개그맨 '장동민·조현민'의 이응노의 집 방문기를 공개하였다.

그밖에 이응노 노래공연, 유튜버 이응노를 만나다, 홍성人 콘서트, 비보이 '이응노를 춤추다' 등이 홍성군청 유튜브와 홍성역사인물축제 홈페이지(www.herofestival.co.kr)를 통해 펼쳐졌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축제가 열리는 사흘간 오후 4시와 오후 6시, 홍성한우, 홍성한돈, 광천김, 광천토굴새우젓 등 지역 특산물도 판매하였다.

한편, 홍성역사인물축제는 홍성의 대표 역사인물인 최영, 성삼문, 한성준, 한용운, 김좌진, 이응노 등을 기리기 위해 현장에서 즐기면서 알아보는 에듀테인먼트 축제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으로 열리지 못하였다.





이응노의집, 개관 10주년 기념 관람객 참여이벤트 진행

이응노 생가와 전시, 연밭 등 이응노의 집 일원 사진 업로드, 기념품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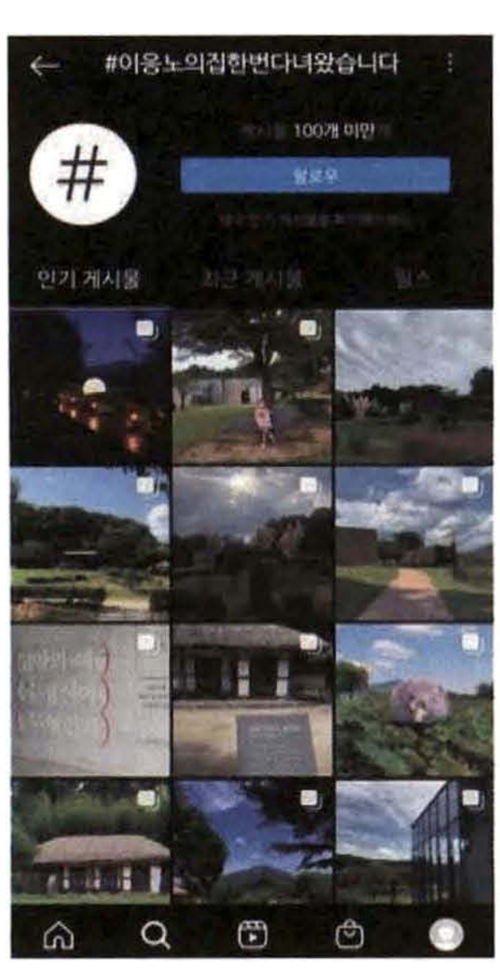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2021년 8월 한 달 동안 관람객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고자 SNS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참여방법은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이응노의 집 한 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응노의 집)와 함께 이응노 생가와 전시, 연밭 등 이응노의 집 일원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이응노의 집에서는 이벤트에 참여자 가운데 선착순 30명에게 기념품을 개별 발송했으며, 응모사진은 이응노의 집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열린 랜선 전시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 공개, 관람객들과 추억을 나누며 소통하였다. 랜선 전시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개관 10주년 기념 '고암의 춤: 평화, 공존, 화합'展 개막일인 10월 8일(금)에 맞춰 열렸다.

한편, 이응노의 집에서는 '고암의 예술정신이란 무엇인가? 역대고암미술상수상작가'展이 9월 26일(일)까지 운영되었으며, 연계행사인 학술심포지엄도 8월 28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고암의 예술정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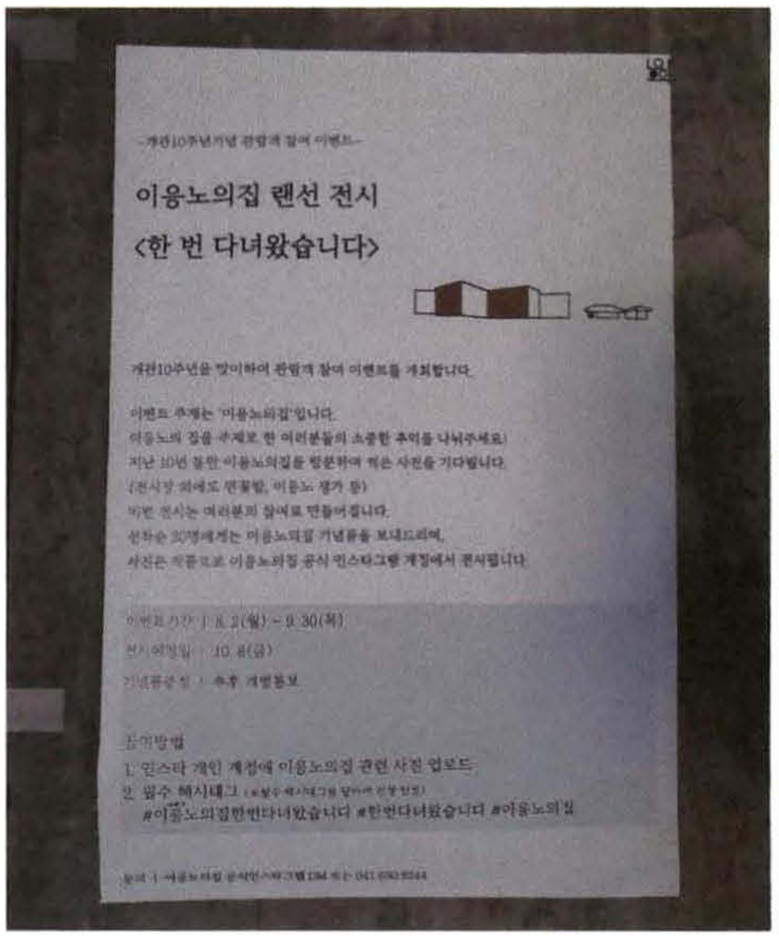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서 만나는 차이코프스키 … '트리오 오원' 내한공연

10월 14일 오후 2시 이응노 집 중앙홀에서, 홍성군 유튜브 채널서 생중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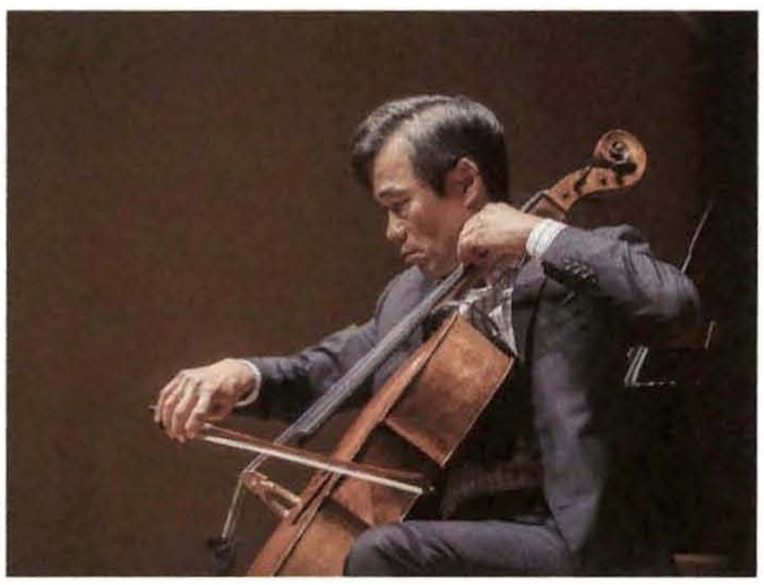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한불음악가의 예술로 우정을 이어온 '트리오 오원(Trio Owon)'의 내한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과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찾아가는 문화배달'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10월 14일(목) 오후 2시 이응노의 집 중앙홀에서 열렸으며, 홍성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었다.

이날 트리오 오원의 주요 연주곡은 '차이코프스키 러시아 피아노 3중주 가단조, Op.50'로,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는 음악의 선율은 고향 홍성에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땅 프랑스에서 눈을 감은 고암 이응노 화백의 삶과 예술을 추억하는 소중한 시간을 들려주었다.

동·서양을 넘나들며 다양한 시도와 실험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한 이응노에게 자연에서의 사생은 예술의 고향이었고,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이국땅 프랑스에서 눈을 감은 그에게 고향은 예술창작의 원천이자 늘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이응노가 생전에 오고 싶어 한 그의 고향 홍성에서 한불연주자의 선율이 펼쳐지는 온라인 음악회는 전 세계인들에게 시대를 넘어선 우정의 무대를 선사하였다.

한편, 트리오 오원은 조선시대 화가 오원吳園 장승업張承業의 삶과 예술혼을 기리는 뜻으로 붙였으며, 2009년 첼리스트 양성원을 주축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Olivier Charlier),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슈트로세(Emmanuel Strosser) 등 프랑스 파리음악원 출신의 음악가들이 실내악에 대한 서로의 열정을 모아 결성했으며, 3명의 연주자가 10년이 넘게 함께하며 완성된 실내악의 진수를 들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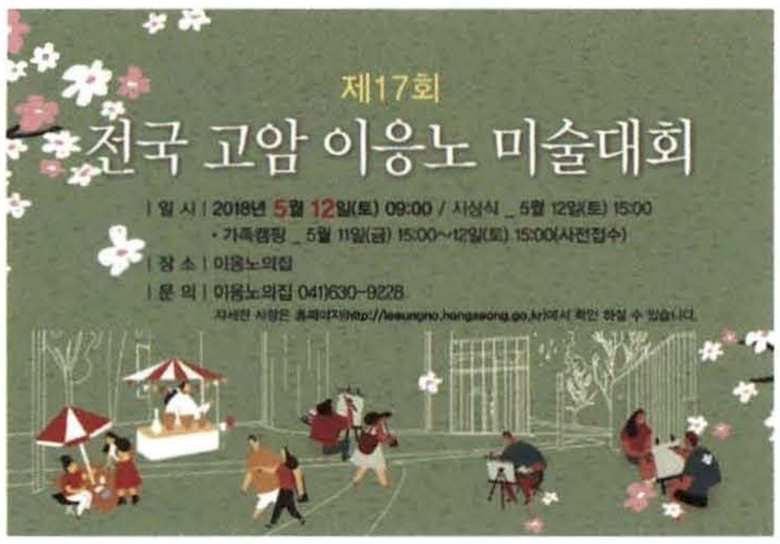
2-5. 이응노마을·홍성지역과 함께

– 2018~2019년 이응노마을과 홍성지역 연계 행사

• 이응노의 집, 2018 제17회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

마을과 연계한 '고암 이응노 미술대회' 성황리 펼쳐져

이응노마을 주민 적극 참여 속 마을장터·먹거리장터 선보여, 예술시장·알뜰시장도 열려



이응노의 집과 이응노마을,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가 함께한 제17회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가 '어느 멋진 봄날, 이응노의 집과 마을에서의 하루'를 주제로 이응노의 집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날 대회는 2018년 5월 12일(토) 오전 9시부터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것과는 아랑곳없이 참가학생 및 가족, 마을주민, 외지방문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고암이응노화백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대회는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처음 시도한 가족캠핑을 비롯해 가족중심의 미술대회와 '이응노마을장터와 먹거리장터', '예술시장', '알뜰시장' 등이 동시에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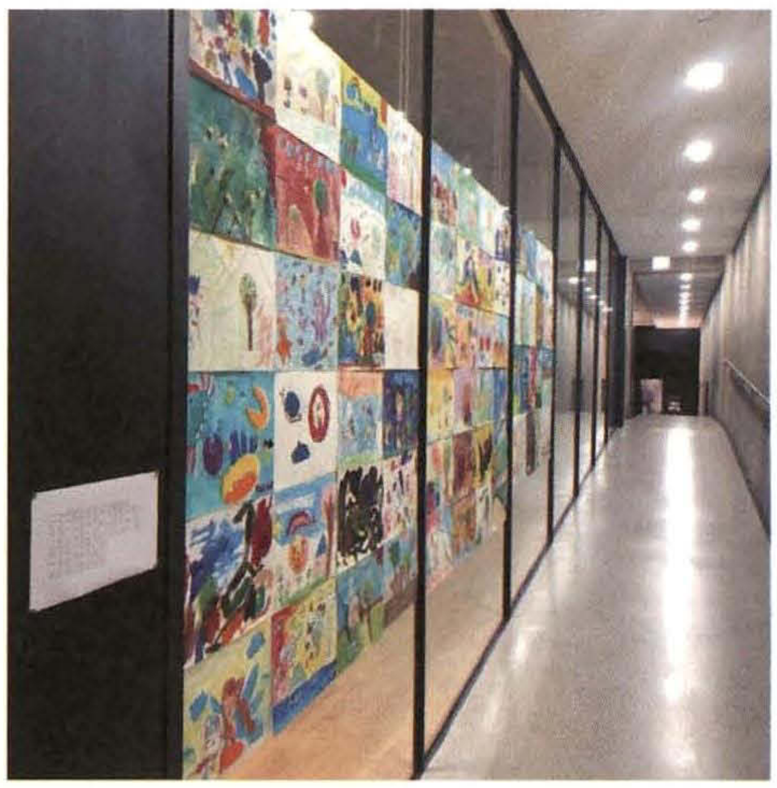

미술대회 대상 홍남초 하지효 양 영예 차지 … 이응노의 집 기획전시실 한 달여 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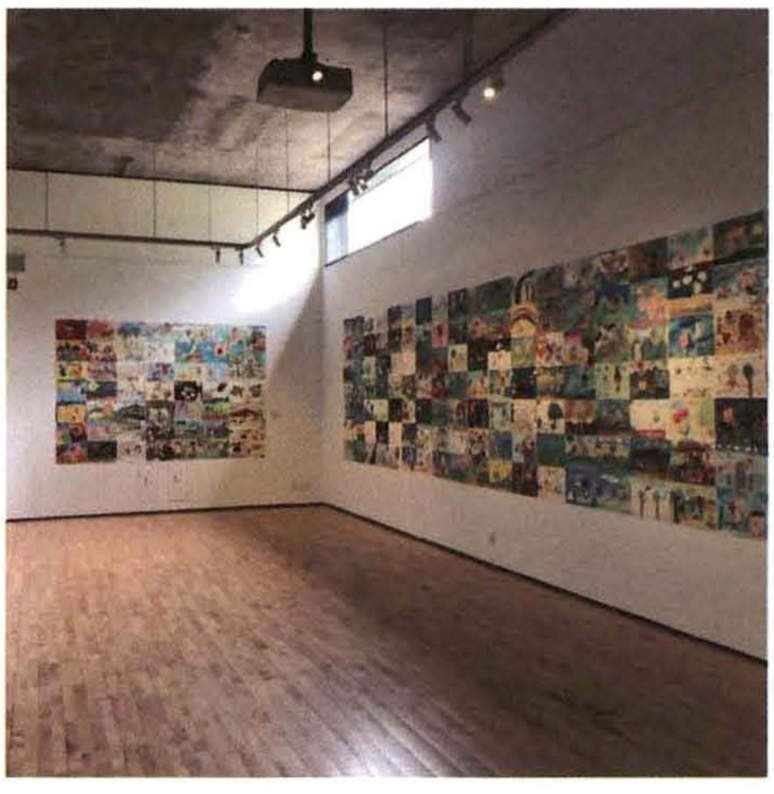
대회 영예의 대상은 초등부 하지효(홍남초 4) 양이 차지하였다. 최우수상은 유치부 윤보영(조양유치원 사랑2반), 초등부 채예림(홍남초 3)·박정옥(홍성초 5) 등 3명이 차지했으며,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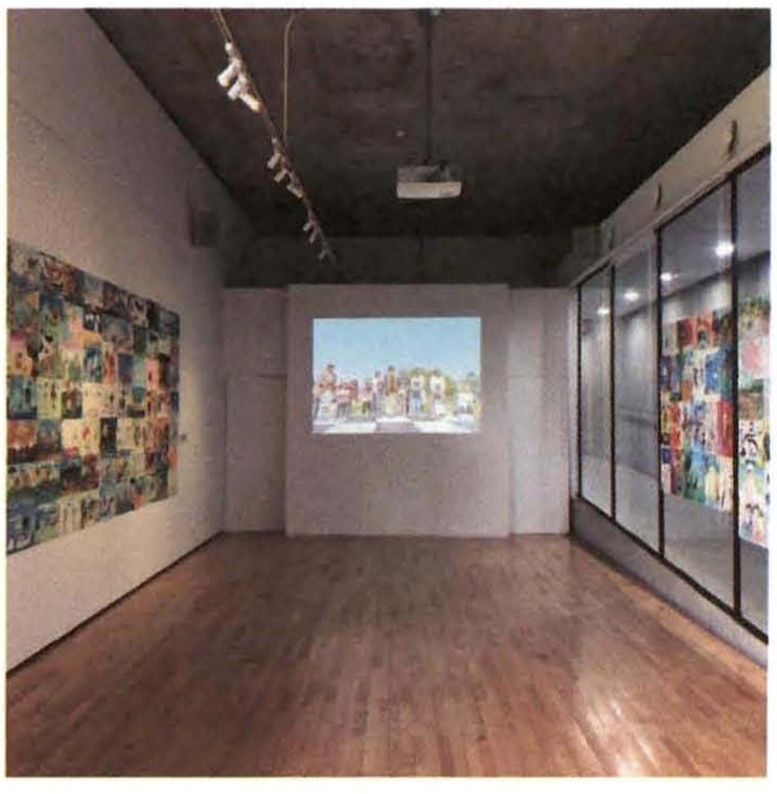
수상은 유치부 유서연(당진유치원 지혜로운반), 초등부 한채원(내포초 1)·오하은(내포초 3)·주영은(홍남초 3), 중·고등부 김지해(홍성여중 3) 등 5명이 차지하였다. 특선·입선 수상자도 당일 현장에서 시상이 이루어졌다. 상금은 문화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대상을 비롯한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 및 입선, 특별상 등 수상 작품은 6월 11일(월)부터 7월 31일(화)까지 이응노의 집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되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2018 홍성미술협회 회원전'이 이응노의 집 기획전시실에 함께 열려 많은 참석 방문객들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회원전은 5월 27일(일)까지 열려, 이응노의 집 방문객들을 맞는다.







• 이응노의 집, 2019 제18회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

눈부시게 푸르른 오월, "오늘은 내가 고암 이응노 화백"

이응노의 집 일원서 대회 열려 …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 먹거리도 풍성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과 이응노마을이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가 주관하는 '제18회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가 2019년 5월 11일(토) 이응노의 집 일원에서 열렸다.

참가대상은 유치부부터 성인부까지 5개 부분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였다. 미술대회에 접수한 인원은 500여 명이었지만, 미술대회 참가와 함께 이응노의 집을 관람하려는 가족단위 인원이 많아 실제 방문객은 1500명을 넘었다.

고암이응노화백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대회는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가족캠핑을 비롯해 가족중심의 미술대회와 '이응노마을장터와 먹거리장터', '예술시장', '알뜰시장' 등이 동시에 펼쳐졌다.

이날 대회는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 풍선아트 공연, 행운을 잡아라! 퀴즈쇼,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솜사탕과 팝콘 무료제공 부스도 마련되어 아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공연 외에도 벼룩시장, 물건에 예쁜 글씨를 써주는 켈리그라피, 자신이 만든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프리마켓 등이 열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응노의 어린 시절 전통 문인화 그림세계 존경 담아 매·난·국·죽(사군자)로 시상방식 바꿔

특히, 올해 대회부터는 시상방식을 바꿔 기존의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없애고, 대신 이응노의 어린 시절 전통 문인화(특히 사군자)로 시작한 그림세계에 대한 존경을 담아 매·난·국·죽의 사군자 이름을 따서 많은 참가학생들에게 입상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입상자 명단은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화상(유아유치부)은 김선율, 김세아(글로벌유치원), 배서연(프라임유치원), 신이수(한내어린이집), 유하연(움트리어린이집), 정가빈(글로벌유치원), 조은우(샬롬어린이집) 등 7명이다.

난초상(초등부 저학년)은 박민수(내포초 1), 송시우(홍성초1), 이신후(내포초 1), 이한결(내포초 2), 전승(구항초 2) 등 5명이며, 국화상(초등부 고학년)은 권예서(홍성초 5), 김아영(한울초 5), 안소이(내포초 5), 원지은(홍성초 5), 최수아(홍남초 6) 등 5명이다.

대나무상(중·고등부)은 이은호(홍동중 1), 장건호(덕산중 3) 등 2명이며, 이응노마을상(성인부)은 김아름, 김해연, 김현옥, 윤수길, 이은미 씨 등이다. 창의상은 김연호(가람유치원) 외 100여 명이다.

수상작품 전시는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기념관내 기획전시실에 전시된다.

한편, 2019년 올해 현장접수로 진행한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는 2020년부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접수로 바꿔 시행한다. 접수는 2020년 4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이응노의 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5. 이응노마을·홍성지역과 함께

– 2020년 이응노마을과 홍성지역 연계 행사

•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 관련 청운대학교 '지역문화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청운대학교, '이응노' 활용한 지역문화프로그램 개발 한창

이응노와 이응노의 집, 이응노마을 대상 지역문화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진행
마을주민과 문화예술전문가(단체) 결합 … 내년 홍성역사인물축제 활용 예정

고암 이응노 화백과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이응노마을을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이 한창이다.

청운대학교(이우종 총장)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홍성역사인물을 활용한 지역문화 프로그램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문화재단, 문화예술전문가(단체)가 협력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의제를 선정,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진행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타당성을 심사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2021년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을 맞아 홍성역사인물 6인 가운데 이응노와 이응노의 집, 이응노마을을 선정, 문화예술전문가(단체)과의 결합을 통해 특화된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내년도 홍성역사인물축제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하는 컨설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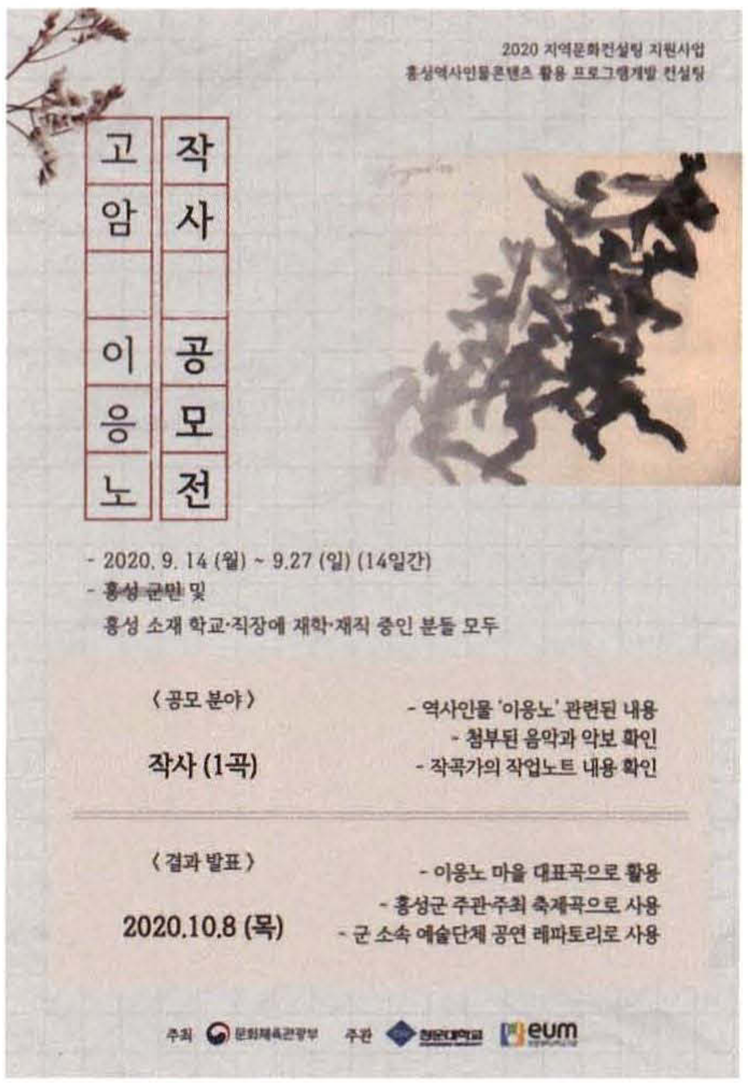
2020년 7월 22일(수) 홍성군과 청운대는 1차 관계자 및 지역참여자 워크숍을 통해 '음악을 통한 특화된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로 컨설팅 방향을 잡아, 관련 문화예술전문가(단체)의 실태조사와 대상선정,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청운대 김서룡 교수(연출)와 김성배 교수(음악), 이응노마을 전상진 마을신문 편집인 등이 전문가로 함께 참여해, 이응노의 생애와 예술정신을 조사 연구하고, 이응노의 집과 마을을 방문,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방법을 직접대면과 설문조사 등으로 조사해 문화예술전문가(단체)와의 결합을 컨설팅 하였다. 사업책임자인 청운대 구은자 교수는 "홍성군과 청운대가 마을주민, 문화예술전문가(단체)와 수차례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문화적 가치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청운대는 2019년 지역문화컨설팅 공모사업에서 '홍성역사인물 콘텐츠를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지역민 참여) 개발 컨설팅'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인센티브 사업비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청운대학교, '이응노' 활용한 지역문화프로그램 개발활성화 논의

이응노, 이응노의 집과 마을 대상 지역문화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학술세미나' 개최
마을주민과 문화예술전문가(단체) 결합 … 음악 특화한 평화 꿈꾸는 '별들의 춤' 개발
2021년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 기념행사와 홍성역사인물축제 등 레퍼토리로 활용



고암 이응노 화백과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이응노 마을을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을 마무리 하면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청운대학교와 홍성군은 홍성역사인물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최종 보고에 앞서 '지역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연 것.

이번 학술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2020년 12월 3일(목) 줌(zoom) 화상을 통해 열렸으며, 청운대 구은자 공연기획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컨설팅 참여연구원과 관련 교수진, 홍성군 담당자, 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대상인 홍성역사인물 가운데 이응노 관련 콘텐츠 개발 방향과 결과에 대한 사회자의 구체적인 설명에 있었다. 이어 김서룡 공연기획경영학과 교수의 '지역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 방향'과 최인호 관광경영학과 교수의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문화관광'에 대한 주제발표와 참석자들 간 열띤 토론 속에 진행되었다.

먼저 최인호 교수는,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창조적이고 일등이라는 지역관광의 절대가치 정립과 융복합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남는 스타일리시한 관광소비 촉진과 리서치 기반이 튼튼한 관광트렌트 워칭파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참멋과 맛이 살아난 내발적 관광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만의 독특한 자율적인 관광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김서룡 교수는, 지역 문화예술 및 문화자원,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실태 등의 조사를 기반으로 한 지원방안 마련과 홍성역사인물 6인(최영·성삼문·한성준·한용운·김좌진·이응노)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홍성역사인물 6인 가운데 대상인물은 2021년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을 맞아 이응노, 이응노의 집과 마을을 선정, 문화예술전문가 또는 단체와의 결합을 통해 특화된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내년도 홍성역사인물축제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하는 컨설팅의 일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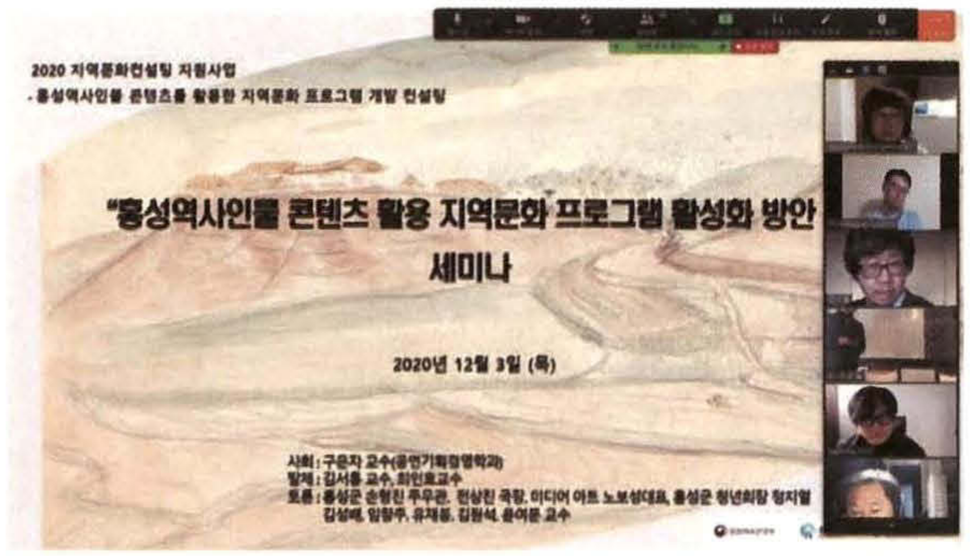
이어 컨설팅 방향은 '음악을 통한 특화된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로 잡아, 관련 문화예술전문단체의 실태조사와 대상선정,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코리아트 작곡가 한웅원 씨에게 곡을 의뢰했고, 이응노의 '군상群像' 모티브 속에서 민중들의 자유와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이미지를 '별들의 춤'으로 비유해 선율을 완성하였다. 작사는 공모로 통해 선정된 이예솔 씨의 이응노가 꿈꾼 '평화로운 세상' 가사가 채택되어 향후 홍성군립국악관현악단의 레퍼토리,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와의 협연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시점을 정해 2021년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 기념행사와 홍성역사인물축제 등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학술세미나는 '지역문화프로그램 개발컨설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은 이응노, 이응노의 집과 마을을 선정,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홍성군과 청운대 산학협력단의 협력사업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홍성군과 청운대 산학협력단은 지역주민, 문화예술전문가(단체)과의 수차례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고, 이번에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컨설팅 기록화,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 활용 계획 논의를 거쳐 최종 연구보고서 등을 제작하였다.





홍성미술협회 '현대미술의 현재와 미래' 이응노의 집서 전시

코로나19 위기 속 '위로와 새로운 시작' 주제로, 제18회 내포현대미술제 열려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잔디광장에서 2020년 9월 18일(금)부터 25일(금)까지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지부장 이은련)가 주최·주관하는 제18회 내포현대미술제가 열렸다.

이번 미술제는 코로나19와 태풍의 엄습 등 올해 겹친 여러 가지 악재를 겪어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접근해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화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했던 이들의 심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열렸다.





미술제 전시 공간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흰 천을 배치해 세우고 각 면에 다양한 기법으로 그려낸 지역 활동작가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이미지로 프린트해 야외에서도 작품의 훼손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번 미술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관람할 수 있도록 이응노의 집 잔디광장에서 열려, 자녀와 함께 한 가족들이 많이 찾아 작품을 감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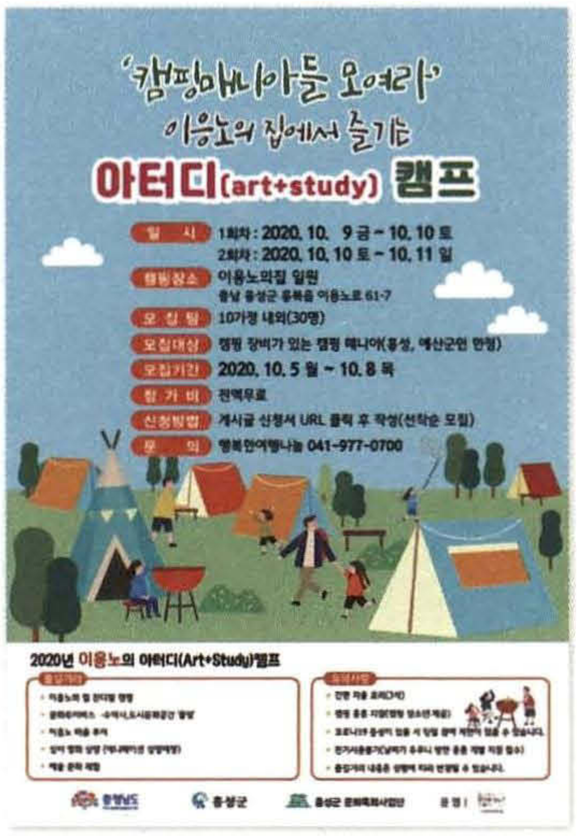
이은련 지부장은 "이런 계기를 통해 참여 작가 간 협조와 상호친화를 유지함으로써 한국미술의 무한한 발전과 긍정적 방향 모색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수준 높은 작품을 선뜻 내주셔서 내포현대미술제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였다.



• 2020년 이응노마을과 홍성지역 연계 행사
[2020 이응노의 집, 이응노 예술캠핑 아터디(Art+Study) 캠프]

이응노의 집, '이응노 예술캠핑 아터디(Art+Study) 캠프' 운영

홍성문화특화사업단·행복한여행나눔 기획운영 … 이응노의 집 일원서 '예술캠핑' 즐겨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는 2020년 10월 9~10일(금·토) 이틀간 '이응노 예술캠핑 아터디(Art+Study) 캠프'가 열렸다.

'이응노 아터디 캠프'는 홍성 출신으로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아우른 독자적인 예술을 선보인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세계와 정신을 체험하고 배우며 즐긴다는 목적으로,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이 기획하고 행복한 여행 나눔(이하 행여나)이 운영한 1박 2일 프로그램이다.

사업단은 '이응노의 고향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체험 캠프'를 기획, 1박 2일 동안 캠핑DAY와 가족추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캠프는 총 47명(1회차 27명, 2회차 20명)이 참가, 첫째 날에는 텐트 설치 후 문화투어버스를 타고 수덕사를 방문, 이응노 숨결이 어려 있는 수덕여관과 선미술관 등을 둘러보았다. 이어 수덕사 경내 관람을 마친 후에는 내포야생화와 도시농업공간 '들빛'으로 이동, '야생화 화분 만들기' 체험을 즐겼다. 텐트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저녁식사 후 가족 추억을 담은 영상과 영화, 문화도시홍성 공모전 영상 등을 시청하였다.







둘째 날에는 어른 대상 '가죽지갑 만들기'와 아이 대상 '들풀종이 만들기' 체험을 했으며,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와 이응노 생가, 기념관 전시 관람 등 이응노의 집 투어로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이응노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투어 하는 것은 좋지만, 캠핑에 집중한 체험 프로그램 활동이 더 필요하다", "이응노의 집 산책은 참 좋았지만, 전기시설이 안 되고 개별 공간을 침해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장단점을 밝혔다.

행여나 김영준 대표는 "이응노의 예술문화 확산을 위해 '캠핑'을 접목시킨 만큼 버스투어가 아닌 이응노의 집에서 이응노의 삶과 예술을 경험하거나, 대표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기획해야 한다"며 "개수대와 화장실, 샤워장 등 추가설치가 필요하고, 외부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캠핑장 주변 칸막이와 출입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5. 이응노마을·홍성지역과 함께

– 2021년 이응노마을과 홍성지역 연계 행사

• 이응노의 집, 2021 제19회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

가정의 달 5월, 온가족 함께하는 '고암 이응노 미술대회' 열려

이응노의 집 일원서 올해 열아홉 번째 열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대회 진행



이응노의 집과 이응노마을이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가 주관하는 '제19회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가 2021년 5월 15일(토) 오전 9시부터 이응노의 집 일원에서 펼쳐졌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에 따라 열리지 못했으며, 이번 미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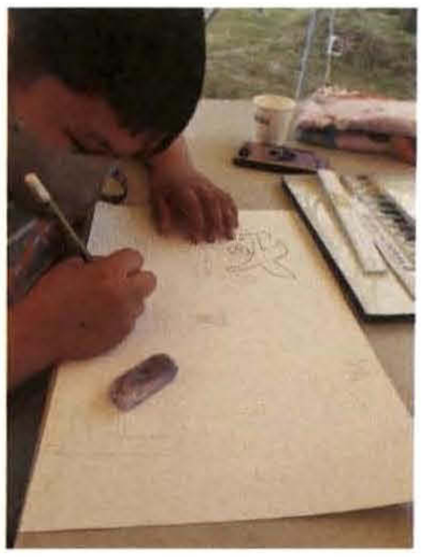
올해로 열아홉 번째 이어온 미술대회는 2011년 건립된 이응노의 집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혼과 화가 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친 가족들이 함께 오랜만에 외출해 이응노 생가 앞에 펼쳐진 잔디밭에서 이응노의 집과 푸르름 가득한 주변경관을 담아내며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로 나눠 수채화와 소묘, 디자인, 만화, 한국화, 서예 등 재료와 표현기법 제약이 없고, 유치부와 초등부는 이응노 그림 일부 응용해 그리기, 중고등부는 이응노와 이응노 작품, 이응











노의 집 주변풍경 그리기 등으로 참가하였다.

참가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100명(4인 가족 기준, 총 400명)으로 제한했으며, 시상은 5월 29일(토) 오전 10시 매화상, 난초상, 국화상, 대나무상, 창의상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였다.

이번 대회 수상자는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입상작품은 5월 29일(토)부터 6월 13일(일)까지 이응노의 집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하였다.

홍성미술협회 이은련 지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미술대회가 열지 못해 아쉬웠다. 어린 시절부터 화가를 꿈꾸었던 고암 이응노처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념관과 주변경관의 아름다움을 직접 담아낼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를 열게 되어 기쁘다"며 "고암 이응노의 미술혼이 담긴 대회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 온가족이 함께 봄 소풍처럼 즐기며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응노의 집, '이응노 예술캠핑 아터디(Art+Study) 캠프' 운영

2021 홍성역사인물축제 '이응노편' 연계 다양한 캠프프로그램 기획 운영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일원에서 2021년 5월 14~15일(금·토) 이틀간 '이응노 예술캠핑 아터디(Art+Study) 캠프'가 열렸다.

'이응노 아터디 캠프'는 홍성 출신으로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아우른 독자적인 예술을 선보인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세계와 정신을 체험하고 배우며 즐긴다는 목적으로,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이 기획하고 행복한 여행 나눔(이하 행여나)이 운영한 1박 2일 프로그램이다.

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이응노의 고향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체험 캠프'를 기획, 1박 2일 동안 캠핑DAY와 가족추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특히, 올해는 2021 홍성역사인물축제 '이응노편'에 맞춰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캠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와 마스크 의무착용, 인적사항 기재 및 참가자 인원 조정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는 이응노의 집 투어를 비롯해 렌선 아트투어, 쿠키에 그림 그리기와 가족명패 만들기, 군상 그리기, 한국화 콜라주, 연잎차 체험, 가족영화 상영 등 가족형 예술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캠프프로그램 대부분 만족하나, 교육프로그램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행여나에서는 '이응노 아터디 캠프' 프로그램을 2박 3일 또는 일주일간 늘리는 방안, 대상에 따른 다양한 주제 프로그램 개발, 홍성 역사인물 생가지와 유허지 활용방안, 시즌별(사계절) 캠프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 2021 이응노마을·이응노의 집 협력 기획 〈익명의 개척사〉 프로젝트 전시

이응노마을과 이응노의 집 협력 기획한 '익명의 개척사' 전시 열어

최초·청년·매체·문화개척자 나눠 릴레이 개인전, 양주명 이장 "시대의 개척정신 회고"

'이응노마을(홍천마을)'과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의 협력프로젝트 기획전시인 '익명의 개척사'展이 2021년 9월 7일(화)부터 11월 27일(토)까지 마을 '별의별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응노의 집 정보경 학예연구사는 전시명칭에 대해 "의미 가운데 '익명'은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를, '개척사'는 고암이응노 화백이 1926년 전라북도 전주로 내려가 '개척사開拓社'란 간판점을 차려 운영한 사실을 뜻한다"고 설명하며, "홍성이 새로운 익명의 개척 발판이 되고자 〈익명의 개척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최초의 개척자', '청년의 개척자', '매체의 개척자, 문화의 개척자'라는 4개 주제로 나눠, 릴레이 개인전 형태로 진행되었다.

참여 작가는 최윤희, 김나영·함다은, 모은미, 예술창고 오롯 등이다. 또 11월 6일(토)부터는 마을 '문화예술잔치'와 연계한 '결과보고 전시'도 열렸다.

양주명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장은 "마을복지회관으로 사용한 新舊회관 2개소를 각각 '별의별 갤러리', '별의별 도서관'으로 명칭을 정하고, 주민과 지역을 방문한 다양한 분(익명)들이 쉬어갈 수 있는 열린 장소"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암 이응노 화백의 인생과 작품세계를 선보이며, 시대의 개척정신에 대한 질문과 해답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번 전시 장소인 '별의별 갤러리'는 이응노의 고향 이응노마을 주민들이 결성한 마을사업추진위를 바탕으로 지역 내 유휴공간인 마을복지회관을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특집〉 2021년 〈익명의 개척사〉 기획프로젝트

이응노마을+이응노의 집 상생협력으로 성장하는 '문화도시'

이응노의 집 일원서 올해 열아홉 번째 열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대회 진행

올해(2021)는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10년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한국건축문화대상(KAA)(2013)', '충남 대표 국·공립 미술관선정(2021)', '고암미술상',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운영 등 부지런히 성장해 왔다.

이 같은 발전은 기념관뿐만 아니라 주변 풍경(마을)도 바꿔놓았다. 특히, 흥미로운 발전으로 '홍천마을(홍성군 홍북읍 중계리)'을 손꼽을 수 있다. 홍천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이응노마을'로 불린다. 마을 이름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고암 이응노 화백(1904~1989)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다.

"예술이란 자신의 뿌리를 나타내는 작업입니다 … 저는 원래 충남 홍성사람입니다."

– 〈고암 이응노, 삶과 예술〉, 고암미술연구소 엮음, 339쪽

'농촌마을'에서 '예술마을'로 변화된 시점은 2015년 '문화특화마을 조성'사업(2015~2017)에 선정되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역량결집 후 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북카페(도서관) 조성, 도자기 공방, 산야초, 목공소 마을 기업화, 연밭 운영 등이 시작되면서 막을 열었고, 이후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2018~2021)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예술마을로써 돈독한 형태가 갖춰졌다.

여기서 말하는 '돈독함'이란, 이응노의 집(충남대표 국·공립미술관)과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동체' 협력을 말하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익명의 개척사〉 프로젝트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익명의 개척사〉란 전시명은 이응노의 삶과 실질적으로 이뤄졌던 그의 활동에서 착안하였다. 이응노의 예술 흔적을 추적해 보면, 국내·외의 다양한 지역을 '익명'으로 떠돌며 낯선 환경에서 재료와 장소에서 구애받지 않고, 늘 새로운 실험과 창작을 선보였던 도전 정신을 담았다.

1926년 전라북도 전주로 내려가 '개척사開拓社'란 간판점을 차려 운영했던 사실을 통해 고암의 예술정신을 선양하며, 새로운 익명이 이곳(홍성)에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자 〈익명의 개척사〉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어떤 작가를 선정할 것인가?"였다. 여러 고민을 통해 나온 결

과, 최종 선정 기준을 네 가지의 분류하여 작가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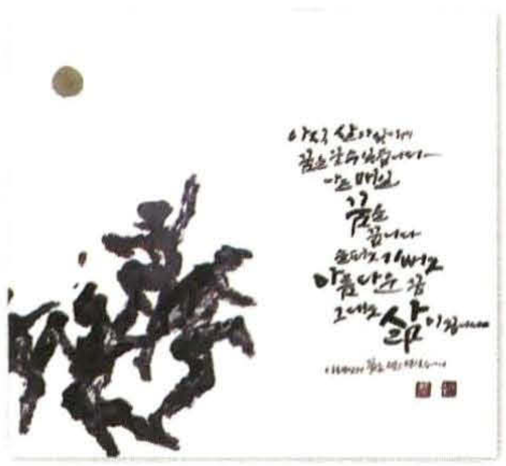
첫 번째는 이응노 화백이 '개척사'란 사업을 시작했던 23세(1926년)의 나이를 고려하여 20대 청년들에게 도전, 실험적인 무대(전시)와 기회를 주고자 〈청년의 개척자〉 분야에 김나영·함다은 학생(청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을 선정했으며,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2인전 방식으로 전시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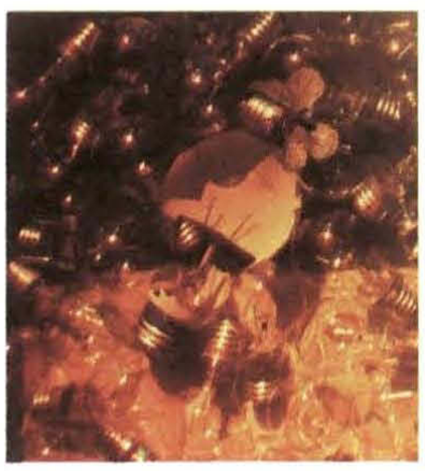
두 번째는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창작활동을 해지만, 정작 개인전 발표를 한 번도 가지지 않은 작가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개척자〉에 최윤희(캘리그라피) 작가를 선정하였다. 특히, 최윤희 작가는 캘리그라피(서예) 방식으로 과거 고암 이응노의 사의적 추상 시기의 대표작인 '문자추상'과 '글자·문자'라는 단순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이응노의 어록에서 발췌한 캘리그라피로, 이응노와 연계성을 가져본다.







세 번째는 늘 상 새롭고 다른 방식을 연구하며 끊임없는 상상력을 키워갔던 이응노의 창작 정신을 기반으로 한 〈매체의 개척자〉에 모은미(홀로그램) 작가를 선정하였다. 모은미 작가는 아트 & 테크롤로지란 '예술+과학'의 융·복합적인 방식을 통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기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재료와 방식을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는 '별의별' 작은 도서관을 연구실로 활용하며, 지역의 문화, 장소, 예술활동가 등 '지역예술생태'를 연구하고, 주민(관객)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개발과 아트마켓, 프리마켓 등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의 개척자〉에는 예술창고 오롯(팀명)이 선정되어 3개월간(9~11월) 활동을 이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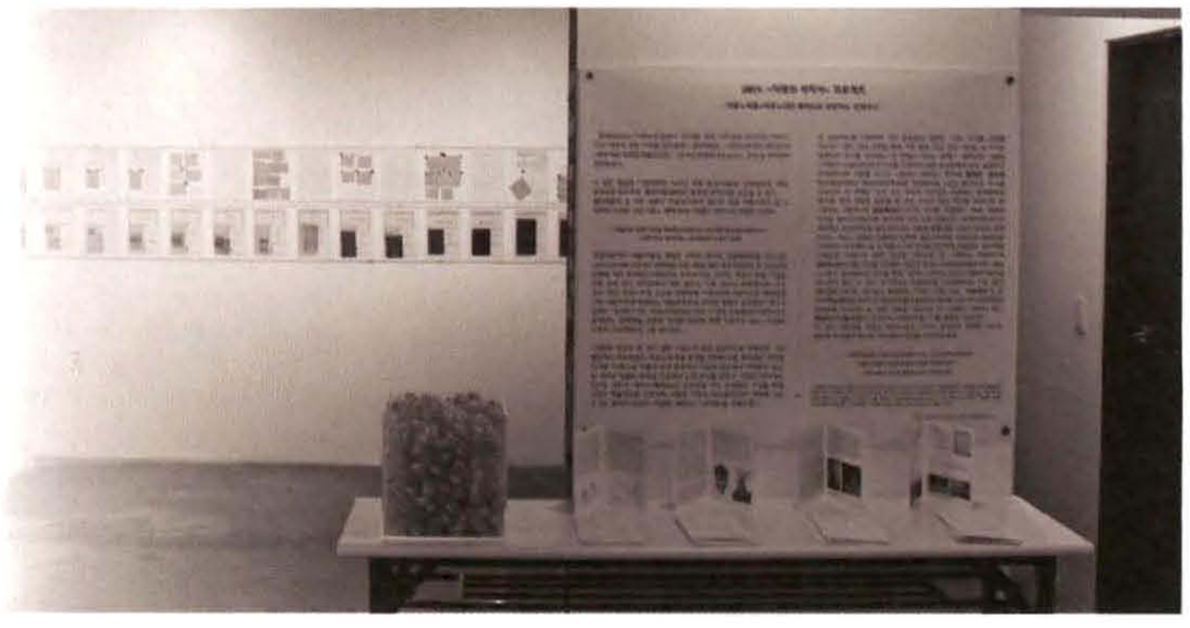
이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개척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실험한 창작물과 탐구된 작업(품)의 결과(결과물 전시 11월 6~27일)를 선보이게 된다.

"끝까지 탐구할 수 있는 정신이 위대한 것이고, 그것이 성공의 바탕이야.
그림을 그렸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해 봐야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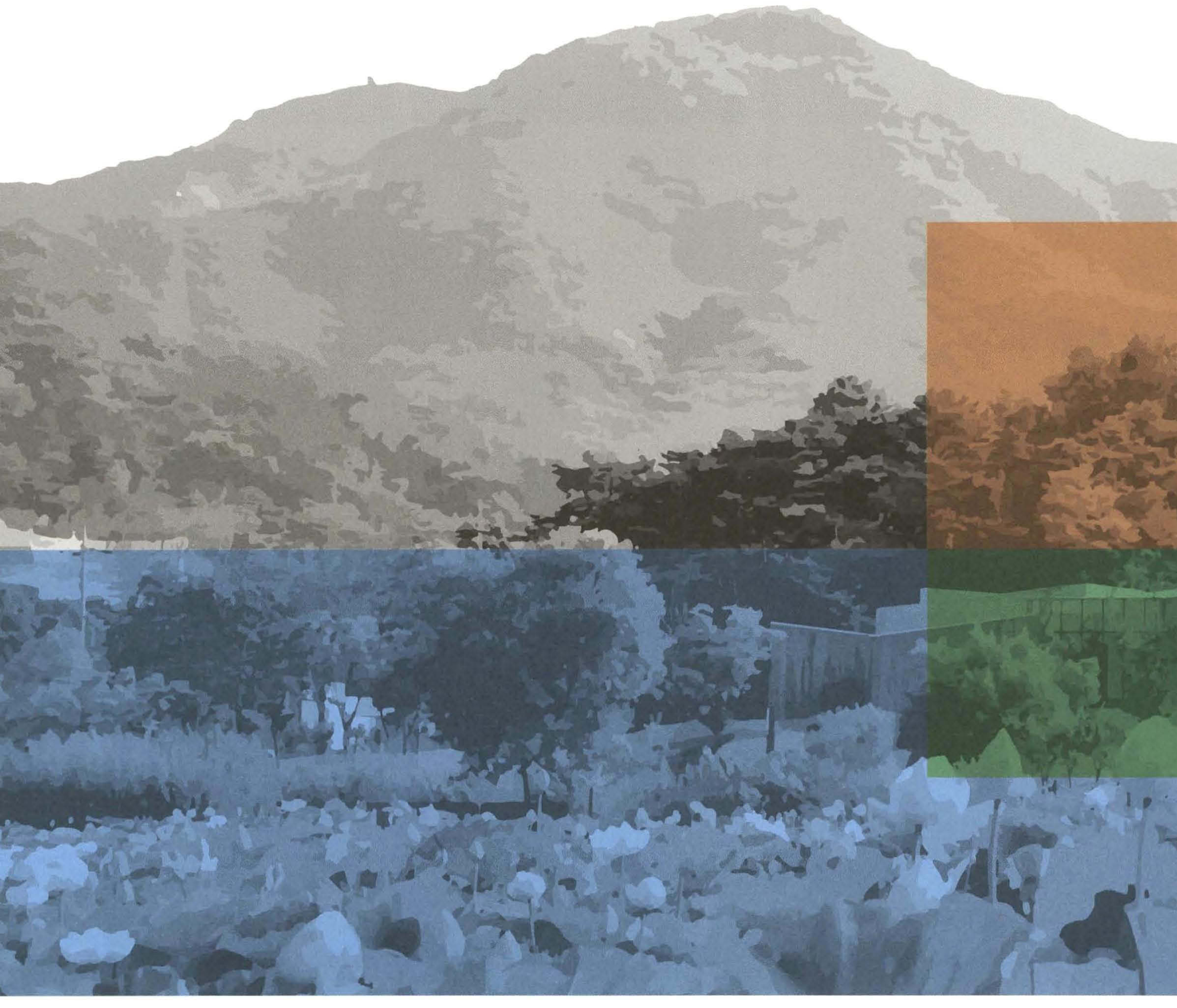
– 〈화가 이응노, 붓으로 평화를 그리다〉, 김학량, 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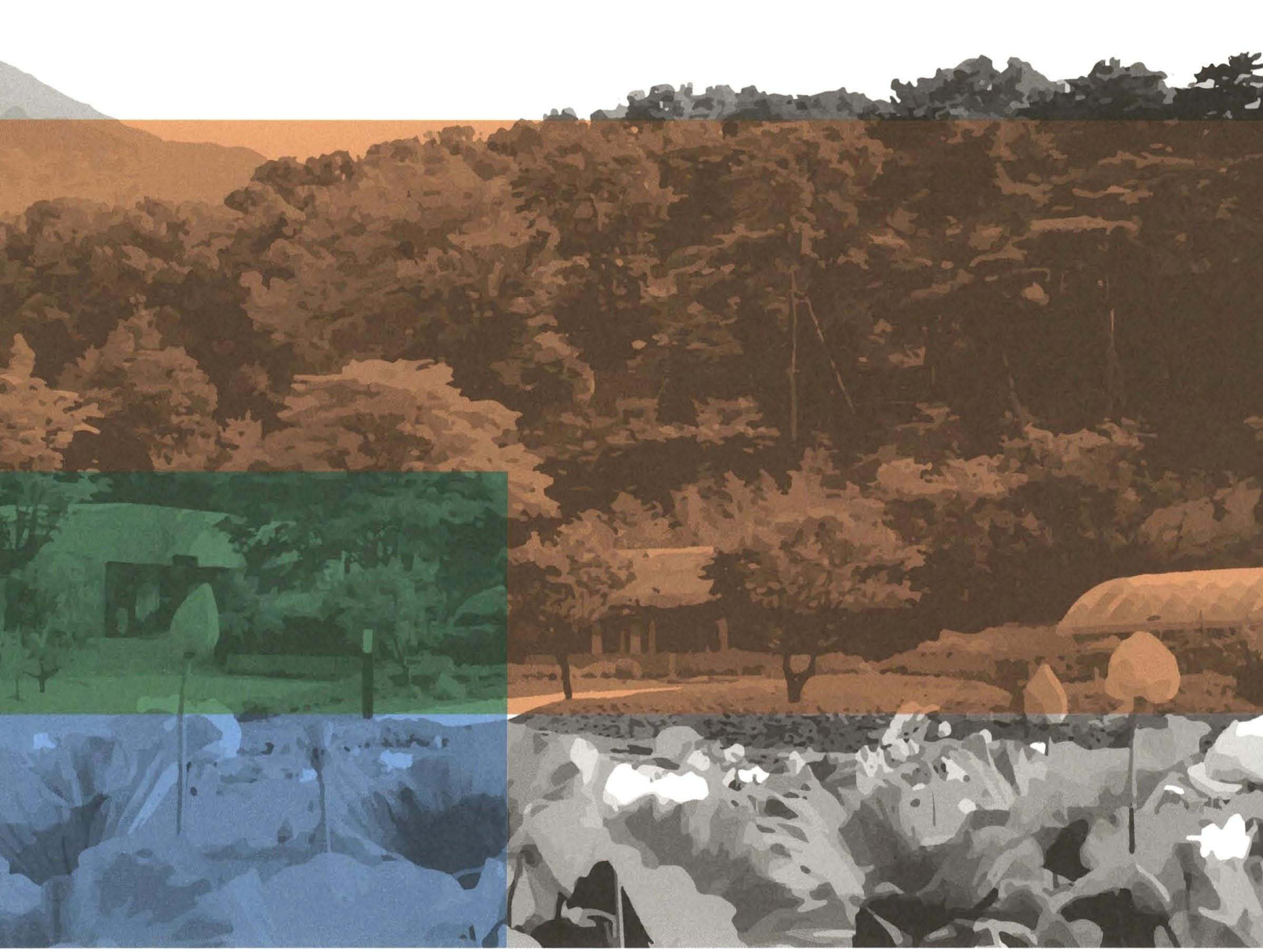
〈익명의 개척사〉는 '이응노마을(양주명 이장) 주민과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별의별' 공방의 꾸준한 지역 개발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특히,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을추진위 운영회의를 통해 전시방향 및 기획취지에 주민–추진위–의 화합과 사업비 지원, 홍성군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이응노의 집 행정팀, 전문 학예연구사들의 단합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응노마을+이응노의집'의 소개를 마친다.



※ 출처 : 〈익명의 개척사 프로젝트〉, 정보경(이응노의 집 학예연구사) (2021. 9. 7.) 전시 서문글





2017–2021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 사업

[이응노마을 문화재생 '별의별' 이야기]

본 도서는 2017~2021년 시군창의사업 '신농촌문화재생중심지'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 · 충청남도 · 홍성군의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주관처에 있습니다.

편집인
전상진

발행인
양주명

발행일
2021. 12. 31.

발행처
이응노마을사업추진위원회
주소 | 32251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100
전화 | 010-3125-6138, 010-9266-5721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홍성군 이응노의 집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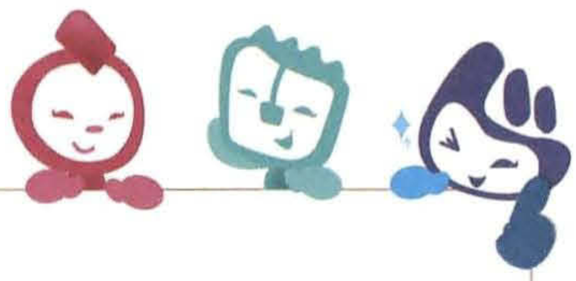
주관
이응노마을 사업추진위원회

기획총괄
양주명

기획운영
유성진

취재·편집
전상진

제작
일레븐로하스 주식회사



함께한 사람들 홍천마을사람들 홍성군 홍성군의회 충청남도 농림축산식품부 양주명 유성진 권재완 김숙자 방정일 이상일 신동학 이 섭 전상진 정지연 | 김종석 임민숙 권재완 박혜선 채정옥 신정원 오희숙 노수경 정은숙 최미옥 김진선 | 공필재 조명보 송병숙 윤홍숙 이경숙 | 윤후영 이수연 신나라 황찬연 정보경 서상림 노태훈 전범석 강연현 박은정 外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5년 동안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이응노마을, 이응노李應魯의 꿈, ”

문화재생으로 열매 맺다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